

# 통계보도기사모음집

('91. 1. 1~'92. 12. 31)

1994. 11

통 계 청

## 머 리 말

최근 우리사회는 안팎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밖으로는 우리나라가 '96년에 OECD에 가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등 국내외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통계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우리 통계청에서는 통계의 신뢰성 제고와 신규통계개발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청은 지난 '90. 12. 2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통계청으로 승격된 이후 국가통계발전을 위하여 기본통계의 개선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각종 지역통계개발에 주력하여 지역내 총생산(GRDP) 및 지역산업활동동향 등의 통계를 생산하여 지역경제정책 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에 대한 인식제고와 조사환경개선을 위하여 조사통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통계도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망(KOSIS)을 통하여 통계자료를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확대하여 통계자료 제공범위도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청 승격이후 '94년 상반기까지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등에 보도된 각종 통계관련 기사를 종합정리하여 통계청의 발전과 위상을 재정립 해보는 의미에서 「통계보도기사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통계를 통한 당시의 경제사회상을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여 놓은 것으로서 향후 국가통계발전과 홍보방향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부문은 물론 기업경영과 연구분야에서도 유익하게 활용되리라고 봅니다.

그간 통계조사와 보도에 협조하여 주신 조사대상처와 각 언론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청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4. 11.

통계청장 이 강 우

# 목 차

## □ '91년 1/4분기(1~3월) 보도 기사

○ 통계청 현판식 .....	5
○ 초대 통계청장 인터뷰 .....	6
○ 통계정보 시스템 개통 .....	8
○ '91년 1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9
○ '90년 12월중 산업활동동향 .....	12
○ 우려되는 경기침체·물가상승(사설) .....	14
○ 우려되는 고용구조 변질 현상(사설) .....	15
○ 千字칼럼(미래의 인구지도) .....	16
○ '89~'90년 영아사망률 .....	17
○ '90년 4/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	19
○ '91년 2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23
○ 통계청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 .....	28
○ '91년 1월중 산업활동동향 .....	30
○ '91년 1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	31
○ 시·군 인구 입맛대로 부풀린다 .....	32
○ 인구통계의 고의적 조작(사설) .....	36
○ 인구통계 거짓은 나라살림 해친다(사설) .....	37
○ 통계조작 특별감사 .....	38
○ 국민소비 변천사(물가산정 품목) .....	38
○ 물가산정 방식 전면조정 .....	40
○ 물가편제 방식의 개선책(사설) .....	41
○ '90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	42
○ '90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관련 사설 .....	43
○ '91년 3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44

## □ '91년 2/4분기(4~6월) 보도기사

○ 통계청장 인터뷰(통계청 출범 1백일) .....	49
○ 통계 이야기(늘어나는 레저비용) .....	50
○ '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및 인구추계 .....	51
○ 통계청장 인터뷰('90년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	59
○ 썬들(인구의 고령화) .....	60

- '9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및 인구추계관련 사설 ..... 61
- '90년도 광공업통계조사 실시 ..... 65
- 이 아침에(수도권 인구집중) ..... 65
- 신 경제관료(통계청) ..... 66
- '90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통계조사 결과 ..... 67
- '90년 시·도별 광공업활동동향 ..... 72
- 이 아침에(남아선호의 결과) ..... 76
- '91년 4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77
- '91년 4월중 소비자물가동향관련 사설 ..... 80
- '91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 81
- '91년 1/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 82
- '91년 1/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설 ..... 86
- '90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 88
- '90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관련 사설 ..... 95
- 통계자료 공동활용체제 구축 ..... 96
- '91년 1/4분기 시·도별 광공업활동동향 ..... 97
- '91년 5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98
- '90년 서비스업통계조사 결과 ..... 103
- '91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 ..... 108
- '90년중 취업자현황 분석 ..... 110
- 통계청 「경기지수」 현실과 괴리 ..... 111

□ '91년 3/4분기(7~9월) 보도기사

- 이야기 경제학(물가지수 행정조작 가능한가) ..... 115
- '91년 5월중 산업활동동향 ..... 116
- '91년 3/4분기 기업 경영자 경기전망 ..... 117
- '90년 건설업통계조사 결과 ..... 118
- '91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 122
- '90년도 인구이동상황 ..... 126
- '90년도 인구이동상황관련 사설 ..... 138
- 북한통신(고무줄 통계, 성장 불리기) ..... 142
- 국내 각종통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 144
- '91년 7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145
- 정부통계자료 PC공급확대 ..... 146

○ '91년 6월중 산업활동동향 .....	146
○ '90년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집계 결과 .....	148
○ '90년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집계 결과관련 사설 .....	160
○ '91년 2/4분기 및 상반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	162
○ '91년 2/4분기 및 상반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설 .....	167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 .....	168
○ '91년 8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169
○ 醫窓 (노인복지와 평균수명) .....	172
○ 빨리온 노령화 사회 .....	173
○ 경기종합지수 개편 .....	174
○ 고학력여성 실업 급증추세 .....	176
○ '91년 7월중 산업활동동향 .....	177
○ '90년 운수업통계조사 잠정집계 결과 .....	179

□ '91년 4/4분기(10~12월) 보도기사

○ '91년 9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185
○ '91년 8월중 산업활동동향 .....	188
○ '91년 4/4분기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 결과 .....	190
○ '91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	191
○ 「표준산업분류」 논란 .....	194
○ 혼인·이혼통계 작성 결과 .....	195
○ 혼인·이혼통계 작성 결과관련 사설 .....	205
○ 千字칼럼(比翼鳥) .....	206
○ '91년 10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207
○ '91년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 .....	208
○ '91년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	210
○ 기자 24시(너도 나도 증산충) .....	212
○ '91년 사회통계조사 결과(고용·노사·사회·공안 부문) .....	212
○ '91년 사회통계조사 결과관련 사설 .....	218
○ 조사자료·정보 정부서 독점 .....	220
○ '91년 3/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	221
○ '91년 3/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설 .....	225
○ 噴水臺 (서비스) .....	226
○ 10% 육박한 물가, 내년이 더 걱정(사설) .....	227

- '91년 10월중 산업활동동향 ..... 228
- '91년 종교인구조사 결과 ..... 229
- 통계 이야기 (북한 인구) ..... 230
- '91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 232
- '90년 광공업통계조사 결과 ..... 237
- '9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 241

□ '92년 1/4분기(1~3월) 보도기사

- 7차계획 「인구요인과 경제」 전망 ..... 247
- 통계 이야기(올 인구지표) ..... 248
- '91년 11월중 산업활동동향 ..... 250
-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계획 통계부문 계획안 ..... 252
- 주택 대형화 추세('90년 11월기준 주택조사) ..... 254
- '92년 1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255
- '9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 257
-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 264
-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관련 사설 ..... 273
- 생활 그래픽(외식비·주부취업) ..... 275
- '91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별 광공업활동동향 ..... 276
- '92년 2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279
- '91년 전국 및 지역 경제활동인구동향 ..... 280
- '91년 전국 및 지역 경제활동인구동향관련 사설 ..... 288
- '92년 1월중 산업활동동향 ..... 289
- '92년 1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 292
- 대학 입학생모집 세일즈시대 온다 ..... 295
- 통계청 전화카드 배포(가계조사 응답자 협조유도 위해 무료로) ..... 296
- '92년 3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297

□ '92년 2/4분기(4~6월) 보도기사

- '9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 301
- '9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관련 사설 ..... 306
- '91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 307
- '91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관련 사설 ..... 309
- 서비스산업 취업자 60% 넘었다 ..... 311

- 「임금관련」 새 통계지수 개편 ..... 312
- '92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 313
- '92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 316
- '9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 ..... 317
- '9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관련 사설 ..... 321
- '92년 1/4분기 시·도별 광공업활동동향 ..... 322
- 통계 이야기(도시지역 레저비용) ..... 325
- '92년 5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326
- '92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 ..... 327
- '92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 331
- '92년 1/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 332
- '92년 1/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설 ..... 335
- 월요 초대석(최근 재고급증...불황감 주원인) ..... 336
- '92년 6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337

□ '92년 3/4분기(7~9월) 보도기사

- '92년 5월중 산업활동동향 ..... 343
- '92년 5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 347
- 소득은 증진국 먹는건 선진국 ..... 349
- 우리나라 및 세계의 인구현황 ..... 350
- 우리나라 및 세계의 인구현황관련 사설 ..... 357
- '92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 358
- '91년 건설업통계조사 잠정집계 결과 ..... 364
- '91년 인구가동 집계결과 ..... 367
- 지자체(地自體) 통계 전문인력 부족 ..... 372
- 통계조사 부실 많다(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주요단체) ..... 373
- '92년 6월 및 상반기 산업활동동향 ..... 374
- '92년 6월 및 상반기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 379
- 「노는 젊은이」 日보다 많다(한·일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 381
- 기자 24시(통계와 통제) ..... 382
- 기업생멸통계 '94년부터 만든다 ..... 383
- 통계로 본 중국 경제 ..... 384
- '92년 2/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 386
- '92년 2/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설 ..... 389

- '92년 8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390
- '92년 8월중 소비자물가동향관련 사실 ..... 392
- '92년 7월중 산업활동동향 ..... 393
- '91년 운수업통계조사 잠정집계 결과 ..... 395
- 지난 10년간('81~'91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성향 추이 ..... 399

□ '92년 4/4분기(10~12월) 보도기사

- '92년 9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405
- '92년 8월중 산업활동동향 ..... 407
- '92년 8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실 ..... 413
-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 416
- 통계청, 표본 전면 손질 ..... 424
- 국감현장(통계청) ..... 425
- 통계조사협조 광고 ..... 425
- 도시가계조사 통계표본 개편 ..... 425
- 통계청 청사이전관련 기사 ..... 426
- '92년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 ..... 429
- '92년 10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432
- '92년 10월중 소비자물가동향관련 사실 ..... 433
- 상주인구조사 폐지(주민등록인구 공식통계로 활용) ..... 434
- 인터뷰("실업률 지표 보완...논란소지 없애겠다") ..... 436
- 우리나라 최초의 통계지 「조선통계시보」를 통해 본 1930년대의 사회상 ..... 437
- '91년 총사업체통계조사 결과 ..... 445
- '91년 총사업체통계조사 결과관련 사실 ..... 449
- '91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결과 ..... 451
- 새 통계청사(역삼동) 현판 제막식 ..... 453
- '92년 3/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 454
- '92년 3/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실 ..... 457
- '92년 11월중 소비자물가동향 ..... 459
- '92년 10월중 산업활동동향 ..... 461
- '92년 10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실 ..... 464
- 인터뷰(30년만에 청사이전, 새 분위기서 더 정확한 통계기대) ..... 465
- 100세 이상 고령인구 현황 ..... 466
- 100세 이상 고령인구 현황관련 사실 ..... 471

○ 알기쉬운 경제(경제활동인구 증가율 감소) .....	472
○ '92년 사회통계조사 결과(보건·환경 부문) .....	474
○ '90년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전수집계 결과 .....	481
○ '90년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전수집계 결과관련 사설 .....	488
○ 통계청 유권자 나이별 추계 .....	492
○ '91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	493
○ 최근 10년간 교육비 지출구조의 변화 .....	497
○ '92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	498
○ 우리나라 보험료 수준은...(생명보험 「통계」보다 비싼편) .....	500
○ '91년 지역통계연보 .....	501
○ '9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	508
○ '92년 11월중 산업활동동향 .....	509

# 1991 년 보 도 기 사

**여 백**

# 1/4분기 보도기사

(1월~3월)

**여 백**

## 현 판 식



**통계청 현판식** 올해부터 청으로 승격된 통계청이 4일 이승  
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이진실 차관,  
민태형 초대청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운동 청사에  
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91. 1. 5)

# 통계실태 회복하겠다

閔泰亨 초대 統計廳長

48년 統計수립과 함께  
공보처 산하 局으로 출발  
했던 統計기획원 조사통  
계국이 지난 1일 43년만  
에 廳으로 승격됐다. 그  
초대 廳長인 閔泰亨씨(58·  
1급 상당)는 『廳이 局과  
같아서야 되겠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실  
사상은 통계로 統計통계  
의 실태를 회복하겠다』  
고 다짐했다.

— 정부가 발표하는 각  
종 통계가 실제 경제흐름  
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  
이 많다. 오히려 指數  
따로 實物따로라고 고를 하  
겠는가.  
▲ 소비자물가, 경기지수  
실업률 등 고용통계 부문에  
서 그런 지적을 받고있

는 줄 안다. 統計(통계청)  
예산 절감하게 조사해서  
계를 조사·발표하고 있  
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



정직하게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피부로 느  
끼는 것과 차이가 있다  
고 여겨지는 만큼 문제  
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  
내 표본추출과 조사방법  
등을 개선해 가급적 그  
편차를 줄이도록 하겠다.  
— 통계청에서 많은 통  
계가 충분치 못하다고 본

다. 특히 地自制를 제대  
로 실시하려면 그 기초  
자료로서 여러가지 지역  
통계가 있어야 한다. 앞  
으로 지역통계와 사회·  
복지분야통계를 더 늘리  
고 「살아있는 생활속의 통  
계」가 되도록 하겠다.  
— 지자체실시를 앞두고  
각 지방市·道·郡·區의  
통계수요는 크게 늘어날  
상황인데도 현재 통계전  
무직원이 없는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대한 대비  
책이.  
▲ 올해안에 통계연수원  
을 설립해서 중앙의 통  
계담당 전문요원의 물품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통  
계조사·분석요원을 양성  
하겠다.  
延世大 경제학과를 졸업  
한 그는 61년 7월 경제기  
획원 기획국에서 공직생  
활을 시작, 그동안 주로  
기획·예산부문에 일해  
왔다. <梁在燦기자>

# ★ 平壤의 人物



통계의 不信해소에 앞장선  
閔 泰 亨

초내 統計庁長

『통계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셨습니까?』閔泰亨 初내 통계청장(이하 통청)은 『통계의 불신사태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첫마디를 통계청에 걸었다.』

『조선 지방에서 한때 북으로 발표하던 소비자들이 지수를 북으로 내보내다가 지금은 소비자들이 직접 발표하는 체제를 확립했다.』

『지방 통계청을 설립한 뒤부터는, 지수 불가 부정』을 실시하고, 통계청장이 통계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48년 공민청 통계청이므로 출판하여 42만만인 『민중』을 발행한다.』

『조선통계의 정의를 확립하고, 통계청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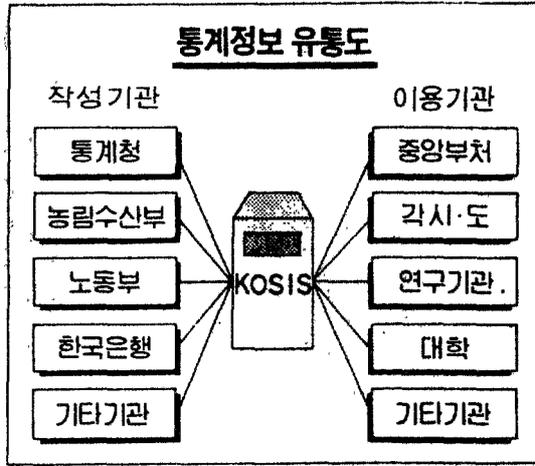
『통계청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계청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별 통계청을 위한 통계청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셨습니까?』閔泰亨은 『통계의 불신사태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첫마디를 통계청에 걸었다.』

『통계청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셨습니까?』閔泰亨은 『통계의 불신사태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첫마디를 통계청에 걸었다.』

## 지역통계개발 역점 실시 地自制

『조선통계의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통계청의 정의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셨습니까?』閔泰亨은 『통계의 불신사태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첫마디를 통계청에 걸었다.』



통계청은 중앙부처, 시·도, 연구기관, 대학, 기타기관 등 26만 5천 8백 61개 기관에 최대로 자료를 제공한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하면서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편인 통계정보 이용...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2700여건에 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 통계청 KOSIS 어제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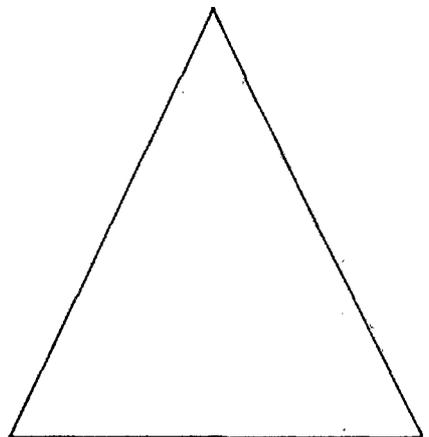
## 50여기관 統計 網로인 제공

증감율계산·크기순분류 기능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 서울經濟新聞



### 통계정보시스템개동

#### 인구 등 26만개 항목 수록

統計廳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유통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주요품목 소비차물가 비교표  
(단위: 원, 상공회의소 조사)

품명	단위	90. 12.28.	91. 1.25.	동락률 (%)
삼피	입판피 4kg	5,500	5,600	1.8
부	볼보리 4kg	3,500	3,700	5.7
부	포기	800	850	6.3
부	재래종 개	400	400	0
부	kg	4,000	4,000	0
부	600g	3,800	3,800	0
부	500g	5,500	6,400	16.4
부	500g	2,100	2,350	11.9
부	100장	5,000	6,000	20.0
부	부사 개	700	750	7.1
부	3kg	1,000	1,000	0
부	3kg	1,900	1,900	0
부	1kg	600	600	0
부	개	200	200	0
부	22공란	195	195	0
부	본종	238	238	0
부	(3.75g)	42,000	46,000	9.5
부	40kg	2,800	2,500	-10.7

# 物價 크게 뚫는다

1월 「소비자」 2.1%  
10년만에 최대폭

1월 소비자물가가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31일 경제기획원 발표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가 2.1% 상승했다. 이는 1981년 1월(2.8%)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1981년 1월(2.8%)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1981년 1월(2.8%)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80년 1월(4.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차산업 소비자물가가 1.1% 상승한 반면 1차산업은 0.8% 상승했다. 서비스업은 2.5% 상승했다. 1월 소비자물가는 1981년 1월(2.8%)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주 조사하는 주간물가동향(상)은 5개도시 평균(연)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가 2.1% 상승했다. 1월 소비자물가는 1981년 1월(2.8%)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1981년 1월(2.8%)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 物價 plummet 年初부터 非常

去年物價急激暴落 物價가 20% 이상 하락한 것은 1945년 1월 1일부터 1946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다. 이 기간 동안 물가는 100% 상승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1945년 1월 1일부터 1946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다. 이 기간 동안 물가는 100% 상승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1945년 1월 1일부터 1946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다. 이 기간 동안 물가는 100% 상승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1945년 1월 1일부터 1946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다. 이 기간 동안 물가는 100% 상승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1945년 1월 1일부터 1946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다. 이 기간 동안 물가는 100% 상승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1945년 1월 1일부터 1946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다. 이 기간 동안 물가는 100% 상승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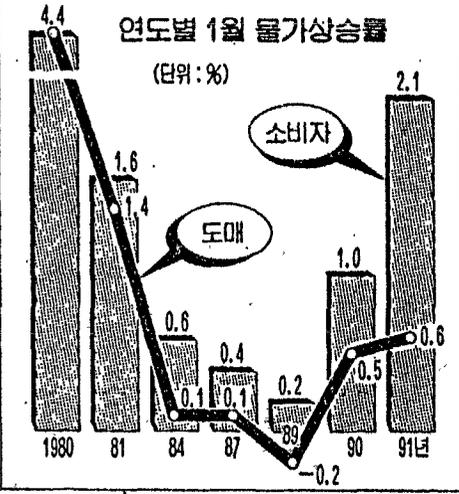
물가 상승은 1945년 1월 1일부터 1946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다. 이 기간 동안 물가는 100% 상승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작년 말 油價 임금 인상 原

작년 말 물가 상승은 1945년 1월 1일부터 1946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다. 이 기간 동안 물가는 100% 상승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년 말 물가 상승은 1945년 1월 1일부터 1946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다. 이 기간 동안 물가는 100% 상승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1987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6%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1988년 1월 0.1%, 1989년 1월 0.2%, 1990년 1월 0.5%, 1991년 1월 0.6%로 낮아졌으며, 1992년 1월 2.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작년말대비		1년전대비 상승률
	상승률	기여도	
중수산물	3.2	0.93	13.5
(중수산물)	2.5	0.48	13.9
(중수산물)	4.3	0.23	17.0
공산품	4.7	0.23	8.4
공공요금	0.9	0.23	5.8
개인서비스	0.8	0.16	6.7
집서비스	7.7	0.67	22.0
유통서비스	0.6	0.08	14.7
유통서비스	0.0	0.00	11.8
유통서비스	0.2	0.01	6.7
유통서비스	2.1		10.6

# 공공料金인상이 先導

## 價상승이 先導인 先導

이러한 현상은 지난 1987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6%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1988년 1월 0.1%, 1989년 1월 0.2%, 1990년 1월 0.5%, 1991년 1월 0.6%로 낮아졌으며, 1992년 1월 2.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1987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6%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1988년 1월 0.1%, 1989년 1월 0.2%, 1990년 1월 0.5%, 1991년 1월 0.6%로 낮아졌으며, 1992년 1월 2.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産業생산 8.6% 증가

## 지난해 動向 製造業가 동률도 상승

先行·동행指數는 감소 : 向後경기 불투명

설비투자 증가 건설경기가  
기활동 등 국내 수요 증가와  
노사분규의 진정 등으로 지난  
해 산업활동지수 호조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분기별  
부진도 있었

그러나 지난해 12월중  
산업생산은 실물경기 호  
조에도 불구하고, 경기선행지수  
동행지수 등 지수경기는 모  
두 감소세로 反轉됨으로써  
앞으로의 국내경기가 불투  
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30일 「90년 12  
월중 산업활동지수 발표를  
통해 90년 한해 동안 산업  
생산은 8.6% 증가, 89년  
의 2.9%보다 활기를  
 띠었으므로 분석되었다고 밝  
 혀다.  
이에 따라 제조업가동률  
도 79.6%로 7  
 3% 감소했고 동행지수  
 0.5% 선한지수는 1.1% 감  
 1.9%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은 또 90년 12월중  
 경기동행지수는 전월대비  
 3% 감소했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 감

◇90년 산업활동 주요지표  
( )는 89년 지표, 단위=%

○ 산업생산	8.6	(2.9)
○ 총 하	10.9	(4.2)
- 내수	15.0	(10.3)
- 수출	△1.8	(△11.6)
○ 제조업가동률	79.6	(77.7)
○ 도·소매판매	12.3	(9.2)
- 내수용소비재	15.2	(18.7)
○ 국내기계수주	38.8	(24.8)
- 제조업	31.8	(9.6)
○ 국내건설수주	55.8	(84.5)
- 제조업	34.8	(24.1)
○ 건축허가면적	31.4	(45.8)
- 공업용	17.0	(4.0)
○ 실업률	2.4	(2.6)
○ 경제성장률	9 (추정)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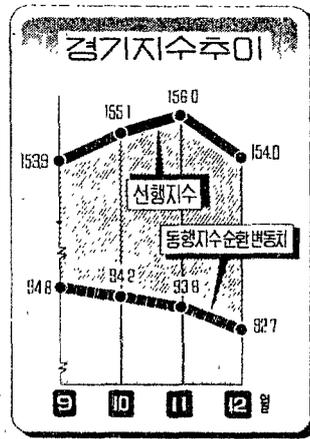
수함으로써 앞으로의 경기  
는 선행지수의 다른 수  
과 내수용화까지 걸쳐  
부명하다고 밝혔다.

# 올봄景氣 매우 어둡다

## 월간産業동향 걸프戰여파... 수출·內需부진

### 지난달先行지수 1.3% 하락 79년5월이래 최대落幅 기록

### 기계發注증가율 둔화... 投資의욕 감퇴



또 내수용 소비재판매가 둔화되고 도매판매가 감소, 전체 도소매판매가 11월보다 0.6% 감소했다.

제조업체의 기계발주액 증가율(前年同月比)은 14.9%에서 11%로, 제조업체의 건설용사발주 증가율은 1백19.1%에서 17.5%로 줄었고 공업용건축허가면적은 0.6%증가에서 3.4%감소로 반전되는 등 기업체의 투자 의욕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한편 90년 연간전체로 89년보다 산업활동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증가율은 2.9%에서 8.6% 줄하는 4.2%에서 10.9%, 제조업생산증가율은 연평균 77.7%에서 79.6%로 각각 높아졌다.

재고증가율은 17.4%에서 17.1%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용 소비재판매가 다소둔화된 것 같으나 전체 도소매판매증가율은 9.2%에서 12.3%로 높아졌다.

투자도 활기를 유지해 국내기계제작업체의 기계수주증가율은 24.8%에서 33.1%로, 이중 제조업체용기계수주증가율은 9.6%에서 11%로 높아졌다.

전체 고용증진률허가면적이 1년새 3.4% 줄긴했으나 89년보다는 감소폭(4%감소)이 둔화됐다.

그러나 전체취업자중 광공업체취업비중이 28.2%에서 27.3%로 낮아지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부문취업자는 51%에서 53.1%로 늘고 고용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표전체으로 인한 수출과 내수둔화로 올봄경기는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지난해 12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오는 3월의 경기상태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11월보다 1.3% 하락, 지난 79년5월(前月比) 1.3% 하락(이래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 연말의 경기상태를 종합적으로 보며주는 경기동향지수순환변동치도 지난 89년4월 이래 최대폭인 1.1% 떨어졌다.

통계청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걸프사태이후 생산과 수출, 투자증가세가 둔화되고 제조업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

인 경기위축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중 산업생산과 수출은 11월보다 각각 0.4% 증가에 그쳐 11월의 前月比증가율(각각 3.8%와 1.4%)을 크게 밑돌았고 제조업생산증가율은 80.7%에서 79.4%로 떨어졌다.

산업생산증가율은 2.9%에서 8.6% 줄하는 4.2%에서 10.9%, 제조업생산증가율은 연평균 77.7%에서 79.6%로 각각 높아졌다.

재고증가율은 17.4%에서 17.1%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용 소비재판매가 다소둔화된 것 같으나 전체 도소매판매증가율은 9.2%에서 12.3%로 높아졌다.

투자도 활기를 유지해 국내기계제작업체의 기계수주증가율은 24.8%에서 33.1%로, 이중 제조업체용기계수주증가율은 9.6%에서 11%로 높아졌다.

전체 고용증진률허가면적이 1년새 3.4% 줄긴했으나 89년보다는 감소폭(4%감소)이 둔화됐다.

그러나 전체취업자중 광공업체취업비중이 28.2%에서 27.3%로 낮아지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부문취업자는 51%에서 53.1%로 늘고 고용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社說

우리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갈수록 변질...
우리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갈수록 변질...
우리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갈수록 변질...

이 통계수치만 놓고 보면...
이 통계수치만 놓고 보면...
이 통계수치만 놓고 보면...

정액 3차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정액 3차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정액 3차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물류업만 받아들일 수 없고...
물류업만 받아들일 수 없고...
물류업만 받아들일 수 없고...

정액 3차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정액 3차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정액 3차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다크 세그먼트의 고성장 추세가...
다크 세그먼트의 고성장 추세가...
다크 세그먼트의 고성장 추세가...

우리 경제가 고성장세를...
우리 경제가 고성장세를...
우리 경제가 고성장세를...

우려되는 雇傭構造 變질 현상

%임의비행...
%임의비행...
%임의비행...

물류업만 받아들일 수 없고...
물류업만 받아들일 수 없고...
물류업만 받아들일 수 없고...

물류업의 고성장 추세가...
물류업의 고성장 추세가...
물류업의 고성장 추세가...

우리 경제가 고성장세를...
우리 경제가 고성장세를...
우리 경제가 고성장세를...



# 嬰兒 1천명중 12.8명꼴 숨겨

지난달 아산군지역 출생아사망률의 추이를 보면 12.8명수준으로 계속 높아져가고 있다.

지난달 출생아 1천명중 숨겨진 아산군지역 출생아사망률은 12.8명수준으로 계속 높아져가고 있다. 이는 1987년 11.8명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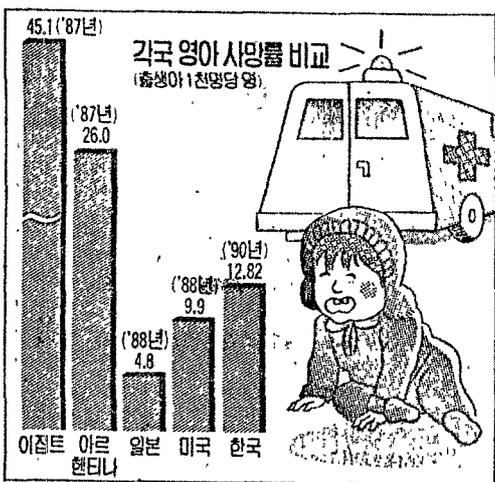
## 출생아 1천명중 숨겨진 사망아 12.8명

아산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는 출생아사망률 추이를 보면 12.8명수준으로 계속 높아져가고 있다. 이는 1987년 11.8명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1987년 11.8명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 日 4.8명 美 10명보다 많아

출생아 1천명중 숨겨진 사망아 12.8명수준으로 계속 높아져가고 있다. 이는 1987년 11.8명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1987년 11.8명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柳哲基기자】



영아사망률 매년 감소 추세인 12.8명수준으로 계속 높아져가고 있다. 이는 1987년 11.8명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1987년 11.8명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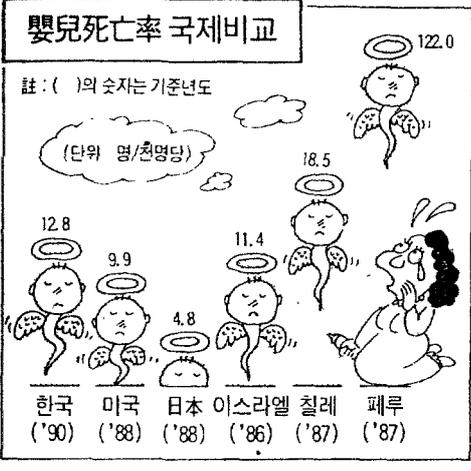
출생아 1천명중 숨겨진 사망아 12.8명수준으로 계속 높아져가고 있다. 이는 1987년 11.8명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1987년 11.8명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 嬰兒사망률 千명당 13명꼴

의술 발달등으로 70년비해 3.5배 줄어

의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등의 힘으로 태어난지 1년이내에 숨지는 영아사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美國·日本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자료의 3만2천여명의 영아사망조사,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88~90년 두해동안의 영아사망률은 1·200명당 1천명당 13명꼴로 70년대의 45·4명(1천명당)보다 3.5배 줄었다. 영아사망수준은 88년의 10명당 8명의 영아사망률에서 90년 3명으로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도 88~90년 영아사망률의 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영아사망률의 추세가 계속 하락일로에 있다고 말했다.

고양이를 보여준다. 영아사망률의 원인이는 태아발달 지연(27%)·호흡기질환(16%)·선천성 질환(13%) 등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도시지역보다는 시골지역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아르헨티나·칠레·페루는 南美國가에 비해서 낮은 반면, 日本이나 美國·英國에선 日本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제비교를 보면 日本은 1천명당 4·8명(88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고 다메인스웨덴(5·8명)·스위스(6·8명)의 다음이었다. 프랑스·오스트리아·獨逸·덴마크에 우루과이·쿠바·핀란드·영국·수르네임·미국(9·9명)이 뒤를 이었고, 페루(12·8명)·미국('88) 9·9명·日本('88) 11·4명·이스라엘('86) 18·5명·칠레('87) 122·0명 순이었다. <金主홍기자>



東南亞국가 중에서는 홍콩(7·4명)·싱가포르(7명)가 남미의 수주율을 유지했다. 반면 페루는 1천명당 1백22명이 사망, 조사대상국 중 최고의 영아사망률을 기록했고, 엘살바도르(32·5명)·아르헨티나(26명) 등 南美國가의 영아사망률이 韓國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집트도 45·1명으로 높았고, 東歐국가 중에서는 蘇聯이 25·4명(이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金主홍기자>

# 失業者73% 6大도시 집중

## 「서비스」비대 雇傭왜곡

실업률평균 2.3% 서울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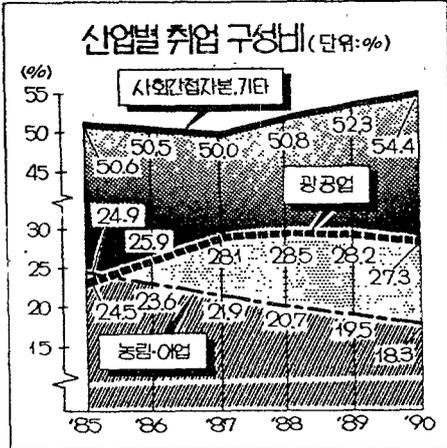
### 통계청, 작년 4.4분기 조사

전국 실업자의 73%가 서울 등 6대도시에 집중돼 있으며 실업률도 광주(5.8%)를 제외한 6대도시에 3%를 초과하지 않았다. 관공청 통계국을 고려했을 때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4.4분기 10.12%로 실업자수가 43만4천명(0.1%)로 실업률도 전년 동기(0.1%)포인트 낮아진 2.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후 소미(제1차) 및 2차(제2차)의 파급으로 2.4분기(4~6월)의 2.1%에서 3.4분기(7~9월)의 2.5%를 계속 높여 지난해를 넘어섰다. 추세를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6대 도시의 실업자수가 전체의 72.8%인 31만6천명(0.1%)로 실업률도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높아진 3.5%를 나타냈다. 서울은 3.9%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대전과 仁川의 3.3%, 광주와 大田의 3.1%, 광주 2.8%의 순이다.

6대도시를 제외한 도지역의 실업률은 1.2%로 대부분이 2% 이하인 실업률을 나타냈으며, 특히 강원(0.6%)과 가장 낮았다. 대도시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신규 노동인구가 일차리가 많은 대도시로 계속 유입된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중 전국 취업자수가 1천8백23만4천명(0.1%)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반면 10대도시의 실업률은 1천5백만명(0.1%)로 줄었다. 전국 실업률은 5백2만5천명(0.1%)로 2.9%를 보였다. 3차 산업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건설·도산·매입·중상업)은 6.3%나 올랐던 1천2만9천명(0.1%) 3차 산업(0.1%)의 빠른 인력유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는 3차 산업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87년 50.8%, 88년 50.8%, 89년 50.8%, 90년 54.4%로 계속 높아졌다. 반면 농업은 19.5%로 지난해 18.3%를 기록했으며 광공업은 19.5%로 18.8%를 기록했고 기타업종은 8.8%로 8.8%를 기록했다. 90년 27.3%로 2.8%포인트 낮아진 2.3%로 2.3%로 낮아졌다. 서비스업의 인력유입은 200만명(0.1%)로 2.8%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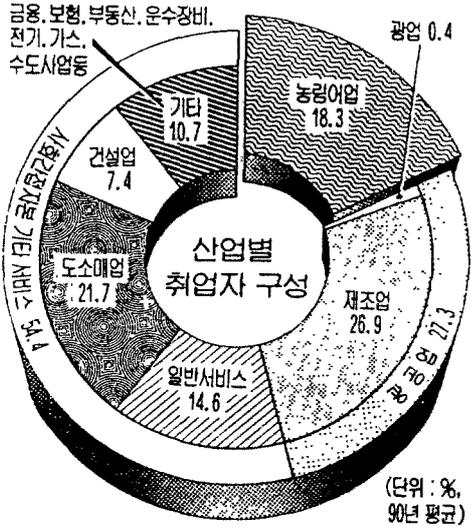
# 失業率 2.3%로 떨어

## 작년 4·4분기 전국에 43萬 4千명

작년 4·4분기(10~12월) 실업자 43만 4천명(10월 43만 6천명, 11월 43만 2천명, 12월 43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 8천명(29.8%) 증가했다. 이는 1980년 12월 30만 6천명(1981년 1월 31만 6천명)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특히 6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0만 9천명, 25.1%), 충청권(10만 3천명, 23.7%), 호남권(10만 2천명, 23.3%), 영남권(10만 1천명, 23.3%), 강원권(10만 1천명, 23.3%), 제주(10만 1천명, 23.3%) 순으로 분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6.9%), 서비스업(27.3%), 농림어업(18.3%), 기타(10.7%), 건설업(7.4%), 도소매업(21.7%), 일반서비스(14.6%), 광업(0.4%)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취업추이 (작년 4·4분기) <단위: 천명 / %>

지역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89년 동기 실업률
전국	18,669	18,235	434	2.3	2.4
6대도시	8,950	8,635	316	3.5	3.4
서울	4,785	4,599	186	3.9	4.1
부산	1,604	1,554	50	3.1	2.6
대구	928	899	30	3.2	2.6
인천	739	716	23	3.2	2.5
광주	449	436	13	2.8	3.1
대전	445	431	14	3.1	2.8
9개도	9,720	9,602	118	1.2	1.4
경원	1,469	2,426	43	1.8	2.6
강원	677	670	7	1.1	0.8
충북	588	582	6	0.9	0.9
충남	809	804	5	0.6	0.9
전북	823	814	9	1.1	1.2
전남	1,180	1,170	10	0.9	0.9
경북	1,311	1,301	10	0.8	1.0
경남	1,620	1,594	26	1.6	1.5
제주	243	241	2	0.8	0.5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1월 33만 9천명(17.4%)인 실업자 추이는 1980년 12월 30만 6천명(1981년 1월 31만 6천명)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특히 6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0만 9천명, 25.1%), 충청권(10만 3천명, 23.7%), 호남권(10만 2천명, 23.3%), 영남권(10만 1천명, 23.3%), 강원권(10만 1천명, 23.3%), 제주(10만 1천명, 23.3%) 순으로 분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6.9%), 서비스업(27.3%), 농림어업(18.3%), 기타(10.7%), 건설업(7.4%), 도소매업(21.7%), 일반서비스(14.6%), 광업(0.4%) 순으로 나타났다.

# 3차산업인구 1천만 돌파

통계청 발표 기형적肥大... 全産業의 55% 점유

고령漁業부문의 1년새 23만명 격감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 취업자수가 사상 최초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고령에 이어 파르먼 지역 해 4.4분기(10~12월)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 취업자수는 1천2만9천명이 늘었다.	이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 분야 취업자 수가 4.4분기 기준 1천153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가 증가한 비율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율이 55%로 1년 전의 53.2%보다 1.8% 포인트	이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 분야 취업자 수가 4.4분기 기준 1천14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27.5%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8년 4.4분기의 광공업부문 고용증가율은 29.1%였다.	이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 분야 취업자수가 4.4분기 기준 1천19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4.4분기 기준 17.4%로
---	---	---	---	--	--	---	--

43만9천명보다 59만7천 명이 늘었다.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全産業의 취업자수가 49만9천명(을)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 분야 취업자 수가 4.4분기 기준 1천153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가 증가한 비율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율이 55%로 1년 전의 53.2%보다 1.8% 포인트

이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 분야 취업자 수가 4.4분기 기준 1천14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27.5%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8년 4.4분기의 광공업부문 고용증가율은 29.1%였다.

이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 분야 취업자수가 4.4분기 기준 1천19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4.4분기 기준 17.4%로

1년사이에 1.9% 포인트 가 떨어진 한편 일부 부문 취업자수가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다.

실업자는 43만4천명, 실업률은 2.3%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의 73%인 31만6천명이 서울·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 등 6대 도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 분야 취업자수가 4.4분기 기준 1천153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가 증가한 비율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율이 55%로 1년 전의 53.2%보다 1.8% 포인트

이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 분야 취업자 수가 4.4분기 기준 1천14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27.5%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8년 4.4분기의 광공업부문 고용증가율은 29.1%였다.

이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 분야 취업자수가 4.4분기 기준 1천19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전국失業者 43萬명

## 실업률 2.3% 6대도시에 73% 몰려

### 90년 4·4분기 市道別 고용통계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지속되면서 대도시의 失業者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4·4분기 市道別 고용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서울과 5개직할시 등 6대도시의 실업률은 3.5%로 전년동기에 비해 0.1%포인트, 전분기에 비해서는 0.2%포인트나 높아졌다.

실업자수로는 작년 4·4분기에 이들 6대도시의 경우 31만 6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6%(2만 5천명), 전분기에 비해서는 6.4%(1만 9천명)나 늘었는데 전국실업자수의 73%를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나머지 9개道の 실업자수는 11만 8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7.1%(1만 9천명), 전분기에 비해서는 6.3%(8천명)가 각각 줄었고

실업률도 1.2%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작년 4·4분기 중 전국의 실업률은 2.3%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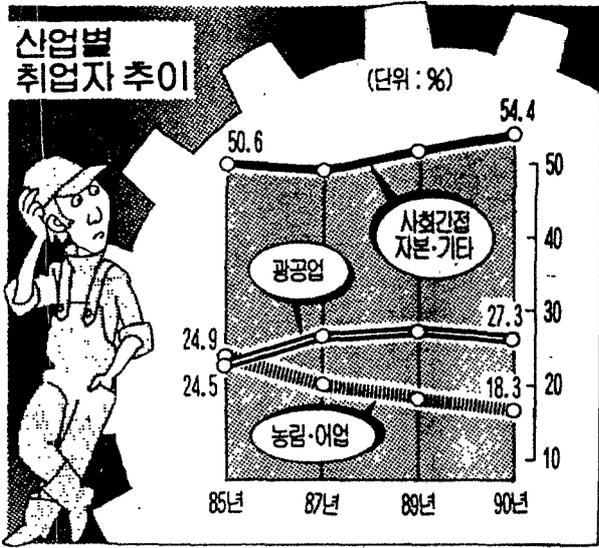
이처럼 6대도시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작년 4·4분기 중 15세 이상 인구가 1천 5백 11만 5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8%(41만 3천명) 늘어 9개 도지역의 증가율 0.9%를 크게 웃도는 등 인구유입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업자수로는 작년 4·4분기에 이들 6대도시의 경우 31만 6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6%(2만 5천명), 전분기에 비해서는 6.4%(1만 9천명)나 늘었는데 전국실업자수의 73%를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나머지 9개道の 실업자수는 11만 8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7.1%(1만 9천명), 전분기에 비해서는 6.3%(8천명)가 각각 줄었고

실업률도 1.2%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작년 4·4분기 중 전국의 실업률은 2.3%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떨어졌다.

이처럼 6대도시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작년 4·4분기 중 15세 이상 인구가 1천 5백 11만 5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8%(41만 3천명) 늘어 9개 도지역의 증가율 0.9%를 크게 웃도는 등 인구유입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 物價( 소비자 ) 2월에에도 1.4% 급등

두달새 3.5% ... 80년 이후 最高 地自制선거로 不安가중

## 국제유價 하락등 이달부터는 安定 전망도

2월에 소비자물가가 1.4%나 올랐을 때의 2개월 동안 3.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 소비자물가는 1.4%로 올랐을 때의 2개월 동안 3.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직진행중이나 공이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었고 전국투표의 계속된 물가인플레이션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승세가 지속될까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승 인했다고 부속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공이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었고 전국투표의 계속된 물가인플레이션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승세가 지속될까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2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로 올랐을 때의 2개월 동안 3.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로 올랐을 때의 2개월 동안 3.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가파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박한 대응으로 2월과 3월의 인플레이션이 1.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파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박한 대응으로 2월과 3월의 인플레이션이 1.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價 하락등 이달부터는 安定 전망도	국제유價 하락등 이달부터는 安定 전망도	국제유價 하락등 이달부터는 安定 전망도	국제유價 하락등 이달부터는 安定 전망도	국제유價 하락등 이달부터는 安定 전망도	국제유價 하락등 이달부터는 安定 전망도	국제유價 하락등 이달부터는 安定 전망도

그러나 1월의 인플레이션 재원비 상승률(1.9%)은 비료값(18.8%) 28.9%의 크게 오른다는 점에 공산품도 매가점 상승률이 1월 0.2%에서 2월엔 0.5%로 높아졌고 농산물도 매장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2월중 大邱(2.2%)와 仁川(1.8%)의 소비자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全州(0.9%) 春川(1.1%) 등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올랐으므로 전체 상승률이 1.4%로 나타났다.

# 물가非常: 波及및대책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2월 한달동안 소비자물가는 1.4% 올라 1월의 2.1%와 합치면 두달동안 무려 3.5%나 오른 것이다. 2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보면 지난 8월 8.0% 오른데 이어 11년 만에 최고치.

특히 이같은 물가오름세는 재조정의 정권이 출범되고 있기 때문. 지난해 12월 28일 채택된 예산(예산장외의 물가상승)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물가상승 정인해 살펴보면 지난 8월엔 이윤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지난해 12월엔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개인서비스업이 주역이어서 2월엔 2.1% 하락한데 이어 2월엔 또 2.2% 올랐다.

더구나 경기양락「정마누」가 물가인 물수출산물의 크게 올랐고 개인서비스업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물가가 「정마누」가 「정마」와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물가연쇄 개인서비스업과 물가가 크게 올랐다. 서민경제의 면목 부름세에 경조를 수락중 있다.

정리정돈의 정기물산은 마진 중대한 비파괴된 기적이야. 작으나한기초생활가격이 하락추세로 었고 실업후 물가오름세가 완화되고 있고 물가 안정이로 물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물가가 저마 안정하고 5개월 만에 물가 안정을 되찾았다.

# 國內요인 앞장... 家計 "주름살"

표고과서값 인상률이 반영된 것이다. 해도 소비자물가는 각각 0.25%, 0.04%의 인상요인을 떠안게 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월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될 경우 통화증량과 물가불안심리자라는 이 불평해 물가안정요인인 물가정착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근로자들의 지난해 물가상승(9.4%)과 최근안정원까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머무르고 있는 정부의 한자리수입과안정정책이 크게 빛나갈 수 있단 점이다.

## 賃金상 근본적

8월 이후 물수출산물 가격인상전망이 무척 밝아 있다.

물수출산물가격의 수급사정 이외에도 수출과 수입의 여간중 하중 내림이 예상되고

◇2월중 소비자물가 주요변동품목

〈전월대비, 단위 = %, % P〉					
품목	변동률	기여도	품목	변동률	기여도
農産物	2.5	0.47	工業品	0.7	0.19
일반미	2.6	0.22	인삼	12.9	0.02
밀	21.6	0.09	수건	7.1	0.02
파	10.9	0.06	이불	2.4	0.01
치	17.4	0.04	양복	3.6	0.01
추	5.6	0.04	公共料	1.3	0.25

정치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백악관」은 「자유 무역」을 내세워 유엔에 호소하여 자유 무역을 옹호하고 있다. 유엔은 이같은 미국의 정책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에 관하여도 정부는 극히 침묵하고 있다. 유엔에서 미국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엔은 미국의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

유엔의 정책은 미국의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 유엔은 미국의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

기름을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유엔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유엔의 자유 무역 정책은 유엔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 유엔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유엔의 정책은 미국의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 유엔은 미국의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

# 승역제 큰 부담 對策수립 절실

물 수급에 없었다. 농수산물 가격 상승은 조개산물 단량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이 부분이 물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미주	△4.1	△0.04	버스요율	6.0~7.7	0.18
상	△14.9	△0.03	택시료	4.1	0.03
畜産物	1.7	0.10	오물수거료	18.1	0.04
돼지고기	2.4	0.04	집	0.6	0.08
쇠고기	1.1	0.03	個人서비스	1.1	0.11
닭고기	3.5	0.02	가정부업	8.3	0.07
水産物	4.1	0.20	재봉료	4.4	0.01
명태	17.2	0.08	음식료	2.8	0.08
등갈	7.3	0.03	입시학원비	△6.1	△0.03
물	6.0	0.03	주산학원비	△1.4	△0.01
	△2.2	0.00	복합료(성인)	△3.8	△0.02

을 세워 확실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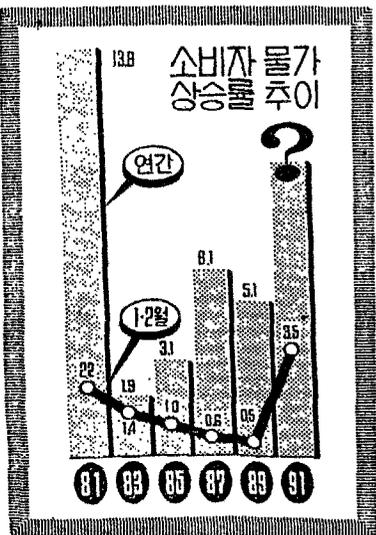
정부는 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國內雜記>

# 物價 두달새 올目標 40%올라

연초부터 비상이 걸린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물가는 1.4%나 올랐으며 물가 상승률의 두달동안 3.8%의 상승세를 기록, 지난 80년의 두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개월만에 물가연간률 표지(8~9%의 40%가량)를 1년새 11.2%나 올렸으니, 안정기반이 솔뭇대 뿌리지 않는 것이냐, 이제 물가한자리 수시대는 풀날 것인가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다.



2월중 「消費者」1.4% 상승 배경

연초부터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의 두달동안 3.8%의 상승세를 기록, 지난 80년의 두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개월만에 물가연간률 표지(8~9%의 40%가량)를 1년새 11.2%나 올렸으니, 안정기반이 솔뭇대 뿌리지 않는 것이냐, 이제 물가한자리 수시대는 풀날 것인가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다.

연초부터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의 두달동안 3.8%의 상승세를 기록, 지난 80년의 두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개월만에 물가연간률 표지(8~9%의 40%가량)를 1년새 11.2%나 올렸으니, 안정기반이 솔뭇대 뿌리지 않는 것이냐, 이제 물가한자리 수시대는 풀날 것인가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다.

## 구조적 인플레이션

### 行政 통제어

연초부터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의 두달동안 3.8%의 상승세를 기록, 지난 80년의 두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개월만에 물가연간률 표지(8~9%의 40%가량)를 1년새 11.2%나 올렸으니, 안정기반이 솔뭇대 뿌리지 않는 것이냐, 이제 물가한자리 수시대는 풀날 것인가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다.

연초부터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의 두달동안 3.8%의 상승세를 기록, 지난 80년의 두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개월만에 물가연간률 표지(8~9%의 40%가량)를 1년새 11.2%나 올렸으니, 안정기반이 솔뭇대 뿌리지 않는 것이냐, 이제 물가한자리 수시대는 풀날 것인가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다.

<2월중 주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단위:%)

품목	상승률
일반미	2.6
밀감	21.6
파	10.9
시금치	17.4
고추	5.6
정부미	▼4.1
돼지고기	2.4
닭고기	3.5
명태	17.2
등어	7.3
고등어	3.6
성육요구	6.7~7.7
시물수	4.1
오징어	18.1
집세	0.6
가정용	8.3
입시용	▼6.1
복합용	▼3.8
인스턴트	12.9
쌀	3.2

▲는 가격하락

다만 점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는 단위의 설명에도 불구하여  
가지지 않는다.  
요즘의 물가 불안 상환이 일  
2월의 동농산물 상승률  
5%를 보였다. 이는 1월과 같은  
수준이다.  
집세도 1월과 같은 폭(0.6

미향수 상승 원인은 당도이다.  
구동도만 그치지 말고 경제용  
용량형 자체를 안정추진으로  
통하지 않음한 이미 가속도가  
붙은 물가고삐를 잠깐조일기  
대하기 어렵다. 직장이므로  
하다.  
여기에다 3월이후에도 물가  
를 부추길수 있는 伏兵의 곳곳  
에 노사민교 있다.  
우선 곡인출 지방의 화석자  
가가장 큰 난제이다. 최소한  
5조원의상의 선거자금의 불려  
나 소비선물부위로 물꼬를고

# 體質化가 근원인

## 려운 農産物·집세등 계속 強勢

부품과의 수급불균형이나 특정  
업체의 가격탄압의사가 아니라  
우리경제가 구조적인데 인플레이  
션이 발생하고 있기때서부터 비롯  
되다. 집안과 집안집 집안 집안  
다. 집안의 불거짐에 집안이  
뒤 주된영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안에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  
집안에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  
집안에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  
집안에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근원이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근원이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근원이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근원이다.

## 地方의회선거등 3월이후도 伏兵 곳곳에

의정활동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의 원인은  
유리가 신제 물가안정의 원동  
나 당국에 통지된 되서 계속 될  
다. 그러나 3월이후도 일부의  
불안 요인이 있다. 3월이후도  
부추길 수 있는 伏兵이 있다.  
수입원고기 물가안정의 원동  
금물지다. 집안집의 부패가  
의 원인. 물가안정의 원동  
지다. 가장 원인이 되고 있다.  
원인. 물가안정의 원동  
이런이 하마의 이후로 일부의  
불안 요인이 있다. 3월이후도  
부추길 수 있는 伏兵이 있다.  
수입원고기 물가안정의 원동  
금물지다. 집안집의 부패가  
의 원인. 물가안정의 원동  
지다. 가장 원인이 되고 있다.  
원인. 물가안정의 원동

< 鄭萬榮 기자 >

鄭萬榮記者 鄭萬榮記者

연초부터 물가가 큰폭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1월 한달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2%이상 오른 것이다. 물론 이정도 수치만 가지고도 지수물가로서는 엄청나게 오른 것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물가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가통계만 아니라 각종통계는 어느 정도 현실과 괴리가 있게 마련이지만 그동안 정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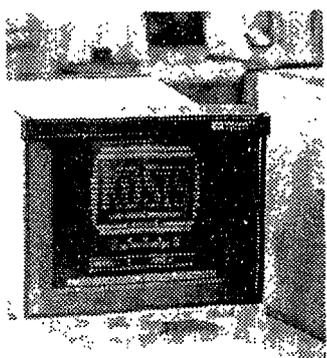
# 통계청 행정



金漢應 (한국은행조사2부장)

사회통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그 이유는 경제 사회통계가 제반부가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쓰이는 통계로서 정확성과 관성 확보에 더하여 공

작성하는 통계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지수물가와 피부물가간에 괴리가 발생 하는 것은 지수에 대한 이해의 부족 내지는 소비자 의 심리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 도시가계 소비자 지출액의 증감에 따라 선정된 4백11개 품목에 대하여가 중점을 부여하여 측정된



◇통계청은 최근 통계정보 26만항목의 자료를 전산처리

## 所得·지역·주택형태별 세분화를

입산생활에서 자주 구입 하는 몇가지 품목의 가격 을 단순평균화한 결정이 의 합계성문제로서 기준 이 있다. 한편 통계편제 기술 상의 한계성문제로서 기준

경제구조변화의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연도 이후 소비자지출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지수 물가와 피부물가간의 괴 리를 느끼게 하는 한 원인 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편제 기술 상의 문제는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이며 우리나라는 UN통 계국의 권고에 따라 매 5 년마다 기준년을 개편함 으로써 미흡하나마 이 문

## 指數 등 개선 11부 물가 差 줄여

신뢰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예산과 전문 인력의 소요되므로 정부 의 의의 기관이 담당하기 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물가상승과 함께 지수를 가와 피부물가간의 큰 괴 리가 있다고 느끼는 소비 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종합적 평균가격이며 전 월, 전년말 등 일정시점 의 가격과 비교하여 변동 륜을 계산하고, 同種·同 質·同량의 제품가격을 비 교하는 반면에 일반소비 자는 각종차별이 없이

있으며, 일정한 비교시점 이 없이 지난해 구입시의 가격과 비교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동종의 품목끼 리 비교하여 동종의 품목에 이윤이 더해져서도 지수를 가와 피부물가간의 괴리 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업도의 소비자출액으로 조사할 때 가중치를 곱 하는 基準時加重算術 平均法(Aspey's 式)을 이용하는데서도 지수를 가와 피부물가간의 괴리 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를 해결해 보려고 있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수물가와 피부물가간의 괴리는 속속의 나무 몇 그루를 보고 숲에 대해 말 하는 것처럼 기본점이론

전체와 부분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 원적으로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다만, 지수내용을 개선하고 다양화함으로써 그 괴리 감의 부부적인 해소는 가 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물가지수를 소트계 출별 지역별 주택수용형 태별 가구추진연별구입 빈도별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하고 일부 신진품과 같이 주택수용에 따른 비 용도 포함시킨다면 소비 자가 느끼는 피부물가와 지수물가의 차이는 줄어 들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90년월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 수를 개편하면서 앞에서 열거한 방법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으며 90년 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지수가 개편된 후에는 지 수물가와 피부물가간의 괴리폭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활동은 구조조사, 경영진행 조사, 소비자물가지수 의 작성에 경제사회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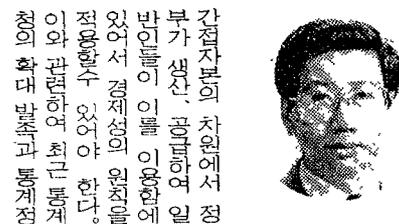
의 많은 부분을 정부기관 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가 이와 같이 경제

작성,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가 일반국민들 사이에 신뢰성을 잃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정부통계자료에 대한 불신은 결국 정부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부터 통계청이 독립기관으로 승격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통계정책의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

현대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다양한 색의 사회정보를 우리는 숫자라는 통계로 표현함으로써 손쉽게 간판하게 사용하고 있다. 개인이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통계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생산, 사용하겠으나 국가나 사회공

# 바람직한 방향은

공에 필요한 자료는 국가기관이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업체부터인가 정부에 의



金泰源 (고려종합경제연구소)

간접자본의 차원에서 정부가 생산, 공급하여 일반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있어서 경제성의 원천을 잃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통계청의 확대 발전과 통계청

해 만들어진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료도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해 이용자들이 이의 재생산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정책이 필요하므로는 기초통계자료는 사회



시스템(KOSIS)을 본격가동, 사용하고 있다. 【權周勳기자】

## 전문 人力 확충·능동적 情報 공급도

여와 작성과정의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못한 데서 나타난 불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작성과정의 완전한 공개되고 또한 정부의 자의적 작성부문을 최소화 하여 통계청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통계자료가 오들의 의사결정과 내의

## 작성과 공개 速報性 살려야

보오라인서비스를 통해 민간 교육, 연구기관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통계정보를 서비스 하기도 하겠다. 만지지만 감응이나 발가운 일이 다만 이와 더불어 간

들의 유능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통계를 생산, 처리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통계청이 통계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소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료작성과

에측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시의성이 절여야 있으면 안된다. 정보의 정확성 못지않게 속도감을 가질 때만 통계자료의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관측도도 변모하는 사회 변화와 더불어 일반인들의 정보의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커지게 마련이다. 최소한 정부와 의해 생산, 공급될 수 있는 통계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통계자료의 공개성을 높여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통계자료의 공개성을 높여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3~4월景氣 好轉된다

산업생산·製造業가동률 회복反轉  
「先行종합지수」前月보다 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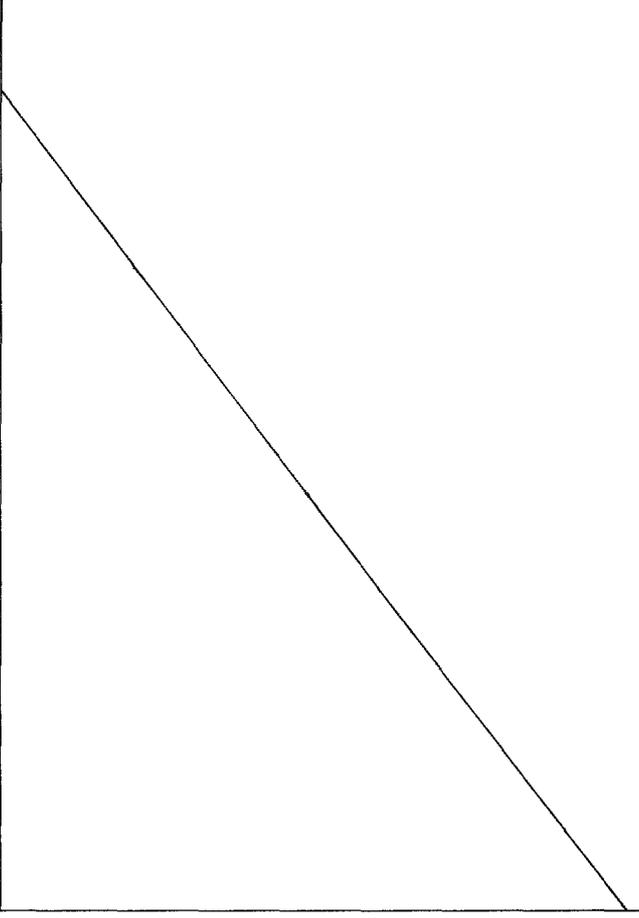
## 기업체投資도 활기

統計廳 1월동향 제조업 취업자 4만명늘어

<산업활동 동향> △는 감소(단위:증가율,%)

구분	89年12月	90年1月
산업생산(前月比)	0.3	5.0
출하(〃)	0.2	6.1
제조업 평균가동률	79.3	84.0
도소매 판매(前年同月比)	6.9	8.2
내수용 소비재출하(〃)	13.3	21.8
제조업용 기계수주(〃)	11.0	15.7
제조업용 건설수주(〃)	17.5	19.8
경기선행지수(前月比)	△0.7	1.0
경기선행지수(〃)	△0.2	1.5

산업생산 출하 제조업체 가동률의 일제히 회복세로 돌아서 3~4월에는 국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4월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년동월(12월)보다 1%가 상승, 지난해 12월의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1월의 상승세도 마찬가지였다.



1월 중 경기선행지수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1월엔 0.9%가 상승, 전반적인 경기호황의 기조를 전방진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집적개발이후 추세를 보였던 내구소비재출하의 1월부터는 다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고 기업체의 투자도 계속 활기를 유지, 3~4월에는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전망했다.

1월 중 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보다 5%, 1년전보다 20.3% 증가에 지난해 12월의 증가율(前月比) 0.3%·1년전비 10.3%을 크게 웃돌았다.  
내수용가의 합인의 출하도 12월보다 6.1%, 1년전보다 22.2% 증가했다.  
승용차 무선전화기 VTR 전자태핑기 내구소비재출하 등 지난해 1월보다 25.5%가 증가하며 소비재의 생산량과 수출도 일부가 늘어

등 비내구성 소비재출하는 2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기업체용 보급사차 생산량도 지난해 12월보다 9만5천명 감소한데 비해 제조업 취업자수는 4만4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보다 고용구조도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社說

設備투자 두드러진 1월의 景氣

현재의 景氣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統計廳이 발표하는 경기同行指數순환변동치라는 것이 있다. 현실로 나타나는 경제의 변동속에는 4가지 變因이 들어있다고 보고있는데 추세변동 순환변동 계절변동 불규칙변동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순환변동을 바로 경기가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反復순환해서 물결모양을 이룬다. 앞에 말한 4가지 요인 가운데서 나머지 3가지를 統計的 처리를 통하여 제거하면 순환변동만 남는다.

한국경제에서 이 數値는 88년9월의 102.7 이래 지금까지 내리막이 계속되고있다. 작년 12월은 92.7까지 달했다. 2년3개월동안 이렇게 수축과정을 밟은것은 타소 異例的이다. 한국의 평균 경기수축 기간은 16개월 정도인것으로 통계에 나타나고있다.

그런데 올해1월 들어와서 이 동향지수순환변동치가 0.9%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山行을 하는 사람들은 짝아는 일이지만 下山길에도 오르막은 자주 있는 법이어서 이것을 두교 경기회복의 시자이라고 보기는 이룰것이다. 작년 8월과 9월에도 이數値가 올라간 일이 있다. 그러나 그후 계속 다시 떨어졌다.

오히려 업계의 소리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더욱 나빠져 가고있다는 悲觀이 들릴 정도이다. 절정기에 비하여 판매량 감소가 20~30%에 달한다고 말하는 기업도 많다.

한편 종합경기지수를 별도로 치더라도 희

망적인 통계가 없었던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설비투자 지표를 들수있다. 설비투자 전체뿐만 아니라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국내기계수주가 꾸준히 호조를 보이고있다.

이 두가지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은 기를쓰고 이에 서 탈피해 보려고 시설투자를 계속하고있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시설투자호조는 취업희망자들이 제조업을 기피하고 있는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것이다.

어쨌든 세계경기는 비록 걸프전쟁이 끝났지만 미국과 영국에 뒤따라 유럽대륙도 느슨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戰後特需가 기대되고는 있지만 세계는 전반적으로 저축不足과 인플레이션위험때문에 심불리 경기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기과 관련해서도 역시 문제거리는 정부이다. 무슨 案을 세우고 있는지, 비록 案이 있더라도 그것을 집행해낼수 있을것인지 걱정이다. 확고히 햇볕을 치켜들고 불필요한 행정및 금융규제 철폐등 자신있는 信號를 정부가 보낼수 있다면 이미 침체기간은 충분히 오래 되었으므로 이젠 경기회복에 희망을 걸수있을 때도 되었을성 싶다.

# 市郡 입맛대로 부풀린다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시·군·읍·면의 인구를 과잉추진하여 부풀려서 발표하고 있다. 시·군·읍·면의 인구를 과잉추진하여 부풀려서 발표하고 있다.

## 부풀린 인구 통계

### 3백만 명 늘려 발표

인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980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3,0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구는 2,700만 명에 불과하다. 이 300만 명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차이는 주로 시·군·읍·면의 인구 과잉추진에 기인한다. 시·군·읍·면의 인구를 과잉추진하여 부풀려서 발표하고 있다.

시·군·읍·면의 인구를 과잉추진하여 부풀려서 발표하고 있다. 시·군·읍·면의 인구를 과잉추진하여 부풀려서 발표하고 있다.

## 人口 통계 조작

8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시·군·읍·면 인구조조 회의에서, 시·군·읍·면의 인구조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시·군·읍·면의 인구조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부 호단인 科官。  
계정회 總理 金鎭生의 報告  
88년도에 收支의 決算을 1  
전년도 決算에 比하여 10%의 盈餘

# 行사실모판명

## 춘도도 개선책 필요

부 호단인 科官 88년도 10%의 盈餘  
계정회 總理 金鎭生의 報告  
88년도에 收支의 決算을 1  
전년도 決算에 比하여 10%의 盈餘

가 1년과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가 1년과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가 1년과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가 1년과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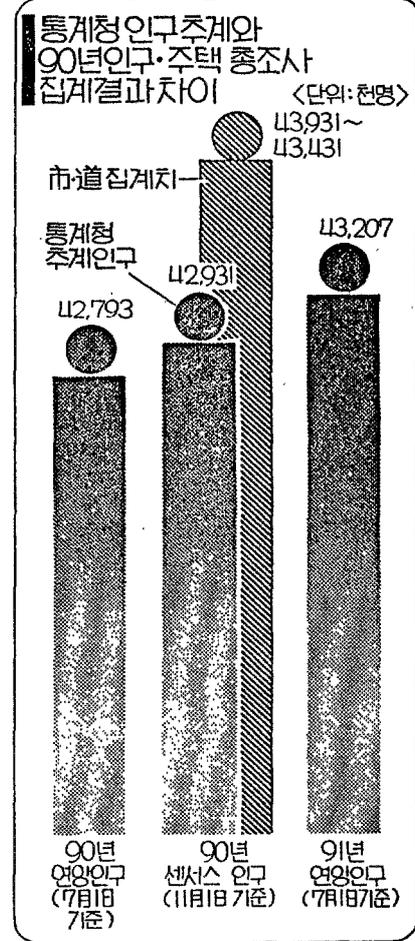
가 1년과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가 1년과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시흥격 노려 예산 타타려 차리 들리려

# 백튀긴 인구통계

## 일부市道유령인구에 중복계산 推計値보다 50만 百만명 더 거주



### 통계청 재확인조사... 90년 센서스 발표 늦춰

우리나라의 기준통계인 구통계가 조작되었다. 일부市·도에서 매해 상수인구를 마구 부풀려오다 급기야 50만명의 국가정보로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센서스)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90년 11월 1일 기준인구로 실시한 센서스결과를市·도로부터 받아 집계한 결과 3백36만명(추계)보다 1%이상 많게(4천3백36만명) 집계했다.

이같은 인구수는 이미 올해 7월 1일 기준 추계인구(年央인구) 4천3백2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센서스는 통상 그 규모나 조사방법상 누락이 생겨 추계치보다 1~2%정도 인수가 적게 나타나는데 관례적으로 90년 센서스에선만 유달리 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통계청이 전무조사인원을 전수조사에 투입

김갑 사후형가조사에 들어갔으며 당초 3월로 예정했던 잠정인구집계 발표를 4월로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현장확인조사에서 통계청의 추계치보다 1.5%정도 높고된 濟州도의 한지연인 센서스도 통계청이 실제인구보다 무려 7.2%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관계자는市·도집계

결과를 추계인구보다 1%정도 높였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오차한계와 그동안 중복계산된 것까지 합치면 총인구는 2%가 넘는 1백만명선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8년 88년 88년』에 시흥과 양양도 신시필 지방자치제에 대비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파내고 기구를 늘리기 위해 인선市·郡·區에서 중복계산된 인구를 실제에는 없는 유령인구로 집계한 상수인구로 삼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또 88, 89년에 실제보다 훨씬 상수인구를 만들 결과 90년 센서스에서 비슷한 추세로 실제보다 1.5% 정도 높게 보고함으로써 인구증가율 또한 86, 90년사이 통계청추계 연간인구증가율(0.97%)보다 훨씬 높을(1.5%)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이같은 이유로 인구를 불린 지역을 공개 관계자를 문책하며市·道별로 매해 실시해온 상수인구조사제도를 없애는 대신 통계청에서 區·面·洞에까지 정확한 인구추계를 해 행정기근자료를 쓰게 할 방침이다.

# 행정기관 人口 통계 조작 의혹

## 推計値보다 최고百만명 부풀려

## 市승격·예산증액 등 노려

통안 추계 인구보다 적게 나타나는데 것이 관례인 인구센서스결과가 90년센서스에서만은 추계인구보다 최고 1백만명 가까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행정기관의 인구조작 의혹이 짙게 일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한 인구센서스결과를 각 시도별로 보고받아 집계한 결과 85년센서스를 토대로 추계한 90년 年中央인구(7월 1일 기준) 4천2백93만명보다 1%이상 초과한 4천3백36만명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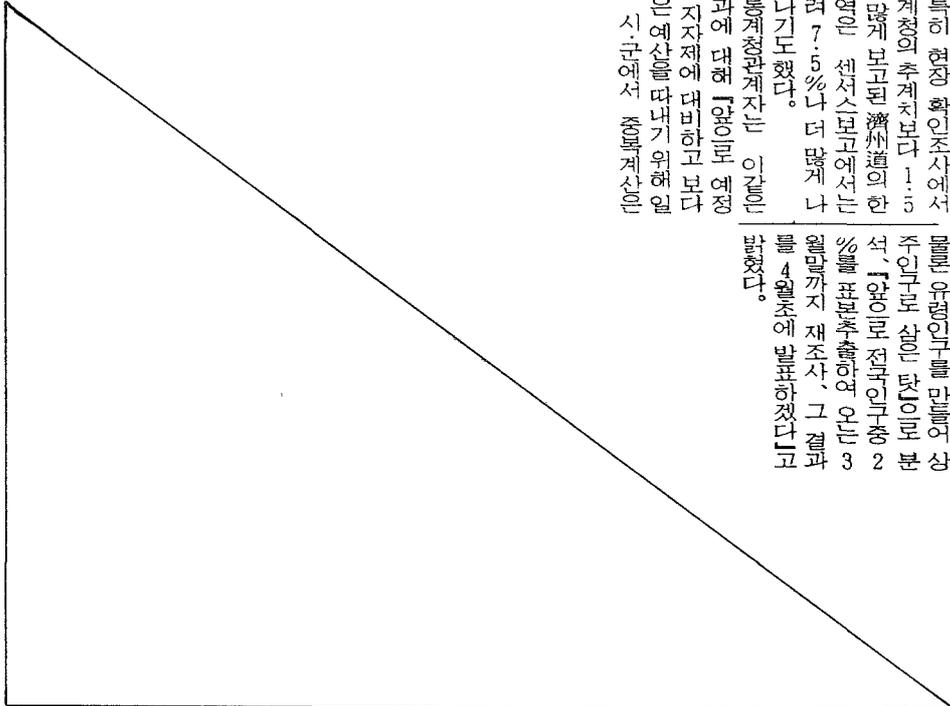
이같은 센서스결과들을 해 7월 1일 기준 추계인구 4천3백20만명보다도 많은 것으로 각 지방행정기관가 예산증액·市승격·지제 확대 등을 노려 「인구부풀리기」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인구센서스결과를 그 규모나 조사방법상의 기술적 나점 때문에 추계치보다 1~2%정도가 적게 나타나는데 것이 관례였다.

특히 현장 확인조사에서 통계청의 추계치보다 1.5% 많게 보고된 濟州道의 한 지역은 센서스보고에서는 무려 7.5%나 더 많게 나타나기도 했다.

통계청관계자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앞으로 예정된 지자체에 대비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다내기 위해 일선 시·군에서 중부계산의

물론 유령인구를 만들어 상주인구로 삼은 탓으로 분석, 앞으로 전국인구총 2%를 표본추출하여 오는 3월말까지 재조사, 그 결과를 4월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社說

人口 통계의 고의적 조작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각종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총선거에 대비한 준비가 되었다. 선거관리를 위한 지방의 관청의 정부에서 인원을 모집한 것이 위해 되고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는 하위 계층의 이익을 위한 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이기적 행정의 후의가 9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된 인구총조사(센서스)에서 나타난 아зиат 사람의 수를 부풀린 결과로 나타났다. 시·도에서 조사한 결과의 의하면 시·도에서 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후의 총 인구가 수가 통계청의 추계를 적게는 50만 명, 많게는 1백만 명까지 초과했다. 통계청에서는 이를 위해 오차 가 생기게 마련이지만 7백만 명이 차한 결과를 합한 후의 인구가 1% 이상 많게 되었다고 사적인 장난한 「거의」가 장난한 결과로 밝혀진 것이다. 이같은 장난은 하위 계층의 이익을 위한 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하위 계층의 이익을 위한 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통계치보다 1.5% 많게 보고된 濟州道의 한 지역에서는 현장 확인 조사 결과 센서스보다 인구가 실제 인구보다 부풀려 7.2%나 추과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청의 통계인구를 산출하는데도 불충분한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인구총조사만이 아닌 다른 통계들도 기해야 한다. 이는 재정이 열악하지 않다.

다라서, 전수조사요원을 전국의 파견, 사후 평가 조사에 들어간 통계청의 조직은 당연하다. 특히 통계청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실시된 센서스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에 의한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는데 후진의 소홀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통계청의 지난 88-89년의 시·도별을 위한 인구총조사 결과를 89년 센서스에서 미·숙한 후세로 중 부, 유령인구를 만든 것이 일부 분 석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전의 인구 통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후면이 없지 않더라도 통계청의 이점에도 유해하다.

社說

人口통계 거짓은 나라살림 해친다

작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통계청은 전국 인구주택수조사 실시했다. 이것을 집계하다보니 조사를 담당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으로 실제보다 자가지역안의 인구수를 과장해서 조사표에 기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한다. 그 부풀림의 폭을 전국적으로 합하면 50만내지 100만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많으면 2.4%나 되는 유령인구가 이나라에 더있는것으로 꾸며질뻔했다.

인구통계는 나라살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인구수란 다름아닌 나라의 食口數이다. 식구숫자를 엄청 틀리게 알고 있고서야 집안살림을 제대로 꾸모있게 꾸려갈수 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더러 통계라는 것은 공인된 거짓말이라고 하여 그 허구적 일면을 찌르기도 한다.

통계는 수數를 모두 조사한것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원인 때문에 오차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오차의 期待値는 0이 되도록 통계는 설계되고 실시되어야 하는것이 상식이다. 다시말해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른 점이 끼여들더라도 이런 오차는 평균하면 그속에서 없어지게 되는 방향을 지향하도록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인구주택센서스는 그렇지 못했던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읍에서 市가 되려고, 또는 예산을 더 받아내려고, 또는 자리수를 늘려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많이 승진도 해보겠다고, 인력으로는 어찌할수 없어 오차가 끼여든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일부러 거짓을 짜서 넣었다는 것이다.

거짓말하는것이 다반사가 된 이 나라에서

그까짓것 가지고 따로是非를 가릴것이 뭐 있느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거짓말이 몇사람만의 이익 또는 자가지역만의 이익을 위해 통계에까지 끼여 들었다는 것은 하나의 絶頂이다.

거짓이 가지는 속성기운대는 한가지 거짓은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다른것까지도 거짓으로 만들지 않을수 없게한다는 점과 이렇게 불어난 거짓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결국 자기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해마다 실시하는 연말 상주인구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짓보고를 꾸며 놓았던지라 그것이 들롱나지 않게 하느라고 5년마다 실시하는 이번의 인구주택전수조사에도 거짓을 얹어넣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사건의 顛末이다.

시속100km로 달리고있을때 60km로 달리고 있다고 나타나는 미터기를 보면서 자동차를 볼거나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는것으로 나타나는 나침반을 보고 항해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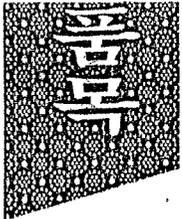
止義까지 갈것 없이 道德을, 道德까지도 갈것없이 止直을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하겠다. 특히 중앙이나 지방 가릴것 없이 정부가 더욱 그렇다.

통계청도 이번 허물에서 책임을 면할수 없다. 작년 인구센서스는 조사요원에 의한 직접조사가 아닌 동네나 아파트단지의 수위실에 질문서만 들린 서류조사였다는것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조사방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들 생각에 조금도 심각하지 않은)부풀리기 방향의 거짓말이 常設된 통계적 偏倚로 숨어드는것을 막을 도리가 없을것이다.



# VCR등 추가, 내년 4백50개 선정

가 바로 5년만에 물가조  
사대상을 올리는 시점이다.  
는 해인데, 통계청의 승용  
차 VCR, 전자레인지 휘  
발유어나 헬머저 베이  
컨 등 50여개 품목을 내년부  
터 새로 조사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다. 양쪽 품목기  
와 수수할 증설 품기 등을  
10여개 품목은 제외시켜 조  
사대상을 늘 수를 4백11개  
에서 4백50여개로 다시



를 늘게 된다.  
승용차 휘발유 전자레인지  
등을 늘릴만한 소비증가  
품, 또 헬머저와 베이컨 등

- 60년대 들기름 - 아이스 케이크
- 70년대 피아노 - 항공료 - 기성복
- 80년대 케첩 - 위스키 - 도시가스

은 앞으로 명백히 소비증  
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  
각 새로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섬유양조  
관류 등은 이제 각계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게 통계청관계자들의 설명  
이다. 수수할이나 증설 품  
기들은 1년에 1~2차  
때 명절이나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출 0.01% 이상  
지난 36년 첫조사대의  
조사대상을 늘린 살롱 최  
고기 체란 소금 설량 철주  
간장과 당시 주요한 가정  
연료였던 숯이 포함돼 있  
었다. 지난 65년에는 들기  
를 양배추 수박 호도고등  
어금어이 스케이크 복수임  
금 등이 새로 추가됐고, 민

경유 전자 손톱 기계 합판의  
전철요금 키세트 테이프 등  
이 각각 추가됐다.

## 장바구니物價 5점

어 나지 유부 등이 탈락했  
다. 70년에는 보리쌀 단  
고추장 감말의와 피아노  
전축 명장고 맞출신사복  
항공요금 고속버스요금 택  
시요금 등이 새로 포함됐  
다. 경제개발에 따른 소득  
향상으로 일반 서민들까지  
전축이나 명장고를 구입하  
고 고속버스나 택시가 대  
중교통수단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대신 그해에는 오랜  
서민들의 애용품이던 옛  
명주 모시 은팔찌 펜촉 구  
두약 등이 소비감소로 대상  
에서 빠졌다. 75년에는 맞  
춤시대가 사라지면서 기  
성복이 새로 포함됐으며  
80년에는 신선화면화와 주  
거생활개선으로 마요네즈  
케첩 위스키 컬러TV 세  
탁기 가스레인지 도시가스



91. 3.20

통계청은 현재의 물가지  
수가 피부를가 내지 장바구  
니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분에 따라  
내년부터 채소 생산물 신  
선식품을 제외한 물가지수  
와 구입빈도별 물가지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가구  
주거임대 물가지수 등도 세  
로 만들며 발표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金光顯기자>

# 物價안정방식 全面조정

## 統計廳 내년부터 家計동향맞춰 現實에 맞게

# 조사지역 32개市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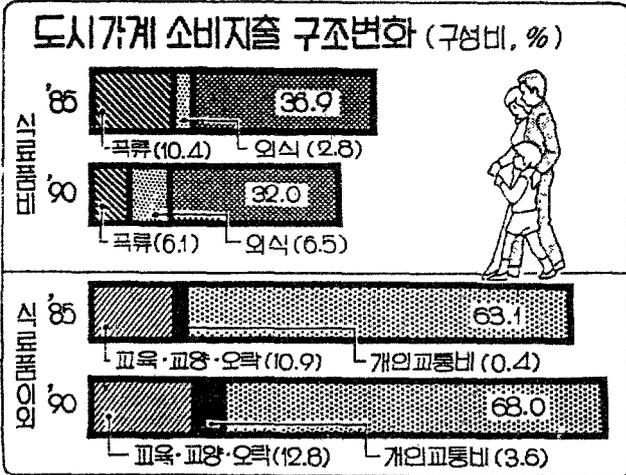
### 기존年度 90년도로 승용차·VTR 등 새로 추가

내년부터 소비자물가안정방식이 현실에 맞게 크게 바뀐다.

수미자물가지수산정기준 연도가 85년에서 90년으로 변경되며 그 동안의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수출증가의 따른 도시가계의 소비자물가구조변화를 반영, 조사대상 품목에 지출비중이 적은 승용차·노화기·전자레인지·취탁류·바나나·해바라기 등이 새로 추가되고 생활·양초·방목기와 수수살·음향·방기

를 중심으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교통수단의 변화도 반영된다.

또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과 비싼 신상품의 가격변동 추이를 반영, 목욕·지갑·다용도·복합기 등 소비자수요 변화에 따른 조사지역도 현재 서울·충청·11개 도시에서 32개 도시로 대폭 확대된다. 통계청인 19일 경제연전



과가계소비지출증가의 변화와 5년마다 바뀌는 소비자물가지수산정기준을 반영, 이같이 바뀐 내년도 1월부터 경제연의 조사지역을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도시가계 소비지출구조의 변화가 1년치의 93인 살은 93년도의 내년도 1월의 식은 28에서 65로, 교양오락비는 1백9에서 1백28로, 개인교통비는 4에서 36으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통계청인 이와함께 소비자물가지수지역을 현재의 서울·충청 11개 도시에서 32개 도시로 확대, 城南廳(政府·黃川(충청)) 原州(江陵) 蔚山(충청) 天安(충청) 大田(충청) 群山(충청) 木浦(충청) 水原(충청) 浦項(충청) 龜尾(충청) 安東(충청) 蔚山(충청) 濟州(충청) 등 21개 도시를 추가했다.

이와함께 조사대상시장도 현재의 재래시장 27개, 백화점 등 대형판매점 15개, 42개에서 재래시장 69개, 대형판매점 15개 등 84개, 대형판매점 42개를 늘리기로 했다.

통계청이 이같이 소비자물가지수산정방식을 바꾸는 한편 지수들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내년년부터 심층항목에서 많이 쓰이는 30개 품목 정도만 골라 산정하길 계획

社說

물가편제방식의 개선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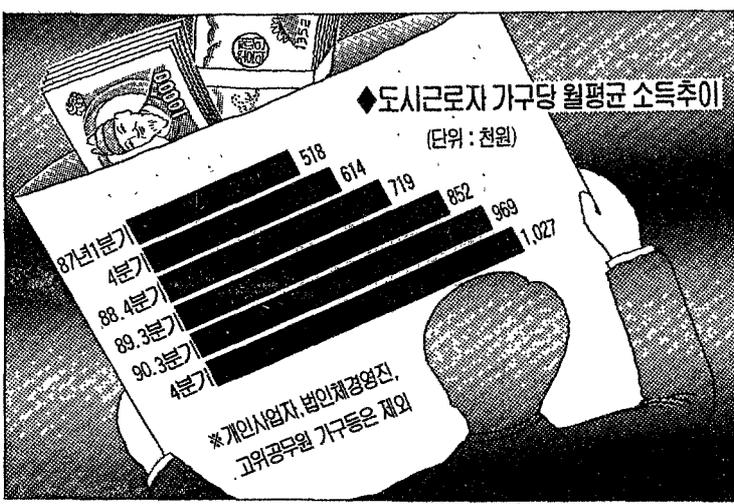
통계청은 내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산출방식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 기존 연평균 현행의 85년에서 90년이며, 바꾸면서 그동안의 도시가계 소비자물가 편제방안이다. 국민경제의 질적변화와 소비자의 인식 변화까지 수용해 보자는 게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의 목적이다. 이는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더욱 반영이 되고 있는 지수물가의 과부 물가의 괴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물가지수를 보다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지수의 예 몇가지 포함적인 부분지수를 개발, 특히 생활비, 계절별 생활비의 반영 물가 반영도 포함한다. 또 구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무엇보다도 물가지수가 실생활의

서 느끼는 피부물가와 지수물가의 괴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국민의 물가담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빚을 우려가 있다. 것이다. 과부물가와 지수물가간의 괴리감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요인의 해악이다. 나라에도 있게 마련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독 물가지수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심한 것은 부종산가의 괴리의 반영되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개편안에 일반 선진국과의 차이를 극복, 수급과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는데 타당하다. 생각이다. 부종산가에서 전월세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물이 아닌 부가지수의 성격이 다른 한편의 주장

에도 열리면 있지만 부종산가적의 엄청난 가격 비차 추가하면 비용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부종산가적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반영시키는 게 아무래도 불합당하다. 부종산가적은 비용면에서 과부물가분류지수를 개발 보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종산가적에 정책적으로 적지않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부의 물가정책정착으로 명목가적은 그 당 정책 방향에 실질가적을 올리는 행태, 생활차나 VCR 등 새로운 모델의 개발 판매에 따른 가격인상등의 지수물가에 대한 불신을 조정하는 요인들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개편안인 조사대상항목을 현행 4백11개에서 4백50여개로 늘리고 조사지역도 추가하는 한편, 가정치도 합리적인 조정, 5년 동안 변화된 도시가계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러는 고심의 혼란을 보이고 있다. 또 양이론 실제조사를 거쳐 개선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성장변경체구조의 변화가 큰 나라에서 기술키정, 가중치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물가편제방식도 재고해 볼 필요가 생긴다.

# 도시가구월소득 백만원 돌파

## 작년 4분기 物價高로 「엔겔계수」 다시 늘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넘어섰다. 또 그 평균소득이 처음으로 1백만 안 감소득세를 보이던 시

이름가 앞뒤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21일 작년 4분기(10~12월) 중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2만7천3백원으로 전분기보다 6%, 1년전보다 16.4%가 각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연간소득자 수가 9.2%를 감소한 실정에서는

6.6%가 증가한 것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도시 거주하는 가구주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봉급, 임당수당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는 가구로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영진, 고위공무원가구는 제외된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지난 87년 1분기 중(1~3월)에 51만8천원으로 50만원선을 돌파한 이래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교제비 및 잡비(24.2%), 자녀교육비(27.6%), 외식비(15.2%) 등이 특히 크게 증가한데 따라 79만8천원을 기록, 1년전보다 12.6% (실질 3.1%)가 늘어났다.

가계지출중 가구가 사용품(0.9%)과 광열수도비(7.6%)는 낮은 증가를 보인 반면 기타소비지출(23.1%), 식료품(16.6%), 주거비(15.9%) 등은 높은 증가를 보였다.

이 있는데 4년도 되지 않아 다시 1백만원선을 넘어선 것이다. 통계청은 작년 1년 동안 명목소득이 16.4%나 증가한 것은 임금상승 및 가구의 취업증가로 가구당 평균근로소득이 18.5%나 늘어났는데 기타소득도 5.4%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4분기 중 도시

社說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절대적인 액에서 크게 높아졌고,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바깥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가상승이 발발한 1935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1934년 4·4분기보다 1.4배 증가한 16.4%가 늘었다.

물가상승이 발발한 1935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1934년 4·4분기보다 1.4배 증가한 16.4%가 늘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절대적인 액에서 크게 높아졌고,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바깥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

물가상승이 발발한 1935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1934년 4·4분기보다 1.4배 증가한 16.4%가 늘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절대적인 액에서 크게 높아졌고,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바깥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절대적인 액에서 크게 높아졌고,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바깥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절대적인 액에서 크게 높아졌고,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바깥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 家計收支의 전진화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절대적인 액에서 크게 높아졌고,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바깥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절대적인 액에서 크게 높아졌고,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바깥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절대적인 액에서 크게 높아졌고,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바깥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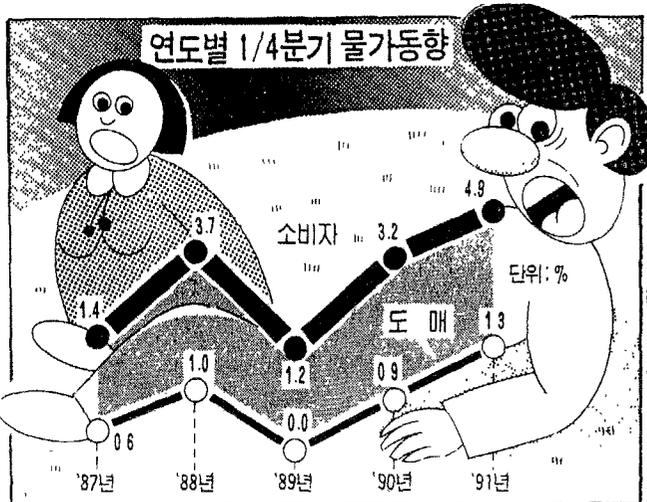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절대적인 액에서 크게 높아졌고,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바깥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물가 올 억제線 절반

## 1·4분기物價11년만의最高기록

물가전선에 赤 신호가 계속되고 있다.

올봄에 올연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해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월에도 1.3%가 상승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각 달마다 4.0%, 4.9%, 5.1%로 80년 1·4분기 상승률(12.0%)에 근접하고 있다.

이중 1분기 물가 상승률은 올 상반기 평균 상승률(3.2%)보다 0.4%포인트 높았다.

물가 상승률은 올 상반기 200년 상승한 물가 상승률(200년)을 크게 웃돌았다.

올 상반기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빠른 증가와 함께 도매 물가 상승률도 상승했다. 특히 식료품, 주택, 서비스업의 물가 상승률이 각각 4.9%, 3.7%, 3.2%로 상승했다.

선물가격 상승은 대량생산품과 유류, 이탄, 소비탄 등 3개 인서비스업의 相乘적인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같은

% 상승률은 28.3%가 속했다. 이 가운데 중상계부터는 17.1, 23%



## 공공料 통화 부동산

은 인상과 파가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물가 상승률이 12.2%가 각각 인상되면서 올 상반기 상승률(12.2%)을 넘어섰다. 올 5월 현재 물가 상승률은 12.2%로 올 상반기 상승률(12.2%)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물가 상승률은 12.2%가 각각 인상되면서 올 상반기 상승률(12.2%)을 넘어섰다. 올 5월 현재 물가 상승률은 12.2%로 올 상반기 상승률(12.2%)을 넘어섰다.

# 물과

물과가의 중요성을 인민-5년계획에서 중요시하고 있다. 물과가 인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 인민생활의 기본조건이다. 물과가 부족하면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가 인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 인민생활의 기본조건이다. 물과가 부족하면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가 인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 인민생활의 기본조건이다. 물과가 부족하면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가 인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 인민생활의 기본조건이다. 물과가 부족하면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가 인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 선도서비스·음식값활개

## 증발·방만財政부채질... 정부절제 시급

# “물과” 인플레이션리 擴散

물과 인민생활의 기본조건이다. 물과가 부족하면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가 인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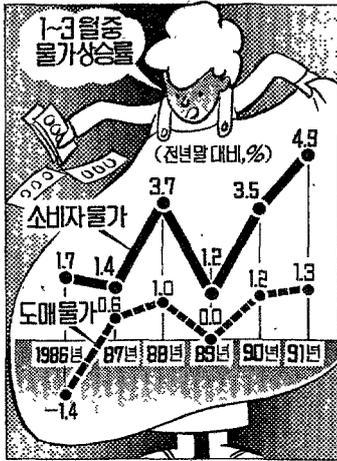
물과 인민생활의 기본조건이다. 물과가 부족하면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가 인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 인민생활의 기본조건이다. 물과가 부족하면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가 인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 인민생활의 기본조건이다. 물과가 부족하면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가 인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 인민생활의 기본조건이다. 물과가 부족하면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과가 인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인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는 물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本報北京31日電】



가파른 물가오름세가 3월에도 수그러들지않아 가격이 또들리는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30일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3월중 소비자

# 3월 物價 (소비자) 1.3% 올라

## 公共料·농수산물 주도...올들들어 4.9%

자물가와 도매물가는 지난 달에 비해 각각 1.3%, 0.1%가 올랐고 작년달에 비해서는 각각 4.9%, 1.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연말 소비자를 겨냥한 물가목표를 8.9%로 잡았지만 3월달의 물가상승률은 8.9%를 웃돌았다. 특히 공공요금은 평균 4%가 올라 물가상승세를 주도했다.

또 본격적인 공사철을 맞아 목수인건임금 상승도 5.5~8.8% 올랐고 유치원비도 10.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미의 남측화대에도 불구하고 쌀의 소비자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였고 과일·채소류장도 강세를 유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아침 陳檢기회의차관 주재로 판계부처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및 집세오름세를 잡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료가격을 인하 인장하지 않기로 한편 에틸렌 등 나프타유분 및 합성수지가격을 4월중 인하키로 했다.

집세안정을 위해 서울을 7대도시의 예 城南·安山·廣川 등 3개도시를 집중점검대상에 추가 집세및 상가임대료동향을 이들 간격으로 조사하고 가수요조집이 보이는 지역에는 특가 투기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공급부족으로 값이 오르는 농수산물에는 특각수임으로 대처하고 국제원자재값이 내리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부칙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 2/4분기 보도기사

(4월~6월)

여 백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승격된지 6일째 1백일을 맞았다.

우리나라 통계업무를 총괄 해온 조사통계국은 48년 정부수립이후 공보처·내무부·경제기획원등에 소속돼 방대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서자취급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그러



△閔泰亨청장

나 이제는 영원한 정부조직법상 독립기구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기획원의 1개국 수준에서 廳단위로 격상됐다고 해서 업무내용이나 기능이 크게 달라진것은 아니다. 통계 전문인력이 대거 보강된것도 아니고 예산이 늘어

나지도 않았다. 어찌보면 단판만 바뀌 단상대에서 통계청시대를 맞이했다고도 볼수 있다.

統計廳 출범 1백일

그만큼 통계기능의 강화 문제는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통계청이 국민의 통계에 대한 방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는 여부 즉이라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발족으로 통계의 역할에 대한 정부 및 일반국민의 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통계청이 자료의 대량생산에서 탈피, 「통계의 질을 높이는 데 최 대한 노력을 두겠다는 것도 이러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閔泰亨청장의 이와 관련,

「통계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전제하고」이를 위해 정확한 통계를 생산

해야 함은 물론 경제협상의변화를 제대로 꿰뚫을 수 있는 통계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올해안으로 수요, 공급, 물가, 금융, 국제수지, 소득, 생산, 고용 등 8개 경제부문에 대해 추모델을 개발, 이를 통해 통계의 유용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및 경기지수 산출방식도 경제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수 있도록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중립추산부·보사부 등으로 나눠있는 통계청의 업무와도 추진중이다.

이같은 업무의 수행은 기구의 팽창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업무를 감당할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또 통계전문가로서 보합을 느낄수 있는 토양의 마련도 중요하다.

△孫顯德기자

국민 종합情報창구 역할 기대

자료 質향상·서비스확대에 주력

통계청은 이에 따라 대기·도양·수질·염분 및 소음·광해 등에 대해서도 통계를 만들어 내고 현재 보사부 등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통계도 계속 개발할 방침이다.

閔청장은 「통계청의 설립목적은 정확한 통계자료의 산출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자료이용의 확대에도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통계의 혜택을 보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閔泰亨청장

# 89년 도시가계지출의 4.7%

물품은 전이들이 아인한이  
 이 활발해지면서 여가를 즐  
 기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가 소비의 손익이 늘었다  
 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여가 소비의 양도 늘었다. 또  
 여가 소비의 질도 높아졌다.  
 사립에 대한 수요도 늘었고  
 여가 소비의 양도 늘었다. 또  
 여가 소비의 질도 높아졌다.  
 여가 소비의 양도 늘었다. 또  
 여가 소비의 질도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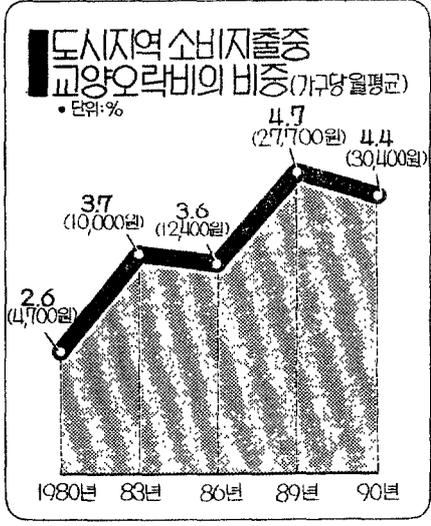
## 統計 이야기

### 늘어나는 레저비용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  
 서 통계청에서 매달 실시하  
 는 도시가계조사에 관광·오  
 락비 지출과 이것이 소비지  
 출증 차지하는 비율은 대강  
 의 추세를 가늠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소비지출  
 중 관광·오락비가 차지하는 비  
 율은 88년의 3.9%에서  
 89년의 4.7%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88년 3.9%에서  
 89년의 4.7%로 증가세를  
 보였다.

## 農家에선 0.9% 불과... 都農격차 심해

농민은 임금으로 소득이  
 늘어난다. 의식도 바뀌어 여  
 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여가 활  
 동비는 이에 훨씬 못미친다.  
 농민소득의 0.9%에 불과한  
 여가 소비는 도시가계의  
 4.7%에 불과하다. 농가의 여  
 가 소비는 도시가계의 여가  
 소비비의 1/5 수준이다.  
 0.9%에 불과하다.



또 도시가계의 관광·오락비  
 지출은 88년 10.0%에서 89년  
 12.4%로 늘었다. 이는 도시  
 가계의 여가 소비가 증가하고  
 여가 소비의 질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농민은 임금으로 소득이  
 늘어난다. 의식도 바뀌어 여  
 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여가 활  
 동비는 이에 훨씬 못미친다.  
 농민소득의 0.9%에 불과한  
 여가 소비는 도시가계의  
 4.7%에 불과하다. 농가의 여  
 가 소비는 도시가계의 여가  
 소비비의 1/5 수준이다.  
 0.9%에 불과하다.

이것이 농촌수확, 대도시지역의  
 소득 격차다.  
 그러나 기대수준은 높아지  
 는데 대도시의 여가 소비는 수  
 억수백에서 수십억수백으로  
 증가했다. 84년 40  
 %에서 89년 45%로 증가했  
 고 그 이후로는 45%로 부합  
 (41.3%)과 시가부족(37  
 %)을 가장 많이 보였다.  
 결국 도시시간편의의 마  
 음향고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여  
 가 생활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농민은 도시와 농촌의 여가  
 생활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여  
 가 생활은 도시와 농촌의 여  
 가 생활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여  
 가 생활은 도시와 농촌의 여  
 가 생활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  
 하고 있다.

<梁在燦기자>

總人口 4,352만19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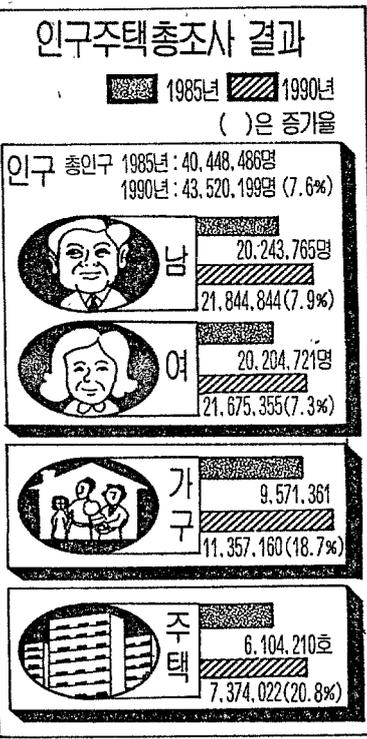
# 42.7% 수도권 집중

정무 90 인구·주택조사 발표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작  
년 11월 1일 현재 4천3백  
52만 1천99명으로 집계됐

다. 이는 85년에 비해 3백  
7만 2천명(7.6%)이 늘  
어난 것으로 지난해 연간  
인구증가율은 0.93%로  
낮아졌다.

또 전국가구수는 1천1  
백35만7천가구로 85년 대  
비 18.7% 증가했고 주택  
은 7백37만4천호로 평균  
집 2채에 3가구꼴로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 5년새 7.6% 증가 先進國 鐘聲 2021년 GDP 비하락 예상

### 2010년 新婦감별따기

현재 국교생 43만명 장가들기 힘들다

현재 국민학교에 다니는  
남자의 약 30% 정도는 결  
혼전망이 꽤 높고 신부감이  
없어 장가를 못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통계청의 발표한 90  
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전  
계에 따르면 결혼전망이 인  
25~29세 남자와 20~24세  
여자의 인구비율은 각각 여  
자 비율이 높은 女超현상의  
서 지난 85년의 1.4배에 달  
고 비로그 이후 남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결혼전망  
기 남자 비율이 104.7대  
100.0으로 남자가 여자보  
다 4.7%(9만8천명) 많  
았으며 이는 2000년에

기 남자가 1백94만6천명  
이 되는 반면 여자는 1백  
51만3천명에 불과해 남자  
가 여자보다 무려 28.6%  
(43만3천명)나 많아지게  
된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어린  
이들의 남녀비율은 5:9  
세가 107:1, 4세가 1  
12:7, 3세 107:5, 2  
세 111:8, 1세 113:  
5, 0세 114:7 등으로  
저연령층으로 내려갈수록  
기합컷이 두드러지고 있다.

성비와 국이 두드러지게 나  
타고 있다.  
이처럼 남녀성비가 깨지  
는 것은 최근 남자들이 가  
려남기 등 1차 선택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여아를 임신했을 경우 인공  
유산까지 하는 등 자노출산  
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때  
문이다. 남노성비가 왜곡  
됨에 따라 결혼희망자가 변화  
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  
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국 인구의 42.7%  
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몰려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  
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출생  
률이 둔화되면서 인구구조  
는 후진국형인 피라미드형  
에서 선진국형인 鐘型으로  
로 바뀌고 있다.  
통계청은 작년 11월 1일  
부터 1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센서스를 토대로 12  
일 이같은 내용의 '90년 인  
구주택총조사결과 및 인구  
추계를 발표했다. 통계청  
은 그러나 인구조사 때 발생  
하는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4천2백99만8천명이  
며 작년 7월 1일 기준 4천  
인구는 4천2백86만9천  
명이라고 밝혔다.

수도인구는 서울이 85년  
대비 10.3% 증가한 1천62  
만8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  
음이 경기(6백15만4천  
명), 부산(3백70만8천명)  
경남(3백68만명), 경북(2  
백86만6천명), 전남(2백  
52만3천명), 대구(2백22  
만9천명), 전북(2백7만  
명), 충청(2백2만8천명)  
인천(1백91만8천명), 강  
원(1백55만2천명), 충북  
(1백41만4천명), 광주(1  
백14만5천명), 대전(1백

6만2천명) 제주(도) 51만  
4천명 등의 순으로 집계  
됐다.  
지난 5년간 늘어난 인구  
의 90.5%가 수도권에 집  
중, 수도권 인구가 무려 17  
6%나 늘어나는 등 정부의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정책이  
실질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은 7백37만4천호  
로 도시지역이 85년보다 20  
8% 증가한 4백74만9천  
호인 반면 郡 지역은 2백62  
만5천호로 4.7%가 줄었  
다.  
한편 인구수는 유년 20  
21년과 가서 5천58만6  
천명으로 전 연령층이 모두 감  
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 2000년 장가가기 어려워진다

男子女보다 19.4% 많아져

## 「가려내기」로 深化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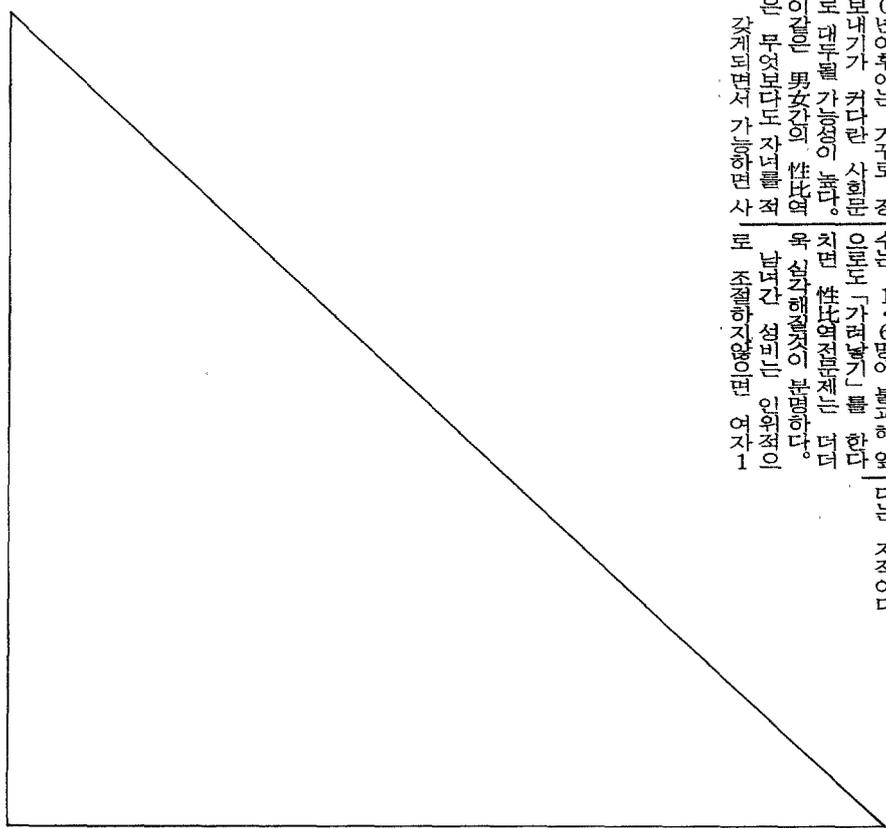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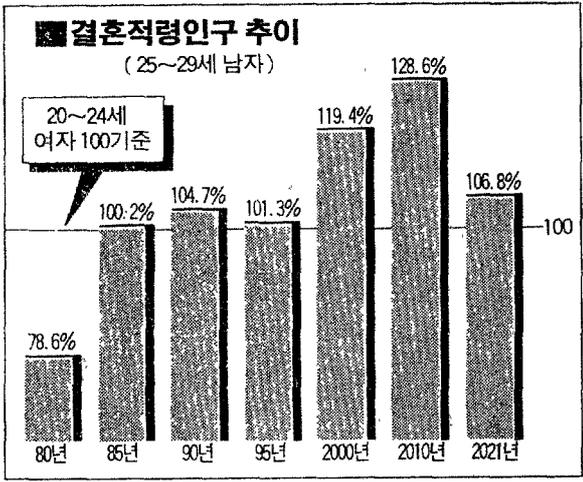
性차별 관습·제도 개선 시급

사내아이를 더 원한다. 부  
 린간은 종종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 여자 기일이 생긴  
 지경이 됐다.  
 통계청의 인구조사결과  
 에 따르면 90년의 性比는  
 여자 1백명당 남자 1백·  
 8명(조정치 1백1·3명)  
 으로 균형상이다.  
 문제는 인원이 부족수족  
 性비가 높아진다에 있다.  
 86~90년의 태어난 아이  
 (0~4세)가 여자 1백명  
 당 남자 1백12명뿐이며 ▲5

계산이다.  
 지난 80년에는 여자 1백  
 명당 남자가 78·6명밖에  
 과해 여자의 婚配가능성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  
 래했었음을 생각하면 20  
 00년 이후에는 기구로 장  
 가보내기가 커다란 사회적  
 제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같은 男女간의 性比의  
 점 무었보다도 자녀를 적  
 게 갖게되면서 가중하면 사

내이를 가지겠다는 의식  
 과 이를 위한 그릇된 노  
 려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이다.  
 90년에 우리나라의 여성  
 한사람이 평생 남의 자녀  
 수는 1·6명의 불과해왔  
 으므로 「가려내기」를 한다  
 치면 性比의 격차는 더욱  
 유심해질것이다. 분명하다.  
 남자가 심하게 인위적인  
 로 조절하지 않으면 여자 1

백명당 남자 1백7명정도남  
 자출생률이 많다. 그러다가  
 사망률차로 40대에 가면성  
 비가 엇비슷해지게 되어있  
 다.  
 따라서 최근 5년새 새로  
 태어난 아기의 삼할수인  
 위적인 조절이 가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하다.  
 따라서 자녀의성별비의  
 식하지않고 「가려내기」  
 이를 뒷받침하기위한 性차  
 별적인 관습과 제도의 개  
 선등이 시급히 이뤄져야한  
 다는 지적이다.



# 人口43% 首都圈 집중

## 인구·주택조사 5년새 17.6% 증가

◇市·道別 人口 추이  
<단위=천명, %>

구 분	85년	90년	증 감(율)
全 國	40,448	43,520	3,072(7.6)
6 大 道 市	18,343	20,680	2,337(12.7)
서울	9,639	10,628	989(10.3)
부산	3,515	3,798	283(8.1)
대구	2,030	2,229	199(9.8)
인천	1,387	1,818	431(31.1)
광주	906	1,145	239(26.4)
대전	866	1,062	196(22.6)
9 개 도	22,105	22,840	735(3.3)
경기	4,794	6,154	1,360(28.4)
충청	1,725	1,592	△133(△7.7)
전라	1,391	1,414	23(1.7)
호남	1,135	1,028	△107(△9.4)
강원	2,202	2,523	△321(△14.6)
충북	2,011	2,223	△212(△10.5)
충남	517	514	△3(△0.6)
경북	488	514	26(5.3)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작년 11월 1일 현재 4천3백52만 1천99명으로 지난 85년 이후 5년동안 3백7만 2천명(7.6%)이 증가했으며 신규인구증가수의 90.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울·인천·경기·대구·부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3가구중 1가구 無주택

### 脱農가속... 郡가구 11% 줄어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및 인구추계에 따르면 인구증가율은 75년 10.3% 85년 8.0%에서 이번에는 7.6%로 점차 둔화돼 오는 2천21년에는 5천58만 6천명에서 인구증가율이 정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같은 우리나라 총인구는 에티오피아의 4천6백74만명에 이어 세계 23위이며, 1인당 인구는 4백32명으로 발라라데시(8백3명), 태완(5백39명)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6% 증가한 가운데 서울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고, 서울 등 5개도는 인구가 줄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2천2백83만 4천명, 여자가 2천1백66만 6천명으로 남녀차이를 나타냈다. 1백16만 8천명 많았으나 최근 男兒선호 때문에 오는 2천년에는 男자가 女주보다 19.4%나 많고 2천10년에는 28.6%나 많은 사회분례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러나 大學진학 연령층(18~21세)은 올해 3백65만명을 정점으로 오는 95년에는 3백25만명으로 점차 감소, 대학입시지옥 현상이 차츰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전국 총가구는 1천1백35만 7천가구가 중 市 지역이 8백46만 6천가구로 33.7% 증가한 반면 郡 지역은 2백89만 1천가구로 10.8% 감소, 脫農 현상이 두드러졌다.

가구당 인구는 85년 4.2명에서 3.8명으로 감소, 핵가족화와 함께 1가구 2자녀 미만 현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총주택은 7백37만 4천가구로 5년간 20.8%가 증가한 가운데 △단독주택 4백89만 가구 △아파트 1백67만 가구 △연립주택 49만 9천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아파트는 85년에 비해 1백3.3%나 늘어난 1백67만가구로 단독주택보다 4.5배나 많은 아파트가 건립됐다.

# 90년 인구주택 총조사 분석

90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의 인구 구조가 「한반도」의 선진국구조로 완전히 자리잡아간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정착되면서 14세이하인구는 추산하면 65세이상 노령인구는 갈수록 늘 전망이다. 또 여전한 수도권인구집중문제, 인구증가율을 2배이상 웃도는 인구증가율, 학교의 다급 연평층의 구축소요도 앞으로의 적절한 정책 대응을 요구하는 부분들이다.

◇총인구 = 전국인구 90년 1월 1일 0시 현재인구 4억 8천 600만 7천 800명이며, 전년전국인구 4억 7천 900만 7천 800명

1) 10년 인구의 증가율은 7.4%로, 전년의 7.1%를 웃돌았다. 이는 1970년대 4.7%, 1980년대 6.7%, 1990년대 7.2%에 비해 증가세는 완만하다.

2) 10년 인구의 증가율은 7.4%로, 전년의 7.1%를 웃돌았다. 이는 1970년대 4.7%, 1980년대 6.7%, 1990년대 7.2%에 비해 증가세는 완만하다.

3) 10년 인구의 증가율은 7.4%로, 전년의 7.1%를 웃돌았다. 이는 1970년대 4.7%, 1980년대 6.7%, 1990년대 7.2%에 비해 증가세는 완만하다.

4) 10년 인구의 증가율은 7.4%로, 전년의 7.1%를 웃돌았다. 이는 1970년대 4.7%, 1980년대 6.7%, 1990년대 7.2%에 비해 증가세는 완만하다.

5) 10년 인구의 증가율은 7.4%로, 전년의 7.1%를 웃돌았다. 이는 1970년대 4.7%, 1980년대 6.7%, 1990년대 7.2%에 비해 증가세는 완만하다.

6) 10년 인구의 증가율은 7.4%로, 전년의 7.1%를 웃돌았다. 이는 1970년대 4.7%, 1980년대 6.7%, 1990년대 7.2%에 비해 증가세는 완만하다.

7) 10년 인구의 증가율은 7.4%로, 전년의 7.1%를 웃돌았다. 이는 1970년대 4.7%, 1980년대 6.7%, 1990년대 7.2%에 비해 증가세는 완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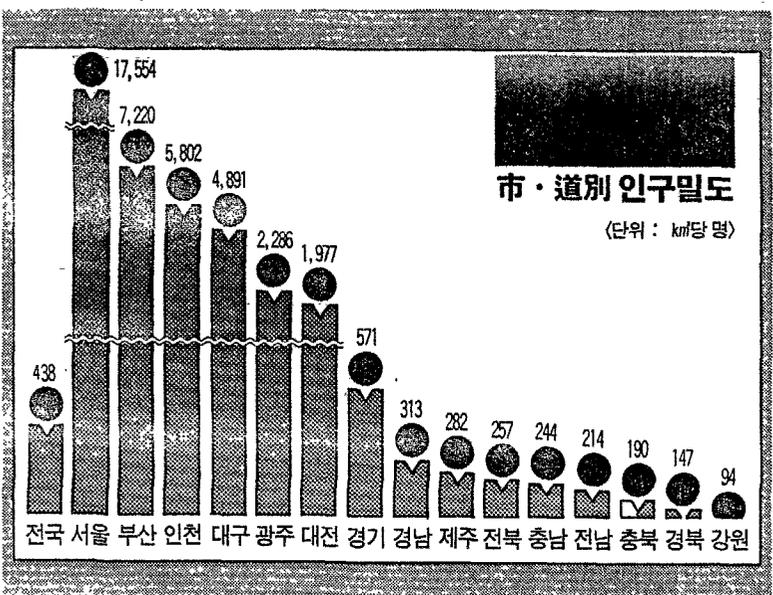
◇전국인구 = 90년 1월 1일 4억 8,607만 7,800명

## 화생총 감소폭 좁아진다

90년 인구주택총조사 분석 결과, 전국의 인구가 90년 1월 1일 현재 4억 8,607만 7,800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이는 1970년대 4.7%, 1980년대 6.7%, 1990년대 7.2%에 비해 증가세는 완만하다.

전국의 인구가 90년 1월 1일 현재 4억 8,607만 7,800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이는 1970년대 4.7%, 1980년대 6.7%, 1990년대 7.2%에 비해 증가세는 완만하다.

### 가족계획효과 인구증가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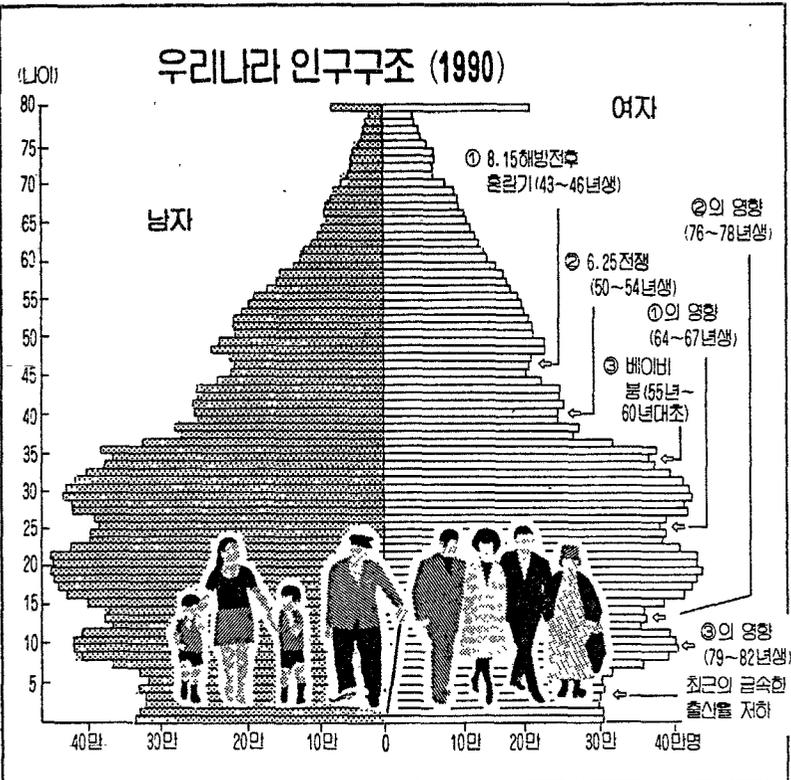


# 90년 인구·주택센서스내역

우리나라 인구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급속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 11월 1일 기준으로 인구는 4천 200만 5천 8백 9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980년 3천 200만 5천 8백 95명보다 1천 0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인구증가의 원인은 출생률의 증가와 사망률의 감소에 있다. 특히 출생률은 1980년대 후반에 2.0%를 기록한 후, 1990년에는 2.1%로 증가했다. 사망률은 1980년대 후반에 7.6%를 기록한 후, 1990년에는 7.0%로 감소했다.

성별 인구는 남자가 2천 100만 5천 8백 95명, 여자가 2천 100만 5천 8백 95명이다. 성비는 100명당 100명이다. 연령별 인구는 0-4세 400만 명, 5-14세 1,000만 명, 15-64세 1,800만 명, 65세 이상 800만 명이다.



# 「핵가족」加速1가

우리나라의 핵가족화 현상은 198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에 달했다. 이는 1980년 500만 가구보다 500만 가구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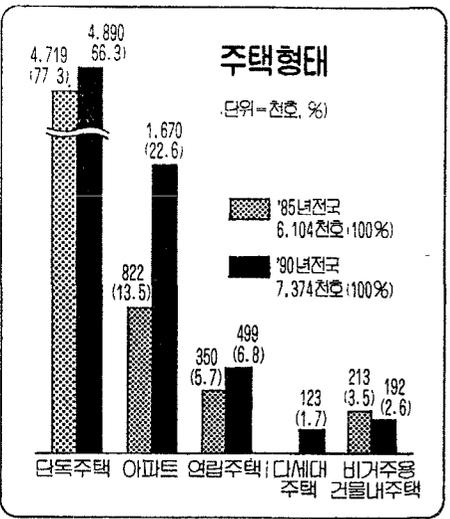
핵가족화의 원인은 출생률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에 있다. 특히 출생률은 1980년대 후반에 2.0%를 기록한 후, 1990년에는 2.1%로 증가했다. 평균수명은 1980년대 후반에 70세를 기록한 후, 1990년에는 72세로 증가했다.

핵가족화의 영향은 주택정책, 교육정책, 의료정책 등에 있다. 특히 주택정책은 핵가족화를 반영하여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핵가족화를 반영하여 교육비를 늘려야 할 것이다.

◇주요인구지표 (1990)

구분	대한민국	세계	일본	중국	개도국
총인구(천명)	42,869	5,292,178	1,205,193	1,086,985	
출생률(천명/1천명)	15.6	26.7	14.3	30.4	
사망률(천명/1천명)	5.8	9.6	9.7	9.6	
이전(천명/1천명)	0.5	—	—	—	
인구밀도(명/1km <sup>2</sup> )	432	39	21	52	
합계(명/1천명)	1.63	3.37	1.90	3.81	

우리나라의 인구는 1990년 4,200만 5,89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980년 3,200만 5,895명보다 1,0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주 3.8명

7평형사 90평형사 1:6.8명  
 이며 장수(자도) 빌라 아파트  
 가의 소외도 확산되고 있다.  
 ○ 영아아파트 영아아파트 전  
 세계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아아파트	74.0	70.4	77.0	100.0	100.0	66.4	50.4	35.6
영아아파트	74.4	42.7	72.7	33.9	60.6	59.1	35.6	26.6
영아아파트	71.3	67.4	75.4	100.0	100.0	62.6	60.6	33.9
영아아파트	71.3	67.4	75.4	100.0	100.0	62.6	60.6	33.9

\*부양비=(15세미만인구+65세이상인구) / (15~64세인구)

로 폭격 나 타났다.  
 서울전역의 100만 가구의 지  
 단 80평형사 78.6이던 여  
 자 인구가 90평형으로 1백4.7로  
 90평형사 1백4.7로  
 전체로 1백300이 늘고 있다.  
 70평형사 2010평형사 1

## 人口구조 「항아리型」 변모

性比 갈수록 커져 20년 뒤 남자가 1.28배  
 아파트 5년새 2 배로 늘어 전체의 22%

백 28.6이던 크게 높아질 전  
 망이다. 20년후의 10명중  
 3명이 제법인 장가가기 힘  
 들다기 때문이다.  
 15~64세의 경제활동가  
 인구는 90년 69.2%에서 전  
 차 1.5%인 72.0%로

10%의 생활전선으로 영산포나  
 그후 전선전 생활을 짓기로  
 에 출생한다.  
 한편 한편은 다름 100만  
 6~12세의 한 평형사 80평  
 의 1천4백40만평형 평형이  
 1천 4백 40만 2000평형  
 영구 50만 2000평형 평형  
 전망이다.

90년 영아아파트 총  
 가구수가 1천1백  
 35만7천가구로 85년의 비해  
 18.7% 늘어났다. 이구인  
 구증가를 7.6%의 비평  
 두배이상 증가한 추세이다.  
 이평 市 지역인 33.7% 증  
 가했다. 평 지역인 10.8%가  
 10.8%가 감소, 離慶向都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한편 가구당 평형인원수가  
 핵가족화 단위의 증가 추  
 세를 반영 85년의 4.2명에서  
 3.9명으로 3.0명이 줄어들  
 었다. 4인가족이나 이전  
 평형이 되고 있다. 市·郡  
 별로는 85년의 경우 市 지역  
 이 4.1명, 郡 지역이 4.3  
 명이었다. 90년엔 市·郡  
 모두 3.8명인 감소, 郡 지  
 역의 가구당 감소가 더욱 두  
 배로 늘었다.  
 주택 37만4천평형 85년  
 의 비해 20.8% 증가했다.  
 市 지역의 주택수가 41.8%  
 늘어난 반면 郡 지역은 4.7  
 % 감소했다.  
 주택당 가구수는 전 평형  
 1.5가구로 3가구당 1가  
 구가 부족해진 것으로 나  
 타났다. 이구 85년의 1.6  
 가구의 비해 0.1가구가 줄  
 어나고 있다.  
 주거형태별로는 단독주택  
 이 3.6% 증가에 그친 반  
 면 아파트는 1백.0.6%가  
 늘었다. 이평 평형 주택  
 평형이 아파트가 차지하고 비  
 중이 88%인 13.5%에서  
 22.6%로 높아졌다.  
 <孫顯德기자>

# 인구 流動性 증가... 52만명 誤差

90년 人口 통계 偏差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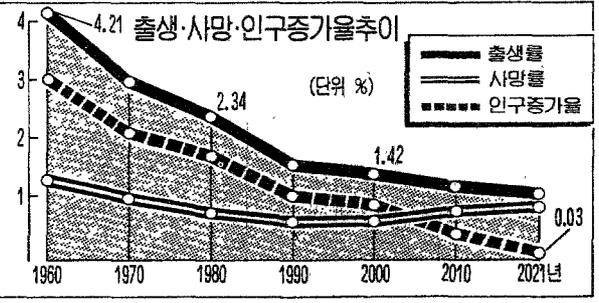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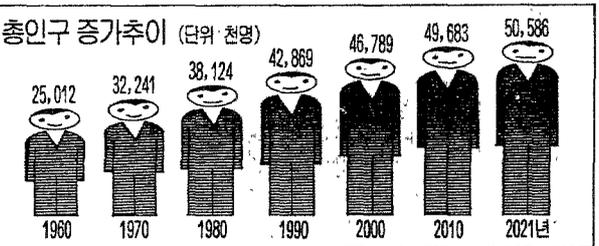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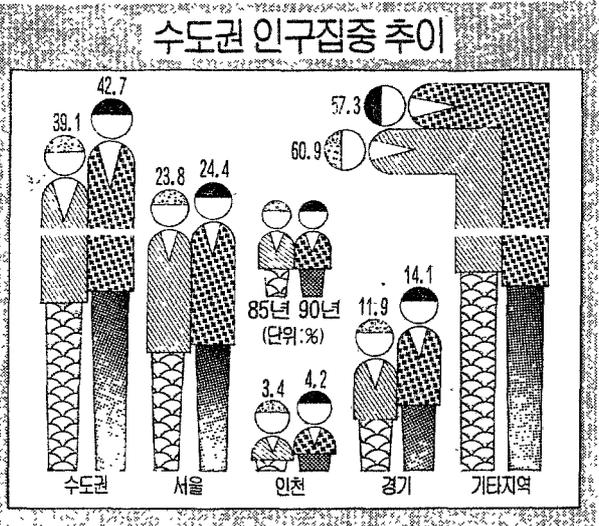
인구·주택 총조사란 일정한 지역의 인구를 비롯 가구·주택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다. 1985년 실시된 총조사 이후 이번이 14번째이다. 이번 총조사에서 잠정 집계된 총인구와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를 따지면 대인구는 90년 추산인구 수인 52만 2천명보다 1.2%의 오차가 생겼다. 또 각 시도에서 해마다 10만명의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상주인구의 증가·감소를 차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인구조사에 왜 오차가 발생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일부 시·군·구에서 인구가 예상보다 많은 양의 부정확한 인구를 집계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는 인구의 과잉 집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센스인구와 추계인구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총조사 과정에서 집계된 인구가 실제 인구에 비해 과잉 집계된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85년 이후 5년 단위의 인구는 10년간의 집계 10만명의 조사 오류를 통해 전후적으로 실시됐다. 조사 오류를 인수로 채용한 결과 인구가 과잉 집계된 실정이다.

이번 센스인구에서 나타난 오차의 특징은 지난 85년의 경우 추계 인구가 센스인구보다 오히려 40만명의 많은 편이었다. 이번 추계 인구가 센스인구보다 52만 2천명이나 적게 집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발생 원인은 85년 인구는 전체인구로 인구가 과잉 집계된 인구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센스인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집단적 과잉 집계를 우려하거나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를 과잉 집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년층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은퇴 후 양육 조사에 참가하는 등 비

거주 인구가 실제 거주자와 다른 곳에서 중복 체류했을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업 종사자나 해외유학 생활자 등 인구의 이동이 많아진 상태에서 이번의 과잉 집계를 도출된 원인은 조사 방법의 과잉 집계를 주로 총조사자가 과잉 집계를 실시했다는 것이 통계청측의 설명이다. 추계인구란 이같은 이유를 총 조사를 배제하기 위해 총조사 가 끝난 후 전후적으로 추산된 3만 2천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후 추산인구인 것이다. 실제 조사를 실시 확인된 누락 또는 중복의 정도를 감안하여 총조사인구를 조정할 것이다. 전후적으로 총조사를 하므로 정확할 것처럼 보이는 센스인구가 실제로 적

## 推計人口, 센서스보다 1.2% 적어



「自計式조사법」 채택... 非거주자 算入 가능성 인정  
市승격·예산增額 겨냥, 의도적 부풀리기 경향도

이처럼 행정안전부의 의향상 주민등록세는 전후적으로 총조사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인구조사 방법의 과잉 집계를 방지하기 위해 전후적으로 추산된 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후 추산인구인 것이다. 실제 조사를 하므로 정확할 것처럼 보이는 센스인구가 실제로 적

거주 인구가 실제 거주자와 다른 곳에서 중복 체류했을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업 종사자나 해외유학 생활자 등 인구의 이동이 많아진 상태에서 이번의 과잉 집계를 도출된 원인은 조사 방법의 과잉 집계를 주로 총조사자가 과잉 집계를 실시했다는 것이 통계청측의 설명이다. 추계인구란 이같은 이유를 총 조사를 배제하기 위해 총조사 가 끝난 후 전후적으로 추산된 3만 2천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후 추산인구인 것이다. 실제 조사를 실시 확인된 누락 또는 중복의 정도를 감안하여 총조사인구를 조정할 것이다. 전후적으로 총조사를 하므로 정확할 것처럼 보이는 센스인구가 실제로 적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고 과잉 출산율이 10% 이상에 달하였다. 그러나 도시인구집중 완화와 여자의 불균형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90년 인구센서스의 관련 인구문제를 閔泰亨 통계청장이 비판하고 있다.

### 정정 인구구조는

—양으로 인구증가 전망일  
▲50, 60년대는 베이비붐이  
보 3% 이상의 높은 증가율



증가율은 70년대 가장 격화  
을 보였다. 80년대는 가  
의 신생아 2% 수준으로  
하락했고 최근엔 1%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증가율은 현 추세대로  
이면 계속해 30년 후엔 제로  
증가율에 근접할 것이다.  
—인구증가 예상치보다 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대책이  
▲인구는 노령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다. 그렇다고 해서

## 教育 등 향상·고용구조 改善 필요 地域間 균형개발 都市 집중 방지

증가율을 높일 수는 없는 것  
이고 문제는 인구의 질을 높  
이는 데 있다. 질을 높이기 위  
해선 의료·보육·교육수준을 높  
이고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인구의 노령화 추세는 여  
러가지 사회문제를 수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반한 것으로

閔泰亨  
〈통계청장〉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인구의 노령화는 경제활  
동인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후보장 등 사회복지의 확대  
를 요구한다. 부양비는 지난  
해 44.5%에서 꾸준히 감소  
하다 200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에선 노후보장대  
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은 여  
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중 현안으로 인구의 도  
시화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  
다. 문제는 도시화율 상승에  
있기보다 대도시인구집중  
으로 교통·공해·주택 등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 요점정리

- ◇인구집중은 지방중소도시의 균형개발과  
위성도시 기능분산으로 해소.
- ◇性比불균형을 막기 위해 남아선호사상개  
혁, 여성의 지위향상.
- ◇인구노령화는 보건·교육수준개선으로 인  
구의 질적 향상요구.

있다.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로  
지방중소도시를 육성하고 서  
울·충·강·경·대 도시인구분산을  
위한 위성도시개발도 병행돼  
야 한다.  
—性比불균형으로 인한 성  
비차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폭소리가 높아데.  
▲性비구조개선을 위해 부  
린 것은 男児 선호의 심화되며 개  
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  
의 사회적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 人口變動、적극對處하자

## 社說

통계청이 12일 이른바 「90년 인구추계」를 발표하여 발표했다. 경제사회 발전계획수립의 중요한 바탕이 될 이 자료는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두드러진 인구移動 및 인구구조변동의 추세는 첫째 人口의 首都圈 집중현상, 둘째 人口의 老齡化, 셋째 男女性比 불균형의 심각성이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작년 11월 1일 현재 4천 3백52만 1백99명으로 이중 42.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 인구는 1천 62만 7천 90명으로 전국의 37.9%의 불균형 현상과 서울 인구의 40%가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전체인구의 47.7%를 차지하고 있는데 70년대 초부터 부각되기 시작했고 정부도 거의 매년 책인부서의 기구를 바꾸어가고 있으며 가지 인구

집중의 제 몇 분사책을 써왔으나 그같은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과 교통 주택 환경 교육 치안 등 제반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또피부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이제까지와 같은 시행착오적 정책을 되풀이할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실시될 地方自治를 통한 철저한 地方分權化, 학교 관청 및 기업체 이동, 지방투자 및 개발 등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老齡化 추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사항 중의 하나이다.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및 의학의 발달 등으로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늘어났으며 노인 인구가 점차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90년 현재 평균수명은 71.3세(남) 67.4세(여) 74.4세(합)로 이것은 2000년엔 77세(남) 74.9세(여) 79.1세(합)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령인구 비

율은 90년 5%이던 것이 2002년엔 1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노년층은 노령인구 활동과 노년층을 위한 복지문제이다. 당국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해왔으나 아직 이렇게 다할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하더라도 지적해야 할 것은 男女性比의 불균형 추세이다. 절충적인 남녀 선호 현상으로 여아 태가 성별하여 여아의 출생이 계속 줄고 있다. 결혼 연령이 남녀 비율은 작년의 경우 1백47대 1백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4.7%(9만 8천명) 많았는데 오는 2000년엔 남녀성비가 더욱 벌어져 남자가 여자보다 19

4%나 많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독신생활자의 증가로 성별 불균형을 막아 자살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사회경제 및 법적 인권을 개선하여 男兒 선호의식을 바꾸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튼 90년 인구조사로 같은 인구가 변동 추이가 또 다시 확인됐고 또 그것들이 우리의 사회경제 관행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부각된 이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정확한 분석과 판단 아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社說

산업再配置로 人口集中막아야

80년대의 후반에 접어들어 산업의 발전은 비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산업의 재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의 과밀화를 막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경제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방의 경제 발전이 지연된다. 또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수도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의 경제 발전이 지연된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의 과밀화를 막아야 한다.

한 나라이면, 인구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방의 경제 발전이 지연된다. 또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수도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의 경제 발전이 지연된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의 과밀화를 막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경제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방의 경제 발전이 지연된다. 또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수도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의 경제 발전이 지연된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의 과밀화를 막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경제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방의 경제 발전이 지연된다. 또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수도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의 경제 발전이 지연된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의 과밀화를 막아야 한다.

이 이상 비대화하면,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인구의 과밀화가 초래된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의 과밀화를 막아야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방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인구의 과밀화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의 과밀화를 막아야 한다.



社説

8월 11일~14일 4일간의 평균치를 나타내면, 1931년 4월 11일~14일 4일간과 비교하여, 1932년 4월 11일~14일 4일간은, 1%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1932년 4월 11일~14일 4일간에 있어서, 1931년 4월 11일~14일 4일간과 비교하여, 1%의 증가를 보인 것임을 시사한다. 이 같은 사실은, 1932년 4월 11일~14일 4일간에 있어서, 1931년 4월 11일~14일 4일간과 비교하여, 1%의 증가를 보인 것임을 시사한다. 이 같은 사실은, 1932년 4월 11일~14일 4일간에 있어서, 1931년 4월 11일~14일 4일간과 비교하여, 1%의 증가를 보인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32년 4월 11일~14일 4일간에 있어서, 1931년 4월 11일~14일 4일간과 비교하여, 1%의 증가를 보인 것임을 시사한다. 이 같은 사실은, 1932년 4월 11일~14일 4일간에 있어서, 1931년 4월 11일~14일 4일간과 비교하여, 1%의 증가를 보인 것임을 시사한다. 이 같은 사실은, 1932년 4월 11일~14일 4일간에 있어서, 1931년 4월 11일~14일 4일간과 비교하여, 1%의 증가를 보인 것임을 시사한다.

人口構造의 변화와 그 對應

인구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같은 사실은, 1932년 4월 11일~14일 4일간에 있어서, 1931년 4월 11일~14일 4일간과 비교하여, 1%의 증가를 보인 것임을 시사한다. 이 같은 사실은, 1932년 4월 11일~14일 4일간에 있어서, 1931년 4월 11일~14일 4일간과 비교하여, 1%의 증가를 보인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32년 4월 11일~14일 4일간에 있어서, 1931년 4월 11일~14일 4일간과 비교하여, 1%의 증가를 보인 것임을 시사한다. 이 같은 사실은, 1932년 4월 11일~14일 4일간에 있어서, 1931년 4월 11일~14일 4일간과 비교하여, 1%의 증가를 보인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32년 4월 11일~14일 4일간에 있어서, 1931년 4월 11일~14일 4일간과 비교하여, 1%의 증가를 보인 것임을 시사한다. 이 같은 사실은, 1932년 4월 11일~14일 4일간에 있어서, 1931년 4월 11일~14일 4일간과 비교하여, 1%의 증가를 보인 것임을 시사한다.

작년말 5인이상업체

22일부터 한달간 鑛工業통계조사

통계청이 오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달간 '90년도 공업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오...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달간 '90년도 공업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와 함께 지자체 실시 이후 지역경제 통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 이번 조사를 기중도 시도 및 시군구별도 세부화된 다양한 통계자료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무신장출납수신기 권코더, 워터펌프, 산악용 등 각종 신제품을 추가 조사, 산업발전의 맞게 불특정 부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조사도 실시한다. 이번 통계조사에는 제조사, 유통업체, 도매업, 산업, 출판, 재고지수 제조업가동률, 각종 경영지표의 기준연도를 확정 85년에서 90년으로 바꾸는 기준자료도 확정되었다.

이이침에 金 昭 舜



최고경영자협회장이 90년도 일주말 총회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5년간의 수도권 인구증가 현상은 수도권과 전역 인구가 수도권화 추세에 비추어 6만여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인다. 수도권 인구는 28.4%나 증가하여 무려 42.7%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다. 이는 1985년 27.9%에 비해 14.8%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4,27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首都圈의 인구진척

이이침에... 수도권 인구는 28.4%나 증가하여 무려 42.7%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다. 이는 1985년 27.9%에 비해 14.8%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4,27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이이침에... 수도권 인구는 28.4%나 증가하여 무려 42.7%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다. 이는 1985년 27.9%에 비해 14.8%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4,27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이이침에... 수도권 인구는 28.4%나 증가하여 무려 42.7%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다. 이는 1985년 27.9%에 비해 14.8%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4,27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이이침에... 수도권 인구는 28.4%나 증가하여 무려 42.7%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다. 이는 1985년 27.9%에 비해 14.8%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4,27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 新經濟官僚

### 轉換期의 테크니크라트位相

경제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테크니크라트'이다. 테크니크라트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인재를 말한다. 이 인재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인재이다. 이 인재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인재이다.

경제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테크니크라트'이다. 테크니크라트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인재를 말한다. 이 인재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인재이다. 이 인재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인재이다.



◇ 閔泰亨 次長



◇ 金鶴炫 次長



◇ 金日鉉 次長



◇ 文炳學 次長

## 통계청

중요하다.

5. 井上 全斗煥 前대통령이 경제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당시부터 통계청장직에 임명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에서부터는 대내외적으로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부터는 대내외적으로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부터는 대내외적으로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 금년 초 廳승격 "專門性 대접" 數值 신뢰·새統計 발굴 힘써

대부분의 분야에서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에 승격이 조금 특이한 것이지만,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계속되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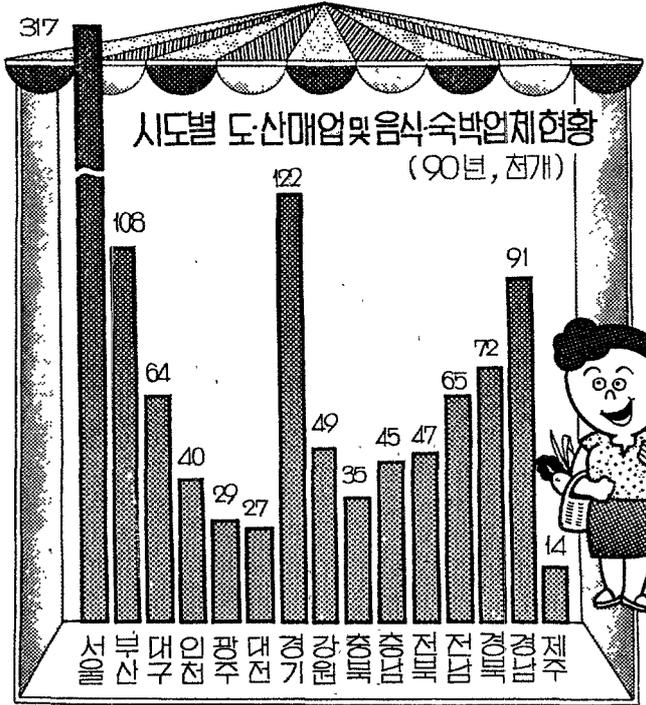
# 서비스업종 "돈방석에 앉았다"

## 작년 매출 21% 증가

### 과소비품종 편승 숙박업은 32% 늘여 최고

작년 12월 1일부터 관광과 소비  
 마다 확대되고 백화점 전과 소비  
 숙박·음식·유흥·문화·스포츠·고급  
 유선·유박업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호  
 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업종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은 전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숙박업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은  
 관광위하게 확산된 과소비  
 및 사치화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간 매출액 증가율은  
 숙박업이 32.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음식업(26.7%)  
 이었다. 문화업(20.8%)·산  
 마업(20.2%) 순이다.

특히 숙박업은 호텔업의  
 증가율이 5만 5천 4백  
 44명으로 1년간 5만 5천 4  
 1년전에 비해 36.3%나  
 증가한 1조 4천 1백 64  
 원으로 집계됐다.

또 산·매·업·및·음·식·숙·박·업  
 90년 7월 1일 현재 63개  
 종사자수는 2만 3천 4백  
 50명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2% 증가한 2  
 조 6천 96억 원으로 나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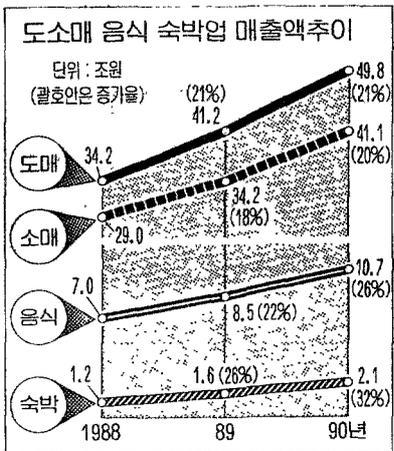
지역별 업체수는 서울이  
 전체의 28.1%를 차지, 89  
 년의 27.0%보다. 충청도  
 가 높아졌으며 서울·인천·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의 집  
 중도는 89년의 42.3%에  
 서 42.5%로 다소 높아  
 졌다.

특히 지역별 매출액에서  
 수도권 전체의 41.7%  
 (89년 40.9%)를 차지하  
 는데 수도권 내의 집중도가  
 52.1%(89년 51.3%)에  
 이르게 됐다. 6대도시의 집  
 중도는 69.8%(89년 69.3%)  
 로도 나타났다.

# 서비스업 돈망이 벌었다

## 통계청 90년 조사결과 발표

국내 도소매업및 음식 숙박업의 연간 매출액이 어섯으며 특히 백화점과



호텔의 매출이 대폭 증가, 국민 소비행태의 고도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 도소매 음식 숙박업 매출의 42%는 서울, 52%는 수도권, 70%는 6대도시에서 이루어져商圈 집중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의 매출이 대폭 증가, 국민 소비행태의 고도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 도소매 음식 숙박업 매출의 42%는 서울, 52%는 수도권, 70%는 6대도시에서 이루어져商圈 집중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 숙박 都小賣業 작년 매출 百兆원 소비형태 高級化...百貨店 호텔 급성장

조사원 百13萬업체에 2百86萬명... 89年比 5%증가

간(89년 7월~90년 6월) 총매출액은 1백3조 6천4백62억원으로 88년 7월~89년 6월의 85조 4천7백67억원보다 18조 1천6백95억원(21.3%) 증가했다.

한편 업체당 종사자수는 2.53명, 업체당 판매액은 9천1백63만원, 종업원 5인 이하 업체가 전체의 92% 연간매출 5천만원 이하 업체가 66%를 점했다.

특히 백화점의 매출은 89년 7월~90년 6월 동안 2천2백74명으로 13만 2천8백48명(4.9%) 증가했다.

호텔의 경우 전년대비 89년 5백5개에서 89년 6백21개(△소매업이 2.7% 늘어난 70만 9천8백88개, △음식업이 3.9% 늘어난 29만 8천1백96개, △숙박업이 2.5% 늘어난 3만 2천4백6개로 집계됐다.

〈要仁倂기자〉

# 소비성內需산업 "호황 신바람"

최근 소비성내需에 따라 소비성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음은 반경도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매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매출 증가율이 해마다 크게 높아지는 등 번창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 불고된 소비성내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이 경제력이 진전중인 서울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지난 7월 1일부터 기준으로 전년 7월 1일부터 7월 40개의 사업체를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90년 도·소매·음식·숙박업 매출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종사업체수가 1백13만 1천1백

## 통계청 '90년 도·소매·음식·숙박업, 조사

△업종별 현황 Ⅱ 이들 업종 전체의 매출액이 21.3% 증가한 12월만 사상 가장 많은 4백83개 증가한 것으로, 제조업이나 수출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고 있다.

매입판매액이 49조8천1

### 총매출액 1백3兆 무려 21.3%나 증가 1백13만개업소중 42%가 수도권에 몰려

△지역별 현황 Ⅲ 전체업종의 매출액 가운데 서울지역이 41.7%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으로는 절반이 넘는 52.1%가 몰려 있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수도 서울이 33.6%수도권은 46.9%에 달하며, 사업체수에서 서울 28.1%수도권 42.5%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Ⅳ 전체업종의 매출액 가운데 서울지역이 41.7%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으로는 절반이 넘는 52.1%가 몰려 있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수도 서울이 33.6%수도권은 46.9%에 달하며, 사업체수에서 서울 28.1%수도권 42.5%로 나타났다.

0.3%포인트 사업체수는 0.2%포인트가 각각 높아진 것이어서 서울로의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백화점·대형점·점점·자화점수는 63개 중사자수는 2만9천4백50명이었으며, 판매액 89년 7월 90년 6월은 2조6천

11개로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하는 2백85만 9천 2백 74명으로 4.9% 판매액 89년 7월 6천 4백 62억원으로 21.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6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8% 소매업은 41조 1천 80억원으로 20.2%가 증가한 데 반해 음식업은 10조 6천 6백 70원으로 25.7% 숙박업은 2조 5백 47억원으로 32.3%나 늘며, 도·소매업

은 87만 1천 6백 36명으로 6.1% 숙박업은 12만 5천 2백 88명으로 6.4%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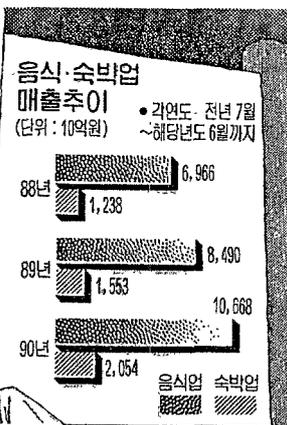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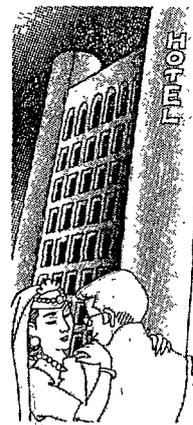
소매업 중 사자수는 1백 35만 9천 8백 76명으로 2.8%가 증가하는 데 그쳤

고 도매업은 50만 7천 4백 76명으로 8.2%가 늘었다.

사업체수는 도매업 9만 6백 21개 6.7% 증가(소매업 70만 9천 8백 88개 2.7%) 음식업 29만 8천 1백 96개(3.9%) 숙박업 3만 2천 4백 6개(2.5%)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판매액 점유비율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하는 40.8%에 달했다.

중·소기업수도 서울이 33.6%수도권은 46.9%에 달하며, 사업체수에서 서울 28.1%수도권 42.5%로 나타났다.



9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2%나 늘었다.

이는 소속 업종인 소매업 전체 증가율 20.2%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호텔업(인) 관광호텔(인) 사업체수는 6백 28개 중사자수는 5만 5천 4백 44명이었고 수입은 1조 4천 1백 64억원으로 36.3%나 늘었다.

이같은 증가율 역시 숙박업 전체 증가율 32.3%를 상회하는 것으로 백화점과 함께 대형점을 누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백화점이 25개로 39.7%를 차지했으나 중사자수는 57.5% 판매액은 66.9%를 차지했다. 또 호도 서울의 사업체수는

1백55개로 24.7%에 불과했으나 중사자수는 49% 수입액은 64.7%에 달해 대형백화점과 큰 호혜의 서울에 집중돼 있고 그만큼 서울사람들의 사치품조각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대화화 Ⅱ 전체업종중 5인 미만 사업체수가 92.1%에 달한 데 반해 66.4%의 매출액이 10명 미만의 사업체가 62.8%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한 규모다.

그러나 사업체당 중사자수가 지난 82년 2.09명에서 작년에는 2.53명, 판매액은 2천 7백 78만원에서 9천 1백 63만원으로 각각 증가하는 등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백화점이 포함된 소매업과 호텔이 포함된 숙박업의 증가율은 평균 판매액 중 80%는 14.8%와 17.5%로 도매업 1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李錫雨기자〉

# 過消費 편승 호텔·백화점 흥청

## 90년 都小賣·음식·숙박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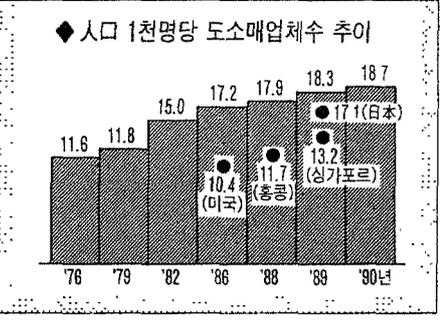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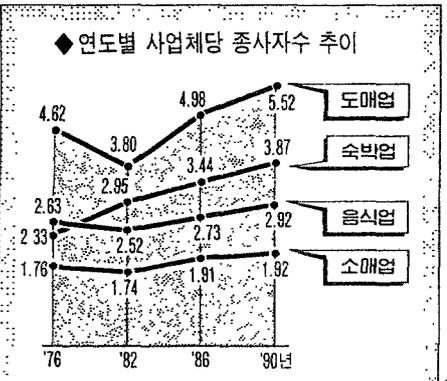
서울지역에 마트와 편의점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호텔과 백화점의 매출은 10% 이하로 줄었다. 음식점과 숙박업의 매출은 10%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서울지역의 소비수요는 1백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서울지역 소매업 매출액은 1조 2천 8백 5천 9백 7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다. 1백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서울지역 소매업 매출액은 1조 2천 8백 5천 9백 7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다.

지역별 현황은 소매업은 서울이 41.7%, 부산이 12.0%, 대구가 6.9%, 인천이 3.2%, 광주가 3.1%, 대전이 3.0%, 경기도가 7.3%, 강원도가 2.9%, 충청북도가 2.0%, 충청남도가 2.2%, 전북이 3.2%, 전남이 3.8%, 경북이 5.7%, 제주도가 1.0%이다.

## 首都圈에 42% 넘게 몰려

1천명당 업체 수 26개...美·日보다 많아  
종업원 5만 9천 명...영세성 못 벗어

계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부연설명」을 한다. 90년 7월 1일 현재 도소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90년 7월 1일 현재 도소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90년 7월 1일 현재 도소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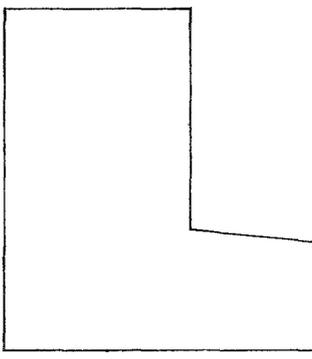
서울지역의 경우 1천명당 소매업 업체 수가 18.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10.4개)보다 8배 이상 높고, 일본(17.1개)보다도 높았다. 우리 나라는 1976년 11.6개, 1979년 11.8개, 1982년 15.0개, 1986년 17.2개, 1988년 17.9개, 1989년 18.3개, 1990년 18.7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미국(10.4개)보다 8배 이상 높고, 일본(17.1개)보다도 높았다. 우리 나라는 1976년 11.6개, 1979년 11.8개, 1982년 15.0개, 1986년 17.2개, 1988년 17.9개, 1989년 18.3개, 1990년 18.7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90년 지역별 현황 <단위=천개, 천명, 10억원, %>

지역	사업체 수	구성비	종사자 수	구성비	판매액	구성비
전국	1,131	100.0	2,859	100.0	103,646	100.0
서울	318	28.1	962	33.6	43,169	41.7
부산	108	9.6	279	9.7	12,413	12.0
대구	64	5.7	160	5.6	7,117	6.9
인천	40	3.6	95	3.3	3,267	3.2
광주	29	2.6	78	2.7	3,219	3.1
대전	28	2.4	75	2.6	3,130	3.0
경기	122	10.8	284	9.9	7,571	7.3
강원	49	4.3	109	3.8	3,007	2.9
충북	35	3.1	79	2.8	2,040	2.0
충남	46	4.0	98	3.4	2,315	2.2
전북	47	4.2	108	3.8	3,268	3.2
전남	65	5.8	131	4.6	2,265	2.2
경북	73	6.4	156	5.5	3,984	3.8
경남	92	8.1	207	7.2	5,877	5.7
제주	14	1.2	37	1.2	1,00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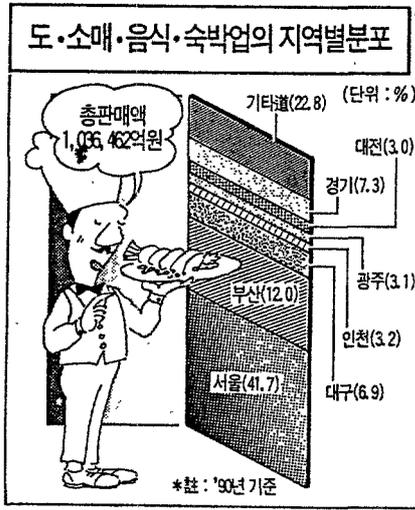
종사자가 전체의 35.1%인 반면,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59.5%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가족종사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백화점·호텔·지나해 판매액은 2조 6천 96억 4천 4백만원으로 20.2%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호텔업은 1조 4천 1백 64억 1천 3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백화점의 매출은 1조 3천 3백 30억 원으로 21.3% 증가했다. 호텔업은 1조 4천 1백 64억 1천 3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백화점의 매출은 1조 3천 3백 30억 원으로 21.3% 증가했다.



서비스輸出 첫 100兆 돌파

지난해 6大도시 비중 70%



출출이가 커피를 추척에 등도 갈수록 고급화·다양화  
호텔·백화점·음식점·화장품·의류·잡화·대형

統計廳·도·소매·숙박업 조사

사업체수도권 집중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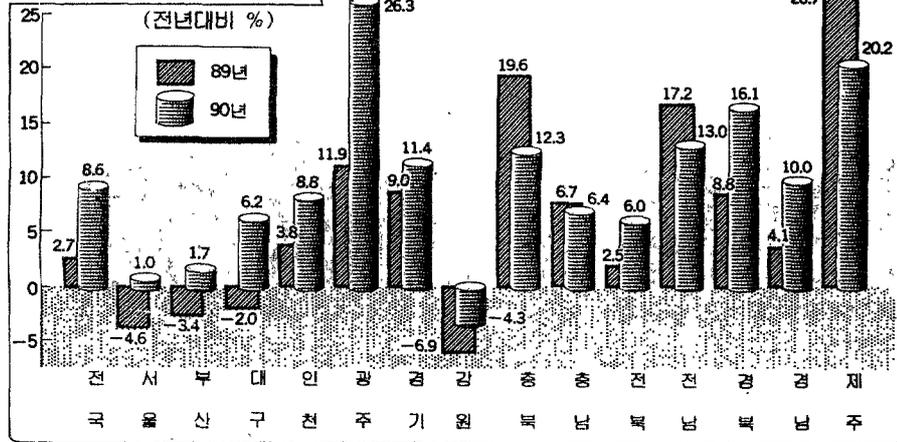
과소비 반영 호텔매출 36%늘어

다. 이윽파라 지난해 수도권 사업체수도권 집중 심화 1백3만 8천 9백 87건이던 호텔매출이 7천 8백 3천 9백 87만원으로 9.8% 증가했다. 이윽파라 지난해 수도권 사업체수도권 집중 심화 1백3만 8천 9백 87건이던 호텔매출이 7천 8백 3천 9백 87만원으로 9.8% 증가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3%가 증가한 1백3조 6천 4백만원에 이르렀다. 수도권은 전체의 62.8%인 70만 9천 9백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60만 9천 9백여건에 비해 16.4% 증가했다. 호텔업(48.1%)의 비중은 8.8%를 차지했다.

올해 전체 산업체의 8.1%가 호텔업으로 전격 6.9%를 차지했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서울(41.7%)을 포함한 6대도시의 비중이 88.0%에 달한다.

시·도별 생산 증감률



# 경기공업 회복세 뚜렷

## 자본계 생산 8.6%, 출하 11.2% 증가

경기공업이 지난해보다 회복세를 나타내며, 자본계 생산이 전월 대비 8.6% 증가하고, 출하가 11.2% 증가했다. 이는 89년 12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기계·전기·화학·금속 등 4개 업종이 10% 이상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는 2.1% 감소했다. 경기공업회 관계자는 "경기공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내며, 올해는 더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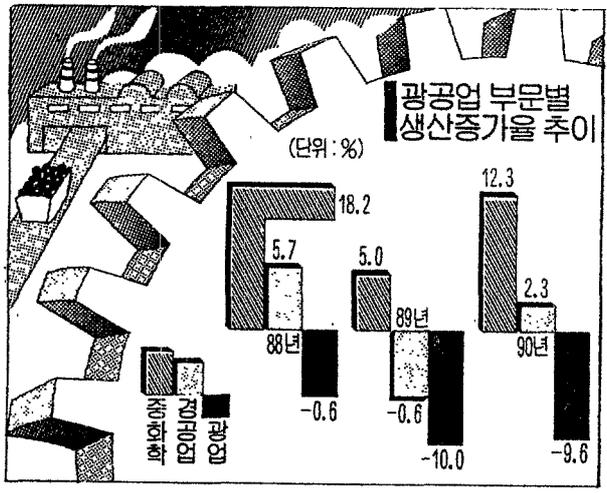
경기공업회 관계자는 "경기공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내며, 올해는 더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공업회 관계자는 "경기공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내며, 올해는 더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공업회 관계자는 "경기공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내며, 올해는 더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제조業 회복세 뚜렷

작년 重化學 호조로 생산 8.9% 증가



통계청 조사 발표  
지난해 제조업의 중화학부  
문 호조의 현상은 88년의 최  
대치를 넘어 89년엔 회복  
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업생산은 88년 이후  
3년째 계속 감소세를 보  
이고 있다.

89년의 반년세를 벗어난 것  
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중화학부문의 활황  
에 힘입어 광공업전체의 증  
가율보다 0.3%포인트 높  
9%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  
히 중화학부문의 우수장비  
전기전자·철강 등의 생산호조  
로 12.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와반해 섬유·의  
복 등 경공업부문의 2.3%  
의 저조한 증가에 그쳐 중화  
학에 비해 부진한 회복세를  
보였다. 또 광업생산도 탄광  
폐광과 다른 석탄생산량의  
감소로 89년에 10%가 줄어

## 운수·장비 23% 늘어 이듬

輕工業 약간 증가 鑛業은 3년째 減少

'89對比 생산

등 분야는 지난해에도 9.  
6%나 감소함으로써 계속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처럼 지난해 제조업생산이  
8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  
은 설비투자가 늘고 건설경  
기의 활황으로 내수가 크  
게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되  
고 있다.

중화학부문에서는 우수장  
비의 생산증가율이 23.2%  
에 이르러 가장 활황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고 산업용화학  
물(20.4%)·철강(12.2%)  
의 생산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의 생산·출하 및 재  
고동향을 보면 출하증가율은  
11.2%로 89년의 4.2%를  
크게 웃돌고 있다. 반면 재  
고증가율은 89년의 17.9%  
에서 17.3%로 낮아지긴 후  
세를 나타냈다.

전체로 보면 89년은 0.  
1%의 감소를 보였던 전기  
전자부문의 생산이 7%나  
증가, 전체부문을 완전히 벗  
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4.4%포인트 오른 13.  
9%의 증가 폭이 88년에 보  
인 9%의 증가 폭보다 4.9%  
포인트가 높았다.

중화학부문의 경우 철강과  
기계·정밀·금속·화학·기  
타 부문이 생산·출하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정밀·금속·화학·기계·기  
타 부문은 89년에 비해 2.  
3%포인트 증가했다.

중화학부문의 생산·출하 및  
재고동향을 보면 출하증가  
율은 11.2%로 89년의 4.2%  
를 크게 웃돌고 있다. 반면  
재고증가율은 89년의 17.9%  
에서 17.3%로 낮아지긴 후  
세를 나타냈다.

# 鑛工業 회복세 뚜렷

지난해 생산8.6 出荷11.2% 증가

## 重化學부문 수요늘어

산업활동 光州·慶北 활발... 서울은不振

<市道별 생산출하증감률>  
(전년동기비, %)

	생 산		출 하	
	89년	90년	89년	90년
서울	2.7	8.6	4.2	11.2
부산	-4.6	1.0	-5.5	0.0
대구	-3.4	1.7	-5.6	3.6
인천	-2.0	6.2	-3.9	4.5
대전	3.8	8.8	5.7	10.5
광주	11.9	26.3	8.2	27.2
충청	9.0	11.4	9.2	12.6
경상	-6.9	-4.3	-1.9	1.4
전라	19.6	12.3	21.3	10.6
경남	6.7	6.4	5.0	7.9
제주	2.5	6.0	4.4	8.7
합계	17.2	13.0	13.2	16.4
광주	8.8	16.1	6.5	16.6
慶北	4.1	10.0	5.4	12.4
慶南	26.7	20.2	19.7	21.2

실비투자증가와 건설경기  
활황에 따른 내수증가에 의해  
지난해 제조업의 생산과 출  
하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보  
나 타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시·  
도별 鑛工業생산증감률에 따  
르면 지난해 제조업의 생산과  
하 증감률은 각각 11.2% 증  
가, 출하가 11.2%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됐다.

鑛工業의 제조업의 생산이  
8.9% 증감률인 11.3% 늘  
어지고 재고증가율은 17.8  
%에서 17.6%로 둔화했다.

이전 89년의 鑛工業생산증  
가율 2.7%(제조업 3%),  
출하증가율 4.2%(제조업  
4.3%)를 크게 웃돈다는 것  
이다.

철강(12.2%증가)과 무제  
품생산(13%도 호조를 보였  
다.

그러나 인쇄출판업의 생산  
이 21.4%에서 7.4%  
중기부 둔화했고 의복(3.4  
%감소) 섬유(0.7%감소) 등  
기타제조업(5.3%감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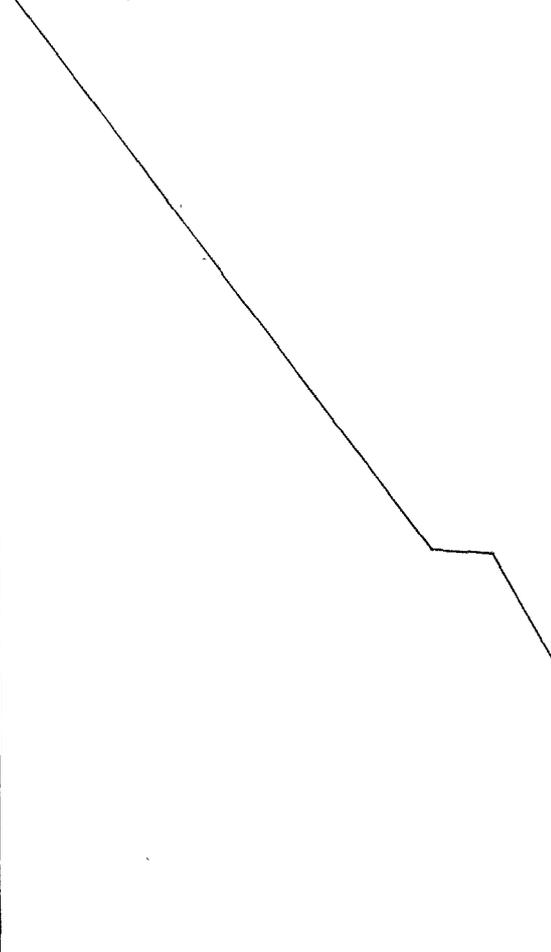
은 89년에 이어 계속 생산감  
소를 기록했다.

출하도 우수장미산업화학  
합물, 철강 유도체 등의 호  
조를 보였고 섬유 의복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는 중화  
학업체가 주축을 이루는 光  
州·全南·慶北·忠北지역의  
생산과 출하가 크게 늘었  
고 서울이나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서울·울산·대전 등  
지역은 서울·울산·대전 등  
산업활동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光州는 수출증가를 우수장미  
생산이 63.3%나 늘어난 전  
제 관련생산이 26.3%증  
가하는 등 전부 최고의 증가율  
을 기록했다. 慶北은 전기전  
자생산이 21.7%로 평  
업생산이 16.1% 증가했다.  
산업을 담당하는 생산이  
8% 늘어난 全南(13%)과 비  
림·수출품생산이 호조를 보  
인 忠北(12.3%) 전기전자  
와 우수장미생산이 늘어난  
京畿(11.4%) 慶南(10%) 등  
도 10% 이상의 판매업생산  
증가세를 보였다. 울진생산  
이 늘어난 濟州지역도 판매  
업생산이 20.2% 증가했다.

비생산산업은 89년도와 前年  
수준비생산이 23.2% 증가했  
고 4.5%증가율, 그중 제조업  
업생산이 20.4%  
증가율을 기록했다.



# 鑛工業생산 8.6% 늘어

## 지난해 出荷도 11.2% 증가

統計廳 발표... 重化學工業 12.3%로 주도

지난해 광공업생산은 실질 1등 국내 수요증가에 힘입어 비부자호조 건설경기호황 8.6% 늘어났고 출하도 11.2%의 높은 신장률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철강과 구면에서 호황이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것이 높았으며 27년 98년사 9%에서 17.3%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다 12.3%, 14.7%의 높은 신장률로 무역 광공업 생산호황을 주도했다. 광공업의 신장률 인 화합물과 고무제품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섬유업의 투자의 수출부진으로 생산과 출하가 2.3% 2.9%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연발전은 光州 濟州 慶北 등이 각각 26.3%, 20.2%, 16.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서울 釜山 大邱도 전년도의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그러나 江原도 忠清南도 광공업의 부진으로 88년의 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4.3%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4.4% 기반은 무역업의 생산과 출하 각각 7.4%, 10.6%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재고량은 전년도의 12.2% 증가하는데 그쳐 89년 4분기의 17.3% 증가 및 90년 3.4분기의 15.6%에 비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부동산업은 韓化화학공업의 생산과 출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14.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88년 1.4% 감소한 수송업의 비 부진한 회복이 1.4%의 것이 증가를 가져왔다.

이아침에

金 駟 舜



일마전 경제기획원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및 인구추계조사결과 가운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영리부 10년 단정인 2000년이 되면 결혼추진기인 구중 남자가 여자보다 무려 28.6%나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男兒選好의 결과

우리 사회는 6.25전쟁이후 불행하고 비참한 정세를 맞이한 젊은이들이 10년 단정인 인구조사에 응하며 결혼희망정도가 남자가 약 28%정도 더 높았으며, 그것도 젊은이들끼리 결혼희망정도의 차이가 한계 그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가 적었다.
미영인과 구중자들의 무척 큰 격차를 이어서하기 때문에 그 단정인 인사를 최정인 층에서나 확인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물론이

으로 지낼 수밖에 없을 때 어떤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추측할 때 여자가 남자를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여자가 사할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남자의 선택(性比)을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이유는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은 문화적인 상황에서 강력한 인위적 인구조절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의화전으로 패자의 정산들이 가혹한 정벌의 불합평을 면해 살아남아 버렸다.

정부가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남자의 선택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 때 미흡수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는 남의 차별을 두기 힘들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믿는 바를 밝힌 시영인영 최수현을 수 영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재대리간재현영>

# '소비자' 올들어 5.4% 올라

## 物價, 서비스料가 주도

### 집세도한몫 이달중 0.8% 상승

집세 개인서비스요금 등  
심으로 물가불안이 계속되  
고 있다.

올들어 4월말까지 소비  
자물가가 5.4% 상승을  
해 한자민물가연제표가  
출를리고 있다. 그러나 이  
달중 물가 상승률은 0.5%  
로 물가오름세가 다소 둔화  
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30일 경제기획원과 통계  
청이 발표한 4월 물가동  
향에 따르면 이달중 소비  
자물가는 0.5% 도매물  
가는 0.2% 씩 올랐지만  
말에 비해 소비자 및 도매

물가 상승률은 각각 5.4%  
및 1.4%를 기록했다. 투  
터 4월말 현재 소비자물가  
는 1년전에 비해 10.1%  
나 올랐고 두 자리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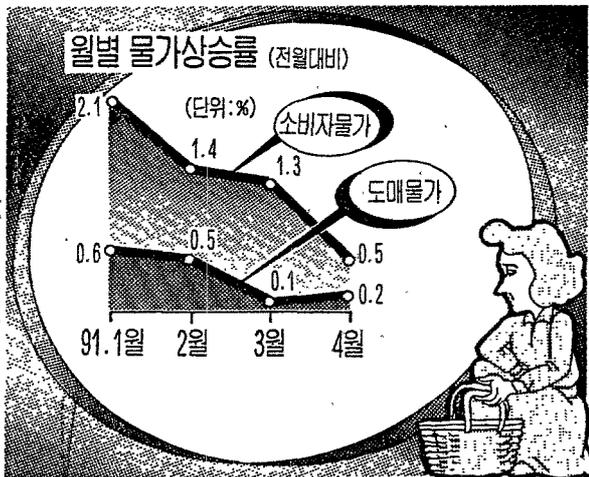
이달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은 지난 1월중 2.1%, 2  
월 1.4%, 3월 1.3%에  
이달 이전의 0.5%로  
인플레이션세가 진정되는 양  
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 확대 및 정부비축물량  
무제한 반출 허용 방침의 영  
향으로 이달중 수산물값이

0.6% 하락하는 등 농축  
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  
다. 또 공공요금 조정에도 따  
른 물가 파급이 대부분 마무  
리되면서 이달중의 공공요  
금 인상폭도 0.7%에 그  
쳤다.

그러나 집세가 지난 3월  
중 0.5% 상승에서 이달에  
는 0.8%로 오름세가 심  
화됐으며 개인서비스요금  
도 4월중 0.9%나 오르  
는 등 이들 부분의 물가 오름  
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은  
올들어 이미 11.9%나 오  
르는데 농축수산물 가격의  
제위주의 물가정책에 직접  
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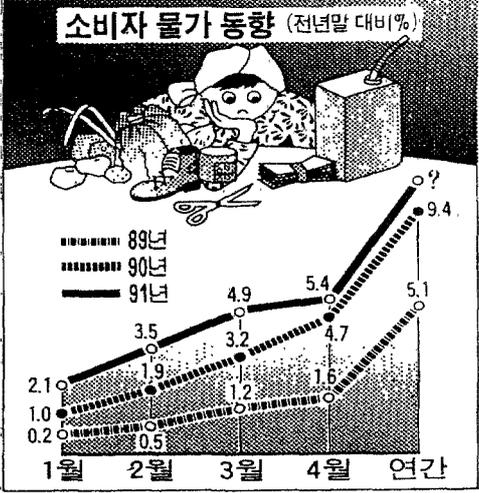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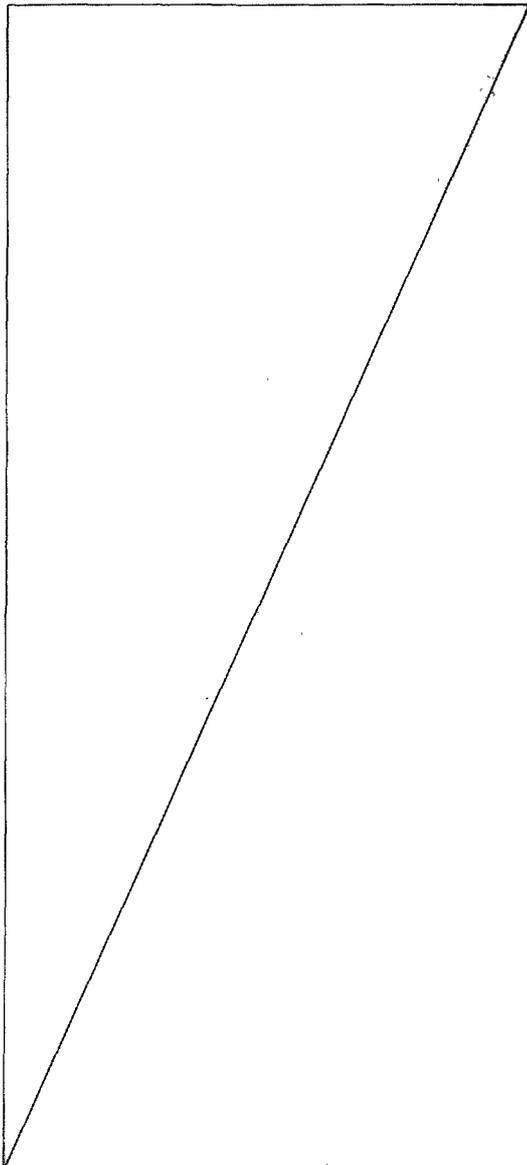


# 物價인플레이션 4월들어 다시 둔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4월 들어 물가 상승률이 1.4%로 떨어졌다. 이는 198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그러나 4월 물가 상승률이 1.4%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월 물가 상승률은 1.4%로 떨어졌고, 4월 물가 상승률은 1.4%로 떨어졌다. 이는 198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그러나 4월 물가 상승률이 1.4%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월 물가 상승률은 1.4%로 떨어졌고, 4월 물가 상승률은 1.4%로 떨어졌다.

## 前月比 도매 0.2·소비자 0.5% 상승

4월 물가 상승률은 1.4%로 떨어졌고, 4월 물가 상승률은 1.4%로 떨어졌다. 이는 198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그러나 4월 물가 상승률이 1.4%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월 물가 상승률은 1.4%로 떨어졌고, 4월 물가 상승률은 1.4%로 떨어졌다.



4월 물가 상승률은 1.4%로 떨어졌고, 4월 물가 상승률은 1.4%로 떨어졌다. 이는 198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그러나 4월 물가 상승률이 1.4%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월 물가 상승률은 1.4%로 떨어졌고, 4월 물가 상승률은 1.4%로 떨어졌다.

# 뛰던物價 주춤... 올해 '한자리수' 가능할까

30일 경제기획원의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이는 4월 중 소비자물가지수가 1월의 2.1%, 2월의 1.1%, 3월의 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이다.

4월 소비자물가 전달보다 둔화했으나 곳곳에 '복병' 공산품값 안정·하반기 油價인하 가능 건설過熱·광역선거등 불안요인 잡둑

## 공산품값 안정·하반기 油價인하 가능

## 건설過熱·광역선거등 불안요인 잡둑

### 건설過熱·광역선거등 불안요인 잡둑

4월 소비자물가 전달보다 둔화했으나 곳곳에 '복병' 공산품값 안정·하반기 油價인하 가능 건설過熱·광역선거등 불안요인 잡둑

◇ 4월 중 소비자물가 부문별 상승률 (단위: %, △: 하락)

구분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 대비
총합	0.5	7.3(2.14)	13.0
· 공산품	0.6	7.4(1.42)	14.4
· 서비스	1.2	5.8(0.31)	8.6
· 주택	0.2	8.4(0.40)	12.3
· 공영	0.2	2.1(0.55)	5.8
· 공영	0.7	7.0(1.38)	6.9
· 공영	0	0	11.8
· 공영	0	0.2(0.01)	6.7
· 공영	0.8	2.5(0.31)	13.5
· 개인서비스	0.9	11.9(1.03)	18.1
· 전	0.5	5.4	10.1

\*괄호안은 전체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

이와 관련, 물가당국자들은 올해 물가가 한자리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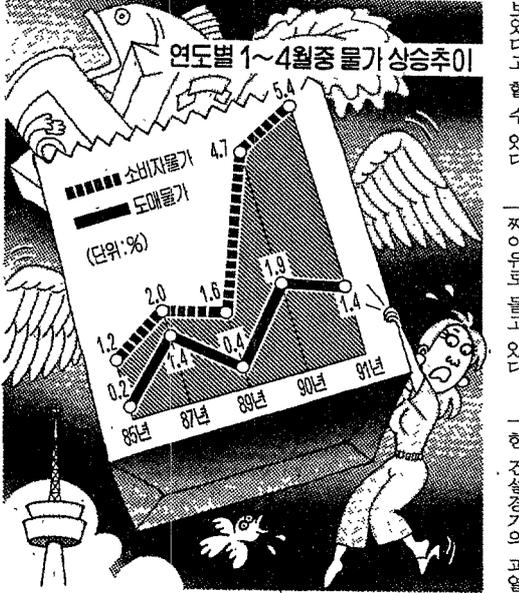
또 석유사업자들의 손해보전지출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8~10월의 국내 油價인하가 기대되며, 농산품의 계절적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수물가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건설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비용의 상승이 예상된다. 또 최근 건설업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 6월에는 건설업 인건비가 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건설업 인건비를 타인건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석유사업자들의 손해보전지출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8~10월의 국내 油價인하가 기대되며, 농산품의 계절적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수물가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건설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비용의 상승이 예상된다. 또 최근 건설업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 6월에는 건설업 인건비가 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건설업 인건비를 타인건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이는 4월 중 소비자물가지수가 1월의 2.1%, 2월의 1.1%, 3월의 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이다.



<그림> 柳基濼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이는 4월 중 소비자물가지수가 1월의 2.1%, 2월의 1.1%, 3월의 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이다.

비관론

낙관론

社說

4월物價둔화 지속시킬 對策을

物價오름세가 지난달에 많이 鈍化된것으로 나타났다. 한달간 동향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일단 반가운 현상임에 틀림없다. 연초 이래 줄곧 큰 폭으로 오르던 물가가 모처럼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4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 0.5%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월간상승률이다.

정부는 앞서 물가가 2·4분기에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연초 물가상승을 主導했던 농수산물값이 출회중가로 안정될 것이며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도 대충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4월중 물가동향은 이같은 당국의 예측이 어느정도 적중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물가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폭적인 상승세에 머물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녀달동안에 이미 5.4%나 올랐을뿐 아니라 불안요인이 너무나 많다. 건설경기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廣域의회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전기료와 휘발유값, 상하수도료등을 조만간 올릴 태세이고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차츰 윤곽이 드러나고있는 주요 기업들의 올해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못지않은 수준이 될 조짐이다. 또 통화가 팽창했다는데도 기업들은 극심한 자금난과 高金利를 불평하고있다.

한마디로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 2·4분기에 다소 안정세를 띠는지 모르지만 하반기에는 불안해질 위험이 많다. 廣域의회선거가 하반기물가에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고 지금은 안정세인 國際油價가 성수기를 맞아 들먹일 위험이 있다.

물가는 어떻게해서든 잡아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보다 치밀한 대책과 接近이 필요하다. 정부도 여러모로 노력은 하고있다. 그러나 산만하고 초점이 없으며 따라서 효과가 의심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플레이션心理를 진정시켜야한다. 政局과 社會가 안정되고 정부시책이 신뢰를 회복하여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할수 있게 해야한다.

다음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 적정한 통화관리라든가 물자需給의 均衡이다. 정부는 지금 통화량증가율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인상인데 그래서 안된다. 돈의 흐름을 바로잡아 서비스산업과 부동산대신 생산쪽으로 돌려야한다. 민간저축을 유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축증대는 통화수축과 기업의 파다한 금융비용 경감에 기여할 것이다.

廣대통령은 어제 過熱건설경기의 鎮靜을 경제장관들에게 촉구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일 같지만 자칫 집값 부동산값 불안을 야기할 위험에도 留意해야할 것이다.

# 국내景氣 여전 혼조세

統計廳 발표 3월 경기동행지수 0.6% 감소

## 제조업稼動率 1% 줄어

### 2·4분기엔 회복세 可視化전망

경기가 크게 혼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국내 경기 여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지수의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쳤고 79.7%로 낮아졌다.

규모가 지난해 3월보다 평균 7.4%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稼動率은 19.5%나 줄었다. 특히 2·4분기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稼動率은 19.5%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2·4분기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稼動率은 19.5%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2·4분기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稼動率은 19.5%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2·4분기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稼動率은 19.5%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2·4분기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稼動率은 19.5%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2·4분기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稼動率은 19.5%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2·4분기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稼動率은 19.5%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2·4분기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稼動率은 19.5%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2·4분기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3월 동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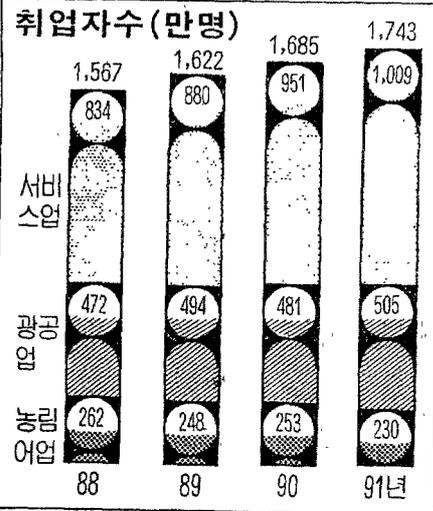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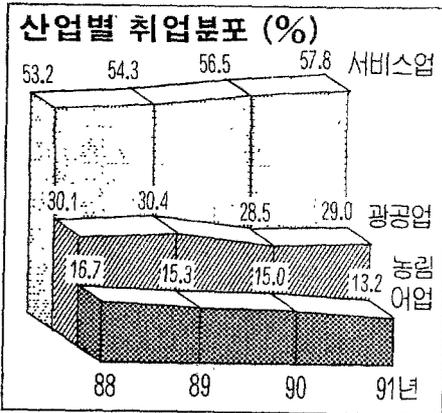


# 서비스업 취업

# 千萬명 넘어섰다

통계청 발표 근로자의 57.8%... 前年比 6% 늘어

연도별 1·4분기 취업구조



88년 통계청 발표 1·4분기(1~3월) 중 취업자의 취업자는 1천7백43만2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만6천명(3.5%) 늘었다고 발표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부문이 1천8만5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7만1천명(6.1%) 증가했다. 제조업은 4천7만9천명(9.1%) 증가했고, 농림어업은 2천6천2백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6천명(6.5%) 늘었다. 서비스업 부문은 1천8만5천명(105.1%) 증가했다. 제조업은 4천7만9천명(101.2%) 증가했고, 농림어업은 2천6천2백명(101.5%) 증가했다.

건설 도소매 유통 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3차 산업 취업자가 1천만명을 넘어 전체 취업자 중 57.8%에 이르렀다.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 하반기 이후 다시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8만6천명(3.5%) 증가했다. 88년과 8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취업률의 상승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13.2%로 떨어지고 있다.

서비스업 부문에 건설업 취업자는 1·4분기 현재 1백3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9천명(18.2%) 증가했다. 13만1천명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는 4년 전인 지난해 88년 1·4분기(84만6천명)에 비해 60.8%나 증가, 건설 붐이 29.4% 수준에는 못미친다.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은 1·4분기 기준(은) 88년 53.2% △89년 54.3% △90년 56.5% △91년 57.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편을 1·4분기 중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은 28.6%로 전년 동기(28%)보다 높았으나 지난해 88년과 89년 동기 각각 29%와 29.4% 수준에는 못미친다.

과연에 따른 이형유입의 급속함을 보여준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88년 1·4분기(4백54만명)보다 9.7%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은 1·4분기 기준(은) 88년 53.2% △89년 54.3% △90년 56.5% △91년 57.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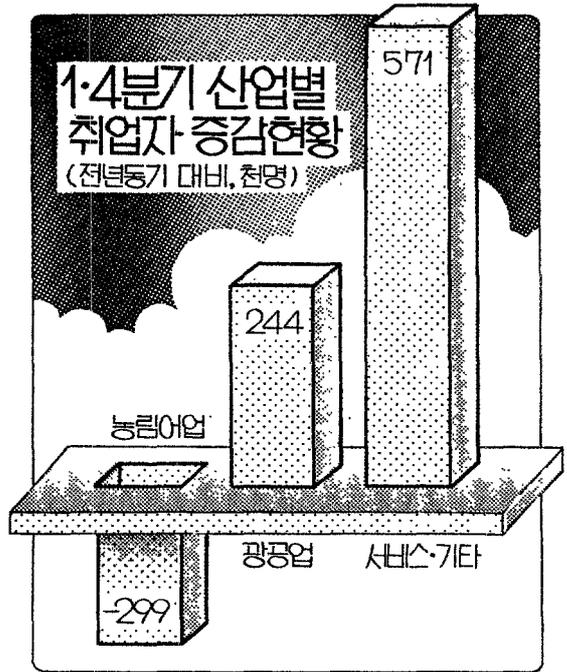
제조업 4백98만명... 농림어업인 9.1% 감소

## 建設業 百36萬명... 18% 증가

실업자의 70%인 36만8천명은 서울 善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의 6대 도시에 55%인 28만8천명이 서울 仁川 京畿道의 수도권에 38%인 20만3천명이 서울에 몰려있다. 한편을 1·4분기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인구는 1천7백96만명으로 전년 동기(은)에 비해 57만6천명이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이 57.6%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곳은 濟州道 仁川 全南 서 울 慶尙의 순이다.

# 서비스업 종사자 千萬명 돌파

통계청 총취업의 57.8%... 제조업 28%



건설·도산패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전용이 계속 돼 올 1·4분기 중 13만 3천 500명 증가했다. 또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91년 1·4분기 고용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전용이 계속되면서 올 1·4분기 중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 인력 대도시 집중... 고용구조 왜곡 뚜렷

통계청이 8일 발표한 91년 1·4분기 고용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전용이 계속되면서 올 1·4분기 중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1·4분기 중 취업자 1120만 명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가 6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4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1·4분기 중 취업자 1120만 명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가 6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4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1·4분기 중 취업자 1120만 명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가 6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4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1·4분기 중 취업자 1120만 명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가 6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4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1·4분기 중 취업자 1120만 명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가 6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4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1·4분기 중 취업자 1120만 명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가 6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4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1·4분기 중 취업자 1120만 명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가 6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4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1·4분기 중 취업자 1120만 명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가 6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4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1·4분기 중 취업자 1120만 명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가 6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4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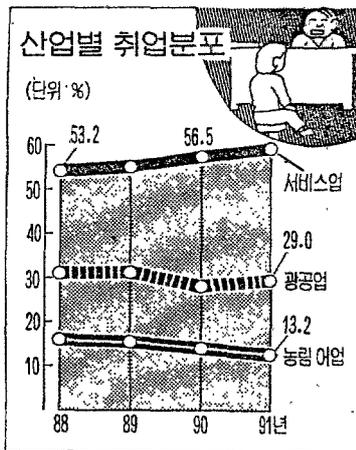
통계청이 8일 발표한 1·4분기 중 취업자 1120만 명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가 6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4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 서비스업雇傭 1,008만명

전체 근로자의 58%... 前年比 6% 증가  
失業率 2.9%... 작년 4월 이후 增加勢

## 통계청, 1·4분기 실태조사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실업률조사 결과, 전체 실업자가 43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실업률도 2.9%로 작년 4월 이후 계속 상승했다. 서비스업의 고용이 1,00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제조업의 고용은 1,09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공공업의 고용은 1,32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고용은 1,00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제조업의 고용은 1,09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공공업의 고용은 1,32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고용이 1,00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제조업의 고용은 1,09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공공업의 고용은 1,32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고용은 1,00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제조업의 고용은 1,09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공공업의 고용은 1,32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 해설 3차 산업 비중 갈수록 深化 생산직 優待 實質조치 시급

서비스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4분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44.8%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53.2%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공공업의 비중은 1.9%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4분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44.8%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53.2%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공공업의 비중은 1.9%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4분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44.8%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53.2%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공공업의 비중은 1.9%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4분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44.8%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53.2%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공공업의 비중은 1.9%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4분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44.8%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53.2%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공공업의 비중은 1.9%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4분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44.8%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53.2%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공공업의 비중은 1.9%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4분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44.8%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53.2%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공공업의 비중은 1.9%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4분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44.8%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53.2%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공공업의 비중은 1.9%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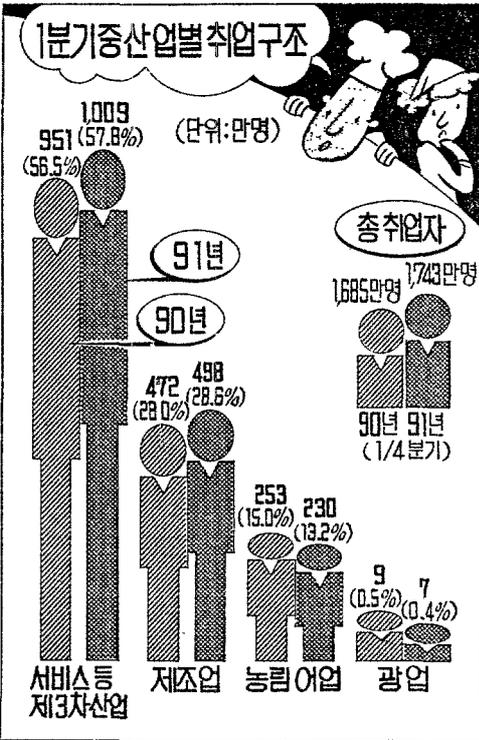
# 失業者 총 52만명 1分期

## 6대도시 70%차지

### 3차산업 취업자 계속 감소

#### 統計廳 失態조사

지만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다소 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중 우리나라의 총실업자는 52만 8천명, 실업률은 2.9%였고, 실업자를 10명중 7명꼴이 서울 등 6대도시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서비스업 3차산업이 무려 57만 1천명(6%)이 늘어나 총취업자 1천 743만명(1/4분기) 가운데 1천 8만 5천명(1.8%)이 실업자로 집계됐다.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1천 8만 5천명(1.8%)이 실업자로 집계됐다.



계 1분기 중 지역별 고용률에 따라 보면, 전북의 총취업자수는 1천 7백 43만 2천명(1.8%)에 비해 3.5%(38만 6천명)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서비스업 3차산업이 무려 57만 1천명(6%)이 늘어나 총취업자 1천 743만명(1/4분기) 가운데 1천 8만 5천명(1.8%)이 실업자로 집계됐다.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1천 8만 5천명(1.8%)이 실업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大田의 실업률이 각각 4.3%로 최고수준을 보였으며 大邱(4%)·釜山(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자 중 69.7%인 36만 8천명이 서울에 6대

社說

就業人口의 서비스업 편중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서비스부의 취업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으므로 총취업인구의 57.8%를 차지하고 있다. 1981년 1.4분기 고용총계는 1천 9백 90만 명에 대한警告的인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취업인구의 서비스업 집중현상은先進國과 비교해 본다면 아직은 80년대 이후가 속되기 시작한 전산업경기 과열현상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비추어 볼 때 결코 나쁘지 않을 수 없다. 水位이며 최근 제조업의 인력難란 보더라도 그 심각성은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취업인구의 서비스업 집중현상의 모순적 현상인 「인력난」과 「고용난」의 공존에 돌고 있다. 이는 사실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 그러한 風潮가 맹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 그것이 고용구조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부 내부의 편중현상도 또한 취업자가 작년 대비 18% 89년 대비 5%나 늘었지만 서비스업 취업인구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8%로 1.4분기 취업인구의 취업내용이 제조업의 그것과 비교해서 밝지는 않지만 덜드러진 일이라고 볼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불타는 것은 경기과열로 인한 人力難과 그에 따른 高賃現상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고용구조 왜곡의 책임은 「인력난」과 「고용난」에서 찾는다. 89년 이후 가속되기 시작한 전산업경기의 과열현상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지 못한 정책당국의 몫은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취업인구의 서비스부 집중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것은 합동일기 과열조와 함께 이러한 정책의 偏向性이나 실업률의 사고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고용구조를 우리경제 수준에 알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면에서의 漏水현상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社說

3차산업에만 몰리는 雇傭構造

統計廳이 발표한 올 1.4분기 「경제활동인구통계」를 보면 대총 4가지 점이 집힌다. 전체적으로 취업자수는 늘고 있으며 따라서 실업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 가운데 3차산업 취업인구가 가장 활기차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6대 도시 취업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서 노동력의 도시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농림어업부문은 취업자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4가지 사실을 貫通하고 있는 것은 노동력의 3차산업집중이다. 현재 우리경제가 불안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3차산업의 활황을 그 中心에다 두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가 그렇다. 이것이 끼치는 産業關連효과 때문에 지금 제조업의 內需경기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 취업자수도 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도시집중심화현상도 부분적으로는 3차산업의 주도에 그원인이 있다.

3차산업의 고용확대는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매우 정상적 진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콜린 클라크(Colin Clark)가 세계경제의 모델을 가지고 이를 검증한 일도 있어서 이를 클라크의 法則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다른나라의 경험과 한국의 현황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선진국의 과거경험은 3차산업은 고용구성비는 늘지만 소득구성비는 대체로 정지해 있고 제조업은 반대로 고용구성비는 그대로 있는 반면 소득구성비는 올라갔다. 8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의 경우는 3차산업이 고용과 소득 두 측면에서 그 비중이 급속히 커져 가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과열의 탓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는대로 이것은 주거건물과 도시의 상업용건물 건축호황에 기인한 것이다. 이 호황도 그 성격에서 보면 경제발전과정에서 한번은 겪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인 것 같기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법석대는 건축호황이 그 주위에 몰고 오는 불안한 풍성함이 한국경제의 현재 경기국면이다. 제조업은 일손이 없어 대체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임금이 오르는 것은 노동조합의 強性대응 이전에도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건축업의 경기를 지탱해주느라 또는 달리 말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국면적 規模의 이른바 「내집마련」을 시급히 해결해주느라고 통화는 계속해서 풀려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은 또 그래서 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플레이는 임금상승과 통화팽창의 필연적 결과이다. 이것은 우리경제의 거시적 지표를 구석구석 찌그러뜨려 놓고 있다. 그리고 자원이 주택과 상업용건물건축에만 쏠리는 바람에 시급한 社會間接資本건설이 뒤로 밀리게 되고 그래서 産業활동과 국민의 生活이 참을 수 없이 짜증나는 경지에 이를만큼 시달리게 되었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이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3차산업주도의 활황은 장기적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척도는 못 된다. 증권시장의 위축이 이것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財政과 금융을 통한 거시경제적 對應이 꼭 필요한 때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않았던 경제적 難局이 올지도 모른다.

### 불건전한 就業構造

#### 서비스業에 千萬名이 몰리고 있다

## 社說

통계청의 지난 8일 발표한 「91년 1·4분기 지역별 고용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就業構造가 지나고 있는 무제점수를 모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경제발전단계에 비추어 노후화된 就業構造보다 서비스業의 취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1

내도工業化를 완수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業이 興狀肥大해 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올해 1·4분기의 就業者中에는 1천7백43만명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건설도포수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부분과 사회간접자본부분의 취업자수는 무려 1천만명 수준에 달하였다. 따라서 총 취업자중에서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부분의 취업한 사람률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7.8%에 이르렀다. 이 큰 88년 1·4분기에 총취업자중 3차 산업 취업자가 차지하였던 비율인 53.2%에 비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수를 1·4분기 1백36만명(88년 同期 대비 21만명)이나 늘이나 18.2%의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88년 1·4분기에 건설업 취업자는 85만명에 불과하였는데 불과 3년 동안에 무려 60.8%나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이는 결국 建設業의 과잉도이 부분에 일어난 현상으로서 이 비율을 얻는가를 알 수 있다.

#### 2

이러한 就業構造의 추이를 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경제발전단계에 걸맞지 않은 제조업부분의 취업자 구성비인 우회력 감소하면서 3차산업의 취업자 구성비만큼 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3차산업의 성장은 건설업에 이력이 과다하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라 지부차이를 추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과다하게 성장하면 서 그 과잉효과가 다른 모든 산업부분에 미쳐 전업적인 인력증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후 就業構造를 가진 3차 산업에서 불균형적 취업자 구성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3차산업의 취업자 구성비 28.6%보다 88년의 29%에 비해 우회로 줄어들었다. 이는 결국 서비스業의 사람들이 과다하게 불균형적 제조업부분의 인력이 그쪽으로 몰려 있는 기 때문이다. 한편 총 취업자수는 2백30만명으로 구성비는 13.2%이었는데 이 88년 1·4분기의 16.7%에 비해 급속하게 감소한 것이다.

# 90년 都市가계收支 동향 통계청 조사

발표 수지가 증가되고 도시근거 지 수물 소득회복이 있었으나 도시가계 실질소득은 도시가계 소득이 크게 늘고 있어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또 도시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도시가계 동향은 소득이 크게 늘고 있어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또 도시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지출은 전가구의 소비지출이 68만5천6백92원으로 89년의 59만4천9백87원에 비해 15.4% 증가했다. 특히 가계소득에 따른 소비지출이 6.3%에 그쳤다. 전년 대비 소비지출이 86년 6.3%, 87년 11.6%, 88년 9.3%, 89년 20.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과소비 현상의 다소 누그러졌다고 볼 수 있다.

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과소비 현상의 다소 누그러졌다고 볼 수 있다.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2.0% 증가했다. 주거지출은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 소비지출 月 68만원.. 過消費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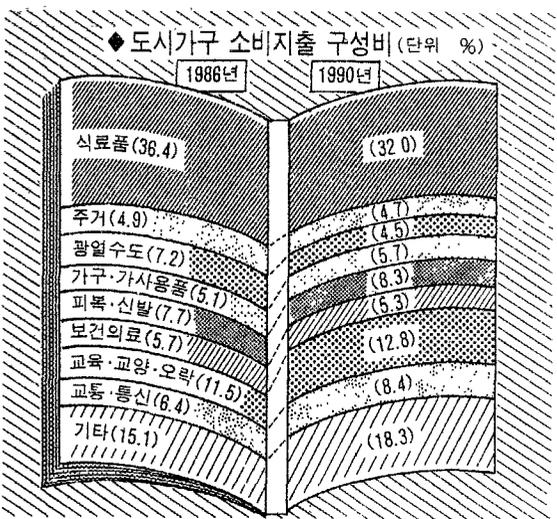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도시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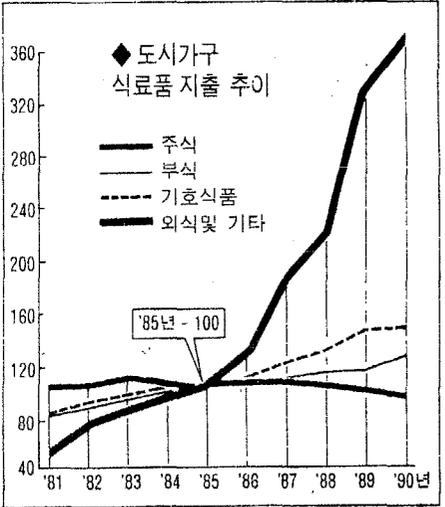
## 住居費 22%증

## 家口평균

## 신품값영

교육·통신비도 17.0% 증가했다. 교육·통신비도 17.0% 증가했다. 교육·통신비도 17.0% 증가했다.





17천8백11원으로 농업생  
 활차보다는 자연업자가 줄줄  
 이가 훨씬 큰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해 도시거주 근로자가  
 구의 평균임금인 37·14세,  
 가구당 취업자수는 3·97명,  
 가구당 취업자수는 1·43  
 명이었다.  
 소득분포 소득계층별분  
 포를 보면 △15  
 만원 미만이 전체 근로자가  
 구의 1%△15만~30만원 2·  
 8%△30만~45만원 7·9%  
 △45만~60만원 15·2%△60  
 만~75만원 17·3%로 불평판

# 가가장큰부담 소득 45만원이하의 11% 넘어 향 엔겔계수 오르는 기현상

64만9천9백69만원의 증가 기록,  
 15·7% 증가했다.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수지

구 분	89년	90년	증가율 (%)	
			89	90
가구소득(백만원)	38.86	37.14	0.4	8.3
주거지출(백만원)	3.98	3.97	△0.0	△0.0
평균연료(백만원)	1.42	1.43	0.7	0.7
평균연료(백만원)	938	943	272	25
평균연료(백만원)	804	723	035	27
평균연료(백만원)	631,281	723,035	28	27
평균연료(백만원)	561,650	649,969	26	27
평균연료(백만원)	69,631	73,066	41	7
평균연료(백만원)	173,657	220,237	12	6
평균연료(백만원)	23.6	25.3	2	2

출을 빼놓으면 1989년  
 17만3천6백57원에서 22만  
 3천9백43원으로 26·8%증  
 가했으며, 휴가소득도 23·6%  
 에서 25·3%로 높아졌다.  
 그만큼 생활비를 줄여 살림  
 살이를 알차게 꾸려나갔다는  
 얘기다.  
 그러나 87년의 26·4%, 88  
 년 25·8%에 비해서는 아직  
 까지 휴가소득이 늘지 않았다.  
 근로자가구 소득을 보면 월별  
 로 보면 근로소득이 80만9  
 천3백29원으로 16·5%싹  
 째 7·3% (늘어나지 않) 사  
 회보장수입 등 기타소득의 전  
 4%(실질 11·8%) 증가한 13  
 만9천9백43원이 늘었다.  
 또 가구주소득은 69만1천  
 65원으로 16·1% 늘어나 반  
 면 가구원소득은 19·0%증  
 가했다.

소득 75만원 미만의 하위계층  
 이 전체의 44·2%를 차지  
 했다. 이는 89년의 57·8%  
 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  
 으로 소득분포의 변화가 개  
 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백35만~1백50  
 만원 3·8%△1백50만~1  
 백65만원 3%△1백65만~1  
 백80만원 2·2%△1백80만  
 ~2백만원 3·0%△2백1  
 만~2백40만원 4·2%로 상위계층  
 이 16·5%를 차지, 전년의 10·  
 9%보다 크게 늘어났다. 소  
 득분배는 개선되더라도 고소  
 득계층의 소득분포는 여전히  
 심하게 불균형되고 있는 것이다.  
 평균소득보다 10%가량 높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분포의 변화는 가구주  
 소득이 52만7천5백74원,  
 30대가 62만8천9백24원, 40  
 대가 81만7천9백81원, 50대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계수지(1990년) <단위=원>

구 분	소득계층				
	I	II	III	IV	V
소득	394,235	624,262	809,115	1,060,753	1,827,508
유료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료	8.4	13.2	17.1	22.5	38.8
기타	(89.5)	(88.8)	(87.8)	(87.1)	(82.3)
소득	352,750	554,396	710,373	924,141	1,504,596
기타	(89.5)	(88.8)	(87.8)	(87.1)	(82.3)
소득	41,485	69,866	98,742	136,612	322,912
기타	(10.5)	(11.2)	(12.2)	(12.9)	(17.7)
처분	372,593	588,464	757,831	981,336	1,650,373
자녀	1.3	19.4	23.6	26.5	32.9
평균	98.7	80.6	76.4	73.5	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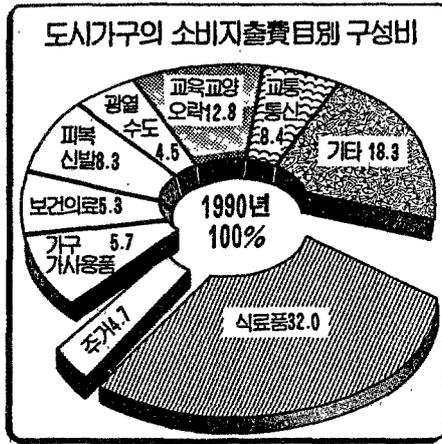
가 84만6천4백20원, 60세  
 이상인 69만8천9백65원의  
 50대가 가장의 소비지출이  
 가장 많았다.  
 지출안분비율은 30대 미만  
 일대는 전체가구가 많아 주  
 거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식료  
 품비 40대는 의료비와 오락비,  
 50대는 피부신발과 잡비 지  
 출이 많았다. 노년기인 60대  
 는 가구·가사용품 보정의료  
 비의 지출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孫顯德기자>

91. 5. 11



# 住居費증가가율 27%로 최고



안한실업소득증가는 7.9%에 머물렀고 가계지출도 명목상으로는 14.5% 늘었으나 실제로는 5.4%밖에 늘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의 3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40% 소득계층의 점유비율은 57.9%에 달했다.

###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단위=천원>

계층	구성비 (%)	
	1989년	1990년
150 미만	1.2 (1.2)	1.0 (1.0)
150~300	4.9 (6.1)	2.8 (3.8)
300~450	14.2 (20.3)	7.9 (11.7)
450~600	19.7 (40.0)	15.2 (26.9)
600~750	17.8 (57.8)	17.3 (44.2)
750~900	12.6 (70.4)	14.0 (58.2)
900~1,050	8.9 (79.3)	11.6 (69.8)
1,050~1,200	6.0 (85.3)	8.0 (77.8)
1,200~1,350	3.8 (89.1)	6.0 (83.8)
1,350~1,500	2.8 (91.9)	3.8 (87.6)
1,500~1,650	2.0 (93.9)	3.0 (90.6)
1,650~1,800	1.5 (95.4)	2.2 (92.8)
1,800~1,950	1.1 (96.5)	1.7 (94.5)
1,950~2,010	0.9 (97.4)	1.3 (95.8)
2,010 이상	2.6 (100.0)	4.2 (100.0)

소리지출을 비목별로 보면 △식품비가 21만 9천 5백 39원으로 전년 대비 15.8% 늘어났지만 △주거비(21.8%) △교육교양오락비(16.7%) △기타소비지출(15%) 등의 지출증가가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보건의료비(11.1%) △편월수도비(11.1%) △피복신발비(13.3%) △가사용품비(13.7%) △교통통신비(13.7%) 등도 증가했다.

근로자가구 소득을 원천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22만 2백 37원으로 4만 6천 5백 80원이 늘어났고 흑자율도 25.3%로 89년의 23.6%에 비해 1.7%포인트 높아졌다.

## 固定給 上位 20%

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 계층별 가계수입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규모에 따라 5계층으로 나누어 결과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 20%(Ⅰ계층)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1백 82만 7천 5백 8원으로 밝혀졌다.

또 상위 21~40% 범위에 속하는 Ⅳ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1백 6만 7백 53원, 41~60%의 Ⅲ계층은 80만 9천 1백 15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1~40%의 Ⅱ계층은 월평균 소득이 62만 4천 2백 62원, 가장 소득이 적은 하위 20% Ⅰ계층은 39만 4천 2백 35원이었다.

이에 따라 최상위 2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전 계층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무려 4.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증가속도로 인해 심급품비와 주거교  
통비부담이 크게 늘어남  
에 따라 지난해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가구들은  
숨겨이름을 여러 살림살이  
를 비교적 진실하게 꾸  
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거주 가구가  
운데 근로자가구의 작년  
중 월평균 소득은 89년도  
다달리 17.2% 늘어  
났으나 증가속도를 감안

무려 61.3%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전국  
62개시의 2천8백개 근  
로자가구의 1천5백개  
근로자가구 등을 총 4천  
3백개 표본가구를 대상  
으로 조사한 '90년 도시  
가계 수지동향'에 따라  
면 지난해 도시가구 전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75만5천3  
백70원으로 89년의 65만

몇하게 진정된 추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도시 거주 가구  
의 실질소비증가율은 지  
난 86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증가가 크게 오  
트자가 가정의 불요불  
급한 소비를 가감적  
줄인데 따른 것으로 볼  
이된다.  
소비지출규모를 고정  
금액을 받은 근로자가구  
와 상인 경영자 등 근로

지난해 월평균 5만5천  
달러 고정금액을 받은 근  
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은 94만3천2백72원 가  
계지출은 72만3천35원  
을 기록, 가계수지흑자는  
89년의 17만3천6백57

은 80만9천3백29원이  
로 89년의 69만4천5백  
87원에 비해 16.5%의 실  
질 7.3%를 보여주고  
△기타소득(사회보장수  
혜 및 私의 부조)은 13만  
3천9백43원으로 전년  
대비 21.4%의 실질 11.  
8%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 가운데  
가구의 소득은 69만1  
천65원으로 16.1%가  
늘어난 반면 家口의  
소득은 11만8천2백64  
원으로 19% 증가, 취업  
증가등으로 인해 가구주  
보다 가구원의 소득증가  
율이 더 높았다.

統計廳 90家計收支 동향

자가구로 나누어 보면  
근로자가구가 64만9천  
9백88원, 근로자가구가  
75만7천8백11원으로  
분별 증감률차보다 단지  
영양자들의 생활비가  
선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 거주 가구의 세  
금이자 사회보장수급금  
등 비소비지출은 전년도  
중

都市 근로자가구  
한달 94만원 흑자



월평균 6만9천7백9  
원이던 전년도 대비 10.8  
%(실질 2%) 늘어났다  
데 그쳤다.

1家口 월평균 94만원 벌어  
최하위 20% 소득 4.6배

가계지출을 나누어 보  
면 소비지출은 월평균  
64만9천9백88원으로  
전년대비 15.7%(실질  
6.5%) 늘었고 비소비  
지출은 7만3천68원  
으로 전년대비 4.9% 증  
가했으나 실질분담은 하  
려 3.4% 감소했다.  
비부양 소비지출을 보  
면 △주거비가 89년에  
비해 무려 27.1%나 늘  
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  
을 나타냈는데 이 중 월  
세 및 주택수리비의 증가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이되, 파란색이던 △교  
통통신비(18.1%) △사  
품(16%) △기타 소비지  
출(15.6%) △보험료양  
오란비(15.1%) 등이 비  
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  
였다.  
한편 통계청이 분석한

라주거비에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다.

**임질係數 되레 상승**

전체적인 소비지출은 15.7% (실질) 증가를 6.5% (노) 86년 이래 가장 낮은 추세를 보였다. 개별적인 지출 가운데 자동차, 주택 등 가구 구입비 증가는 32.4%, 소용차 구입 및 유지비가 증가 30.2%, 외식비 증가는 22% 등으로 평균 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과소비 증가는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90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가계수지 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94만 3천 2백 72원(90년 전년의 80만 4천 9백 38원에 비해 명목상 17.2% (실질 7.9%) 증가, 90만 원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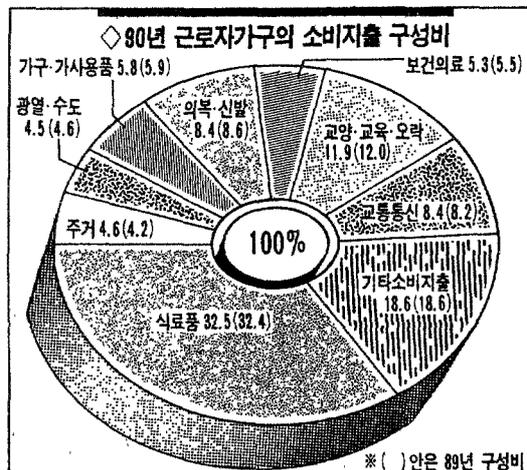
지출은 89년의 63만 1천 2백 81원에서 72만 3천 35원(노)로 늘었다. 14.5% (실질) 5.4% 증가, 가구당 월평균 월 2만 2백 37원의 흑

# 月평균소득 17%

자를 나타냈다. 이 기간에 흑자폭이 89년의 17만 3천 6백 57원에 비해 4만 6천 5백 80원이 증가한 것. 이에 따라 가계수지

## 집값폭등 등 반영 住居費 21.8% 늘어나 過消費·車구입유지·外食費 크게 증가

근로자의 가계지출은 94년 7월 평균 72만 3천 35원으로 89년의 63만 1천 2백 81원에 비해 14.5% (실질) 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비지출은 64만 6천 6백 64원으로



또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주거비는 주택설비수리비가 41.6%나 올라주거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교통통신비가 4.1% 증가에 그친 반면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지출은 30.2%나 증가, 도시근로자

	89년	90년	증가율 (%)
소득 (원)	804,938	943,272	17.2
지출 (소비)	631,281	723,035	14.5
흑자	173,657	220,237	26.8

데 공공교통이용지출은 4.1% 증가에 그친 반면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지출은 30.2%나 증가, 도시근로자

소득계층별로는 전 계층 로자가구를 소득수준별로 20%씩 5등분해 비교할 때 최하위 20%의 월평균소득은 39만 4천 2백원, 그 다음 계층은 62만 4천 2백원, 중상계층은 80만 9천 1백원, 중상계층은 1백 6만 7백

생활차와 노후자로 나뉘어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무임과 공영원의 사후충사자로 구분되며, 무임의는 판검사, 공무원대학교수, 교사, 공무원연의의, 경찰관, 의과대학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한편, 세금이자·보험비 등 소비지출은 가구당 월 평균 6만 9천 7백원으로 89년의 6만 9천 9백원의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는 갑질세 감면과 따른 조세부담 증가가 두 현상 탓으로 풀이된다. 소득계층별로는 전 계층 로자가구를 소득수준별로 20%씩 5등분해 비교할 때 최하위 20%의 월평균소득은 39만 4천 2백원, 그 다음 계층은 62만 4천 2백원, 중상계층은 80만 9천 1백원, 중상계층은 1백 6만 7백

【李炳洙 기자】

통계청조사 「90년都市근로자家計수지」

지난해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의 가계부는 월 평균 94만 3천원 소득에 72만 3천원을 지출, 각각마다 매월 약 22만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89년에 비해 약 13만 8천원이 늘었고 흑자폭도 4만 6천 5백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소득증가가 예년보다, 소비지출증가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연월계수는 89년 31.9에서 32.0으로 0.1%p 증가가, 주부의 장마구나물가가 크게 올랐음을 반영했

다. 특히 소비지출 가운데 주거비는 89년에 비해 21.8%나 증가한 반면, 교육의 증가율을 나타내 도시근로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 94만3천원

흑자율은 25.3%로 89년 23.6%보다 1.7%p포인트가 높아졌다.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 소득은 80만 9천 3백 29원으로 전년 대비 16.5%가 증가, 그중 연의 인건비 상승세를 반영했다.

그러나 전체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85.8%로 89년보다 0.5%p포인트가 감소, 근로소득 이외 가족들의 부수입이 전체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당 평균 인원수는 3.99명, 평균 취업자 수는 1.3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료품비는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32%를 차지, 지난해 31.9%보다 높게 나타나 연월계수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비를 줄였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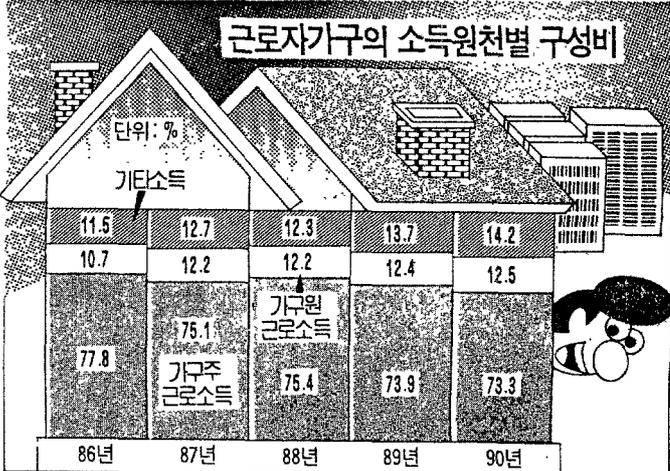
소비지출증가세 둔화

소비를 줄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가비가 21.8%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교통비는 17%, 교육, 오락은 16.7%, 식료품 15.8%의 순을 나타냈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家口當지출 72만3천원... 22만원 赤字

원, 최상계층은 1백82만 7천 5백원으로 집계돼 최하 20% 계층과 최상 20% 계층 간에 4배 이상의 소득수준 차를 나타냈다. 또 월소득이 60만원 미만 인 가구는 전체의 26.9% (89년 40%), 60만~1백50만원 미만은 60.7% (89년 51.9%), 1백50만원 이상 상위계층은 9.4% (89년 6.1%)로 나타났다. 소득 15만원 미만 1% 또한 월소득이 15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전체의 1%에 달한 반면 2백1만원 이상의 근로자가 4.2%로 89년 2.6%에 비해 크게 늘었다. 조사방법 도시근로자가 구조사에 대상이 되는 근로자만 크게 불균

# 도시근로자가구 주거費 부담 27% 늘어

## 통계청 작년 도시가계收支동향

지난해 전월세용 주택가격 상승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1년 전보다 무려 27.1%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85년 이후 5년만에 최저 수준인 7.0%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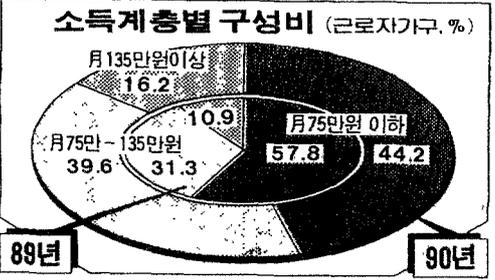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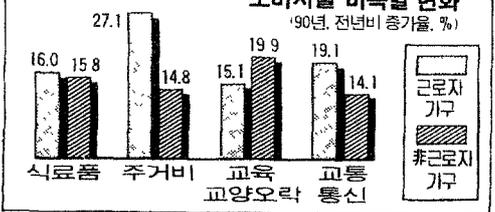
또 소비지출 증가폭이 소득 증가보다 낮아 씀씀이가 전월세용 주택을 차지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11월 분례 전액 62개 시·도 도시근로자가구, 2천8백여 가구, 1천5백여 가구, 4천5백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하여 조사한 90년도 도시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은 94만 원으로 89년 87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7.2% 늘어났으나 주거지출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7.0%로 85년 이후 4.5% 이후 5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15.7% 늘어났지만 64만 원으로 89년 60만 원에 비해 증가폭이 전월세용 주택 비중이 89년 23.6%보다 지난해 25.3%로 높아졌다.

자영업자와 의사·법률사

실질소득 증가율 7%... 5년만에 최저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수지

구분	89년	90년	증가율 (%)
가구당 인원(명)	3.93	3.97	1.0
가구당 취업인원(명)	1.42	1.43	0.7
소득(원)	804,938	943,272	17.2
지출(원)	631,281	723,035	14.5
저축(원)	561,650	649,969	15.7
소비지출(원)	69,631	73,066	4.9
저축률(%)	73.6	72.0	-2.2
소비지출률(%)	23.6	25.3	7.2

평균 94만원 벌고 65만원 지출  
 씀씀이 건실... 赤字비율 25.3%  
 외식비 지출이 주식費 웃돌아

반면 비근로자가구도 주거비는 14.8% 증가에 그쳤으며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등 자영업종사자를 포함한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소득이 모든 항목에서 앞섰으나 소비지출액은 평균 75만 7천 8백 11원으로 근로자가구보다 앞섰습니다.

포함한 교육·의료·통신·주거비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가구의 실질소득은 8.3% 증가에 그쳤는데 비해 저축률 11.0%로 89년 11.8%의 외식비 지출은 2.0%씩 각각 늘면서 외식비(4만 5천 원) 지출이 주식비(4만 5천 원)를 웃돌아 소비지출을 앞섰습니다.

한편 근로자가구의 소득 규모는 5개 계층으로 나눈 결과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38.8%를 점유했고 최하위 20% 계층은 4.6%나 소득을 벌었습니다.

소득계층별로는 ▲월 10만 원 미만이 전체가구의 44.2% ▲75만~1백 35만원의 39.6%를 차지했고 ▲2백 1만 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가구 비중은 4.2%나 됐습니다.

【柳智英 기자】

社說

소득분배의 어떤 정치적인면  
 조사하는 도시계조사에 기초한  
 소득분배계가 발표되어 10분의  
 비율로 소득분배계가 개선  
 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통계로 본  
 소득분배가 다른 의외의 비핵  
 다지나 볼지 않는다. 주위의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사이  
 에서도 자주 나타난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의 아직까지 정  
 부의 소득분배의 개혁을 불신하고  
 정부가 소득분배의 개혁을 糊塗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생각할 때 발표  
 의 소득분배 개혁 불신의 보수적인  
 의견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진  
 실에 관한 부정인가. 정부의 통  
 계수치를 믿지 못하고 소득분배  
 수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있어 신뢰하는 것이지만 대체로  
 있는 것이지만 불신의 심판을 받  
 고 있다. 정부 발표의 소득분배  
 가 정확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 정확할 수 없다. 수치를 신뢰  
 한다. 개선되면 대단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런면에서 경제학은 정당한 하  
 자를 사이에서도 소득분배계가  
 정확히 어떻게 집계되고, 그 통계  
 정당한 어떤 부정이며, 통계를 해석  
 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무엇인  
 가를 알지 않고서는 都市家計調  
 査상 나타난 소득분배 통계의 해  
 석에 신중히 다룬 견해를 나타내  
 기가 중요하다. 하물며 소득분배  
 구조상 상하에 속하지 않는 많은

층이 있다고 간혹하고 그러지  
 는 심정을 써 있지 않은 것이 사실  
 이다. 이의 장기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 사실상 전후한다. 현실  
 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동안  
 이 대책이라면 정부가 성장하고  
 국민생활의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경제정책의 분배율이 커져서 소  
 의된 계층도 생활이 개선될 것이  
 라고 이념상 이해할 수 있다.

고 생각하고 있다. 이의 성장하면  
 사회인식의 일부만은 경제 발전  
 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시가  
 계조사용제의 대표성만 집계하면  
 의 총생산은 부를 얻지 못한다. 통  
 나간다. 소득분배의 개혁을 위한  
 흐름(flow)이 본 수치를 부  
 의 분배율이 나타내지 못하는 것  
 이 사실이다. 많은 국민들이 그러  
 고 있다. 소득분배의 개혁을 위한

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경제 발전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이력 증대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사회의  
 정의 일관한 기쁨이 아닐까. 대  
 영이 이 개혁을 위한 것이든  
 다. 그러하다.

所得分配 統計의 虛點

사람들을 대개 자기 위주로 생  
 각하기 쉬운 데 자기의 생활이 크  
 게 개선되지 않는 한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통계를 쉽게 받아  
 들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경제정책의 실행을 보  
 조하기 위하여 경제연구수준에서  
 이념을 넘어서는 정세분석의 필요  
 를 인식하여야 한다.

kle-down hypothesis)가 통  
 계학 연구였다. 모건진단. 전후  
 학자들 사이의 모건에서조차  
 이 학자에 의한 연구가 대대적인  
 연구수준이 아니라 비관적  
 노정연구 소득분배의 단점을 이  
 루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많이 도시계조사  
 나간다.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것  
 수를 전후한 정책의 필요성을 알

분담의 위험을 실패 (stock)  
 장의 부채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다  
 영이 부담이다.  
 도시계조사상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가 경제정책 실행의 단점을 이  
 한다. 1. 대대적인 연구 1. 경제  
 20%가 아니라 10%로 1. 경제  
 2. 연구 목적과 1.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정부가 소득분배의 개혁을 위한  
 차이를 줄이려는 것. 그러나  
 1.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2. 연구 목적 1. 연구 목적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4.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 통계자료 공동활용체제 구축 1백5種 DB 28개기관 이용

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관별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다. 특히 최근들어 정부기관을 비롯, 각 연구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통합·관리하는 것은 관련 분야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 하려는 것.

경제통계관리단, 처음에는 대외경제정보 전산화에만 주력해오다 87년 11월 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대외경제통계업무는 통계청(당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가 통계, 금융 및 증권, 지금까지 경제통계관리로 개발된 자료들은 인구통계, 국민경제통계, 노동 및 임금통계, 농수산업 및 광공업 에너지 관리통계, 건설업과 운수업 및 통신관리통계, 도소매업 관리통계, 물가통계, 금융 및 증권,

업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통계청이 수집 관리하고 있는 통계는 일반통계 및 지적통계를 포함, 모두 3백20여종 65만계열에 이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지난 85년 5월부터 추진해온 경제통계관리 전산화는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의 공유를 위한 통계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자체 추진토록 하고 국내 경제통계는 행정안전부(우선 추진사업)로 선정, 수행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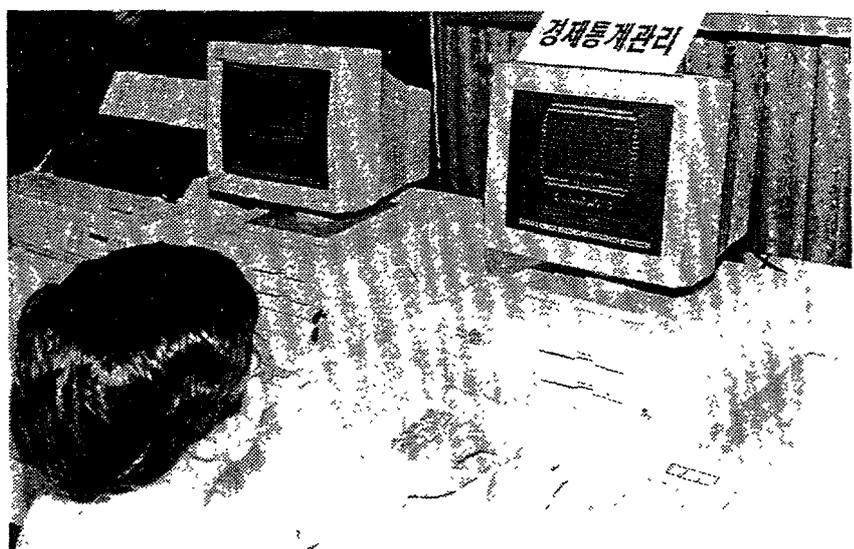
이후 국민경제통계 등 20개 분야 1백5종에 달하는 각종 통계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 경제통계관리단은 통계청이 사용해오던 IBM과 행정안전부(우선 추진)를 연결하는데 성공하여 지난 1월부터 전국 28개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재정통계, 보건 및 사회복지통계, 교육 및 문화통계, 무역·국제수지 및 외환통계 등이다.

통계청은 앞으로 국내 전 문통계자료를 추가하는 한편 주민·부동산·자동차·고용·통관 등 5개 우선추진사업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陳丙源기자】

## 경제통계관리



◇경제통계관리는 과학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정보공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제조업 生産호조

## 1.4분기 8% 증가

### 통계청 발표

통계청의 1.4분기 제조업 생산액이 전년의 동기간에 비해 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4분기 중 市道別로 서울 13.1%, 부산 11.7%, 대구 10.8%, 광주 10.2%, 대전 9.9%, 울산 9.7%, 대구 9.2%, 강원 8.9%, 충청 8.8%, 경북 8.4%, 경남 8.3%, 전북 8.2%, 제주 8.1%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중 제조업의 생산액이 증가한 것은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중 市道別로 製造業生産액」에 따르면 1.3월 중 광공업 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9%가 증가했고, 총액은 10.2%가 증가한 14.2%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9%가 증가했고 소비재도 가장 증가했다. 승용차, 트럭, 수송화물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감소(10.4%)에서 5.3%의 증가세로 반전했다.

산림업은 1.4분기 중 1.1% 증가했다. 이 기간 전자, 운수장비, 철강 및 석유정제업은 전년 동기 대비 10.8%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 반면 섬유업은 1.4분기 중 1.4%의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1.4분기 중 제조업의 생산액이 전년의 동기간에 비해 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4분기 중 제조업의 생산액이 전년의 동기간에 비해 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4분기 중 제조업의 생산액이 전년의 동기간에 비해 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3% △고무제품(1.1%), 1% 등 전년 동기 대비 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10개 市·道の 광공업 생산액이 작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28.1%, 경기 16.4%, 부산 13.1%, 충청 11.7%, 대구 10.6%, 울산 9.8% 등은 전년 동기 대비 7.9%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 鑛工생산 7.9% 증가

## 1.4분기 全南등 큰폭 신장...濟州는 격감

### 광공업생산이 89년 1.4분기 이후 회복세를 지속

1.4분기 중에는 작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으나, 시도별로는 지역 중산산업의 호황·불황에 따라 신장·회복세를 보인 全南 등 10개 시·도는 최고 28.1%까지 증가한 반면 제주·부산 등 4개 시·도는 4.7%까지 감소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1.4분기 중 전국의 광공업생산액은 작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10.2%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조업부분의 생산액이 8% 증가했다. 이 중 생산액이 전년의 동기간에 비해 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4분기 중 제조업의 생산액이 전년의 동기간에 비해 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4분기 중의 0.4% 감소에 서울에는 5.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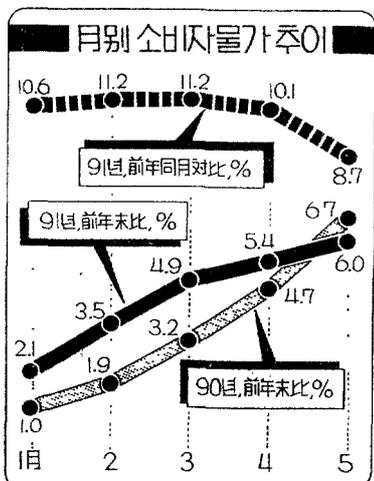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전남이 철강, 산업용화학품의 생산증가로 작년 대비 28.1%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기전자·음료·기계 제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전기(16.4%), 철강·전기전자·화학제품생산이 많은 전북(13.1%), 동계, 전기전자·비금속광물이 증가세를 보인 충북(11.7%), 유리·종이제조업생산이 크게 증가한 전북(10.6%) 등도 생산액이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제주·부산 등 4개 시·도의 생산액이 전년의 동기간에 비해 4.7%나 생산이 감소했다.

5 월중 소비자물가 0.6% 상승

# 物價안정세 뚜렷

## 도매價는 반년만에 첫 하락



물가가 4월 이후 두달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올 들어 처음으로 1년전 대비 한자리수로 떨어졌고 도매 물가는 작년1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30일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이 발표한 5월중 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중 소비자물가는 前月比 0.6% 올랐으며 5월까지 6%가 올랐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년전과 비교하면 5월중 8.7%가 올라 올 들어 前年同月比 상승률이 처음으로 한자리수로 내려왔다. 올 들어 5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6%는 작년 같은달의 상승률(6.7%)을 밑돌아 5월중 소비자물가가 前月比 0.6%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간으로는 9.4% 보다 낮은 것이어서 올해 물가를 한자리수로 잡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도매물가는 채소류와 석유화학제품의 가격하락에 힘입어 5월의 前月比 0.4%가 떨어져 작년11월 0.1% 하락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올 들어 5월까지 도매물가는 1.1% 상승에 그쳤고 1년전과 비교하면 5.3%의 상승률을 보였다.

5월중 소비자물가가 前月比 0.6% 올랐다는 집세와 여의의류의 가격상승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 반면 농수축산물(전반) 배

### 5월까지 6% 「한자리수」 전망

### 채소·油化 제품값 하락 힘입어

추·양파 등 햇작물의 출하가 늘면서 오징어 물가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집세는 5월의 前月比 2.1%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5월과 비교하면 13%가 올랐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은 5월중 물가가 1년전비 한자리수로 잡히고 특히 5월25일 조사에서는 前年同月比 8.3% 상승에 그쳤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초 목표였던 8.5%선에서 잡혔던 8.9%선에서 잡혔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5월 소비자物價 0.6%상승

## 4월부터 안정세 뚜렷

도매는 0.4%내려 6개월만에 첫하락

연중부터 급등세를 보였던 물가가 4월에는 이어이달에도 뚜렷이 안정되고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말과 비교한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하반기 중 물가변

동세가 진정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이달의 소비자물가는 1년전 대비 8.7% 상승을 보여 처음 1한자미수(1년전 대비)를 넘어섰다. 1년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중 10.6%, 2월 11.2%, 3월 11.9%, 4월 10.1%를 기록, 계속 두 자릿수를 나타냈었다. 한편 이날韓銀이 발표

한 5월의 도매물가는 지난해의 비해 0.4%내려 오를 전망이다(韓銀의 발표)이다. 값이 올랐지만(韓銀의 발표) 5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로 작년 같은 기간의 6.7%보다 낮아 연말까지의 상승률을 작년의 9.4% 수준보다 낮게 억제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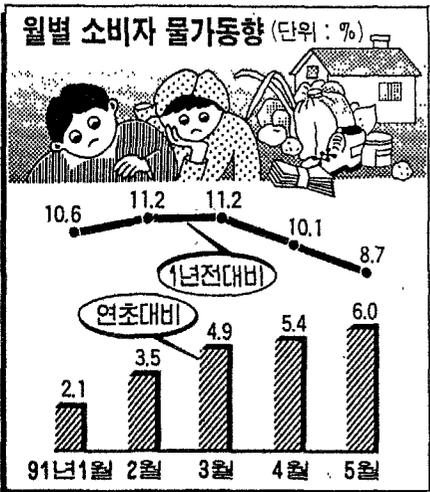
그러나 하반기 중 고공행진 수급과 인플레이션 압력 수급의 인상이 예견되고 선탄가점도 인플레이션을 받고 있어 하반기 중 물가관리 여건의 작년보다 결코 수월치 않을 것이므로 예상



# 우리經濟 구김살 이달들어 퍼졌다

물가 輸出 아과

우리 경제가 마흔팔 달 동안 28%포인트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부진과 과잉생산 등



내需과 수출이 둔화된 것이 외부 환경상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20% 이상 상승한 물가도 20% 이상 상승한 수입 물가 때문이라 볼 수 있다. 20% 이상 상승한 수입 물가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신뢰가 떨어졌고, 수출이 둔화된 것이 외부 환경상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20% 이상 상승한 물가도 20% 이상 상승한 수입 물가 때문이라 볼 수 있다.

4월은 0.5%포인트 상승했다. 5월은 0.5%포인트 상승했다. 5월의 소비자물가는 1년전인 지난해 5월과 비교, 8.7%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률로 되었다.

## 적자폭 확대

5월의 무역수지는 0.4%가 하락, 연초대비 1:1



91. 5. 31

# 오름세 5달만에 한자리 24%나 증가 회복세 뚜렷 트값 안정국면 진입 조짐

○경기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낙관적이다. 특히 5월과 6월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이 중에서도 5월의 회복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5월의 회복세를 보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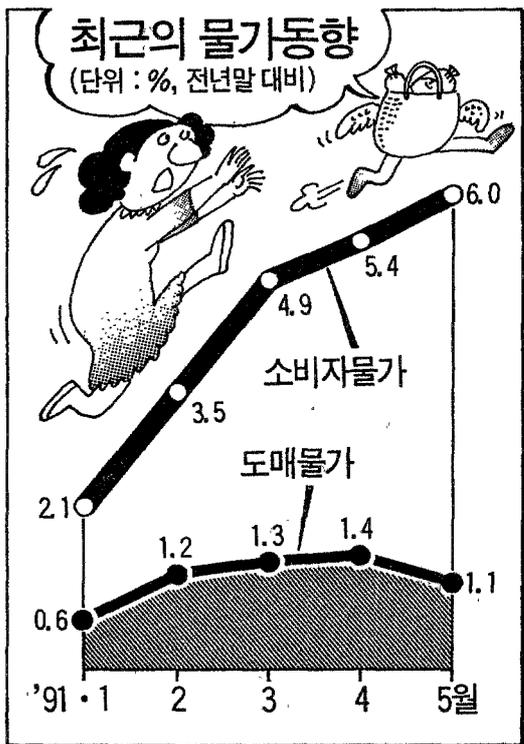
○...수출이 증가한데 따른다. 특히 5월의 수출이 4.6% 증가한데 따른다. 이는 4월의 수출이 4.0% 감소한데 따른다. 5월의 수출이 4.6% 증가한데 따른다.

○...아파트값이 지난 8월 이후 3달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5월의 경제연진상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5월 부동산업의 증가세가 뚜렷한데 아파트가 전과 전세값이 각각 수출의 하락세를 보였다. 전과 전...

## 개발업이 강세

○...아파트값이 지난 8월 이후 3달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5월의 경제연진상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5월 부동산업의 증가세가 뚜렷한데 아파트가 전과 전세값이 각각 수출의 하락세를 보였다. 전과 전...

아파트가 계속 상승을 시도하면 서울·仁川·富川·城南·安山 등 수도권권지역에서 일제히 수축이나마 값이 떨어질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 정부 관계자들은 유가오름 신도시아파트입주가 시작될 경우 부동산상가의 턱부나임이 줄어들리라 전망. 「거품 현상」이 가라앉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근로자 임금과 물가 상승률의 상승세가 뚜렷한데 물가 상승률이 4월말까지 48연달대를 기록했다. 또 평면이회전기를 전후 한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이와 마찬가지로 노적인 전향적인 것으로 전망. 5월의 경제연진상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종합특기】



# 物價안정세: 庶民은 못느낀다

「도매」 0.4% 下落的 虛實

「도매」 물가동향 「안정세」인 줄 알고 지수상으로는 연초부터 계속된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 움직임의 선진국에 비해 한도폭물가가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0.4% 하락해 더욱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경제기획원 물가관리처장은 「한반도의 물가 상승세가 삼한기에 비해 낮았던 것만큼이지요」 패턴을 감안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 그러나 이같은 지수상의 진정세가 물가안정으로 살릴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비록 물가동향의 지표는 민감한 섹터인 서비스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 물가 상승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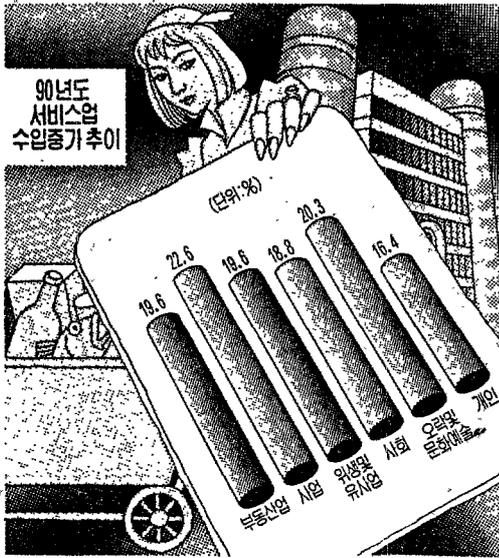
서민들이 매일 지출하는 품목의 값은 지수상의 안정세를 와는 부합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지수상으로는 1% 안팎인 물가 상승률도 실제 생활에서는 1% 이상 상승을 느끼는 경우가 21.4%에 달한다. 반면 가장 민감한 식품(음식료) 부문에서는 11.4%의 상승률이 실제 가격인상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집값은 40%~50% 올랐다. 실사 업체 소비자물가를 한 자리수에서 두 자리수로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원재료 활자들도서는 생활이 조금 더

## 指數만 약간...「體感」과 거리 멀어 廣域선거-각종 開發사업 惡材

나아진 게 없지는 않다. 하물며 실제 생활에 있어 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가 때문의 못살겠다 하고 아우성 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게다가 양이론도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할 단 한 가지 방법이 아니다. 200일 양이론. 다가만 광역의회선거를 전후로 예상되는 도의 洪水와 공공기관들의 부채총액의 부양이 최대의 위험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와 달리 中高校 수업료·의료보험수가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하반기에 계속 되어 있고 영남지방 인건비 상승 역시 걱정 대상이다. 다른 지방의 경우와 달리 이 지역은 1991년 1월과 2월 소비자물가가 2.1%와 3.5%로 연초 5천원권 규모로 상승되던 2차추진사업의 파급 효과를 단번에 보였다. 물가를 의식한 업체가 무리를 해서라도 물가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업계의 자금난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다. 지적이다. 다만 최근의 인건비 상승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정부정책의 최대해결과제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金主基기자〉

# 서비스산업계수호행



〈그림: 張甲鏡〉

## 89년7월부터 1년간통계 분석

서비스산업이 계속 번창하고 있다. 수입증가율이 경제

**총수입 29조로 업체당 6천만원 변셈  
前年比 19% 늘어 경제성장을 웃돌아**

성장률을 훨씬 웃돌고 있는 가운데 종사자수 및 수입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갈수록 대외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서비스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9

년 7월 1일부터 90년 6월 말까지 1년간의 각종 서비스업체(도소매업, 숙박, 음식점, 제조업) 수입액은 28조 5천 9백 37만원으로 전년보다 19.3%(4조 7천 800백 61만원) 늘었다.

이같은 증가세는 전년 의 증가율 19%를 웃돌며 90년 국민총생산(GDP)을 웃돌았다. 반면 사업체수는 48만 8천 5백 48개로 8.1%(3만 6천 5백 14명)가 늘었다. 1년간의 8.5%에 다소 못미쳤다. 이에 따라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평균 4.2명으로 전년보다 0.1명이, 수입액은 6천 90만 원으로 5백 70만원이 각

업종(증가율 9%정상 기준 18.8%) 및 제조업 성장률 8.4%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한편 종사자수는 2백 4만 2천 7백 32명으로 9%(16만 8천 5백 54명)가 늘어난 반면의 8%를

각 분야나 대외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업종별 수입액증가 추세를 보면 △사업체 서비스업(전종) 공학, 기술 서비스업, 조사 및 정보관리 서비스업, 광고업, 패션 디자인업(이 4주 2천

9백 4만원으로 22.6%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우락 및 문화예술회 서비스업이 2조 6천 5백 88만원으로 20.3% △부동산업이 3조 8천 4백 48만원으로 19.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3천 4백 69만원으로 역시 19.6%의 성장세로 비교적 호황을 누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업체수, 종사자수, 수입액이 전년의 30.6%, 34.5%, 44.4%를 각각 차지해 1년전보다 0.3~0.5%포인트 높아졌고 6대도시의 점유비중도 같은 기간 55.9%, 58.7%, 66%로 나타났다. 0.4~0.5%포인트 높아지는 등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李錫雨기자)

# 서비스 매출 연 30조 육박

89년 7월~90년6월 전년 동기비 19.3% 늘어

## 사업체수 8.1% 종사자 9% 증가

89년 7월부터 90년 6월까지 1년 동안 국내 서비스업은 매출액이 한해 전에 비해 19.3% 늘어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업 가운데 쓰레기 수집·처리업과 분뇨 수거·처리업 등으로 이뤄진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변창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90년 서비스업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89년 7월1일부터 90년 6월30일까지 1년간 국내 서비스업체들이 올린 매출액은 29조5천9백37억원으로 추계돼 한해 전에 비해 19.3%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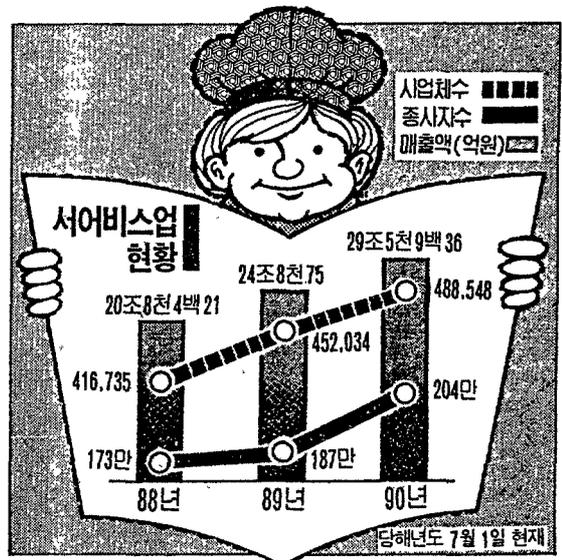
이런 매출액 증가율은 같은 기간의 경상경제성장률(15.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한해 전의 증가율(19.0%)과는 비슷한 것으로, 서비스업이 계속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업은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감정업 등) △사업서비스업(법무·회계·건축·공학·기술검사 서비스업, 조사·정보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임대업, 광고업, 인력공급업,

패션디자인업 등)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학술연구기관, 의료보건·수의 서비스업, 사회복지기구, 산업·전문가·노동단체 등; 교육 및 정치단체 등은 제외)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영화·예술서비스업,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운동설비·경기장·공원운영 등) △개인서비스업(수선업, 세탁·염색업, 이·미용업, 예식장 등)을 일컫는다.

또 지난해 7월1일 현재 이들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48만8천5백48개로 한해 전에 비해 8.1%, 종사자수는 2백4만2천7백32명으로 9.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 각각 17.6%, 20.8% 늘어남으로써 다른 업종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작년 製造業 부진속 서비스업 好況

# 賣出額 19.3% 늘어

## 총 29兆... 증가 서울 44% 大都市 집중 심화

### 통계청 「90 서비스업」 발표

지난해 제조업이 수출부진으로 판매액이 전년 대비 18.3%나 증가한 데 비해 서비스업은 19.3%나 증가한 데 이어 지난 해에도 19.3%나 늘었다.

### 해설

서비스업의 판매액은 89년 19% 증가한 데 이어 지난 해에도 19.3%나 늘었다. 지난해 GNP 성장률이 9%였다가 정물기간 이하로 떨어졌고 있다.

### 異常비대 날로가속

### 제조업 위축 등 심각

이런 통계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대도시 집중의 심화와 점진적인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이다. 수도권에서도 점차 대도시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인구가 89년 1천만 45.4%에서 1천만 33.3%로 감소한 반면 5개 대도시의 인구는 1.1%에서 2.3%로 증가했다.

이런 서비스업의 비인플레이션은 제조업의 침체와 위축과 소비 위축의 영향을 받아 대도시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대도시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關內福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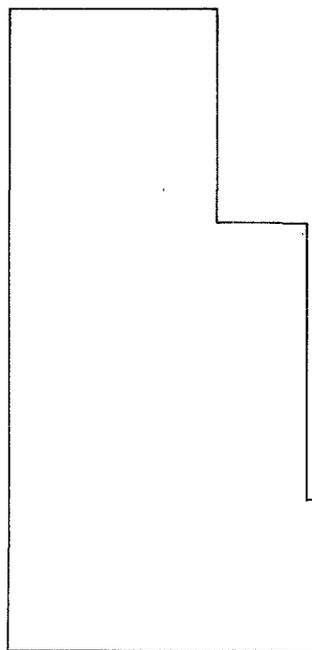
올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업 매출 가운데 서울과 6 대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4.4%, 66.0%나 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90년 서비스업통계」에 따르면 89년 7월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서비스업 매출은 28조 5천 9백 37억원으로 전년보다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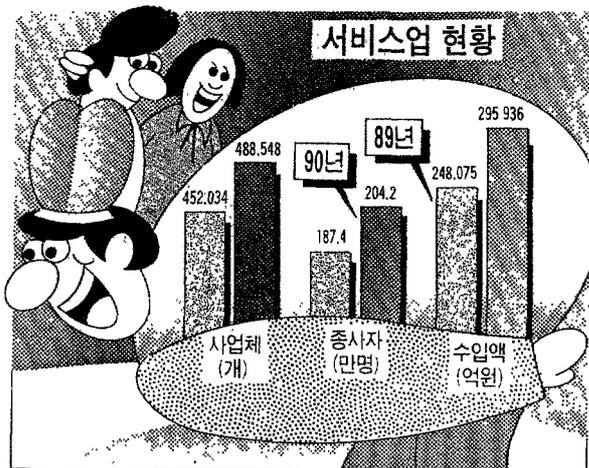
또 지난해 7월 1일 현재 서비스업체수 및 종사자 수는 각각 48만 8천 5백 48개, 2백 4만 2천 7백 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9.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매출신장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NP) 성장률이 15.5%를 웃도는 것이며 종사자 증가율은 도시 제조업의 0.1% 증가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서비스업의 인건비 상승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0.3%, 19.6%, 19.6%씩 생산증가율을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사업체수의 30.6%, 매출액의 44.4%를 차지했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仁川, 大田 등 6 대도시가 사업체수의 55.9%, 매출액의 66.0%를 점유했다.



# 서비스업종사자 2백만 돌파



## 年間매출 19% 증가 : 30兆

90년 7월 기준 전문직·정보관련업 수입 급증

### 통계청 발표

서비스업종사자가 지난해 2백만명을 돌파하고 서비스업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서비스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연간 매출액 89.6.30.190.7.1(단위:조)는 9.백37.9(단위:조)로

89년에 비해 19.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GNP 비중도 88년 16.5%, 89년 17.6%에서 지난해에는 18%에 달했다. 서비스업사 업체 수는 48만 8천 5백 48개(81년) 45만 2천 34개(89년)에 비해 8.1%가 증가했고 이들 업체 종사자 수는 2백 4만 2천 936

명으로 89년 대비 9%가 늘었다. 업종별로는 수입면에선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종과 정보 및 컴퓨터 관련업의 사업서비스업 부문이 22.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이들 분야의 급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업종별 현황을 보면 다음

과 같다. (괄호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  
 ▲부동산업 11사업체 6만 4천 6백 11개(7.8) 증가  
 ▲사자 17만 1천 6백 18명(8.5) 증가  
 ▲수입액 3조 8천 4백 48.9(19.6) 증가  
 ▲사업서비스업(전문직 등) 11사업체 2만 6천 7백 91개(12.4) 증가  
 ▲사자 21만 1천 57명(14.8) 증가

▲수입액 4조 2천 9백 4.9(22.6) 증가  
 ▲위생서비스업 5사업체 2만 4천 4백 17명(6) 증가  
 ▲사자 5만 5천 51명(20.8) 증가  
 ▲수입액 3천 4백 69.9(19.6) 증가  
 ▲사회서비스업(화원·병원 등) 11사업체 11만 8천 6백 72개(10) 증가  
 ▲사자 1만 1천 8백 84명(8.3) 증가  
 ▲수입액 14조 9천 6백 38.9(18.8) 증가  
 ▲오락 및 예술 서비스업 11사업체 7만 9천 8백 63개(13.6) 증가  
 ▲사자 18만 5천 8백 64명(14.6) 증가  
 ▲수입액 2조 6천 5백 89.9(20.3) 증가  
 ▲개인서비스업(미용·사진관 등) 11사업체 20만 2천 2백 7개(4.3) 증가  
 ▲사자 41만 7천 2백 58명(4.6) 증가  
 ▲수입액 3조 4천 8백 89.9(16.4) 증가  
 이 번 조사 대상에선 금융·보험·숙박·도소매·건설·정보·가사 서비스업이 제외됐다.

# 서비스업점차大型化

## 統計廳、6개부분조사결과

통계청이 내놓은 「90년 도서비스통계조사결과」는 제조업이 수출부진·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은 계속 肥大化하고 있는 최근의 추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분야의 종사자가 무려 14.6% 증가한 사실은 제조업의 발달이 지나치게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대상사업체 종사자의 월평균 후월수도 88년 7월에서 작년에는 3.1월로 늘어났다.

통계청의 이번조사는 88년 7월 1일부터 90년 6월말까지의 기간동안 부동산·사업서비스업·위생및유사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오락및 문화예술

### 다방등 5인이상 사업체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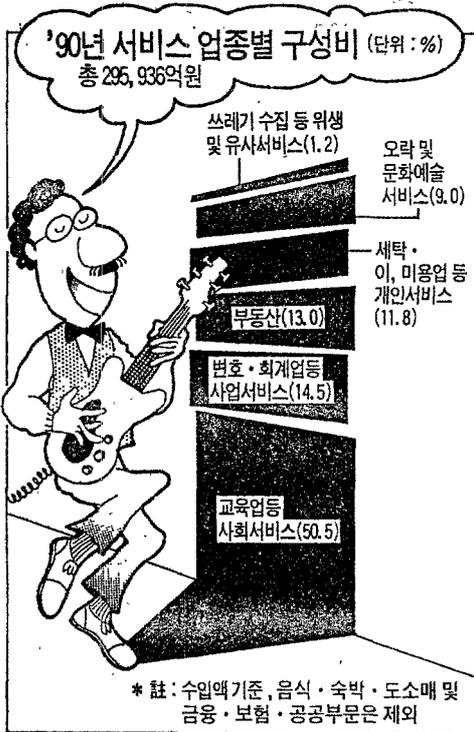
### 골프·볼링등 레저産業 급신장

고부가가치 전문적인 변호사·회계사·건축사등 사업서비스 분야가 급성장한 것은 우리의 사회구조가 점차 선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 1인당 사업체수가 86년 8.5개에서 지난해는 11.4개로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업체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도 개발협력 대비, 발달진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골퍼장·볼링장·구장등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의 증가에 비해 서비스업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보완한 것이 이



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등 6개부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다 금융업·보험업·공공행정및 국방부등과 건설·전기업등은 제외했다.

조사결과와 주요업종별 부문별로 소개한다.

**서비스업** 사업체수가 89년 7만 9천 9백 개에서 90년 8만 7천 8백 개로 10.1%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는 89년 1.2명에서 90년 1.4명으로 16.7% 증가했다.

다방등 5인이상 사업체 54%로 나타났다.

골프·볼링등 레저産業 급신장

사업체 수가 89년 8.5개에서 90년 11.4개로 33.5%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는 89년 1.2명에서 90년 1.4명으로 16.7% 증가했다.

사업체 수가 89년 8.5개에서 90년 11.4개로 33.5%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는 89년 1.2명에서 90년 1.4명으로 16.7% 증가했다.

50.2%에서 90년 47.5%로 감소한 반면 30명(1백명당) 이상의 비율은 21.4%에서 23.6%로 늘어났다.

대형화추세를 보였다. 단 볼링장 등 부동산업이나 복합업·이탈산업을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9천 7백만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수가 89년 7만 9천 9백 개에서 90년 8만 7천 8백 개로 10.1%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는 89년 1.2명에서 90년 1.4명으로 16.7% 증가했다.

다방등 5인이상 사업체 54%

골프·볼링등 레저産業 급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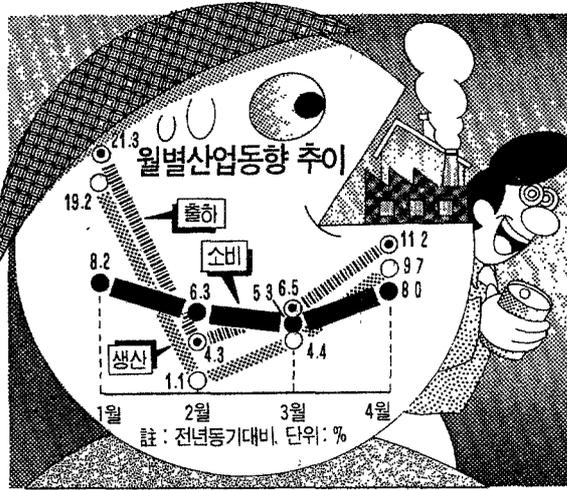
사업체 수가 89년 8.5개에서 90년 11.4개로 33.5%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는 89년 1.2명에서 90년 1.4명으로 16.7% 증가했다.

사업체 수가 89년 8.5개에서 90년 11.4개로 33.5%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는 89년 1.2명에서 90년 1.4명으로 16.7% 증가했다.

# 4월중 산업활동 好調



## 통계청, 建設26% 늘어 活況선도

3월의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산업활동이 4월에도 계속 호추세를 나타냈다.

4인통계청의 발표한 4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3월보다 4·6%, 출하는 5·6%씩 증가, 90년 동기에 비해서 각각 9·7%, 11·2%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생산 및 출하의 호조에 따라 제조업가동률도 3월보다 3%포인트가 증가한 81·7%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실업률은 지난 89년 10월(2·1%) 이래 가장 낮은 2·1%(41만명)를 기록했다.

부동산은 건설수가 전년동기보다 25·9%의 높은 증가세를 계속하는 등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호황세를 나타냈다.

## 生産작년比 9·7% 늘어

## 실업률 2·1% : 18개월새 최저

은 증가세를 계속하는 등 산업활동이 여전히 선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수주는 설비분야(발전·선박용엔진)와 버스·트럭·무중량용이 전년 대비 29·5% 감소했으나 일반산업용기계수주는 8·6%의 증가를 나타냈다.

도소매출입은 소비분야역시 전년 4월보다 8% 증가, 여전히 내수활황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추세는 1·4분기(12·8%)보다 다소 누그러지는 추세를 보였다.

연중별 생산활동률 보면 4월중 생산수치를 양달하고, 4월중 생산활동률이 지난해 동기보다 26·7%의 증가를 보였고 수출차의 수출 및 내수판매추진으로 수출액도 21·9%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유·고부제품의 회복분야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다재고출도 높아 일부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동향의 선·연·연·승용차등 내구소비재가 전년 동기 대비 10·7%, 남자기

은 증가세를 계속하는 등 산업활동이 여전히 선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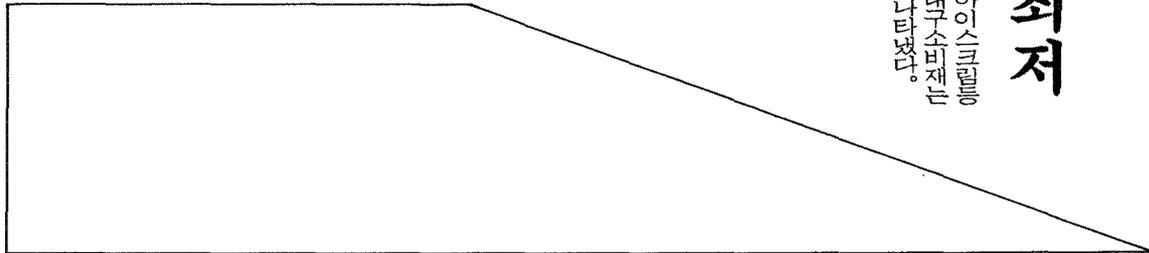
기계수주는 설비분야(발전·선박용엔진)와 버스·트럭·무중량용이 전년 대비 29·5% 감소했으나 일반산업용기계수주는 8·6%의 증가를 나타냈다.

도소매출입은 소비분야역시 전년 4월보다 8% 증가, 여전히 내수활황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추세는 1·4분기(12·8%)보다 다소 누그러지는 추세를 보였다.

연중별 생산활동률 보면 4월중 생산수치를 양달하고, 4월중 생산활동률이 지난해 동기보다 26·7%의 증가를 보였고 수출차의 수출 및 내수판매추진으로 수출액도 21·9%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유·고부제품의 회복분야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다재고출도 높아 일부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동향의 선·연·연·승용차등 내구소비재가 전년 동기 대비 10·7%, 남자기



# 景氣 회복세

제조업가동률 3%p 상승  
 실업률 0.1%p 하락  
 과소비열풍 진정국면

## 統計廳, 4월 産業동향 조사

證市침체·통화긴축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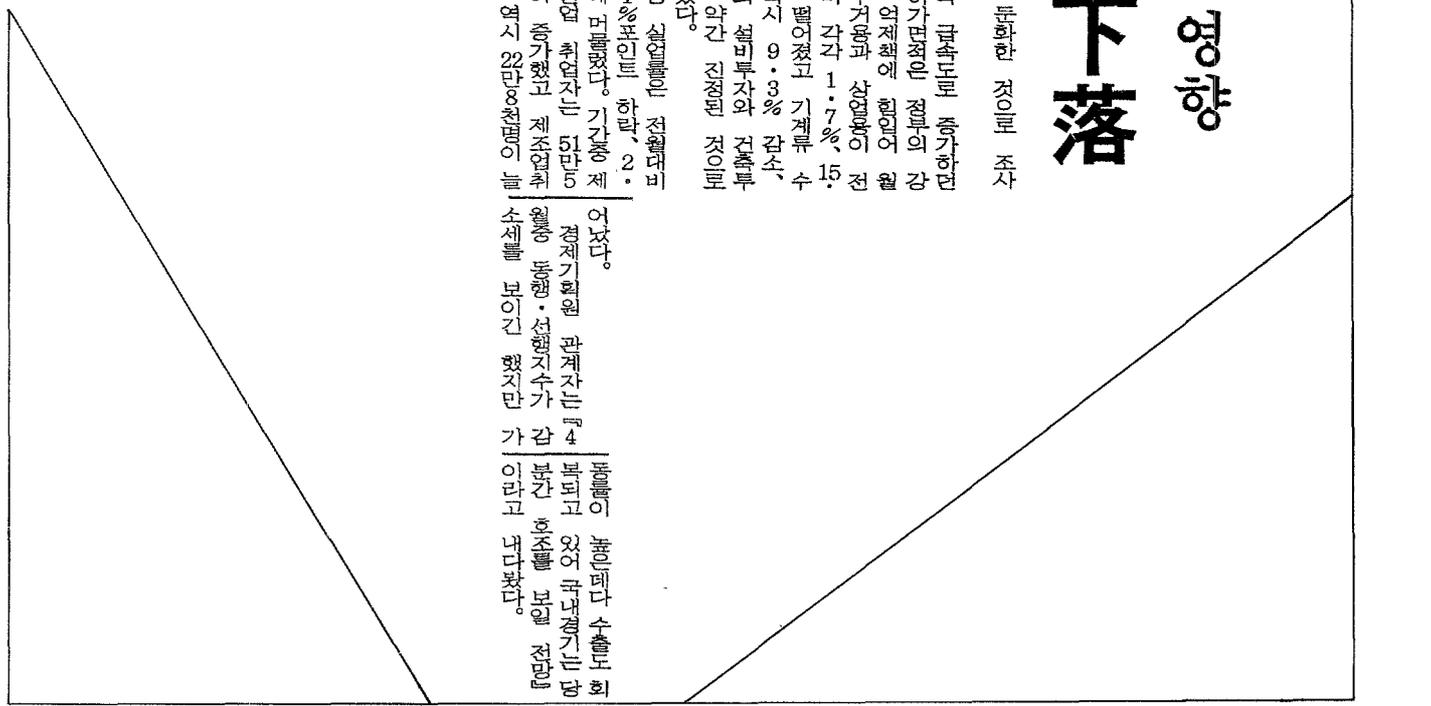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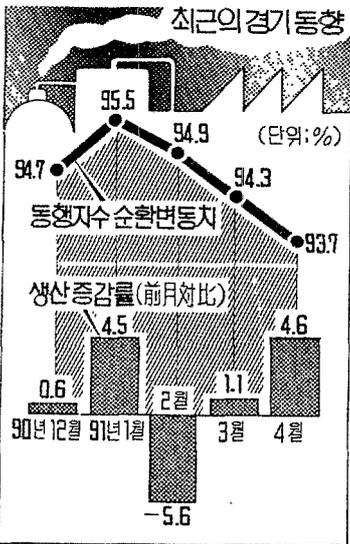
# 先行지수는 下落

4월 중 국내경기는 산업 생산과 제조업가동률이 前月の 비해 각각 4.6% 3%포인트 증가한 등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3개월후의 경기를 예고하는 先行지수는 0.1% 떨어졌고, 동행지수수준(前월치) 역시 0.1% 떨어졌다. 제조업가동률의 경우 4월 중 94.9%로 3월의 94.3%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실업률도 4.6%로 3월의 4.7%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재출하량은 4월 중 95.5%로 3월의 94.7%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는 4월 중 115.2%로 3월의 114.7%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제조업가동률의 경우 4월 중 94.9%로 3월의 94.3%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실업률도 4.6%로 3월의 4.7%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재출하량은 4월 중 95.5%로 3월의 94.7%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는 4월 중 115.2%로 3월의 114.7%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4월 중 산업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4.6% 증가한데 비해 서비스는 9.7%가 각각 증가했다. 이 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3월 78.7%에서 4월에는 81.7%로 3%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재출하는 에어컨·냉장고 등의 출하 증가로 내수 소비재가 10.7% 늘어났지만 금년 1분기의 12.8% 증가에 비해서는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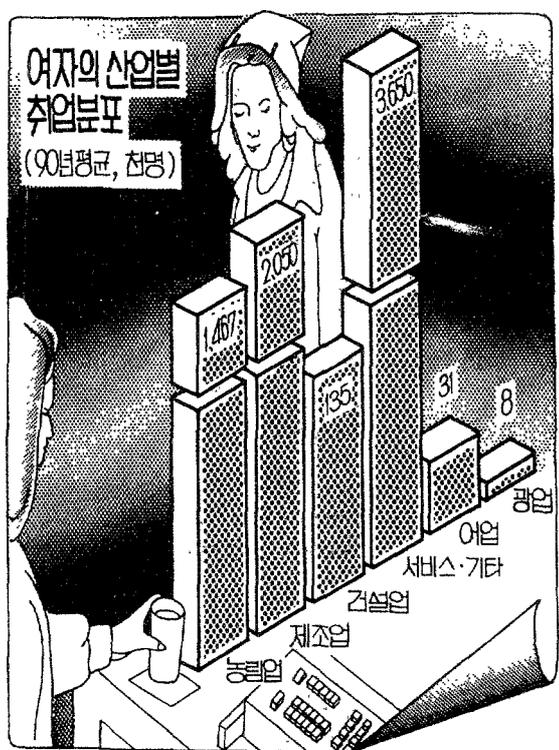
세가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급속도로 증가하던 건축허가면적은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에 힘입어 월중 추저용과 상업용이 전년대비 각각 1.7%, 15.6% 떨어졌고 기계류 수주 역시 9.3% 감소, 업계의 설비투자액도 건축부자가 약간 진정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포인트 하락한 2.3%의 실업률은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1%에 머물렀다. 기간중 제조업 취업자는 5만 5천명이 증가했고 제조업 취업자 역시 2만 8천명이 늘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4월 중 동행·선행지수가 각각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월 중 동행지수가 94.3%로 3월의 94.3%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실업률도 4.6%로 3월의 4.7%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재출하량은 4월 중 95.5%로 3월의 94.7%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는 4월 중 115.2%로 3월의 114.7%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 취업이성 52%가 서비스업

## 12.9%나 늘어...농림어업은 감소



### 여성학력, 男은 고학력 많아

경제활동 참가율 47%로 매년 증가 추세  
실업자 모두 45萬명...70%가 6大도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활발해지면서 서비스업 분야의 여성인원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6월 90년 중 여성취업자(영양업)인 7백34만1천명으로 전년비 3.1%(22만명) 늘었는데 3차산업인 서비스·기타(건설업등 포함)분야의 여성취업자수가 총 12.9% (27만3천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여성취업자는 2.9%와 4% 각각 감소했다. 여성취업자중 서비스·기타분야종사자의 비율은 52%에 이른다.

통계청은 90년의 여성취업자는 전체 1천8백3만6천명의 40.7%에 해당하며 남성 취업자는 1천69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2.0%(38만5천명) 증가했다. 여성의 취업자가 증가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작년 취업자의 남녀성별 구성비는 59.3대 40.7로 89년과 같았으나 84년의 61.6대 38.4에 비해서는 여성취업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작년 취업자 분석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인구중 주부·학생·고령자·실업자등을 빼고 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노동참가율)은 여성의 증가수준이 높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4년 77.1%에서 88년 72.9% 90년 73.9%인데 비해 여성은 84년 40.7%에서 88년 45%로, 90년에는 47%로 높아졌다.

작년의 산업별 여성취업자 분포(팔오안은 구성비)는 ▲농림어업 14만0천8백명(28%) ▲광공업 2백5만8천명(28%) ▲서비스·기타 78만5천명(52%) 등이었다.

여성취업자의 1차·2차·3차산업별 구성비는 84년의 30대 23대 47%에서 89년에는 24대 28대 48% 90년에는 22대 29대 49%로 바뀌었다.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의 1차·2차·3차산업별 구성비는 84년 27대 24대 49% 87년 22대 28대 50% 89년 20대 28대 52% 90년에는 18대 27대 55%로 바뀌었다.

지역별 여성취업자는 ▲서울이 41%(2백98만4천명) ▲충청 20%(1백47만명) ▲고령 31%(2백28만2천명) ▲대동이상 8%(60만7천명)로 충청이하의 학력자가 61%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남성취업자는 ▲서울이 22% ▲충청 19% ▲고령 42% ▲대동 17%로 고졸이상의 고학력자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는 6대도시가 전체의 46.9%인 8백46만6천명으로 신원·원주·영남·보이그·이그·이영 서울은 4백50만5천명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

다음은 서울(2백38만2천명) 慶南(1백58만1천명) 釜山(1백54만2천명)의 순이다.

여성취업자수는 全南이 60만1천명으로 팔오안은 서울이 1백35만1천명으로 서비스·기타분야종사자도 서울이 3백13만2천명으로 가장 많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실업자는 45만1천명(실업률 2.4%)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70%인 31만3천명의 6대도시에 몰려있다.

지역별 실업률의 ▲서울 4% ▲釜山 3.3% ▲光州 大田 3.2% ▲京畿 2.4% ▲慶南 1.6% ▲全北 1.3%의 순이다.

통계청이 6월 90년 중 여성취업자(영양업)인 7백34만1천명으로 전년비 3.1%(22만명) 늘었는데 3차산업인 서비스·기타(건설업등 포함)분야의 여성취업자수가 총 12.9% (27만3천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여성취업자는 2.9%와 4% 각각 감소했다. 여성취업자중 서비스·기타분야종사자의 비율은 52%에 이른다.

통계청은 90년의 여성취업자는 전체 1천8백3만6천명의 40.7%에 해당하며 남성 취업자는 1천69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2.0%(38만5천명) 증가했다. 여성의 취업자가 증가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작년 취업자의 남녀성별 구성비는 59.3대 40.7로 89년과 같았으나 84년의 61.6대 38.4에 비해서는 여성취업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인구중 주부·학생·고령자·실업자등을 빼고 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노동참가율)은 여성의 증가수준이 높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4년 77.1%에서 88년 72.9% 90년 73.9%인데 비해 여성은 84년 40.7%에서 88년 45%로, 90년에는 47%로 높아졌다.

작년의 산업별 여성취업자 분포(팔오안은 구성비)는 ▲농림어업 14만0천8백명(28%) ▲광공업 2백5만8천명(28%) ▲서비스·기타 78만5천명(52%) 등이었다.

여성취업자의 1차·2차·3차산업별 구성비는 84년의 30대 23대 47%에서 89년에는 24대 28대 48% 90년에는 22대 29대 49%로 바뀌었다.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의 1차·2차·3차산업별 구성비는 84년 27대 24대 49% 87년 22대 28대 50% 89년 20대 28대 52% 90년에는 18대 27대 55%로 바뀌었다.

지역별 여성취업자는 ▲서울이 41%(2백98만4천명) ▲충청 20%(1백47만명) ▲고령 31%(2백28만2천명) ▲대동이상 8%(60만7천명)로 충청이하의 학력자가 61%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남성취업자는 ▲서울이 22% ▲충청 19% ▲고령 42% ▲대동 17%로 고졸이상의 고학력자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는 6대도시가 전체의 46.9%인 8백46만6천명으로 신원·원주·영남·보이그·이그·이영 서울은 4백50만5천명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

다음은 서울(2백38만2천명) 慶南(1백58만1천명) 釜山(1백54만2천명)의 순이다.

여성취업자수는 全南이 60만1천명으로 팔오안은 서울이 1백35만1천명으로 서비스·기타분야종사자도 서울이 3백13만2천명으로 가장 많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실업자는 45만1천명(실업률 2.4%)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70%인 31만3천명의 6대도시에 몰려있다.

지역별 실업률의 ▲서울 4% ▲釜山 3.3% ▲光州 大田 3.2% ▲京畿 2.4% ▲慶南 1.6% ▲全北 1.3%의 순이다.

〈盧應根기자〉

# 統計廳 「경기지수」 現狀과 과리

## 실물經濟 제대로 반영 못해

### 10년 전 算出 방식 그 대로 채택 指標가 중치 재조정·公開 필요 産·學·政 참여 統計委員會 바람직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경제기획원(이하 기획원)의 홍영근 부총리 겸 기획원장(이하 홍부총리)은 16일 기획원 회의에서, "통계청의 경기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홍부총리는 "통계청의 경기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홍부총리는 "통계청의 경기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홍부총리는 "통계청의 경기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홍부총리는 "통계청의 경기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2~3개월후의 경기를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도 같은 1월 1500.2에서 2월 1577.7, 3월 1580.4, 4월 1578.0, 5월 1578.0, 6월 1578.0, 7월 1578.0, 8월 1578.0, 9월 1578.0, 10월 1578.0, 11월 1578.0, 12월 1578.0

반면, 실물경제의 흐름을 반영한 4.4분기 6.8%의 GDP(국내총생산)은 1.4분기 8.0%보다 높아지고, 4분기 8.1%의 GDP는 1.4분기 7.7%보다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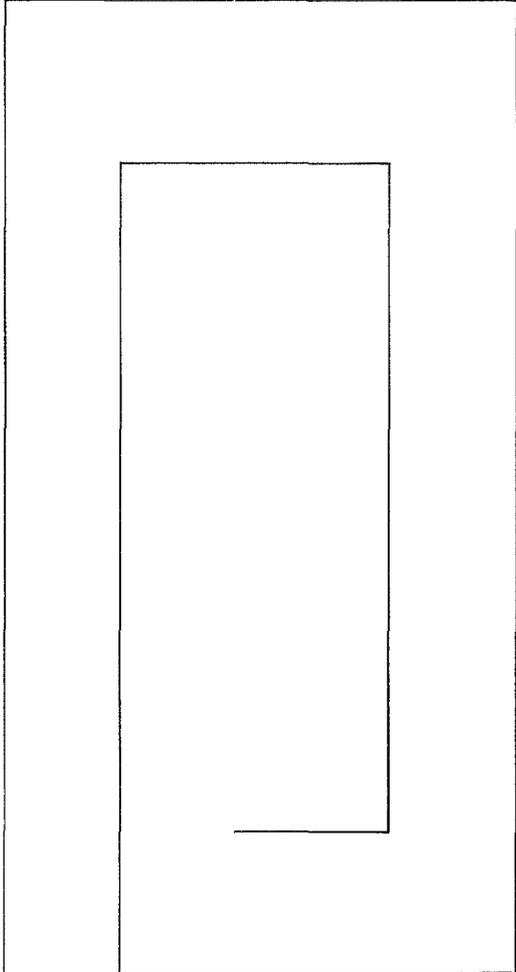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지수(경제지수)가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여 백**

# 3/4분기 보도기사

(7월~9월)

**여 백**

이야기 經濟學



(11)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Introductory text for the 'Economic Story' column)

가능한 가격조작 행정지수

조사대상 價格통제로 便法조절하기도

조사 수단을 회고하면... (Main text of the article discussing price control methods)



그림 : 金松繁

격 떨어뜨리는 統計 신뢰성 스스로

통계 신뢰성 떨어진다면... (Text discussing the reliability of statistics and price control)

〈金大號기자〉

# 산업생산 상승기류 탔다

統計廳 분석 5월실적 작년보다 11.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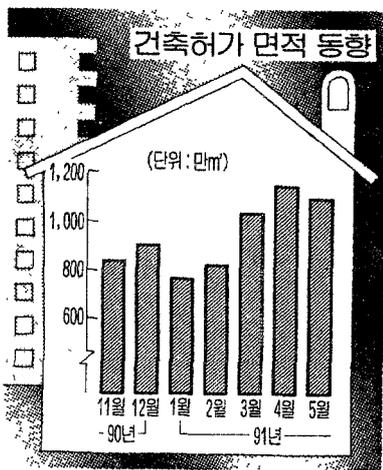
## 제조업稼動率 80%線 넘어

### 건설경기過熱현상 당분간 지속

산업생산이 내수와 수출 호조의 힘으로 5월에도 계속 활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경기인 허가면적의 증가세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으나 건설수주액과 착공물량의 증가로 과열현상의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5월 산업생산동향에서 5월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1.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5월까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 늘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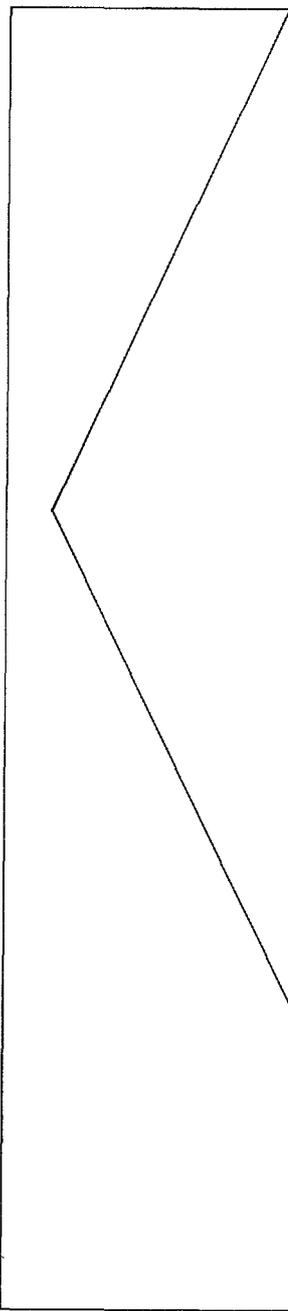
공명적인 좋지 않음을 것으로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당 국자는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수출이 1년 이상 수출액에 비추어 연간 추산건 설규모는 50만대가 가정 전이나 실제 착공물량이 지난해에도 4만여가구를 웃돈데 이어 올해도 상당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제·조립·단속·일반기계, 철강부품의 생산이 15% 이상 늘어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섬유부품이 4.6% 감소하는 등 건설업 분야는 대체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소마는 5월중 백화점의 판매부진으로 도소매 전체로 전년동기에 비해 0.2% 줄었으나 승용차에 어콘·VTR 등 내구소비재의 출하는 무려 29.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경기는 「5.3건설경기조정대책」에 따른 건 설규제조치로 건축허가면 적의 자연감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 부고속도로 확장과 택지조 성공사 등 공공부문의 건 설수주액은 8.2%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착공의 건축허가시점 으로부터 3~6개월의 시 차를 두고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착공면적은 계 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도시의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건설만하더라도 허가면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2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실제 착

공면적은 줄지 않았을 것으로 경제기획원과 건설부 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당 국자는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수출이 1년 이상 수출액에 비추어 연간 추산건 설규모는 50만대가 가정 전이나 실제 착공물량이 지난해에도 4만여가구를 웃돈데 이어 올해도 상당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輸出상승·低油價·勞使관계 安定

# 3分期 景氣 좋아진다

## 統計廳 30大그룹 經營人대상 조사

### 응답 91%가 "好況" 점쳐

### "인건비 올라 經常이익은 감소"

3분기중 국내경기는 수출과 내수의 호조에 힘입어 제조·건설·금융·보험 등 산업종의 전체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30대 재벌그룹을 포함한 9백50개기업의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4월을 발표한 「기업경영자경기전망」에 따르면 3분기의 전반적인 경기전망에 대해 응답자중 51.3%가 "2분기수준, 40%가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는데 비해 모두 91.3%가 호황세를 전망했다."

국내경기를 예고하는 기업조사기구(BSI)가 2분기중 1백이론 불황, 3분기중 1백31.3이론 낙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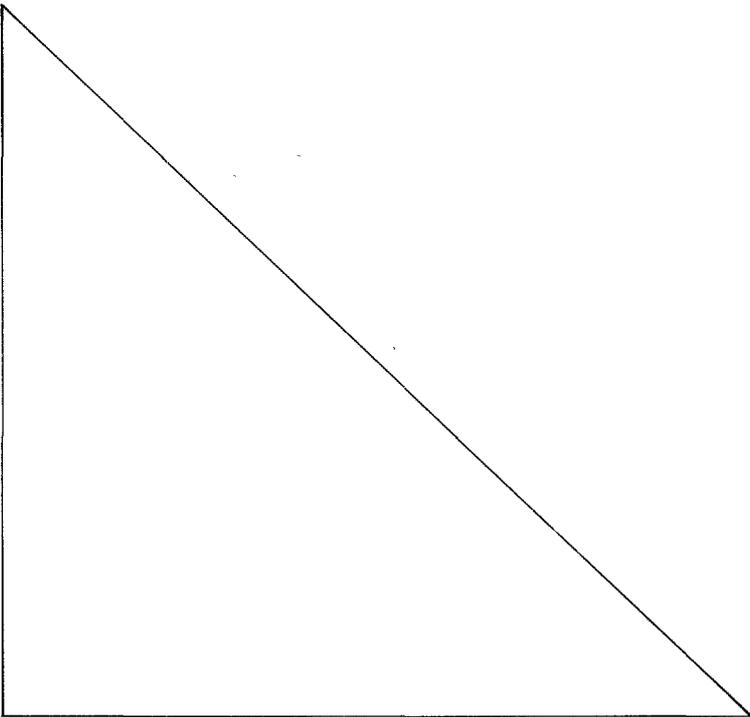
기업경영자들의 양호한 경기예측은 이차림 확대, 내수 회복, 수출 증가, 내수 및 수출의 호진상승, 노사관계 안정, ▲油價안정, ▲전통경기회복지침에 의해 나타났다.

한편 3분기중 매월의 기업경영자중 40.7%가 2분기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38.9%가 비

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20.7%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자기기업의 경상이익에 대해서는 36.6%가 "감소"를 예상, 증가전망(24.6%)을 웃돌았는데, 그 이유로는 인건비와 금융비용 증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때문으로 나타났다. 은 시장세를 보였다.

3분기중 국내경기는 수출과 내수의 호조에 힘입어 제조·건설·금융·보험 등 산업종의 전체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30대 재벌그룹을 포함한 9백50개기업의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4월을 발표한 「기업경영자경기전망」에 따르면 3분기의 전반적인 경기전망에 대해 응답자중 51.3%가 "2분기수준, 40%가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는데 비해 모두 91.3%가 호황세를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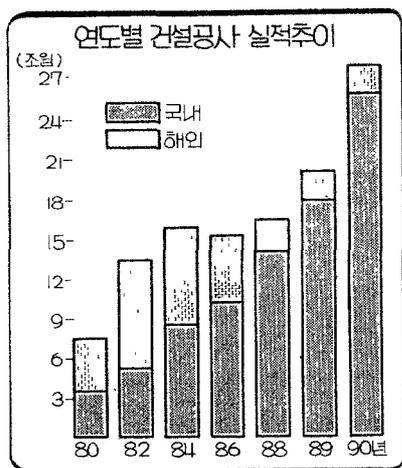
# 건설 10년만에 최대호황

## 작년공사액 25조 8천억

전년비해 43.5% 증가  
해외건설 受注는 83년 이래 감소세

구분	89	90	증감률 (%)
총공사액	110,655	144,638	30.7
공사비	2,241	2,898	29.3
부가가치	98,822	126,647	28.2
유형자산	2,001	2,538	26.8
고정자산	54,801	73,461	34.1
고정자산	1,110	1,472	32.6
고정자산	25,549	26,630	4.2
고정자산	517	534	3.3

건설업계가 90년 들어 최대호황을 기록하고 있다. 90년 1~6월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한 144,638억 원에 달한다. 이는 83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호황이다. 특히 주택건설이 2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했다. 해외건설도 13.9% 증가했다. 반면 공공사업은 2.2% 감소했다. 건설업계의 호황은 90년 들어 1~6월의 실적에서 두드러진다. 90년 1~6월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했다. 이는 83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호황이다. 특히 주택건설이 2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했다. 해외건설도 13.9% 증가했다. 반면 공공사업은 2.2% 감소했다. 건설업계의 호황은 90년 들어 1~6월의 실적에서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이 2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했다. 해외건설도 13.9% 증가했다. 반면 공공사업은 2.2% 감소했다. 건설업계의 호황은 90년 들어 1~6월의 실적에서 두드러진다. 90년 1~6월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했다. 이는 83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호황이다. 특히 주택건설이 2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했다. 해외건설도 13.9% 증가했다. 반면 공공사업은 2.2% 감소했다. 건설업계의 호황은 90년 들어 1~6월의 실적에서 두드러진다.

90년 1~6월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했다. 이는 83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호황이다. 특히 주택건설이 2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했다. 해외건설도 13.9% 증가했다. 반면 공공사업은 2.2% 감소했다. 건설업계의 호황은 90년 들어 1~6월의 실적에서 두드러진다.

# 건설 史上 최고 호황

작년

부가가치 1년새 45.7% 늘었다

지난해 국내건설업체들 7천8백58개 건설업체들은 전년 동기동등(10월)시상을 대상으로 전년 건설 최고의 이익(부가가치)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전년 대비 국내건설업체들은 43.5%로 지난 78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의 文炳學를계조 사표(1991. 7월)「건설업 현황」보고서에서 건설업 이익을 갖고있는 전표 1만 5천여개 건설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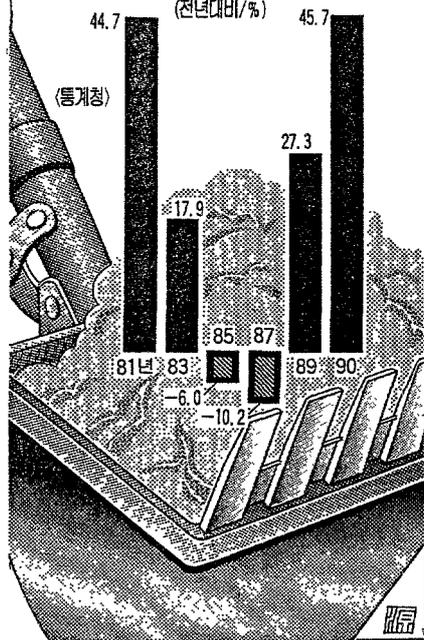
건설업의 이익(부가가치)은 전년 동기동등(10월)시상을 대상으로 전년 건설 최고의 이익(부가가치)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전년 대비 국내건설업체들은 43.5%로 지난 78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의 文炳學를계조 사표(1991. 7월)「건설업 현황」보고서에서 건설업 이익을 갖고있는 전표 1만 5천여개 건설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건설업종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작년말 현재 7천8백58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동등(10월)시상을 대상으로 전년 건설 최고의 이익(부가가치)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전년 대비 국내건설업체들은 43.5%로 지난 78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의 文炳學를계조 사표(1991. 7월)「건설업 현황」보고서에서 건설업 이익을 갖고있는 전표 1만 5천여개 건설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 국내 건설업체들의 부가가치 증가율 (전년대비/%)



6천9백40억원에 그쳤다. 공사비의 50~60%에 달하는 6.2%에 그쳐 처음으로 10%미만을 나타냈다.

# 건설업

91. 7. 7

## 建設業 80년 이래 최대 호況

지난해

總工事額 25兆 89年比 44%急増

海外건설 受注는 83년 이후 계속 減少

건설업체들이 지난 88년 이후 최대 호황에 접어들었다. 1만7천8백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의 27.5%를 차지한 2조9천9백50억 원의 건설업 이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5%나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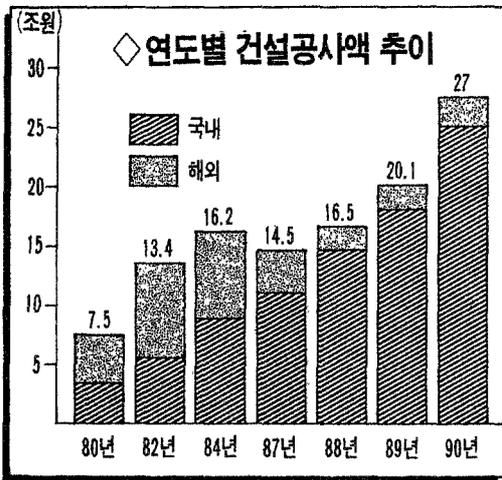
국내총생산의 27.5%를 차지한 2조9천9백50억 원의 건설업 이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5%나 증가했다.

이와 반해 해외건설공사액은 83년 이후 계속 줄어든다. 19.4%나 감소한 1조6천4백40억 원에 불과하다. 해외건설공사액이 전년 동기 대비 6.2%로 줄었다.

안양과다 강수량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체 건설업자들과 유망기업들이 차지한 13조4천1백3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해의건설이 강수를 봐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면허를 갖고있는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한양건설 13조4천1백3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5%나 증가했다.

# 건설受注증가 10년만에 최고



작년, 海外은 19% 줄어 1兆7천億

5개년도건설受注액이 2백만호 주택건설체제를추진과외국건설受注액이 20% 이상증가한데 비해 80년대 초반의 해외受注액이 10% 이상 줄었다. 89년 19% 줄어 1兆7천억 원에 불과한 반면 90년 27조 원에 달하는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0년대 초반에는 해외受注액이 10% 이상 줄었다. 89년 19% 줄어 1兆7천억 원에 불과한 반면 90년 27조 원에 달하는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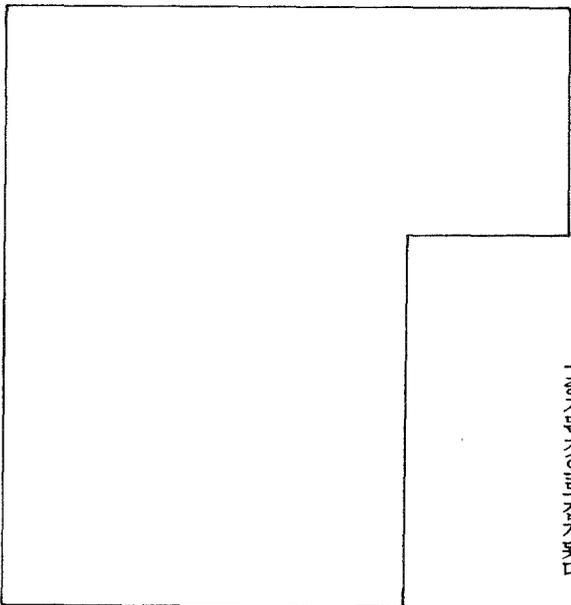
## 新都市·2백만호계획 힘입어

## 총 27兆 : 89년비 37% 늘어

통계청

조 6천9백40억원에 그쳐 89년보다 19.4% 감소했다. 이보다 총건설공사액 중 해외受注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 전반의 40~60%에서 88년 13.7%, 89년 10.4%에 이르렀다. 90년 6.2%로 한자민수도 떨어졌다. 국내공사액을 공사분야별로 보면 건축비중이 41.2%를 차지, 89년보다 비중이 2%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반면 토목이 16.8%로 88년보다 0.3%포인트 가를 늘려 지하구조물 건설비가 신도시건설에 주목할 기회가 주목해줄 것으로 보인다.

90년말 현재 건설관련사업체(면허수자)가 모두 1만7천8백58개로 월평균 99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5조1천8백80억원의 건설자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업체당 총공사액은 14억4천6백38만원으로 89년보다 30.7% 증가했고 총부가가치생산액(전건설업)은 18조4천1백40억원으로 업체당 7천3백46만원으로 89년보다 34.1%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 建設業 10년만에 최대호황

## 주택 200만戸 건설 영향

### 工事額 27조 5천억... 37% 증가

지난해 5대건설업체를  
주축해 2백만가구 건설  
계획이었던 10년만의  
최대의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건설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건설업  
체들의 총공사액은 27조 5  
천 2백 30억 원으로 89년의  
20조 1천 40억 원에 비해 36.  
9%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

이 가운데 국내공사액은  
25조 8천 2백 90억 원으로  
43.5%가 증가한 반면 해  
외공사는 1조 6천 9백 40  
억 원으로 19.4% 감소했  
다.

이같은 국내공사증가를  
은 지난 78년(86.1%) 이후,  
해외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액 증가율(10년)인  
(40.2%)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 83년부터 계속된 해  
외건설공사 감소로 전체공  
사업종 해외공사의 비중이  
지난 81년 60.5%를 정점  
으로 낮아지기 시작, 지난  
해엔 6.2%를 전야하가  
데 그쳤다.

국내공사를 工種별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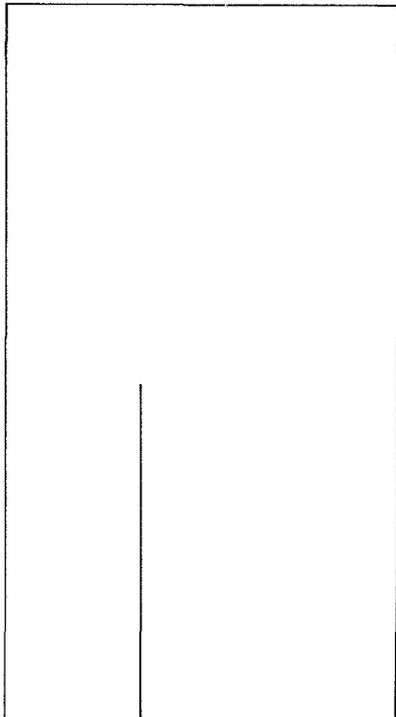
주택 10조 6천 5  
백억 원으로 48.6% 늘  
었고 △도로공사 4조 3천  
3백억 원(40.5% 증가) △  
전력공사 7조 3천 30억 원  
(44.6%) △전기 2조 3천  
9백 50억 원(27.2%) △통  
신 5천 7백 90억 원(16.3  
%) △기타공사 5천 7백 20  
억 원(78.8%)의 심적늘  
을 보였다.

공사비율은 국내건설이  
22조 6천 1백 70억 원, 해외  
건설이 2조 2천 4백 10억  
원 등으로 24조 8천 5백 80  
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8% 증가하는데 머물러 총  
공사액에서 총공사비율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1조 1  
조 5천 2백 50억 원에서  
2조 6천 6백 50억 원으로 74.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건설업체들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13조 4천 1백 30  
억 원으로 45.7%가 증가  
했다. 전체 경제성장률  
(9%)을 크게 웃돌았고 건  
설업체들이 보유한 투자  
건설 장비 등 유형고정자산  
도 5조 1천 2백 30억 원에  
달해 13.9%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말 현재 면허를 소  
지한 건설업체는 1만 7천  
8백 58개로 1년새 1천 5  
백 88개(9.8%) 증업원  
수는 89만 1천 1백 90명으  
로 8만 7천 7백 94명(10.  
9%)이 증가했다.

한편 국내건설공사의 사  
건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평균공사액이 14억  
4천 6백 38만원으로 전년  
건설업체가 전년 1백 72억  
2천 2백 85만원(48.8% 증  
가), 전년건설업체가 15억  
3천 6백 5만원(27.2%)  
의 실적증가를 보였다. 중  
1인당(1인당)치면 총합건설  
업체가 9천 6백 80만원, 전  
전부건설업체는 2천 2백  
70만원의 공사를 한 것으로  
분정됐다.  
지난해 건설활동을 면허  
별로 보면 종합건설업체수  
는 전체의 5.1%(9백 13  
개)에 불과하지만 총공사  
액의 60.9%, 부가가치창  
출액의 58.7%, 유형고정  
자산의 76.9%를 차지하  
고 있어 대형건설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뿐아  
니라 전문건설업체들이 영  
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살림살이 운퐁해지고 있다

都市근로자

## 統計廳, 올 1·4분기 가계收支 분석

올해 도시근로자들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있는 반면 소비생활이 점차 둔화돼 살림살이에 다소의 여유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추생활상 상승과 신선식품판매의 변화로 전체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져 열점係數가 다

시용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外食費의 지출도 많이 늘어난 것을 보이고 있다.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4분기 중 도시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백4만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나 증가했고 지난해 4·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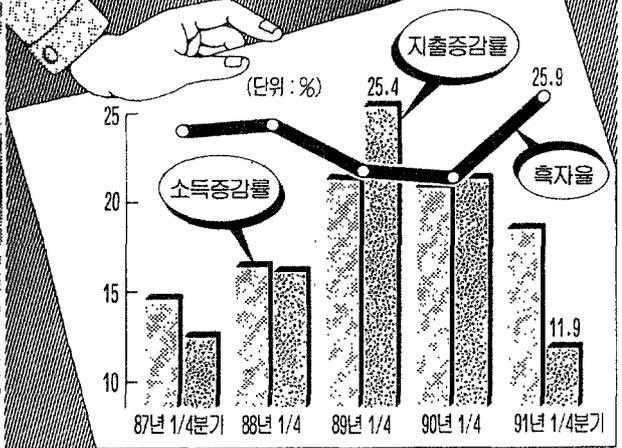
기에는 1백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월평균 지출은 79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의 증가에 머물렀다. 이 기간 중 소비자물가상승률 11%를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지출의 증가율을 보더라도 소득은 6.8%나 늘었으나 지출은 0.8%의 아주 낮은

## 家口當月收 1백4만원... 후자 25만원 物價압박 등 영향, 消費성향 점차 둔화



도시근로자들은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큰 오름세를 보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단위: %) 87년 1/4분기 88년 1/4 89년 1/4 90년 1/4 91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및 흑자증가 추이



증가에 그쳤다. 이같이 소득이 지출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올해 1·4분기 중 도시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25만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만9천원보다 45.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후자율도 지난해 1·4분기의 21.4%에서 올 1·4분기엔 25.9%로 4.5%포인트 높아져 도시근로자들의 가계收支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

## 지출면선 子女교육비가 20%증가... 外食費도 늘어나

지난 1·4분기 중 도시근로자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임금상승(연평균 20.4%)과 물가상승률(연평균 17.8%)이 증가한 때문으로 조사됐다. 기간 중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76만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나 증가했다. 가구원들의 근로소득도 연평균 상승률 17.8%가 높아져 연평균 30.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4분기 73.7%에서 올 1·4분기 77.7%로 높아졌다. 또 도시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25.9% 증가한 것은 임금상승(연평균 20.4%)과 물가상승률(연평균 17.8%)이 증가한 때문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14.5%에서 올해는 11.9%로 둔화돼 소비성향이 점차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지출에서는 식료품비가 1년새 17%나 늘어난 데 이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4분기의 28.8%에서 올 1·4분기엔 29.7%로 높아졌다. 이와따라 월점계수도 0.9포인트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의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연 점계수가 계속 낮아져 온 점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밖의 소비지출면에서 자녀들의 교육비가 20.4%나 올랐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신선식품의 변화도 17.8%나 올랐다. 또 소득상승률의 영향이 큰 교육비 지출은 17.4%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근로소득學歷別격차 4.6배

## 통계청 작년 가계조사 家口當 전체로는 2.6배

작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주 본인의 근로소득은 학력에 따라 최고 4.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가구의 취업 및 소득이 많아 가구당 전체 소득은 학력역에 따라 최고 2.6배 차이가 났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전체소득 및 가구주 근로소득의 격차는 가구주 학력이 전무대졸인 가구의 비수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7일 발표된 도시근로자가계연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작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4만3천3백원으로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 무학은 63만6천4백원, 국졸 76만4백원, 중졸 80만1천7백원, 고졸 88만4천5백원, 전문대졸 96만3천9백원, 대학졸 1백26만8천9백원, 대학원졸 1백62만9천1백원 등이다.

소득이 가장 많은 대학원졸 가구의 소득은 무학 가구의 2.6배, 국졸의 2.1배, 중졸의 2배이며, 고졸에 비해서는 1.8배, 전문대졸 1.7배, 대학의 비해서는 1.3배다.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를 기준으로 가구당 소득을 비교하면 전문대졸의 1.3배, 고졸의 1.4배, 중졸의 1.6배, 국졸의 1.7배로 각각 나타났다.

가구주 학력별 가구당 소득을 전체 평균치와 비교하면 무학(67%), 국졸(81%), 중졸(85%), 고졸(94%), 전문대졸(85%), 대학(88%), 대학원(94%) 순으로 평균보다 적고 전문대졸(1백2%)과 고졸(1백35%)이 1.2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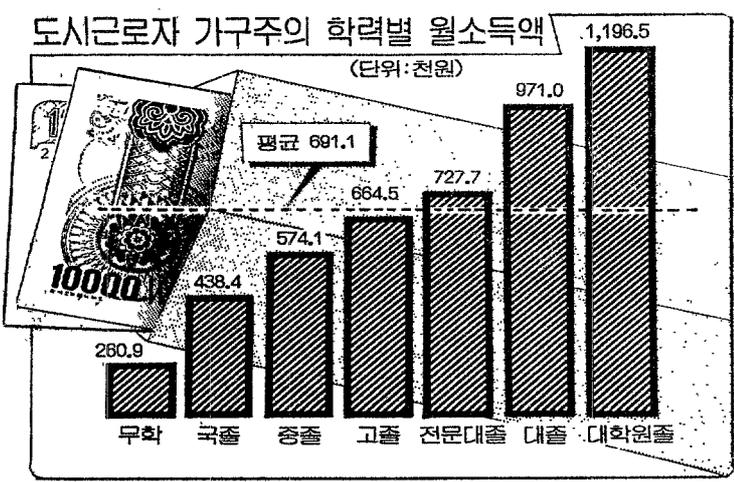
한편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주 본인의 월근로소득을 학력별대로 보면 무학 26만9백원, 국졸 43만8천4백원, 중졸 57만4천1백원, 고졸 66만4천5백원, 전문대졸 72만7천7백원, 대학 97만1천원, 대학원 1백19만6천5백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대학의 경우 근로소득은 전문대졸의 1.3배, 고졸의 1.5배, 중졸의 1.7배이며, 국졸에 비해서는 2.2배, 무학에 비해서는 3.7배인 셈이다. 또 학력이 대학원졸인 가구의 월근로소득은 무학의 4.6배, 중졸의 2.1배, 고졸의 1.8배, 전문대졸의 1.5배이며, 대학에 비해서는 1.2배다.

도시근로자 가구주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69만1천1백원으로 무학(38%), 국졸(63%), 중졸(83%), 고졸(96%), 전문대졸(83%), 대학(84%), 대학원(95%) 순으로 평균보다 적고 전문대졸(1백5%)과 대학(1백41%)이 1.2배 이상이다.

이밖에 도시근로자가구의 전체근로소득액이 가구의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 각각 평균치가 지하는 비수한 수준에 불과한 14.6%인데 비해 무학은 46.2%, 국졸 30.6%, 중졸 18.4%, 고졸 12.9%, 전문대졸 10.9%, 대학 11.4%, 대학원 7.9%에 불과하다.

이 조사는 전국 62개 시도의 2천8백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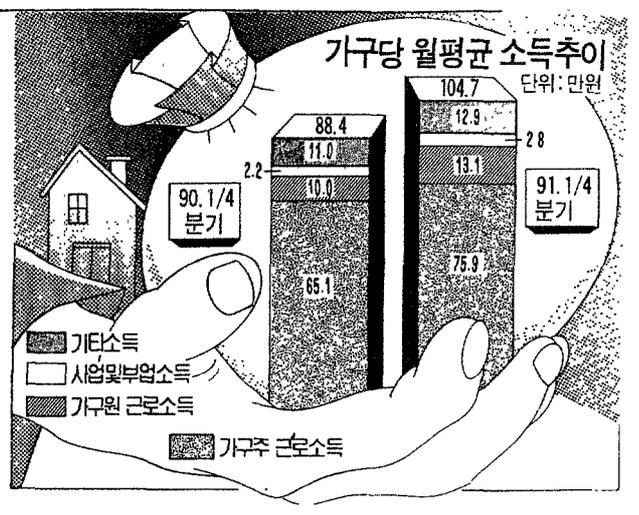
都市근로자家計소득 18%증가

월별百4만원... 25만원黑字

통계청 1·4분기조사  
 월평균 도시근로자가계당 월평균소득은 지난해 동기  
 3월중 도시근로자가계당 월평균소득은 지난해 동기  
 5월중 도시근로자가계당 월평균소득은 지난해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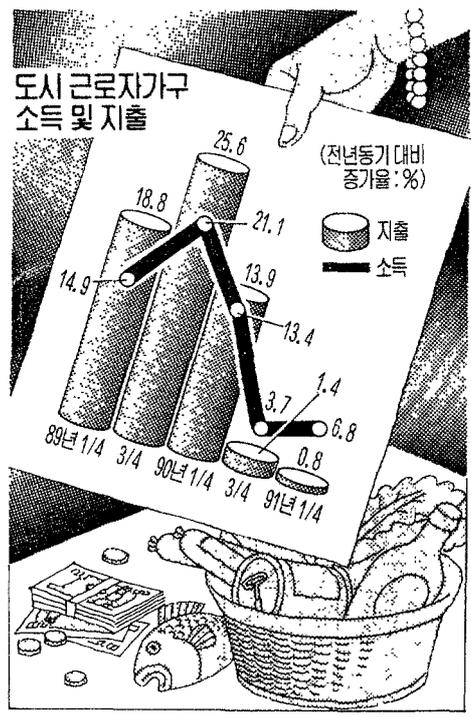
보다 16만3천원(18.5%)  
 이 늘어난 1백4만7천원  
 월평균 지출액은 8만5천  
 원(11.9%)이 증가한 79만  
 5천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월소득에서 세금공과  
 금을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  
 한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97  
 만4천4백원으로 지난해  
 동기(81만1천원)보다 20.  
 1%가 증가한 반면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72만2천원  
 으로 13.3% 증가에 그쳐  
 가구당 25만2천5백원(90  
 년 동기 17만9천원)의 가  
 계수지출자를 내 80년 이래  
 분 두자리수 이상이였다.



「과소비」한걸림 끼여있다

근로자家計지출증가율 10년만에 최저



도시근로자家口의 가계  
 지출증가율이 지난 1.4  
 분기중 10년만에 최저수  
 준을 기록하는 등 과소비  
 현상이 완연해 수그라를  
 고 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1·4분기 도시근  
 로자가계수지동향」에 따  
 르면 이 기간중 도시근로  
 자가구의 월평균소득(家  
 口主와 家口員의 합계소  
 득)은 1백4만7천7백  
 원으로 전년동기의 88만  
 4천2백원에 비해 18.  
 5%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됐다.  
 반면에 월평균 가계지  
 출은 79만5천2백원으로  
 작년동기의 71만3백원에  
 비해 11.9% 늘어나는데  
 그쳐 작년 2·4분기 이  
 래 4개分期중 소득증가  
 율을 밑돌았다.

이같은 명목증가율에  
 같은 기간중 소비지출가  
 상승률 11%를 감안하면  
 실질증가율은 소득이 6.  
 8% 지출은 0.8%가  
 된다.

이같은 실질지출증가율  
 은 지난81년 1·4분기에  
 마이너스 2.5% 81년  
 2·4분기에 마이너스  
 2.2%를 기록한 이후 10  
 년만의 최저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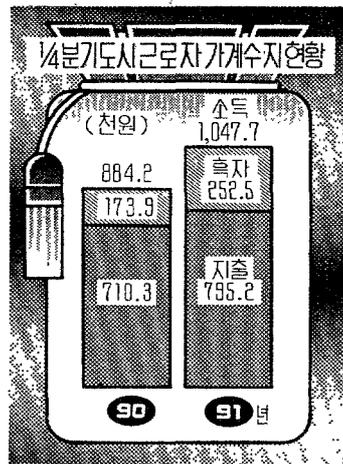
이처럼 지출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난 1  
 4분기중 도시근로자가구  
 의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  
 한 가계흑자액은 가구당  
 평균 25만2천5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45.2%  
 (7만8천6백원)나 늘었  
 다.

# 都市근로자 소비自制 확산

지출증가율, 소득증가율 계속하회

## 食料品費부담이 더 가중

통계청, 1분기 흑자율 26%



도시근로자들이 늘어난 소득의 절반정도를 쓰지 않고 저축하는 등 소비이율 절제하는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상품비율만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비스비율만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9년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계수지현황'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 도시근로자가계는 가구당 1백4만7천7백원을 벌어들여 79만5천2백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전과 비교해 소득은 18.5%가 늘었으나 지출은 11.9%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2·4분기 이후 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

을 밑도는 현상이 1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벌어서 쓰고 남은 흑자율이 지난해 1·4분기 21.4%에서 올 1·4분기 25.9%로 상승했다.

특히 소득(가처분소득) 증가분 중 지출(소비지출) 증가분의 비율인 한계소비성향주율을 보면 지난해 89년 85.9%에 달했으나 △90년 1·4분기 80.4% △90년 3·4분기 61.7%로 계속 낮아져 △올 1·4분기엔 51.9%로 80년대들

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년새 늘어난 가처분 소득 증가분 중 48.1%를 저축하거나 비소비지출로 쓴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수 년동안 근로자의 임금이 높은 폭으로 올라 소득수준 자체가 높아진 탓도 있지만 물가상승에 대비해 지출을 아낀 것이 주된 요인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4분기 중 소비동향은 보면 87년이후 4년 연속 前年 1·4분기 대비 1백%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던 개인교류비(자가용 구입수리비)가 올 1·4분기에 0.6% 늘어나는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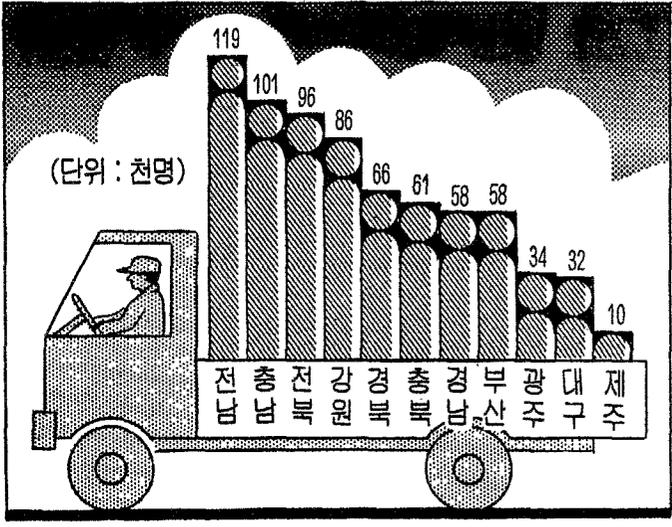
최고 청구율과 직물제품 구입비는 0.2% 감소할 기록했다.

그러나 신발류와 채소류 가격이 올라 식료품비 지출은 17% 증가, 영월계수(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중)는 28.8%에서 29.7%로 오히려 높아졌다. 영월계수가 전년동월기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작년 2·4분기부터 1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大都市광역화 현상 뚜렷

통계청 발표 작년 人口 이동 상황

작년중 市道別 수도권전입 인구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작년 중 국내 인구의 이동 상황은 수도권인구가 22% (1백만명) 증가한 반면, 이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70만 명이 감소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1백만명 70만여명 16.6%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88년 23.9%를 기록한 88년부터 22%로 다소 둔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88년 7.4%에서 85년 8%로 높아

면 도시에서 郡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이 88만명(88년 74만 5천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충청도의 충청대인구가 1만 7천여명에다 부평대인구가 1만 2천여명에다 부산대인구가 1만 1천여명에다, 평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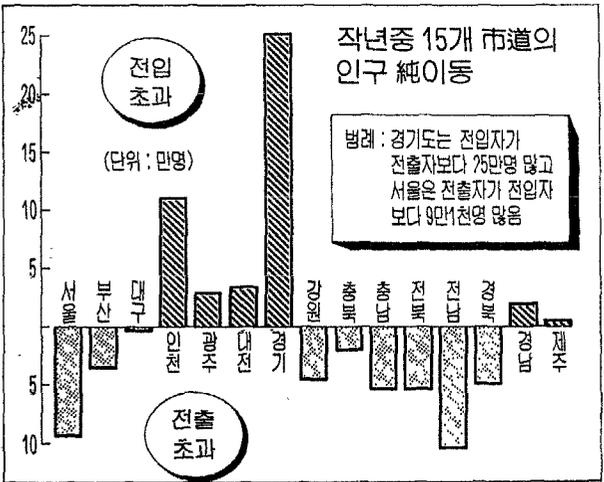
작년의 거주지를 옮긴 9백 45만 9천명 가운데 66%인 6백 22만 8천명이 市道안으로 34%인 3백 23만 1천명이 市道간계를 벗어나 비교적 멀리 이사했다.

## 작년 서울전입 전출률 가장 높

작년 88년 이후 7.5%수준이며 가장 높았다.

반면 1980년 88년(14%)의 경우 11.1%로 1980년 10.8% 대田 10.1% 서울(7.1%)의 상.

전라 15만 5천명(14.1%) 전출률(19.1%)인구가 가장 높고, 부산 11만 1천명(10.8%) 대田 10.1% 서울(7.1%)의 상.



### 작년중 수도권·非수도권인구이동



수도권이었던 197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36%에 달하는 2천5백만 명에 이르렀다. 반면 수도권 밖의 인구는 4천3백만 명에 불과하다.

90.7%(4만2천명) 濟州출신 이 1.6%(7천명)를 차지했다. 서울이 작년까지 전출증과 현출증 모두 가장 많은 市道간 이동을 기록한 69.4%의 濟州출신(서울 111만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1천명만 수도권에 정착했다.

# 湖南출신 36%로 이듬 이남극이全南京畿忠南

수도권 市道출신 36%로 이남극이全南京畿忠南 (90.1%) 北畿(80.6%) 忠南(80.1%) 京畿(80.0%) 京畿(80.0%)의 순이남극이 1위였다. 이남극이 1위인 市道는 서울(90.1%) 京畿(80.1%) 忠南(80.1%) 京畿(80.0%) 순이었다.

수도권 市道출신 36%로 이남극이全南京畿忠南 (90.1%) 北畿(80.6%) 忠南(80.1%) 京畿(80.0%) 京畿(80.0%)의 순이남극이 1위였다. 이남극이 1위인 市道는 서울(90.1%) 京畿(80.1%) 忠南(80.1%) 京畿(80.0%) 순이었다.

수도권 市道출신 36%로 이남극이全南京畿忠南 (90.1%) 北畿(80.6%) 忠南(80.1%) 京畿(80.0%) 京畿(80.0%)의 순이남극이 1위였다. 이남극이 1위인 市道는 서울(90.1%) 京畿(80.1%) 忠南(80.1%) 京畿(80.0%) 순이었다.

수도권 市道출신 36%로 이남극이全南京畿忠南 (90.1%) 北畿(80.6%) 忠南(80.1%) 京畿(80.0%) 京畿(80.0%)의 순이남극이 1위였다. 이남극이 1위인 市道는 서울(90.1%) 京畿(80.1%) 忠南(80.1%) 京畿(80.0%) 순이었다.

# 100명중 22명꼴로 인동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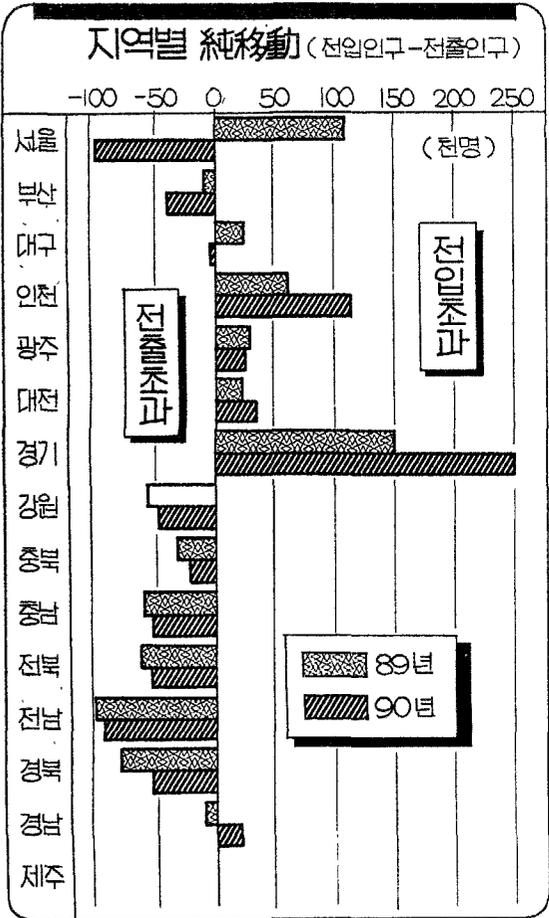
통계청 작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首都圈의 인구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주민들의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으로의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주민들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동을 늘리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동을 늘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주민들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동을 늘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주민들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동을 늘리고 있다.

## 서울로 전입 湖南·忠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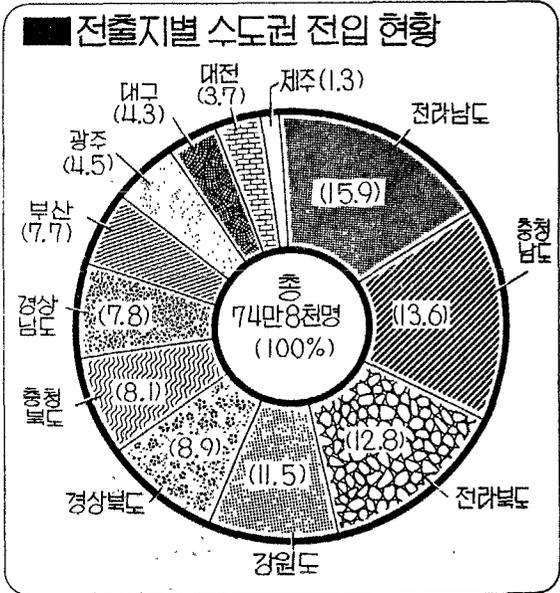
湖南·忠南北·경북·강원 전  
京仁지역 계속늘어 수도권권



이외에 다른 시도별 市·道간의 인구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동을 68.4% 수도권 내 이동 31.6% 수도권 전입 23.1% 수도권 전출 14.6%의 이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동을 늘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주민들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동을 늘리고 있다.

도 3백23만1천명이던 1백평당 인구는 7.5% 증가했다. 총인구수는 70년대 초반인 5백40만명에서 76~80년 평균 7백60만명 ▲81~85년 평



전 80만 명 ▲8~9월 전입자의 80% 수도권 전입이며, 계속 증가 추세로 수도권 전입 인구는 10월말에 70만 명을 넘어 80% 이상 수도권 전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人順

## 출이 많아

## 집중 여전

수도권 市·道별 인구이동 추세를 보면 수도권 전입자의 80%가 수도권 전입이며, 계속 증가 추세로 수도권 전입 인구는 10월말에 70만 명을 넘어 80% 이상 수도권 전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市·道별 인구이동 추세를 보면 수도권 전입자의 80%가 수도권 전입이며, 계속 증가 추세로 수도권 전입 인구는 10월말에 70만 명을 넘어 80% 이상 수도권 전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90년 市·道간 인구이동

	轉入	率 (%)	轉出	率 (%)	純移動	率 (%)
計	3,231,128	7.5	3,231,128	7.5	0	0.0
서울	754,071	7.1	845,063	7.9	-90,992	-0.8
釜山	183,977	4.8	219,837	5.8	-35,850	-1.0
大邱	139,089	6.3	140,566	6.4	-1,477	-0.1
仁川	249,092	14.0	132,407	7.5	116,685	6.5
光州	121,111	10.8	92,634	8.3	28,477	2.5
大田	102,219	10.1	68,756	6.8	33,463	3.3
京畿	767,411	13.2	516,900	8.9	250,511	4.3
江原	81,765	5.1	129,402	8.0	-47,637	-2.9
忠北	84,646	6.2	102,225	7.5	-17,579	-1.3
忠南	110,568	5.7	164,314	8.5	-53,746	-2.8
全北	87,513	4.2	140,853	6.7	-53,340	-2.5
全南	139,766	5.6	239,836	9.7	-100,070	-4.1
慶北	169,187	5.8	219,140	7.5	-49,953	-1.7
慶南	218,222	5.9	199,832	5.4	18,390	0.5
濟州	22,491	4.6	19,363	4.0	3,128	0.6

수도권 市·道별 인구이동 추세를 보면 수도권 전입자의 80%가 수도권 전입이며, 계속 증가 추세로 수도권 전입 인구는 10월말에 70만 명을 넘어 80% 이상 수도권 전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市·道별 인구이동 추세를 보면 수도권 전입자의 80%가 수도권 전입이며, 계속 증가 추세로 수도권 전입 인구는 10월말에 70만 명을 넘어 80% 이상 수도권 전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市·道별 인구이동 추세를 보면 수도권 전입자의 80%가 수도권 전입이며, 계속 증가 추세로 수도권 전입 인구는 10월말에 70만 명을 넘어 80% 이상 수도권 전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市·道별 인구이동 추세를 보면 수도권 전입자의 80%가 수도권 전입이며, 계속 증가 추세로 수도권 전입 인구는 10월말에 70만 명을 넘어 80% 이상 수도권 전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도시圏 광역화」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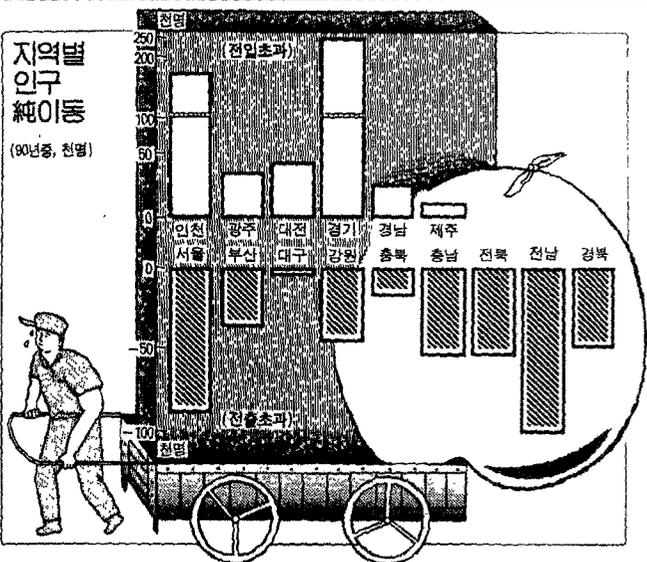
## 통계청 작년 人口 이동 분석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90년 인구이동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대도시에서의 집락이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비롯하여 부산에서 경남·경북지역으로의 이동,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는 인구밀집도 낮은 지방으로의 대도시권 밖의 광역화 현상이다.

80년대 초반 8백86만명, 80년대 후반 9백34만명으로 전체 인구가 증가 및 사회발전과 함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총인구 대비 인구를 늘리면 70년대 초반 16.6

8천명의 출생고 부산(1만1천명) 대구(1만3천명)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6만5천명) 인천(4만7천명) 경남(1만5천명) 울산(1만2천명)이 크게 증가했다.



## 집값뛰자 위성도시로 수도권전입 湖南人이

특히 서울의 집값이 88년의 1억 4천만원에서 90년 2억 5천만원으로 뛰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었다. 특히 수도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88년 1만 4천명에서 90년 2만 8천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전입 인구는 88년 1만 4천명, 89년 1만 8천명, 90년 2만 8천명이다. 수도권 전입 인구는 88년 1만 4천명, 89년 1만 8천명, 90년 2만 8천명이다.

이외에 서울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비롯하여 부산에서 경남·경북지역으로의 이동,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는 인구밀집도 낮은 지방으로의 대도시권 밖의 광역화 현상이다.

수도권 전입 인구는 88년 1만 4천명, 89년 1만 8천명, 90년 2만 8천명이다. 수도권 전입 인구는 88년 1만 4천명, 89년 1만 8천명, 90년 2만 8천명이다.

수도권 전입 인구는 88년 1만 4천명, 89년 1만 8천명, 90년 2만 8천명이다. 수도권 전입 인구는 88년 1만 4천명, 89년 1만 8천명, 90년 2만 8천명이다.

수도권 전입 인구는 88년 1만 4천명, 89년 1만 8천명, 90년 2만 8천명이다. 수도권 전입 인구는 88년 1만 4천명, 89년 1만 8천명, 90년 2만 8천명이다.

● 91년 가장 발전된 산업이 경  
기(9.2%)에 이어 (10.0%)로  
전(10.1%)에 이어 순위였다.  
서울·부산·대구 등의 산업특  
성화지역의 산업특성화지  
를 보면 산업특성화 지역은 전  
년·경기지역의 전업률만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체인구 중 전출자수의 비  
율인 전출률이 수도권 서울  
이 82%의 7.1%에서 7.  
0%로 높아진데 비해 부산·대  
구 등 대도시권 증가세를 나  
타면 반면 인천·경기지역은

# 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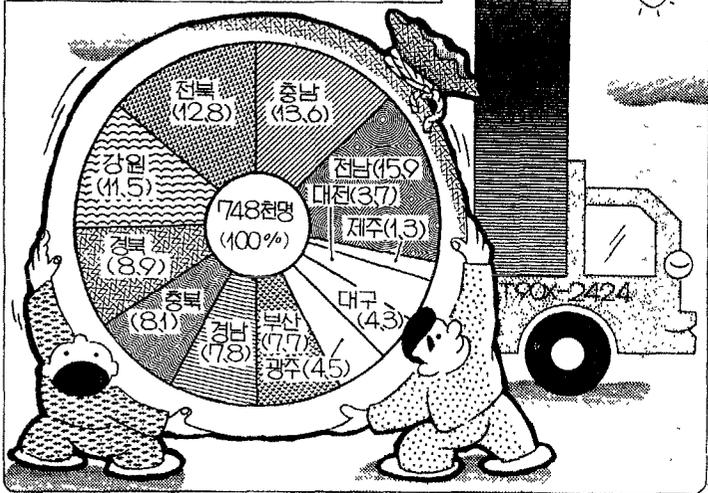
## 33%차지

↑↑↑↑↑

전업률과 전출률에 대한 전  
업률(전업률)은 22.1%로 전  
년(21.5%)에 비해 상승했다.  
전업률(전업률)은 21.1%로  
전년(20.5%)에 비해 상승했다.  
전업률(전업률)은 15%로 전  
년(14.5%)에 비해 상승했다.  
전업률(전업률)은 8%로 전  
년(7.5%)에 비해 상승했다.  
전업률(전업률)은 8.9%로 전  
년(8.4%)에 비해 상승했다.

서울·  
부산·대  
구 지역  
전업률  
상승률  
↑↑↑↑↑

수도권 전입자의 前거주지 분포



도 전(10.1%)에 이어 (10.0%)로  
전(10.1%)에 이어 순위였다.  
서울·부산·대구 등의 산업특  
성화지역의 산업특성화지  
를 보면 산업특성화 지역은 전  
년·경기지역의 전업률만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전입자의 전출률과 전  
업률(전업률)은 22.1%로 전  
년(21.5%)에 비해 상승했다.  
전업률(전업률)은 21.1%로  
전년(20.5%)에 비해 상승했다.  
전업률(전업률)은 15%로 전  
년(14.5%)에 비해 상승했다.  
전업률(전업률)은 8%로 전  
년(7.5%)에 비해 상승했다.  
전업률(전업률)은 8.9%로 전  
년(8.4%)에 비해 상승했다.

전입·전출 집계지역  
(90 표본 지역 평균)

시·군·구	전입	전출	순이동
인천	219,931	149,439	70,492
경기	118,389	67,675	50,714
전남	190,224	140,521	49,703
전북	140,061	100,986	39,075
충청	205,287	163,450	38,837
전주	14,875	29,677	-14,802
대구	10,111	23,433	-13,322
광주	69,085	82,064	-12,979
부산	84,916	97,148	-12,232
경주	61,164	72,523	-11,359

특정영역의 산업특성의 전업  
률과 전출률에 대한 조사  
수나 전업률의 증가에 따라  
전업률(전업률)은 22.1%로 전  
년(21.5%)에 비해 상승했다.  
전업률(전업률)은 21.1%로  
전년(20.5%)에 비해 상승했다.  
전업률(전업률)은 15%로 전  
년(14.5%)에 비해 상승했다.

수도권 전입자의 전출률과 전  
업률(전업률)은 22.1%로 전  
년(21.5%)에 비해 상승했다.  
전업률(전업률)은 21.1%로  
전년(20.5%)에 비해 상승했다.  
전업률(전업률)은 15%로 전  
년(14.5%)에 비해 상승했다.  
전업률(전업률)은 8%로 전  
년(7.5%)에 비해 상승했다.  
전업률(전업률)은 8.9%로 전  
년(8.4%)에 비해 상승했다.

# 집값 엄청나 大都市이탈 현상

연도별 인구순이동 추이

		(단위: 명)					
		1980	1986	1987	1988	1989	1990
서울	서울	164,904	-5,823	84,399	188,556	109,644	-90,992
부산	부산	51,134	31,965	31,129	23,225	-6,658	-35,860
대구	대구	-	20,273	20,683	21,072	22,640	-1,477
광주	광주	-	30,979	45,184	46,964	66,414	116,685
대전	대전	-	15,848	7,381	22,890	29,175	28,477
경기	경기	-	-	-	-	26,179	33,463
충청	충청	137,448	256,297	191,452	78,842	151,184	250,511
전라	전라	-24,510	-33,499	-45,132	-52,482	-57,933	-47,637
경남	경남	-38,585	-28,581	-34,712	-33,900	-29,026	-17,579
전북	전북	-38,722	-33,187	-42,602	-41,199	-60,627	-53,746
충남	충남	-71,224	-59,315	-65,908	-59,637	-63,258	-53,340
전남	전남	-82,773	-76,907	-103,978	-108,839	-104,178	-100,070
전남	전남	-42,492	-65,546	-64,620	-72,206	-72,807	-49,953
전남	전남	-3,968	-40,145	-20,418	-11,556	-10,518	18,390
전남	전남	-1,348	-3,565	-2,858	-1,730	-231	3,128

\*註: 순이동인구는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숫자.

## 통계청, 작년人口 이동조사

# 100명중 22명꼴 이사... 수도권 전입數 全南

전국 전입인구의 11.8%를 차지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여 116만 5,965명, 전입률 22.1%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입률의 증가에 따라 수도권 전출률도 19.3%로 증가하여 수도권 순이동인구는 27만 2,934명(전입인구 116만 5,965명 - 전출인구 89만 3,031명)이 됐다.

수도권 전입률의 증가에 따라 수도권 전출률도 19.3%로 증가하여 수도권 순이동인구는 27만 2,934명(전입인구 116만 5,965명 - 전출인구 89만 3,031명)이 됐다.

수도권 전입률의 증가에 따라 수도권 전출률도 19.3%로 증가하여 수도권 순이동인구는 27만 2,934명(전입인구 116만 5,965명 - 전출인구 89만 3,031명)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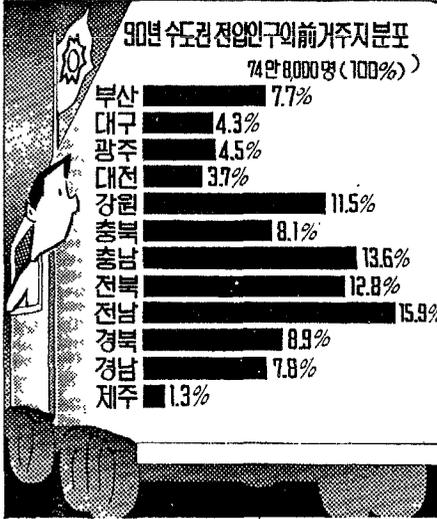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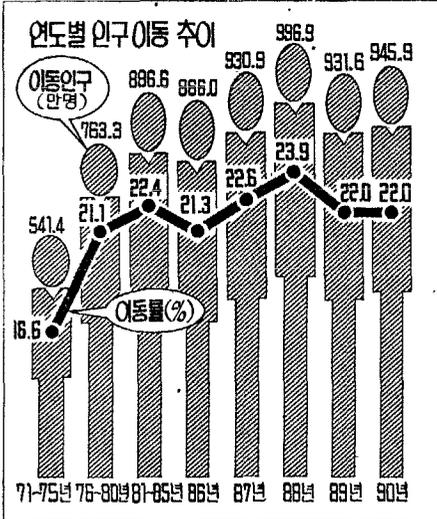
수도권 전입률의 증가에 따라 수도권 전출률도 19.3%로 증가하여 수도권 순이동인구는 27만 2,934명(전입인구 116만 5,965명 - 전출인구 89만 3,031명)이 됐다.

수도권 전입률의 증가에 따라 수도권 전출률도 19.3%로 증가하여 수도권 순이동인구는 27만 2,934명(전입인구 116만 5,965명 - 전출인구 89만 3,031명)이 됐다.

수도권 전입률의 증가에 따라 수도권 전출률도 19.3%로 증가하여 수도권 순이동인구는 27만 2,934명(전입인구 116만 5,965명 - 전출인구 89만 3,031명)이 됐다.

수도권 전입률의 증가에 따라 수도권 전출률도 19.3%로 증가하여 수도권 순이동인구는 27만 2,934명(전입인구 116만 5,965명 - 전출인구 89만 3,031명)이 됐다.

수도권 전입률의 증가에 따라 수도권 전출률도 19.3%로 증가하여 수도권 순이동인구는 27만 2,934명(전입인구 116만 5,965명 - 전출인구 89만 3,031명)이 됐다.



# 郊外로 밀려

# 忠南·全北順

수도권인구의 이동이 빨라졌지만 광주가 집합지로써 매력적인데 비해 영인(永仁)이 수도권인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영인(永仁)은 25만명의 인구를 69.7%의 증가를 보였다. 영인(永仁)의 인구는 1985년 15만 2천 명에서 1990년 25만 7천 명으로 늘었다. 영인(永仁)의 인구는 1985년 15만 2천 명에서 1990년 25만 7천 명으로 늘었다. 영인(永仁)의 인구는 1985년 15만 2천 명에서 1990년 25만 7천 명으로 늘었다.

수도권인구의 이동이 빨라졌지만 광주가 집합지로써 매력적인데 비해 영인(永仁)이 수도권인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영인(永仁)은 25만명의 인구를 69.7%의 증가를 보였다. 영인(永仁)의 인구는 1985년 15만 2천 명에서 1990년 25만 7천 명으로 늘었다. 영인(永仁)의 인구는 1985년 15만 2천 명에서 1990년 25만 7천 명으로 늘었다.

< 閔國泓 기자 >



이 가운데 市道단위의 주  
 소지를 받은 사람(중이동  
 자)의 34.2%인 3백23만1  
 천명이며, 이중 69.4%인  
 2백24만9천명의 수도권  
 내에서 옮겨왔거나 수도권  
 이북의 전입이나 전출인 것  
 이므로 밝혀졌다.

수도권의 전입·수도권내  
 에서 서울전입자는 32만6  
 천명인데, 반해 57만7천명  
 이仁川·京畿도인근지역으  
 로 전출, 서울에서 수도권  
 이북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89  
 만보다 9만1천명이 많아  
 졌다.

또 수도권전입자는 74만  
 8천명인데, 이들의 전거주  
 지별 분포를 보면 全南 15.  
 9% 全北 12.8% 光州 4.  
 5%로 33.2%가 湖南지  
 역, 慶北 8.9%, 慶南 7.  
 8%, 釜山 7.7%, 大邱 4.  
 3%로 湖南지역이 28.7

가운데수도 湖南지역이 36  
 % 15만4천명(보가장 많  
 았고, 단위의 慶南 29.5  
 % 15만3천명, 23.3%의 순서  
 를 보였다.

# 집값폭등 여파... '脫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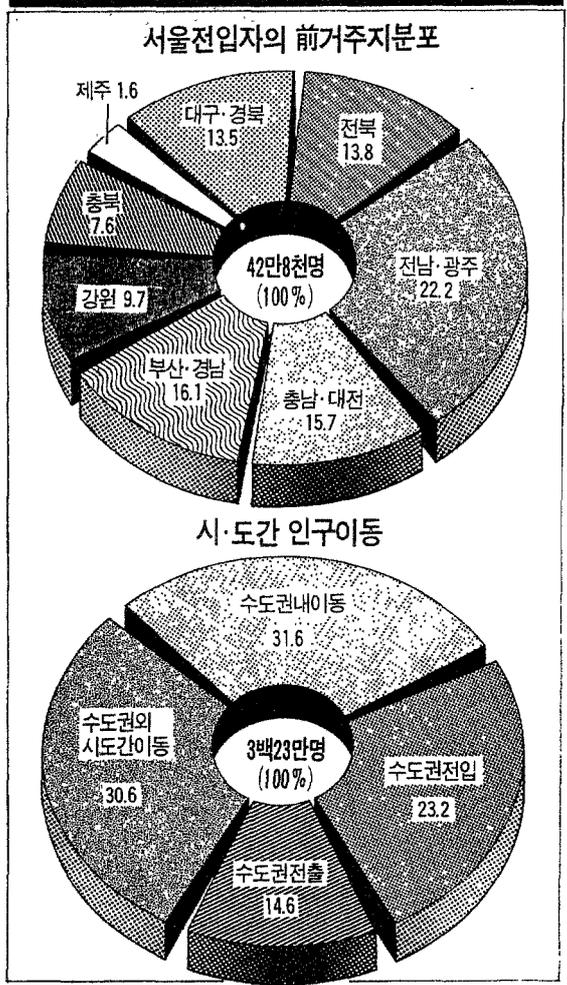
## 서울·釜山·大邱 인구감소 현상

### 전출 많기론 全南·京畿·忠南·江原순

## 京仁비롯 수도권 집중은 여전

그러나 총인구 대비 이동  
 률은 70년대초 16.6%에서  
 88년 23.9%로 계속 상승  
 해왔으나 이후 89년 22%  
 1백33, 市道간 이동에  
 선 1백7.8로 비교적 장  
 거리의동에 남자들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이 2백72만6천명(5  
 88년보다 소폭) 3만2천  
 명(출)을 잃었고 釜山(76만  
 2천명) 大邱(52만6천명)  
 수도권 이동을 한 경기도가 22  
 1%로 가장 높아, 인구가  
 동이 가장 빈번했으며 다음  
 이仁川(21.5%), 光州(19.  
 2%의 순서를 보였다.



수도권인구이동률의  
 경우 지난해仁川과 경기지  
 역에서 32만6천명의 전입  
 하고 57만7천명이 이탈지  
 역으로 빠져나가 전체전  
 이로 25만1천명의 수도권  
 이북의 전출증가를 나타냈다.  
 수도권외 이동과 수도권  
 과다한 지역이전증가 현상  
 합한 인구이동은 총 2백24  
 만2천명인데, 전체 수도권  
 이동자수 3백23만1천명  
 의 69.4%를 차지, 수도권  
 이동을 한 수도권외 지역의  
 전출증가 현상도 반영했다.

【李炳浣기자】

## 통계청 작년 인구가 동 집계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값 과잉 상승으로 서울주택임대가 팽팽한데 따라 서울을 떠나 인근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크게 늘고 있다.

또 서울뿐만 아니라 춘천·대邱 등에서도 市界를 벗어난 인구가 전년보다 전출하는 사람이 전연차보다 많이 대도시살이가 갈수록 어렵다고 오히려 수도권 지역에 나가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주민등록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90년 인구의 동 집계를 보면 지난해 市界內의 경제를 넘어 주소를 옮긴 사람이 총 9백45만9천명으로 1백명 가운데 22명꼴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늘어나

주요 지역별 인구이동률  
 % 忠南 13.6% 忠北 8.1% 大田 3.7% 仁川 25.4% 京畿 13.2% 光州 10.8% 大田 10.1% 全南 9.7% 全北 8.5% 江原 8.3% 慶尙 8.9% 釜山 7.1% 大邱 7.9% 蔚山 5.8% 大邱 6.4% 大邱 7.5% 大邱 8.3% 大邱 6.8% 大邱 8.9% 大邱 8.0% 大邱 7.5% 大邱 8.5% 大邱 6.7% 大邱 9.7% 大邱 7.5% 大邱 5.4% 大邱 4.0%

한편 지난해 지역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14%)이고 京畿(13.2%), 光州(10.8%), 大田(10.1%), 서울(7.1%)의 순을 보였다.

또 전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全南(9.7%)였고 京畿(8.9%), 忠南(8.5%), 光州(8.3%), 江原(8.3%)의 순을 나타냈다.

90년 인구의 동 집계의 부수 결과 보면 市界內의 인구는 70년대 초 5백40만명에서 70년대 후반 7백80만명, 80년대 초반 8백90만명, 후반 9백30만명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90년 市道別 인구이동 (단위: 천명, %)

구분	전입		전출		순증감	
	인구	率	인구	率	인구	率
계	3,231	7.5	3,231	7.5	0	0.0
서울	754	7.1	845	7.9	▽91	▽0.8
부산	184	4.8	220	5.8	▽36	▽1.0
대구	139	6.3	141	6.4	▽1.5	▽0.1
인천	249	14.0	132	7.5	117	6.5
광주	121	10.8	93	8.3	28	2.5
대전	102	10.1	69	6.8	33	3.3
경기	767	13.2	517	8.9	251	4.3
원주	82	5.1	129	8.0	▽48	▽2.9
북부	85	6.2	102	7.5	▽18	▽1.3
충남	111	5.7	164	8.5	▽54	▽2.8
충북	88	4.2	141	6.7	▽53	▽2.5
전남	140	5.6	240	9.7	▽100	▽4.1
전북	169	5.8	219	7.5	▽50	▽1.7
경남	218	5.9	200	5.4	18	0.5
제주	22	4.6	19	4.0	3	0.6

90년 22%로 최근에는 다소 정체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인구의 동 집계의 성비(성자)는 1백명당 남자가 106명, 여자가 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제주 등도 전년 대비 각각 2만9천명, 1만3천명의 증감을 보였다.

반면 京畿(1백11만명), 大田(70만1천명), 仁川(56만8천명)은 전년보다 각각 6만6천, 16만3천명 씩이 늘고 대도시 주변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전연차 대비 서울의 인구는 90년 7천8백91명, 89년 대비 12만2천명이 줄고 山·江原·忠南 등에서도 감소추세를 보였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제주 등도 전년 대비 각각 2만9천명, 1만3천명의 증감을 보였다. 이 가운데 수도권지역을 빼 光州·大田 등 市界外로 향하는 인구가 88만7천9백45명으로 전년 대비 1만8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제주 등도 전년 대비 각각 2만9천명, 1만3천명의 증감을 보였다. 이 가운데 수도권지역을 빼 光州·大田 등 市界外로 향하는 인구가 88만7천9백45명으로 전년 대비 1만8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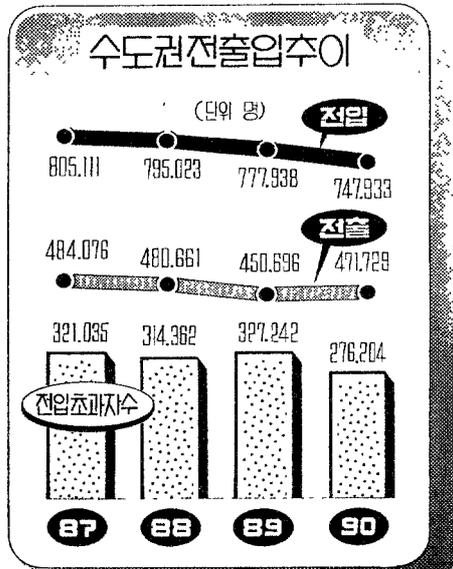
6천명(10%)를 넘어섰으나 서울 지역전입자는 46만6천명에서 42만8천명(10%)로 감소했다. 이로인해 전체 수도권 전입자중 서울전입자비율이 86년 62.8%에서 88년 61.5%로 90년 57.2%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서울은 86년에 이어 두번째로 전출초과를 내기도 했다.

수도권 전입자의 출신거주지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서울이 11만8천5백85명(15.9%)으로 가장 많았고 忠南 10만1천3백20명(13.6%), 京北 9만5천7백54명(12.8%), 江原 8만6천23명(11.5%), 慶北 6만6천3백91명(8.9%), 忠北 6만9백23명(8.1%), 慶南 5만7천9백83명(7.8%), 釜山 5만7천5백63명(7.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光州와 全南北을 합치면 湖南지역이 33.2%, 釜山 大邱 慶南北의 嶺南지역이 28.6%를 차지한

# 100명중 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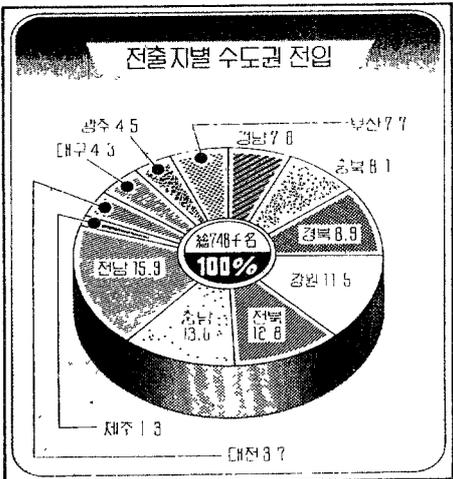
셀이다. 서울은 全南지역에 서의 전입자가 17%, 仁川과 京畿는 忠南지역 전입자가 각각 17.1%와 15.3%로 가장 많았다.

## 서울서 京畿·仁川 전출 57만7천명



서 89년 48만7천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엔 33만9천명으로 상당폭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농촌지역에 노령인구비율이 높아져 도시로 나갈수 있는 인구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서울과 釜山 大邱 등 대도시에 있는 공장

들이 京畿 慶南北 등 인접한 郡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별로는 보면 市지역의 전입초과자중 여자수를 100으로 할때 86년의 경우 남성은 88.2였으나 지난해엔 99로 높아져 상대적으로 남자



들의 도시전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비교> 서울(9만9백92명) 釜山(3만5천8백60명) 大邱(1천4백77명) 등 대도시와 京畿 慶南 濟州를 제외한 道지역(1만7천5백79) 10만70명이 전출초과를

9만9백92명(13.5%)로 나타났다. <鄭萬壽기자>

90년 人口이동統計 분석내용

1년동안 서울 仁川 京畿의 人口에서 수도권(仁川 京畿)은 74만 7천9백33명이 이사를 오고 47만1천7백29명이 빠져나가 새로 27만6천2백4명이 늘어났다. 89년과 비교해 전 출자는 높고 전입자는 줄어 순증가가 두 배가 되었다. 89년의 32만 7천2백42명에서 5만1천 38명(15.6%)이 감소, 수도권 전입(출)수가 뛰었고 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 중 주로 仁川 京畿의 人口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이 큰 요인이다. 仁川 京畿의 人口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줄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仁川 지역으로 전입한 인구가 지난 89년 6만7천명에서 90년엔 7만4천명, 京畿 지역은 24만5천명에서 24만

이사... 세계最高

郡에서市전입 3년째 감소

수도권내에서만 보면 서울에서 京畿와 仁川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89년 48만6천2백71명에서 57만7천4백22명으로 늘어났다.

도시지역에서 특히 仁川 京畿에서 市 지역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88년 1백36만2천명에서 89년 1백23만2천명, 90년 1백15만9천명으로 3년 연속 감소를 보였다. 반면 市에서 郡으로 내리는 인구는 88년 97만4천명에서 89년 74만5천명으로 줄었다. 90년엔 82만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

이에 따라 市 지역의 전입초과 규모는 88년 38만8천명에

<90년 지역별 인구이동> (시도 경계 기준·명)

	전입	율(%)	전출	율(%)	순이동	율(%)
計	3,231,128	7.53	3,231,128	7.53	0	0.0
서울	754,071	7.1	845,063	7.9	-90,992	-0.8
仁川	183,977	4.8	219,837	5.8	-35,850	-1.0
京畿	139,089	6.3	140,566	6.4	-1,477	-0.1
충청	249,092	14.0	132,407	7.5	116,685	6.5
전라	121,111	10.8	92,634	8.3	28,477	2.5
호남	102,219	10.1	68,756	6.8	33,463	3.3
대구	767,411	13.2	516,900	8.9	250,511	4.3
경북	81,765	5.1	129,402	8.0	-47,637	-2.9
경남	84,646	6.2	102,225	7.5	-17,579	-1.3
충북	110,568	5.7	164,314	8.5	-53,746	-2.8
충남	87,513	4.2	140,853	6.7	-53,340	-2.5
전북	139,766	5.6	239,836	9.7	-100,070	-4.1
전남	169,187	5.8	219,140	7.5	-49,953	-1.7
제주	218,222	5.9	199,832	5.4	18,390	0.5
제주	22,491	4.6	19,363	4.0	3,128	0.6

(註) 비율은 7월1일 주민등록인구대비

<都農間人口이동> (단위:천명)

	1986	1987	1988	1989	1990
市 지역으로 전입	1,192	1,312	1,362	1,232	1,159
郡 지역으로 전입	907	976	974	745	820
市 지역 전입 초과	285	336	388	487	339

됐다. 서울은 지난 86년(5천8백23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전출초과였고 江原 忠 南 北 全 南 北 慶 北 忠 南 北 이후 출발 전입자보다 전출이 많은 상태. 반면에 仁川(11만6천6백85명) 京畿(25만5백11명) 光州(2만8천4백77명) 大田(3만3천4백63명) 등 수도권 전입초과를 지속하고 있다. 그 동안 계속 전출초과자가 감소해 慶 南(1만8천3백90명)과 濟 州(3천1백28명)는 전입초과로 반전됐다.

◇국제비교 仁川 지역 전체인구이동률 22% 과 市道간 이동률 7.5% 과 일부 저개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 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 이동을 市道경계 내 이동률(한 을 보면 日本이 5.3%) 89



社 說

人口 「脱서울현상」에 문제있다

17일 통계청의 발표한「90년 인구의 동진현상」은 정부의 대도시인구집중책이 아무런 실용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大都市圈域의 광역화라는 새로운 문제마저 파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釜山·大邱 등 대도시의 인구가 주변 도시로 옮겨간 적은 오히려 보아선 바람직한 현상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는 거주지만 옮긴 것일뿐 생활근거지는 여전히 대도시안에 두고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교통부족 등 대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심각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몇몇 대도시 특히 서울을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과 그에 따른 도시문제의 심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강렬히 추진해 나가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자칫 중앙의 대도시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자원배분을 이에 집중시키기가 쉽지만 이는 인구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인구집중으로 교통·교육·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이를 개선시키는데 주력하고 보면 그것이 인구집중의 요인이 되어 부담을 해가 갈수록 커지게 될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도시의 다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나 적어도 그것이 새로운 인구집중의 요인이 되지 않게 하느라 노력하는 정책수립과 자원배분의 절충에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기본적인 해결책은 전류의 일정한 圈域別로 인구를 분산하는 것이다. 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인 이상 일정한 圈域에 따라 모든 면에서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또 기본적인 작용기능을 가진 중소도시를 배치해서 거주지를 멀리 옮기지 않거나 주민들이 일차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를 갖추게 하느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다. 산골마을의 변화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그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나 그것이 주로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자녀교육 문제라고 보여진다.

地方自治制의 실시로 정치의 분권화는 시작되었다.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산정된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교육을 포함한 문화의 분권화는 지지부진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사보교육열과 생활의 질을 추

구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문화의 분권화가 추진되지 않고서는 다른 부분의 분권화가 수조부의 추진된다 해도 인구의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억제는 하루이틀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부연보다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최근 정부스스로의 의지가 흔들리고 시책의 내용도 앞뒤가 안맞고 있는 「경인」 신도시 건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자기들을 갖추겠다는 당초의 구상과는 달리 주거기능의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억제의 해를 키는 오히려 그것을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인구의 분산이 가능한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용도 앞뒤가 안맞고 있는 「경인」 신도시 건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자기들을 갖추겠다는 당초의 구상과는 달리 주거기능의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억제의 해를 키는 오히려 그것을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인구의 분산이 가능한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人口分散」면역될때다

—同篇의 삼 부장의 政策建議의 要旨—

社說

71년 통계청의 발표한 「90년 인구의 분포」가 90년 인구의 23%나 수도권 지역의 과잉 집중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총 인구의 23%에 불과한데 인구의 2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총 인구의 23%에 불과한데 인구의 2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인구는 총 인구의 23%에 불과한데 인구의 2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총 인구의 23%에 불과한데 인구의 2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구분자의 과잉 집중 현상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시대 가 시작되면 지방의 과잉 집중 현상 과 인구의 과잉 집중 현상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90년 인구의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충청·대도시의 인구가 다소 감소하고 있다. 경기·충청 등 대도시 주변 인구가 분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인구의 분포 현상은 정부의 대도시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의 인구가 분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인구의 분포 현상은 정부의 대도시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세우지 않더라도 인구의 과잉 집중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지방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권 개발 정책을 잘 지켜온 반면 과잉 집중 현상은 자원의 배분을 기준으로 했기보다 정책 실행 자체의 자원의 따라 적지 않은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자원의 할당 문제, 투자 우선순위의 등 문제로 면면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과잉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는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총괄한 것이 이들의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된다면 정부는 막대한 재정투자와 지역분담금의 투입을 통하여 지방의 자립기반을 구축 지원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투자와 함께 임기응변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뒤따라야 하며 국민들도 정부가 해 주기를 바라는 자세를 버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社說

人口流動 종합配置대책 세워야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광역화경향이 인구이동조사결과로 나타났다. 의론만 무성할뿐 인구의 도시집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던 터에 이런 대도시권의 광역화경향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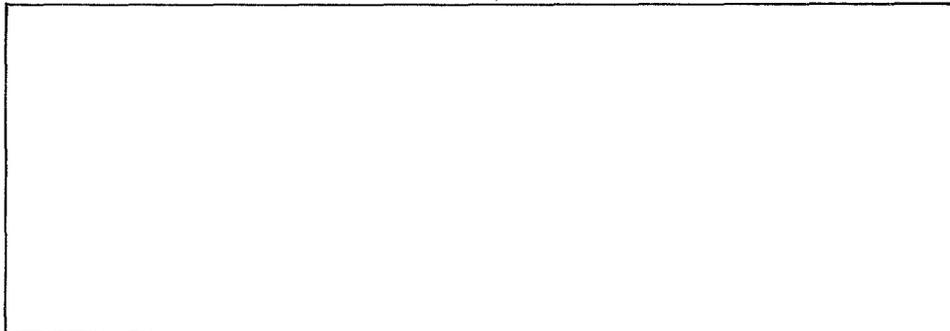
통계청의 지난해 인구동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엄청나게 오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산집을 찾아 경기 인천등 주변도시로 밀려난 사람이 많았고 이같은 경향은 부산과 대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순이동인구를 보면 86년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역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큰 흐름이다. 그러나 경기 인천 또 경남북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직장을 두고 있어서 현실에서는 대도시권역의 광역화를 의미하는데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흐름에 정책이 어떻게 따라가느냐하는 것이다.

종래처럼 인구집중을 서울이나 대도시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는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할수 없음을 물론이다. 예컨대 70년대 그린벨트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물리적으로 막는 저지선이었으나 서울이 위성도시로 포위된 새로운 상황에서는 다른 역할을 맡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보다 과감하게 도시광역화에 대응해서 도로나 공원등으로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이번 통계조사에서 드러났듯 한국은 인구 1백명당 이사자수가 22명에 이르러 세계에 유례없는 주거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불안정성은 이웃 나라 일본의 5명, 대만의 8명에 비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政策感覺에서 보면 이런 불안정성은 정부의 면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실현되면 그만큼 성공률이 높아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정한 사회간접시설도 확보하지 못한 신도시들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 그 증거이지만 지금 시점이야말로 국토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서둘러 국토와 인구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새로운 국토종합이용의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시점이다. 특히 부동산투기가 제풀에 사그러들고 있어서 정책의 타이밍이 갖춰져 있다고 할것이다.



북한은 북한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946년 10월 10일 통계청을 설립하고, 194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통계수집을 시작하였다. 이 당시에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아직 인민경제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통계수집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정권이 인민경제의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계수집의 범위와 깊이를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1955년 이후에는, 북한정권이 인민경제의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계수집의 범위와 깊이를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1955년 이후에는, 북한정권이 인민경제의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계수집의 범위와 깊이를 크게 확대하였다.



계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통계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북한정권이 인민경제의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계수집의 범위와 깊이를 크게 확대하였다.

최근, 高大아세아문제연구소가 펴낸 「한반도와 북한 40년」의 집필자 洪承稷(金東源)은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한 북한정권의 인식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다. 金洪두 교수는 북한의 비록 통계수치를 잡추고 있지만, 경제정책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의 인식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다. 金洪두 교수는 북한의 비록 통계수치를 잡추고 있지만, 경제정책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의 인식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다.

# 고무줄 統計 成長불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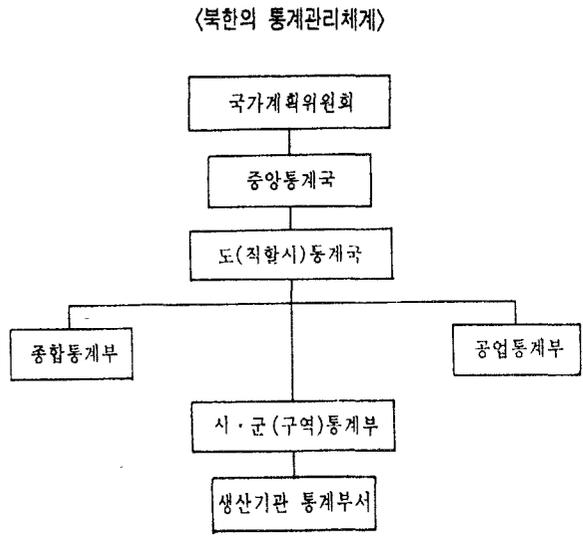
## 근거의심스러운 경제수치

『통계』 사회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인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46년부터 시작된 인민경제의 고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통계수치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 수치는, 수산부문에 서 해마다 50만~60만톤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밖에 채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북한정권이 인민경제의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계수치를 잡추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1946년부터 시작된 인민경제의 고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통계수치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자료는 국가가

1인당 GNP

레진물고기가 많지 못하더라도, 북한정권이 인민경제의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계수치를 잡추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1946년부터 시작된 인민경제의 고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통계수치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 수치는, 수산부문에 서 해마다 50만~60만톤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밖에 채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북한정권이 인민경제의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계수치를 잡추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료면에서 각종물계를 발표한  
제시했으니 66년의 경우 합  
계총량 발표했음에도 통계수  
치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발표하  
고 있는 무역통계와 예산  
안의 재정예결산. 이밖에도  
수의 신문사나 최근인민회의  
정연관' 발표한 통계도 단편적  
으로 나타난다고 지적된다.  
그러나 그 비평가로서는 한  
46년 '경제'에서 44년만 몇  
배가 '경제'였다고 시인해 배  
수나 증가'했다. 그렇다고 있  
음때이다. 북한의 '경제'통계  
의 88년의 '경제'통계는 46  
년경 비해서 54배 증가했  
다고 한다. 그러나 예로 들면

이처럼 60년대 중반이후의  
결재통계 발표가 부실하기 이

를 데 없지 않는 유방부문의  
과다한 예산이 투입돼 북한  
경제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  
작했다.그 밖에도 물이 되고  
있다.

『통계기관은 국가의 중요  
한 기관기관입니다. 그러므  
로 통계기관을 아무 건물에  
나 두기만 한 채야 되고 통계  
기관장관을 총위 하차' 등  
자주 언급 합니다. 그러나 통  
계서장의 비평가 '강정호'를  
모조리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통계를 국가기관으로 취급하  
고서 연말을 개어들었다면  
金日成의 '인민'雜誌에서 만  
나게 된다.

따라서 黨의 노선과 정책  
의 타당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통계자료는 통계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며 발표될 수  
없다.

# 밀려서 침금

## 노년과 노년... 2중 보고도



북한의 黨정책은 통계숫자와 일치한다. (사진은 중산을 품  
러하는 선전포스터)

이런데도 북한의 통계구  
성장의 저속의 통계를 두고  
있으며, 그러므로, 통계가  
자의적이며 조작되고 있다는  
지정을 합니다. 구체적 사례  
로 북한은 '인민'GNP를  
75년 1천달러, 86년 2천4  
백달러만 발표했다.

북한의 통계가, 얼마가 거  
다 통계작성을 조작하지 않는  
지 단정할 수 없는 유방기관  
은 '인민'雜誌에서 발표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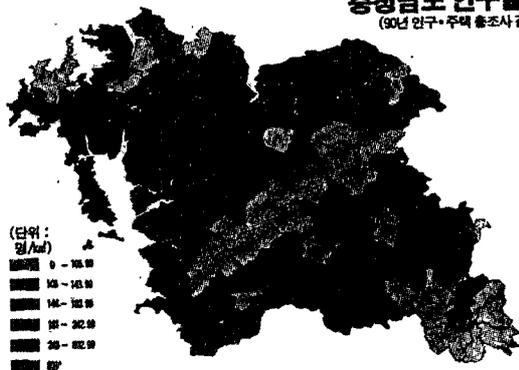
유엔개발기구(UNDP)로  
부터 '수출개발지원을 받고 있  
는 북한의 '인민'GNP와 UN  
DP를 비교하면, 북한은 북  
한은 88년 '인민'GNP를 2  
천5백달러만 보고했지만 U  
NDP의 지원대상이 9백만  
달러에 상응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은 UNDP의 '강화선언'  
가 가진 수치로 수정된 것만  
일 것이다.

金日成의 88년 '인민'신문  
북한은 '인민'GNP가 1  
천5백50달러만 발표한다. 북한  
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蘇聯조차도 최근 북  
한의 '인민'GNP를 4백  
달러정도로 '강화선언'의 印度  
보다도 양산품이다. '인민'보다  
는 '각각' '강화선언'만 '강화선  
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은  
최근들어 '인민'신문의 통계의  
정확성 신장선언, 제  
고 '계산의 정확성' 확대의 과  
화화, '북한의 '인민'신문'을 강  
조하는 문헌들이 다수 나타나  
고 있어 주목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강화선언'  
관행적인 통계의 정확성, 타  
자의 선전선언과 일치된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폐쇄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경  
제통계의 정확성과 '강화선언'  
의 정확성, '인민'신문' 통계의  
동작과 '인민'신문의 '강화선언'의  
정확성을 일치시키고, '강화선  
언'을 '강화선언'으로  
정재통계를 비롯한 경제정  
계의 기관, '강화선언'을 선  
전선언으로 대체한다. 주장한  
유방수석 '인민'雜誌에서  
나온 것이다. <北韓部>

충청남도 인구밀도  
(9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忠南지역의 인구밀도를 한눈에 들여다 볼수 있도록 만든 「지역정보시스템」.



컴퓨터 단말기를 두드리면 도표 1장에 全北 全州지역의 지형·지물은 물론 인구밀도·상점수등 각종 통계가 한눈에 나타난다.

국내 각종統計 한눈에 알수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도로·철도·강·하천·건물 등 무려 40개 항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도시계획을 짜거나 국토를 개발할때 각종 통계자료를 일일이 들춰볼 필요가 없다.

통계청은 국내 전지역의 지리정보와 통계정보를 이처럼 도표 1장으로 알아볼수 있도록 「통계지역(지도)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개발중이다.

정보화사회에서 통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곳곳에 흩어진

### 統計廳, 시스템개발 한창

각종 통계자료를 한곳에 모아 이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를위해 美IBM社로부터 지도및 그래픽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구입, 작년6월부터 「기본지도」를 입력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워낙 작업량이 방대하다보니 앞으로 최대한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우선 내년중에 全北 일부지역의 GIS를 시범적으로 만들 계획인데 지도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는 국립지리원과 협조하고 업무의 상당부분을 컴퓨터 회사에 맡길 방침이다.

통계청 申賢均 기획과장은 『GIS가 완전히 구축되면 전국토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인구·주택 총조사, 총사업체 조사등 각종 통계조사가 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뤄질것』이라고 말했다. <朴義俊기자>

# 物價 장마에도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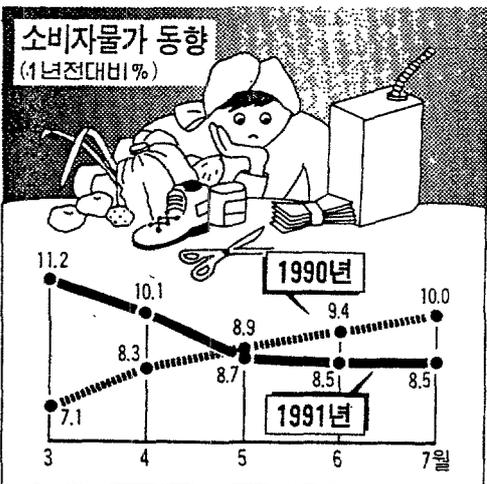
7월 소비자 0.4%

올들어 가장 낮은 오름세

1년전보다 8.5%

수급조절의 선형화철우 연 내 한자린수물가 달성에 힘입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로 1년전 대비 8%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있으며 전히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선유 낮았다.

정부는 30일 이월의 물가 상승률 8.5%에 비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로 1년전 대비 8.5% 낮아진 것을 시사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1년전 대비 8.5% 낮아진 것을 시사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1년전 대비 8.5% 낮아진 것을 시사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1년전 대비 8.5% 낮아진 것을 시사하고 있다.



# 국내景氣 다소 진정

## 6월산업동향 생산 前月比 5.1% 감소

### 건설은 受注 47% 증가 계속 好況

그동안 활황세를 지속했던 국내경기가 6월들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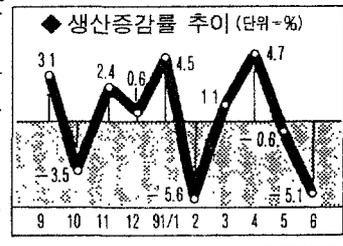
그러나 상반기(1~6월) 중 산업생산은 8.2% 증가, 비제조업은 신장세를 기록했으며 건설업기도 올랐지만 수급불균형이 국내경기를 좌우하고 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6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6월 산업생산은 전월(8월)에 비해 5.1% 감소했다. 1~6월 평균 증가율은 8.2%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 산업생산은 8.2%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월(8월)에 비해 5.0% 감소했다. 1~6월 평균 감소율은 4.4%였다. 반면 건설업 생산은 전월(8월)에 비해 76.1% 증가했다. 1~6월 평균 증가율은 80.1%였다.

6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월(8월)에 비해 5.0% 감소했다. 1~6월 평균 감소율은 4.4%였다. 반면 건설업 생산은 전월(8월)에 비해 76.1% 증가했다. 1~6월 평균 증가율은 80.1%였다.



국내기계수주는 6월중 1.1% 감소, 지난 2월 이후 계속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반기 전체로도 9.7%가 줄어 들었다.

소미부문에서는 에이컨 승용차 VTR 등 내구소미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한편 6월중 신규차수는 38만 8천대로 2.0%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부문에서는 6월중 9%나 늘어나 여전히 건설투자가 면적이 작년 동기 실적과는 과열상태를 보이는데 0.6% 감소, 4개월 고인 것로나 타랐다.

재하락추세를 보이고는 상반기 전체로는 건설투자 있으나 국내건설수주는 46.9%나 늘어나거나 여전히 건설투자가 면적이 작년 동기 실적과는 과열상태를 보이는데 0.6% 감소, 4개월 고인 것로나 타랐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건설수주가 늘어난 것은 건재가격 및 인건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불황'으로 보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통계청 KOSIS 기능 강화

이달부터는 은행·대학·연구소 등 민간기관들도 정부가 작성한 각종 통계자료를 컴퓨터를 통해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 정부統計자료 PC로 검색 확대

### 27만종... 민간단체 이어 가정에 도

통계청은 지금까지 중앙부처 및 각시·도 39개 기관에만 제공하던 통계정보시스템(KOSIS) 서비스를 △정부부처 기관 △금융기관 △민간 연구소 △대학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해 공급되는 KOSIS에는 70만개 항목에 이르는 정부통계중심 산하가 완료된 27만 5천여종의 통계자료가 수록돼 있다.

이제는 △연구·기구·주택 △경기변동·국민총생산 △노동시장 △각종 산업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서도 개인용 컴퓨터(PC)에 전화회선을 연결, 필요한 통계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료이용자들은 전화요청만으로도 지원이 된다.

국가 중앙통계기구인 통계청에 △에너지 △물가 △가계수지 △통화·금융 △재정 △기업경영지표 △외환 및 국제수지 △금융·문화·과학 △국토면적·기후 △보건의·환경 등 모두 20개 분야로 구분돼 있으며, UN 및 IMF 등 국제통계와도 비교가 가능하다.

KOSIS를 이용하면 장기적(최대 30년)인 변동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심를 구성비율 각종 비율도 각종 계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통계청은 앞으로 전자용법을 확충, 일반 개인들도 가정에서 단말기만 두드리면 통계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KOSIS의 기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 7월貿易도 16억달러赤字

## 輸出증가세 급격둔화 **을들어 81억달러**

### 內需·건설 過熱양상 지속

### 9월간연평균 기업設備투자 위축

### 상반기生産 8·출하 11%늘어

산업생산과 출하가 비교적 호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무역적자 확대, 내수 소비 및 건설경기 과열양상이 지속되며 경제성장률 양상이 양적 팽창을 지시하고 있다.

1월 산업생산 및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중의 총생산은 수출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한 55억9천3백만달러의 그치지이로 집계됐다. 반면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3%늘어난 71억9천8백만달러를 기록, 7월중의 무역수지 적자를 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6월중 산업생산물량의 따르면 6월중 생산이 건축허가면적은 수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공천방으로 이월 건설 투자액은 5월보다 17.1% 지난해 6월보다 43.7%나 증가함으로써 다분간 건설 경기 과열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이후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란 예측과는 달리 수출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수입은 더욱 증가 지속돼 올해 60억달러로 전망, 무역수지 적자 양태가 표면 사실상 팽창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로써 올들어 7월말까지 무역수지 적자 수출 3백95억7천7백만달러(12.3%증가), 수입 4백76억7천4백만달러(25.7%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88억9천5백만달러로 나타났다. 9월은 10월과 11월과 비교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6월중 산업생산물량의 따르면 6월중 생산이 건축허가면적은 수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공천방으로 이월 건설 투자액은 5월보다 17.1% 지난해 6월보다 43.7%나 증가함으로써 다분간 건설 경기 과열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6월중 배화전유 등 주유품 소매점 판매가 1년전보다 14.6%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12.4%가 늘었으나 지난해의 비수출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6월중 국내기계제작업체의 수출규모가 1년전보다 1.1% 감소했고 산업기계 수입은 8.6%증가, 제조업체의 설비투자도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용 장비는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활기를 띠고 상반기중 산업생산이 지난해

해상반기보다 8.2% 줄어 1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 4월말 고비로 제조업체 자본투자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있고 제조업체의 신규투자 감소현상도 지속돼 하반기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용 장비는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활기를 띠고 상반기중 산업생산이 지난해

# 「90년人口住宅센서스」표본분석

전국의 전체인구 24.7백만 명 중 4.2백만 명이 주택 15만 7천 7백 9백 36개 가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중 8만 3천 8백 11세대가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다. 이 중 1인 가구의 90%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인 가구의 90%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인 가구의 90%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국 1인 가구의 90%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인 가구의 90%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 都市가구 28%가 단칸방살림

도시생활을 갖추고 있으나 증가, 집을 팔지도 못하고 사는 1인 가구가 15%에 달한다. 이 중 85%가 재래식 주택에서 살고 있다. 79%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 자기집에 사는 1인 가구는 41.6%로, 도시에서 50.6%로 나타났다. 서울의 1인 가구는 50.6%로 나타났다. 서울의 1인 가구는 50.6%로 나타났다. 서울의 1인 가구는 50.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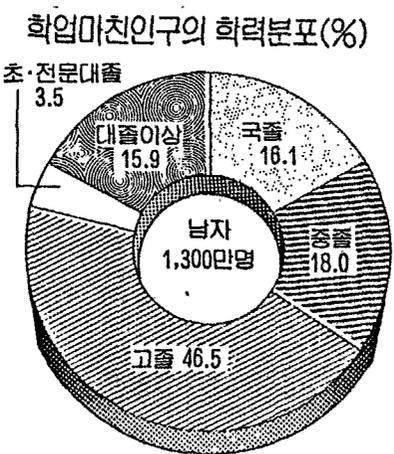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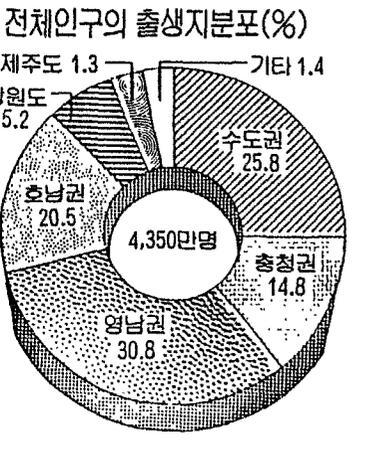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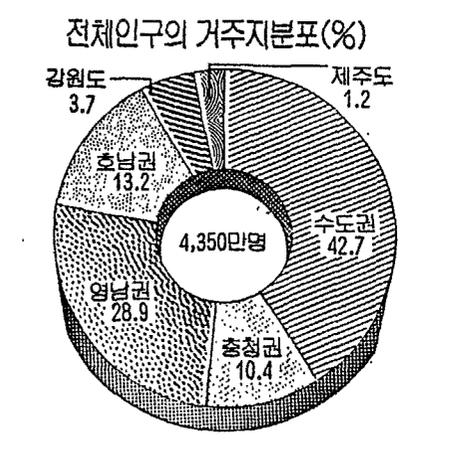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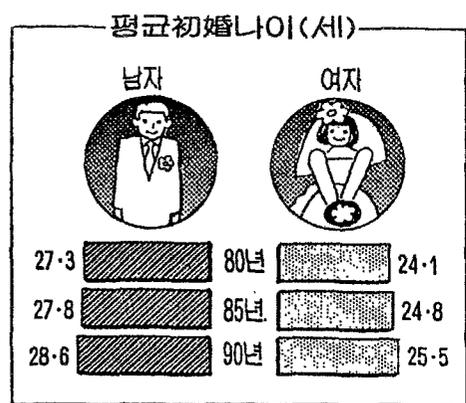
서울시에서 1인 가구는 50.6%로 나타났다. 서울의 1인 가구는 50.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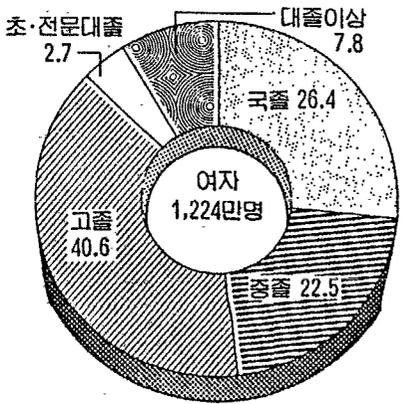
初婚연령 늦어져 男 28.6세 女 25.5세  
高卒이상 49.7%로 5년새 10%늘

서울전입자 9.3%최고  
상수도 보급 74% 가스사용 82%이

전국 1인 가구의 90%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인 가구의 90%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국 1인 가구의 90%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인 가구의 90%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5명전(3.0%)미만 2.7  
 평안북도 26.9

# 어세

## 京畿 忠南 順

하위급 1.2%

평안북도 28.9%  
 강원도 28.8%  
 평안남도 28.8%  
 충청도 28.9%  
 전라도 4.4%  
 경상도 4.4%  
 경기도 4.4%  
 충청도 4.4%  
 전라도 4.4%  
 경상도 4.4%  
 경기도 4.4%

신라대학교 4.4%  
 서울대학교 4.4%  
 연세대학교 4.4%  
 고려대학교 4.4%  
 서울대학교 4.4%  
 연세대학교 4.4%  
 고려대학교 4.4%  
 서울대학교 4.4%  
 연세대학교 4.4%  
 고려대학교 4.4%

간혹는 4.4%  
 가 4.4%

신라대학교 4.4%  
 서울대학교 4.4%  
 연세대학교 4.4%  
 고려대학교 4.4%  
 서울대학교 4.4%  
 연세대학교 4.4%  
 고려대학교 4.4%  
 서울대학교 4.4%  
 연세대학교 4.4%  
 고려대학교 4.4%

서울대학교 4.4%  
 연세대학교 4.4%  
 고려대학교 4.4%  
 서울대학교 4.4%  
 연세대학교 4.4%  
 고려대학교 4.4%  
 서울대학교 4.4%  
 연세대학교 4.4%  
 고려대학교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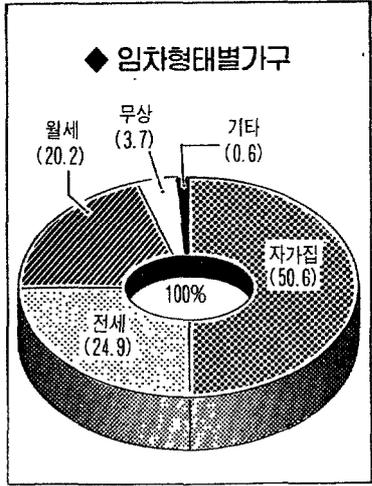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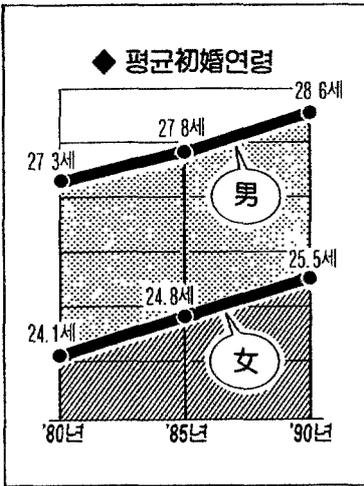
# 교육수준 높아지고

나라 국민들의 생활상태 변화상을 분석한 통계자료가 6일 발표됐다. 이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젊은층 사이에서 결혼을 늦게 하려

이상 인구의 9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85년의 89.9%보다 1.8%포인트 높을 수준으로 된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고졸 이상인 전체를 합친 인구의 58.7%를 차지해 80년 35.6%, 85년 47.9%에 비해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크게 높아졌

이때 따라 평균 初婚연령이 남녀 모두 상승, 남자의 경우 같은 기간 27.8세에서 28.6세로, 여자는 24.8세에서 25.5세로 각각 높아졌다. 또 자가 가택이 아닌 市道를 떠나 他郷살이를 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의 41.3%를 차지, 85년의 36.5%보다 4.8%포인트

↑ 採編기자 > 각원수의 감소와 대조적으로 가구당 사용방수는 많아지고 있다. 방2채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66.5%에서 53.5%로 줄어든 반면 3채 이상을 쓰고 있는 가구는 33.5%에서 46.5%로 증가했다. <주택> 총주택수 7백 37만 4천여 중 1가구만 사는 주택 비율은 72.8%로 85년의 69.7%에 비해 3.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5년간 아파트 및 임대주택이 각각 1백 3.2%, 42.6%씩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당 평균전면적> 24.7坪으로 85년의 22坪보다 2.7坪이 늘어났으며, 지역별로는 大邱(29.3坪)가 가장 넓고, 서울(20.1坪)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주택당 방수도> 85년의 3.6개에서 4.2개로 증가했으며, 역시 大邱가 5.2개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 방은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이다. 특히 방 4개 이상의 주택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어(50.8%) 갈수록 생활공간이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인이하가구 43%...核가 他郷살이 41% ... 「自宅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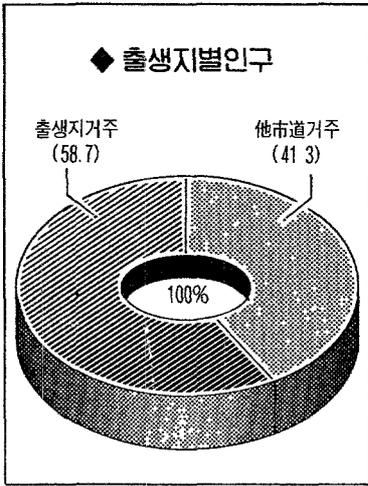
↑ 採編기자 > 각원수의 감소와 대조적으로 가구당 사용방수는 많아지고 있다. 방2채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66.5%에서 53.5%로 줄어든 반면 3채 이상을 쓰고 있는 가구는 33.5%에서 46.5%로 증가했다. <주택> 총주택수 7백 37만 4천여 중 1가구만 사는 주택 비율은 72.8%로 85년의 69.7%에 비해 3.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5년간 아파트 및 임대주택이 각각 1백 3.2%, 42.6%씩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당 평균전면적> 24.7坪으로 85년의 22坪보다 2.7坪이 늘어났으며, 지역별로는 大邱(29.3坪)가 가장 넓고, 서울(20.1坪)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주택당 방수도> 85년의 3.6개에서 4.2개로 증가했으며, 역시 大邱가 5.2개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 방은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이다. 특히 방 4개 이상의 주택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어(50.8%) 갈수록 생활공간이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晩婚경향

## 통계청 인구주택센서스 분석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센서스에서 2%의 가구를 표본 추출, △교육 △혼인 △출생지 △주거형태 등 우리

는 「晩婚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센서스 표본 조사결과를 부분별로 살펴본다.



인구 재 90년 11월 1일 현재 국민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는 3천 6백 35만 5천 명으로 6세

미혼자는 85년에는 72.1%였으나 90년에는 80.7%를 차지했다.

##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인구는 59.6%, 미혼은 32.4%, 死別 7.2%, 이혼은 0.8% 순으로 나타났다.

## 12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

12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인구는 서울이 60.2%로 가장 높았으며, 釜山 등 5 대도시는 55.6~57.6% 수준을 보였다.

# 족화 뚜렷 주」절반뿐

특히 하층층인 노년층에 유입된 인구는 67만 7천 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7세 이하의 인구는 37만 7천 명이었다.

90년 11월 1일 현재 총 1천 1백 35만 7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은 40.1%로 가장 높고, 강원도(29.2%)가 가장 낮았다. 또 3인 이하의 가구는 43.2%로 85년의 35.7%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한집에 한 사람만 사는 단독가구도 9.5%에 달했다.

## 대도시 같은 현상이 발생

대도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1가구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데다 자기 집을 두고 전세를 사는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大邱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서울(40.0%), 釜山(40.1%), 光州(40.9%) 등의 순이다.

가장 높은 지역은 釜南(74.8%)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를 보면 4인가구가 29.2%로 가장 많았다. 또 3인 이하의 가구는 43.2%로 85년의 35.7%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한집에 한 사람만 사는 단독가구도 9.5%에 달했다.

반면 5인 이상 가구는 85년(39.0%)보다 크게 줄어든 27.6%로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고학력·晚婚 추세 뚜렷

## 90년 인구주택조사 결과

85년과 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고학력 인구가 증가하고, 늦은 결혼 추세가 뚜렷해졌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고학력 인구가 크게 늘었다.

# 여성 대학진학 크게 늘어

여성 대학진학률이 1985년 11.1%에서 1990년 24.9%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여성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증가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고학력 인구가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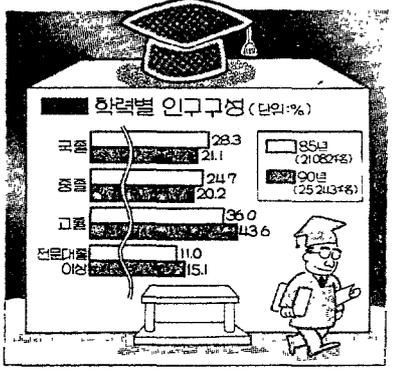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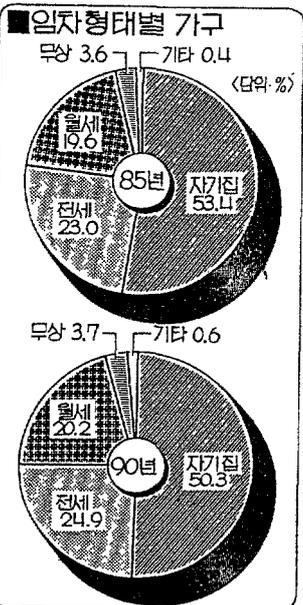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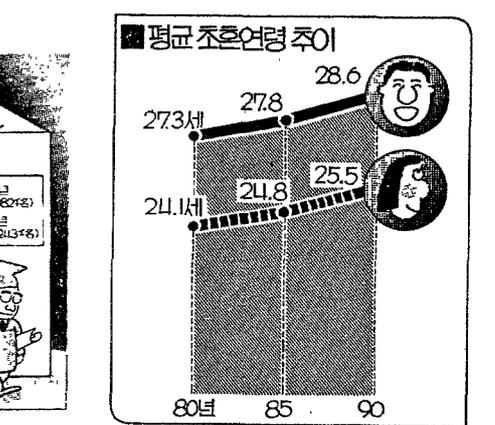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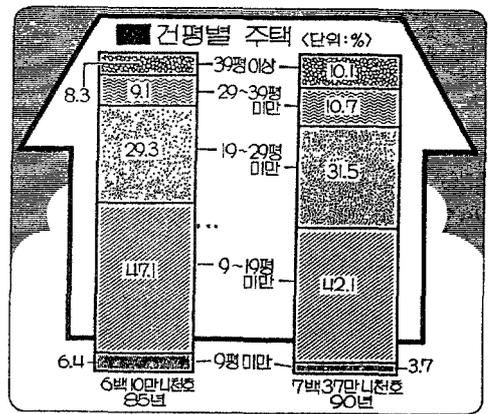
여성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증가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고학력 인구가 크게 늘었다.

여성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증가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고학력 인구가 크게 늘었다.

여성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증가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고학력 인구가 크게 늘었다.

여성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증가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고학력 인구가 크게 늘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고학력 인구가 증가하고, 늦은 결혼 추세가 뚜렷해졌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고학력 인구가 크게 늘었다.



25~29세 남자 절반 이상이 총각  
6대도시 자기집 거주 40%선  
방 한개만 쓰는 가구도 25%나

▲거주가구 = 37만 4천여가구  
▲주거주택 = 37만 4천여가구  
▲주거주택 = 37만 4천여가구

▲남자 = 28.6%  
▲여성 = 25.5%  
▲총각 = 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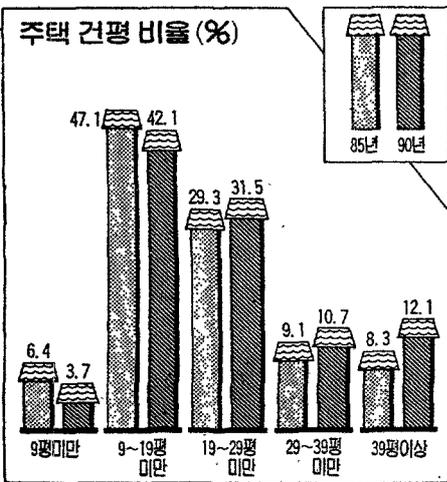
▲자기집 = 50.3%  
▲월세 = 20.2%  
▲전세 = 24.9%

▲고학력 = 43.6%  
▲대도시 = 40.0%  
▲방 한개만 = 25.0%

# 核가족늘어 住宅難가중

90년 人口주택 총조사 自家 10년새 58.4%서 50.6%로

## 주택규모 전국평균 24.7평



주택규모가 대형화하고 증가로 도시지역에서의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수의 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결혼연령은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교육수준은 크게 높아졌다. 통계청은 작년 11월 1일을 기점으로 실시한 '90년 인구주택 총조사' 가운데

전체가구의 2%를 표본으로 색, 이같은 내용의 인구주택총조사 발표했다. 조사결과 자기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80년 58.4%, 85년 53.4%에서 90년에는 50.6%로 줄었다. 특히 도시의 경우

41.6%만이 자기집에 살고 있다. 한편 서울의 경우 6%에서 45.1%로 늘었으며, 이중 전체가 24.9%이고 월세는 20.2%나 되었다. 그러나 주택규모는 85

년의 22.0평보다 2.7평 이 커졌다. 또 가족수가 4명 이하인 가구는 전체의 72.4%로 85년의 61.0%에 비해 크게 늘어 핵가족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평균 사용방 수는 2.6개(85년 2.3

개)로 가족수 감소와 함께 대로 주거공간은 커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도시가구중에서 단독방에 사는 가구가 27.8%로, 85년의 38.7%보다 줄어 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태어난 곳을 떠나 객지에서 살고있는 사람(총인구의 41.3%)은 85년 36.5%로 늘어난 인구의 5%로 인해 서울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인구의 5.7%는 타시도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初婚 연령은 남자가 28.6세, 여자가 25.5세로 높아졌다.

# 집 1채에 1.5가구... 25%가

통계청의 90년 발표한 「2000년 주택정책방향」에 따르면 90년 이후 5년간 주택 건설에 대해 10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으로 2000년 주택 건설을 2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계획은 1990년 100만 가구의 주택 건설을 2000년 200만 가구의 주택 건설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주택 건설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주택 건설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주택 건설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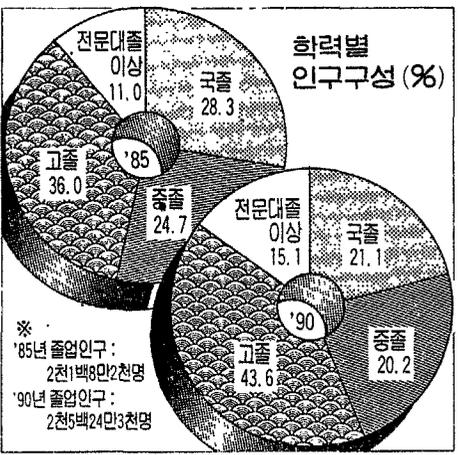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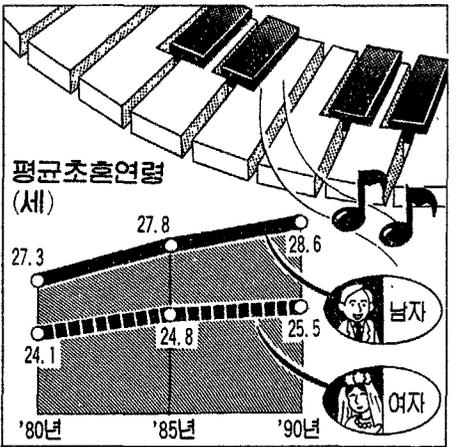
## 통계청 90년 인구주택 조사

주택정책방향에 따르면 90년 이후 5년간 주택 건설에 대해 10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으로 2000년 주택 건설을 2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계획은 1990년 100만 가구의 주택 건설을 2000년 200만 가구의 주택 건설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주택 건설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주택 건설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주택정책방향에 따르면 90년 이후 5년간 주택 건설에 대해 10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으로 2000년 주택 건설을 2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계획은 1990년 100만 가구의 주택 건설을 2000년 200만 가구의 주택 건설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주택 건설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주택 건설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주택정책방향에 따르면 90년 이후 5년간 주택 건설에 대해 10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으로 2000년 주택 건설을 2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계획은 1990년 100만 가구의 주택 건설을 2000년 200만 가구의 주택 건설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주택 건설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주택 건설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주택정책방향에 따르면 90년 이후 5년간 주택 건설에 대해 10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으로 2000년 주택 건설을 2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계획은 1990년 100만 가구의 주택 건설을 2000년 200만 가구의 주택 건설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주택 건설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주택 건설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 '85년 졸업인구: 2천1백8만2천명  
'90년 졸업인구: 2천5백24만3천명

# “단칸방”

6세이상 인구가 91.7%로 88%의 인구가 6세이상이다.

6세이상 인구가 91.7%로 88%의 인구가 6세이상이다.

구인친박후총 5만노사 55.6% 57.6% 수확을 보았다. 서울의 경우 시간제 인력시도에서 67만 7천명의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은 22개 구에서 38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서울은 22개 구에서 38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 수 4명이 하가 72%

## 여자 대졸 5년사이 85% 늘어

89.9%보다 15% 이상 증가한 94.7%로 88%의 인구가 6세이상이다.

이름하고있을인구가 1천7백94만명인것은전체의 41.3%의인구이다.

취사연료로 가스사용 하기가구가 82.2%로 3백이상늘어나 란연단(10%)나부(2.5%)기를(2.1%)를쓰는구가 크게감소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수입한 가스가 9.4%가나 늘었다. 서울은 60.4%로 가장 높고 부산대 2%로 가장 낮고 부산대

20~24세女 81%가 미혼 “晚婚추세”  
41.3%가 타향살이... 서울은 43%

연평균(13.5%)재택식아(5.9%)등의수업이다. 양양도(10%)의 5.9%이다. 부산시(46%) 화장현(48%)의 46% 재택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46%) 화장현(48%)의 46% 재택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羅鍾穎기자〉

# 高학력·核가족 晩婚現象 뚜렷

유연수출과 원자력공업 발달  
 평형가족 晩婚현상의 두드러  
 진지계 진화되어 옹골 것이  
 러 나타났다.

반지산출전력의 부합수  
 가 지난 88년보다 20.8%나  
 늘었으며, 핵가족화가 생  
 활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전제  
 조건의 하나로 인정을 받  
 아오는 45.1%로 이가 높아  
 22.6%로 70%대의 대량  
 평의 주택 정책에서 거  
 켜지며 나타났다.

세대권이 증가됨으로써 1인  
 이상을 가진 가정이 전체 인  
 구의 45.1%로 증가하여 서  
 진화시키는 2%를 포함하  
 였으며, 핵가족화 현상도  
 계속된다. 특히 30대에 여성  
 이 많다.

▲핵가족화  
 인구의 비  
 88년의 58.5%에서 1.1%  
 비인구가 핵가족화 현상  
 3.3%에서 1.4%로  
 인구가 감소하고 핵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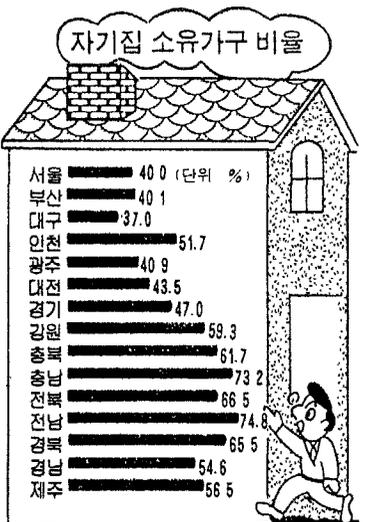
## 「90년 人口주택 총조사」 분석

합본형 중소형주택의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택이  
 다. 初婚연령은 남자가 27.8  
 세에서 28.6세로 여자는 24  
 .8세에서 25.5세로 각각  
 상승.

▲출생지별 1자가 태어  
 난 市를 보면, 서울 43.3%로  
 8%포인트가 높아진 것.  
 서울인구가 서울에서 출생  
 한 사람이 43.3%이고, 그  
 지는 9.3%로 1%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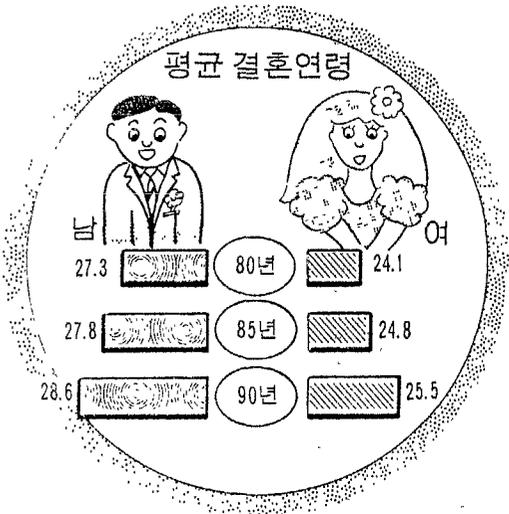
9.9%(서울) 7.5%(충북)  
 (6.9%(충북) 5.5%(충북)  
 에서 9.9%포인트.  
 9개도의 출생지가 서울이  
 91.3%로 가장 높고  
 京畿가 45.5%로 가장 낮  
 이다. 다른 시도도 76.3~88.  
 2% 수준.

## 집 20.8% 증가 불구



▲자기집 거주  
 여부 = 전 부  
 1만 35만 7천 가구 중 자기집  
 의 자가인구가 50.6%  
 로 88년의 53.4%보다 2.  
 8%포인트가 감소. 또 핵  
 가족의 수가 증가하는 것  
 45.1%에서 13만 가  
 구로 2.5%포인트  
 증가했다.

▲핵가족화 = 전체 가구  
 2%에서 4%포인트  
 2%(3만 3천 가구)로



# 傳·月貫 45%

가장 많이 표 3인 가구 19.4%  
5인 가구 18% 2인 가구 14.3%  
1인 가구 9.5% 4인 가구 7.2%  
6인 가구 6.1% 7인 가구 4.4%  
8인 가구 3.8% 9인 가구 2.7%  
10인 가구 2.1% 11인 가구 1.5%  
12인 가구 1.1% 13인 가구 0.8%  
14인 가구 0.5% 15인 가구 0.3%

1.6% 수평주택의 0.9%의  
▲취사연료 = 가스불 사용  
하수가구 88.2% 85년 사용  
에 비하면 8.3%의 증가  
있으며 연료의 10% 전까지  
7% 林産品 2.5% 우  
류 2.1% 배양되었다.  
▲주택의 증가가 85년 9천 9백  
구가 85년 9천 9백 9천 9백  
에서 1천 9백 9천 9백 9천  
이상을 보았다.

## 주택당 평균建坪 24.7평 대형화 추세

사영주택이 48.1%로 가장  
많아졌다. 주택가구는 82.4%  
(전년 81.9%)로 0.5%  
증가했다. (5.9%)로 0.5%  
증가했다. (5.3%)의 증가  
▲부대시설 = 부대시설의  
조성률이 7.1%로 0.5%  
6% 전년대비 증가한 10%  
10%의 부대시설이 55.4%  
가구도 55.4%  
▲거주가구수 =  
주택수 7백 37  
만 4천 9백 1가구가 85년  
주택비율의 72.8%로 85년  
의 69.7%의 비례 3.1%  
포인트가 상승으로 지난 5  
년간 이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주택당 가  
구수는 1.5가구로 0.05가  
구 증가한 1.1가구가 85년  
1.0가구.  
▲建坪 = 주택당 면적은 평  
당 24.7평으로 85년 22평  
보다 2.7평의 증가로 주택  
이전차도 0.5%의 증가로 4.2%  
다졌다. 19평 미만은 42.1%  
로 0.5%의 증가로 19.2%로  
5% 28평 이상은 22.7%로  
▲동수 = 주택당 동수  
는 3.6개에서 4.2개로  
0.6개 증가했다. 4.2개  
2.2개 이상.

〈関西編기자〉

조사결과와 주요 특징을 부  
문별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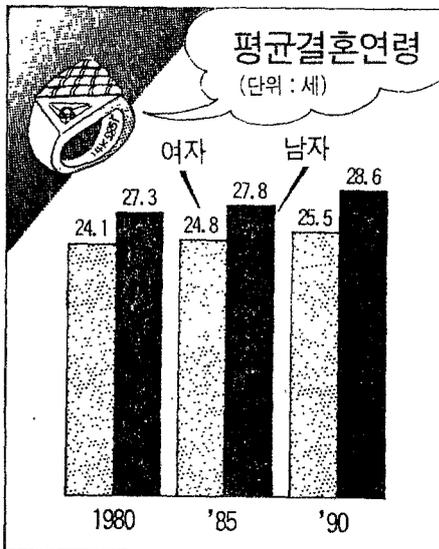
**인구** 1990년 3백39만  
명에서 90년 3백8만명으로  
8.6% 감소한 반면 초립  
대학이상의 대주는 85년 2  
백32만명에서 3백81만명으로  
64.1% 증가했다.

이중 남자가 1985년에 비  
해 55.2%가 늘어났지만 여  
자는 84.9%나 증가, 여성  
의 고등교육참여가 활발해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중주의하의 비중  
은 85년 53%에서 90년 41.  
3%로 낮아진 반면 고주의  
상인 47%에서 58.7%로 크게  
높아졌다.

이처럼 고학력화 현상과 함  
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사회  
활동참여기회가 크게 확대  
되면서 20대 남녀 모두 결  
혼율 가파르게 상승, 결혼을  
포기했다. 특히 20~24세의 여자  
중 미혼비율이 85년 72.1%에

# 30·40代 「獨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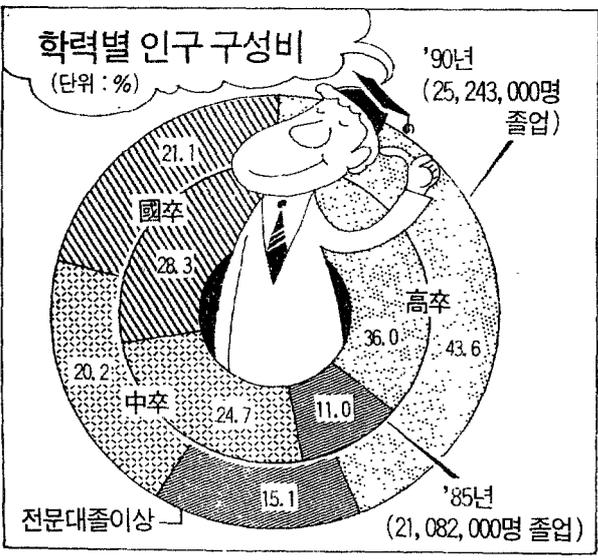


활약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혼인구 비율은 85년 0.  
6%에서 90년 0.8%로 높  
아졌다.

출생지별 인구이동 상황을  
보면 출신 시·도를 떠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85

년 1백3.5%로, 서  
울 바깥에 살면서 서울로 출  
퇴근하는 인구가 그만큼 많  
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가구는 자기집에 거주하  
는 가구는 85년 53.  
4%에서 50.6%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인인가구가 차  
지하는 비중은 85년 61%에

어난데 따른 것이다.  
〈韓國誌기자〉

## 전국 家口·주택·인구 明細

통계청이 6월 발표한 「90년 인센서스」 2%포인트가 상승한 「전국 家口」는 3,469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1990년 인센서스 2%포인트 상승한 「전국 家口」는 3,469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90년 1월 1일 기준이다. 전국 인구는 3,469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 5년전 비해 2배

# 서울 「流入초과」 하루 30만명 愛鄉최고 全南... 토박이 91%

서울의 인구는 90년 말 현재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5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90년 1월 1일 기준이다. 전국 인구는 3,469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의 인구는 90년 말 현재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5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90년 1월 1일 기준이다. 전국 인구는 3,469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社 説

無住宅 50% 시대의 주택정책

6월 발표된 「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가 역시 주거문제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조사결과를 자기집의 보유비율이 지난 10년간 계속 낮아져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분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핵가족화 현상에도 그 원인이 있겠다. 우리는 더 큰 원인이 지난 10년간의 부동산가격 폭등과 인구의 계속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에 있다고 본다.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구수는 늘어나는데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소득증가를 훨씬 앞지르고 주택담보이 미처 따를 수 없게 인구가 집중되고 보면 무주택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주택현상의 완화와 면책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핵가족화 현상의 막을 수 없는 사회적 추세인 이상 부동산의 저세를 계속 감화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주

택공급을 늘려 주택을 비교적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주택담보 측면에서는 2백만 원권 실계좌입금에 의해 그 기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주택이고 무담보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크고 값 비싼 집을 짓는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이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택공급에 있어선 소형주택의 비율을 대폭 늘리고 임대주택을 가급적 한 많이 짓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최근 안정추세에 들어간 것이 주택담보 확대를 위한 대단하고 무조건적 현상이다. 이 기회에 다시 부동산투기와 사기의 판박이가 되살아 나지 않도록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요즘 토지소유자들의 조세저항등들이 유로 정부의 부동산 가격억제의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우려할만한 일이다.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하면 2백만 원권 실도 하나나 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 의지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를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은 무주택 대참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수도권 인구임체다. 정부가 이의지를 밝힌 것은 이미 오판되었지만 그를 구체화할 시책의 추진은 지지부진이다. 수도권 인구의 증가를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는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인해 인구집중이 불가피했지만 이제 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전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가재원을 상대적인 다후지역에 집중배정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 나가야 한다.

이제까지의 주택정책의 발명의 불을 끄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어휘면 문제를 완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를테면 수도권 주택난이 심하다 해서 수도권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면 담보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인구를 집중시켜 주택난이 다시 악화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사회변화와 인구이동 추세를 적절히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내용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社說

## 生活上에도 陰陽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생활양식은 많이 변화했다. 그 변화란 일반적으로 向上이라 할 수 있다.

특정층의 2%의 標本調査를 통해 보면, 자료에 따르면 지난 85년의 비해 90년도 생활양식의 규모와 부피가 전연전으로 커졌다.

다만, 국민의 經濟수준은 계속 높아지는 것일 뿐이다. 高學歷층의 비중이 11.8%에 달했으나, 이는 50년전에 비해 3.6%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특히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가문 대도 50년전의 증가율이 무려 85%에 이르렀다.

여성의 社會活動과 地位向上이 이를 계기로 현저하게 볼 수 있다.

고급단계의 여성은 晩婚층의 70%에 이르렀고,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미심쩍다. 결혼연령이 1년도 더 늦어지면 適婚期의 미혼남성의 8%를 얻는다.

이런 양상은 70년대와 80년대 각각 다르다. 離婚率이 높아지고 核家族化가 현저하게 되고, 80년대에는 결혼시기를 자꾸만 늦추고 있다. 현상이 점점 예상대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혼인을 가법제 여기는 풍조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생활양식의 변화가 傳統社會의 뿌리를 흔하게 못하면 발전의

기부다. 되도록 다 담보하고 점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것이다.

住居文化의 급속한 변화를 반드시 발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주택규모가 평균 24.7坪으로 커졌고, 가스연료와 기름난방으로 高級화된 것이면

이와 동시에 解散할 수 있을 것이다. 1인 가구의 72%를 넘어, 단순한 가정이란 바뀐 바뀐고 있다는 사실, 마을에 核家族化가 노인의 經濟負擔을 기피하고, 부부생활 외주로 바뀔 때, 우리사회의 세대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런 발달, 自家 거주율이 고작 50% 수준이고, 45% 상당의 世帯主가 전월세에 살고 있는가 하면, 단칸방에 살고 있는 사람만 都市가구가 28%에 달한다. 통계가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우리사회가 高移動性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오래전부터 일어난 出生地와 居住地를 비교할 때 1천7백만명이 他鄉에 옮겨 산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왜

잠수북이 물에 뜨이지고 있는가, 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가 잘되면 거주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될지, 모두가 기대하며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 단정할 수 없다.

大都市인의 주요한 이동이 엄청난데, 많은 사실도 문제이지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의 경우, 주요한 流出人口가 1백만 명을 넘고, 특히 남자는 80만 명 이상, 入超 현상이었으므로 나타났다. 주야간 이동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 틀림없지만, 이 또한

도시진화 문제의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자칫 인구의 주택서비스 결과 우리의 生活上 자원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두렵다. 물적 向上에도 격차가 있고, 住居의 생활양식에도 陰陽이 있다면, 정을 중시하는 정책자료가 되어야 하리라 결론이다.

# 서비스 부문 인력유입 가속

## 작년보다 6% 58萬명 늘어

建設業도 21萬명... 失業率은 2.4%

### 통계청 발표 上半期 고용동향

건설및서비스부문의 호황이던 올해 제2연말부터는 서비스부문의 인력유입이 대거 유입되던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4~6월) 및 상반기 지역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취업자는 1천8백20만9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 53만6천명이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유입자는 2백93만9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1%(22만3천명)가 줄었다. 반면 △판매업(15백2만1천명)은 3.5%(17만명)가 증가했으며 △사회간접자본 등 서비스 부문

은 1천24만9천명으로 1%(58만8천명)가 늘어났다. 중립업(서비스)의 취업자는 2.4분기에 늘었으나 1.4분기(1~3월) 중 0.9% 감소했다. 때문에 이차림 감소세로 나타났다. 관광업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는 4백95만3천명으로 1년 사이에 18만8천명(3.9%)이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건설업은 1백46만2천명으로 1분기 대비 20만9천명(16.7%)이나 증가해 제조업보다도 건설업이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6대도시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사이에 13만명(4.9%)이 늘었으며 서비스 부문은 건설업의 9만명(13.5%)을 포함해 모두 29만4천명(5.4%)이 증가했고 9개도 지역도 제조업은 5만7천명(2.7%)이 늘었으나 서비스 부문은 29만4천명(7.1%)이 늘었다. 그중 서울은 올 상반기 중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사이에 5만7천명(4.3%) 늘어났는데 그 반면 건설업의 5만1천명(13.3%)을 포함해 서비스업이 무려 14만4천명(4.7%) 늘어났다. 전국에서 全南(1만8천명) 全北(9천명) 忠北(1천명) 등 3개 지역은 삼반기 중 취업자수가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서비스 부문의 고용유입력이 커짐에 따라 삼반기 중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중립업이 16.1%로 작년보다 1.8%포인트 낮아지고 관광업은 27.6%로 0.2%포인트 증가에

그쳤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는 56.3%로 1.6%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올 상반기 중 실업자수는 46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8천명의 증감 없이 같았으며 실업률은 2.4%(1.4분기 2.9%, 2.4분기 2.1%)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다. 2.4분기 중 취업자수는 1천8백98만6천명으로 집계됐

다.

다.

다.

다.

# 建設業 6大市 7월 중 노동력 6大市 7월 중 상반기

건설경기과열로 건설업 취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노동력의 6대도시 집중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해 상반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1천80만6천733명으로, 1조년 전반기 기간에 비해 2.0% 증가했다.

이 10조년 전반기 1천80만 20만6천733명이며, 1조년 전반기 기간에 비해 3%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율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웃돌아 실업률은 전반기 상반기 중의 2.4%에서 2.1%로 0.3%포인트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농업·임업 취업자가 1% 감소한 데 비해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분의 취업자는 각각 3.5%, 6.1%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중 사회간접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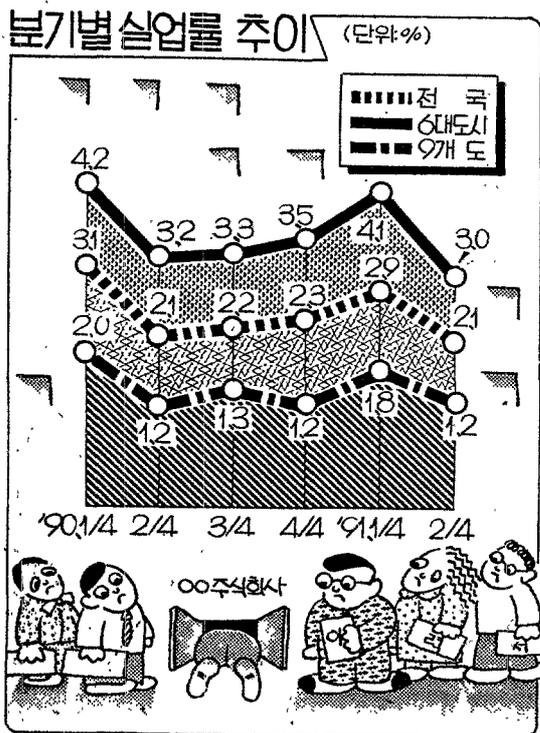
및 기타부분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건설 경기 과열로 건설업 취업자가 16.7%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분의 취업자는 작년 동기 대비 58만8천 명 늘었지만, 농업·임업 취업자는 6대도시에서 13.5%, 9개도에서 19.9%를 기록, 9개도의 건설경기 과열현상을 반영했다.

그러나 9개도의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미미해 상반기 중 취업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3%에 크게 못 미치는 1.4%에 그쳤다.

이에 비해 6대도시의 취업자는 4.4%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노동력의 6대도시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상반기 중의 실업자 46만5천명 중 69.2%인 32만2천명이 6대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력 건설·서비스업에 몰린다

統計廳 집계

景氣활황 힘입어 失業者 70%가 서울등 6大도시 집중

失業者 70%가 서울등 6大도시 집중

## 就業者 서비스업 몰린다

전체의 55%... 1년새 6% 증가

건설업자와 서비스부분의 호황으로 인력이 제조업보다 건설·서비스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 실업자의 70% 정도가 서울을 비롯한 6大도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2·4분기 및 상반기 지역고용동향」에 따르면 서울상반기중 취업자는 1천8백20만9천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0%(53만6천명)가 증가했다.

상반기중 취업자는 2백91만9천명으로 7.1%가 늘어난 반면 광공업은 5백2만1천명으로 3.5%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는 1천24만9천명으로 6.1%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다.

특히 광공업중 제조업 취업자는 4백95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만8천명이 늘어난데 비해 건설업취업자는 1백46만2천명으로 20만9천명이나 증가, 제조업보다는 건설업취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반기중 실업률은 2.4%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0.3%포인트가 줄었으며 전체 실업자는 46만4천명이었다. 전체 실업자의 69.4%인 32만2천명이 서울, 仁川, 大田, 光州, 仁川, 大田 등 6大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經濟新聞

91. 8. 16

2분기중, 失業者 2.1%로 낮아져

내수경기활황으로 사실상 「완전고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가 서비스업쪽으로 몰리고 있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 등 6大도시에 노동력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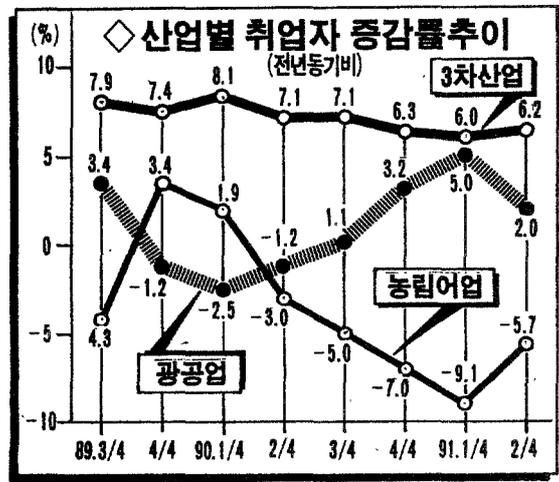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2·4분기중 지역고용동향에 따르면, 상반기중 실업률은 2.4%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0.3%포인트가 줄었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 仁川, 大田, 光州, 仁川, 大田 등 6大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경기활황으로 사실상 「완전고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가 서비스업쪽으로 몰리고 있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 등 6大도시에 노동력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2·4분기중 지역고용동향에 따르면, 상반기중 실업률은 2.4%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0.3%포인트가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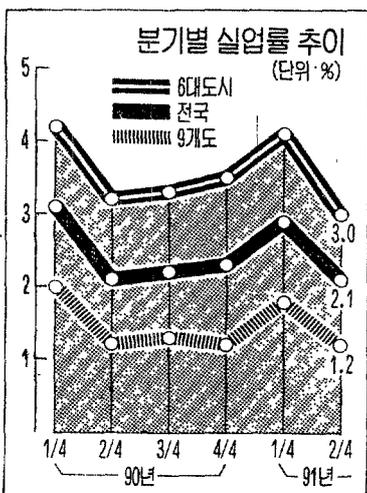
또 지역별로는 서울, 仁川, 大田, 光州, 仁川, 大田 등 6大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失業率 감소 「완전고용」 명칭이

## 상반기 人力동향과 특징

건설·서비스부분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서비스부분의 고용 흡수력이 증대되면서 실업률이 크게 떨어져 유리경제가 「완전고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분석한 상반기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의 56.3%인 1천24만9천명이 건설업과 도산매출신속박업 등 서비스부분에 몰려있다.

건설·서비스부분의 취업자 구성비는 88년 이후 매년 2%포인트씩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농업·어업에서 빠져나온 인력이 내수와 건설경기의 활황을 타고 서비스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농업·어업 종사자의 구성비는 전체 16.1%로 1년새 1.8%포인트가 줄었고 광공업 종사자는 전체 27.6%로 0.2%포인트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 6大都市 취업증가율 4% 넘어 農林漁業은 1년새 22만명 줄어

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서 건설현장의 고용증가가 폭풍전야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서비스쪽의 인력 이동과 함께 두드러진 특징은 인력의 도시집중 현상이다. 상반기중 9개도의 취업자가 총 1.4%로

17만명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분은 58만8천명이 각각 늘었다. 특히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16.7%가 늘어 전체 취업자증가율의 5배 제조업 취업자증가율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고용동향을 보면 서울의 경우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해 동기보다 5만7천명이 늘어난데 그친 반면 건설·서비스부분은 14만4천명이 증가했다. 이 중 건설업이 5만1천명

나타나 전체 취업자증가의 절반수준이었다. 6大都市의 취업자증가율은 4.4%에 달해 인력의 도시집중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만 보아도 6大都市의 취업자증가율이 4.9%로 9개도의 취업자증가율(2.7%)을 넘어섰다. 그러나 건설·서비스 취업증가율은 9개도(7.1%)가 6大都市(5.4%)를 다소 웃돌아 도시보다 지방의

이 늘어 1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나머지 5大都市에서는 仁川(7.4%)과 光州(7.7%)의 취업자증가율이 높았고 9개도가운데 全南·全北·忠北 지역은 취업자가 오히려 줄었다. 한편 지난 상반기 현재 실업인구는 46만4천명이며 실업률은 2.4%를 나타내 전년동기 대비 8천명(0.3%)포인트가 각각 떨어졌다. 이같은 실업률은 英國·日本과 비슷하고 美國·英國 등 선진국의 5~7%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이다.

6大都市 가운데서는 大邱가 3.8%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고 서울·釜山·大田·仁川·光州의 실업률은 3% 정도였다. 9개도가운데서는 京畿가 1.9%로 가장 높았고 濟州가 0.8%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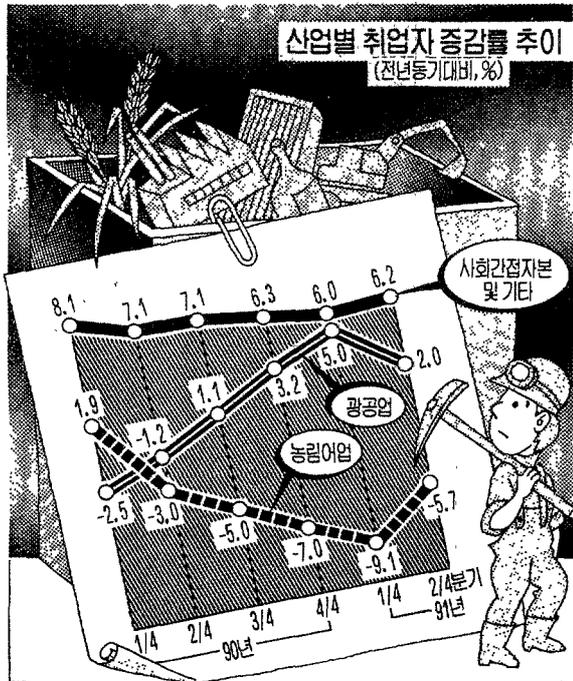
(權赫燦기자)

# 서비스부문 人力 집중 심화

## 작년比 58만명 증가 농림어업인 7% 줄어

통계청상반기 통계  
건설경기과열및 서비스  
업의 호황으로 제조업보다  
는 서비스부문의 증가  
가 많아 인력이 몰리는 현상  
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및 상반기 중  
고용 통계에 따르면 을 상반  
기 중 취업자는 평균 1천  
8백20만9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53만6천  
명)가 증가한 가운데 산업  
별로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2백93만9천명으로 7.  
1%(22만3천명)가 줄었  
고 광공업은 5백만1천  
명으로 3.5%(17만명)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도 소  
매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은 1천24만9  
천명으로 6.1%(58만8  
천명)나 늘어났다.  
특히 광공업 취업자 증  
가율이 지난 1.4분기 중  
5%에서 2.4분기에는  
2.6%로 둔화된 반면 서  
비스부문은 6%에서 6.  
2%로 증가율이 더욱 높  
아지는 추세다.  
서비스부문에서도 건설



〈그림: 朴春奂〉

업 취업이 특히 늘어 지난  
상반기 중 취업자 수는 1백  
46만2천명으로 작년동기  
보다 16.7%(20만9천명)  
가 증가했고 반면에 광공  
업 중 제조업 취업자는 4  
백95만3천명으로 3.9%  
(18만8천명) 증가에 그쳤  
다.  
이같은 서비스부문의 고  
용률수에 힘입어 지난 상  
반기 중 실업자 수는 46만4  
천명으로 작년동기보다 8  
천명이 줄었고 이에 따라  
실업률도 2.4%로 0.  
3%포인트나 낮아졌다.

社說

을상반기의 雇傭동향

통계청의 발표한 을상반기의 고용동향은 전반기에 비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은 전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 분야의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비용의 상승도 고용동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비용의 상승은 기업의 고용의욕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계청의 발표한 을상반기의 고용동향은 전반기에 비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은 전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 분야의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비용의 상승도 고용동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비용의 상승은 기업의 고용의욕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계청의 발표한 을상반기의 고용동향은 전반기에 비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은 전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 분야의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비용의 상승도 고용동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비용의 상승은 기업의 고용의욕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계청의 발표한 을상반기의 고용동향은 전반기에 비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은 전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 분야의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비용의 상승도 고용동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비용의 상승은 기업의 고용의욕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標準산업분류 개편

## 自動車수리는 도소매업 연탄제조 鑛業으로 변경

### 統計廳 개편안 확정 내년 적용

내년부터 자기산업의 재  
분류와 관련된 산업의 분  
류가 도소매업에서 제조  
업으로 변경된다. 또 연탄  
제조업은 자력차수업인  
도소매업에서 제조업  
인 연탄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내년의 산업표준산업분  
류개편안 확정 안은 10월  
중순에 고시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표준산업분류개편안 따  
라 이 분류를 적용하는 소  
특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  
세법 중소기업진흥법  
공익채권법 의자도입법 산  
재보상법 특전규제및공정  
거래법 한미합작투자법 관  
영규정내 영외외 개정으로  
했다.

표준산업 개편안에서 산  
업표준산업분류에 관한 영  
외외 개정안도 의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산업분류는 9  
개에서 17개로, 중소기업  
35개에서 60개, 소기업은  
89개에서 1백55개, 세분

류는 2백93개에서 3백32  
개, 세분류는 1천47개  
에서 1천1백85개 항목으  
로 각각 세분화시켰다.  
별부 업종별로는 연탄  
자가 직접제조업을 하  
지 않고 다른 업체에 의뢰  
해 생산하던 연탄제조업  
디자인 상표 판매를 맡으  
는 제조업으로 분류보통했  
다.

개입서비스업인 사진  
관 및 사진처리업은 사업  
서비스로 자동차, 모터사  
이를 수리 및 수리자용품  
수리는 도소매업으로 바  
꾸고, 사회서비스업으로  
분류하던 연료개발활동  
과 건물청소수업은 사업  
서비스업으로 개편했  
다.

### 면제업으로 분류보통했

다.

신입이나 가도 제철에  
따라 두제제품조 금속제  
품제조 플라스틱제품제조  
로 분류해왔으나 이를 신  
발제조업 기구제조업으로  
분류보통했다.

이와 함께 시장규모가  
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특  
업종인 기획매체출판업 재  
생재료처리업 필름제조업  
컴퓨터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면제업으로 신설했다.

이밖에 유상 수산 항목  
은수업은 은수관리서비스  
업으로 묶고 컴퓨터프로그  
램매체제조업과 음반및투  
음테이프제조업은 기획매  
체제조업으로 통합했다.

# 物價 急騰 8.3%

## 8월에도 1.3% 올라 10년만에 最高 기록

### 秋夕·公共料인상등 남아 年末한자리수 억제 限界

과제수지자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지도 급등세로 반전해 경제불안 가운데 내한우리가 상승되고 있다.

경제기획원(31일 8월 중의 소비자물가지수 1.3

81년(13.1%) 이후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8월까지 각각 8.3%와 2.1%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8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8.2%)보다도 0.1%포인트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하는 데는 차질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데 8월의 경우에도 9월 이후의 소비자물가지수 1.2~1.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고 △선저물 상승률(9.9%)보다도 9%포인트(9.0%)

(36.6%)보다(29.8%) 6.8%포인트(22.5%) 상승(21%)과(13.2%) 등 대부분의 농산물 상승률이 크게 올랐고.

이 밖의 주요 상승률(5.2~8.2%)은(1.6%)(4.4%) (2.5%) (2.1%) 등 상승세를 지속했다.

내년 1분기 내한물 상승률은 4%대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8월의 물가지수 상승률은 8.3%로 10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8월의 물가지수 상승률은 8.3%로 10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8월의 물가지수 상승률은 8.3%로 10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올해 8월의 물가지수 상승률은 8.3%로 10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8월의 물가지수 상승률은 8.3%로 10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8월의 물가지수 상승률은 8.3%로 10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정당화하여 국민당정부의  
영률체수의 파소미에 이르  
기까지 모두 따지고 보면 물  
가를 자극하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원인이자 결과  
로 나타났다고 있다. 정부가  
영장사건 관련자를 불응으로  
태워서 영장사건의 발원지  
에 대한 수교 영구 단절의  
위협을 주고 아군영장사건은  
발원지인 영장을 지적한다.  
북한 영장사건 50%정도 이  
러면 영장사건의 근거가  
제한적인 위기라고 지적한  
다. 영장은 국민당정부의 사  
회신장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영장사건의 근거는  
북한영장사건의 추진과정  
과 영장사건의 절차가 아니라  
북한정권인 영장정책의 양  
상화적인 것을 단절하지 않  
고의 변모를 영 수 밖으로  
영장을 단절한다.

영장은 5가지 물가를  
안타 국제수지안정제를 단절  
키 위해 재정의 확대책에 구  
속이 있다. 영장은 국민당  
정권정책의 추진단계에 따라  
우려되는 것보다 영장사건 24  
2% 국수비 현상준보를 더  
하고 있다.

영장은 현안 때면의 자금  
의 국제수지안정이나 물가를  
안타다 영장은 더 집정의  
관급의 영장이 기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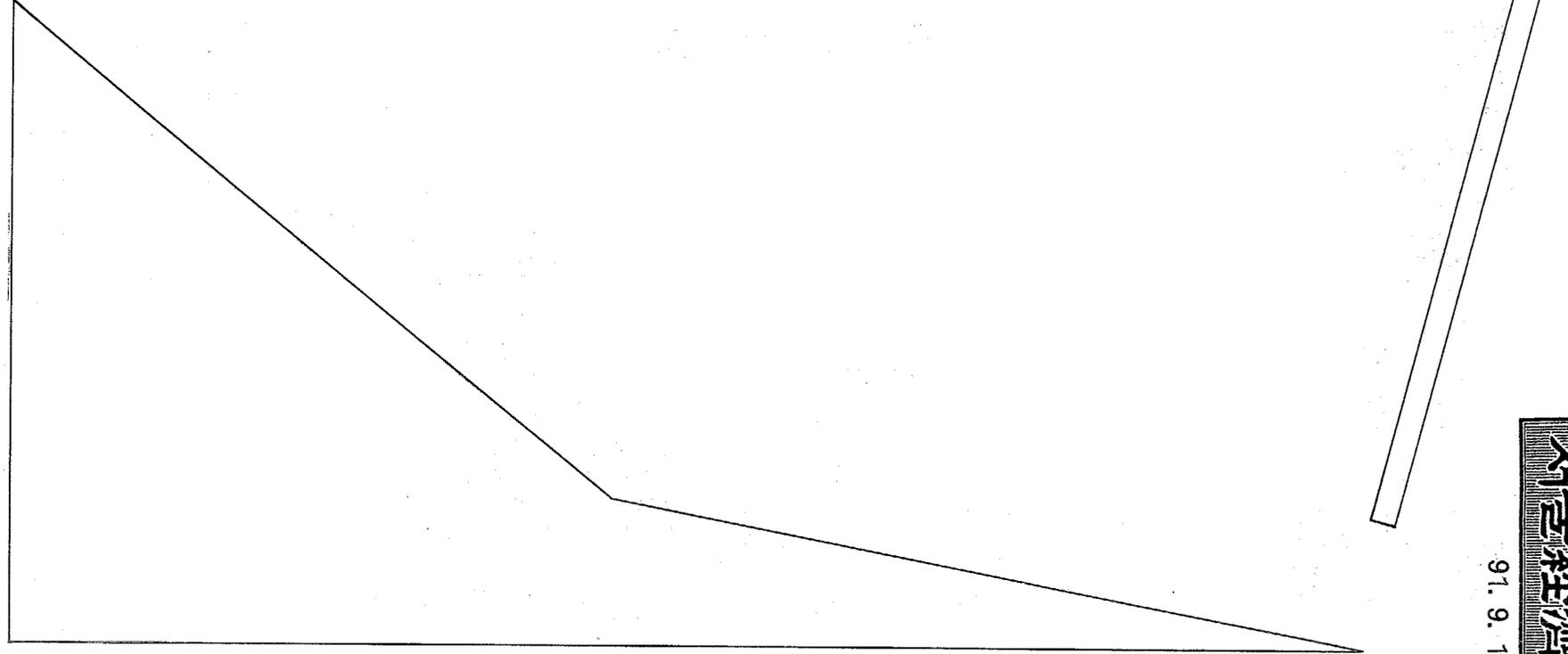
1백% 이상 올라 국제수지  
를 압박하고 있는 지자체소  
관의 하수단영장, 각종 시  
설사업의 지자체실시를  
계기로 계속 날개를 달지만  
이다.  
비록 올해말까지는 더  
상 재조영장의 영장의 영장

# 家計 압박 材수 부족 국민당 정책의 영장사건

영장은 영장이다.  
그러나 지수물가가 벌써  
영장의 여제표표선(9%내  
외)에 바짝 다가선 현실의  
서 시장과 국민의 체감을  
느낄 수까지 차이를 다량의  
추진영 정책영장의 영장  
내년물가의 영장은 불  
보크 현상준보를 지적한다.

이리 영장 21% 이상으로  
국민당 정부정책의 영장 4%가  
영장을 자극하고 영장 4%가  
영장을 자극하고 영장 4%가  
영장을 자극하고 영장 4%가

국민당의 단절이지만 전한  
적인 물가 대 부위기로 내  
조부 영장 21% 이상으로  
터져 나옴에 대한 실정이다.  
영장은 상환에서 물가  
안을 해소하고 물가 불안  
불가부의 관제를 장구 영  
국제수지 적자화대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영장사  
출라면 수출수입의 영  
한 영장 21% 이상으로  
을 찾지 영장 21% 이상  
다. 【추진영장】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71.3세로 일본의 78.5세, 미국의 75.9세, 대만의 74세에는 못미치지만 개발도상국의 60세보다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국내총생산도 1970년의 63.2세에 비하면 지난 20년사이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확효과로 인해 생활이 나아지면서 영양상태가 호전되었기 때문이며,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의학의 발달과 과거보다 쉽게 최신의 의료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의 연장책이 반드시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건강이다. 노인들은 젊었을 때부터 65세 이상으로 활동(유리)기간을 늘리고,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하여 55~60세부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 건강검진 4종(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혈액)의 5%에 해당하는 2백50만명의 노인들에게서 3.1%만이 크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생활습관의 개선이 건강을 수명 연장

## 노인복지와 평균수명

길어지는 2000년에는 노인인구가 3백17만명으로 전 인구의 6.8%, 2010년에는 4백67만명으로 전 인구의 9.4%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金 顯 承

문지 자녀들의 장래에 훌륭한 사람의 보기를 바라며서 철저의 자신을 희생해 오신 분들이다.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보니까 핵가족이든 서양문화의 영향이든 그 요괴가 유년적 전통과 근대적 노인들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소외되어 실 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부양을 전 의 의의 노인후생복지 및 의료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싱가포르를 그리고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들의 경험과 좋은 제도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마디로 우리의 현실이 부끄럽고 그곳의 노인들이 부양을 받던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공산(선물)에서 서로 모여 탐수하고 불린치표도 받고 자일봉사자들과 오락을 즐기기도 했다.

또 노인자를 위한 병원에서는 그들이 쉽게 알리고 환경조성을 해주고 질병의 치료는 물론 마음의 치료와 위로를 아울러 해주고 있었다.

미흡하지만 우리정부에서도 최근 노인후생복지에 전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몇몇 대학병원에서 노인자를 전문으로 노인병선진부를 설립 운영진행 보이고 있는 것이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는 몇몇 사회단체나 병행들의 관심사가 아닌 전 국민의 관심사이므로 국가차원에서 혁신적인 제도개선과 과감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연세대의대 교수·교과>

# 빨리 온 「老齡化사회」

우리 사회가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우리들의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반면에 유년인구는 감소, 우리 사회의老齡化를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老齡化에 따른 부작용도 벌써부터 심각해질 수준에 보이고 있다. 장수의 대안 재해설과 노령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확충이 요구

가 거세지고 있다. 한 사회의 젊고 늙음을 나타내는老齡化지수는 유년인구의老齡化의 비율로 유년인구(14세 이하)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표시되는 이 지수는 70년 7.2%, 80년 11.2%, 90년 19.4%로 점점 높아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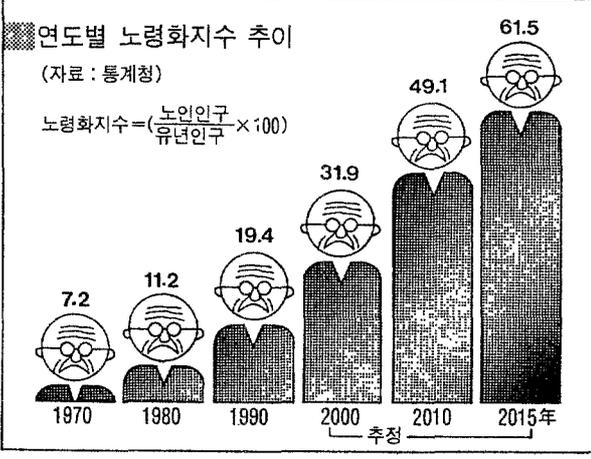
급격히 늙어가는 늙에 걸린 셈이다. 老齡化의 이유는 자연의 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물론이다.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자 1명의 출산률이 1명인 15~49세 동안의 출생자녀수는 80년 6

## 평인수명기세별고자녀數」1.6명

### 65세 이상 20만명 돌파 14년후엔 선진국 추월

최근 20년동안 유럽사회가 2.7배 늘었다는 것이 다들 알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사회가 미국이나 유럽諸國과 日本보다 훨씬 늙어갈 예정은 아니다. 老齡化지수는 55% 미만으로 1980년 7.2%, 1990년 11.2%, 2000년 19.4%, 2010년 49.1%, 2015년 61.5%로

가 늘었다. 그러나 老齡化의 진척 속도는 선·후진국에 따라 다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老齡化가 진행되고 있다. 老齡化의 진행 속도를 나타내는老齡化지수가 1980년 7.2%, 1990년 11.2%, 2000년 19.4%, 2010년 49.1%, 2015년 61.5%로



명에서 70년 4.5명, 80년 2.7명, 90년 1.6명 정도로 계속 낮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1.84명, 일본 1.75명, 프랑스 1.85명, 이란 0.9명, 우간다 0.7명이다.

지난해 선진국의 평균 출생자녀수는 1.90명, 개도국의 평균 출생자녀수는 2.81명이다. 다만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老齡化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국가를 단정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수칙이다. 결혼연령, 여자 1명의 출산률, 아수명, 자기 해약률, 100살이 되는 나이, 80살이 되는 나이, 비장애가 될 것이다. 또 우리나라 선진국의 老齡化 속도를 판별할 수 있는 수칙이다.

와 많은 사람들의 현저한 감소의 원인이지만, 79년에는 65·8세였던 것이 85년에는 69·0세, 90년에는 71·3세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노인인구 비중이 1980년 7.2%로 1990년 11.2%, 2000년 19.4%, 2010년 49.1%, 2015년 61.5%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노령화 사회의 이점은 노령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제조업체의 이력나과 사회적 복지제도 확충에 따른 제조업종가가 갈수록 심각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고한다.

통계청의 김민정 기획과장이 이의대행연립제도에 각종 노후보장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상황에서 향후 노인인구의 비중이 2010년 49.1%로 2015년 61.5%로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노년 문제점으로 『美國』의 『비트한 일』 아델기어의 정년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다. 『영문』에서 노년 생활, 조부수령(영문)에 대해 다룬 것은 장수인구의 증가를 바랄 수 없으나 노년 수칙이다. <孫顯德 기자>

## 景氣종합지수 이달부터 바뀐다

현재의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기상을 알려주는 경기종합지수(CI)가 이달부터 대폭 개편됐다.

통계청은 87년 하반기이후 두드러진 노사분규등으로 제조업과 수출부문의 산업활동이 위축된 반면 내수·건설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제조업중심의 현행 경기종합지수의 경기반영도가 떨어졌다고 보고 지수구성지표에 내수·건설부문의 반영도를 높였다.

지수의 경기반영도가 미약해졌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의 경기를 단기적으로 예측해주는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지표도 예측성이 약해진 제조업평균근로시간과 종합주가지수, 통화(M1), 제조업入職率, 신용장(L/C)내도액등을 빼고 회사채수익률, 원재료출하지수, 수입허가서(I/L)발급액, 건설용 원재료생산지수, 제조업 입직자를 취업자로 나눈 비율로 대체하거나 추가했다.

## 제조업中心서 탈피... 內需반영률 높여 시멘트소비량·輸入額 등 지표에 추가

통계청은 이번 지수개편에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주는 경기동행지수의 구성지표에 非내구소비재 출하지수와 시멘트소비량 수입액등 내수산업활동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고 종전 구성지표 가운데 하나인 제조업 노동자지수를 非농가 취업자수로 바꾸었다.

제조업 노동자지수를 뺀 것은 제조업체의 생산 자동화추진으로 근로자수가 경기의 好·不況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둔화추세를 보여 제조업 노동자

경기선행지수의 이같은 구성지표변경으로 경기선행지수의 예측범위는 종전 4·5개월에서 6·2개월로 늘어났다.

통계청은 이와함께 경기후행지수의 구성지표에서도 경기의 사후반영도가 낮아진 제조업임금과 단위노동비용지표를 빼고 실업률지표를 추가했다.

현행 경기종합지수는 지난 88년 7월에 개편된 것이며 이번 개편은 지난 81년 지수개발이후 3번째이다.

# 景氣지수 항목 大幅개편

統計廳 현실經濟흐름 제대로 반영케

## 株價·근로자指數 등 제외 건설·內需 소비 항목 보강

통계청은 매월 발표하는 종합경제지수가 현실경제흐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항목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

통계청은 7월 경기종합지수가 경제의 후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수의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종합지수가 경제추진에 따른 지수흐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개편항목은 7월 종합지수부터 새로운 체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매월 발표하는 종합경제지수가 현실경제흐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항목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

통계청은 7월 경기종합지수가 경제의 후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수의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종합지수가 경제추진에 따른 지수흐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통계청은 7월 경기종합지수가 경제의 후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수의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종합지수가 경제추진에 따른 지수흐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통계청은 7월 경기종합지수가 경제의 후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수의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종합지수가 경제추진에 따른 지수흐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통계청은 7월 경기종합지수가 경제의 후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수의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종합지수가 경제추진에 따른 지수흐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통계청은 7월 경기종합지수가 경제의 후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수의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종합지수가 경제추진에 따른 지수흐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인력난이라고 아우성 속에서도 고학력여성실업자는 많지 않는 기이한

# 高學歷여성失業 급증추세

로 지난 80년 39만명의 비해서 3배이상 늘었다(통계청인구및 주택센서스)。  
이 중 실업자수는 지난 80년 1만3천명에서 지난해 3만4천명이란 매년 증가하고 추세。  
이 중 중졸이하 여성실업자가 지난 80년 8만7천명에서 지난해 2만5천명으로 고졸여성 실업자가 5만1천명에서 7만4천명으로 줄었고 그 과 따졌을 경우(다음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이러한 현상의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인력을 단호히 수용하거나 양성보

## 10년새 3배이상 늘어난

기업들 저학력 단순노동직만 채용  
새職種 개혁등 자기개발노력 필요



단순 노무직이나 사무직에만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바람에 대졸여성의 취업은 계속 어렵다.

여성의 학력별취업률(%)

연도	중졸이하	대졸
80	60.8	32.8
85	68.0	40.9
90	76.9	46.7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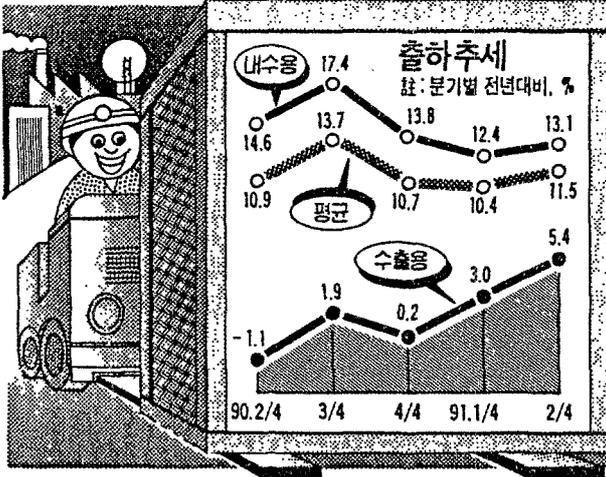
대졸이하 못하고 특수부채이므로 좋거나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추대졸이상 여성취업자중 시험을 통해 입사한 사람만 14.5%에 불과하고 학교친지의 알선 등을 통해 구직 한 사람이 34.5%

나 차지했다. 이 중 대부분이 기업에 이 고졸 여성인력채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취업에 성공한 수는 별채하기 때문이며 절반정도로 대졸취업정도의 취업이 되고 있다. 이는 중졸이하 여성실업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취업여성의 취업률」에 따르면 80년 취업률은 54.5%였지만 85년 51.5%로 2년 사이 3%포인트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취업여성의 취업률」에 따르면 80년 취업률은 54.5%였지만 85년 51.5%로 2년 사이 3%포인트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취업여성의 취업률」에 따르면 80년 취업률은 54.5%였지만 85년 51.5%로 2년 사이 3%포인트 떨어졌다.

<申然경기자>

현상의 계속되고 있다. 이고 학력의 차이로 인한 이차 차별현상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1달 8만원이

# 경기 內需의존 심화



통계청, 7월중물류량  
국내경기가 여전히 호조  
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내수  
상업은 수출보다는 내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구  
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  
다.  
9월물제청이 발표한 7  
월중 생산활동지표에 따르  
면 생산과 출하가 전년동월  
대비 8.5%와 9.3%가  
각각 성장, 경기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출하가운  
데 내수용이 11.6%나 증  
가한 반면 수출용이 1.4  
% 증가에 그쳤다.

## 出荷작년비 11.6%늘어 수출부진·就業者서비스편중여전

그러나하면 내수용 소비  
재출하는 지난 1월 21.2  
%가 증가한 후 대폭 감소,  
4월중엔 8.6%까지 줄어  
들었으나 5월중엔 21.9%  
로 증가, 소비자가 추세가  
급속상승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건설부문의 산도 건설하  
가면 전이 지난 1월 28.9  
% 증가했고 비로 지난 5월  
마이너스 16.4%까지 급속  
감소했으나 7월중엔 다  
시 21.2%로 대폭 반전, 앞  
으로 이틀이 가면 전이 건설  
로 이어질 5-6개월후에  
는 건설과업의 재연될 소지  
를 보인다.  
고용부문의 산 취업자수  
가 전년동월 대비 44만여명

명이 증가, 실업률은 2.2  
%로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증가자의 55.  
6%를 건설중 서비스분야  
가 차지, 여전히 서비스부  
문의 취업증가세가 이계  
속되고 있으며 반면에 제조  
업분야의 취업자수는 작년  
동기와 비슷한 추세에 머물  
고 있다.



# 陸路운수수입 수입증대

## 작년 철도·항공은 10% 이상 신장

지하해운과 철도의 각종 수입은 작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천6백25만 원으로 88년(2천4백82만 원)에 비해 5.8% 증가했다. 그중 버스·시외버스 수입은 1.1%와 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외버스의 대폭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은 피하기 위해 철도·항공이 대폭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대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우리나라의 여객수입은 철도·항공의 여객수입이 88년보다 15.2%와 12.2% 각각 증가한 반면, 해운 수입은 1천3백80억 원으로 88년(1천280억 원)보다 3.9% 증가했다. 특히 고속버스와 시외 시내 버스는 0.4%, 4.7%씩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작년의 경우 유수 관공서비스업의 여행업 수입과 보관창고업의 수입이 88년보다 46%와 31.8%씩 각각 증가했다. 이 같은 신장세는 여행업 수입의 증가와 해운업자 유화로 여행업 수입이 89년의 7백78개소에서 1천13개소로 30%나 많아졌기 때문이다. 보관창고업은 작년도 추곡수매량이 89년보다 75% 늘어난 데다 창고보관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의 12월작년 4월 우리나라 전체유수및창고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90년 유수통계조사」 잠정 집계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90년말 현재 우리나라

유수 및 보관창고업은 모두 13만 5천 4백 84개소, 총업원수는 65만 7천 70명, 유수고정자산은 총 16조 9천 3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소에서 90년 한 해 동안 15조 5천 4백 88억 원의 유수수입(매출액)과 9조 1백 5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89년에 비해 사업체수와 종업원수는 각각 11.5%와 3.4% 증가했고, 유수수입과 부가가치는 15.5%와 17.3% 각각 증가했다. 한편 여행업에 지출한 여행비용이 전년비 상승률으로 89년보다 14.8% 증가했다. 각종 유수업은 여행업 선

업·보관창고업 다음이 유수 수입증가세를 보인 업종인 유상화물도 89년의 2조 5천 1백 88억 원에서 90년에는 3조 2백 32억 원으로 20% 증가했다. 화물운송업의 수입증가도 건설업 등 내수호황과 수입증가로 인한 물동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작년의 항공기 이용자수는 국내선 1천 82만 명, 국제선 9백 62만 7천 명으로 모두 2천 44만 7천 명으로 89년(1천 7백 23만 5천 명)보다 18.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선 이용자수는 20.9%, 국제선은 16.2% 각각 증가했다.

고속·市内外버스

이른 심각한 교통체증  
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등 내수호조수급확대로  
가내수요가 증가하여  
단독·해운연선사업의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중요한 대안책이 되고  
있었다. 운수수단별로  
보면 교통체증완화를  
속도와 시너지효과의  
운수수요가 증가하여  
교통수요의 증가는  
활기찬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나타났다.

고속·市内外버스  
89년도보다 20% 증가  
가  
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  
고 △택시 2조 8천 5백

# 고속·市内外버스

## 여행사·창고·鐵道호황

전체賣出額 총 15조 5천억... 15% 성장

운수사업업체로 치  
면 해외여행자유화  
영양산업의 수입이  
46억  
입이 1.7% 감소하  
도했다.  
이밖의 하역업(16.7  
(23.1%)의 비중  
가  
두드러졌다.

<運輸業現況>

단위	89년	90년	구성비 (%)	전년비율 (%)
사업체 수	121,478	135,484	100.0	11.5
업종 수	118,494	132,342	97.7	11.7
수업 수	470	438	0.3	-6.8
수업 수	7	7	0.0	0.0
운수관련서비스	2,507	2,697	2.0	7.6
종업원 수	631,149	652,670	100.0	3.4
업종 수	517,051	531,919	81.5	2.9
수업 수	26,495	25,939	4.0	-2.1
수업 수	19,909	20,770	3.2	4.3
운수관련서비스	67,688	74,042	11.3	9.4
운수 수	13,454.7	15,542.8	100.0	15.5
업종 수	8,139.2	9,394.8	60.4	15.4
수업 수	2,673.6	3,095.8	19.9	15.8
수업 수	1,729.2	1,940.1	12.5	12.2
운수관련서비스	912.7	1,112.1	7.2	21.8
운수 비	11,528.5	13,239.9	100.0	14.8
업종 수	6,715.2	7,622.7	57.6	13.5
수업 수	2,392.3	2,784.0	21.0	16.4
수업 수	1,608.3	1,832.9	13.8	14.0
운수관련서비스	812.7	1,000.3	7.6	23.1
부가가치	7,686.8	9,015.2	100.0	17.3
업종 수	5,299.0	6,190.5	68.7	16.8
수업 수	976.0	1,158.0	12.8	18.6
수업 수	738.0	816.8	9.1	10.7
운수관련서비스	673.8	849.9	9.4	26.1

수업수업업체  
2만 6천 4백 95명에서  
2만 5천 9백 39명으로  
2.1% 줄어 들었다.  
사업체수를 구체적으  
로 보면 △고속버스 10  
△시외버스 1백 40△시  
내버스 3백 49△택시 8  
만 3천 2백 66△전세버스  
2백 62△도노화물운송  
4만 7천 9백 90△자동차  
정류장 2백 75△차량  
대 46△해상운송 3백 5  
△내륙수상운송 68△화  
물운송대행 66△요양업  
선 1천 13△도판차고 1  
천 4백 80△하역 66△포  
장업수 52△선박중개 20  
개 등이다.  
△鄭萬昊기자

統計廳 발표 「90년 運輸業 실태」 調査 내용

통계청 발표 90년 1월 1일 기준 국내 운수수입액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이 중 도로 운수수입액 500억 원, 항공 운수수입액 150억 원, 철도 운수수입액 100억 원, 해상 운수수입액 80억 원, 기타 운수수입액 170억 원으로 나타났다.

收入 침체

90년 1월 1일 기준 국내 운수수입액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이 중 도로 운수수입액 500억 원, 항공 운수수입액 150억 원, 철도 운수수입액 100억 원, 해상 운수수입액 80억 원, 기타 운수수입액 170억 원으로 나타났다.

90년 1월 1일 기준 국내 운수수입액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이 중 도로 운수수입액 500억 원, 항공 운수수입액 150억 원, 철도 운수수입액 100억 원, 해상 운수수입액 80억 원, 기타 운수수입액 170억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증가한 것은 항공 운수수입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이 중 국제 항공 운수수입액 8.3% 증가, 국내 항공 운수수입액 22.1% 증가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 항공 운수수입액이 80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16.3% 증가했다.

반면 도로 운수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이 중 고속도로 운수수입액 19.9% 증가, 일반 도로 운수수입액 7.6% 증가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운수수입액이 300억 원에서 358억 원으로 19.3% 증가했다.

철도 운수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이 중 일반 철도 운수수입액 11.5% 증가, 고속철도 운수수입액 13.4% 증가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철도 운수수입액이 65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15.4% 증가했다.

91.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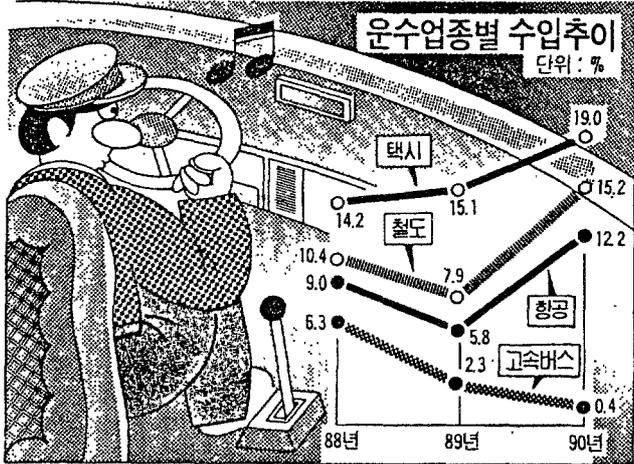
# 창고·여행알선업 大好況

## 작년 收入 32~46% 늘어

### 교통체증... 버스는不振 못면해

#### 통계청조사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1~8월 교통수입추이'에 따르면, 택시 수입이 19.0% 증가한 15.2조 원, 철도 수입이 15.1% 증가한 14.2조 원, 항공 수입이 12.2% 증가한 10.4조 원, 고속버스 수입이 7.9% 증가한 9.0조 원, 일반버스 수입이 5.8% 증가한 2.3조 원, 기타 수입이 2.3% 증가한 0.4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택시 수입으로, 전년 대비 19.0% 증가했다. 이는 택시 수입이 1988년 12조 8천억 원에서 1989년 15조 1천억 원, 1990년 18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택시 수입은 전체 교통수입의 16.7%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택시 수입으로, 전년 대비 19.0% 증가했다. 이는 택시 수입이 1988년 12조 8천억 원에서 1989년 15조 1천억 원, 1990년 18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택시 수입은 전체 교통수입의 16.7%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택시 수입으로, 전년 대비 19.0% 증가했다. 이는 택시 수입이 1988년 12조 8천억 원에서 1989년 15조 1천억 원, 1990년 18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택시 수입은 전체 교통수입의 16.7%를 차지했다.

# 4/4분기 보도기사

(10월~12월)

여 백

# 物價釜山이 가장 높다

## 올들어 「소비자」 10.5% 뛰어

# 全州·光州도 9%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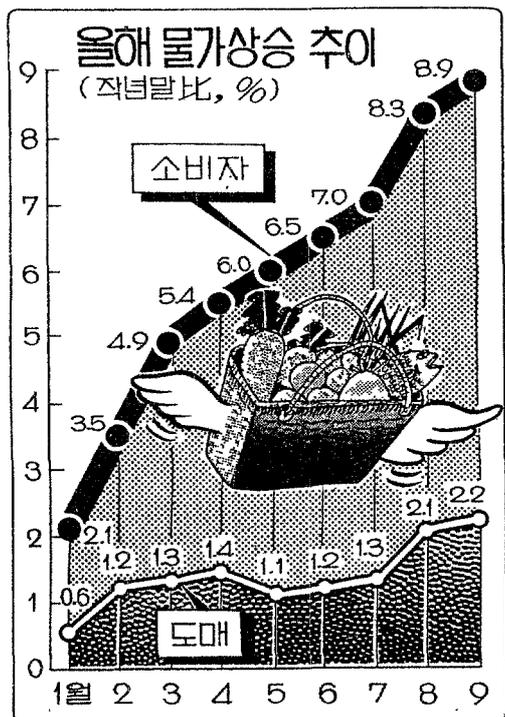
전국평균 웃돌아 가격동향 점진등 대책강구

서울에 비해 물가관리체제가 느슨한 釜山·全州·光州·春川 등 지방물가가 전체 물가오름세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釜山지방 소비자가 9월말까지 10.5% 올라 전국 평균물가상승률(8.9%)을 크게 웃돌며 「한자리수」 물가억제목표선을 이미 넘어섰다. 경제기획원은 1일 오후를

9월말까지의 전국 평균 소비자가 상승폭에 비해 물가가 더욱 많이 오른 것을 가도지는 釜山을 비롯, 全州(9.3%)·光州(9.2%)·春川(9%) 등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극장을 중심으로 개별품목의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해하고 적절한 수급대책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崔瑛奎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오는 12일 내무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회의」에 참석, 지방의 물가관리에 각시·도지사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釜山 등 高물가 도시의 물가가 문제되는 것은 수급차질 때문

물가상승을 초래할 특수요인이 발견되지 않은데 있다면서 연말까지 월동기품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물가를 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 경우 9월말까지 소비자가는 8.7% 올라 전국 평균을 약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物價상승률 지역별 큰차이

釜山 10.5% 최고 清州·仁川 7% 線

## 9월 물가 0.6% 상승세일

올들어 8.9%올라 年間 한자리수 유지 가능성

### 통계청·韓銀 발표

통계청과 韓銀은 1일 9월 중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보다 0.6% 도매물가는 0.1%씩 각각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소비자물가는 올들어 9월까지 8.9% 도매는 2.2% 올랐다.

경제기획원은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의 1.3%보다 크게 둔화,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연말까지 한자리수 억제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전망이다.

9월의 소비자물가는 1년전에 비해 9.0% 오른 것으로 지난 8월의 9.5%보다 1.5%포인트 낮아졌으며, 지난해 9월의 연초대비(9.0%)보다 1.0%포인트(9.4%)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0.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9%로 가장 낮았다.

기획원은 9월 물가(8월)는 추후 물가 상승률과 추세를 고려한 요인이 많았으나, 야채값 상승에 힘입어 예년보다 비교적 상승률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률은 8월 중 태풍 영향으로 크게 올랐던 상추가 40.5% 하락한 것을 비롯, 호박 14.8% 고춧가루 11.7% 포도 11.4% 배추 4%씩 각각 값이 내렸다.

반면 증고수업물가 9% 올랐고, 면파(17.0%) 달걀(13.4%) 고추(14.3%) 등 9월 물가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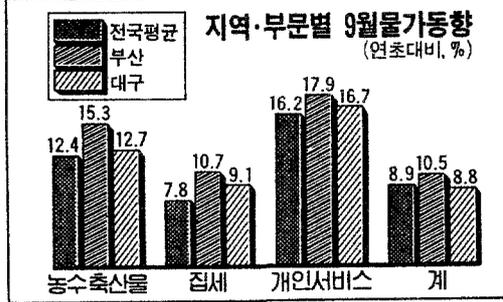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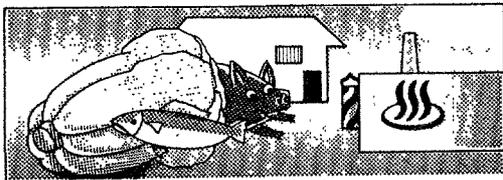
기획원은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해 ▲인상세 소와 ▲연말 쌀값 상승이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물가를 다소 낮추는 등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10,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0.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레를 들어 연말까지 한자리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당국이 지수관리 기술장 한자리수 유지가 가능하다 고 물가고배를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주부들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물가안정세를 느끼고 있도록 경제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국이 마련한 의미면공공요금 등을 상승요인이라 내년도부터 물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책은 무엇보다도 물가안정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물가안정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를 점진하는 한편 내년 총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선거에 대비, 미리 물가인축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안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통계청 발표 「9월 소비자 물價」

물가가 7마 오름이다. 지난 8월의 16만민원물가가 7%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소비자물가가, 9월에는 또 다시 0.9%가 오른다. 물가물량의 가교라고 했던 9월은, 9월 8.9%의 상승폭이었던 10월의 물가상락 폭까지도 물가물량에 흡수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름이다. 지난 8월의 16만민원물가가 7%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소비자물가가, 9월에는 또 다시 0.9%가 오른다. 물가물량의 가교라고 했던 9월은, 9월 8.9%의 상승폭이었던 10월의 물가상락 폭까지도 물가물량에 흡수될 예정이다.

물가물량의 가교라고 했던 9월은, 9월 8.9%의 상승폭이었던 10월의 물가상락 폭까지도 물가물량에 흡수될 예정이다.

물가가 7마 오름이다. 지난 8월의 16만민원물가가 7%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소비자물가가, 9월에는 또 다시 0.9%가 오른다. 물가물량의 가교라고 했던 9월은, 9월 8.9%의 상승폭이었던 10월의 물가상락 폭까지도 물가물량에 흡수될 예정이다.

물가가 7마 오름이다. 지난 8월의 16만민원물가가 7%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소비자물가가, 9월에는 또 다시 0.9%가 오른다. 물가물량의 가교라고 했던 9월은, 9월 8.9%의 상승폭이었던 10월의 물가상락 폭까지도 물가물량에 흡수될 예정이다.

물가가 7마 오름이다. 지난 8월의 16만민원물가가 7%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소비자물가가, 9월에는 또 다시 0.9%가 오른다. 물가물량의 가교라고 했던 9월은, 9월 8.9%의 상승폭이었던 10월의 물가상락 폭까지도 물가물량에 흡수될 예정이다.

물가가 7마 오름이다. 지난 8월의 16만민원물가가 7%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소비자물가가, 9월에는 또 다시 0.9%가 오른다. 물가물량의 가교라고 했던 9월은, 9월 8.9%의 상승폭이었던 10월의 물가상락 폭까지도 물가물량에 흡수될 예정이다.

# 物價 상승행진... 연말억제線 위험

## 貿易적자 가세... 經濟 깊은 "주름살" 낙관론불구 不安요인은 散在

각 5천원(백스고기 2만 5천원, 닭고기 2만 1천원, 돼지고기 2만 1천원)에 추후 물가상락을 우려 수반

이 미에 물가상락을 우려 수반

### 秋穀수매가등 큰변수

물가물량의 가교라고 했던 9월은, 9월 8.9%의 상승폭이었던 10월의 물가상락 폭까지도 물가물량에 흡수될 예정이다.

물가가 7마 오름이다. 지난 8월의 16만민원물가가 7%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소비자물가가, 9월에는 또 다시 0.9%가 오른다. 물가물량의 가교라고 했던 9월은, 9월 8.9%의 상승폭이었던 10월의 물가상락 폭까지도 물가물량에 흡수될 예정이다.

물가가 7마 오름이다. 지난 8월의 16만민원물가가 7%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소비자물가가, 9월에는 또 다시 0.9%가 오른다. 물가물량의 가교라고 했던 9월은, 9월 8.9%의 상승폭이었던 10월의 물가상락 폭까지도 물가물량에 흡수될 예정이다.

물가가 7마 오름이다. 지난 8월의 16만민원물가가 7%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소비자물가가, 9월에는 또 다시 0.9%가 오른다. 물가물량의 가교라고 했던 9월은, 9월 8.9%의 상승폭이었던 10월의 물가상락 폭까지도 물가물량에 흡수될 예정이다.

# 國內경기 진정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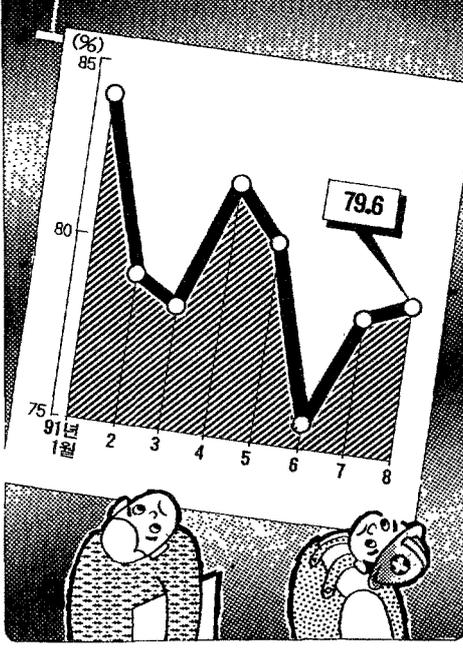
## 수출·建設투자 감소로

### 산업생산·출하 줄어... 제조업은 상승

수출부진과 건설투자 감소로 91년 9월 산업생산과 출하가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그러나 제조업은 0.3% 증가했다.

91년 9월 산업생산과 출하가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그러나 제조업은 0.3% 증가했다. 이는 수출부진과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업은 0.1%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전년동월비)



91년 9월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수출부진과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업은 0.1% 증가했다.

91년 9월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수출부진과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업은 0.1% 증가했다.

91년 9월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수출부진과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업은 0.1% 증가했다.

91년 9월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수출부진과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업은 0.1% 증가했다.

91년 9월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수출부진과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업은 0.1% 증가했다.

91년 9월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수출부진과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업은 0.1% 증가했다.

# 景氣둔화

8월

## 생산 0.2% 줄어

### 수출·건설투자 증가세 감소

수출 부진과 건설투자 증가세의 감소로 그동안 활발하던 내수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3일 「8월중 산업활동지표」를 발표, 「산업생산」은 7월보다

0.2%가 줄었고 수출도 0.3%의 소폭으로 증가하는 등 생산과 수출·도산 때 판매가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한편 「각종 지표들의 추세」도 미루어 향후 국내경기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산업활동의 증가율이 7.8%, 제조업

가동률도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국내경기는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8월중에는 특히 「7.9」건설경기 대책의 영향으로 건축허가 면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1%가 줄었고, 건설투자도 13.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그동안 내수경기의 활황을 주도했던 건축관련 지표들이 큰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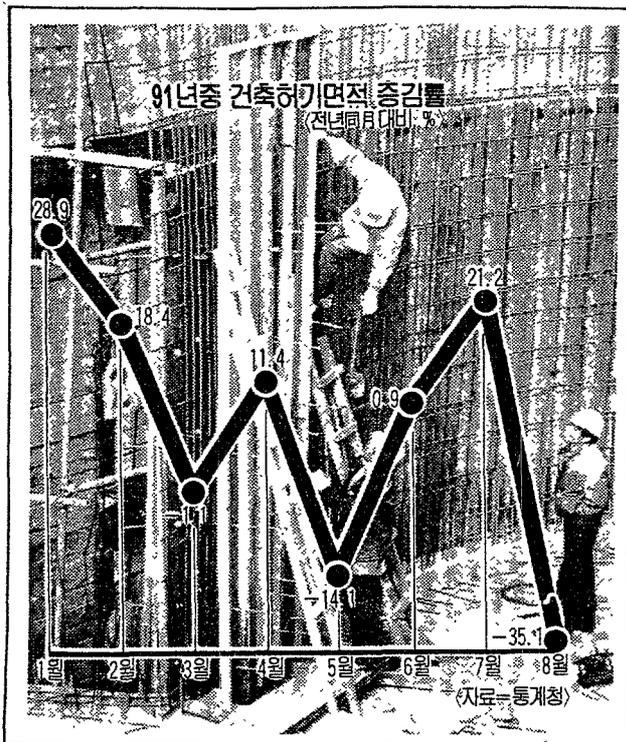
의 하락세를 보였다.

건축허가 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37.9%, 상업용은 40.4%나 줄었고, 건설투자는 공공부문(8.8%) 민간부문(16.4%)이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 부문에서는 민간계수가 작년 8월에 비해 13.3% 증가하고 기계류 수입허가(22.3%) 및 기계류 내수출하(7.1%) 등이 여전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동향은 도산매 판매액이 전달보다 0.4%

줄어든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7월의 9.2%에서 8.7%로 다소 낮아지고, 내수용 소비재출하도 7월의 20.5%에서 9%로 낮아져, 그간의 過消費 열풍이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허가·受注 동시감소

소비재출하 9%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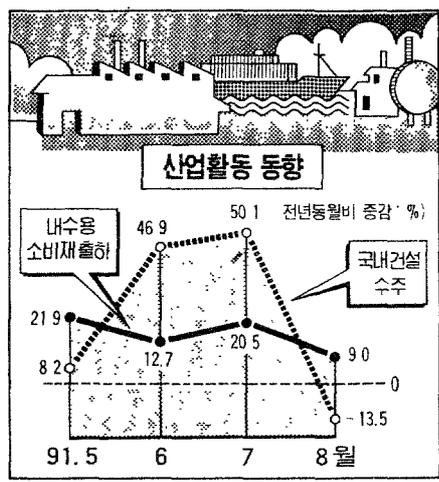
과열內需 진정국면

통계청 8월통향

통계청은 3일 지난 8월 중국 내정실률자가 1년전보다 큰폭으로 감소하고

중국의 이달 발표한 산업활동지수에 따르면 8월 중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상업용 구분없이 모두 크게 감소, 1년전보다 35.1%나 줄었으며, 국내건설수주도 13.5% 축소됐다.

건축허가 및 수주가 동시에 감소추세를 보이는지 지난 8월 11일 이후 33개월만에 처음 있는 일로 보인다. 다만 건설경기 진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



이된다. 또 내수용 소비재출하는 지난 5~7월 석탄가격의 평균 20% (전년동월비) 에서 8월엔 9% 떨어진데 그쳐 증가세가 누그러졌다. 그러나 생산재를 포함한 전체 내수출하는 전년비 10.5%늘어 수출증가율을 1.2%와 크게 대조해서가 지 내수의진정, 성장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은 향후 국내 경기는 수출및 건설투자의 증가세 감소에 따라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8월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9.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실업률은 2.0% (계절조정) 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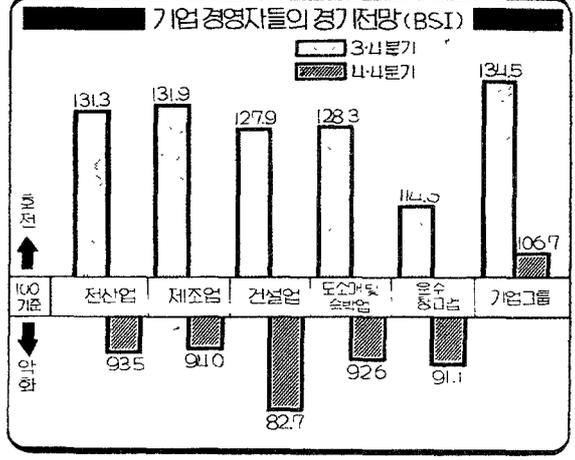
91.10.4

국내景氣전망 들쭉날쭉

조사기관마다 4·4분기 指數 큰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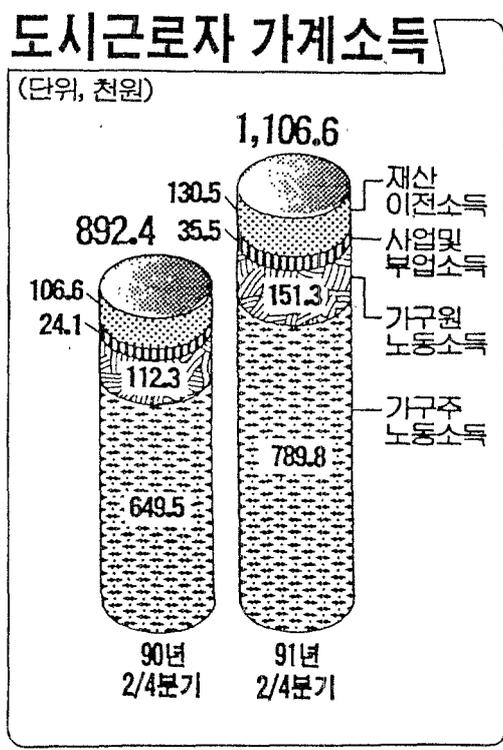
앞으로의 국내경기전망이 조사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월 통계청이 발표한 4·4분기 기업경영자경기전망에 따르면 기업경영자들은 4·4분기 (10~12월) 국내경기가 3·4분기 (7~9월) 에 비해 다소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부진·물가상승·시장개방 등 구조적 요인에 정부와 건축경기진정과 과소비억제정책들의 부진에 전방향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통계청이 전산업의 9백 20개 기업 및 30대 그룹에 대해 20개 기업 및 4·4분기 기업조사수 (BSI) 3·4분기 1100) 는 전반적인 경기의 추후 93·5% (同



# 도시근로자 110萬인 household 월평균 소득 돌파

통계청 2·4분기 조사 작년보다 24% 증가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10만6천6백원, 지난해 80만8천7백원이며, 나타났다. 통계청 7월 91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총합(에서)을 2·4분기(4·6월)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같은 때에 비해 24% 증가한 20.4%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명목상의 증가율도 소비자물가 상승률(9.1%)을 감안한 실질 증가율인 13.7%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가계수지 흑자액은 29만7천9백원(22만7백원)에 비해 35%가량(7천2백원) 증가했으며, 흑자율은 작년보다 2%포인트 높아진 28.9%로 집계됐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국 62개 시·군·구로 구성된 15만1천3백원 소득인 가구 78만9천8백원의 소득을 78만9천8백원의 소득보다 21.9% 늘어난 데 비해, 가구주의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15만1천3백원

## 실질소득이 13% 늘어 흑자 월평균 29萬7千원꼴

이와 함께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10만6천6백원, 지난해 80만8천7백원이며, 나타났다. 통계청 7월 91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총합(에서)을 2·4분기(4·6월)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같은 때에 비해 24% 증가한 20.4%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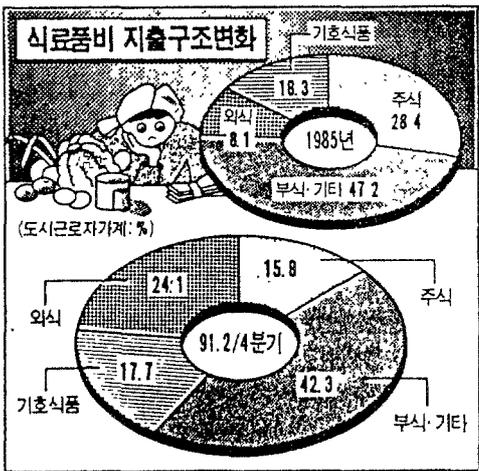
이와 함께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10만6천6백원, 지난해 80만8천7백원이며, 나타났다. 통계청 7월 91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총합(에서)을 2·4분기(4·6월)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같은 때에 비해 24% 증가한 20.4%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 家長이 집있고 高학력 젊음수륙

# 쓰름쓰름이 크다

한달평균 百10萬원 벌어 73萬원 지출  
소득보다 소비증가 빨라 "버는대로 써"

통계청 조사



통계청은 7월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지출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비증가가 빨라 "버는대로 써"고 있다고 발표했다. 소득보다 소비증가 빨라 "버는대로 써"고 있다고 발표했다. 소득보다 소비증가 빨라 "버는대로 써"고 있다고 발표했다.

평균소득은 1백10만6천6백원으로 1년전에 비해 24% 높아졌으며, 물가상승률 13.7%를 상회했다. 소득에서 세입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1백2만9천6백원으로 이 가운데 73만1천7백원을 소비지출에 쓰는 한계소비성향은 62.9%

고 29만7천9백원을 남겨 휴자율은 28.9%를 기록 1년전 26.9%보다 높 아지면서 가계수지가 다소 나아졌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이 늘 어난 액수(20만7천8백원) 가운데 소비지출이 증가한 몫(13만6백원)을 나타내 는 한계소비성향은 62.9%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가장 화려했던 주택

자가집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소비성향이 평균 75.9%, 한계 73.2%로 전월 세에 사는 가구(평균 66.2%, 한계 56.2%)보다 높 시 통계 나타났다. 또 55만 원 이하 소득수준의 가구는 소비성향이 평균 77.5%, 한계 76.4%로 중위 이하 평균 70.4%, 한계 54.9%에 비해 평균 70.3%, 한계 59.9%보다 각각 훨씬 높았다. 자가집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소비성향이 평균 75.9%, 한계 73.2%로 전월 세에 사는 가구(평균 66.2%, 한계 56.2%)보다 높 시 통계 나타났다.

# 점유통 消費성향 높다

2분기 근로자家計 한달 110만원벌어 80만원지출

월고고화형일수록 소비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월부터 식료품비 지출액의 소비비중이 주식비를 앞섰는데 이와 관련해 소비품목까지 주식비보다 많이 소비되고 있다. 피제비 500차과일비가 두 배로 늘어난데 비해 기타 소비품목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액이 2.4분기 중 5.5% 증가한 반면 수입액이 2.4분기 중 2.4% 증가했다. 수출액이 2.4분기 중 5.5% 증가한 반면 수입액이 2.4분기 중 2.4% 증가했다.

학업비는 가구주 학력 이 높아져서 학제소비 비중이 54.9%로 늘었다. 반면 식생활비 비중은 67.4%로 줄어든 것이다. 또 주택비 비중은 2.4분기 중 2.4% 증가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에서는 2.4분기 중 2.4% 증가했다. 또 2.4분기 중 2.4% 증가했다.

또 가스기구 구입비는 97% 증가한 44.3%로 늘었다. 또 2.4분기 중 2.4% 증가했다.

이밖에 물가 상승으로 주저비(42.4%)가 크게 늘었고 자동차보험비(19.4%) 보험료(20.1%) 등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 高학력·有주택자 더 심해 기호食品費지출 처음 主食費 웃돌아 “자가용구입” 개인交通費 54%나 급증

2.4분기 중 2.4% 증가했다.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논란

## 연탄·자동차정비업 등 이의제기

◇산업분류 개정관련 업계 요구사항 비교표

업 계	현행분류	개정분류	업계요구
연탄제조업	제조업	광업	제조업
자동차정비수리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컴퓨터프로그램개발	사업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
자료처리업(키번치)	"	"	"
사진현상업	개인서비스업	"	"
영화제작업	영화제작및배달업	영화제작	"
연구소	공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동대문시장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연탄 제조업 등 가비민간  
공공서비스·개인서비스업·  
서비스업 비민간·공공서비스업  
비민간·공공서비스업  
비민간·공공서비스업  
비민간·공공서비스업

연탄 제조업 등 가비민간  
공공서비스·개인서비스업·  
서비스업 비민간·공공서비스업  
비민간·공공서비스업  
비민간·공공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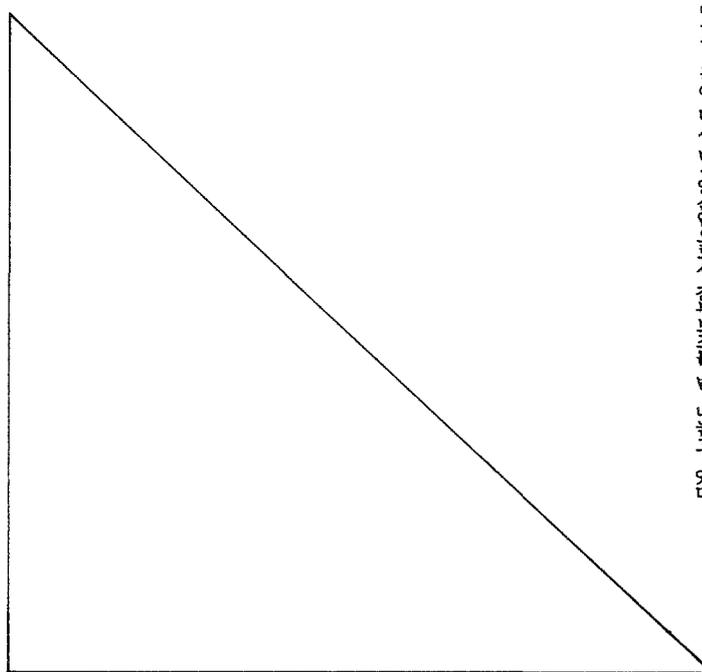
연탄 제조업 등 가비민간  
공공서비스·개인서비스업·  
서비스업 비민간·공공서비스업  
비민간·공공서비스업  
비민간·공공서비스업

# 稅制·금융지원 불이익

##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

국제의 기준에 맞춰 개정... (중략) ... 개정... (중략) ...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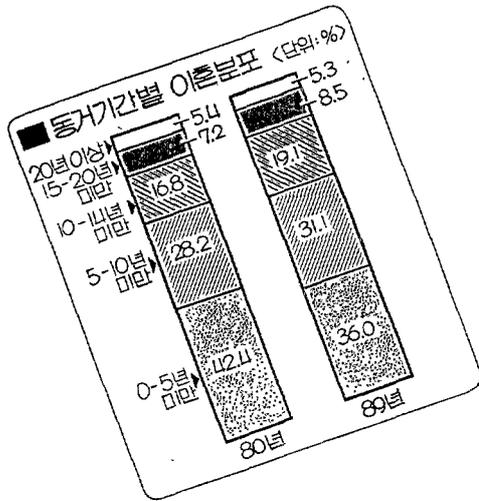
아음상의... (중략) ... 개정... (중략) ... 개정...



# 離婚 급증

# 여덟쌍에 한쌍꼴

이혼자 40% 증은 5년도 못살고 헤어져  
연애결혼이 중매보다同居기간 더 짧아



이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체이혼은 40%가까이 늘었다. 5년미만 이혼이 36%로 증가했다. 10년 이상 이혼은 3.1%로 줄었다. 15년 이상 이혼은 8.5%로 늘었다.

21일 통계청이 처음으로 작성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89년 총 이혼건수(신고분+신고자연 추산)는 4만 8천 2백 90건으로 전년 대비 1천 1백 13건(2.3%) 증가했다.

평균 1만 4천 3백에서 70년대 후반 2만 건, 80년대 초반 3만 2천 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혼이 계속 늘고 있다. 10년 이상인 경우가 32.9%다.

이혼은 주로 부부불화 때문으로 전체이혼자 중 64.5%가 70년(70년) 64.5%→89년 88.1%로 증가했다.

남자가 25~29세에서 결혼하는 비율이 65.9%로 여자가 절반 이상(52.7%)인 20~24세에 결혼하고 있다.

남자 중매를보다 이혼이든 기간(연)이 7.9년, 중매 기간(연)이 9.4년(이)다. 짧다. 이혼자 중 40%가 5년 미만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자의 재혼비율(70년 5.4%→89년 7%)보다 증가속도가 빠르다. 이혼자 중 27.8%는 26~7세(89년)에 재혼했다. 남자가 26.7세(89년)에 재혼했다. 여자가 24.8세(72년) 22.6세(89년)에 재혼했다.

**통계청 발표...이혼신고서 첫부분**

우리국민의 결혼생활이 행복가장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혼신고서 4만 4천 8백 45건의 55.5%가 부부간의 이혼이라고 되어 있다. 그 밖의 이혼 사유는 1. 별거(12.5%), 2. 이혼(18.4%), 3. 기타(13.6%) 등이다.

이혼신고서 4만 4천 8백 45건의 55.5%가 부부간의 이혼이라고 되어 있다. 그 밖의 이혼 사유는 1. 별거(12.5%), 2. 이혼(18.4%), 3. 기타(13.6%) 등이다.

이혼신고서 4만 4천 8백 45건의 55.5%가 부부간의 이혼이라고 되어 있다. 그 밖의 이혼 사유는 1. 별거(12.5%), 2. 이혼(18.4%), 3. 기타(13.6%) 등이다.

이혼신고서 4만 4천 8백 45건의 55.5%가 부부간의 이혼이라고 되어 있다. 그 밖의 이혼 사유는 1. 별거(12.5%), 2. 이혼(18.4%), 3. 기타(13.6%) 등이다.

별거 △45~49세의 5.5%  
△50~54세의 7.9%  
△55~59세의 12.5%  
△60~64세의 18.4%  
△65~69세의 28.5%였다.

# 離婚 위험 연령 男37 女33세

부부의 평균해로기간 추정치 (단위: 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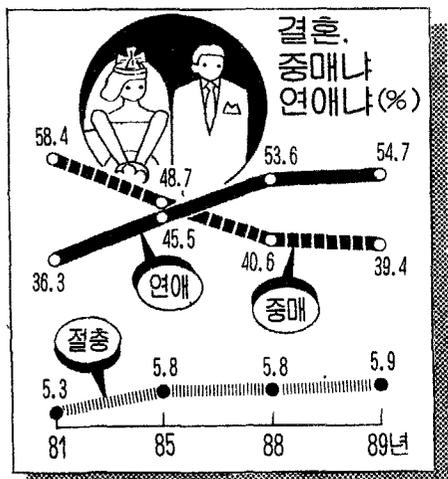
자신의 나이	남자		여자			
	자신의 생애 해로기간	자사사 해로기간	자신의 생애 해로기간	자사사 해로기간		
20세	48.9	47.5	1.5	56.9	42.6	14.3
25세	44.3	42.8	1.5	52.1	37.7	14.4
30세	39.7	38.2	1.5	47.3	32.8	14.4
35세	35.1	33.6	1.5	42.5	28.1	14.4
40세	30.6	29.0	1.6	37.8	23.7	14.1
45세	26.4	24.8	1.6	33.1	19.8	13.3
50세	22.4	20.8	1.6	28.6	16.3	12.3
55세	18.6	17.1	1.5	24.3	13.6	10.7

이혼, 여자간 이혼은 남보다 앞서는 양의 이혼자가 적었다. 또 남자의 평균 결혼기간은 11.5년인 반면 여자는 11.6년인 기간의 차이가 남보다 앞서는 10.7년, 14.4년 정도 짧은 것으로 추측된다(표참조).

지난 89년 전체 결혼건수가운데 91%는 남 부부 중합이고 9%는 여 부부의 재혼 또는 양 부부의 재혼이었다.

전통적 이혼 추위

총각과 과부의 재혼비율도 특히 결혼전력이 있는 여성이 총각을 재혼 상대로 고를 비율이 지난 72년 전 체결혼건수의 0.5%에서 3.2%에 이르렀다.



이혼연령	남자	여자
15~24세	4.0	2.4
25~29세	18.3	10.9
30~34세	29.6	29.0
35~39세	18.7	14.6
40~44세	11.7	8.0
45~49세	7.3	4.0
50세이상	7.3	3.1

89년 1.8%로 크게 늘었다.

총화인구총 재화의 비율은 남자가 지난 72년 5.4%에서 89년 7%로, 여자가 2.9%에서 5%로 높아졌다.

한편 이혼추진수가 지난 70년대 후반 1만 4천~2만 명에서 80년대 초반 1만 3천~1만 4천으로 늘었다. 그 후에도 88년 4만 1천 6백 명, 89년 4만 5천 7백 명, △작년 4만 8천 3백 명으로 계속 증가세. 이에 따라 인구 1천 명당 이혼추진수가 지난 70년대 초

반년 평균 0.41명에서 작년엔 1.13명으로 된 급격한 증가였다. 이는 美國 86년 4.89명(蘇聯 87년 3.33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88년 1.26명)와 89년 1.26명)에 거의 무관하고 泰國 86년 0.69명)보다도 훨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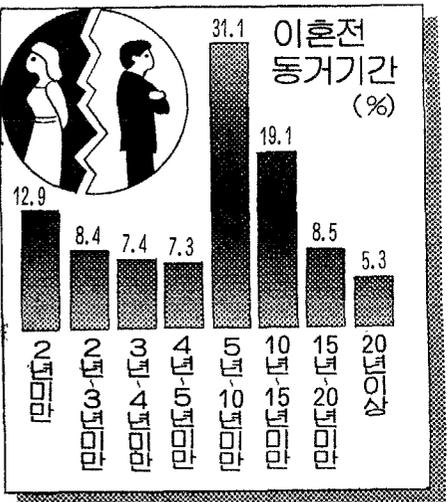
이혼하는 남녀의 헤어지기로 결정하기까지 걸린 평균 5년 내 파경 40% 전체 이혼중의 40%는 5년 안에 갈라서는 경우가 40%에 이르며 10년이 상한 게 갈라지는 이혼의 비율도 지난 70년 30.5%에서

2점(大田 1.13점)京畿(1.12점)慶南(1.04점)濟州(0.95점)순. 대체로 대도시지역이 높다. 이혼사건이 부부 불화가 지난 70년 65%에서 89년 83%로 더 높아져, 대부분을 차지. 반면 가혹한 불화가 지난 70년 8%에서 89년 3.4%, 긴급분제는 5.6%에서 1.4%로, 경제부족은 4.9%에서 2%로 낮아졌다.

남 27.8 여 24.8 세...연연결합한 55%

男 26개월 女 19개월 지나 "새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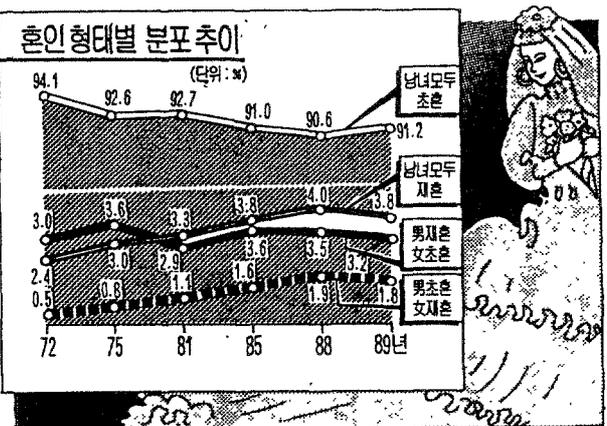
가족관 붕괴·여성자립 근원인



89년 33.9%로 늘었다(표 참조). 이혼연령이 점차 30대가 전체의 절반을 여자 25~34세가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 단계의 이혼률 증가에 따라 이혼의 비율도 증가. 이혼연령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으로 전후로 옮겨가면서 이혼률의 증가가 현저한 편이다. 이혼연령이 1.54살(0.1)에서 1.54살(0.1)로 가장 높고 仁川(1.33점) 서울 大田(1.2

이혼사건이 부부 불화보다 가정폭행에 따른 경우가 72년 40%에서 89년엔 2.2%로 낮아졌다. 반면 이혼사건의 원인 중 89년 5.5%에서 89년엔 21%로 높아졌다. 결혼한 기간이 지난 89년의 경우 33.8%, 89년 10.3%, 가혼이 27.3%, 가혼이 29.6%의 비율이 가장 선호되는 결혼 시점. <襄仁後기자>

# “파뿌리” 옛말... 이혼·再婚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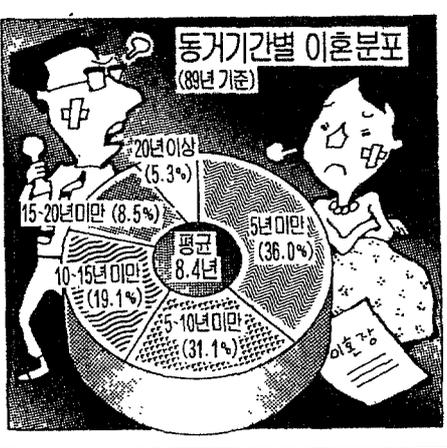
지난 20년간 부부의 불화 원인이 사회가 된 후 부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이 지난 20년간 부부의 불화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부부의 불화 원인은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족'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부부의 성격 차이'가 24.8%,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이 22.9%, '부부의 외모 변화'가 11.5%로 나타났다.

## 통계청 20년간 인구 등 태조사 분석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혼인율'은 70년대 초반 76%에서 지난해 95%로 높아졌고, '이혼율'도 0.4%에서 1.5%로 크게 높아졌다.

총혼인율은 지난해 27.8%에서 24.8%로 낮아졌고, 이혼율은 0.4%에서 1.5%로 높아졌다.



이혼 건수가 72년보다 1.4배 증가했다.

이혼 건수가 72년보다 1.4배 증가했다.

# 작년離婚 71년의 4배... 5年内과경 40%

## 初婚연령 男 27·8 女 24·8 세로 晩婚경향

### 부부연령차 좁아지고 연애가 종매보다 쉽게 결별

부부연령차가 70년대 4.7세에서 최근에는 3.3세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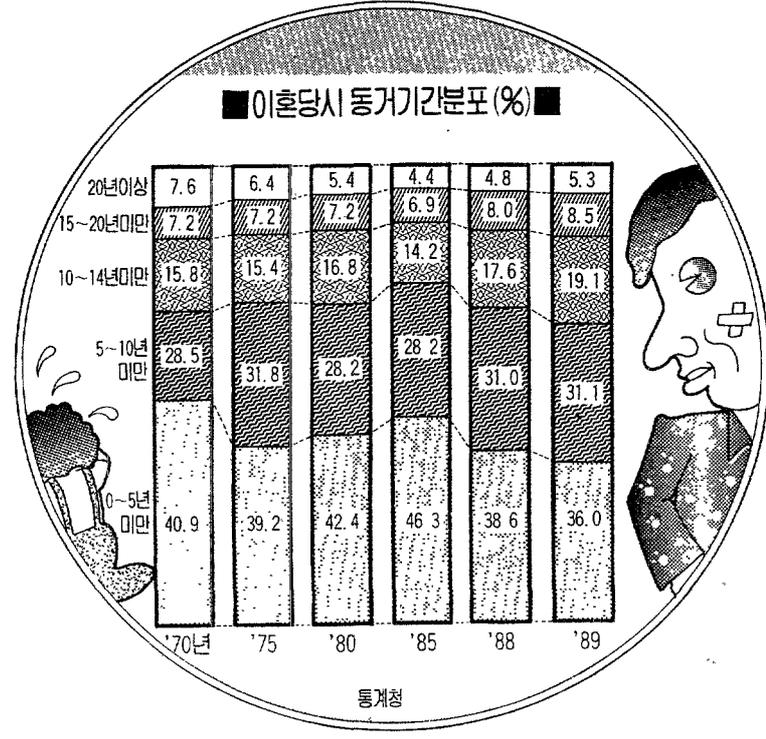
부부연령차가 70년대 4.7세에서 최근에는 3.3세로 줄었다.

이혼 건수가 72년보다 1.4배 증가했다.

나이	남자			여자		
	기대수	합계	살기	기대수	합계	살기
20	48.9	47.5	1.5	56.9	42.6	14.3
25	44.3	42.8	1.5	52.1	37.7	14.4
30	39.7	38.2	1.5	47.3	32.8	14.4
35	35.1	33.6	1.5	42.5	28.1	14.4
40	30.6	29.0	1.6	37.8	23.7	14.1
45	26.4	24.8	1.6	33.1	19.8	13.3
50	22.4	20.8	1.6	28.6	16.3	12.3
55	18.6	17.1	1.5	24.3	13.6	10.7

◇부부가 앞으로 함께 살 기간 (90년 추정치, 단위: 年)

이혼부부가 70년대초 연간 1만4천쌍에서 지난해 4만8천쌍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89년에는 전체 혼인중 남녀 어느 한 쪽 또는 모두 재혼인 경우가 8·8%를 차지, 재혼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 89년의 이혼사례중 연애결혼 부부는 결혼 7·9년만에, 중매는 9·4년만에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 연애결혼 부부가 중매결혼 부부보다 더 빨리 파경을 맞고 있다.



# 전체 혼인중 재혼비율 8.8%

# 離婚작년 4만8천쌍

## 통계청 분석

평균수명이 늘어 30세 남자, 25세 여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기간은 지난 70년 32~34년에서 90년에는 37~38년으로 늘었다. 그러나 5남녀간 수명차이, 부부간 연령차로 인해 30세 남자가 25세 여자와 과부로 지낼 기간은 평균 10~14년에 불과하다.

통계청은 21일 지난 20년간 혼인법에 따라 제출된 혼인 및 이혼신고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이혼내용의 혼인 및 이혼제자별별 증가, 전통적도 0·4에서 1·1 수준으로 높아졌다. 文炳學 조사 통계국장은 이같은 현상의 「산언락」에 따른 여성경

이고 여자는 재혼인 경우가 72년 0·5%에서 최근에는 1·8~1·9% 수준으로 늘고 새로이 결혼할 때로 나타나고 있다. 중매결혼은 81년 전체의 58·4%에서 89년에는 39·4%로 현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연애결혼은 이 기간중 36·3%에서 54·7%로 크게 늘었다. 「중매」만 연애만은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혼까지의 동거기간은 89년의 경우 평균 2년미만이 되었는데 이혼하는 사례가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80년 24·6%에서 89년 27·6%로 증가,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 「부부간의 진통적유리」관 등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불화가 89년에 83·1%를 차지한 반면, 「처녀」의 감등 등 가족간 불화나 건강문제 또는 경제문제에 의한 이혼은 각각 1·3% 수준으로 줄었다. 「외국전」이 「도시」와 「회화」에 따라 가정생활의 변화이 주로 부부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初婚평균 男 27·8 - 女 24·8세  
연애부부이혼 중매보다 빨라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27·7세에서 89년 27·8세로, 여자는 22·6세에서 24·8세로 높아졌다. 6세에서 24·8세로 높아져 「晚婚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가 37·3세, 여자는 33·2세로 30대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가 39·5세, 여자가 34·9세였다. 즉 남자가 평균적으로 이혼 2년이 조금 넘어, 여자는 2년이 되기 전에 재혼으로 새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사유는 70년대초 연평균 1만4천쌍에서 90년 4만8천쌍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이혼자수를 나타내는 「粗」 이혼률」은 남자가 1·1, 여자가 1·1로 증가했다.

「인구의 쇠퇴」 등으로 결혼 생활의 감소를 이혼으로 해결하면 「정」의 불이치가 「인구」라고 말했다.

「인구의 쇠퇴」 등으로 결혼 생활의 감소를 이혼으로 해결하면 「정」의 불이치가 「인구」라고 말했다.

# 離婚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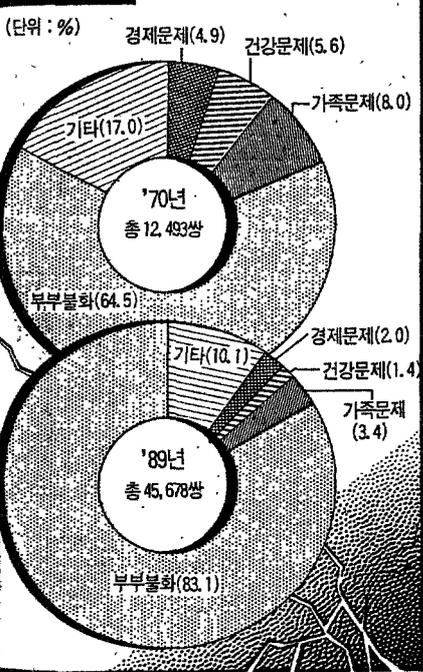
이혼과 별거의 경우 40만 4천여쌍에 이르렀으며, 이중 27만 3천여쌍이 이혼했다. 이혼이 사생활 변화가 이젠 아내의 인권침해, 이혼 후 자녀양육, 그외 다양한 문제를 비롯하여, 이혼이 「배양법」의 제정 전 「혼인법」에 의해 이혼절차가 복잡했다. 이혼 절차가 간편해져서 이혼이 40만 4천여쌍에 이르렀다.

▲남녀 모두 1988년 기준 전국의 이혼 쌍을 차지하는 91.1%를 차지했다. 이혼 쌍을 차지하는 91.1%를 차지했다.

남녀 모두 1988년 기준 전국의 이혼 쌍을 차지하는 91.1%를 차지했다.

## 이혼 사유

\* 단: 추정 이혼건수 기준



## 男 30代 初婚 男 봄-겨울

남자는 30대가 50.5%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25~29세가 30.4%, 30~34세가 29%를 각각 차지했다.

이혼 전까지의 평균 동거 기간은 5년만인 88년 36%가 가장 많아 결혼 초기가 「위험기간」으로 나타났다.

▲자유(연애)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전까지 동거하는 비율은 88년의 7.0%에 비해 89년의 7.9%로 증가했다. >>> 결혼 초기 <<

# 5년미만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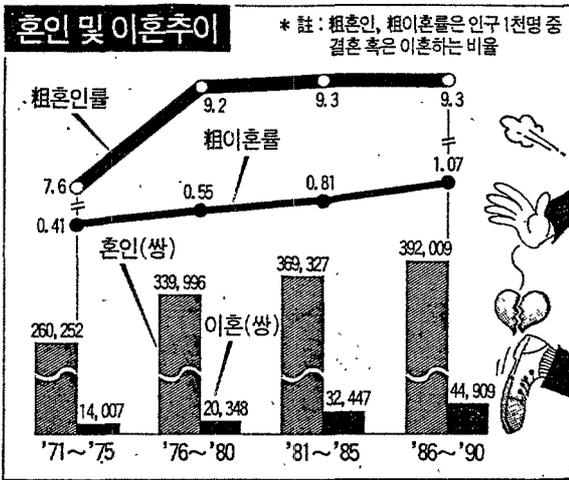
## 통계청 분석 「부부생활」 실태

초혼·중혼과 이혼이 늘고 있다. 부부의 생활은 5년미만 부부의 생활이 정통동자 차양이되며, 이혼이 88년 5년간 88만 8천 8백 8십 명으로 나타났다. 이혼이 88년 5년간 88만 8천 8십 명으로 나타났다.

을 소개한다.

### 이혼

70년대 중반부터 이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70년대 중반 26만 2천 8백 명에서 80년대 중반 88만 8천 8백 명으로 증가했다. 이혼이 88년 5년간 88만 8천 8십 명으로 나타났다.



\* 註: 粗혼인, 粗이혼을 인구 천명 중 결혼 혹은 이혼하는 비율

## 초반·女 20代 후반 "고비" 28세·女 25세로 높아져 가을順 결혼...예식장서 85%

혼인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중 0.5%에서 1.8%로 크게 높아져 우리 사회의 결혼행위의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이 88년 5년간 88만 8천 8백 명으로 나타났다. 이혼이 88년 5년간 88만 8천 8십 명으로 나타났다.

### 이혼

70년대 중반부터 이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70년대 중반 26만 2천 8백 명에서 80년대 중반 88만 8천 8백 명으로 증가했다. 이혼이 88년 5년간 88만 8천 8십 명으로 나타났다.

# 이혼危機 남 37세

晚婚率이 급증한 최근 몇 년 동안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

晚婚率이 급증한 최근 몇 년 동안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

晚婚率이 급증한 최근 몇 년 동안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

## 통계청, 혼인·이혼統計 분석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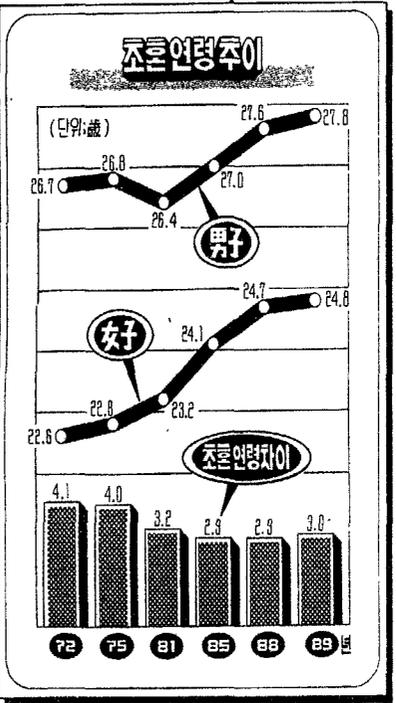
혼인·이혼 통계 분석 발표. 혼인·이혼 통계 분석 발표. 혼인·이혼 통계 분석 발표.

혼인·이혼 통계 분석 발표. 혼인·이혼 통계 분석 발표. 혼인·이혼 통계 분석 발표.

결혼하는 나이는 초혼의 경우 남자가 27.8세, 여자가 24.8세로 연령차이가 3세. 초혼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을 하고 있다. 초혼의 경우 남자가 26세, 여자가 25.5세로 0.5세 차이가 있다.

## 初婚 男 27.8, 사유 家族·경제

다소 빠른 편이다. 연령별 혼인·이혼률 보면 27세였고 여자는 각각 22.6세, 23.2세, 24.7세, 24.1세, 24.7세로 1.1%의 증가를 보인 반면 10년사이의 남자는 1.2% 증가를 보인 반면 1.6%가 줄었다. 이혼율도 65%로 30~34세 미혼



# 여 33 세

이 기간에는 13.2%로서 89년에는 16.6%의 비례를 보였다. 또 25~29세의 경우는 16.8%로서 88.5%보다 2포인트 상승하였다. 또 30~34세의 경우도 19.2%에서 21.5%로 2.3%포인트 상승하였다. 198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1만 8천 8백 90명이 이 기간에 결혼하였다. 이는 1만 1천 7백 88명이던 88~89년의 기간에 비하여 6,102명 증가하였다.

연령이 20세 이하의 기간에는 1.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24세는 1.0%로 1988년의 0.9%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25~29세는 18.3%로 17.9%보다 0.4%포인트 상승하였다. 30~34세는 29.3%로 29.0%보다 0.3%포인트 상승하였다. 35~39세는 20.7%로 20.0%보다 0.7%포인트 상승하였다. 40~44세는 14.0%로 14.5%보다 0.5%포인트 하락하였다. 45~49세는 7.8%로 8.0%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다. 50세 이상은 7.5%로 7.4%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1.0%로 1988년의 0.9%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20~24세는 1.0%로 1988년의 0.9%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25~29세는 18.3%로 17.9%보다 0.4%포인트 상승하였다. 30~34세는 29.3%로 29.0%보다 0.3%포인트 상승하였다. 35~39세는 20.7%로 20.0%보다 0.7%포인트 상승하였다. 40~44세는 14.0%로 14.5%보다 0.5%포인트 하락하였다. 45~49세는 7.8%로 8.0%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다. 50세 이상은 7.5%로 7.4%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미국(남자 36.5%, 여자 33.0%)과 일본(남자 39.5%, 여자 36.1%)보다도 다소 높았다. 결혼한 이혼까지 포함하여 36%로 1988년의 33%보다 3%포인트 상승하였다. 이 기간에는 15.1%로 1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세는 1.0%로 1988년의 0.9%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25~29세는 18.3%로 17.9%보다 0.4%포인트 상승하였다. 30~34세는 29.3%로 29.0%보다 0.3%포인트 상승하였다. 35~39세는 20.7%로 20.0%보다 0.7%포인트 상승하였다. 40~44세는 14.0%로 14.5%보다 0.5%포인트 하락하였다. 45~49세는 7.8%로 8.0%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다. 50세 이상은 7.5%로 7.4%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 女 24.8 세 : 연애 결혼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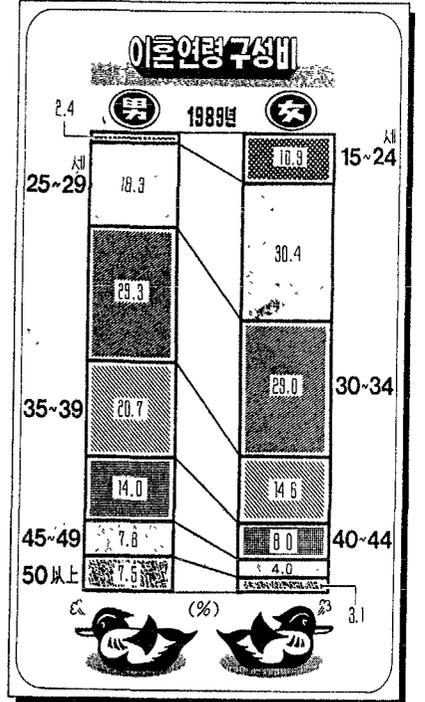
## 문제보다 夫婦불화 83%

보통 198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1만 8천 8백 90명이 이 기간에 결혼하였다. 이는 1만 1천 7백 88명이던 88~89년의 기간에 비하여 6,102명 증가하였다.

연애 결혼 비중은 55%로 1988년의 53%보다 2%포인트 상승하였다. 이 기간에는 15.1%로 1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세는 1.0%로 1988년의 0.9%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25~29세는 18.3%로 17.9%보다 0.4%포인트 상승하였다. 30~34세는 29.3%로 29.0%보다 0.3%포인트 상승하였다. 35~39세는 20.7%로 20.0%보다 0.7%포인트 상승하였다. 40~44세는 14.0%로 14.5%보다 0.5%포인트 하락하였다. 45~49세는 7.8%로 8.0%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다. 50세 이상은 7.5%로 7.4%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39세의 이혼율은 30~34세의 이혼율(40.0%)에 상응하는 40%에 달하고 있다. 이혼율(39.4%)을 나타내며 1.4%포인트 상승하였다. 이 기간에는 15.1%로 1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세는 1.0%로 1988년의 0.9%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25~29세는 18.3%로 17.9%보다 0.4%포인트 상승하였다. 30~34세는 29.3%로 29.0%보다 0.3%포인트 상승하였다. 35~39세는 20.7%로 20.0%보다 0.7%포인트 상승하였다. 40~44세는 14.0%로 14.5%보다 0.5%포인트 하락하였다. 45~49세는 7.8%로 8.0%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다. 50세 이상은 7.5%로 7.4%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이혼율(39.4%)을 나타내며 1.4%포인트 상승하였다. 이 기간에는 15.1%로 1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세는 1.0%로 1988년의 0.9%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25~29세는 18.3%로 17.9%보다 0.4%포인트 상승하였다. 30~34세는 29.3%로 29.0%보다 0.3%포인트 상승하였다. 35~39세는 20.7%로 20.0%보다 0.7%포인트 상승하였다. 40~44세는 14.0%로 14.5%보다 0.5%포인트 하락하였다. 45~49세는 7.8%로 8.0%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다. 50세 이상은 7.5%로 7.4%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 중매결혼 비중 계속 줄어 89년에 39.4%線 불과

연애 결혼 비중이 55%로 1988년의 53%보다 2%포인트 상승하였다. 이 기간에는 15.1%로 1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세는 1.0%로 1988년의 0.9%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25~29세는 18.3%로 17.9%보다 0.4%포인트 상승하였다. 30~34세는 29.3%로 29.0%보다 0.3%포인트 상승하였다. 35~39세는 20.7%로 20.0%보다 0.7%포인트 상승하였다. 40~44세는 14.0%로 14.5%보다 0.5%포인트 하락하였다. 45~49세는 7.8%로 8.0%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다. 50세 이상은 7.5%로 7.4%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중매결혼 비중이 39.4%로 1988년의 40.0%보다 0.6%포인트 하락하였다. 이 기간에는 15.1%로 1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세는 1.0%로 1988년의 0.9%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25~29세는 18.3%로 17.9%보다 0.4%포인트 상승하였다. 30~34세는 29.3%로 29.0%보다 0.3%포인트 상승하였다. 35~39세는 20.7%로 20.0%보다 0.7%포인트 상승하였다. 40~44세는 14.0%로 14.5%보다 0.5%포인트 하락하였다. 45~49세는 7.8%로 8.0%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다. 50세 이상은 7.5%로 7.4%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 통계청 발표 '혼인·이혼 실태'

이혼이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 이혼율이 70년대 초반의 3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애결혼을 했을 때가 중매결혼을 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이혼하고,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전체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혼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혼은 봄철에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통계청이 혼인·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결혼과 이혼실태를 처음으로 분석해 20일 발표한 '혼인·이혼통계 작성결과'에서 나왔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40만4천9백쌍이 결혼하고 4만8천3백쌍이 이혼했다.

◇혼인=혼인건수는 70년대 초반 연평균 26만건에서 70년대 후반 34만건, 80년대 초반 36만9천건, 80년대 후반 39만2천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혼인 가운데 재혼 비율이 점차 늘어나, 남자는 72년의 5.4%에서 89년 7.0%로, 여자는 2.9%에서 5.6%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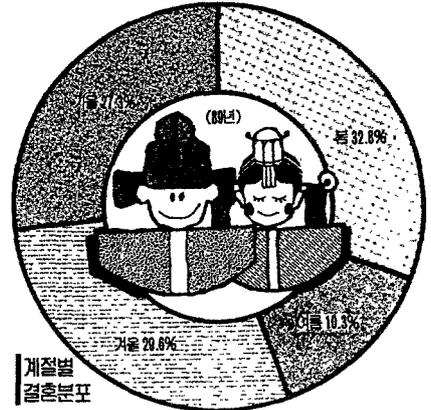
결혼철은 89년의 경우 봄이 32.8%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겨울(29.6%), 가을(27.3%), 여름(10.3%)순으로 집계됐다. 72년에는 겨울(39.7%), 봄(26.6%), 가을(26.5%), 여름(7.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에서는 봄철(89년 33.3%), 농촌에서는 겨울철(89년 34.9%)에 결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고학력자 사이의 결혼비중이 높아져, 남녀 모두 국졸 이하가 72년의 40.4%에서 89년 2.2%로 낮아진 반면, 대졸 이상은 5.5%에서 21.0%로 늘어났다. 가장 비중이 큰 학력층은 남녀 모두 중·고졸로 89년 57.5%

를 차지했다.

결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연애결혼이 89년 현재 54.7%, 중매결혼이 39.4%로 연애결혼이 중매결혼을 앞지르고 있다. 81년에는 이와 반대로 연애결혼이 36.3%, 중매결혼이 58.4%였다.

남녀 혼인 연령은 초혼의 경우 남자는 72년 26.7살에서 89년 27.8살로, 여자는 22.6에서 24.8살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남자보다 여자의 혼인연령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만혼경향이 퍼지고



# 이혼 급증 70년대 초의 3배

## 전체 이혼 중 36% 5년안에 파경 맞아 연애결혼 중매 앞질러...연령차는 축소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혼연령도 남녀 모두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초혼의 경우 남자는 25~29살이 65.6%(89년), 여자는 20~24살이 52.7%로 제일 많다.

남녀간의 혼인연령 차이는 89년 3.3살로 72년보다 1.4살 줄어들었으며, 남자의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간 혼인 연령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혼=이혼건수는 70년대 초반 1만4천건에서 80년대 초반 3만2천건, 80년대 후반 4만5천건 수준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천명당 이혼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70년대 초반 0.41에서 89년 1.13으로 높아졌다. 이런 조이혼율은 일본(88년 1.26), 대만(89년 1.26)과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86년 4.89), 소

련(87년 3.36)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혼연령은 남자는 89년 현재 30~39살이 50.0%, 여자는 25~34살이 59.4%로 전체의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를 세분해 보면 남자는 30~34살이 29.3%, 35~39살이 20.7%, 여자는 25~29살이 30.4%, 30~34살이 29.0%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조이혼율 1.54)이 이혼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인천(1.30), 서울·대구(1.22)순으로 대도시 지역이 높다. 70년 조이혼율이 0.7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제주를 최근 들어 0.95로 높아지긴 했으나, 대도시 지역보다는 낮아졌다.

전체 이혼의 36.0%(89년)가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벌어지며, 2년 이내도 12.9%나 된다.

이혼 사유는 부부간 불화가 83.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혼하기 전 동거기간을 보면 연애결혼을 했을 때가 7.9년으로 중매결혼을 했을 때의 9.4년보다 짧아 연애결혼이 중매결혼보다 빨리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 기자〉

社 說

家庭이 무너지고 있다

한동안 우리는 핵가족의 폐단을 걱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해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불륜행위 발표가 이런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70년 이후 20평이상 이혼건수가 80.5백만 크게 불어났으며, 핵가족의 부부의 40%가 불화 5평이내인 것이라 나타났다. 게다가 추방명령과 점선 부양제, 남자 27.8세, 여자 24.8세 인 것이로 밝혀졌다.

이런 현상 계속되면 우리의 전통적인 결혼관도 무너지고 있을테니 말해주고 싶어서 사생활을 드러내고 있는 家族제도가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가족의 사생활을 구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은 이혼 제정 때 표면적이고 면허를 전수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족제도 가 흔들리고 가정의 위태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위기가 사회전위 기와 직결되고 문제이다.

그렇지만 핵이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세대들의 가치관과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개인주의화한 젊은세대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큰 비중을 두지 않을뿐 아니라 일생을 혼자 살아가는 노편 찾아가는 시의 가치관도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제다가 산업화하면서 크게 신장되어 성의 편리한 식, 그리고 경제적인 위생성이 더 이상 전통적인 家父長秩序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이제부터 여성의 계급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존엄을

여성의 미덕이라 가르치던 시대가 아니다. 지금엔 수직적, 계급관계였던 전통적 가족의 수평적, 우애적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시대이다.

결혼율 50%만인 젊은세대들의 이혼율이 불이것을 전통적 가족관제와 새로운 부부관계의 간격이 무너져 점점 방종하고 있다. 이혼사유의 81%가 부부간의 불화인데도 이혼한 것인데도 이혼이 더 많았으며, 핵가족의 선택을 방종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다.

백년해리를 다짐하고 부부도 몇년간 善男善女가 사소한 갈등 때문에 쉽게 갈라선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일가친척에게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더군다나 未成年의 자녀들이 있을 경우, 그 자녀들이 겪어야 할 심리적 고통은 그 불행이 매우 불수방용 없다. 핵이 갈수록 젊은이들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그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고통의 추후 영향은 분명히 더 많았으며 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불화가 단순한 화제나 혼모임의 면허권을 가진 사회적 현상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부장 이 무너지고 있음에 말해주고 싶어서 새롭던 부부관계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젊은세대와 이혼을 분담하는 새로운 부부관계의 수평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物價오름세 큰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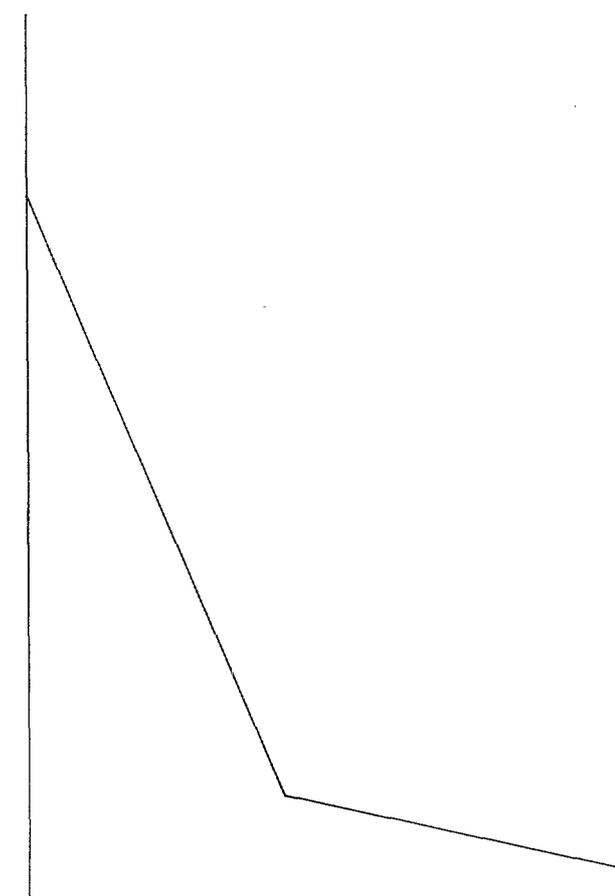
## 10월 중動向 農産物 본격출하로 安定勢지속

### 소비자 0.1% 올라 올 최저 水産物값은 다소 强勢로

최근 다음이 春川(9.8%)  
光州(9.7%)全州(9.5%)  
의 수확이어서 서울  
은 전국의 평균과 같은 9%  
수준이었다.  
한편 가장 낮은 상승률  
을 보인 곳은 水原으로 7.  
5%에 머물렀다. 다음이  
仁川으로 7.9% 상승에  
그쳤다.

農産物의 본격적인 출하  
기를 맞아 물가 오름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  
10월 경제기획원의 발표  
한 10월중 물가상승률이  
달리던 지난달의 소비자물  
가는 전월보다 불과 0.1  
%가 오른데 그쳐 월간  
상승률은 0.09%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도매물가지도 월중 0.2%  
가 상승하는데 마물리지  
는 0.2%의 상승세가  
속이어서고 있다.  
이처럼 10월달 현재  
물가지와 전월의 비례수  
비율 9% 도매 2.3%  
가 각각 물가 상승률이 한 자  
리수(물가 상승 전만)의  
증박이었다.  
이제야 소비자가 상승  
률인 지난해 같은 기간의  
9%에 비해서도 0.2%  
포인트가 차이나고 있다.  
지나달의 물가가 이처럼  
안정세를 나타낸 것이 배  
추가 한달만에 14.1%나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17.  
4%(사과) 11.8%(파  
) 5.3%(포도) 19.6  
(%) 등 주야 채소 과일류 등  
농산물가격이 대체로 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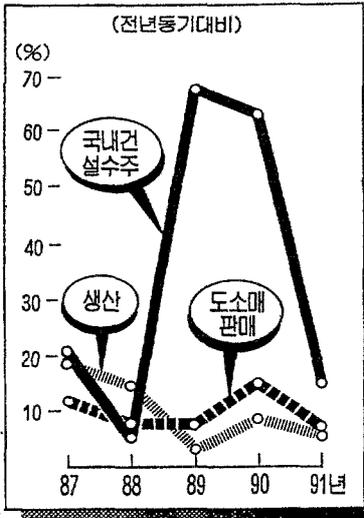
졌기 때문이다.  
한편 가격이 크게 올  
랐던 돼지고기가 5.4%  
나 하락하고 달걀도 9.3  
%나리 등 농산물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생선류는 연년해  
어 회복전으로 인해 명파가  
7%나 오른 것을 비롯해  
치(3.7%) 달(8.1%) 고  
물(1.2%)의 오름세  
를 나타냈고 성수기를 맞  
은 연달한 호황장도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수송과  
배달비 상승으로 인해 수  
비지 가격이 4.8% 올랐다.  
또 포도(포도) 상인이 연  
료 대체에 따른 원가 상승으  
로 4.9%가 올랐고 맞춤  
신사복과 숙노복도 각각  
8.1% 및 5.9%가 올랐  
다.  
기회엔 담배자판 판매  
용 및 개인서비스업 등



다소 불안한 요인이 없지  
않으나 특별한 요인이 없  
는한 11월과 12월중에도  
물가는 계속 안정세를 나  
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한  
자리수 물가가 확실시된다  
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물가동향은  
보면 10월달 현재 물가의  
소비자가 가장 낮아 0.1%  
9.9%가 올라 전류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

진정인가 景氣 침체인가

연도별 1~9월중 산업활동 증가율



국내경기는 적정한 수준으로 진정되고 있는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가. 4일 통계청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4분기(7~9월)의 국내산업생산 및 출하는 작년 同期보다 각각 5.6%와 6.8% 늘었다. 이는 작년 이후 분기별로 가장 낮은 증가수준이다. 작년의 年평균 증가율은 생산 8.9%, 출하 11.3%였으며 올상반기엔 생산이 8.2%, 출하가 10.9% 증가했었다. 올해 분기별 출하물량을 내수와 수출로 나눠보면 내수는 3.4분기중 작년 同期보다 8.5% 늘어 △1.4분기(1~3월) 12.4% △2.4분기(4~6월) 13.1%에 비해 증가세가 떨어졌다. 수출물량은 1.4분기 3%, 2.4분기 5.4%에서 3.4분기엔 0.9% 증가에 그쳤다. 특히 건설부자문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기 先行 지수 뒷걸음질 시작

10월중의 경제지표가 9월중과 비교하여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0월중의 국내총생산은 10.4% 증가했다. 이는 9월중의 10.4%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했다. 10월중의 내수생산은 10.4% 증가했다. 이는 9월중의 10.4%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했다. 10월중의 수출생산은 10.4% 증가했다. 이는 9월중의 10.4%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했다. 10월중의 건설부자문화세는 10.4% 증가했다. 이는 9월중의 10.4%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했다.

생산·출하 증가勢 "최저수준"

건축 "急冷" ... 허가면적 첫 감소

연도별 1~9월중 취업자수 <단위: 천명, 괄호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수>

	87년 1~9월	88년 1~9월	89년 1~9월	90년 1~9월	91년 1~9월
총 취업자	16,308 (901)	16,810 (602)	17,436 (626)	17,970 (634)	18,496 (526)
농림어업	3,636 (-39)	3,542 (-94)	3,417 (-125)	3,329 (-88)	3,117 (-212)
제조업	4,570 (629)	4,756 (186)	4,949 (193)	4,896 (-53)	5,007 (111)
서비스업	8,102 (912)	8,512 (410)	9,070 (558)	9,745 (675)	10,371 (626)

10월중의 건축허가면적은 10.4% 감소했다. 이는 9월중의 10.4%와 비교하여 0.1%포인트 감소했다. 10월중의 건축허가면적은 10.4% 감소했다. 이는 9월중의 10.4%와 비교하여 0.1%포인트 감소했다.

物價 불안 收支적자 惡材로

10월중의 물가 상승률은 10.4% 증가했다. 이는 9월중의 10.4%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했다. 10월중의 물가 상승률은 10.4% 증가했다. 이는 9월중의 10.4%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했다. 10월중의 물가 상승률은 10.4% 증가했다. 이는 9월중의 10.4%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했다.

# 景氣 후퇴하고 있다

## 3·4분기 産業 동향 내수 建設 진정 輸出 부진

생산 5.6% 出荷 6.8% 증가에 그쳐

9월稼動率 하락 제조업 就業者 감소

“전속急冷” 허가면적 작년比 10% 줄어

<산업 활동 동향>  
(전년 동분기비, %)

	91		
	1/4	2/4	3/4
생출 △△	8.3	8.1	5.6
내수	10.4	11.5	6.8
내수 △△	12.4	13.1	8.5
평균수출	3.0	5.4	0.9
평균수출	80.8	79.3	79.4
내수	4.0	26.1	8.9
내수 △△	12.3	-1.2	-8.7
내수 △△	1.1	-7.5	10.0
내수 △△	26.6	-5.4	3.1
내수 △△	13.7	12.8	3.2
내수 △△	6.6	8.1	8.1
내수 △△	12.8	14.2	10.1

중도·소매 판매는 추석 이 끼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보다 0.5% 감소세를 보였다. 3·4분기 전체로도 2.4분기보 1.3%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잇따른 건설경기 억제 대책의 영향으로 9월 중 건설 허가면적은 작년 9월보다 10.4% 감소, 누계(9월까지)로 치면 올해의 총액이 0.4% 감소할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기정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9월까지 제조업 허가 발주한 공장들의 건설공사(9.7% 감소)와 산업용기류 수입(3.5% 증가) 국내 기계발주(1.1% 감소) 등도 증가폭이 줄어들거나 감소세로 반전해 기업체의 투자유동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 소비와 건설경기 진정, 수출 부진 등으로도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4월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체의 생산 출하 및 투자증가가 현저히 둔화되고 재고는 늘어나 전반적인 경기가 하향 꺾임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소비와 건설경기 진정, 수출 부진 등으로도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4월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체의 생산 출하 및 투자증가가 현저히 둔화되고 재고는 늘어나 전반적인 경기가 하향 꺾임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소비와 건설경기 진정, 수출 부진 등으로도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4월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체의 생산 출하 및 투자증가가 현저히 둔화되고 재고는 늘어나 전반적인 경기가 하향 꺾임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소비와 건설경기 진정, 수출 부진 등으로도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4월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체의 생산 출하 및 투자증가가 현저히 둔화되고 재고는 늘어나 전반적인 경기가 하향 꺾임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鄭萬昊기자〉

社說

忍耐로 맞서야 할 경기鈍化

정부의 내需억제정책으로 3·4분기 물가오락과 경기부진으로 인한 경기둔화 현상...

물가오락과 경기부진으로 인한 경기둔화 현상... 4대신기를 앞두고 있어...

부채수지나 아적인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정부로서는 계속 하한선을 돌파할 때까지...

이런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社說

경기가 다소 회복되나 물가 상승  
압박은 여전히 심각하다. 물가 상승  
은 10%에 달한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악화  
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을 저해  
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활을  
악화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악화  
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을 저해  
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활을  
악화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景氣急冷의 조짐

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악화  
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을 저해  
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활을  
악화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악화  
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을 저해  
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활을  
악화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악화  
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을 저해  
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활을  
악화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통계청의 여론조사 결과 자칭 중층이 조사 대상의 61.3%로 3년 전의 57.1%보다 4.2%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같은 조사결과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자체추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6.4%(88명)만이 '중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중층'의 개념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생활양식에 따라 중층의 17.0%가 중산층이라고 응답했다.

너도나도 中産層

「주장」했고 自家담당자는 59.2%가 중산층이라고 응답했다. KDI가 중산층의 개념을 객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산층의 소득, 생활양식, 사회적 지위 등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적 지위도 사회적 지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중산층의 인원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 조사결과와 3가지 조정을 모두 반영한 시킨 실험적인 중산층 인원은 36.4%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편차는 통계청의 13.6%의 오차범위(±11.1%)를 넘어서는 편차로 볼 수 있다. 이 정도 편차는 통계청의 설문조사와는 큰 차이가 난다.

이같은 편차의 원인은 중산층의 인원이 지나치게 편파적이지 않고, 이 편차의 인원이 과소비중이 아니라 무관심한 응답자 때문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은 응답자의 46.7%에서 48.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金世馨(經濟部기자)

都市 5가구1 집꼴 犯罪 피해

국민 61% "나는 中産層"

54%가 종교인 佛敎 기독교 天主教 順

91 社會 통계 조사

지난 1년 사이 국내 모든 가구의 11.3%가 소매치기나 강도 등 불법 범죄의 피해를 보았다. 이 가운데 81.5%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1만 1천 900명 5가구의 1가구를 대표할 정도로 나타났다.

또 전체 가구가 약 1.3%는 37.1%는 중층의 37.1%는 저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9%에 불과하다.

15세 이상의 인구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1.3%로 47.1%에서 48.8%로 증가했다. 특히 50세 이상은 51.3%로 △1.4%포인트 증가했고 △1.6%의 증가를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청의 지난 5월 발표된 3년 2천 5백만 명 정도의 인구가 21일 발표한 91년 사회 통계 조사 결과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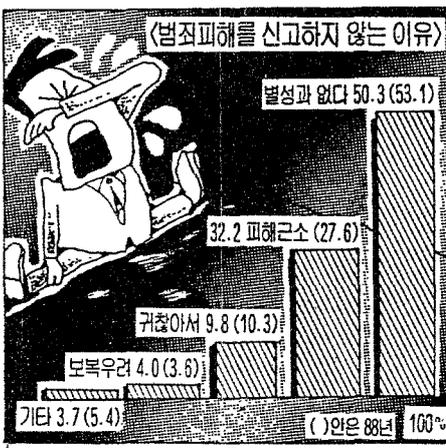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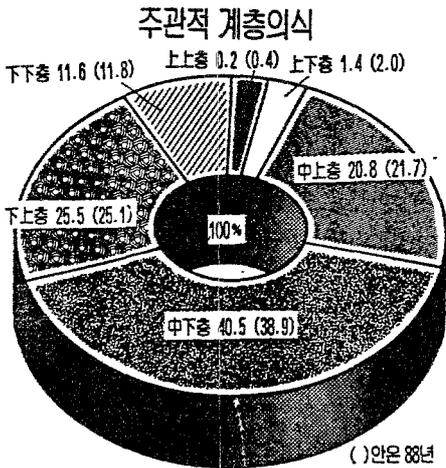
중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학업(87%)이라고 나타났다.

작년 5월 4월 사이 전체 가구의 11.3%가 평균 1.4건의 범죄를 당한 가운데 피해 유형은 소매치기 7.2%, 강도 6.6%, 기타(강도, 절도) 0.6%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고해도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50.3%로 가장 많았다.

# 국민 61% "나는 中層" - 49% "賃金불만"

## 91사회지표에 나타난 국민 自畫像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성과 없다」 50.3%로 나타났다. 「피해액 소」 32.2%, 「귀찮아서」 9.8%, 「도박우려」 4.0%, 「기타」 3.7%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61%가 자신들의 사회계층을 「中層」의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賃金」의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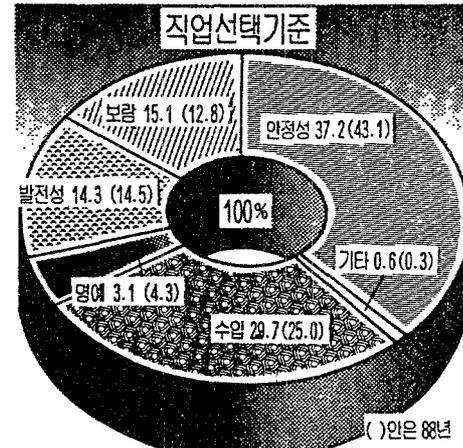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賃金」 불만은 「후」에도 두드러진다. 10가구 중 1가구의 11.6%가 「賃金」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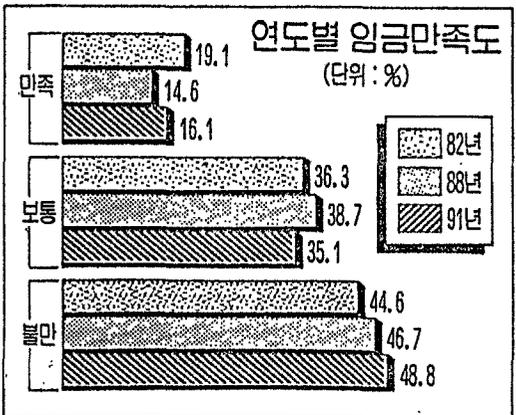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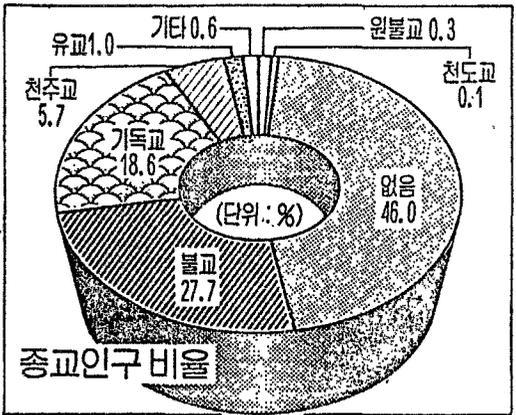


「직업선택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안정성」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입」은 20.7%, 「발전성」은 14.3%, 「보람」은 15.1%, 「명예」는 3.1%, 「기타」는 0.6%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안정성」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입」은 20.7%, 「발전성」은 14.3%, 「보람」은 15.1%, 「명예」는 3.1%, 「기타」는 0.6% 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 61%가 '나는 中産層'

88년보다 0.7%포인트 늘어나



국민 61%가 '나는 中産層'이라고 인식하며, 88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이는 '주관적 중산층'인 응답자들이 평균 1백만 원 이하로 사생활을 보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54%가 '생활비 부담'이 심하다고 인식하며, 88년보다 1.5%포인트 늘었다.

**81.5%가 '생활비 부담' 48%**

국민 61%가 '나는 中産層'이라고 인식하며, 88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이는 '주관적 중산층'인 응답자들이 평균 1백만 원 이하로 사생활을 보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두가 해약한다'고 응답자의 46.2%가 응답했다. '아파트'가 18.3%, '자동차'가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자동차'의 해약은 '생활비 부담'이 심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민 61%가 '나는 中産層'이라고 인식하며, 88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이는 '주관적 중산층'인 응답자들이 평균 1백만 원 이하로 사생활을 보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민 61%가 '나는 中産層'이라고 인식하며, 88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이는 '주관적 중산층'인 응답자들이 평균 1백만 원 이하로 사생활을 보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統計廳, 91 전국사회통계조사

국민 61%가 '나는 中産層'이라고 인식하며, 88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이는 '주관적 중산층'인 응답자들이 평균 1백만 원 이하로 사생활을 보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19.7%)의 비례를 보였으나, 3%이 높았다.  
 한편 91년 58.7%가 청수단의 국민으로 '화교'를 꼽았고 다음이 '기독교'였다. '불교'와 '천주교'를 꼽은 것은 19.7%로 88년(10.1%)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화교'를 꼽고 있는 사람이 전체 5.4%에 불과했지만, '천주교'는 19.7%로 88년 10.1%보다 높았다.  
 [지역별] 서울·수도권 31.1%, 부산 27.7%, 대구 25.1%, 광주 12.8%, 대전 11.1%, 울산 10.1%, 대전 9.3%였다.

보통 '발달'은 '발달'을 뜻한다. 88년 조사 때와 비슷하게 '안정성'은 37.2%, '안정성·수입·보통'은 33.1%, '안정성·수입'은 29.7%, '안정성·수입·보통'은 29.7%, '안정성·수입'은 29.7%, '안정성·수입'은 29.7%였다.

노년층(70.5%)와 '자녀'는 22.4%의 학업 성취율이 높았다. '안정성'은 37.2%, '안정성·수입·보통'은 33.1%, '안정성·수입'은 29.7%, '안정성·수입'은 29.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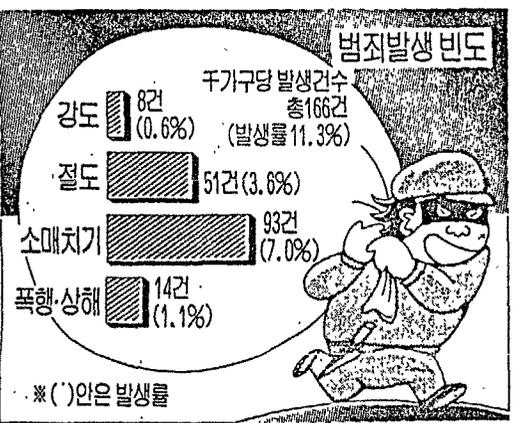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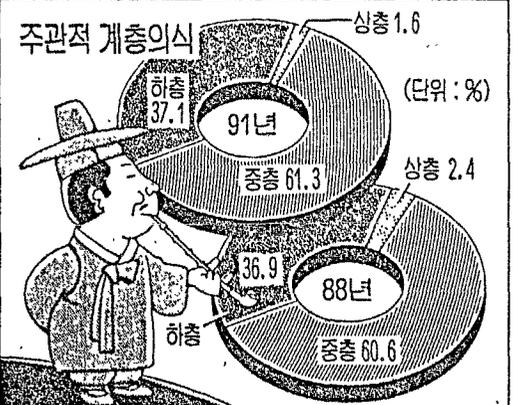
# 민중이 16%만 해도 신고안해

## 종교민어...佛敎가 최고

교(27.7%), 기독교(18.6%), 천주교(5.7%), 유교(1.0%)의 순이었다. 유교를 제외한 대부분 종교의 신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1%가 웃돌지 않았다. '기독교'가 27.7%로 가장 높았다. '천주교'는 5.7%로 가장 낮았다. '유교'는 1.0%로 가장 낮았다.

### 지역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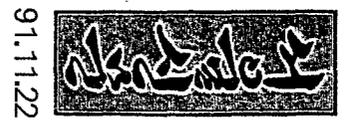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31.1%, 부산 27.7%, 대구 25.1%, 광주 12.8%, 대전 11.1%, 울산 10.1%, 대전 9.3%였다.



중요한 회 1회 참가 15세 이상 인구 중 54%가 종교를 갖고 있고, 종교발표한 비율은 1.1%였다. 가장 높은 비율은 3.6%로, '폭행·상해'가 1.1%였다.

가장 높은 비율은 3.6%로, '폭행·상해'가 1.1%였다. 가장 높은 비율은 3.6%로, '폭행·상해'가 1.1%였다.

(權赫燦기자)



91.11.22

# 경제형편 만족20%

## 中間層 평균 月收 百만원 10가구중 한집 범죄피해

1년간 삼진보(삼진보)는 주로 어떤 피해에 있었나?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10가구 중 한 집이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가구 중 1집은 1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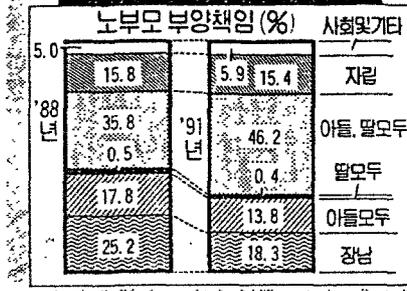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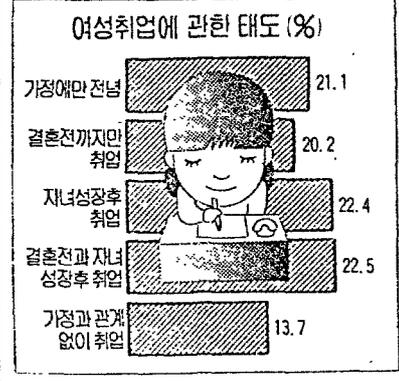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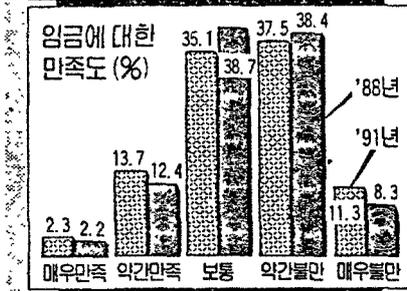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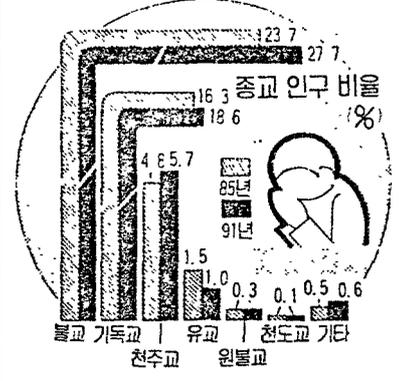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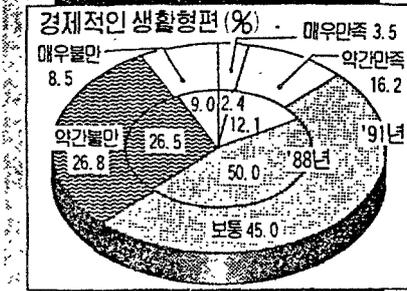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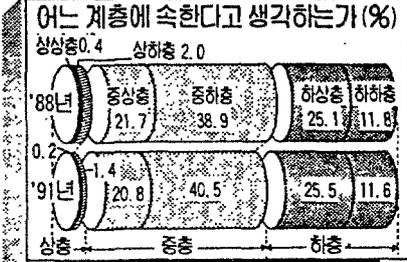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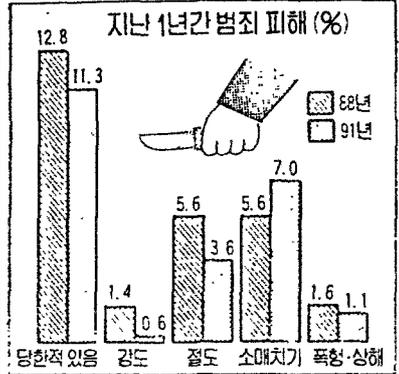
삼진보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부문은 '가족의 건강'으로 38.9%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재산'이 25.1%, '직업'이 25.1%, '생활'이 11.8%로 나타났다.

삼진보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부문은 '가족의 건강'으로 38.9%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재산'이 25.1%, '직업'이 25.1%, '생활'이 11.8%로 나타났다.

삼진보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부문은 '가족의 건강'으로 38.9%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재산'이 25.1%, '직업'이 25.1%, '생활'이 11.8%로 나타났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61.6%가 '생활'에 37.1%가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61.6%가 '생활'에 37.1%가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내 세대에 계층이동 종교는 불교 28-기독교 부모부양 '아들딸 모

대안이 낮아지고 경제도 점점 소원해지고 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백두대간」의 통계에 따르면 39세 연령층의 단독노자가 62%인 반면 60세 이상은 48.4%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의 건강이 걱정된다.

노년층의 건강이 걱정된다.

노년층의 건강이 걱정된다.

노년층의 건강이 걱정된다.

# 불만 35%

「자신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을 표명한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불만을 표명한 응답은 「생활비 상승」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난」이 33.6%, 「교육비 부담」이 28.9%로 나타났다.

중산층 自家 60%  
 계층의식 직업 재산 등  
 을 감안해 자기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를 조사했다.

## 91 사회통계조사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91년도 사회통계조사결과」는 고용·노사·사회·공안 등 4개 사회지표에 관한 국민의식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10일간 전국 3만 2천 5백 표본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나온 것이다. 지난 7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계조사의 이번 조사 항목들은 대부분 지난 88년 조사 이후 3년만에 조사되는 것들이어서 지난 3년동안 국민생활의 변천과 의식변화추이를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우리국민들의 61.3%는 자신이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생활비 상승」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난」이 33.6%, 「교육비 부담」이 28.9%로 나타났다. 「생활비 상승」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난」이 33.6%, 「교육비 부담」이 28.9%로 나타났다.

「생활비 상승」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난」이 33.6%, 「교육비 부담」이 28.9%로 나타났다. 「생활비 상승」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난」이 33.6%, 「교육비 부담」이 28.9%로 나타났다.

「생활비 상승」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난」이 33.6%, 「교육비 부담」이 28.9%로 나타났다. 「생활비 상승」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난」이 33.6%, 「교육비 부담」이 28.9%로 나타났다.

가능, 44%  
 19-천주교 6%  
 두해야, 46%

「생활비 상승」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난」이 33.6%, 「교육비 부담」이 28.9%로 나타났다. 「생활비 상승」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난」이 33.6%, 「교육비 부담」이 28.9%로 나타났다.

「생활비 상승」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난」이 33.6%, 「교육비 부담」이 28.9%로 나타났다. 「생활비 상승」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난」이 33.6%, 「교육비 부담」이 28.9%로 나타났다.

「생활비 상승」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난」이 33.6%, 「교육비 부담」이 28.9%로 나타났다. 「생활비 상승」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난」이 33.6%, 「교육비 부담」이 28.9%로 나타났다.

# 내집있으면 中間層이다

## 社說

最近의 생활수준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활수준이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社說

가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정책의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勤勞不滿의 높아지나

노동자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 조사자료·정보정부서 동점

정보부 조사자료와 정보정부서 동점  
조사자료는 정보부에서 조사한  
정보정부서 동점의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정보자유법을 위한 학술발표회

정보부 조사자료와 정보정부서 동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 인구센서스·大入 성적도 对外秘 학계, 기업연구소 거의 활용못해

### “사생활 침해않는 정보 과감히 개방을”

정보부 조사자료와 정보정부서 동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 조사자료와 정보정부서 동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 조사자료와 정보정부서 동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 조사자료와 정보정부서 동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 조사자료와 정보정부서 동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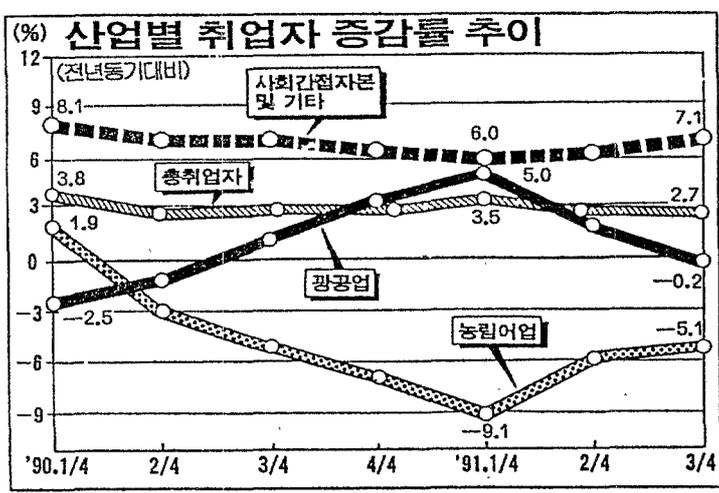
정보부 조사자료와 정보정부서 동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 조사자료와 정보정부서 동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 조사자료와 정보정부서 동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정보부에서 조사한 동향에

# 취업 쉬운 일로 쉽게 별자

## 3·4분기 동향 광공업 8천명 줄어



광공업취업자가 지난 1·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3차산업 취업자는 계속 늘고 있다. 또 올 3·4분기(7·9월) 중 취업자는 40만 1천명으로 이 가운데 68·6%인 27만 5천명(가 6대도시의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은 28일 '91년 3·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7·9월 중 광공업취업자는 4백97만 8천명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0·2%(8천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분기(4·6월)에 비해 0·3%(1만 4천명) 줄어든 것으로 1·4분기(1·3월)의 5백5만 명을 최고로 광공업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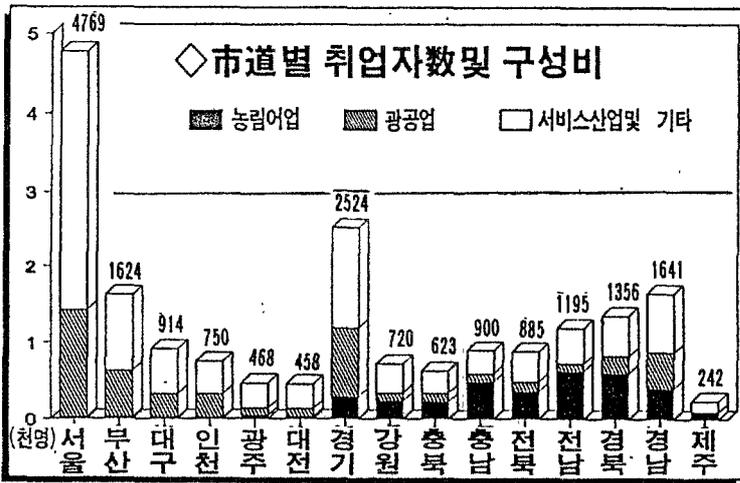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6대도시의 경우 올 3·4분기 중 광공업취업자가 2백81만 명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0·1%(3천명) 증가했으나 9개 도시 지역은 2백 16만 8천 명으로 작년보다 0·6%(1만 3천명)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3차산업)의 취업자는 1천61만 5천명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7·1%(70만 1천명) 올 2·4분기와 비해 1·9%(20만 2천명)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의 취업자는 6대도시의 경우 작년보다 6·8%(38만 5천명), 9개 도시 지역은 7·4%(31만 9천명) 늘어난 등 전선·노에서 증가세가 지속됐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 중 건설업은 16·4%(22만 9천명), 사회·개인서비스업(6·8%)인 3천 3천 5백 80명(1만 3천 5백 80명)인 4%인 15만 4천명(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백 47만 5천명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5·1%(18만 7천명), 지난 2·4분기에 비해서는 3%(10만 6천명) 각각 줄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 7·9월 중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은 53·4%에서 55·7%로 높아진 반면 광공업과 농업·임업·축산업의 26·9%와 19·7%에서 26·1%와 18·2%로 각각 낮아졌다. 6대 도시는 광공업(31·3%)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66·9%)의 취업자 비중이 높이나 9개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업·임업·축산업(22·8%)의 비중이 높고 광공업(21·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45·7%)의 비중이 낮다. 한편 올 3·4분기 중 우리나라 취업자는 1천 9백 6만 8천 명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7%(50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작년 동기에 비해 5·9%(2만 5천명) 감소했으나 취업률(2·1%)은 작년보다 0·1%포인트 높아져 90년의 90%인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 도시의 실업률은 평균 3·9%로 9개 도시 지역은 1·2%이며 실업률이 가장 높은 부산은 대구 3·3%이다.

# 서비스업이 70만 명이 늘었다

## 실업률 2·1%로 다소 떨어져

# 제조업就業者 지역따라 "增減"



통계청 3분기동향  
제조업취업자수가 전체  
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光州·大邱·忠南·忠北  
濟州 등의 제조업취업자수

## 釜山·大邱·慶南 등 격감속 內需중심 서울·忠南 늘어

28일 統計院이 발표한 91년 3·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의 전국제조업취업자는 4백91만 1천명으로 前分期에 비해 1만 5천명(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市道별로 보면 釜山의 제조업취업자가 59만 7천명으로 前分期 대비 9천명(1.5%)이나 줄었고 大邱도 30만 4천명으로 7천명(2.3%) 감소했다. 또 京畿 2만 2천명(2.4%), 全北 3천명(2.5%), 全南 3천명(3.1%), 慶北 3천명(1.4%), 慶南 7천명(1.4%)씩 각각 줄어들었다.

이는 釜山·大邱의 경우 신발·섬유업체가 줄어 들어 도산하는 등 지역의 주력제조업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고 京畿·全南北·慶南北 등도 중수주출제조업체가 주업종 중의 조처를 취하고 있고 대기업노동력집약에 의한 자동화설비부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

이되고 있다. 반면 내수형 제조업체가 많거나 신규설비투자가 비교적 활발하여 투여진신도의 제조업취업자수는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제조업취업자가 1백39만 7천명으로 前分期 대비 2만 2천명(1.6%)이나 증가했고 光州는 3천명(3.3%), 忠北 2천명(1.9%), 忠南 1만명(10.8%), 濟州 1만명(11.1%)씩 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총취업자는 1천9백6만 8천명으로 전분기 대비 8만 2천명(2.7%), 전년 동기 대비 50만 6천명(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투자비스부분의 취업자가 1천61만 5천명(8.9%) 전분기 대비 20만 2천명, 전년 동기 대비 70만 1천명 증가, 이 부분의 신규취업자수가 총취업자수가 부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노동력의 서비스업선충현상이 여전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업종사 천만명 넘어

지난해 1.4분기 중 8.1%의 증가세를 보인 이후 계속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로서 1.4분기 6.2%, 3.4분기 7.1%의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 기간 중 총 취업자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인력의 서비스업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통계청의 28일 발표된 「9.4분기 지역별 고용 동향」의 따르면 3.4분기 1천 1천

9백 6천 8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6만 6천 명이 늘었다. 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서비스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수의 절반을 넘긴 5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40만 1천 명으로 2.1%의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은 18.2%의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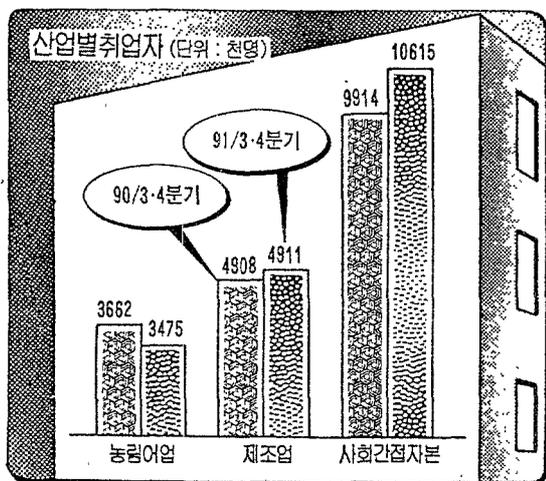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서울이 18만 7천 명으로 1.1%의 증가세를 보였고, 부산은 10만 5천 명으로 1.8%의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농업이 97만 8천 명으로 2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統計廳 「3분기 고용동향」

全體 56% : 작년比 70만명증가

## 제조업就業은 감소추세



또 지역별로는 울산(신발) 大邱(섬유) 仁川(전자부품) 등에서 특정산업의 침체로 평균 취업자수가 각각 9천 명(△1.5%), 1만 9천 명(△4.1%), 4천 명(△1.3%)씩이 줄었다.

이에 따라 大邱가 가장 높은 3.3%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다음이 울산(3.1%), 서울과 大田(각 3.0%), 광주(2.7%), 仁川(2.5%) 순으로 나타났다. 6대 도시의 실업률이 전 기간 평균치를 모두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취업자수가 4백 76만 9천 명으로

지난해 3.4분기보다 5.1%(18만 7천 명)가 줄어든 3백 47만 5천 명으로 총 취업자수의 18.2%의 비중을 보였다.

또 평균 취업자수가 40만 1천 명으로 2.1%의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은 18.2%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만 7천 명으로 1.1%의 증가세를 보였고, 부산은 10만 5천 명으로 1.8%의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농업이 97만 8천 명으로 2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失業率 2.1%... 大邱 3.3%로 최고

이 밖에 仁川에서도 제조업 취업자수가 1.3%(4천 명) 중대신 사회간접자본(3만 9천 명) 9.2%이 늘었고 광주(9만 10.2%), 大田(1만 9천 명) 6.3% 등에서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의 취업이 눈에 띄게 늘어나 仁川 6대 도시에서의 사회간접자본 취업이 증가하는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이 기간 중 여성 취업자수가 7백 80만 1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13만 8천 명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20만 2천 명(4.4%) 증가했고 이 중 평균 연령이 2만 명(1.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가 18만 1천 명(5.7%) 늘었다.

또 울산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수가 6만 6천 명(4.2%)의 증가를 보였으나 1백 62만 4천 명이었으나 광공업에서 9천 명(1.5%)이 감소한 대신 사회간접자본은 7만 9천 명(8.6%)이 증가했다.

大邱도 총 취업자수가 2만 6천 명(2.9%)의 증가를 보였으나 9만 4천 명이었으나 광공업에서 1만 3천 명(△4.1%)이 빠지고 사회간접자본 취업자가 4만 명(7.3%)이 늘었다.

# 失業者 68.6% 大도시 집중

통계청 발표 3.4분기 雇傭동향

지난 3.4분기 중 실업자와 실업률은 40만 1천 명과 2.1%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만 5천 명과 0.1%포인트가 감소했으며 실업자의 68.6%가 서울하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신도시의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데다 대구가 3.3%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울산의 3.1%로 조사됐다.

또 서울과 대구의 3.0% 광주 2.7% 仁川 2.5%의 순이었다. 또 道別로는 慶南의 1.7%로 9개道지역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냈고 江原 忠南 全南이 0.8%로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3.4분기 중 지역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에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1천 9백 46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만 1천 명

(2.5%)이 증가했고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에 참가한 비율은 61.9%로 0.4%포인트가 늘었다.

취업자는 1천 9백 6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만 6천 명(2.7%)이 증가했다.

또 여성은 55세 이상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되므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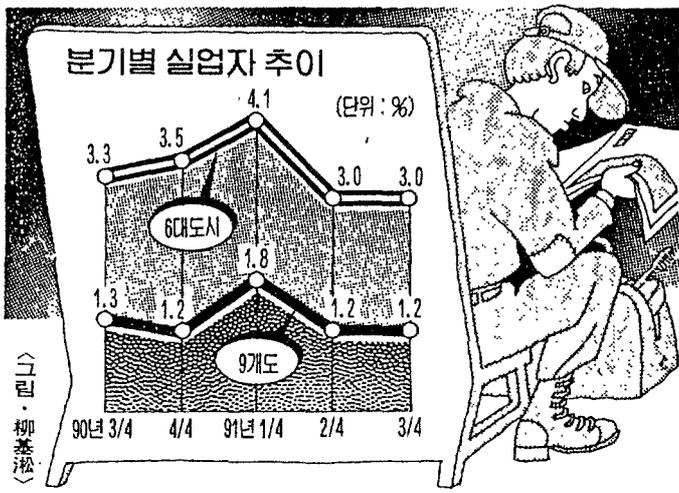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농업·임업의 3백 4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 7천 명(5.1%)이 줄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광공업은 4백 97만 8천 명으로 8천 명(0.2%)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취업한 인구는 모두 4백 9만 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천 명의 늘었는데

특히 6대도시에서는 건설업에 11만 5천 명, 도 소매업에 10만 3천 명, 사회·개인서비스업에 16만 4천 명이 추가로 취업했고 9개道지역에서는 건설업에 11만 2천 명, 사회·개인서비스업에 15만 1천 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3.4분기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산업이 55.7%로 가장 높고 광공업(제조업 포함)이 26.1%, 농업·임업이 18.2%로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의 비경제활동인구는 모두 1천 1백 9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 전국 40만명·작년보다 0.1% 감소 실업률 大邱 3.3·釜山 3.1%順

◇지역별 경제활동인구동향(3.4분기) (단위: 천명)

지역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전국	19,469	19,068	401	2.1
6대도	9,259	8,983	275	3.0
서울	4,916	4,769	147	3.0
부산	1,676	1,624	51	3.1
대구	945	914	31	3.3
인천	769	750	19	2.5
광주	481	468	13	2.7
대전	472	458	14	3.0
9개	10,212	10,086	126	1.2
경상	2,564	2,524	40	1.6
충청	726	720	6	0.8
전라	630	623	7	1.1
경상	907	900	7	0.8
충청	895	885	10	1.1
전라	1,205	1,195	10	0.8
경상	1,371	1,356	15	1.1
충청	1,669	1,641	28	1.7
전라	245	242	3	1.3

서울은 6대도시에서 2백 80만 4천 명으로 4천 명이 늘었고 9개도에서 2백 10만 6천 명으로 3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산업의 취업한 인구는 1천 61만 7천 명으로 70만 1천 명이 늘었는데 6대도시에서 취업자수는 6백만 8천 명, 9개도에서는 4백 60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만 8천 명이 늘었다.

7만 8천 명(0.7%)이 늘었다.

한편 지난 3.4분기 중 서울·부산·인천의 경제활동인구는 4백 91만 6천 명이며 이중 취업자수는 4백 76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 2천 명이 늘었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14만 7천 명, 0%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만 8천 명, 0.9%포인트가 감소했다.

# 서비스産業의 異常팽창

## 社說

서비스産業의 계속 이창 팽창은 그 전보다 더 급속한 부분의 산업을 주의 불균형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급속한 팽창은 일단 보면 서비스産業의 팽창은 1950년 10월 1일부터 9.5%를 기록, 10년간

급속하면서 경제정책의 일개 실천책으로 3년간의 성장률을 5.1%의 적정성장수준이로서 그 팽창의 과열상태를 벗어난 모양으로 점어서 박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서비스업 성장률은 6.4%를 기록, 10년간 11%에 이르렀다. 이같이 사실의 제조업의 彈力性이 북돋아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팽창은 3.4분기 시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제조업인구인 계속 감소된 반면 서비스업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차산업의 팽창을 말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서 볼 때 서비스업이 11%의 이익, 9.5%를 기록, 10년간

의 최근치를 나타냈다. 또한 국제수지 적자도 연달아 지 산출대인 90억 달러 선에 이를것이란 추정이 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서비스産業의 팽창은 더욱더 가속될 것이다. 서비스産業의 팽창이 계속되면 경제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서비스産業의 팽창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産業의 팽창은 경제의 활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産業의 팽창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서비스産業의 팽창은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서비스産業의 팽창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産業의 팽창은 경제의 활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産業의 팽창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

다. 산업구조변환과 구조조정기에서는 3차산업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어디까지나 情報 산업의 팽창을 통한 産業聯關型의 企業發展의 결과이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급이 균형 잡히지 않게 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제경쟁력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實物경제의 發展과 여부로서 가늠되게 마련이다. 특히 그 과 마찬가지로 人力의 質을 提高하는 政策을 實施시킨다. 제조업의 發展은 人力의 質을 提高하는 政策을 實施시킨다. 제조업의 發展은 人力의 質을 提高하는 政策을 實施시킨다.

噴水臺

영국의 서비스(Service)란 단어에는 各種(各種)의 20여가지의 뜻이 들어있다. 그가 유쾌(愉快)한 것으로는 公僕(公僕)의 交際(交際) 시키기, 公僕(公僕)의 交際(交際) 시키는 것을 말하며, 聖樂(聖樂)의 交際(交際)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서비스의 뜻은 봉사다. 그것은 주로 職業(職業)에서의 봉사를 서비스라 일컫는다. 그래서 噴水臺(噴水臺) 이 말수 같은 噴水臺(噴水臺) 들이 흔히 「최고의 서비스」를 캐치프레이즈로 쓰인다.

경제학에서는 생산 과정의 비에 있어서 그 자체가 소비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기쁨만이 유용할 때 그 이용 가치가 높을 서비스라고 한다.

서비스산업이라 불리거니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발달은 社會(社會)의 發展(發展)을 促進(促進)하는 데 있어 重要(重要)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많다. 그 서비스산업의 형태사회에서 各種(各種)한 社會(社會)적 役割(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社會(社會)의 發展(發展)을 促進(促進)하는 데 있어 重要(重要)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많다. 그 서비스산업의 형태사회에서 各種(各種)한 社會(社會)적 役割(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社會(社會)의 發展(發展)을 促進(促進)하는 데 있어 重要(重要)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역치의 서비스산업의 성장 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83년 3·4분기 중 전국 서비스부문(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취업자는 1천만명을 넘어 1천61만5천명에 달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활동 인구는 9월 말 현재 1천9백53만 명)의 절반을 넘어선 숫자다.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는 시장 경제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서비스산업의 발달은 社會(社會)의 發展(發展)을 促進(促進)하는 데 있어 重要(重要)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발달은 社會(社會)의 發展(發展)을 促進(促進)하는 데 있어 重要(重要)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鄭泰雄 記者 採訪>

## 10% 육박한 物價, 내년이 더 걱정

계속 불어나는 국제수지적자금액을 지켜보노라면 그게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 설새없이 뛰는 물가동향에 접하면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로 여겨지는 등 밝은 구석은 좀처럼 찾기 힘든게 오늘의 우리 경제모습이다.

지난달말까지 9.5%가 오른것으로 집계 발표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 아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며 중요한 것은 물가가 이제 구조적인 오름세를 탔다는 점과 앞으로 다칠 더욱 불안한 동향에 대한 우려다.

당국은 채소류와 수산물값이 지난달의 오름세를 주도했다고 설명하면서 12월중에는 김장용 채소류와 쌀 등의 출하증가로 농산물값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물가를 한자리수로 잡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9.5%는 이미 작년 한햇동안의 상승률 9.4%를 초과한 것이며 설령 연말까지 한자리수 억제목표를 지키게 된다고해도 2년연속 10%선에 육박하는 물가상승은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다.

연말이면 으레 들먹이기 쉬운 음식값 등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을 얼마만큼 누를 수 있을 것이냐에 이달 물가가 좌우되겠지

만 그보다는 내년이 더 큰 걱정이다. 4대 선거로 어차피 엄청난 돈이 풀릴게 분명한데다 철도 우편 전기 학교공납금등 각종 공공요금인상이 새해 예산속에 이미 잡혀있다. 게다가 임금상승과 높은 금리 부담등 많은 코스트푸시요인을 안고있는 공산품이 언제 들먹일는지 모른다. 도매 물가가 11월말까지 2.4%상승에 머문것은 공산품값이 비교적 안정을 보여준 덕분이였다. 단지 국제기름값이 당분간 계속 안정세를 보일것같은 점이 유일한 위안이다.

무엇보다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 통화등 총수요관리가 중요한건 틀림없지만 한계가 있으며 팽배해있는 인플레이션대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먼저 정부가 솔선해서 절제하고 안정화시책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의 그와같은 노력에 추가해서 기업 근로자 가계등 여타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기업은 원가절감, 근로자와 가계는 절제있는 소비생활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요컨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경제난극복은 물론 물가불안을 더는 길이 될것이다.



10월

# 生産활동 호조... 內需는 진정

## 건설·設備투자 격감

통계청 제조업 가동률 82% 1월 이후 최고

지난 10월 중 국내생산은 생산활동의 호조에 힘입어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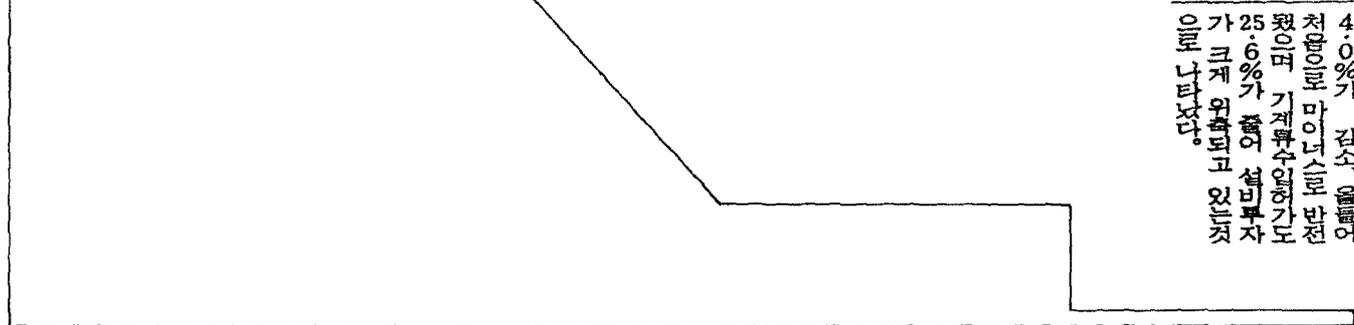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10월 10월의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4.0%가 감소, 수출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반전됐으며, 기계류수입액도 25.6%가 줄어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종교인구는 불교가 가장 많고 다음은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순이며 연령·학력·지역에 따라 큰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적으로 부산대구 경북 경남등 영남에서는 불교가, 광주 전북등 호남과 서울 인천에서는 개신교가 각각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통계청이 전국3만2천5백가구의 15세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91사회통계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렇듯 도시에서 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불교나 원불교를 믿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농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신교나 천주교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전국3만2천5백가구의 15세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91사회통계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런 조사결과를 보면, 특히 농촌지역에서 불교나 원불교를 믿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전국3만2천5백가구의 15세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91사회통계조사」에서 밝혀졌다.

# 嶺南신자 40%가 불교

통계청 「91 종교인구 조사」

남부 불교(27.7%) 개신교(18.6%) 천주교(5.7%) 유교 원불교 천도교 순이었다. 이 가운데 불교는 4.0%에 달한다.



의종교인구조사결과 불교는 전국인구의 47.1%였다. 그중 남부지역은 40%가 불교 신자였다. 남부지역의 불교 신자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27.7%보다 높은 수치다.

## 湖南·서울 개신교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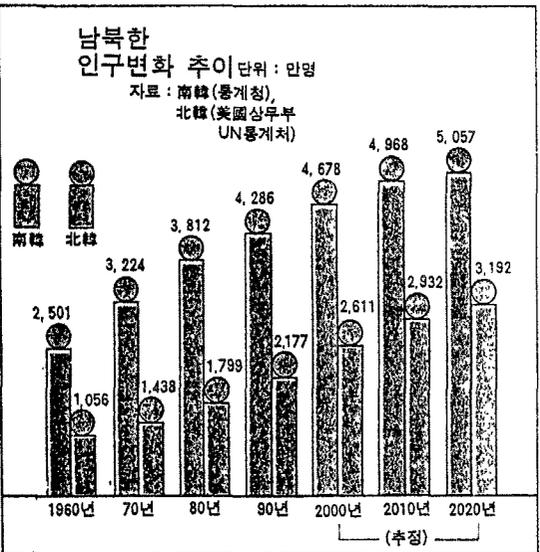
### 선교대상 「나이많은 도시 여자」

서울의 개신교 인구는 21.6%였다. 천주교는 12.7%, 대종교는 26.0%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12.7%보다 높은 수치다.

남부지역의 불교 인구는 27.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27.7%와 같지만, 남부지역에서는 40%가 불교 신자였다. 이는 통계청이 전국3만2천5백가구의 15세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91사회통계조사」에서 밝혀졌다.

〈南相均기자〉

# 우리의 절반...증가 열흘



## 北韓인구

南北韓인구변화의 차이를 보면, 1960년 남북한 인구는 각각 2,501만 명과 1,056만 명이었다. 1970년 3,224만 명과 1,438만 명, 1980년 3,812만 명과 1,799만 명, 1990년 4,286만 명과 2,177만 명, 2000년 4,678만 명과 2,611만 명, 2010년 4,968만 명과 2,932만 명, 2020년 5,057만 명과 3,192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남북한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비슷해졌다.

## 잔년말

남북한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비슷해졌지만, 남북한 인구의 절대적 차이는 여전히 크다. 2020년 기준 남북한 인구의 차이는 1,865만 명이다. 이는 남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특히 남한의 인구는 5,057만 명으로, 이는 남한의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 두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는 1949년 12월 17일 (목)에 내각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 계획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1949년 12월 17일 (목)에 내각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 계획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1949년 12월 17일 (목)에 내각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 계획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총 2천 1백 77만명 추정

### 영자가 남자보다 많았...부영.對 97.5%

전국에 유년자를 조사한 결과, 영자의 수가 남자보다 1.5% 많았으며, 이 중 97.5%가 영자였다고 나타났다.

정부는 1949년 12월 17일 (목)에 내각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 계획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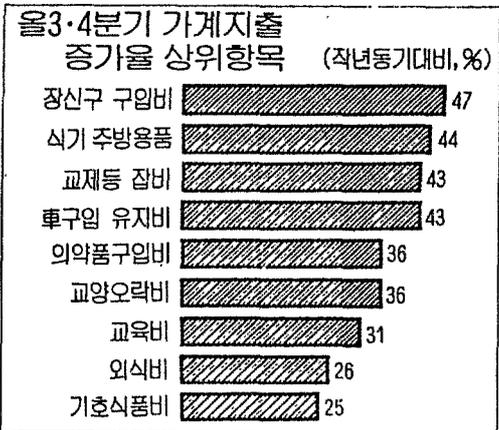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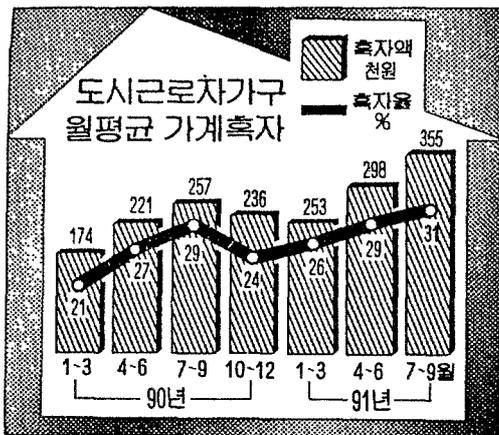
정부는 1949년 12월 17일 (목)에 내각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 계획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1949년 12월 17일 (목)에 내각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 계획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둔다.

〈總計總人口〉

# 소비高級化

최근 도시근로자가구의 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계속 밑돌아 가계 씀씀이가 점차 건실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올 3·4분기 월평균)

소	득	지	출
가구주근로	889,200	소비 지출	797,600
가구원근로	172,100	비소비지출	80,200
사업및부업	35,400	계	877,800
재산및이전	136,000	후자액	354,900
계	1,232,700	후자율	30.8%

註: 후자율 =  $\frac{\text{후자액}}{\text{소득} - \text{비소비지출}} \times 100$

그러나 불가가 많이 올라 실업률 상승과 가용이 명목수출증가율보다 10.6%포인트 낮아졌다.

또 지출에 있어서도 장신구 구입비, 교제잡비, 자동차 구입비 등이 96%

7백원 이하로 작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 구입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23.3%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구입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23.3% 이상 증가했다. 반면 식기 주방용품, 교제등 잡비, 차 구입 유지비 등은 43% 증가했다.

## 한달 百23만원 벌어 87萬7千원 지출 主食費 줄고 엔겔계수 33%로 낮아져

이와 따라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나만 잘 사는 시대'가 아닌 '모두 잘 사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올 3·4분기(7·9월) 가계수지 총액의 따르면

연평균 소득이 40% 이상 증가한 반면, 교육비, 의료비, 기초식품비는 25% 이상 증가했다.

실질구매력지수로 13%가 늘었다. 지출증가율은 소득증가율보다 3.9%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가계수지후자가 월평균 35만 4천 9

이와 따라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8%의 비중을 차지했다. 4%의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비(14.6%)보다 1.9%포인트 낮아졌다.

올 1·9월 월평균 소득이 1백만 1천 3백 5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 반면 지출은 96만 7천 8백 원으로 7.8%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지출 가운데 기본소득의 비중이 4.8%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전례없이 높은 후자수준이다(1백프로 포함).

12만 9천 원으로 작년 동기(91년 5월) 3백 원(12만 2천 3백 원)보다 21만 3천 7백 원(23.3%) 늘었다. 반면에 가계지출은 월평균 82만 7천 2백 원으로 작년 동기(69만 8천 1백 원)보다 12만 9천 1백 원(18.5%) 증가했다. 지출증가율이 4.8%포인트 낮아졌다.

## 車유지비·外食費 늘어 3·4분기 도시家計

3·4분기 도시家計

# 근로자층이 "일뜩행진"

## 3·4분기 도시가계收支동향 분석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은 過소비 自제분위 기등으로 최근들어 근로자 가계의 쓸쓸이가 전반적으로 진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비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過소비가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이므로 분석된다.

지난 3·4분기중 가구 당 월평균소득은 1백23만 3천원으로, 여기서 새금등 非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1백15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가운데 소비지출은 30·8%인 35만5천원이 저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중 소비지출에 사용된 부분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27·1%로, 2·4분기 27·1%에서 3·4분기에는 69·1%로 높아져 지난 85년 이후 처음으로 70% 이하로 내려갔다.

이처럼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지고 가처분소득이 높아지게 된 것은 소비지출의

## 마이카붐영향 교통비 43% 늘어 기호·외식비 식료품費 절반 차지

특히 마이카붐의 편승, 개인소득비가 42·7%나 늘었고 VTR과 TV 등의 한류인양비가 35·9% 자녀보육비용비가 31·0%의 증가율을 보였다.

장신구 구입비(46·5%) 및 각종 회비와 교제비등 잡비(42·8%)도 평균소비지출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여전히 過소비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소비지출에 비해 가처분소득이 더욱 크게 늘어났지만 소비지출액은 계속 부푼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소비지출에 비해 가처분소득이 더욱 크게 늘어났지만 소비지출액은 계속 부푼으로 늘고 있다.

증가가 가처분소득증가를 밑돌게 된 것을 의미한다.

3·4분기중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28·1%가 늘어난데 비해 소비지출증가율은 24·2%에 머물렀다.

특히 소비지출증가율은 지난해 1·4분기(21·2%)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가 지난 2·4분기에 21·7%로 높아진 뒤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광역수도(1·4%) 피복·신발(20·4%) 및 가구·가사용품(22·2%)의 소비지출증가율은 2·4분기보다 크게 떨어져 평균 소비증가율을 밑돌았다.

식품비는 17·4% 증가, 소비지출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9%포인트 낮아진 33·1%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호식품(25·2%)과 외식費(25·8%)의 지출비중이 식품비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소비의 고급화로 식생활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鄭東植기자〉

한편 광역수도(1·4%) 피복·신발(20·4%) 및 가구·가사용품(22·2%)의 소비지출증가율은 2·4분기보다 크게 떨어져 평균 소비증가율을 밑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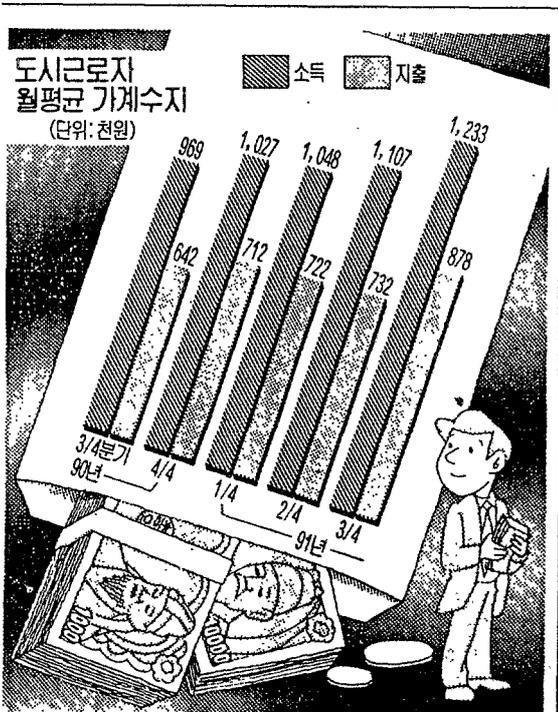
식품비는 17·4% 증가, 소비지출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9%포인트 낮아진 33·1%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호식품(25·2%)과 외식費(25·8%)의 지출비중이 식품비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소비의 고급화로 식생활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鄭東植기자〉

# 도시家計 씬씬이 건전해졌다

## 月소득 123만원에 지출 87만원



〈그림: 朴春煥〉

### 통계청 3·4분기收支분석

과소비 자제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데 힘입어 최근들어 근로자 家計의 씬씬이 한결 건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월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 7~9월을 90년 3/4분기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은 23.3% 증가한 123만 원, 지출은 13%가 늘어난 87만 원으로 집계됐다.

1백23만2천7백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만9천2백원에 비해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비자가 상승세를 잡았던 실정중가율은 16.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기간중 월평균 가계지출은 87만7천8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3.3% 증가한 1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3·4분기중 근로자 가계수지의 흑자는 35만5천원으로 작년동기 대비해 3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이와 관련된 구상 「월간소비선형」은 69.2%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4%에 비해 2.2%포인트가 낮아졌고 합계소비선형도 61.3%로

어나는데 그쳐 지출증가를 이 소득증가를 훨씬 앞섰을 것으로 보인다.

# 車구입등 교통비도 34%증가 기호의식費늘어 소비 고급화

자녀동기대비 0.3%포인트가 감소했다면서 이는 최근들어 소비문화가 전반적으로 자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여름철 상승 및 가구당 취업원수의 증가에 따라 가구원의 소득증가율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의 △교복(복합) 34.1% (△교복교양모자) 32.1% (△모자의료) 27.3% (△가구事務용품) 22.2% (△피복신발) 20.4% 등의 순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한 지출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주거비(7%) △판공수도(1.4%) 등은 낮아진 증가율에 머물렀다.

월평균 소득중 근로소득은 1백6만1천3백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5.5%가 증가한 반면, 기타 소득은 17만1천4백원으로 38.9%가 늘어났다.

또 근로소득 가운데 家口主의 소득은 88만9천2백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7%가 늘어났으며 家口員의 소득은 17만2천1백원으로 35.6%가 증가하

### 3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

임금상승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여성·노약자의 취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3/4분기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1백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증가에 비해 소비지출은 상대적으로 별로 늘지 않아 3/4분기중 가계수지 흑자율이 역시 사상 처음으로 3.0%를 웃돌았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3/4분기중 도시근로자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소비지출은 소득증가액을 훨씬 밑돌았다.

3/4분기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87만8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3%(물가상승을 감안하면 13.0%) 늘어났다.

이에 따라 소득 중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평균 1백15만3천원, 소비지출은 79만8천원으로, 소득에서 소비를 뺀 흑자액이 가구당 35

한편 전체적인 소비증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소비의 고급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식료품비는 이 기간중 월평균 26만4천원이 지출돼 전년동기보다 17.4%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이에 따라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엔겔계수'도 1년전

## 소비 고급화 추세 뚜렷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23만3천원으로 1년전에 비해 27.2%(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기준으로는 16.6%) 증가했다.

이것은 근로소득 부문에서 가장의 소득이 '88만9천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3.7%, 가구원이 17만2천원으로 35.6% 늘어났고, 사업 및 부업소득 3만5천원(44.1% 증가), 재산 및 이전소득 13만6천원 등 기타소득이 전년동기보다 38.9% 증가한 17만1천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만5천원에 달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또 흑자비율도 지난해 3/4분기보다 2.2%포인트 높은 30.8%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3/4분기의 평균 소비성향이 1년전보다 2.2%포인트, 한계소비성향이 0.3%포인트씩 낮아진 것을 감안할 때 소비증가추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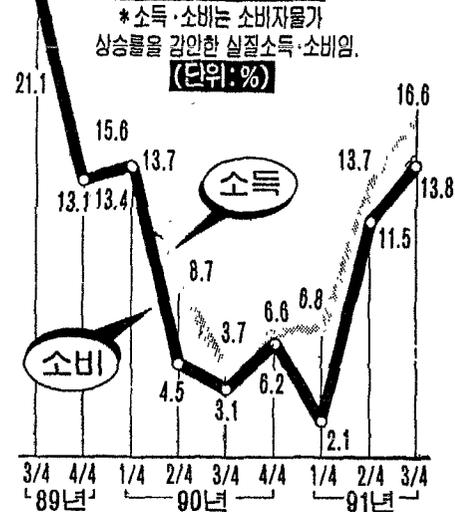
보다 1.9포인트 낮은 33.1을 나타냈다.

또 식료품비 중 주식비는 전년동기보다 4.0% 감소했고 부식비도 19.0%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기호식품비와 외식비는 각각 25.2%, 25.8%씩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각종 모임의 회비와 교제를 위한 잡비가 1년전보다 42.8%나 급증했으며, 자녀의

### 분기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소비증가율

\* 소득·소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소비임.  
(단위: %)



## 엔겔계수 낮아지고 외식비·교제비 등 '썩충' 전체 소비증가율 점차 둔화 흑자율 높아져

보충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도 31% 늘어났다.

이밖에 교통·통신(34.1%), 교육·교양·오락(32.5%), 보건·의료(27.3%), 가구가 사용품(22.2%), 피복·신발(20.4%) 등이 높은 소비증가율을 보여 최근의 소비 고급화 추세를 반영했다.

그러나 집값이 안정되면서 주거비 지출은 7% 증가하는 데 그쳤고 광열·수도비도 1.4%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신현만 기자)

91.12.22

한국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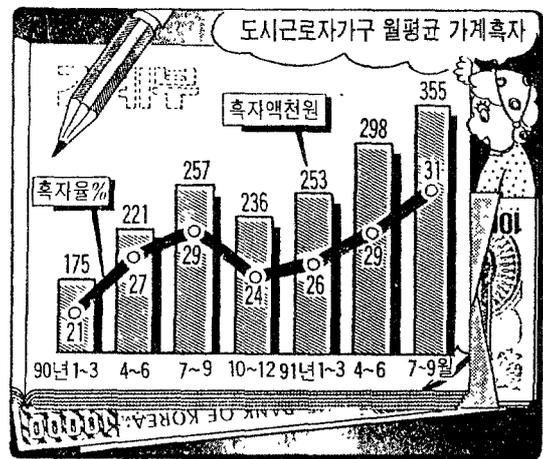
도시勤勞者

月 123만 원 벌어 87만 원 지출

家計수지 알뜰

統計廳 3·4분기 동향 발표

黑字 35만원 38.1% 증가  
소비는 계속 고급화 추세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지출증가율을 크게 웃돈다는 통계수치가 합쳐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재잡비, 교육비, 의식비 등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소비고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21일 「올 3·4분기 가계수지동향」에서 지난 7·9월중 도시근로자가구구성원들의 월평균 소득은 1백23만2천7백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만9천2백원에 비해 27.2%(소비자물가상승률 6%나 높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기간중 가계지출은 87만7천8백원으로 작년동기대비 23.3%씩

증가율 13%가 증가소 득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을 훨씬 앞섰다. 이어 따라 3·4분기중 가계수지 흑자는 35만5천 원으로 지난해 3·4분기 보다 38.1% 증가했다. 또 월평균 소득중 근로소득은 1백6만1천3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5.5% 증가한 반면 기타소득은 17만1천4백원으로 38.9%나 늘었다.

근로소득중 家口主의 소득은 88만9천2백원으로 작년동기보다 23.7% 늘었고 家口副의 소득은 17만2천1백원으로 35.6% 증가, 임대소득 및 가구당 취업자수의 증가에 따라 가구원의 소득증가율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계지출면에서는 소비지출이 79만7천

6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4.2% 늘었고 사회보장분담금 등 비소비지출은 8만2백원으로 15% 증가했다. 소비지출 가운데는 스코제를 위한 소비비(3만4천9백원)가 42.8% 증가했고 스파와 뷰티교육비(1만5천1백원)가 31%(△의소비) 1만2천3백원(△의소비) 25.8% 등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식료품비는 월평균 26만4천원으로 작년동기보다 17.4%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엔셀지수는 33.1을 기록, 작년동기와 견줘 1.9포인트가 낮아졌다.

# 경제력 향상 〇〇기〇〇 **사람보다 장비**

## 작년 광공업실태 인력 2.7% 줄고 資産 25% 늘어

### 수형업체 생산 더 활발

#### 중화학비중 높아져 산업高度化 뚜렷

#### 업체수 京畿가 서울 앞달려

우리나라 광공업에 관한 통계는 1990년 광공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발표되어 있다. 전체인구는 4천만 명인데 광공업 종사자는 1백만 명으로 인력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그러나 광공업 실태는 인력 비중이 낮아도 1990년 광공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공업 총생산액이 1백조 원에 달하며, 광공업 총자산이 25조 원으로 총자산 비중이 25.4%에 달한다. 광공업 실태는 인력 비중이 낮아도 1990년 광공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공업 총생산액이 1백조 원에 달하며, 광공업 총자산이 25조 원으로 총자산 비중이 25.4%에 달한다.

합계 총생산액 중 중화학비중이 38.8%로 높았다. 중화학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중화학산업의 생산액이 38조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38.8%에 달했다. 중화학산업의 생산액이 38조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38.8%에 달했다.

합계 총생산액 중 중화학비중이 38.8%로 높았다. 중화학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중화학산업의 생산액이 38조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38.8%에 달했다. 중화학산업의 생산액이 38조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38.8%에 달했다.

합계 총생산액 중 중화학비중이 38.8%로 높았다. 중화학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중화학산업의 생산액이 38조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38.8%에 달했다. 중화학산업의 생산액이 38조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38.8%에 달했다.

합계 총생산액 중 중화학비중이 38.8%로 높았다. 중화학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중화학산업의 생산액이 38조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38.8%에 달했다. 중화학산업의 생산액이 38조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38.8%에 달했다.

1. 자료의 원어 종사자

90년白書 7萬업체 308萬명종사

기계화·자동화·정보화  
중화학주도 평균出荷증가

중화학주도 평균出荷증가

국내의 광공업종사자가 지난 89년부터 증가시작, 이같은 감소세가 작년에는 더 확대됐으며 업체들은 대규모설비투자도 신규노동인력 감소에 대처하고 있다.

또 광공업의 면용률도 1989년 22.9%에서 23.2%로 증가했다. 유인노동력결핍현상의 행진장세가 두달후체인 반면 기계장비에 중화학부문의 높은 비중을 지속, 중화학분야의 종사자의 제조업구분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는 종업원이 1백인 미만의 소규모업체의 종사자수가 대기업보다 1.4배 두드러지고, 광공업체의 57.2%가 서울(仁川京畿道)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광공업의 생산량(업체 7만4천89개, 종사자 308만명)을 분석한 「89년 광업·제조업·서비스업」 보고서에 실려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 5인 이상 광공업체수는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작년총 4.4%가 늘어난 7만4천69개로 집계됐다. 이는 10년전인 지난 89년(3만2천5백60개)과 비교할 때 1.16% 늘어난 것이다.

한편 광공업종사자는 지난 89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다. 지난 89년 1.3%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엔 2.7%가 줄어 3백8만명이로 나타났다.

이와 지난 88년(3백20만명)보다 4% 줄어든 수순이다. 특히 광공업 1백인 이상 사업체의 직원중종사자 산술평균이 5.7%에 이르러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처럼 업체당 종사자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당 평균출하액은 작년총 13.6%가 늘어 24억8천4백만원(당사)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 89년(10억9천8백만원)보다 1.26% 늘어난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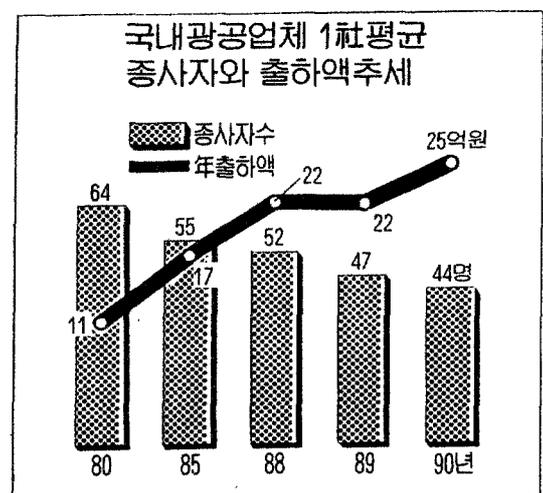
통계청이 발표한 사실은 국내 광공업체들의 설비투자확대로 노동력감소를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설비투자의 주요지표인 유형고정자산이 △88년 22.4% △89년 25.4%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25.2%가 증가, 작년말 현재 총 75조3천5백억원에 이르렀다.

한편 작년 총출하액전세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1백인 미만 사업장이 평균 24.6%로 그 이상인 사업장(평균 16.7%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생산활동을 보였다.

한편 중화학분야의 작년 총출하액가치가 22%로 정유업(12.8%)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전체 제조업 가운데 중화학분야의 비중이 작년엔 66.8%로 지난 89년(62.7%)보다 4.1%포인트 높아졌다. 국내 광공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15개 시도중京畿道가 전체사업체의 26%출하액의 24.9% 종사자의 24%를 차지해 광공업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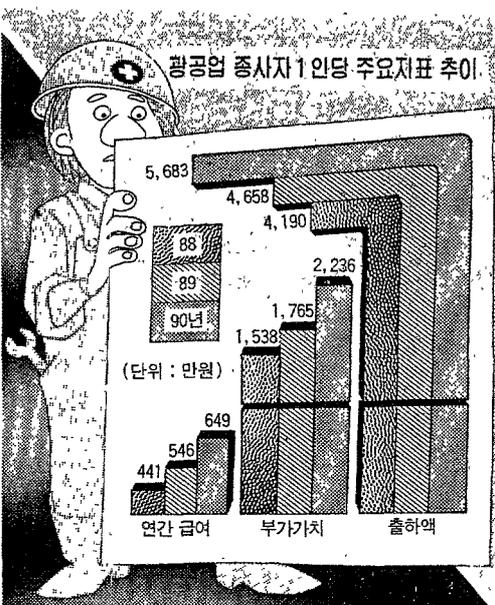
〈襄仁俊〉



# 鑛工業부가가치 높아졌다

## 통계청 90년 기준 業體조사

89년과 90년 기준의 鑛工業부가가치 5,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 이는 89년 4,658억 원에서 90년 5,683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그림: 鑛工業부가가치>

89년 대비 23.7% 증가했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89년 대비 23.7% 증가했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광공업 주요지표

구분	단위	89	90	증가률 (%)	
				89/90	90/90
생산액	억 원	67,484	70,469	3.3	4.4
가공가치	억 원	3,167	3,080	-2.8	-2.8
부가가치	억 원	149,759	177,049	17.7	18.2
판매액	억 원	147,556	175,870	19.5	19.5
고용인원	만 명	55,902	55,349	-1.0	-1.0

89년 대비 23.7% 증가했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89년 대비 23.7% 증가했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 京畿·서울·釜山지역에 60%몰려

89년 대비 23.7% 증가했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89년 대비 23.7% 증가했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89년 대비 23.7% 증가했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89년 대비 23.7% 증가했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89년 대비 23.7% 증가했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이는 89년 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 광공업 大都市 편중 완화

통계청조사 서울所在업체수 3.8% 감소

## 중소·중화학비중 매년 늘어 설비 자동화로 중공업원 감소 작년 7만 469개社서 175兆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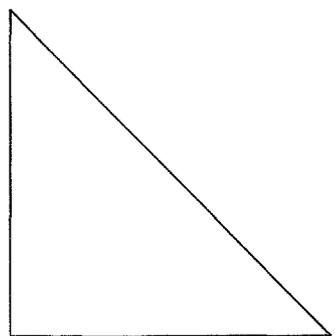
산업체의 수도점 및 내도  
시 편중현상이 점차 완화  
되고 있으며 전체 躰業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90년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  
에 따르면 89년에 비해 90  
년에는 제조업체들의 매출  
이 큰폭으로 신장세를 보  
인 가운데 △산업체 지방  
분산 △중소기업 비중 증가  
△중화학공업 비중 제고 △  
소규모업체 활황 △중공업  
감소 및 설비투자 증가 등의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연말 현재  
1만 7천 5백 24개의 광공  
업체가 몰려있던 서울지역  
은 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사업체수가 3.8% 감소를  
기록, 광공업체 점유율이  
27%에서 24.9%로 줄어  
들기도 했다.

전체 광공업 매출액 중  
연원 3백백 만의 중소기업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85년 35.4%에서 87년 38.1%  
89년 42.4%에 이  
어 90년엔 43%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사업체수  
비율도 89년 98.1%에서  
98.3%로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과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  
해 적극적인 세제·금융지  
원책을 펴는 것에 비해서  
는 증가폭이 미흡한 것이  
로 평가되고 있다.

90년 광공업 통계조사에  
서도 이와 함께 노동생산성  
으로 기업체들이 중공업  
신규투입보다는 설비 자동  
화에 치중, 광공업체 종사  
자수는 지난 88년 3백 20  
만 8천 명을 고비로 줄어들  
기 시작해 △89년 3백 16



<국내 광공업현황>

	단위	증감률(%)	
		89년	90년
사업체수	개	67,484	70,469
종사자수	천명	3,167	3,080
생산액	10억원	149,759	177,137
출하액	"	147,532	175,049
부가가치	"	55,902	68,870
유형고정자산	"	60,183	75,349

# 올 개인서비스料 18.3% 상승

## 전체物價선도 농수축산물·집세·공공料金順

기획원조사

올 12월의 지속적인 행정진도와 가격감사단추세로 볼때 12월의 물가 상승률은 11.8%로 개인서비스의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개인서비스의 상승률은 지난 18.3%나 상승한 전월과 비교하여 18.3%나 상승한 전월과 비교하여 8.7%로 오름세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물가의 올 해 소미자물가 상승률은 11.8%로 11월의 11.8%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월의 11.8%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물가의 올 해 소미자물가 상승률은 11.8%로 11월의 11.8%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월의 11.8%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2월의 물가 상승률은 11.8%로 개인서비스의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개인서비스의 상승률은 지난 18.3%나 상승한 전월과 비교하여 8.7%로 오름세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물가의 올 해 소미자물가 상승률은 11.8%로 11월의 11.8%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월의 11.8%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2월의 물가 상승률은 11.8%로 개인서비스의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개인서비스의 상승률은 지난 18.3%나 상승한 전월과 비교하여 8.7%로 오름세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물가의 올 해 소미자물가 상승률은 11.8%로 11월의 11.8%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월의 11.8%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2월의 물가 상승률은 11.8%로 개인서비스의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개인서비스의 상승률은 지난 18.3%나 상승한 전월과 비교하여 8.7%로 오름세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물가의 올 해 소미자물가 상승률은 11.8%로 11월의 11.8%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월의 11.8%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2월의 물가 상승률은 11.8%로 개인서비스의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개인서비스의 상승률은 지난 18.3%나 상승한 전월과 비교하여 8.7%로 오름세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물가의 올 해 소미자물가 상승률은 11.8%로 11월의 11.8%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월의 11.8%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2월의 물가 상승률은 11.8%로 개인서비스의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개인서비스의 상승률은 지난 18.3%나 상승한 전월과 비교하여 8.7%로 오름세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물가의 올 해 소미자물가 상승률은 11.8%로 11월의 11.8%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월의 11.8%와 비교하여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백**

# 1992 년 보 도 기 사

여 백

# 1/4분기 보도기사

(1월~3월)

**여 백**

인구증가율 감소... 경제 안정망

7차계획 「인구요인과 경제」 전망

6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인구요인(要因)과 무관치 않다. 당시 인구성장률이 연 1% 이하로 급격히 둔화되면서 생산성과 수출분배가 개선됐던 것이다. 또한 노동력의 질적변화를 불고와 생산성을 높인 것도 인구요소가 가져다준 「선물」이었다. 그렇다면 7차계획의 전망은 7차 5개년계획기간(92~96년) 동안에 인구요인의 유리점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최근 연세대 경제학과 吳成烈교수는 이 물음에 대해 관심을 끄는 인구요인들을 내놓았다. 통계청의 인구변동자료에 근거

한 이들을 향후 경제를 「어둡다」고 전망했다. 「어둡다」고 전망한 것은 앞선 인출면에서 인구증가율의 감소추세가 더 이상 유리점제에 불리요인으로만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7차계획기간에 인구증가율은 수치상으로는 0.96%에서 0.89%로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경제에 더욱 영향을 끼치는 인구내부구조가 질적변화를 맞게 된다. 노령화 고학력화 노

노령·고학력 추세 산업인력難 15~19세 年 평균 1.8% 줄어

사회학자 조화흥은 4가지 특장의 「것」이다. 이는 예년에 유례없이 유리점제에 부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진행될 가동성의 높다. 吳교수는 이같은 분석의 틀에서 인구의 고학력화 추세를 밝게 본다. 비부담을 받게 된다. 인구의 도시화율도 73.3%로 상승한다. 게다가 「베이비붐」세대(54~60년출생자)인 30대중반이구가 도시로 집중하면서 핵가족단위화 형성한다. 개개 가족규모는

축약추세를 보였다. 출생률의 저하로 아동인구는 계속 감소된다. 대신 15~64세인구중 고학력화력이상자가 57.5%에서 62.8%로 늘어 두꺼워진다. 특히 대학인구는 이중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의 전망적인 교육비 부담을 시사한다고 지적

했다. 우선 7차계획기간 중 노령인구증가율은 6차계획기간에 비해 0.5포인트점증 떨어져 2.0%선에 머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60년대 이후 낮은 출산률(15~35세사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령층을 막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인구(15~19세)가 1980년(15~19세)의 1.8%에서 1.8%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산인구감소는 인구의 불확실 수지가 많다. 더욱이 인구의 고

학력화는 인력난에 상승추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농업·광공업 등 산업부문에서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吳교수는 노령화문제와 관련하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5.0%에서 5.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사회보장 수요를 더욱 증가시킨다. 「며느리」가 노년부양비는 전체복지예산의 8.0%를 차지하게 된다. < 權普植 기자 >

# 출산율 1.6명... 하루 177명

상해가 많을수록 시벌처  
출생률이 낮다. 대도시의  
이러한 출생률 편차는 경제  
발전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출생률은 1.6명  
이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5명보다 낮다.

출생률의 감소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부터 나타나고 있다.

## 출생률 지표

출생률 1.6명... 하루  
177명.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5명보다 낮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다.



출생률 1.6명... 하루  
177명.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5명보다 낮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다.

출생률 1.6명... 하루  
177명.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5명보다 낮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다.

출생률 1.6명... 하루  
177명.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5명보다 낮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다.

출생률 1.6명... 하루  
177명.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5명보다 낮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다.

출생률 1.6명... 하루  
177명.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5명보다 낮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다.

## 20세기 상유권



# 산업경기 호조勢

## 작년11월 현재 경기선행지수도 7개월째 상승

전반적인 경기후퇴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산업경기에는 아직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산업경기동향」에서 지난해 11월의 국내산업생산과 출하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8.5% 및 12.1%씩 증가했으며, 제조업가동률도 80.3%로 10월의 82.1%

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도산매판매 및 내수용소비재출하는 전년동월대비 8.7% 및 11.7%씩 높아졌고, 실업률도 2.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경기동향지수는 10월보다 0.9%가 증가했으며,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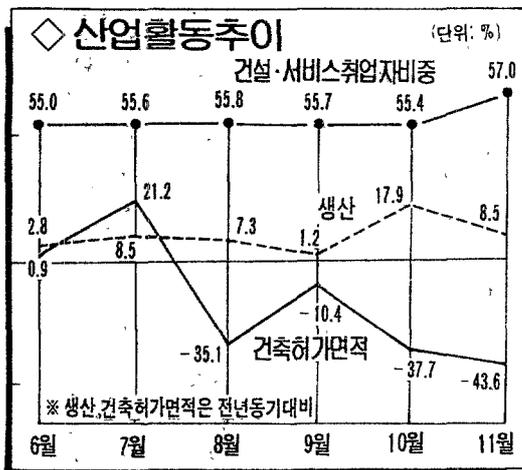
개월후의 경기를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도 0.5%가 증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건설경기진정대책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 및 기계설비투자 등 투자는 큰폭의 감소 내지 증가세 둔화 조짐을 보였는데, 특히 민간건설조주는 전년동월대비 41.9% 진폭하가

면적은 43.6%가 각각 감소했다. 기계류수입허가도 58.3%가 줄었으며, 국내 기계수주는 2.2%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의 인력이 탈도 제조업에서 1만1천명 등 전체광공업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6천명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 등 3차산업의 취업자는 75만4천명이나 늘어났다.

文炳學통계청을 제조사국장인 「황후수출」은 다소 증가될 전망이다. 내수증가세 둔화 추세,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감소 등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서비스관련 취업자 史上 최대



## 千78萬 : 1년새 75만 늘어

### 전설경기·기계류輸入 진정추세

#### 통계청, 11월중 산업활동추이향

건설및서비스업계로인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수록  
서비스업이  
발표한 11  
월중 산업활동추이에  
따르  
면 11월말 현재 건설서비스  
도소매업종의 취업자수는  
모두 1천78만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1천8백93만  
7천명)의 57.0%를 차지  
했다.

건설및서비스업계로인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수록  
서비스업이  
발표한 11  
월중 산업활동추이에  
따르  
면 11월말 현재 건설서비스  
도소매업종의 취업자수는  
모두 1천78만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1천8백93만  
7천명)의 57.0%를 차지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만4천명, 2.4%  
포인트가 각각 증가한 것으  
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부문의 취업자수는 건설  
1백65만명, 서비스 2백  
84만명, 도소매 4백17만  
명이다.

반면 제조업체 취업자수  
는 11월말 현재 4백94만8  
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  
.1%에 그쳤는데 이는 90  
년 11월에 비해 1만1천명  
0.9%포인트가 각각 감  
소한 것이다.

한편 국내 경기는 수출부  
진에도 불구하고, 도소매 판매  
증가(8.7%) 등 내수 부문  
에선 호조를 보이고 있으  
나 건설경기가 뚜렷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경  
상적 자족 확대의 주요인인  
기계류 수입도 줄어들어 처음  
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등  
경기 둔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1월중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7.0%가  
줄어들었으며, 건축허가면  
적도 주거용을 중심으로 43  
.6%가 줄어들어 연 4개  
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또 기계류 수입허가는 무  
려 58.3%가 줄어들어 1  
1월중 무역 증가율이 전  
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  
.8%를 기록, 줄어들어 처음  
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노동 농산물 복지 환경등

## 地域別 통계 획정

### 市郡區로 세분화 작성

통계청 7차 5년계획 東歐圈자료도 늘리기로

정부는 제7차 5년계획 획정기간(92~96년)에 지방회시대의 만류와 인구도시가계노동농산물환경정책의 관한 통계를 市郡區로 市道별로 작성한다. 지방회 통계를 더욱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제7차 5년계획 획정기간(92~96년)에 지방회시대의 만류와 인구도시가계노동농산물환경정책의 관한 통계를 市郡區로 市道별로 작성한다. 지방회 통계를 더욱 확충키로 했다.

### 지역통계 획정案 주요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복지통계에 국민생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개발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또 지방회시대의 발전추진 전략안에서 지방회통계개발을 위한 7차 5년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통계청에서 세부적으로 전문위원을 통해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통계개발을 위한 7차 5년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통계청에서 세부적으로 전문위원을 통해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노인보육아동 5년마다조사 사망원인조사 10년주기 실시 대기수질등 국민환경지표도

통계청은 11월 29일 96년도의 시행을 이끈 96년도의 7차 5년계획기간 중 통계부문에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안의 따르면, 인구추계의 경우 주민등록전 산화체계가 갖추어짐에 따라 96년부터 市道가 조사해 온 산화인구조사를 내년부터 중단한다 대신 95년부터 행정기관에 신고된 주민등록을 통해 산화인구조사도 95년부터 실시한다.

다시 출생산 불배출면에서의 미등록자수를 실시하며, 미등록자수와 약 및 관리를 위한 조사도 5년주기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영양조사, 한자조사, 국민건강조사, 노인보육아동 5년마다조사, 사망원인조사, 10년주기 실시 대기수질등 국민환경지표도 포함된다.

인구를 통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 단위로 작성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를 93년부터 「표본가계조사」로 15개 시도별로 통계지료를 작성하며, 「노인보육아동 5년마다조사」도 94년부터 실시한다. 시도별로 세부사항에 지역자료를 발표키로 했다.

정지연과 박 보민은 주요작품의 생산량을 파악하기 「정치외교경제발전 및 생산량조사」도 현재 시도 단위로 체계에서 95년부터 실시한다.

이와 함께 東亞간 화해분 위기확산에 따라 東歐통계 자료를 확대, 蘇聯, 中國 통계자료의 東歐통계자료를 확대작성키로 했다.

「통인」시도 단위로 조사되는 인구조계경지 자료를 개발했으며, 생산량조사물 산구조로 확대한다. 또 환경시도의 주요환경인수인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조사에 중점을 둔다. 「대기오염」조사에는 「대기오염」조사에 중점을 둔다. 「수질오염」조사에는 「수질오염」조사에 중점을 둔다.

〈白承勳〉

# 정부통계분야별 체계화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5년계획기간중 산업및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변화상태를 정확히 측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현재 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환경·교통·보건위생·사회복지과학기술·정보화산업 분야에 관한 각종 통계를 새로 개발하거나 크게 개선키로 했다.

또 지방화시대 전개에 따라 앞으로 지역계획및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지역별 통계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전국단위의 통계 이외의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별 기초통계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통계정보시스템·확장·자료제공방법개선, 해외 통계·국제협력 등을 통해 각종 통계를 많은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서비스를 대폭 보

## 통계청, 7차 5년 계획발표

수 있도록 통계서비스를 대폭 보 완키로 했다.

통계청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통계부문 계획을 발표했다.

# 환경·보건위생·사회복지등 새로 지역별 기초자료개발·보급 함께

통계청은 내실있는 국가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현재 정부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환경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환경통계정보체계를 95년까지 구축하고 환경통계의 기초가 되는 상수도 오염원, 오염부하량조사와 폐기물 재활용조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보건 의료부문에서는 암환자·마약중독자 실태조사와 사망원인 실태조사, 국민보건의료비실태조사 등을 새로 개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과학인

력·정보산업기술및 기능인력·자동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새로 실시키로 했다.

인구추계의 경우 주민등록전산화 제제가 갖추어짐에 따라 그동안 안·도·가 조사해온 상주인구 조사를 내년부터 중단하는 대신 95년부터는 주민등록 및 출생·사망 등 인구통계 신고자료를 토대로 시·군·구·별도 인구를 체계화

기로 했다.

또 현재 전국단위로 작성되고 있는 도시가구의 소득및 지출실태 등에 관한 도시가계조사를 93년부터 표본을 대폭 확대, 15개 시·도별 단통계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매월 발표되는 「노동통계조사」도 94년부터는 시·도별 지역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정치면적과 면적·보리·감자·마늘 등 주요 작물의 생산량을 파악

하는 경지작물 植付면적및 생산량조사도 현재의 시·도단위 작성체계에서 95년부터는 시·군단위까지 확대하고 광공업·건설업·운수업 등 각종 업종별 통계도 95년까지는 시·군·구를 단위로 작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9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5.8%인 2백64만 3천명, 60세 이

상은 9.6%에 달한다는 등 노령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94년부터 5년부기로 노인실태에 관한 통계를 개발, 노인복지정책의 장·단기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장애인 실태조사」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며 「보육대상아동 실태조사」및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등을 새로 개발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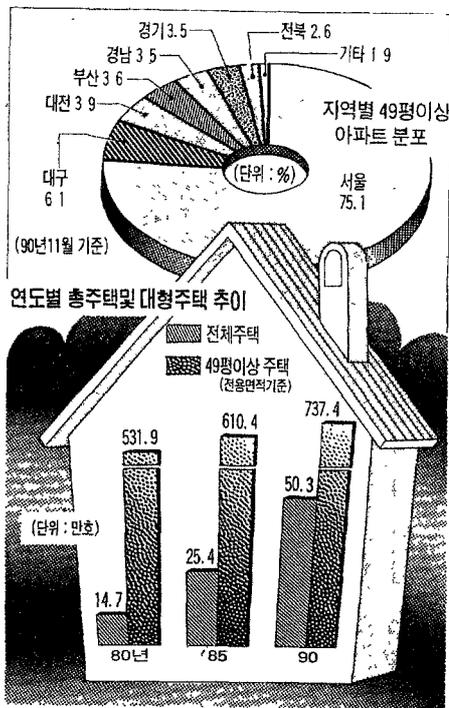
통계청은 이밖에 조사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지수들의 작성방법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조사대상품목 조정·가중치구조개편 등을 통해 현실반영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

해외통계도 강화, 東歐권 통계자료도 민들 예정이다.

한편 통계청은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 통계작성심청이 부친한 기관에 대해서는 통계지정기관에서 제외하고 통계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일정 수준 확보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표협의를 면제해주는 등 통계작성기관및 공표대상통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盧應根기자>

專用 49坪 이상 全國에 50萬채

# 주택大型化 추세



<그림: 金弘烈기자>

90년 11월 기준 전국에 50만채 이상의 전용 49평 이상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서울이 75.1%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경기 3.5%, 경남 3.5%, 부산 3.6%, 대전 3.9%, 대구 6.1%, 전북 2.6%, 기타 1.9%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80년 14.7만호, '85년 25.4만호, 90년 50.3만호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80년대는 531.9만호, '85년 610.4만호, 90년 737.4만호로 총 주택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90년 11월 기준 주택조사**

90년 11월 현재 전국의 월 기준으로 실시된 주택조사 결과, 전국에 50만채 이상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서울이 75.1%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경기 3.5%, 경남 3.5%, 부산 3.6%, 대전 3.9%, 대구 6.1%, 전북 2.6%, 기타 1.9%로 나타났다.

## 85년비 2배...서울이 단독·아파트·연립順 많아

90년 11월 기준 서울에 46만 8천 8백 88호의 아파트가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5년 2만 2천 4백 10호에 비해 20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의 아파트 건설은 85년 2만 2천 4백 10호, 88년 10만 3천 7백 47호, 90년 46만 8천 8백 88호로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건설은 85년 2만 2천 4백 10호, 88년 10만 3천 7백 47호, 90년 46만 8천 8백 88호로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85년 2만 2천 4백 10호에 비해 20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의 주택 건설은 85년 2만 2천 4백 10호, 88년 10만 3천 7백 47호, 90년 46만 8천 8백 88호로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85년 2만 2천 4백 10호에 비해 20배 가까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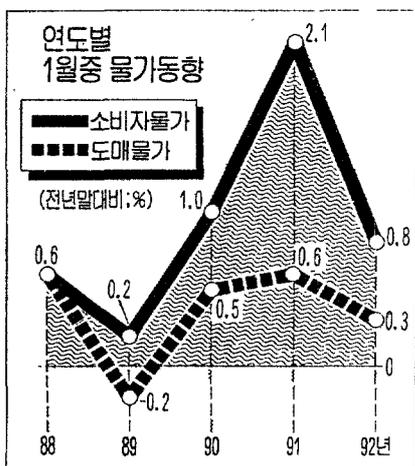
# 1월 소비자물價 0.8% 올라

## 韓銀·통계청 발표 작년同期 상승률의 절반

### 2월엔 公共料등 인상 물려 "불안"

1월 물가가 연초물가로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0.6%·90년의 0.5%에 는 지난 89년 이후 3년만 도매물가도 지난해 1월의 비해 상승률이 둔화했다. 에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30일 韓銀과 통계청이 발표한 「1월중 물가동향」 에 따르면 이 기간중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말보다 0.8%·도매물가는 0.3%가 각각 올랐다. 이같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의 2.1%에 비해 1.3%포인트나 낮아졌으며 89년 1월 0.2% 상승률 기록이



그러나 2월중엔 실질 이 커인덱스 전월요율의 평균 6% 인상되고 시내·시의버스 등 교통요율의 크게 오를 예정인데다 대 화동물금·中·高수업료도 각각 5%·7.5%씩 인상 될 예정이어서 물가안정노 령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1월중 물가상승률이 이 처럼 둔화된 것이 연말연 시를 전후한 물가안정시책 에 힘입어 중앙은행과 개 인서비스업의 요금세가 주춤한데다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가격이 지난해 1

월보다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는 농축수산물 이 1월중 0.8% 상승에 그쳐 지난해(3.2%)보다

올름세가 둔화된 것을 비 롯 공산품과 집세가 각각 0.5%·개인서비스요율이 3.2%의 상승률을 나타 냈으며 지난해 0.8% 및 9.2%가 올랐던 공공요 금과 에너지가격은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 했다.

# 소비자物價 0.8% 상승

1월중 89년 이후 最低

개인서비스料 3.2%·집세 0.5%  
농축수산물 0.8%·공산품 0.5%

釜山·大邱 0.9%  
馬山 0.2% 올라

## 내달 公共料등 불안이여기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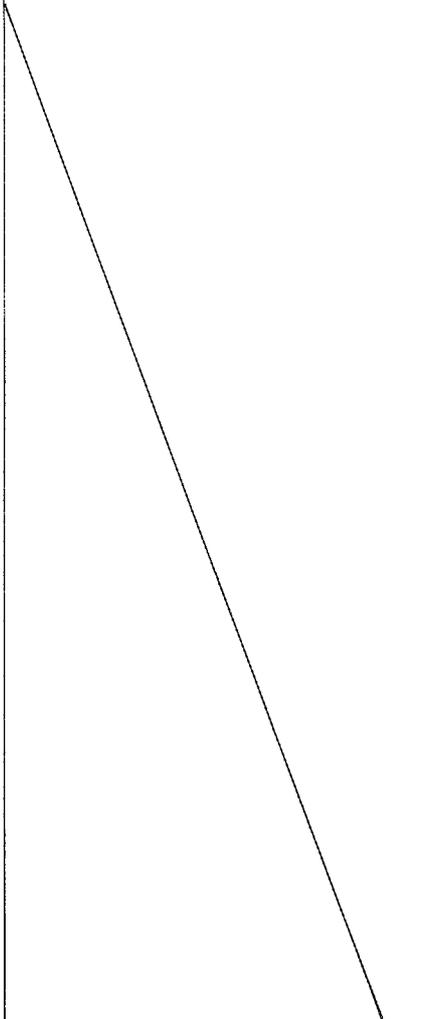
1월중 소비자물가는 0.8% 도매물가는 0.3%가 올라 지난 88년 이후 3년만의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은 30일 발표한 「1월중」 물가 동향에서 전년비 등 개인서비스요금과 공산품과 알뜰부의 가격이 인상의 노골적이라고 진단하며 비해 소비자물가는 0.8%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 도매물가도 지난해 말에 비해 0.3% 상승한 0.3%로 떨어졌고, 1월중 소비자물가는 0.8% 상승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3.2% 상승한 0.8%로 공산품 집세가 각각 0.5%씩 올랐다.

81원에서 1만7천1백7원으로 31.7%나 올랐고 다량카피(3.1%)·갈비탕(2.3%)·저개발반(1.4%) 등도 인상이었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주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또 공산품 집세는 2.6% 올랐고 △쌀 6.6% △소주 3.9% △천주 4.8%가 각각 올랐으며 과일채소류(농산물)는 2.3% 사과(9.9%) 배(7.8%) 산마(13.4%) 등도 큰 폭이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釜山·大邱 濟州등이 0.9%의 물가 상승률을 보며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고 馬山(0.2%)·仁川(0.3%) 등은 거의 물가가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나 1월중 이같은 물가 상승세가 각종 공업용품의 인상을 누릴때다.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집중관리하에 기의 것이어서 물가 상승세가 진정됐다가 보다는 인상이기가 늦춰졌기 때문이므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달라 2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6.1% 12월에는 각각 퍼스요금의 대폭 인상과 3월 이후는 고수요의 과열과 물가 상승이 7.5% 5% 등을 계획으로 있어 물가 불안이여전 여전할 것으로 나타났다.



# 올 산업활동 위축 전망

건설·기계설비투자지표 계속하락

## 작년 실업률 2.3% 선

통계청 「12월·연간 산업동향」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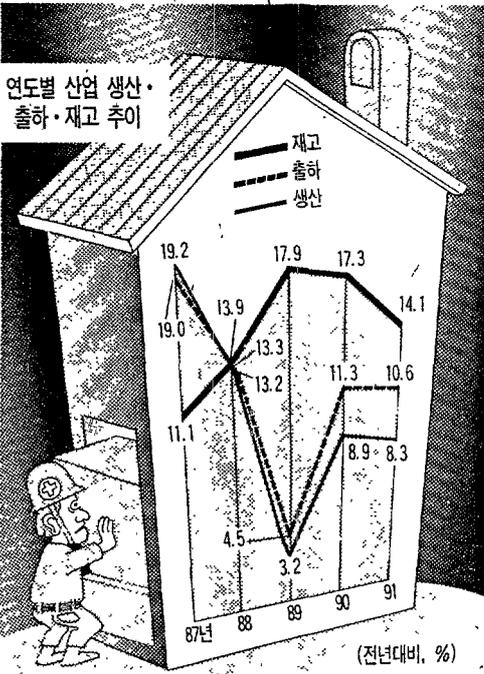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 및 출하와 비교적 견실한 실업률을 나타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3년만에 80%선에 달했으며 실업률은 연간평균 2.3%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건설 및 기계설비 투자의 각종 선행지표들이 정부의 경기진정책이 본격화된 작년 하반기 이후가 되면 하반기를 못보았을 경우 실업률이 아무래도 상승의 우려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제조업 생산은 19.2% 증가했고, 출하는 13.9% 증가했으며, 재고는 11.1%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 보면 12월 제조업 생산은 19.0%, 출하는 13.2%, 재고는 11.1%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생산이 17.9%, 출하가 13.3%, 재고가 13.9% 증가했다. 91년 12월 제조업 생산은 17.3% 증가했고, 출하는 10.6% 증가했으며, 재고는 8.9%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 보면 12월 제조업 생산은 17.3%, 출하는 10.6%, 재고는 8.3%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생산이 14.1%, 출하가 8.3%, 재고가 11.3% 증가했다. 91년 12월 제조업 생산은 14.1% 증가했고, 출하는 8.3% 증가했으며, 재고는 11.3%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 보면 12월 제조업 생산은 14.1%, 출하는 8.3%, 재고는 11.3% 증가했다.

이와관련 통계청은 91년 12월 제조업 생산은 14.1% 증가했고, 출하는 8.3% 증가했으며, 재고는 11.3%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 보면 12월 제조업 생산은 14.1%, 출하는 8.3%, 재고는 11.3% 증가했다.

통계청은 12월 제조업 생산은 14.1% 증가했고, 출하는 8.3% 증가했으며, 재고는 11.3%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 보면 12월 제조업 생산은 14.1%, 출하는 8.3%, 재고는 11.3% 증가했다.

통계청은 12월 제조업 생산은 14.1% 증가했고, 출하는 8.3% 증가했으며, 재고는 11.3%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 보면 12월 제조업 생산은 14.1%, 출하는 8.3%, 재고는 11.3% 증가했다.



<그림 : 金弘烈>

자활률이 크게 부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간으로 9.7%가 감소, 85년 이후 6년만의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99년 3월말 현재 55.8%나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13.5%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1월말 55.1%로 55.1%로 떨어졌고, 2월말 55.1%로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3월말 55.1%로 다시 떨어졌다.

서비스업이 전체활동인구 증가분을 무지크리 흡수하고 있음. 제조업 인력까지 빠져나가는 '블루칼라' 현상이 제조업 인력에서 신화시킨 한 해였다. 99년 2.5%의 증가, 98년 2.3%의 증가, 97년 0.2%의 증가로 나타났다.

자동차 생산 및 수출이 12.3% 증가했다. 전기전자(10.9%) 선두업체(31.9%)는 14%의 산업을 차지했다. 18.1%의 증가, 98년 18.1%의 증가, 97년 8.3%의 증가, 96년 8.3%의 증가로 나타났다.

철강과 석유 정제업이 10.6%의 증가를 보였다. 99년 10.6%의 증가, 98년 10.6%의 증가, 97년 10.6%의 증가, 96년 10.6%의 증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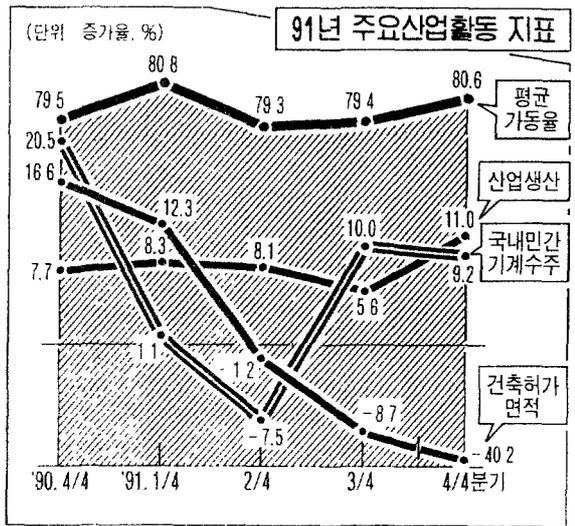
# 投資위축

## 소비재 증가율 製造業 앞서 석유精製·자동차 생산 호조

전년 5.4% 전년 1.3% 감소한 1.4%로 떨어졌다. 12.0%나 증가, 이전 10대 수위주의 기업들의 이익이 고 있었음도 드러났다.

투자 우선 건설부문은 16.7% 줄어든 것을 비롯해 13%가 감소했다. 다만 99년 6.7%가 늘었는데 이는 제조업 성장 중심 때문. 그러나 공업부문에 25.9%의 증가, 98년 25.9%의 증가, 97년 25.9%의 증가, 96년 25.9%의 증가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지표인 기계수주는 1.9% 증가에 머물러 전년대비 38.8%의 비핵심 부문에 감소했다. 기계류 수요가 역시 전년대비 1.4%의 수위수준에 머물러 있다. 99년 1.4%의 증가, 98년 1.4%의 증가, 97년 1.4%의 증가, 96년 1.4%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가 둔화된 것은 1차적인 설비투자를 대량으로 무관한 것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기에 비해 수출이 늘어난 것과 관련, 실적과 이익이 따라 투자마인드가

전체 고용이 1.4% 증가했다. 99년 1.4%의 증가, 98년 1.4%의 증가, 97년 1.4%의 증가, 96년 1.4%의 증가로 나타났다.

〈순서대로〉

지나왔던 91년과 마찬가지로 92년에도  
 예상대로 1월과 2월은 전년 동기  
 대비로 1.2%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3월에는 1.5%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4월에는 1.8%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5월에는 2.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2.4%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7월에는 2.7%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8월에는 3.0%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9월에는 3.3%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10월에는 3.6%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11월에는 3.9%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12월에는 4.2%의 증가세를 보였다.

# 過消費 여진

## 작년 産業활동動向 내역

고무제품 등 5%의 상승  
 산이 감소했고 선반업은  
 14.6%나 감소, 극심한 불  
 활을 겪었다.  
 12월에는 재고량이 급증  
 했는데 자동차 75.2%, 철  
 강 30.5%, 산업용 화학물  
 42.4%, 가동수발 64.4%  
 등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등 일부 제품은 수  
 출 및 내수 증가에 대비한 것  
 이나 선반업은 91년 11월  
 과잉투자에서 비롯된 것.  
 수출이 늘지 않는데 수출업

◇91 연간 산업활동지표  
 <단위=증감률%, 천명>

구분	90	91
생산·출하	생산 8.9	8.3
	출하 11.3	10.6
투자	건설수주 55.8	13.9
	민간기계수주 31.4	△9.7
소매	소매재출하 15.2	12.2
	내구재 15.9	14.5
취업구조	경제활동인구 18,129	18,647
	취업자 17,679	18,224
실업률	제조업 4,983	4,930
	서비스업 10,156	10,810
자본	실업률 450	423
	실업률 2.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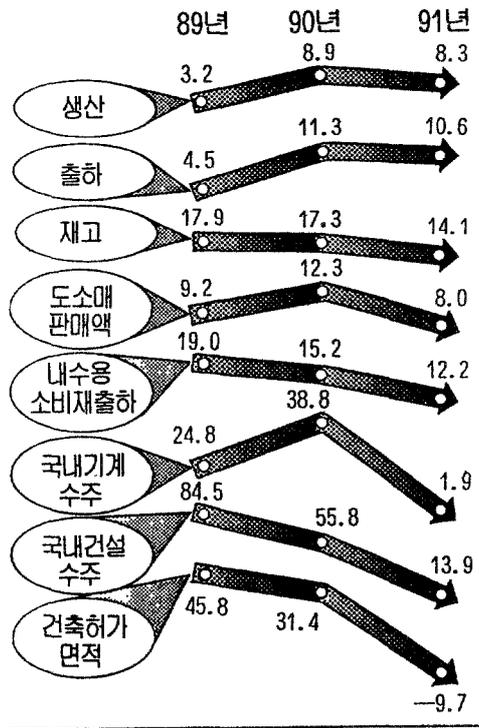
을 10.6%를 상회한 것이  
 며 실질 GNP 성장률 8.6%  
 6%를 3.6%나 낮추는  
 실적.  
 비내구재(11.0%보다  
 낮아) 14.5% 증가가 더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차등 고급소비재가 잘 팔린  
 때문.  
 90년 15.9% 증가율보다  
 떨어지긴 했으나 우리 사회에  
 아직 과소비 풍조가 뿌리박  
 히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그림] 산업활동지표의 비  
 9%로 88년 이후 4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88년  
 27.7%를 정점으로 기록된

## 景氣후퇴조짐 뚜렷

작년중 건축경기 및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도소매판매액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국내경기가 과열에서 벗어나 본격적 침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추세는 정부의 경제안정화대책 등에 따라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일각에서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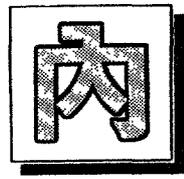
은 추세는 정부의 경제안정화대책 등에 따라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일각에서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산업활동 증가율 (전년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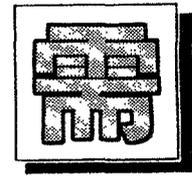
통계청 발표 91년 산업활동 동향

1월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산업활동지표가 전년대비 둔화되고 있다. 그중 산업생산은 전년보다 8.9% 증가, 90년의 8.9%에 비해 소폭 낮아졌으며 출하도 90년의 11.3%에서 10.6%로 0.7%포인트 낮아졌다. 재고는 17.3% 증가, 90년의 17.9%에서 0.6%포인트 낮아졌다. 내수용 소비재출하도 15.2% 증가, 90년의 19.0%에서 3.8%포인트 낮아졌다. 국내기계수주는 1.9% 증가, 90년의 24.8%에서 22.9%포인트 낮아졌다. 국내건설수주는 13.9% 증가, 90년의 55.8%에서 41.9%포인트 낮아졌다. 건축허가면적은 9.7% 감소, 90년의 31.4%에서 21.7%포인트 낮아졌다.



## 건축-設備투자 위축

및 공장건설을 민간부분이 맡고 있다. 90년 13.9%의 증가에 그쳐 88년의 84.5%, 89년의 55.8%에 비해 급속히 둔화됐다.



반면 수출용 장비수출은 같은 기간에 1.9% 감소에서 5.4% 증가로 반전, 내수용 장비수출은 9.7% 감소로 반전, 총수출은 79.6% 증가, 90년의 80.0%를 기록, 90년의 79.6%보다 약간 높아졌다. 건축설비를 보면 작년 중부내건설수주는 주택 건축설비를 보면 작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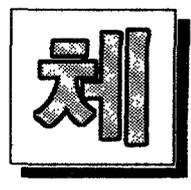
## 생산-出荷 급격 감소



소비부분에선 도소매 판매액 증가율이 8.0% (12.3%에서 4.3%포인트)로 90년의 11.3%에 그쳐 90년의 11.3%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정부의 일단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건축허가면적도 90년 31.4% 증가에서 작년엔 9.7% 감소로 반전, 총수출은 79.6% 증가, 90년의 80.0%를 기록, 90년의 79.6%보다 약간 높아졌다. 건축설비를 보면 작년 중부내건설수주는 주택 건축설비를 보면 작년

## 都小賣 판매도 주춤



수준은 12월 중 0.4% 증가에 그쳐 9~11월의 0.9% 증가에 비해 둔화됐다.

한편 12월의 경기先行지수는 건축경기동향지수, 제조업 동향지수, 서비스업 동향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액, 수입액, 인플레이션, 4개 지표가 평균 0.1% 증가, 11월의 비해 1.2%나 상승했다. 이는 지난 12월 5월의 1.6%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그러나 경기동향지수는 12월 0.2%포인트

고용 추이 <단위: 천명>

항목	90년말	91년말
총취업자수	17,679 (665)	18,224 (545)
농림어업	2,465 (7168)	2,415 (750)
광공업	5,057 (239)	4,999 (758)
제조업	4,983 (254)	4,930 (75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10,156 (593)	10,810 (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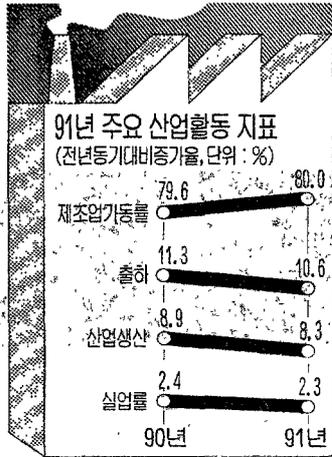
※ 註: 괄호안은 전년비 증감률

## 人力 서비스業 몰려

# 過消費속설비·건설투자둔화

## 91년 산업활동 동향

지난해 산업생산과 수출이 90년과 비슷한 수준의 호조를 보였으나 설비의 투자비는 건설경기진척률의 영향으로 90년 대비 33.5%가 감소했다.



제조업의 인력가동이 심화했고 이같은 이력나출 반영, 실업률은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인력가동이 심화했고 이같은 이력나출 반영, 실업률은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건설투자가면적은 주거용의 경우 16.7%가 감소했다.

건설투자가면적은 주거용의 경우 16.7%가 감소했다.

건설투자가면적은 주거용의 경우 16.7%가 감소했다.

## 실업률 2.3%... 사상 최저 수준

## 서비스업 人力 전체 취업자의 56%

## 석유·철강 등 호조, 섬유는 감소

제조업의 인력가동이 심화했고 이같은 이력나출 반영, 실업률은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인력가동이 심화했고 이같은 이력나출 반영, 실업률은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인력가동이 심화했고 이같은 이력나출 반영, 실업률은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인력가동이 심화했고 이같은 이력나출 반영, 실업률은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인력가동이 심화했고 이같은 이력나출 반영, 실업률은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도 90년 55.8%에서 지난해 13.9%로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했다.

도는 도산매관매가 8.0% 내수용 소비재출하가 12.2%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油化「투자」半導體·造船「수출」괄목

## 작년 産業活動 동향 <統計廳 분석>

조선(8월4일경)의 경우 어  
후전 9.0%가 감소한 반면  
정도는 증가했다.  
특히 4000톤급 수중잠수함의  
생산도 50%증가의 폭  
을 기록한 반면, 항공기  
수출은 88%증가의 폭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출은 19.0%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항공기  
수출은 16.0%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1%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18.1%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0%의 증가율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항공기  
수출은 16.0%의 증가율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 내수 늘어 생 신발·섬유·유류·태초·家電

신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0%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섬유  
수출은 15.0%의 증가율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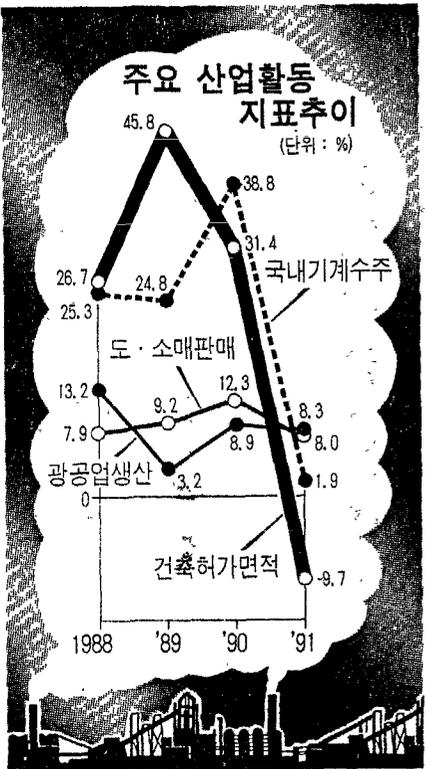
유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0%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초  
수출은 10.0%의 증가율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내수 증가는 전년 동기  
대비 15.0%의 증가율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섬유  
내수는 12.0%의 증가율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0%의 증가율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류  
수출은 8.0%의 증가율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0%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섬유  
내수는 10.0%의 증가율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초  
내수는 8.0%의 증가율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 24%증가

## 業界도 고전

이월 나타났지만, 전자·전자업 증가가 24%에 달했다. 제조업은 10.0%의 증가를 나타냈지만, 반도체업이 10.0%의 증가를 나타냈고, 컴퓨터업이 2.0%의 증가를 나타냈다. 자동차업은 1.0%의 증가를 나타냈고, 항공업은 0.5%의 증가를 나타냈다.

제조업의 증가가 24%에 달했다. 전자·전자업 증가가 24%에 달했다. 반도체업이 10.0%의 증가를 나타냈고, 컴퓨터업이 2.0%의 증가를 나타냈다. 자동차업은 1.0%의 증가를 나타냈고, 항공업은 0.5%의 증가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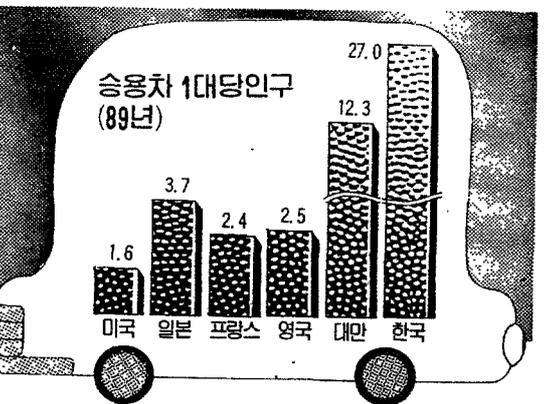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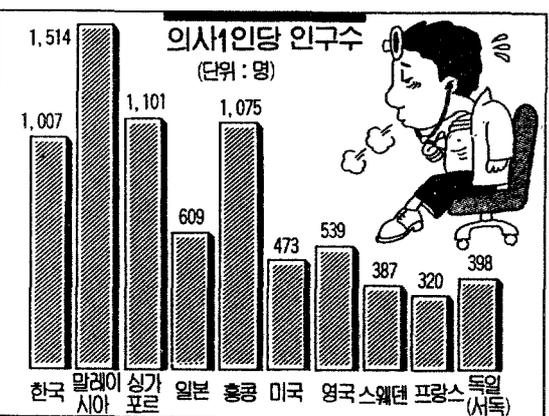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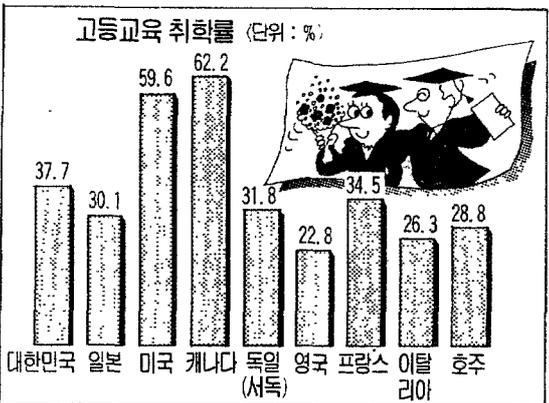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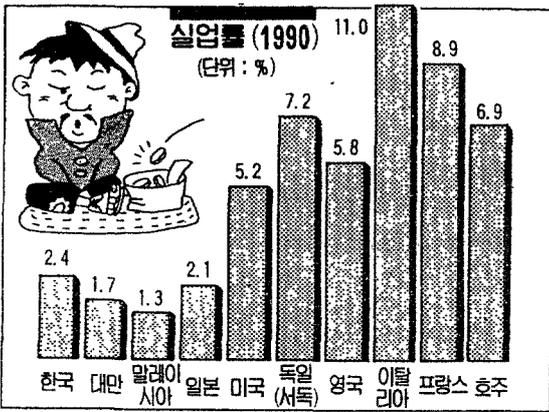
제조업의 증가가 24%에 달했다. 전자·전자업 증가가 24%에 달했다. 반도체업이 10.0%의 증가를 나타냈고, 컴퓨터업이 2.0%의 증가를 나타냈다. 자동차업은 1.0%의 증가를 나타냈고, 항공업은 0.5%의 증가를 나타냈다.

2월 21일 계속

제조업의 증가가 24%에 달했다. 전자·전자업 증가가 24%에 달했다. 반도체업이 10.0%의 증가를 나타냈고, 컴퓨터업이 2.0%의 증가를 나타냈다. 자동차업은 1.0%의 증가를 나타냈고, 항공업은 0.5%의 증가를 나타냈다.

제조업의 증가가 24%에 달했다. 전자·전자업 증가가 24%에 달했다. 반도체업이 10.0%의 증가를 나타냈고, 컴퓨터업이 2.0%의 증가를 나타냈다. 자동차업은 1.0%의 증가를 나타냈고, 항공업은 0.5%의 증가를 나타냈다.

# 간암-결핵-輪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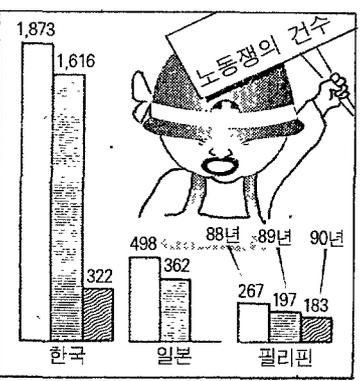


간암, 결핵, 輪禍... 36개 주요국에서 1990년 실업률, 고등교육 취학률, 의사인당 인구수, 승용차 1대당 인구 등 4개 항목의 비교를 실시했다. 한국은 실업률 2.4%, 고등교육 취학률 37.7%, 의사인당 인구수 1,514명, 승용차 1대당 인구 27.0명으로 나타났다.

합성섬유 생산·선박 건조 세계 5위 이내 수출입규모 12위·한사람 수출액은 37위 의사 1인당 인구 美·日보다 2배 더 많아

합성섬유 생산·선박 건조 세계 5위 이내 수출입규모 12위·한사람 수출액은 37위 의사 1인당 인구 美·日보다 2배 더 많아

합성섬유 생산·선박 건조 세계 5위 이내 수출입규모 12위·한사람 수출액은 37위 의사 1인당 인구 美·日보다 2배 더 많아



## 전문대 이상 취학률 日·英-

90년 기준 4천3백만 명으로 세계 7위. 여학생 88년 기준 1,873건, 89년 1,616건, 90년 1,833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873건으로 88년 1,514건, 89년 1,101건, 90년 1,007건으로 나타났다.

# 사망률 세계1위



이 비교분석에 따르면 수산물소비량은 선진국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사

로 보기가 어렵다. **의안·고혈압 2위** 91년 91

인간개발 지수 91년 91년 기준의사 1인당 1천7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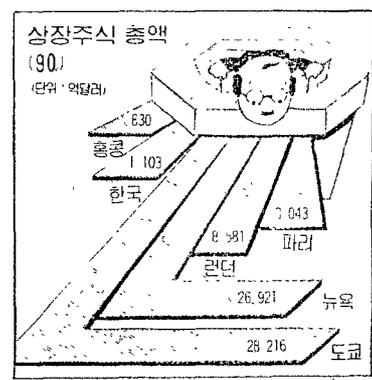
세계보건연감에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나 타다 36개국중 88년 현재 교통 사고사망률이 10만 명 당 31.7명(과 간암사망 률 23.8명)과 결핵(2.6명)등은 세계 1위이며

##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통계청 집계

우리국민들이 누리는 생활의 질은 과연 어느정도 수준일까. 수산물소비량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수준에도 달했지만 주택난·교통난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전반적인 삶의 질은 선진국들을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에서 인구가 늘어난 90년과 91년 해외여행객의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각종지표들을 세계각국과 비교했다.



자율차 생산량(90년)은 일본·미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 순으로 88년 기준 자동차 보유대수는 세계 25위 수준. 91년 10월 현재 전

세계 자동차 보유대수 순

자율차 5백64만 대

세계 7위이며 1인당 차량 소비량은 88년 현재 4백 33대로 세계 13위수준이다.

많은 부분에서 세계 상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우선 철강생산량은 90년 기준 2천3백12만 5천톤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3%를 차지, 소련을 제치며 미국·영국에 이어 3위수준에 이르고 있다.

유명한 리베리아 파나마 일본등에 이어 세계 12위에 그치고 있다. 삼합선박 건조실적과 선박수주잔량도 모두 일본의 이오 세계 2위.

### 독등 앞질러... 어획량 7위에 소비는 2위권

**쌀생산량 세계 10위**  
생산물 90년 기준 7백78만톤으로 90년 기준 인도의 1.4배에 이르고 세계 10위이고 쌀작면적은 생산물 90년 기준 6천2백

수출과 수입은 90년 기준으로 모두 세계 13위를 차지했다. 1인당 수출액은 88년 현재 1천4백 72달러로 세계 37위에 그치고 있다. 작년도 수출액(1인 기준)은 1천 900달러로 88년 기준의 1.3배로 미국·일본·소련에 이어 세계 13위.

수출과 수입은 90년 기준으로 모두 세계 13위를 차지했다. 1인당 수출액은 88년 현재 1천4백 72달러로 세계 37위에 그치고 있다. 작년도 수출액(1인 기준)은 1천 900달러로 88년 기준의 1.3배로 미국·일본·소련에 이어 세계 13위.

년 기준 전세계 생산량의 3.8%를 차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에 이어 세계 6위이며, 이들 국가가 정유 전자기기와 전자 부품 생산량 등 각각 세계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공업역 시 고인력 기술개발부진, 캐노피의 추경 등 의 시달리고 있다.

발전량은 88년 기준 세계 20위, 원자력발전량은 세계 11위이며, 증전기력 소가 대당 90년 기준 0.99kw로 90년 기준 0.99kw이다. 90년 발전기 용량 중 석탄이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망원인통계상 간암·교통사고·질해의로 인한 사망비율이 각각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6월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에 따르면 東北아시아 한반도지역에 자리잡은 우리나라가 인구·산업·경제지표·교류·보건·문화시설·정보통신에 대한 부문에서 세계각국 가운데 어느 곳보다 우세하고 비효율적 경제구조의 개선과 사회적 고질병의 부양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부양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도시화율 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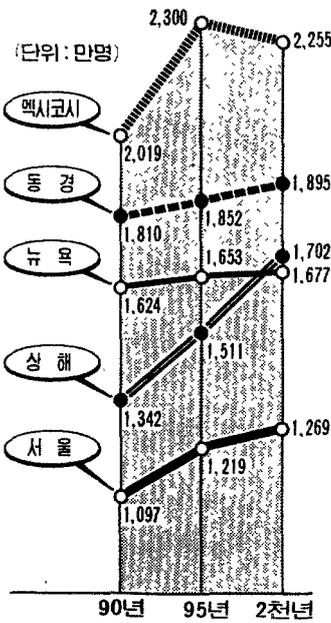
◇인구·면적·부토면적비 9만 9천명당 1km<sup>2</sup>로 지구 전체면적의 0.07%(1만분의 7)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2000년 유엔의 인구추계는 5천만 8천명(2000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14%로 세계면적의 45.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구 72.6%를 차지하는 서울의 인구는 1천 800만 명에 달한다. ◇주요 도시 인구는 서울(1천 800만 명), 부산(500만 명), 대구(400만 명), 광주(300만 명), 대전(250만 명)이다. ◇주요 도시 인구는 서울(1천 800만 명), 부산(500만 명), 대구(400만 명), 광주(300만 명), 대전(250만 명)이다.

# 간암·교통사고死亡

## 무역규모 12위·철강 7위 2천 20년 人口 5천 57만

물가상승률 日·臺灣의 2배수준

주요 도시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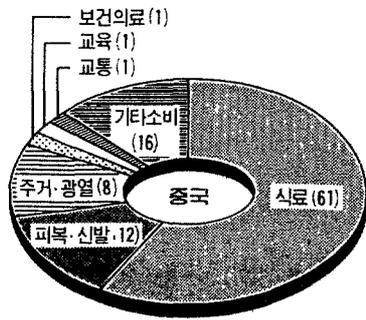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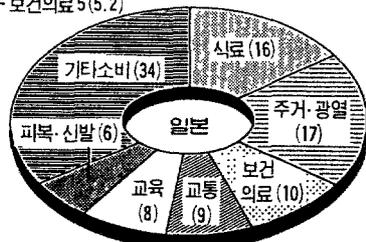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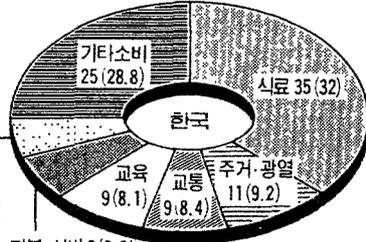


다 의료부문의 인력과 시설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망원인은 간암·교통사고·질해 등에서 각각 세계 1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인구는 5천 57만 명을 나타냈으나 자살인구 비중이 10만 명당 8.7명 정도로 2위를 기록,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柳贊봉기자〕

한·중·일 3국 가구 소비지출 비교

(단위% 80-85년 평균)  
(한국의 괄호안은 90년 통계치)



통계청 분석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지난 90년 7월 1일 현재 우린나라 인구가 4천 2백 86만 9천 5백 19만 5천 297명으로 전년 19만 5천 800명 증가했다. 세계와 서 23위를 기록했

다. 또한 인구는 1959년 4백 32만 9천 6백 49명(인구조사)에서 80년 6백 3만 9천 4백 53명으로 세계 3위 수준. 한편 전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49분의 1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린나라의 실업률은 9.3%로, 한국은 7.5%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살생량 10위 기록

살생량 10위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 전 세계 살생량 9백 8천 8백 10명의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1위

90년 전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7.5%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우린나라는 1990년 7월 1일 현재 인구가 4천 2백 86만 9천 5백 19만 5천 297명으로 전년 19만 5천 800명 증가했다. 세계와 서 23위를 기록했

연말계수 평균 35%

◇경제지표 = 지난 해 6월 현재 우린나라의 소비자가 지수는 1백 42.5(85년=100)로,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높았다. 중국은 1백 10.3(85년=100), 홍콩은 1백 13.8(85년=100)로, 대만은 1백 10.3(85년=100)로, 일본은 1백 10.3(85년=100)로, 미국은 1백 10.3(85년=100)로, 영국은 1백 10.3(85년=100)로, 프랑스는 1백 10.3(85년=100)로, 독일은 1백 10.3(85년=100)로, 이탈리아는 1백 10.3(85년=100)로, 캐나다는 1백 10.3(85년=100)로, 호주는 1백 10.3(85년=100)로, 뉴질랜드는 1백 10.3(85년=100)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백 10.3(85년=100)로, 남아시아는 1백 10.3(85년=100)로, 중남미는 1백 10.3(85년=100)로, 아프리카는 1백 10.3(85년=100)로, 중동은 1백 10.3(85년=100)로, 기타 지역은 1백 10.3(85년=100)로, 총계는 1백 10.3(85년=100)이다.

◇교육비 지출액 =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34.1달러로, 이는 1989년 31.9달러에서 7.1% 증가했다. OECD 평균은 34.1달러로, 한국은 34.1달러로, 미국은 34.1달러로, 일본은 34.1달러로, 독일은 34.1달러로, 프랑스는 34.1달러로, 영국은 34.1달러로, 이탈리아는 34.1달러로, 캐나다는 34.1달러로, 호주는 34.1달러로, 뉴질랜드는 34.1달러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4.1달러로, 남아시아는 34.1달러로, 중남미는 34.1달러로, 아프리카는 34.1달러로, 중동은 34.1달러로, 기타 지역은 34.1달러로, 총계는 34.1달러이다.

1천 7백만 의사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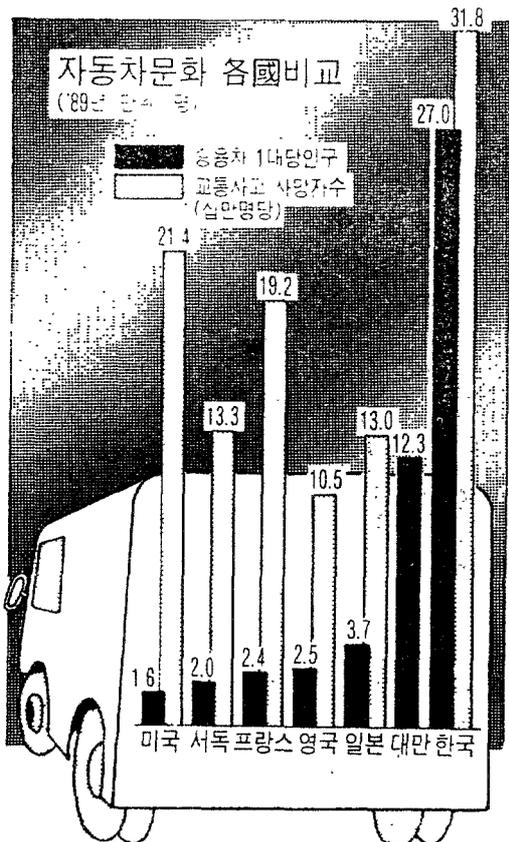
89년 현재 의사 1명당 환자가 1천 7백 명으로, 이는 1988년 1천 7백 명에서 0.6% 증가했다. OECD 평균은 1천 7백 명으로, 한국은 1천 7백 명으로, 미국은 1천 7백 명으로, 일본은 1천 7백 명으로, 독일은 1천 7백 명으로, 프랑스는 1천 7백 명으로, 영국은 1천 7백 명으로, 이탈리아는 1천 7백 명으로, 캐나다는 1천 7백 명으로, 호주는 1천 7백 명으로, 뉴질랜드는 1천 7백 명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천 7백 명으로, 남아시아는 1천 7백 명으로, 중남미는 1천 7백 명으로, 아프리카는 1천 7백 명으로, 중동은 1천 7백 명으로, 기타 지역은 1천 7백 명으로, 총계는 1천 7백 명이다.

◇의료비 지출액 =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34.1달러로, 이는 1989년 31.9달러에서 7.1% 증가했다. OECD 평균은 34.1달러로, 한국은 34.1달러로, 미국은 34.1달러로, 일본은 34.1달러로, 독일은 34.1달러로, 프랑스는 34.1달러로, 영국은 34.1달러로, 이탈리아는 34.1달러로, 캐나다는 34.1달러로, 호주는 34.1달러로, 뉴질랜드는 34.1달러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4.1달러로, 남아시아는 34.1달러로, 중남미는 34.1달러로, 아프리카는 34.1달러로, 중동은 34.1달러로, 기타 지역은 34.1달러로, 총계는 34.1달러이다.

# 통계로 본 세계와 韓國 통계청 분석

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점검한 보고서 내용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천2백86만 9천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5.2%를 차지, 인구규모에서 세계 23위를 기록했다. 인구밀도는 일본 도시국가



20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4천3백여만명보다 18%가 증가, 5천5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 산업생선 --- 우리나라 「쌀 생산량(90년)은 7백78만6천톤으로 中國 印度 등의 이어 세계 10위수 주거나 「잡곡면적(2백59만)은 1ha당 6천2백59kg으로 세계 7위수로서 생산량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철강·시멘트·섬유도 10위권 진입 교통사고·肝癌사망을 세계 최고

人口규모 23번째...密度로는 3위

대(90년)은 7백46억달러로 세계 36개 유망거래소중 9위로 집계됐고 90년말 현재 「삼차우시 시가총액」은 1천1백3억달러로 세계 16위에 랭크됐다.

--- 교육·문화 --- 91년 현재 국민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4.5명으로 아시아 최다인 네팔(36.9명) 파키스탄(40.9명)보다도 적지만 日本(22.2명) 獨逸(17.6명)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두배나 높아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부분의 경우도 우리나라 의사의 1인당 인구가 90년(1천7명)으로 日本(6백9명, 88년) 美國(4백73명, 84년) 등 선진국보다 2배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日本(39.6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간암(23.8명, 세계 1위) △고혈압성질환(37.3명, 2위) △만성질환(30명, 2위) △뇌졸중(31.8명, 1위) △심혈관(12.6명, 1위) 등으로 인한 사망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鄭東植기자〉

造船2위·自動車생산10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업은 50위에 머물러 생산과 보급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박 건조 실적은 제2위인 것을 비롯 섬유,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산업품의 생산량이 10위권내에 진입, 대량 생산품의 대외 의존도가 높았다.  
6일 통계청이 펴낸 「통계로 보는 세계와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南韓)는 1991년 2000대의 5천58만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특히 1인승 소형차에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걸쳐 세계각국

◇세계속의 韓國

부	문	실	적	세계	기준	연도	세계1위
인구	인구	42.9	백만명	23	90		中國
인구	밀도	432	명(km)	3	90		방글라데시
국민총생산	(GNP)	2,111	억달러	12	89		美國
수출		650	억달러	12	90		獨逸
자동차	총차	1.3	백만대	10	90		日本
자동차	1대당인구	15.8	명	50	89		美國 #1)
선박	건조	3.5	백만톤	2	89		日本
생철	강	23.1	백만톤	7	90		獨逸
전력	자	241	억달러	6	90		美國
산합성	섬유	1.2	백만톤	4	89		"
증권	거래대금	746	억달러	9	90		"
교사	1인당국교생	34.5	명		91		獨逸 #1)
의사	1인당인구수	1,007	명	36	90		이탈리아 #1)
간암	사망률 #2)	23.8	명	1	89		韓國
교통	사고사망률 #2)	31.8	명	1	89		韓國
건	TV 보급률 #3)	188	명	30	86		美國

註1) 낮은 순위, 註2) 10만명당, 註3) 1천명당

3000억 원의 차익을 올렸지만 방글라데시(80억 3천만 원)와 태완(55억 3천만 원)에 이어 3위로 1인당 4백 32명이 살고 있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사는 서울(도시 인구의 1백 명당 74·4명)은 세계 평균인 45·2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72·6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도시 집중이 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1·0%로 獨逸(0·1%) 영국(0·2%)에 선진국보다 높지만 아시아의 서일본(0·4%)과 대만(0·5%)에 비해 낮아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는 30년후인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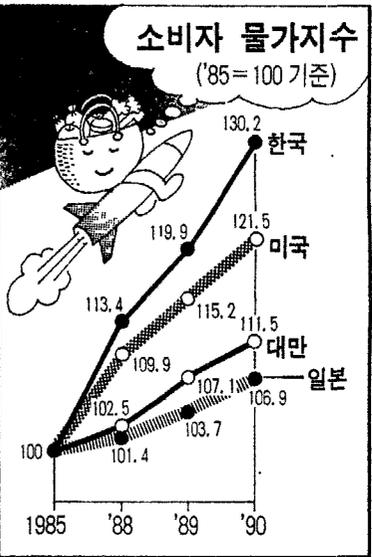
우리나라 「어획량(88년)」은 2백72만7천톤으로 日本 獨逸가 연합 中國 美國 등에 이어 세계 7위수준이며, 「1인당 수산물 소비량(86년)」은 88년 평균(연간 49·9kg)으로 日本 71·2kg 홍콩(50·9kg)에 이어 세계 3위와도 높았다.  
상업선박 건조 실적(90년)은 3백45만 9천톤으로 日本 6백82만 4천톤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량(90년)은 1백32만대로 日本 1천50만 49만대 미국 9백78만대 獨逸 4백98만대 및 프랑스(3백77만대)에 이어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89년)은 2천111억 1천만 원으로 세계 12위 수준인데 비해 합성 섬유(89년) 전자부품(90년) 시멘트(88년) 철강(89년) 생산량 각각 4, 6, 7, 7위 생산품으로 부상했다.  
관공시장이 방글라데시를 추종해 하강 「중년」대 소 거래

# 經濟규모 선진국 문턱... 생활은 中進國

## 統計로 본 世界속의 韓國 <統計廳 분석>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산업력은 거의 선진국문턱에 들어섰으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NP(국민총생산)를 비롯, 각종 사회·문화

지표는 여전히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료·보건환경은 긴급한 개선이 필요하며 골목상권의 인구당 비율이 세계에서 1~2위를 앞다투는 등 매우 일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지난 90년까지 유럽, 세계보건기구 등의 각국 경제·사회통계자료를 비교분석, 6일 발표한 「세계와 韓國」에 따르면 우리 GNP는 89년경상가격기준 2천1백11억달러로 세계15위를 차지, 지난 80년에 비해 12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비해 한국은 1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평균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으면 국가가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989년 기준 1만 1천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1인당 GDP(1만 2천 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특히 의료·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간·장질환·신장·가족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이 10%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만성질환이 30%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평균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으면 국가가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989년 기준 1만 1천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1인당 GDP(1만 2천 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특히 의료·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40대 이상. 1인당 GDP가 1만 1천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1인당 GDP(1만 2천 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특히 의료·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 GNP 2千111億弗로 자동차 생산 10위 家電 肝癌·결핵 최고 保健후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고성장률을 기록한 中國·印度·臺灣·브라질에 이어 미국·독일이 앞서는 세계 10위대 국가로 부상했다. 특히 자동차·가전제품 등 수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의료·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특히 의료·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고성장률을 기록한 中國·印度·臺灣·브라질에 이어 미국·독일이 앞서는 세계 10위대 국가로 부상했다. 특히 자동차·가전제품 등 수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의료·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특히 의료·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고성장률을 기록한 中國·印度·臺灣·브라질에 이어 미국·독일이 앞서는 세계 10위대 국가로 부상했다. 특히 자동차·가전제품 등 수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의료·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특히 의료·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1월 38만 9천 5백 10명, 2월 40만 4천 6백 84명, 3월 41만 7천 6백 30명, 4월 43만 8천 8백 90명, 5월 45만 9천 5백 30명, 6월 48만 2천 3백 50명, 7월 50만 5천 5백 30명, 8월 52만 8천 5백 30명, 9월 55만 1천 5백 30명, 10월 57만 4천 5백 30명, 11월 59만 7천 5백 30명, 12월 62만 1천 5백 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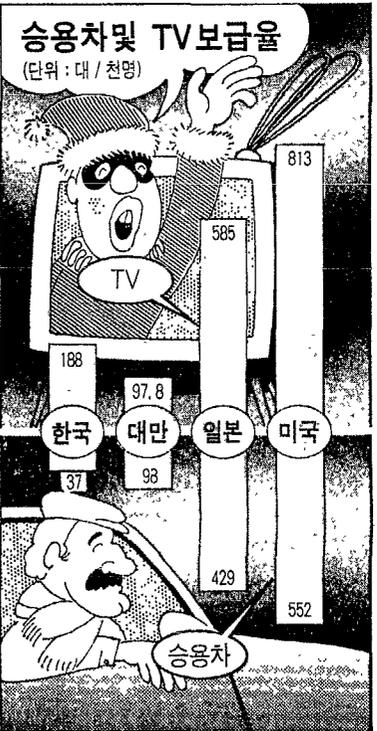
# 15위 2위 진국

1월 38만 9천 5백 10명, 2월 40만 4천 6백 84명, 3월 41만 7천 6백 30명, 4월 43만 8천 8백 90명, 5월 45만 9천 5백 30명, 6월 48만 2천 3백 50명, 7월 50만 5천 5백 30명, 8월 52만 8천 5백 30명, 9월 55만 1천 5백 30명, 10월 57만 4천 5백 30명, 11월 59만 7천 5백 30명, 12월 62만 1천 5백 30명.

1월 38만 9천 5백 10명, 2월 40만 4천 6백 84명, 3월 41만 7천 6백 30명, 4월 43만 8천 8백 90명, 5월 45만 9천 5백 30명, 6월 48만 2천 3백 50명, 7월 50만 5천 5백 30명, 8월 52만 8천 5백 30명, 9월 55만 1천 5백 30명, 10월 57만 4천 5백 30명, 11월 59만 7천 5백 30명, 12월 62만 1천 5백 30명.

1월 38만 9천 5백 10명, 2월 40만 4천 6백 84명, 3월 41만 7천 6백 30명, 4월 43만 8천 8백 90명, 5월 45만 9천 5백 30명, 6월 48만 2천 3백 50명, 7월 50만 5천 5백 30명, 8월 52만 8천 5백 30명, 9월 55만 1천 5백 30명, 10월 57만 4천 5백 30명, 11월 59만 7천 5백 30명, 12월 62만 1천 5백 30명.

1월 38만 9천 5백 10명, 2월 40만 4천 6백 84명, 3월 41만 7천 6백 30명, 4월 43만 8천 8백 90명, 5월 45만 9천 5백 30명, 6월 48만 2천 3백 50명, 7월 50만 5천 5백 30명, 8월 52만 8천 5백 30명, 9월 55만 1천 5백 30명, 10월 57만 4천 5백 30명, 11월 59만 7천 5백 30명, 12월 62만 1천 5백 30명.



# 電子공업 세계6위 자동차 10위

## 통계청 발표 「세계와 한국」

우리나라는 산업생산부문의 세계적 경쟁에서 선두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자공업 분야에서는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는 23위로, 인당 GDP는 4,994달러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90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4,2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인당 GDP는 4,994달러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구는 23위로, 인당 GDP는 4,994달러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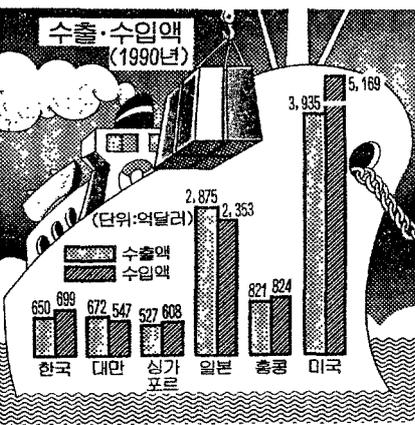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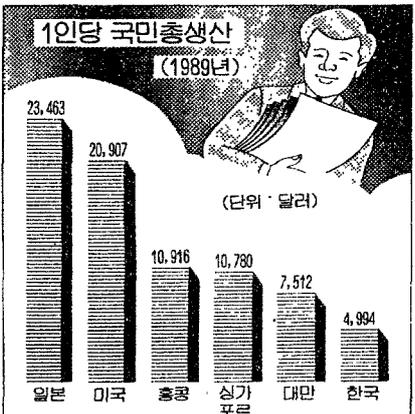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인당 GDP가 4,994달러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구는 23위로, 인당 GDP는 4,994달러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 人口23위·수출·수입액 모두12위 교통사고·肝癌사망률 계속 1위 醫師1인당 인구美日보다2倍

우리나라는 인당 GDP가 4,994달러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구는 23위로, 인당 GDP는 4,994달러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90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4,2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인당 GDP는 4,994달러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인당 GDP가 4,994달러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구는 23위로, 인당 GDP는 4,994달러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주요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구분	전 세계	한국	한국비율 (%)	한국 순위	기준년도
인구 (천명)	5,292,195	42,869	0.8	23	90년
인구밀도 (㎢당)	39	432		3	〃
잠재생산량 (천t)	518,508	7,786	1.5	10	〃
자동차 (대)		1,321,630		10	〃
전자공업생산액 (백만달러)	637,045	24,103	3.8	6	〃
합성생산량 (천t)	14,716	1,189	8.1	4	89
에틸렌 (〃)	47,863	609	1.3	13	88
시멘트 (〃)	1,138,000	30,474	2.7	7	89
철강 (〃)	769,232	23,125	3.0	7	90
상선보유량 (〃)		70,832		12	89
발전량 (백만kw)	11,017,001	85,462	0.8	20	88
수출액 (억달러)		650		12	90

# 「삶의 질」 높여야 先進國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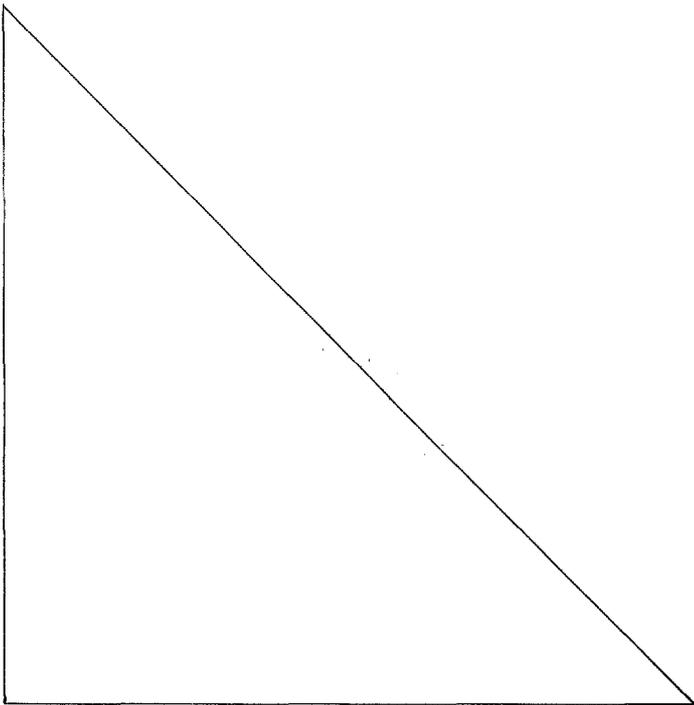
## 社說

우리 모두가 행복하려면  
 물질적 생활은 물론이지만  
 문화적 생활도 중요하며  
 정신적 생활도 중요하며  
 정서적 생활도 중요하며  
 사회적 생활도 중요하며  
 환경적 생활도 중요하며  
 인간적 생활도 중요하다.

한편 食慾문화의 발달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 중요하다.

양아도 국제수지상차, 外債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생활은 「삶의 질」을  
 「문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 중요하다.



社說

경제성장의 虛와 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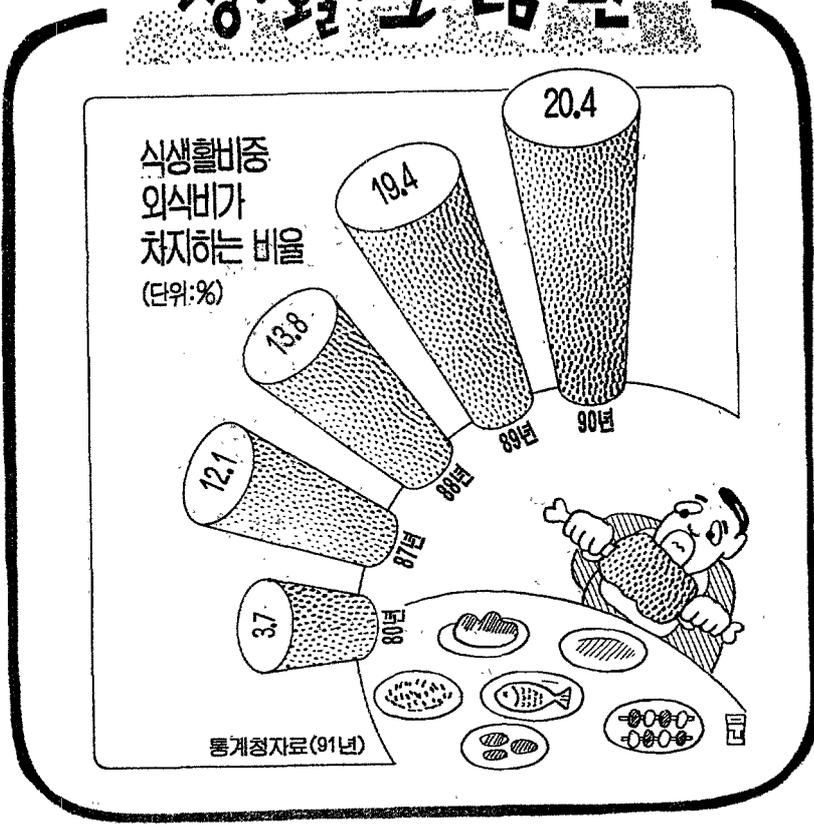
경제성장이 활발한 「경제」에 비해  
 1. 197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3,700만 명으로  
 2. 197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3,700만 명으로  
 3. 197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3,700만 명으로

경제성장이 활발한 「경제」에 비해  
 1. 197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3,700만 명으로  
 2. 197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3,700만 명으로  
 3. 197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3,700만 명으로

이러한 경제성장의 속도는  
 1. 197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3,700만 명으로  
 2. 197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3,700만 명으로  
 3. 197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3,700만 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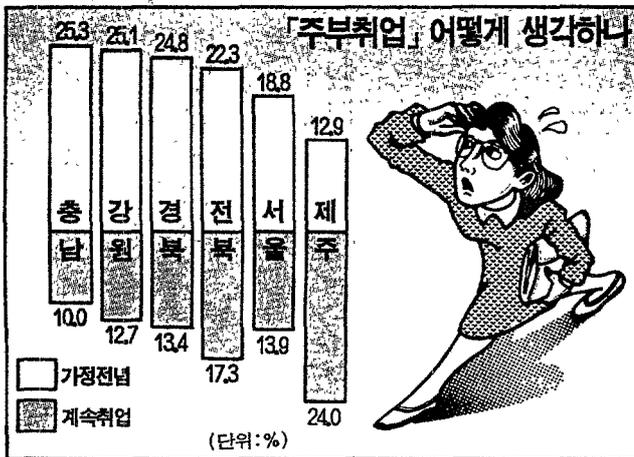
이러한 경제성장의 속도는  
 1. 197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3,700만 명으로  
 2. 197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3,700만 명으로  
 3. 197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3,700만 명으로

# 생·활·그·림·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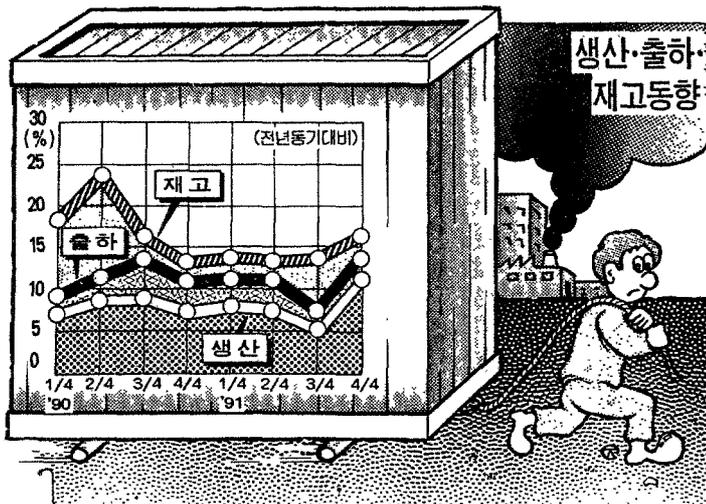
## 생활그림판

### 역척 제주여성들 취업희망 1위



통계청의 91년도사회통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성들의 취업에 대해 지역별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강원·경북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가사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보수적 의견이 많은 반면 제주·경남·전북지역에서는 가정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는 진보적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제주지역은 「가사전념」 12·9%에 「계속취업」 24%로 제주여성들의 역척스러움을 반영하고 있다.



# 제조업 생산둔화

## 작년 승용차 등 耐久財는 好調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8.1%로 90년(8.6%)보다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승용차·에어컨·냉장고·화아노 등 내구 소비재는 내수 호조 및 수출 회복에 힘입어 90년(1.7%)보다 크게 높인 7.3%의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이 20일 「91년 4분기 및 연간 시도별 공공업종 중화학물 분산한결과 섬유·의복·신발류가 수출부진으로 90년에 비해 생산이 감소했으나 자동차·전기전자·섬유류 등의 내수 및 수출 호조로 광공업 전체의 성장률은 8.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조업 생산이 8.3%를 올렸는데 중화학공업부분의 석유정제·유기단·철강 등의 호조로 90년(1.3%)에 이어 12%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철강업부품(음료용품)(1.3%)·식료품(3.6%)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섬유·고무제품의 감소로 0.7% 증가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생산재

부분의 경우 제조설비 기계 감소와 건설잠미·산업용 기계 등의 둔화로 자본재는 90년(22.1%)보다 크게 떨어진 12.5%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원자재는 수출 및 내수 호조에 따라 90년(9.1%)보다 조금 높은 10.3% 증가했다.

소비재부분의 경우 비내구재는 90년보다도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내구재가 크게 증가, 전체적으로는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공업 증가 全南20%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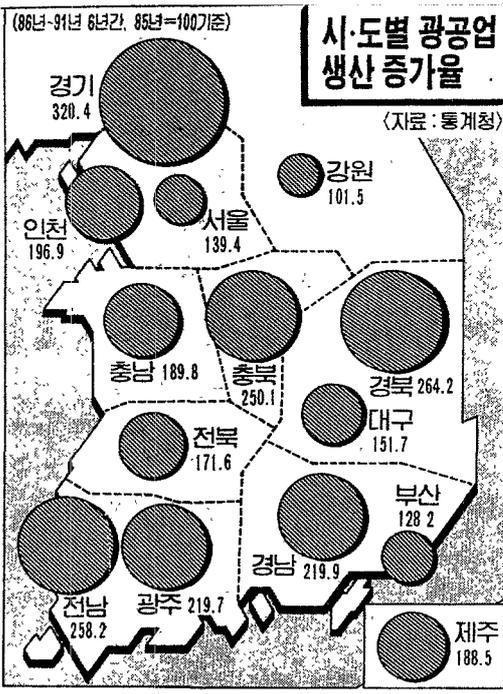
### 작년 市道別동향 光州 6.6% 감소 등 大도시는 침체

국방예산이 20% 이상 증가한 데 비해,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85년 국방예산은 100%가 넘는 2,3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85년 국방예산은 100%가 넘는 2,300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광공업이 전년도 대비 6.6%나 광공업 생산액이 감소했음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와 광공업 생산액이 감소한 85년을 1백으로 했을 때의 91년 광공업 지수는 141.5를 기록, 6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기간 전국 광공업은 1백98.9를 6년간 2백가까운 생산증가를 보였다.

이같이 광공업생산이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호황을 보던 중화학공업이 경기 전라지역에 집중됐던 반면 불황을 타고 있는 철강업은 대도시와 중부권에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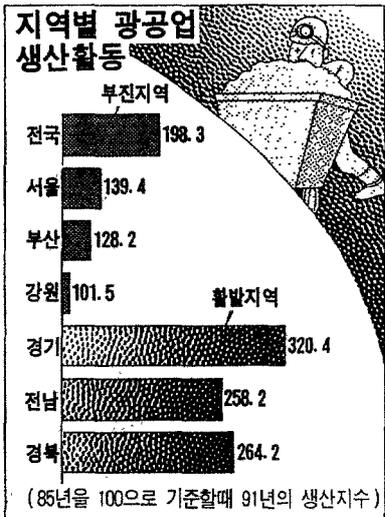


# 새공단 들어선 忠北·全南 두각

## 통계청, 91년 鑛工業 조사

중화인민공화국의 광공업의 발전은 91년 6년간 광공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년 6년간 광공업은 5.3배 증가하는 고성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釜山·大邱 등 3대도시의 광공업은 제한된 신발·섬유산업 등에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의 광공업의 발전은 91년 6년간 광공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년 6년간 광공업은 5.3배 증가하는 고성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釜山·大邱 등 3대도시의 광공업은 제한된 신발·섬유산업 등에



의 산업화로 광공업생산이 지난 6년간 평균치를 밑도는 1백8~1백50%의 성장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江原지역은 지난 해의 광공업생산지수(88

가에 그쳤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제조·설비기계 등 생산재보급이 100%에 육박하며 소비재의 생산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생산도 중화인민공화국의 광공업생산지수(88

합인의 산업생산이 3.2배나 성장, 江原지역(1.98배)을 훨씬 웃돌았다. 한편 서울은 사업체수가 줄면서 산업생산이 88년(4.6%)과 91년(9.5%)에 비해 감소로 전환하며 전체적으로 1.3배 성장에 머물렀다. 慶北지역은 3低성장기

으로 나타났다. 慶南지역은 자동차·석유(蔚山), 기계(昌原)·선박 등의 활황에 힘입어 85년 대비 2.2배의 증가라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釜山의 생산의 공장을 慶南의 金海市로 이전하여 많이 뺏겼다. 다 주중산업인 신발업이 급속한 성장을 견디며 91년 6년간 전국 평균성장률을 밑도는 1.3배 증가에 그쳤다.

## 江原은 6년동안 제자리 걸음 自動車·에어컨등 소비재 好調

보통 1백으로 기준)가 1백1.5를 기록, 산업활동이 지난 6년간 거의 제자리의 머물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市·道별 광공업생산활동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全南산업생산의 전년 대비 8.1% 증가한 가운데 慶南지역이 12%로 신장하며 추후 반년 중 10.7%의 증가를

업이 집중된 全南(울산·성주), 慶南(우주·장미·석유), 京畿(안산·자웅차) 등의 각각 20%, 17%, 16%, 1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光州·江原·서울 등 5개市·道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 6년간의 지역별 생산활동 추이를 보면 京畿지역은 始華의 연이은 조성과 서울의 공장이전의

산업의 활성세를 보이는 산업생산이 85년에 비해 2.6배 성장하며 호황을 누렸다. 다만 최근 全南지역의 불황으로 1.5배 신장의 그쳤다. 全南지역은 光陽제철과 麗川성유단지의 설비신설에 힘입어 지난 6년간 2.6배나 늘었고 光州도 2.2배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慶南지역은 자동차·석유(蔚山), 기계(昌原)·선박 등의 활황에 힘입어 85년 대비 2.2배의 증가라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釜山의 생산의 공장을 慶南의 金海市로 이전하여 많이 뺏겼다. 다 주중산업인 신발업이 급속한 성장을 견디며 91년 6년간 전국 평균성장률을 밑도는 1.3배 증가에 그쳤다. 江原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지난 6년간 겨우 1.5% 성장에 머물렀다. 江原의 광공업 매출액도 전체의 1.6%로 濟州를 제외하면 전부 최하위다. 한편 忠北은 陰城·鎭川 등의 공단조성과 시멘트산업의 활황으로 85년 대비 2.5배 증가하는 등 두부 신장세를 보였다.

〈團圓泓기자〉

# 物價 오름세 꺾였다

## 2월중 소비자 0.5% 올라

### 버스값등 공공요금 상승 주도

1월에 이어 2월중에도 물가가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월중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0.5% 상승, 누계로는 전년 말 대비 1.3%의 신장세를 보였다.

도매물가는 포함세를 유지해 누계로는 1월말과 같은 0.3%에 그쳤다.

작년 1~2월 두달동안 소비자 및 도매물가가 3.5%·1.2%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오름세가 훨씬 수그러든 셈이다.

2월중의 소비자물가는 시내버스(일반) 23.5% 등 교통요금이 주폭으로 올랐는데 한편으론 공공요금의 평균 1%를 상회세를 주도했고 理·비용료, 인시화원비등 개인서비스 요금도 1.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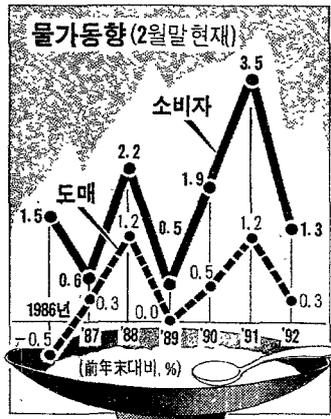
설립 성우기가 끼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물 가격은 0.2% 증가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배는 20.9% 올랐고 복어는 11.4% 올랐으며 삼투와 시금치는 각각 30.2%, 11.9%가 내렸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월중 1%가 올라 가장 과를 올렸을 보였고 다음은 전주(0.9%), 인천(0.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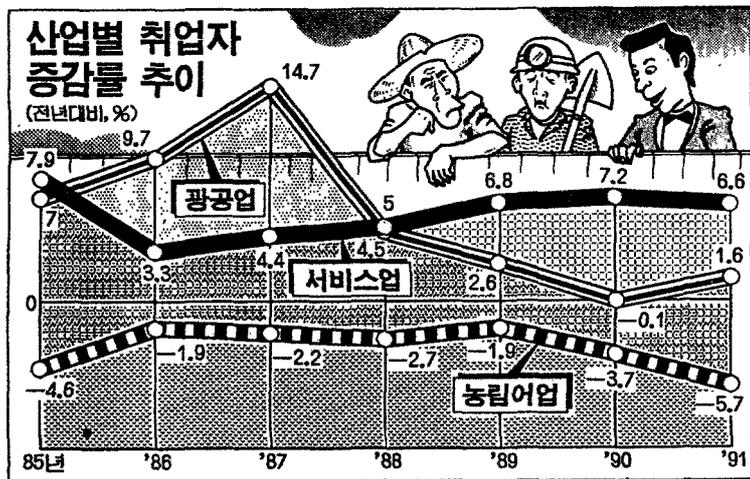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2월중에는 교통요금이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 오름세를

가 다소 주춤했지만 신학기 등독금이 오르는 3월에는 물가가 다시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돼 강력한 억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조업 취업기피 뚜렷

작년 고용動向 1.8%증가에 그쳐



작년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은 63년 조사 실시 이래 가장 높은 60.6%를 기록했으나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6.6%로 90년 26.9%보다 낮아진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33.4%에서 34.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0년 9.1%에서 작년엔 9.3%로 높아진 반면 30~50대의 실업률은 90년 1.3%에서 0.2%포인트

## 서비스업이 9.9%가

점진적으로 2.3% 증가

트라이앵글 형태로 조사된 중소기업체의 생산적인 면의 인도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 해외인력을 거두는 점도 90년 3.0%에서 4.1%로 늘었다. 제조업의 5%포인트 하락은 지역 경제활동의 위축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실업률 상승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90년 1만 2천 8백 57명 취업자가 1만 8천 572명으로 90년에 비해 52.5% 증가한 데 비해 제조업은 2만 5천 544명(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33년간 대졸인력의 배출이 확대되던 가운데 대졸 취업률이 취업률의 1.8%포인트 상승을 이끌었다. 전년도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30대의 취업률이 49.0%에서 50.0%로 높아졌고, 40대의 취업률이 47.7%에서 48.0%로 상승했다. 50대의 취업률은 7.8%에서 8.0%로 상승했다.

해 14만 1천명(1.5%)를 았다. 경기(3.7%) 제조업(3%) 지역별 증가율이 높은 반면 전북(0.5%) 전남(0.9%) 충남(0.5%) 충청남도(0.9%) 충청북도(0.5%) 취업자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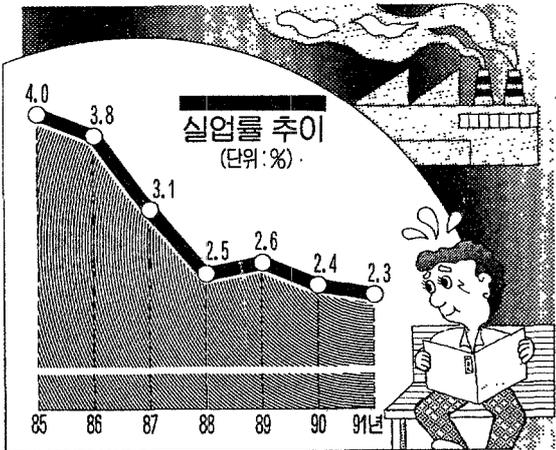
상업은행은 제조업 취업자가 4만 8천 6백 90명보다 1.8% 증가한 데 그쳤으나 3차 서비스업은 1천 46만 8천 6백 6.9% 증가했다. 특히 작년도 제조업 취업자가 1월(5백 1만 6천)을 최고로 이후 점차 줄어 4.4%에 이르렀다. 90년 1월 기준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제조업 취업률도 1985년 1월 6.1%에서 90년 1월 3.3%로 2.8%포인트 하락했다. 90년 1월 16만 6천 2.3% 증가해

가율이 높았다. 섬유, 신발, 전자조립업은 동업업종의 경쟁력 약화로 여성 취업자가 줄어든 반면 기계 등 중화학공업 분야의 남자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이월수입의 불확실성으로 신용대출의 상대적으론 90년 3.2%로 3.0%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90년 4.4%에 비해선 다소 낮은 것이므로 나타났다.

이 기간 33년간 대졸인력의 배출이 확대되던 가운데 대졸 취업률이 취업률의 1.8%포인트 상승을 이끌었다. 전년도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30대의 취업률이 49.0%에서 50.0%로 높아졌고, 40대의 취업률이 47.7%에서 48.0%로 상승했다. 50대의 취업률은 7.8%에서 8.0%로 상승했다.

# 작년 失業率 가장 낮았다

2.3% 통계시작 63년 이후 최저



## 취업자수 1년새 54만명이나 증가 農林漁業인력은 18만9천명 줄어

이에 따라 실업률이 90년(2.4%)보다 낮은 2.3%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6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취업자수만 지난해 1천8백57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54만명이나 늘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한 66.6%를 기록했다. 63년 이후 가장 높았던 실업률 4.0%를 기록한 85년과 비교하면 1.7%포인트 낮아졌다. 취업자 수만 1천8백57만6천명에서 1천9백31만6천명으로 74만명이나 늘었다. 특히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의 주역으로, 90년 11.5%에서 지난해 10.9%로 줄어든 60.2%에서 60.8%로 늘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90년 2.9%에서 지난해 2.5%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취업자 중 31.4%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90년 1천1백44만7천명에서 지난해 1천1백90만7천명으로 46만명이나 늘었다. 특히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의 주역으로, 90년 11.5%에서 지난해 10.9%로 줄어든 60.2%에서 60.8%로 늘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90년 2.9%에서 지난해 2.5%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취업자 중 31.4%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90년 1천1백44만7천명에서 지난해 1천1백90만7천명으로 46만명이나 늘었다. 특히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의 주역으로, 90년 11.5%에서 지난해 10.9%로 줄어든 60.2%에서 60.8%로 늘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90년 2.9%에서 지난해 2.5%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취업자 중 31.4%를 차지하고 있다.

### 통계청, '91경제인구동향 발표

91년 지역별 고용동향 (단위: 천명, %)

구분	취업자	전년비	실업자	실업률
전국	18,576	540	436	2.3
6대도	8,866	400	301	3.3
서울	4,705	200	163	3.3
부산	1,610	68	55	3.3
대구	909	38	33	3.5
인천	739	42	22	2.9
광주	456	33	14	3.0
대전	447	19	14	3.0
9개도	9,711	141	135	1.4
경상	2,470	88	46	1.8
충청	677	7	7	1.0
강원	588	3	7	1.2
충남	834	14	8	1.0
충북	825	-4	11	1.3
전남	1,160	-11	11	0.9
전북	1,307	11	16	1.2
경북	1,607	26	27	1.7
제주	243	7	2	0.8

극심한 인력난을 반역시킨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경제활동인구조사(63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2.3%를 기록했다. 또 농림어업과 광업축산업의 인력이 줄면서 도산매·건설업 서비스업으로의 인력 이동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91년 전국 및 지역경제활동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수는 43만6천명(연령별로 90년에 비해 1만5천명이 줄었고, 18만9천명의 실업자가 18만9천명의 실업률로 줄어든 3백10만3천명으로 전체 16.7%를 차지, 구상비가 90년 18.3%보다 낮아졌다. 광공업종사자도 5백만5천명으로 구상비가 전년 27.3%에서 26.9%로 낮아졌고 제조업 취업자 구상비도 같은 기간 26.9%에서 26.6%로 떨어졌다. 반면 도산매·건설·농림·축산업종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분의 증가는 지난해 1.8%에서 2.0%로 늘었다. 지역별 취업자수는 6대도에서 광주(7.8%)인 천(6.0%)의 증가율이 높았고 9개도에서는 경기(6.7% 제주(3.0%))의 취업자 증가율이 높았다. 실업률(10.0:0.5%) 서울·부산(3.3:3.3)에 도산지역의 3%대로는 높았고 9개도에서는 2%미만으로 낮았다.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은 6대도 중 인천과 서울이 60%를 보였고 9개도 중 부산은 제주와 전남의 65%를 웃돌았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6대도 중 광주·인천이 7.6%의 6.1%로 광주·인천이 9개도에서는 경기·제주(3.1%, 3.4%)로 높게 나타났다. <權赫燦 기자>

## 서비스부문 종사자 계속늘어... 전체산업의 56%차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90년 1천1백44만7천명에서 지난해 1천1백90만7천명으로 46만명이나 늘었다. 특히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의 주역으로, 90년 11.5%에서 지난해 10.9%로 줄어든 60.2%에서 60.8%로 늘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90년 2.9%에서 지난해 2.5%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취업자 중 31.4%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90년 1천1백44만7천명에서 지난해 1천1백90만7천명으로 46만명이나 늘었다. 특히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의 주역으로, 90년 11.5%에서 지난해 10.9%로 줄어든 60.2%에서 60.8%로 늘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90년 2.9%에서 지난해 2.5%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취업자 중 31.4%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90년 1천1백44만7천명에서 지난해 1천1백90만7천명으로 46만명이나 늘었다. 특히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의 주역으로, 90년 11.5%에서 지난해 10.9%로 줄어든 60.2%에서 60.8%로 늘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90년 2.9%에서 지난해 2.5%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취업자 중 31.4%를 차지하고 있다.

# 실업률

지난해 사상최저

# 2.3%

한국은행이 발표한 1991년 10월 말(15일 기준) 실업률(%)은 전년 동기(10월 말)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2.3%로, 1982년 10월 말(15일 기준) 이래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1982년 10월 말(15일 기준) 이래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1982년 10월 말(15일 기준) 이래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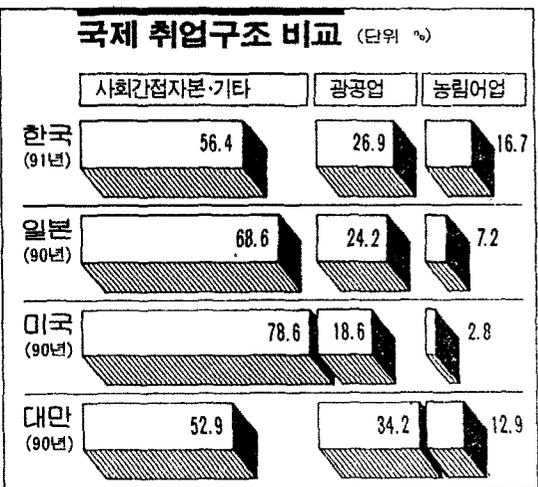
## 완전고용수요 需給불

고용수요는 전년 동기(10월 말)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10.2%로, 1982년 10월 말(15일 기준) 이래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1982년 10월 말(15일 기준) 이래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섬유부

## 10·20代가 전체의 68%

국제 취업구조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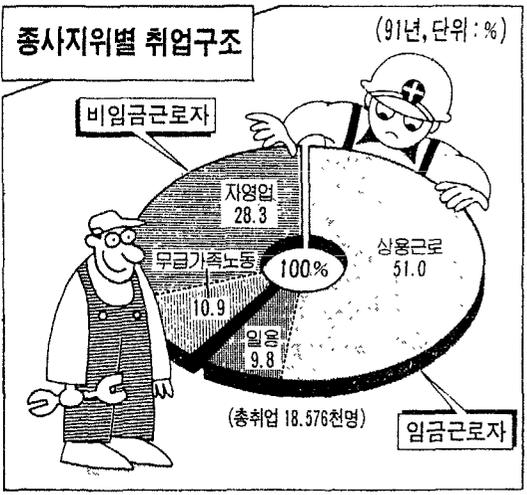
# 권형 심화

양적 성장과(전년 대비 10.7%)의 증대수익을 올렸으며, 2분기에는 경영활동의 개선으로 이익이 증가했다. 분기별 실적은 1분기 10.2%, 2분기 10.7%, 3분기 10.9%, 4분기 11.1%로 나타났다.

양적 성장과(전년 대비 10.7%)의 증대수익을 올렸으며, 2분기에는 경영활동의 개선으로 이익이 증가했다. 분기별 실적은 1분기 10.2%, 2분기 10.7%, 3분기 10.9%, 4분기 11.1%로 나타났다.

이전 91년 2.5%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4%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최고치로, 1981년 1.5%, 1982년 2.0%, 1983년 2.5%, 1984년 3.0%, 1985년 3.5%, 1986년 4.0%, 1987년 4.5%, 1988년 5.0%, 1989년 5.5%, 1990년 6.0%로 나타났다.

## 항大邱가 3.5%로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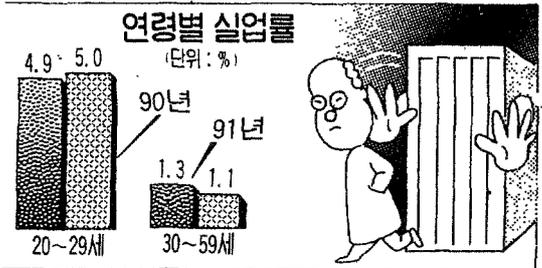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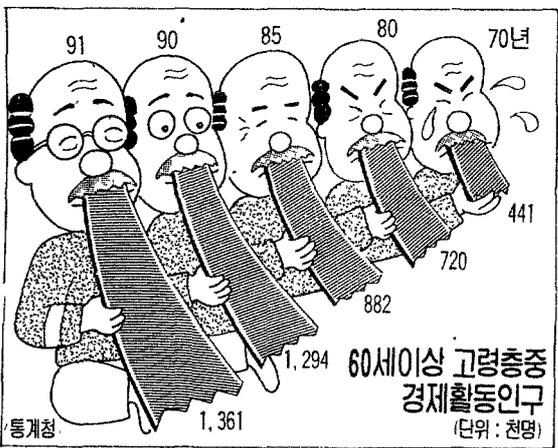


1분기에는 9.5%로, 2분기에는 10.0%로, 3분기에는 10.5%로, 4분기에는 11.0%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최고치로, 1981년 9.5%, 1982년 10.0%, 1983년 10.5%, 1984년 11.0%로 나타났다.

이전 91년 2.5%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4%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최고치로, 1981년 1.5%, 1982년 2.0%, 1983년 2.5%, 1984년 3.0%, 1985년 3.5%, 1986년 4.0%, 1987년 4.5%, 1988년 5.0%, 1989년 5.5%, 1990년 6.0%로 나타났다.

【柳植봉기자】

# 60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가



단순기능인력의 부족과 평등수입의 보장이라는 60세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91년 전반기 지역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0세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91년 전반기 지역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0세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91년 전반기 지역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0세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 매년 늘어 작년 百36만명

### 20대·여성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져

올해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88만 7천명에서 작년의 86만 6천명으로 늘었다.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85년 88만 2천명, 90년 1백 28만 4천명, 91년 1백 36만 1천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통계청은 또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의해서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3.3%로 작년의 3.1%보다 높아졌고, 20대 여성 실업률은 4.9%로 작년의 4.7%보다 높아졌다. 한편, 30~5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1.1%로 작년의 1.3%보다 낮아졌다.

20대 여성 실업률과 30대 이상의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작년과 비교하면 20대 여성의 실업률은 4.9%로 90년의 4.7%보다 0.2%포인트 높아졌고, 30대 이상의 실업률은 1.1%로 90년의 1.3%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통계청 「9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요약

실업률 2.3%... 20대 청년의 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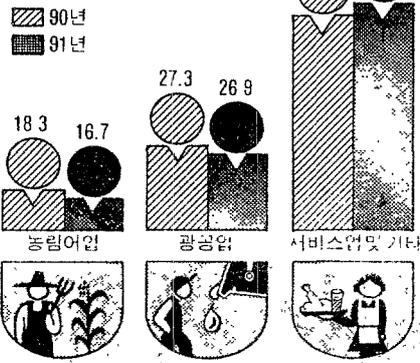
최소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91년 1월 30일 현재 실업률이 2.3%로 낮아졌다. 이는 90년 12월 말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9.3%로 높아졌다. 이는 90년 12월 말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한편 91년 1월 30일 현재 취업자 수는 436만 명으로, 이는 90년 12월 말에 비해 1만 3천 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가 236만 명으로, 이는 90년 12월 말에 비해 1만 7천 명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체 취업자 수의 63.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계층별 실업자 추이

〈단위=천명, %〉

연령	성별	실업률		
		89	90	91
전체		460	451	436
15~19		53	58	59
20~29		230	229	236
30~39		175	157	138
40~49		3	5	4
50~59		3	5	4
60세 이상		3	5	4

취업자 구성비 추이 (단위-%)



9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 수의 증가가 실업률 저하에 크게 공헌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9.3%로 높아졌다. 이는 90년 12월 말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한편 91년 1월 30일 현재 취업자 수는 436만 명으로, 이는 90년 12월 말에 비해 1만 3천 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가 236만 명으로, 이는 90년 12월 말에 비해 1만 7천 명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체 취업자 수의 6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실업률도 낮아졌다. 91년 1월 30일 현재 실업률은 2.3%로, 이는 90년 12월 말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9.3%로 높아졌다. 이는 90년 12월 말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한편 91년 1월 30일 현재 취업자 수는 436만 명으로, 이는 90년 12월 말에 비해 1만 3천 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가 236만 명으로, 이는 90년 12월 말에 비해 1만 7천 명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체 취업자 수의 63.3%를 차지하고 있다.

고정급여 근로자 전체의 60.8% 서비스 고용증가 전체 신규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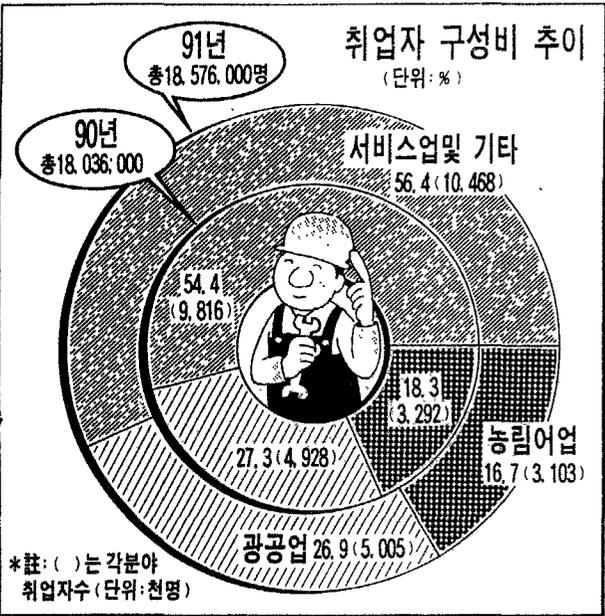
취업자率 서울·光州등 높고 全南 감소

취업자 증가율을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光州(7.8%), 仁川(6%), 서울(5.8%), 4%(%) 등 도시지역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全北(0.5%) 감소, 全南(0.9%) 감소(%) 등 지방지역은 감소세를 보였다. 또 산업별로는 지난해 大邱가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3.3%), 光州(3%), 大田(3%) 등이 전년 대비 2.3%를 웃돌았으며, 京畿(1.8%), 慶尙(1.7%), 全南(0.9%) 및 濟州(0.8%) 등은 비교적 저위 단계였다. 취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고정직업을 받은 인력이 전체 취업자의 42만 2천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1천 1백 28만 7천 명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한 반면, 비정규직은 26만 2천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5만 2천 8백 33명 증가한 것이다. 2백 2만 9천 10·9%에 달하는 7백 8만 9천 9백 33명의 32.9%를 차지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지난해 1만 2천 8백 33명에서 1만 8천 9백 33명으로 5천 1백 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鄭東哲 기자 >

# 제조업이탈·서비스업연전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56.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제조업의 비중은 43.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신규 취업자 수를 훨씬 능가, 제조업인력의 서비스업 이동 현상까지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됐다.

5만 5천 명이 탈락한 제조업의 신규 취업자 수는 1천 8백 57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의 신규 취업자 수는 3천 292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이로써 서비스업의 비중이 56.4%로 2%포인트 상승했다.



## 지난해 經濟활동인구 동향

### 製造業 비중 3년

### 신규 취업 54만명

경제활동인구 중 65만 2천 명의 신규 취업자가 발생했다. 이 중 제조업 취업자는 26.6%로 전년 대비 27.7%를 기록하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54.4%에서 56.4%로 두 차례 상승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4분기 이후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10.6%포인트 하락하고 제조업 취업자 수가 3.4분기부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3%)의 비중이 1.4%포인트 감소했다. 3차산업의 비중은 56.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제조업의 비중은 43.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신규 취업자 수를 훨씬 능가, 제조업인력의 서비스업 이동 현상까지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조업 신규 취업자 수는 1.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의 신규 취업자 수는 5.4% 증가했다. 이로써 서비스업의 비중이 56.4%로 2%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인력의 서비스업 이동 현상까지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취업자수와 실업률>  
(단위:천명·%)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률	
	1991	전년대비		1991	전년대비		1990	1991
		증감	율		증감	율		
전국	19,012	525	2.8	18,576	540	3.0	2.4	2.3
수도	9,167	388	4.6	8,866	400	4.7	3.6	3.3
서울	4,868	177	3.8	4,705	200	4.4	4.0	3.3
부산	1,665	70	4.4	1,610	68	4.4	3.3	3.3
대구	942	45	5.0	909	38	4.4	2.9	3.5
인천	761	44	6.1	739	42	6.0	2.9	2.9
광주	470	33	7.6	456	33	7.8	3.2	3.0
대전	461	19	4.3	447	19	4.4	3.2	3.0
9개도	9,846	138	1.4	9,711	141	1.5	1.4	1.4
경기	2,516	76	3.1	2,470	88	3.7	2.4	1.8
충청	684	8	1.2	677	7	1.0	1.0	1.0
호남	595	5	0.8	588	3	0.5	0.8	1.2
전라	841	15	1.8	834	14	1.7	0.7	1.0
제주	836	△4	△0.5	825	△4	△0.5	1.3	1.3
기타	1,171	△11	△0.9	1,160	△11	△0.9	0.8	0.9
북경	1,323	14	1.1	1,307	11	0.8	1.0	1.2
남경	1,634	27	1.7	1,607	26	1.6	1.6	1.7
대북	246	8	3.4	243	7	3.0	0.4	0.8

# 연속 떨어져

## 3차産業은 65만명 늘어

한편 서비스산업이도 전업업종  
업자가 크게 늘었다. 서울, 경기 지역  
의 서비스업은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산업의 인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전업업종업자가 8만여  
명이나 늘었다. 특히 전업업종  
이전인 산업별 취업자의 변화가  
분명. 1차산업의 전업과 제조업에  
은근히 서비스업의 전업이 늘었다.

이 품인 성장을 보인다. 기업한 것  
이내 늘었다.  
그럼에도 서비스업의 산업내부의  
무효성에 소비업종으로 옮겨간 데다  
제조업인력까지 풀여가고 있어 인력  
난에 가장 시달릴것이라 지적되고  
있다.  
전기가, 열처리, 석유, 1차산업, 제조  
업인력도 11만명이나 늘고 있다.

도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인력난  
을 도야. 전업서비스업이도 무려 65만  
명이나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30세 이하 인력 부족에  
제조업 기업은 15~20세 인  
력층의 인력난이 특히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 심해지고 있다.

또한 제조업은 고용률의 실업  
률이 0.2%로 낮아졌으나(1.1  
%) 제조업은 고용 안정성이며  
취업수준에 보면 중소기업 인력난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산업전반으로 보면 서비스  
전면대중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이  
다들산업이 전업(4.4%)보다  
0.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지적  
된다.

전반기 이전엔 제조업이 서민  
산업이던 제조업도 산업별 고용  
구조가 악화되고 인력난이 특히  
심해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의 경우엔 인력난이 전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제조업인력이  
전업이던데, 제조업은 전  
사업을 취업하기 위한 전업이 마련  
중이다.

그럼에도 전업은 제조업  
인력난 해소하기 어렵다. 특히  
전업업종 인력난이 사립인 제조  
업 취업은 더더욱 어렵다.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  
될 전망이다.

<박수경기자>

# 青年·女性 실업률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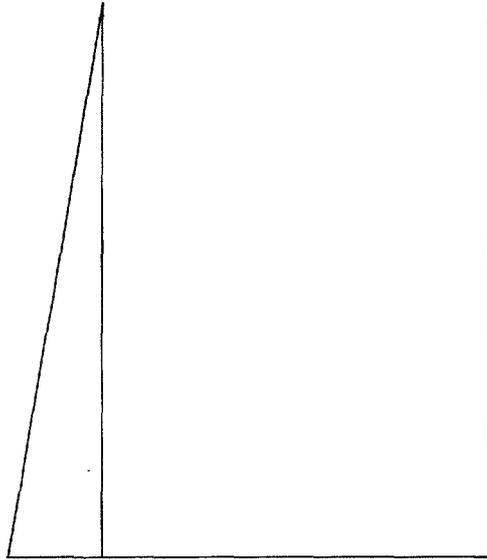
## 社說

통계청의 발표한 91년말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실업수급의사희구조건인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총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80.6%라는 사상 최고치의 이른 반면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인 2.3%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면한 추세 속에서도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젊은세대와 여성 실업률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새로운 문제점이므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하계 총과 여성 실업률의 전년 대비 0.2%포인트나 증가했다는 것은 해외노동력 수입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금의 人力難을 생각할 때 3D기피현상이나 노동집약산업의 부진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업률의 증가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91년 12월 말 현재 실업률의 상승부분이 유화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이들의 활용을 막는 장애요인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뜻하고 이것이 때문이다.

여성 실업률의 증가요인으로 타아수용 제도적인 시설부족과 아직도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지적할 수 있으며 해외 실업률의 경우와는 현행 교육제도와 병역의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행 교육제도와 사회적인 인식이 대화전화를 하나의 필수요건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19세 전후의 젊은 인력의 활용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실업률과 교육은 그렇지도 않지만 인문계고졸생의 경우, 大學진학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생각할 때 현행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는 젊은 人力이 유희화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남기고 있으며 또 병역미필자에 대한 고용기피현상도 入隊前의 수많은 전령기 人力의 활용을 막는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필요인이 지금까지는 인력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력수요가 격증함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이 60%를 넘어선 지금 젊은 계층과 여성 인력의 유희화를 이차면 방지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점에서 해외인력수입을 저탄하기 전에 우선 국내인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개선을 서두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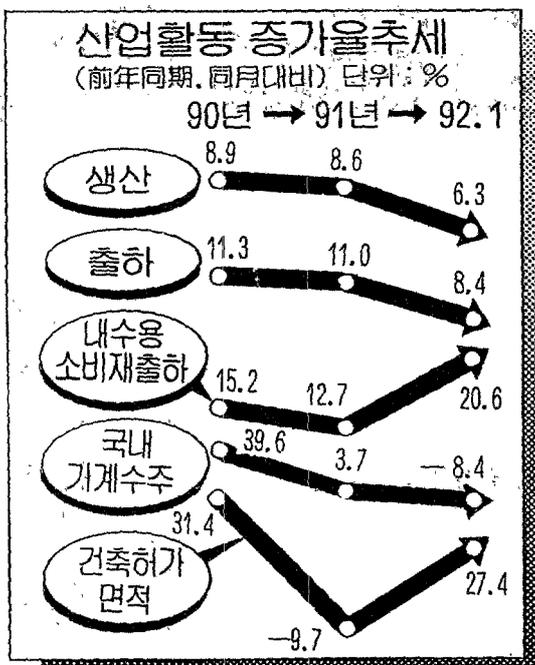


內需경기 들먹 설비투자 둔화

선거철 「경제 먹구름」

각종공사 급증... 과열조짐

기계류 出荷 감소 「高물가 속低성장」 진입 분석도



한동안 정체세를 보였던 건설투자 및 민간 소비 등 내수 부문이 선거철을 맞아 일시적으로 각종 공사의 증가 등으로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산업생산과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뚜렷한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불가호를 세가 계속돼 경제안정기 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경제界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급증가를 전정시키기 위해 통화긴축 등 총수요관리정책이 지속적인

으로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7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중 국내 건설수주는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사무실 주택 등의 건설호조로 작년 1월에 비해 무려 35.9%나 늘어났고 건축허가 면적도 27.4%나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가 울려퍼다 시 과일 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축허가 면적 증가율을 용도별로 보면 작년 1월에

비해 수주 거용이 144.3% 증가한 114.9%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 산업용은 건축규제 완화로 작년 1월에 비해 71.8%나 감소한 반면 건설이 건설 경기 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소비의 경우 지난 1월중 이산품으로 건축 자재 가격이 활발했고 박화점 등의 할인 판매가 호조된 것이 도 소매 판매 가격이 작년 1월에 비해 10.8%

재출하도 무려 20.6%나 늘어나는 등 원료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이 기간중 산업생산과 출하는 작년 1월에 비해 각각 6.3% 및 8.4% 증가에 그쳐 20%의 상승은 증가세를 보였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중가세가 현저히 둔화됐다.

또 설비투자는 국내 민간 기계수주가 8.4%나 줄어 작년 같은 기간 18.7% 증가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작년 1월중 20.8%나 늘어났던 기계류 내수출하도 4.4%가 감소해

작년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태에 있다.

한편 全經聯 부설 韓國 경제연구원은 7월 1~4분기(1~3월) 경제동향 및 연건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국민총생산(GNP) 성장률은 6.9% 설비투자의 건설투자를 포함한 고정투자 증가율은 7.2%에 머무는 등 성장 및 투자 증가율이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 정부의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상승률은 연중 작년 동기 대비 9.5% 상승을 유지, 우리 경제는 성장과 투자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에 처해 속의 高물가 현상 국면에 진입할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태에 있다.

한편 全經聯 부설 韓國 경제연구원은 7월 1~4분기(1~3월) 경제동향 및 연건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국민총생산(GNP)

위기와 맞물려 시정되지 않는다면 경기침체는 상당기간 깊숙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1월의 생산은 현대自動車의 노사합의에 일시적인 영향은 받았으나 수요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되어 인건비가 상승을 저지하고 인건비를 줄여 지켜 봐야 확실한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 이외의 해외 시장에선 수출이 전연과 마찬가지로 더딘 상황이며 도제조업가동률은 88.3%로 최근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그도 이상 조업정도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므로 인건비와 부가세 인상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에 필요한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된다.

지난 1월은 산업생산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3%를 기록, 지난해 연평균가동률 8.6%를 밑돌았다. 12월의 7.5%에도 크게 못 미친 것이다. 1월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2월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3월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生産·출하 낙달째

## 人力이탈 불구 실업률 2.8%

### 석유정제·산업용 화학제품업종 크게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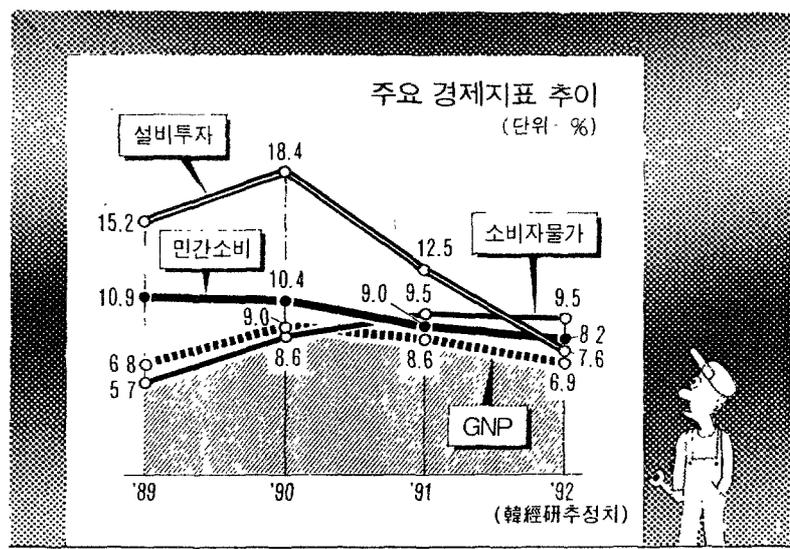
3%가 감소, 설비투자는 당분간 둔화될 전망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월 총결산은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소비증가 등 내수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총생산수도 전월보다 1.5%가 올랐다. 지난해 1월(2.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경기총생산지수는 0.3%의 소폭증가로 지난해 12월(1.3%)에 비해 크게 하락, 대조를 이뤘다.

건설경기외의 선행지표인 건축업자면적은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으론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올들어 이례적으로 27.4%의 높은 증가세로 반전했다.

이와 총생산면적의 절반의 상을 차지하는 주거용업자가 지난해 1월만 무려 10%수준에 오른 것이다. 새로운 아파트 허가분량의 증가로 1백41.



으로 지난해 9월 이후의 감소세 지속으로 1월중 12만 4천명의 출근을 보였다. 이에 따라 광업채용자도 13만 3천명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사회서비스부분은 △석유정제(15만 3천명) △도소매(13만 7천명) △서비스업(6천명) 및 △기타(13만 1천명) 등으로 총 83만 7천명(6.3%)의 취업자가 늘었다. 특히 광업채용자는 5만 1천명(2.5%)이 늘었다. 지난해 9월 4월 이래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외에다 총생산에서 부분별 구성비인 건설업 등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은 8.2%로 11.9%의 높은 전년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토목업의 비중은 2.9%

〈鄭東植기자〉

통계청 「1월 산업활동동지표」 분석

국내경기(美·日·獨 등 선진국과 함께 不景氣속으로 빠진 것)이다.

7월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중 산업활동동지표는 생산총액이 4개월째 내린 반면, 수출은 늘고 있으며, 과소비·건설경기 과열은 여전히 기세를 부리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수출은 1월 11.4%의 대폭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못 하고 국제수지 적자가 누달 만에 30억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수출 주축품의 판매부진(財界의 悲鳴)은 타개 1호로 부상한 실정이다. 「소비·서비스경기」 고조, 제조업경기 퇴조가 總體론

내리막

내需과 열여전 「거품」안가셔

%가 감소했다.

투자심리가 냉각되면서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지하철차량 전차교 환기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부진하여 작년 동기 대비 17.1% 감소했다. 기계류 내수출입도 지난 12월에는 8.4% 증가했으나 1월에는 4.4%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해외 기계수주를 나타내는 기계류 수입증인서(I/L)발달률도 16.3%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산업활동 감소추세가 이어져 71.8%가 줄어들었고 고용증감률도 3.3%의 소폭증가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국내건설주요역역시 8.9%가 늘었고, 지난해 평년치인 13.9%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가운데 신규주택건설은 민간제조업으로부터의 수요수는 18.1% 줄어들었으나 공공주택은 10.8% 증가했다. 3%과 사물상 주택은 민간 제조업 46.7%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관련지표인 도소매 판매액이 이삼달째로 인한 저축자재 판매액가 및 백화점의 할인판매회장은 1월 10.8%의 비전진률로 증가세를 보였다. 내수용 소비재출입도 대형수출차 등 내재 0.2%의 증가와 대외노출, 외부화장품 등 내수 소비재출입(29.7%의 증가)으로 20.6%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한편 1월 중 산업활동은 2.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내려가는데 안정수준을 보였다. 이월한

제조업업황 감소와 건설 등 사회서비스업이 증가가 두드러져 서비스업의 인력증가가 지수도 2.8%를 나타냈다. 1월 중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1천 8백 2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7.7%로 0.8%포인트 높아졌다. 이 가운데 취업자수는 1천 7백 7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실업률은 2.9%로 집계됐다. 이월한 제조업업황은 취업자가 신규의 유입을 흡수한

社 論

산업활동에  
異常있다

年初의 경제활동은 뜻외의 일찍 정부  
가 조인한 신축과 '안정' 그리고 성  
장의 實績은 단기간에 걸친 안정의  
정착을 가져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은 또한 인민의 생활수  
준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한편 1월과 2월의 실업률도 1945년  
보다는 훨씬 낮아졌다. 이러한 안정  
과 실업률의 감소는 정부와 인민의  
협력과 협력의 결과이다. 정부의  
안정 정책은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인민에 대한 신뢰를 확립  
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한편 1월과 2월의 실업률도 1945년  
보다는 훨씬 낮아졌다. 이러한 안정  
과 실업률의 감소는 정부와 인민의  
협력과 협력의 결과이다. 정부의  
안정 정책은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인민에 대한 신뢰를 확립  
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기·전차·자동차·철강·석유정제부문의  
현저한 위축현상이 불길한 대조를 이  
루고 있다.  
총체적인 생산량의 증가율이 8%인  
데 반해 내수용 소비재의 출하증가율이  
20%를 웃돈다. 사실상 인민생활의 향  
진한 소비부구의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미증상이다.  
북방 1월과 2월의 취업 기회율은  
모든 부문에서 현저한 증가세를 보  
고 있다. 한편 1월과 2월의 실업률  
감소율은 각각 1.5%와 1.8%로  
평년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인민의  
경제생활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과 실업률의 감소는 정부와 인민의  
협력과 협력의 결과이다. 정부의  
안정 정책은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인민에 대한 신뢰를 확립  
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제의 內實과 活力을 보충하고 경제  
부양을 위한 노력은 한층 강화 될 것  
임을 기대한다.  
1월과 2월의 실업률도 1945년  
보다는 훨씬 낮아졌다. 이러한 안정  
과 실업률의 감소는 정부와 인민의  
협력과 협력의 결과이다. 정부의  
안정 정책은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인민에 대한 신뢰를 확립  
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社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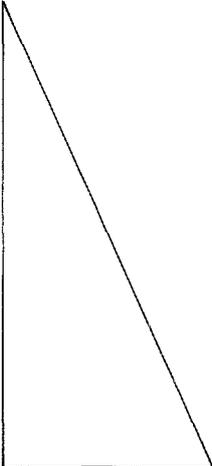
「總需要」 관리의 空轉

總需要의 管理란 社會의 總需要의 管理에 對하여 政府의 總需要管理 政策을 實施하고 있는 事實의 總體를 指하는 總稱이다. 社會의 總需要를 管理하는 目的은 社會의 總需要를 充分히 供給하여 社會의 福利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總需要의 管理는 社會의 總需要의 變動에 對하여 政府의 政策을 調整하여 社會의 總需要를 充分히 供給하는 事를 指하는 總稱이다.

우리가 以上 說明한 總需要 管理 政策은 總需要의 管理 政策의 總體로서 社會의 總需要를 充分히 供給하여 社會의 福利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總需要의 管理 政策은 社會의 總需要의 變動에 對하여 政府의 政策을 調整하여 社會의 總需要를 充分히 供給하는 事를 指하는 總稱이다. 總需要의 管理 政策은 社會의 總需要의 變動에 對하여 政府의 政策을 調整하여 社會의 總需要를 充分히 供給하는 事를 指하는 總稱이다.

總需要의 管理 政策은 社會의 總需要를 充分히 供給하여 社會의 福利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總需要의 管理 政策은 社會의 總需要의 變動에 對하여 政府의 政策을 調整하여 社會의 總需要를 充分히 供給하는 事를 指하는 總稱이다.

總需要의 管理 政策은 社會의 總需要를 充分히 供給하여 社會의 福利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總需要의 管理 政策은 社會의 總需要의 變動에 對하여 政府의 政策을 調整하여 社會의 總需要를 充分히 供給하는 事를 指하는 總稱이다.



社說

內需過熱 가볍게 볼일 아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기본목표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안정과 산업경쟁력제고이다. 이를 위해 과열된 內需를 진정시키고 輸出이 성장을 주도할수 있도록 인력과 자금흐름을 내수보다 수출, 건설과 서비스업 대신 제조업쪽으로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국민은 정부의 그런 목표를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지금도 약속대로 실현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1월중 산업활동동향은 정부가 진정시키겠다고 건설과 내수가 과열양상을 띠었는가 하면 제조업의 설비투자, 생산활동, 취업자는 전반적으로 감소내지 둔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과 내수경기의 과열상은 그 정도가 지난해보다 더욱 심한데 그건 결국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월중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28.9%가 늘었고 국내건설수주는 2.6%가 감소했었다. 그런데도 건설경기과열을 걱정했었는데 금년 1월에는 그것이 모두 27.4%와 35.9%나 늘어났다. 특히 제조업건설수주고가 18.1% 감소한 반면 非제조업과 공공부문이 53.3%와 45.7%나 증가한 것은 결코 소망스런 현상이 아닐뿐더러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내수의 과열현상도 이에 못지않다. 내수용소비재 出荷증가율이 20.6%, 그 가운데 非耐久性소비재의 그것이 29.7%나 되는데 1년전만해도 20.2%수준이었다. 또 2.6%에 불과했던 소매판매액증가율이 금년1월에는 약2년만의 최고치인 10.9%를 기록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의 중요한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인 국내기계 수주가 1년전의 1.9%증가에서 17.2%의 감소로 돌아서고 산업생산 증가율은 19.9%에서 6.3%로 크게 둔화되었다. 또 인력의 제조업 이탈현상도 계속되어 1년전보다 12만4,000명이 줄었다.

이같은 1월 한달동안의 모습은 정부의 경제운용이 벽두부터 빗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이는 우려했던 선거영향이 일찍부터 드러난 결과로서 상당기간 지속될 경기추세로 봐야한다.

바야흐로 총선열기가 익어가는 순간이지만 최근의 내수과열을 결코 가볍게 보거나 선거를 앞둔 一過性현상으로 보면 안된다. 뭔가 잘못되어 있으며 따라서 당국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생각해야한다. 늘 하는식으로 선거뒤에 가서 긴축을 죄면 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과열내수를 식히면서 제조업과 수출을 활성화할 보다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안된다.

# 大學 입학생모집 세일즈時代 온다

## 人文高生 줄고 定員늘어 95년경 일부대 미달 속출

### 企劃院·통계청 人口추계 발표

청소년 취학인구의 감소 추세로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전년 대비 1% 줄 것으로 있는데, 반해 취업률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학입학 정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면서 고교 졸업생 10명 중 7명 정도만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94년에는 고교 졸업자수가 37만 7천명에서 36만 7천명으로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학입학 정원은 37만 7천명에서 38만 7천명으로 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나는 반면 인문고 졸업자수는 이 기간 중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인문고 졸업자수에 대한 4년제 대학입학 정원과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년제 일반대학의 인문고 졸업생은 20만 8천명에서 96년에는 23만 2천명으로 2만 4천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과 대학입학 정원규모의 추이를 토대로 보면 그 동안 극심했던 입시난이 점차 완화되고 양질의 대학입학 정원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년제 대학입학 정원 대비 인문고 졸업생의 비율이 1993년 2.02대 1에서 1994년 1.70대 1, 1995년 1.36대 1, 1996년 1.34대 1로 계속 낮아져 대입시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서울소재 대학의 입시정원들이 양질의 대학입학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년제 대학입학 정원 대비 인문고 졸업생의 비율이 1993년 2.02대 1에서 1994년 1.70대 1, 1995년 1.36대 1, 1996년 1.34대 1로 계속 낮아져 대입시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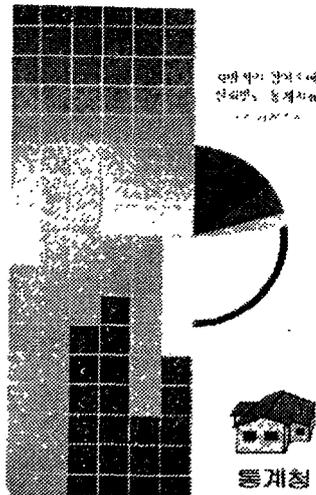
# 통계청 電話카드 배포

## 家計조사 응답자 協調우대 위해 무료로

과파하게만 느껴지던  
점점의 응답에도 特色이  
이디어가 등장, 관심을  
끌고 있다.

統計廳은 최근 公衆電  
話카드의 한쪽 면에 통계

홍보단안이 인쇄된 전화  
카드를 주부 제작, 4월  
부터 도시가계조사 때 전  
국 5천여 가구에  
산출품으로 제공할  
예정.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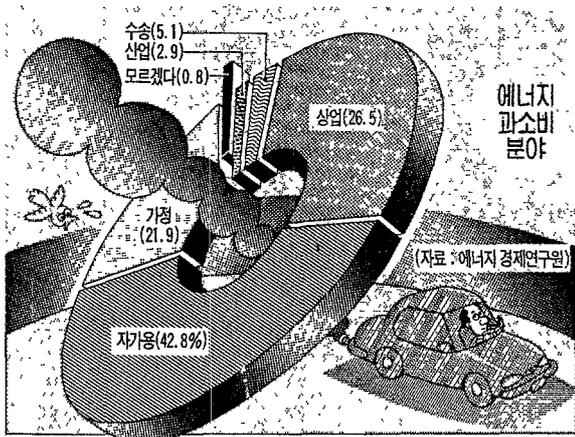
통계청이 배포하는  
전화카드. 통계를  
알려준다.

통계청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민중화익의 증대 및 개  
인 집단의 비탄동향의  
신뢰로 응답 거부 및 불  
충실한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응답자  
의 협조를 적극 유도한  
다는 차원에서 特色전화  
카드를 고안하게 됐다』  
고 말했다.

전부 오느곳에서나 이  
용이 가능한 이 전화카  
드는 많은 점비를 들이  
지 않고도 통계홍보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 <끝>

# 소비자物價 1.3% 상승 3월



## 공공·서비스료가 주도

### 1·2월 안정으로 1분기 으뜸폭은 낮은 편

#### 韓銀·통계청 물가동향 발표

중앙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1·2월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1·2월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1·2월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달 통계청과 한은이 발표한 3월 물가동향 발표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1·2월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1·2월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달 0.6%포인트, 2월 대비 0.4%포인트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1·2월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1·2월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 선거인플레 예상밖 "輕症" 3월物價 1.3% 만 올라

## 年初대비 2.6% 상승

### 작년 4.9% 감안 안정된 수준

#### 통계청 발표

통계청이 31일 3월중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변동률 1.3%를 발표하며, 2.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달은 유물세가 14대 중 13대(전년 대비)와 4.9%의 상승률(전년 대비)에 비해 훨씬 안정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달과 같은 1월 대비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0.2%로 나타났다. 1월 대비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0.3%로 나타났다.

이달과 같은 1월 대비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0.2%로 나타났다. 1월 대비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0.3%로 나타났다.

이달과 같은 1월 대비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0.2%로 나타났다. 1월 대비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0.3%로 나타났다.

이달과 같은 1월 대비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0.2%로 나타났다. 1월 대비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0.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濟州가 3.3% 水原·大邱가 각각 3.1%로 전월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2/4분기 보도기사

(4월~6월)

**여 백**

# 물가指數에 피부물가 담는다

## 통계청, 이달부터 算出대상품목 470개로 확대

### 소비자물가지수대상 추가 및 탈락품목

	추 가	탈 락
식료품	수입쇠고기, 치즈, 명란젓, 맛살, 김, 오징어포, 복어포, 열무, 맛김, 바나나, 건포도, 잼, 냉면, 녹차, 오렌지주스, 된장찌개, 불고기, 등심구이, 생선초밥, 김밥, 등가스, 비후가스, 햄버거 (23)	좁쌀, 수수, 쌀, 병어, 사과(골덴), 들깨, 고랭우유, 과탈, 인삼차, 나방우라이스 (10)
주거비	단열재(스티로폼), 보일러, 도배공사, 아파트관리비, 이삿짐운송비 (5)	기와, 창호지 (2)
가구·기공품	침대, 응접세트, 에어컨,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정수기, 전기프라이팬, 진공청소기, 압력솥, 김치냉장고, 램프, 청소용세제, 방석, 커피 (15)	보온밥통, 곤로, 은수저, 양은숟가락, 버킷, 성냥, 양초, 솥 (8)
피복	기성숙녀복(여름·겨울), 원피스(여름·겨울), 코트(기성복), 바지, T셔츠(겨울), 스웨터(여자·남자), 블라우스(여름·겨울), 아동복, 실내화 (13)	맞춤코트, 광목, 양장지(여름·겨울), 재봉사 (5)
보건의료	무항청심원, 주사료 (2)	(-)
교육·교양· 오락	인시학원비(종합), 미술학원비, 참고서(중·고·국·교), 가정과학습참자, 앨범, VTR, 동화책, 컴퓨터, 오락시, 운동복, 운동강습대 (16)	봉투, 가스버너, 라디오, 도서관비(국·공립) (4)
교통통신	기차료(새마을), 승용차(소형), 휘발유, 엔진오일,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보험료(기분료), 전화기(무선) (9)	기차료(비둘기) (1)
기타잡비	파운데이션, 로션, 립스틱, 헤어크림,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 여행용가방, 가스라이터 (8)	일반손목시계, 허리띠 (2)
계	(91)	(32)

기준연도 85년에서 90년이란

## 조사지역도 32개市로 늘려

지수물가와 소비자물가지수물가를 비교하는 「피부물가」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개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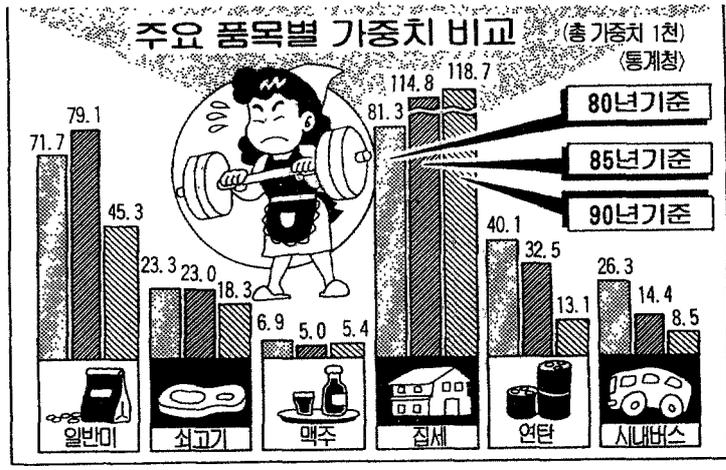
통계청이 8월 지난 85년을 기준으로 4백11개 품목에 대해 조사 발표하던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 연도를 90년으로 조정하고 조사대상품목도 4백70개로 늘려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지역도 종전 11개도시, 42개시장(재래시장 중심)에서 지방도시 등 32개도시, 64개시장(슈퍼마켓과 농협공판장포함)으로 늘리고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완지수로 「新鮮식품지수」와 「구입빈도별지수」를 추가해 지수물가와 피부물가의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새로 개편된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85년 이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 차지하는 선량 양초 등 32개 품목이 빠지고 소비지출 비중이 커진 바나나, 우황청심원 불고기 VTR 자가용승용차 등 91개 품목이 추가됐다.

새로 추가된 조사대상품목은 주로 소비고급화에 따른 고급제품과 수입식품, 외식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색이며 신제품출현과 소비의 고급

는 가중치는 85년 3백80에서 3백25로 줄어든 반면 비식료품부분은 같은 기간 6백20에서 6백75로 늘어났다. 비식료품부분 가운데 지출액가가 두드러졌던 부분의 하나가 교통통신으로 공공교통은 가중치가 줄어졌으나 개인교통의 경우 중형승용차가 중치 11.9(소형승용차) 8.4엔 14.4(휘발유) 8.4엔 인입(2.6) 자동차주차료(0.4) 보험료(2.6) 등의 지출이 늘었다.



국민소득증가와 소비생활 고급화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지출패턴이 크게 바뀌고 있다. 가령 총소비지출가중치를 1천으로 했을때 지난 85년 92.4이던 쌀의 가중치는 90년 53.4로 격감했다.

# 所得증가로消費양상 크게 변화

## 統計庁 90년 기준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개편

이에 비해 지금까지 가중치가 없었던 승용차 휘발유, 퍼스컴, VTR, 우형청신원 등에는 높은 가중치가 새로 매겨지고 있다. 그러나 수요가 거의 없었던 수수쌀, 들기름, 양초, 광목, 양잠지 등은 이제 물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8월 5일만에 실시한 '90년 기준 소비자물가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 이번 개편으로 지난 85년 이후 4백 11개였던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은 32개가 탈락된 반면, 9개 품목은 새로 추가돼 조사대상 품목은 4백70개로 늘었다. 조사대상지역도 11개 도시에서 32개 도시로 확대됐다. 통계청은 빠른편이 달릴수록부터 신지수체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쌀 가중치 격감... 車·PC·VTR 등 급증

수수쌀·기와·창호지·성냥·양초·양모슬 제외

에어컨·진공청소기·카펫 등 새로 포함

### 소비자물가조사대상 주요추가품목 및 탈락품목

기준연도	조사대상 품목 수	주요 추가 품목	주요 탈락 품목
1986년	10	쌀, 콩, 쇠고기, 계란, 소금, 설탕, 청주, 쌀, 간장	-
1985년	285	들기름, 양배추, 수박, 포도, 고등어, 아이스케키, 복수임, 검	민어, 낙지, 유부
1970년	338	고속버스료, 항공료, 피아노, 전축, 냉장고, 보리쌀(알맹), 고추장, 맛초(신사, 숙녀), 병어, 당근, 밀갑	옛, 된장, 판재, 브로크, 명주, 모시, 탈지면, 은팔찌, 연색약, 구두약, 베니어판, 펜촉
1980년	394	컬러TV, 전철료, 도시가스, 세탁기, 가스레인지, 손목시계, 카세트테이프, 마요네즈, 케첩, 경유, 한방약, 위스키	채종유, 건빵, 약주, 흑색필름, 인크, 포마드, 밀, 외산약(머큐롬)
1985년	411	피아노하원비, 인시하원비, 풀, 주산하원비, 전산하원비, 햄, 생맥주, 케이크, 과실네타, 뜻고추, 시내버스료(좌석), 시외전화료, 병원검사료, 미용료(컷트)	혼합미, 카라멜, 재분말, 합석, 꽃, 슬레이트, 비닐화, 포폴린, 고무신(여자, 남자), 양재하원비, 만년필, 사과(국광)
1990년	470	승용차(소형, 중형), 휘발유, 퍼스컴, 에어컨, 진공청소기, VTR, 전화기(무선), 맛김, 기차료(새마을), 김치, 바나나, 오렌지주스, 튀김탕, 보일러, 명동만두, 우형청신원	수수쌀, 사과(플렌), 오무라이스, 들기름, 기와, 초지, 양모슬, 광목, 양잠지, 봉투, 재분, 국광, 도서, 판, 허리띠, 기차료(비둘기)

수입쇠고기 치즈 맛살 맛김 제조김치 바나나 건포도 잼 냉동만두 녹차 오렌지주스 등 신분이 생선조밥 튀김탕 햄버거 등이 새로 물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외산비의 전체가중치는 85년 21.2에서 58로 무려 36.8포인트나 높아졌다.

## 조사대상품목 470개-지역 32도시로 확대

그러나 그동안 피부를 가와 지수를 가간 피리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오던 주먹구비비듬이 이번에도 물가조사대상에 제외돼 계속 시비거리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조사자가 어렵고 새로 추가할 경우 지수체계의 일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金光顯기자〉

와 참용제는 빠졌다. 또 침대 등전체트 에어컨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정수기 진공청소기 압력솔 김치통 카펫 커튼 등이 새로 추가됐다.

여가생활 선호경향과 지난해 5년간 자가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을 받아 교육교양 오락비와 교통통신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입시하원비 미술헌원비 가정화습지사 프렌 앨범 VTR 퍼스컴 텔레스케이트 낚시대 운동복 비디오 테이프대 여류 승용차(대형제외) 휘발유 엔진오일 자동차 주차료 무선전화료 등이 일제히 조사대상품목에 새로 추가된것.

# 소비자物價指數 체계 바뀐다

## 스용차등 91개項 추가

### 성냥·양초·기와 등 32개는 제외

4월부터, 기준도 90년으로 변경

4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소비고압화 및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 그동안 지수 물가에 잡히지 않았던 승용차, 휘발유, 김치, VTR, 우유, 쌀, 쌀도, 이산전환유, 비등 91개 품목이 가격조사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반면 소비가 줄어 중요도가 떨어진 신상양조기와 짬뽕볶음 등 32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신료품의 가중치 4백11개 품목에서 4백

◇기준연도별 주요 추가품목

연도	품목수	추 가 품 목
36년	10	쌀, 콩, 쇠고기, 계란, 소금, 설탕, 숯
65년	285	아이스케이크, 목수입, 껌, 고등어 수박, 포도
70년	333	고속버스료, 항공료, 냉장고, 전축, 피아노
80년	394	컬러TV, 전철료, 도시가스, 세탁기, 가스레인지, 위스키, 한방약, 카세트테이프, 마요네즈, 케첩
85년	411	피아노, 입시학원비, 꿀, 주산화원비, 생맥주, 햄, 케이크, 과실네탈, 풋고추, 좌석버스료, 시외전화료, 병원검사료, 미용료(커트)
90년	470	승용차, 휘발유, PC, 에어컨, VTR, 김치, 진공청소기, 무선전화기, 맛김, 바나나, 냉동만두, 새마을기차료, 우항청심환, 튀김닭

※품목수는 전체대상 품목

이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에는 85년 기준에 비해 4백11개 품목이 추가된다. 통계청(8일)은 이날 오전 9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을 발표, 4월 물가 발표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품목은 85년 기준 4백11개 품목에서 4백470개로 늘어났다. 70개(90년 기준)로 59개가 늘어났다. 이번엔 불가지수 산출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에어컨 전자레인지 VTR 퍼스컴(PC) 등 신제품 및 고급품 ▲수입쇠고기 바나나 등 수입식품 ▲블로그기 튀김닭 햄버거 등 외식품 ▲승용차 주차료 등 개인교통관련 품목 ▲미술학원비 가정화습 지등교유비이다. 통계청(8일)은 수순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 품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가중치가 85년 기준보다 하락한 품목은 쌀 등 穀類(1백77.7↓62.1), 보건의료(72.4↓53.5), 연료(48.6↓25.6) 등이다. 외식비(21.2↓58.0), 주거비(1백29.4↓1백41.7), 의복 및 신발(74.4↓88.4), 교육·교양료(1백14.9↓1백42.4) 등도 가중치가 올랐다.

감안, 품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통계청은 이번 개편 작업에서 가격동향 조사지역도 중전의 서울 釜山 등 11대 도시에 馬山 全州 春川 등 21개 도시를 추가, 32개 도시로 늘리기로 했다.

# 物價조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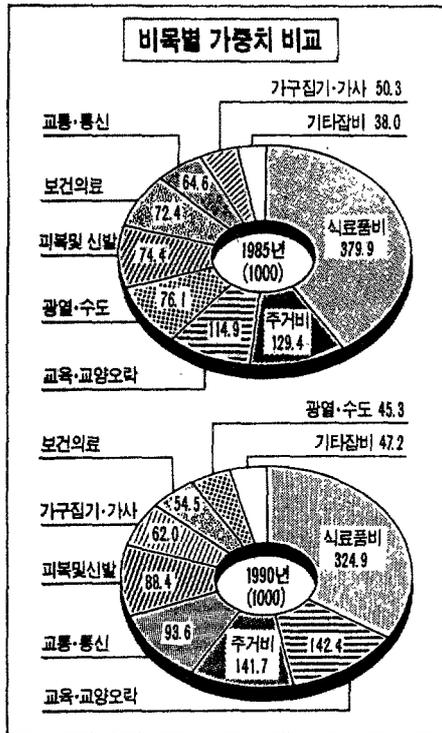
## 통계청, 조사방법

통계청은 8일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품목을 4백11개에서 4백70개로 늘리고 조사지역도 11개도시에서 32개도시로 확대,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가 현행 85년에서 90년으로 바뀌면서 가장 두

높고 기와 상당·양초·향  
호지 등 32개 품목을 제외,  
전체 조사대상품목을 4백  
11개에서 4백70개로 59개  
늘렸다.  
이와 함께 조사지역도 서  
울릉 11개 도시에서 32개 도  
시로 늘렸는데 새로 포함  
된 21개시는 경위 城南議  
政府·黃川, 강원 原州江  
陵, 忠清 忠州, 忠清 天安.

## 90년 기준...消費성향 변화 반영

품목 4백70개...주거·교통費 비중 높아져  
쓰임새 줄어든 좁쌀·광목 등 32 품목은 제외



◇基準年度別 主要追加品目 및 脫落品目

基準年度	品目數	主要追加品目	主要脫落品目
36年	10	쌀, 콩, 쇠고기, 계란, 소금, 설탕, 청주, 술, 간장	
65年	285	블기름, 양배추, 수박, 포도, 고들어, 아이스케이크, 목수입, 껌	민어, 나지, 유부
70年	338	고속버스료, 항공료, 피아노, 전축, 냉장고, 보리쌀(압맥), 고추장, 맞춤복(신사, 숙녀), 병어, 담근, 밀갑	엿, 된장, 판재, 불록, 명주, 모시, 탈지면, 은팔찌, 염색약, 구두약, 베니어판, 펜촉
80年	394	컬러TV, 전철료, 도시가스, 세탁기, 가스레인지, 손목시계, 카세트테이프, 마요네즈, 케첩, 경유, 한방약, 위스키	채종유, 건빵, 약주, 흑색필름, 잉크, 홍차, 포마드, 밀, 외상약(머큐르토크롬)
85年	411	피아노학원비, 입시학원비, 꿀, 주산학원비, 전산학원비, 햄, 생맥주, 케이크, 과일, 네타, 풋고추, 시내버스료(좌석), 시외전화료, 병원검사료, 미용료(커트)	혼합미, 캐러멜, 자불봉, 합석, 못, 슬레이트, 비닐화, 포플린, 고무신(여자, 남자), 양재학원비, 만년필, 사과(국광)
90年	470	승용차(소형, 중형), 휘발유, 퍼스컴, 에어컨, 진공청소기, VTR, 전화기(무선), 맛김, 기차료(새마을), 김치, 바나나, 오렌지주스, 튀김닭, 보일러, 냉동만두, 우황청심원	수수쌀, 사과(골덴), 오므라이스, 들기름, 기와, 창호지, 양은술, 성냥, 양초, 광목, 양장지, 봉투, 재봉사, 국공립도서관, 허리띠, 기차료(비둘기)

먼저 신제품 출현과 소비고급화에 따라 에어컨(가중치 0.5), 진공청소기(0.5), VTR(3.6), 퍼스컴퓨터(3.2) 등이 추가됐다. 또 의식이 바뀌는 풍조에 따라 의식의 전체비중이 85년 21.2에서 90년 두배이상인 58.0으로 대폭 높아지면 서 불고기(3.2), 등갈구이(2.9), 햄버거(1.9) 등이 대거 포함됐다.  
또 건강유지에 관심이 높아져 유동강아미(1.7), 무늬오락시설이용료(2.8) 등도 앞으로 물가지수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한편 자가용승용차보험에 따라 소형(1000원)차 14.4, 중형(2000원)차 11.9, 대형(3000원)차 8.4, 엔진오일(2.6), 자동차보험료(2.6) 등이 개인보험비관련 비중이 주춤세를(40.6)에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반면 월평균 지출액이 1만원의 1이하(90년 기준 68원)로 쓰임새가 크게 줄어든 좁쌀·기와·성냥·양초·광목 등 32개 품목은 물가지수대상에서 제외됐다.  
【柳 蘇 基 기자】

# 역 21곳추가

## 대폭보완 이달부터 적용

드러진 변화는 식료품의 가중치(총지수 1천)가 종전 3백79.9에서 3백24.9로 55포인트 낮아진 것. 이는 지난 85년 도시기계의 식료품비 지출 비중(엔겔계수)이 전체 소비지출의 37.5%에서 90년엔 32%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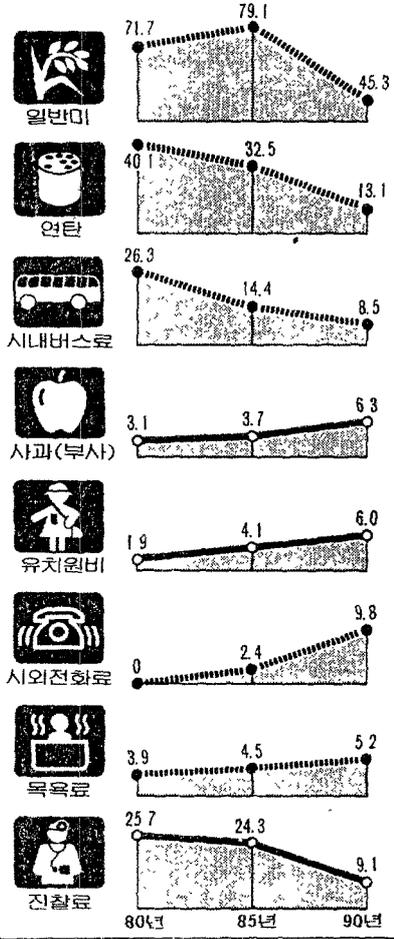
또 소도시향상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 바나나, 딸기, 휘발유, VTR 등 91개 품목을 새로 추가

경북 公州 大川, 전북 群山 南, 전남 大浦 順天, 서울 浦項 龜尾 慶州 安東, 경남 蔚山 晋州, 제주

濟州 등이다. 가중치 변화 추세를 지출 비중별로 보면 소도시향상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를 잘 알

수 있다. 식료품비는 80년 4백11.3에서 85년 3백79.9, 90년 기준인 이번 개편에선 3백24.9로 계속

주요품목별 가중치 변화 (단위: 1천분의)



낮아지고 있다. 또 의료비 지출 대실시에 따라 보건의료비 비중이 85년 72.4에서 90년 54.5로 낮아졌다. 반면 주택 전월세가 격상됨에 따라 주거비는 85년 96.5에서 90년 1백29.4, 90년 1백41.7로 급상승했다. 한편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신발, 교육, 교양 오락 비용은 각각 가중치가 높아졌으며 특히 승용차보험료, 대도교통통신투입비 비중이 85년 64.6에서 90년 93.6으로 대폭 높아진 것도 특색이다. 품목별 조정내역을 보면 지난 5년간 소비패턴 변화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社說

소비자물가지수의改編

생활패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개편된 새로운 편제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달부터 적용된다. 5년마다 기준연도를 바꾸기로 돼 있는 규정의 따라 85년에서 90년으로 기준연도를 변경하면서 물가지수에 잡히는 품목과 품목별가중치를 조정하고 조사대상지역을 늘린 것이다.

도시가구당 소득이나 소비지출이 85년에서 90년사이 두배이상 증가한 사실이나 그동안 출생률 감소가 돼온 지수물가와 피부물가의 괴리를 생각할때 개편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회적 가중화되고 있는 소비행태의 변화를 직접히 반영하는데는 개편의 빈도를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어쨌든 문제는 개편된 물가지수가 물가의 實相을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가에 있다. 물론 개인이 일상적인 가격변화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부물가는 체계적으로 반영이 안된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수물가를 피부물가에 맞춘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간 적어 왔던 생활패턴의 변화정도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새로운 물가지수가 지나치게 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나머지 「지수조각」이라고 비난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예컨대 기존 지수에 의한 지난해의 물가상승률을 9.5%로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 의해 지나치게 낮게 잡혔다는 시비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개편된 지수로는 8%대로 떨어지게 되었다니 정부의 물가지수에 대한 신뢰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만 서민가계의 영향이 많은 농축산물과 생필품의 가중치를 떨어뜨린 반면 외식비의 가중치를 높이고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를 추가한 편입일 것이다. 물품외 식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몫이 증가하고 있고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대부분의 가계의 경우 여유적인 경우의 해일도 되지 않는다. 가계지출중 식료품비의 비중을 나타내던 「생활계수」가 그동안 급속히 높아진 것인 사실. 물품소득의 증가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

할 수 없다.

이왕 그럴바에는 새로운 지수편제에서도 주택가격을 제외한 사실은 낫다 하기 어렵다. 비록 소비자적 성격의 지출이라고는 하나 우리 국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집념과 장은 주거이전전도 및 집안상반기까지의 주택가격변동을 고려하면 그 타당성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통계청의 주장대로 가중치의 개념이 배제된 피부물가와 지수물가는 근본적으로 구분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기본생활물가지수」등 새로 개발해 발표키로 한 5종의 보조지수에서나마 피부물가가 제대로 반영돼 본 지수와 함께 물가의 實相이 보다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근로자家口 작년 月收평균 115만원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대만	
	85년	91년	77년	85년	91년	88년	90년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품	37.7	31.8	29.3	25.7	24.0	33.4	30.9
주거	4.7	4.4	4.9	4.7	5.3	23.2	24.6
광열수도	7.4	4.1	4.5	5.9	5.1		
가구가사용품	4.9	5.8	4.6	4.2	4.0	4.7	4.3
피복신발	7.8	8.1	8.4	7.0	7.1	6.1	5.9
보건의료	5.4	5.4	2.4	2.4	2.5	5.2	4.8
교육양육	10.3	12.3	7.8	9.7	10.0	8.4	8.8
기타소비지출	6.5	8.8	11.4	12.9	14.5	11.7	13.4
1인당 GNP (US \$)	2,194	6,498	6,052	10,987	23,965 (90년)	6,302	7,928

## 한국 일본 대만 소비지출 구성비

90년 26.9%에서 14.6%로 줄어든데 비해 1백50만원 이상 가구는 12.4%에서 21.2%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작년도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비는 85만9천원으로 90년보다 13만5천9백원(18.8%)이 늘어났으며 가구당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월평균 29만9천6백원으로 전년 대비 36.1%가 증가했다.

이 늘어난 것은 자가용 자동차 구입 및 수리비(34.6% 증가), 각종 보험의 회비와 교제를 위한 잡비(26.4%), 대학교육비(38.1%), 자녀보육교육비(27.1%), 교통통신비(25.2%), 의신비(24.2%) 등이다.

이 나 일당 월급을 받아 꾸려 가는 도시지역 가구로 법인체의 이사 이상 임원이나 자기사업체를 가진 자영업자가 구별은 제외된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가구주소득뿐 아니라 다른 가구원들의 소득도 포함된 것이다.

통계청은 전국 4천3백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15일 발표한 91년 도시근로자가구수지동향에서 이 중 월평균 60만 원이 넘는 가구의 비율은 26.9%에서 14.6%로 줄어든데 비해 1백50만원 이상 가구는 12.4%에서 21.2%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작년도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비는 85만9천원으로 90년보다 13만5천9백원(18.8%)이 늘어났으며 가구당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월평균 29만9천6백원으로 전년 대비 36.1%가 증가했다.

이 늘어난 것은 자가용 자동차 구입 및 수리비(34.6% 증가), 각종 보험의 회비와 교제를 위한 잡비(26.4%), 대학교육비(38.1%), 자녀보육교육비(27.1%), 교통통신비(25.2%), 의신비(24.2%) 등이다.

# 90년보다 22.8% 늘어

지출 86만원... 車구입·교육비 큰 증가

작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15만8천6백원으로 90년의 94만3천3백원에 비해 22.8%(21만5천3백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9.7%를 감안한 실질소득으로는 11.9% 증가한 것이다.

도시근로자가구란 가구주가 근로의 대가로 봉급

# 늘고있다

# 「알뜰살림」

## 썸썸이 자제: 매달 30만원씩 "黑字"

### 통계청, 91년 家口소득 조사

통계청이 전국 4천3백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15일 발표된 「91년도 가계소득조사」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15만8천6백91호)의 월평균 소득은 90년 94만3천9백원의 비해 22.8% 증가했다.

작년의 불가산소득(연금·퇴직금 등)을 제외한 실질소득(11.9%)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소득을 계층별로 보면 평균치(1백5만5천1백20원) 이하 가구가 전체의 64.1%로 90년(90만1천5백5만5천5백원)의 68.8%에 비해 5.7%포인트가 떨어지는 등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추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소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0년 94만3천9백원의 비해 22.8% 증가했다.

작년의 불가산소득(연금·퇴직금 등)을 제외한 실질소득(11.9%)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소득을 계층별로 보면 평균치(1백5만5천1백20원) 이하 가구가 전체의 64.1%로 90년(90만1천5백5만5천5백원)의 68.8%에 비해 5.7%포인트가 떨어지는 등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추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 월소득 116만원... 1년새 23% 늘어

통계청이 전국 4천3백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15일 발표된 「91년도 가계소득조사」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15만8천6백91호)의 월평균 소득은 90년 94만3천9백원의 비해 22.8% 증가했다.

작년의 불가산소득(연금·퇴직금 등)을 제외한 실질소득(11.9%)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소득을 계층별로 보면 평균치(1백5만5천1백20원) 이하 가구가 전체의 64.1%로 90년(90만1천5백5만5천5백원)의 68.8%에 비해 5.7%포인트가 떨어지는 등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추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91년도 가계소득조사」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0년 94만3천9백원의 비해 22.8% 증가했다.

작년의 불가산소득(연금·퇴직금 등)을 제외한 실질소득(11.9%)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소득을 계층별로 보면 평균치(1백5만5천1백20원) 이하 가구가 전체의 64.1%로 90년(90만1천5백5만5천5백원)의 68.8%에 비해 5.7%포인트가 떨어지는 등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추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 生産職 임금올라 「分配구조」 개선

통계청이 발표한 「91년도 가계소득조사」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0년 94만3천9백원의 비해 22.8% 증가했다.

작년의 불가산소득(연금·퇴직금 등)을 제외한 실질소득(11.9%)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소득을 계층별로 보면 평균치(1백5만5천1백20원) 이하 가구가 전체의 64.1%로 90년(90만1천5백5만5천5백원)의 68.8%에 비해 5.7%포인트가 떨어지는 등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추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91년도 가계소득조사」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0년 94만3천9백원의 비해 22.8% 증가했다.

작년의 불가산소득(연금·퇴직금 등)을 제외한 실질소득(11.9%)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소득을 계층별로 보면 평균치(1백5만5천1백20원) 이하 가구가 전체의 64.1%로 90년(90만1천5백5만5천5백원)의 68.8%에 비해 5.7%포인트가 떨어지는 등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추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社 說

도시가계 더 전전해지려면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도시근로자가계동향은 세태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점들이 드러나 있다. 도시근로자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22.8%가 소비지출은 19.9%가 증가, 한달동안 벌어서 쓰고 남은 돈이 30만원 수준으로 흑자율이 63년 이래 가장 높은 27.8%로 나타나 있다.

가계의 흑자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임금의 상승이 높았다는 것과 함께 씀씀이를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가계운영이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첫째 소득의 증가보다는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가계를 살찌우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새로운 형태의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가계의 대응이므로 아직도 소비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한 방법의 부부가 늘어난 점이며 넷째로 정부의 물가정책 등이 이같은 가계의 변화에 따라 움직여 주어야 할

다는 것이다.

과 소비 열풍이 시작된 지난 88년과 89년의 경우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돌거나 같은 수준이었다. 89년의 소득증가율은 24.5%인데 비해 소비증가율은 26.7%에 이르렀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면 건전가계를 기대할 수 없다. 90년의 경우 소득증가율은 17.2% 소비증가율은 15.7%로 소비증가가 소비 증가를 앞서기 시작, 지난해에는 이같은 추세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한 분석을 한다면 지난해 소비증가율 19.9%는 90년 보다 높아진 것이며 소비할 줄 수 있는 가동선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數로 나타난 물가상승률만을 비교한다면 90년과 9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가계가 수입보다 지출 증가를 줄이는 노력을 보며 소비성향은 낮아졌다 해도 물가와 소비증가율의 관계에서 아직도 절약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 하나 외식비·교육비·교육비의 증가는 신규 소비항목에 대해 가계가 경이려 대응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해 주

는 것으로 이해된다. 생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소비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구성비도 커갈 것이다. 건전가계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 소비처에 대한 현명한 소비형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0%가 늘었다. 이에 반해 가구주 아닌 가구원의 소득은 32.4%나 증가했다. 이는 주부의 맞벌이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가정주부의 경제활동 참여는 人力難 해소차원이나 흑자가계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나 가구주 이외의 근로행위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이해나 뒷받침은 부족한 상황이다.

타아소의 설치, 비가구주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의 확대 등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물가안정 시책도 가계 씀씀이가 커가는 외식비, 교통비, 잡비 등 쪽에 비중을 옮겨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社說

過消費의 鎮靜을 위한 對策

작년에도 도시家의 消費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그 消費額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統計廳 발표에 따르면 도시인 1자가구의 작년 消費額은 1백5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85만 원 정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消費額이 도시인 1자가구 1인당 63년에 비해 27.8%를 늘렸다.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가 먼저 받은 느낌이 있다. 곧 국민생활의 소비행태 바뀌어 말하면 「부의 솜이끼」가 그만큼 짙어지고 있고, 따라서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사회를 휩쓸었던 過消費의 풍조도 이로써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점이 우리의 生活觀으로 되어 있다. 물론 生活觀의 變遷은 소극적이긴 하지만 22.8%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消費의 증가율이 그다지 현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消費의 變遷은 현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요소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가령 주거비와 조세 부담 등의 상대적인 안정을 들면 된다. 전자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 15.7% 증가에 머물렀고 세금은 비소비지출도 0.9% 신장의 그쳤다. 그렇긴 하지만 이보다 더 주의할 것은 개인소비성향의 감소이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 들고 있는 점 이런 현상의 더 많은 이유의 원인이 있다.

소비품조각 3제된 모습이다. 이로써 더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家計에 이러한 소비행태 바람이 일기 시작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마도 국민생활의 생활의 나라 경제 發展과 관련이 있는 消費의 變遷을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이리저리 볼 수 있을 듯하다. 또한 경제의 「거품」해소의 家計가 발전하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의 生活觀이 「부」의 變遷을 기원하면 될 것이다. 「부」의 變遷을 기원하면 될 것이다. 「부」의 變遷을 기원하면 될 것이다. 「부」의 變遷을 기원하면 될 것이다.

을 특히 더 정제해 나간 것이다. 가령 追及에 대한 變遷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압축이 꼭 지켜져야 한다. 京釜고속전철사업 같은 것도 반드시 變遷에 착수한 것이 옳은 지도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재검토해 보라는 것이 우리의 충고이다. 때가 되면만큼 재정수요의 變遷을 볼 수 있는 대로 회피해야 할까 마땅하다. 기업도 經營策略의 變遷에 한층 더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家計의 變遷에 기대어 정부와 기업이 상응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모처럼 일기 시작한 過消費의 變遷 바람도 부위로 돌아가고 말 것이 틀림없다.

# 서비스 산업 취업자 60%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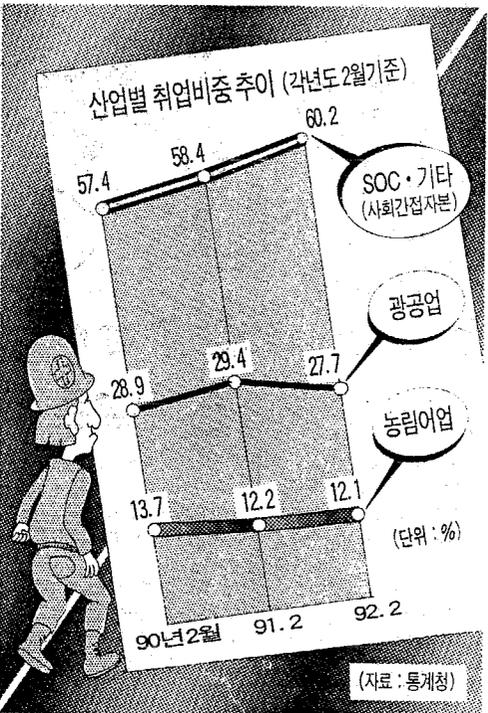
인력 개발을 위한 취업자의 60% 이상이 서비스업 취업자라고 나타났다.

제1차 산업 취업자의 비중은 1990년 28.9%에서 91년 2월 29.4%로 다소 높아졌다. 둘째로 2차 산업의 비중은 27.7%로 떨어졌다. 특히 2차 산업의 취업자 비중이 1990년 28.9%에서 91년 2월 27.7%로 떨어졌다. 이는 1990년 28.9%에서 91년 2월 27.7%로 떨어졌다. 이는 1990년 28.9%에서 91년 2월 27.7%로 떨어졌다.

## 올 1~2월 취업비중

1.8% P 높아져

4% 91년 58.4% 92년 60.2%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60% 이상이 서비스업 취업자라고 나타났다. 이는 1990년 57.4%에서 91년 2월 58.4%로 높아졌다. 이는 1990년 57.4%에서 91년 2월 58.4%로 높아졌다. 이는 1990년 57.4%에서 91년 2월 58.4%로 높아졌다.



<그림: 金弘래기자>

제1차 산업 취업자의 비중은 1990년 28.9%에서 91년 2월 29.4%로 다소 높아졌다. 이는 1990년 28.9%에서 91년 2월 29.4%로 높아졌다. 이는 1990년 28.9%에서 91년 2월 29.4%로 높아졌다.

## 도소매·건설업에

人力유입 가속화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이는 1990년 57.4%에서 91년 2월 58.4%로 높아졌다. 이는 1990년 57.4%에서 91년 2월 58.4%로 높아졌다. 이는 1990년 57.4%에서 91년 2월 58.4%로 높아졌다.



# 賃金 관련 새統計지수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4월 29일 발표한 '2000년 1분기 임금지수'를 발표하면서, 임금지수 관련 통계 개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지수 개편을 통해, 임금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금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지수의 개편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지수 개편을 통해, 임금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금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지수의 개편을 결정했다.

# 소비자物價 노동생산성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4월 29일 발표한 '2000년 1분기 임금지수'를 발표하면서, 임금지수 관련 통계 개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지수 개편을 통해, 임금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금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지수의 개편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지수 개편을 통해, 임금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금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지수의 개편을 결정했다.



〈그림: 曠甲鐵기자〉

## 5년마다 조정...食料品 비중 낮아져 사업체 노동실태 기준 時間別 계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4월 29일 발표한 '2000년 1분기 임금지수'를 발표하면서, 임금지수 관련 통계 개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지수 개편을 통해, 임금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금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지수의 개편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지수 개편을 통해, 임금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금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지수의 개편을 결정했다.

### 노동생산성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4월 29일 발표한 '2000년 1분기 임금지수'를 발표하면서, 임금지수 관련 통계 개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지수 개편을 통해, 임금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금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지수의 개편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지수 개편을 통해, 임금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금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지수의 개편을 결정했다.

연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1999	4.6	11.9	13.8	13.8
2000	7.0	13.8	15.1	15.1
2001	8.0	12.6	15.5	15.5
2002	10.4	17.4	17.1	17.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4월 29일 발표한 '2000년 1분기 임금지수'를 발표하면서, 임금지수 관련 통계 개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지수 개편을 통해, 임금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금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지수의 개편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지수 개편을 통해, 임금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금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지수의 개편을 결정했다.

# 기업設備투자크게 위축

## 1·4분기 기계류受注 1.8% 증가 그쳐

### 建設부문 인력유입역전 통계청 산업동향

1·4분기중 생산및 수출부담은 경조한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설비투자부담은 예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 성장잠재력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건설부담은 소비증가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수증으로 늘고 내수과열 현상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부담은 주택·상업용 등 민간부담이 상당

1·4분기중 생산및 수출부담은 경조한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설비투자부담은 예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 성장잠재력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건설부담은 소비증가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수증으로 늘고 내수과열 현상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부담은 주택·상업용 등 민간부담이 상당

1·4분기 감소폭도 46%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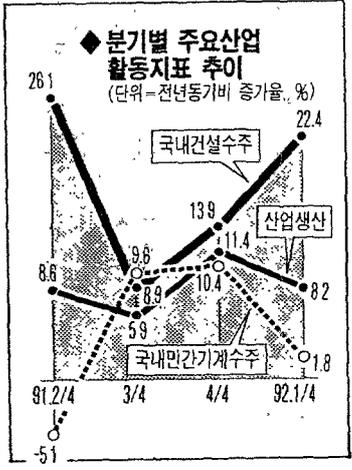
이같은 기계류 설비투자의 급격한 부진은 경기전망이 밝아지고 내수 증가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된다.

1·4분기중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4% 증가한 14.4%의 감소폭을 기록했고 기계류수입은 계속되어 과열양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동등부문(46.4%)이 선저음 건설공사 및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 민간부문(11.6%)도 보였다고 밝혔다.

다 4배이상의 심장세를 기록, 건설경기 주도했다.

1·4분기중 산업생산과 출하는 각각 8.2% 및 10.9%의 증가율을 기록, 91년



연간(8.6%, 11.0%)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비교적 호조를 보였다.

수부담은 도소매판매(7.9%)와 내수용소비재(11.0%) 등 소비과열이 해소되지 않아 성장잠재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 고용의 경우 건설업 인력이 3월말 현재 1백63만명으로 1년전에 비해 19만명이 늘어난 반면 제조업은 4백87만명으로 8만명 감소, 제조업으로부터 건설서비스업으로의 인력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建設·내수둔화 뚜렷

통계청「1분기동향」輸出회복세...生産·출하 호조

## 설비投資는 격감·成長잠재력 위축 우려

올들어 건설투자와 내수 둔화가 두드러지는 반면 수출이 회복세를 보며 산업생산과 출하는 작년 수준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 성장잠재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한 1·4분기 중 산업활동동향은 91년 1·4분기 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월중 내수용설비재출하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1.0% 증가, 작년동기의 13.5% 증가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판매도 작년 1·4분기에 비해 7.9% 증가했으나 월별동향은 10.8%(1월), 6.9%(2월), 6.2%(3월)에 이르렀다.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건설수주액은 공공부분은 22.4%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민간건설수주액은 11.6%로 둔화하면서 수출증가율은 2.8%에서 7.9%로 높아졌다.

한편 설비투자는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가 1.8% 증가에 머무르다가 46%가 감소해 뚜렷한 위축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면에서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1·4분기중 월

향에 따르면 지난 1·3월중 내수용설비재출하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1.0% 증가, 작년동기의 13.5% 증가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건설수주액은 공공부분은 22.4%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민간건설수주액은 11.6%로 둔화하면서 수출증가율은 2.8%에서 7.9%로 높아졌다.

한편 설비투자는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가 1.8% 증가에 머무르다가 46%가 감소해 뚜렷한 위축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면에서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1·4분기중 월

향에 따르면 지난 1·3월중 내수용설비재출하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1.0% 증가, 작년동기의 13.5% 증가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4분기 산업활동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91년	92년
총생산	8.4	8.2
총출하	10.5	10.9
수출(내수)	12.7	11.6
내수	2.8	7.9
수주	4.0	22.4
주정계	12.3	△15.5
수면기	1.4	1.8
내수	3.0	2.9

평균 10만5천3백명의 증가를 나타내며 농업·공업과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각각 7만4천명과 67만5천명이 늘었다.

이와관련, 통계청의 金景中통계조사국장「최근 국내경기는 생산및 출하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수를 위주로 둔화할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중 「설비투자부진」 의미

올해의 1분기 중 설비투자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1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그러나 1분기 중 설비투자의 위축은 1.4%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의 위축은 1.4%로 나타났다. 이는 1분기 중 설비투자의 위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1분기 중 설비투자의 위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주요기업의 수입감소는 우려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1분기 중 주요기업의 수입감소는 우려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올해 4월까지 무역수지적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도 수출진출의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는 1분기 중 수출진출의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영업실적도 일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1분기 중 기업들의 영업실적도 일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용부가 조사한 5대 수출업종의 외자조달내용을 보면 총소도 28억 8천 5백만 달러에 자채자달은 11억 9천 5백만 달러로 부족액이 16억 9천 5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내년 이후 성장에 "암운"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 타격 우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 타격 우려. 이는 1분기 중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 타격 우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 타격 우려. 이는 1분기 중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 타격 우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 타격 우려. 이는 1분기 중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 타격 우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 타격 우려. 이는 1분기 중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 타격 우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 타격 우려. 이는 1분기 중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 타격 우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 타격 우려. 이는 1분기 중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 타격 우려.

社說

內需진정과 설비投資

통계청이 발표한 4월 1·4분기 가  
산총생산액 10조 9천 5백 7천 5백 7  
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분기  
생산액 2조 7천 5백 7천 5백 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2분기 생산액 2조  
7천 5백 7천 5백 7만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 생산액 2조 7천  
5백 7천 5백 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  
했다. 4분기 생산액 2조 7천 5백  
7천 5백 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4월 1·4분기  
내수총생산액 10조 9천 5백 7천 5  
백 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  
분기 내수총생산액 2조 7천 5백 7  
천 5백 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분기  
내수총생산액 2조 7천 5백 7천 5  
백 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 내수  
총생산액 2조 7천 5백 7천 5백 7  
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  
가했다고 발표했다. 4분기 내수총  
생산액 2조 7천 5백 7천 5백 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4월 1·4분기 수출액 1조 1천 4  
백 7천 5백 7천 5백 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분기 수출액  
2천 7백 5천 7백 5천 7백 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2분기 수출액 2  
천 7백 5천 7백 5천 7백 7만 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 수출액 2  
천 7백 5천 7백 5천 7백 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  
가했다고 발표했다. 4분기 수출액  
2천 7백 5천 7백 5천 7백 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현황적인 여러 지표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솔을 부정적  
시각으로 있는 것이 있다. 가솔이  
설비투자자의 시각이다. 그 선행지  
표라 할 민간기계수가 고작 1.8%  
증가에 머무르고 있고 기계류수  
입액의 경우 무려 46%나 감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비투자가  
경제성전환을 밑거름이 되며 또한  
하드웨어 지능화의 우리 경제  
다. 성장의 잠재력이 그만큼 훼손되  
기 때문이다. 민간서 10%이

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금 기업들이 이렇듯 설비투자  
에 소극적인 까닭이 미루어 짐작하  
기에 어렵지 않다. 내수총생산액  
부진을 불러오고 이로써 在庫가 누  
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  
금에 시달리고 있으니 설비투자의  
동향은 오히려 참담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부는 경제  
성장과 통화의 발목을 잡아야 한  
다.  
통화를 더 늘릴 수는 없기  
이로 할 만한 자금배분의 지혜를  
짜내야 한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안이란 것을 어찌해서 아직도 내  
지 못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더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닌가.

# 소비자物價 새指數 발표

## 「피부經濟」와 큰 차이

4월까지 3% 상승...舊지수보다 되레 낮아

### 과일류 12% 올라 최고

소비자물가지수를 99년 기준으로 개편한 결과, 4월말까지의 소비자물가는 舊지수(88년기준)를 3.0%보다 0.2%포인트 낮아진 3.0%에 불과하다. 반면, 99년 4월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3.7%였다.

신제품이 9월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점을 85년에서 96년으로 바꾸고 조식대상품을 제외한 4백11개에서 4백70개로, 조사지역을 11개도시에서 32개도시로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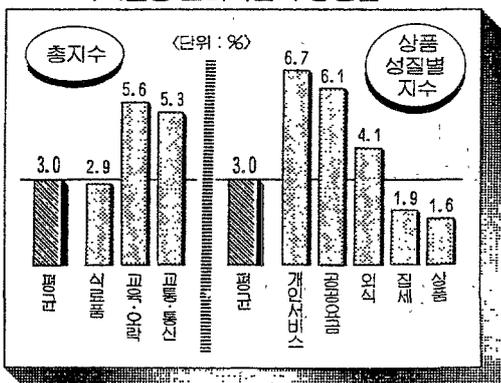
신제품이 9월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점을 85년에서 96년으로 바꾸고 조식대상품을 제외한 4백11개에서 4백70개로, 조사지역을 11개도시에서 32개도시로 늘렸다.

신제품이 9월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점을 85년에서 96년으로 바꾸고 조식대상품을 제외한 4백11개에서 4백70개로, 조사지역을 11개도시에서 32개도시로 늘렸다.

신제품이 9월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점을 85년에서 96년으로 바꾸고 조식대상품을 제외한 4백11개에서 4백70개로, 조사지역을 11개도시에서 32개도시로 늘렸다.

신제품이 9월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점을 85년에서 96년으로 바꾸고 조식대상품을 제외한 4백11개에서 4백70개로, 조사지역을 11개도시에서 32개도시로 늘렸다.

1-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신제품이 9월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점을 85년에서 96년으로 바꾸고 조식대상품을 제외한 4백11개에서 4백70개로, 조사지역을 11개도시에서 32개도시로 늘렸다.

신제품이 9월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점을 85년에서 96년으로 바꾸고 조식대상품을 제외한 4백11개에서 4백70개로, 조사지역을 11개도시에서 32개도시로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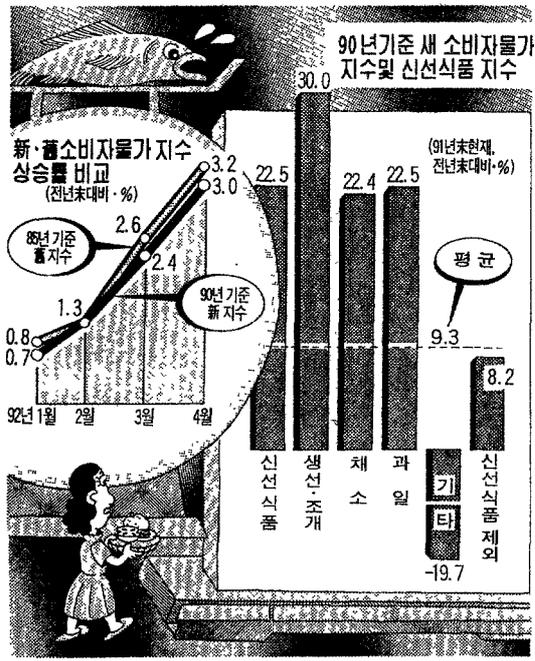
신제품이 9월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점을 85년에서 96년으로 바꾸고 조식대상품을 제외한 4백11개에서 4백70개로, 조사지역을 11개도시에서 32개도시로 늘렸다.

신제품이 9월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점을 85년에서 96년으로 바꾸고 조식대상품을 제외한 4백11개에서 4백70개로, 조사지역을 11개도시에서 32개도시로 늘렸다.

〈洪權〉

새 소비자물가지수 보조지표

「피부物價」에 근접한다



지난해 채소등 신선식품 22.5% 상승

지수의도적이로 낮춘다기 어행노

소비자물가지수를 90년 기준으로 따져보니 물가가 4월까지 3%가 올랐다. 지금까지 써온 85년 기준보다 0.5%포인트가 낮아졌다. 지수물가와 피부물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새로 낸 채소·과일·생선등 신선식품지수로만 2.7% 매달 하락률이

상구입하는 물가는 3.7%가 올랐다. 통계청은 90년 물가 기준으로 한 새 소비자물가지수 산정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새 지수 조사가 전 조사대상물과 지역이 늘어났다. 작년 한해 물가의 상승률도 9.3%로 나타났다. 88년 85년 기준

지수개편 때는 새 지수가 옛 지수보다 각각 1.1%, 0.3%포인트씩 높게 나타났다. 이번 90년 기준 개편에서는 거꾸로 새 지수가 옛 지수보다 0.2%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주로 농수산물등 식료품이 올라 높아졌던

데, 전체 조사대상물종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기준 개편에서 낮아져 평균상승률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4월 30일자 7면 보도 참조. 통계청은 「국민생활」 새 지수가 이번에는 낮아져 자축시만도 의도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를 기를했다. 평균상승률 9.3%보다 두배이상 높다. 다만 신선식품을 빼면 평균 상승률은 8.2%였다. 『국민생활』 「과나올까」에선 생선및 채소장이 내린다고 보도했다. 11.8% 올랐던 채소 신선식품지수는 평균 지수상승률 8.7%보다 3.1%포인트

높았는데 식으로 지수를 개편했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고민 끝에 두가지 새로운 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했다. 농수산물과 비농수산물로 나눠 지수를 계산하는 신선식품지수와 연구인원수에 따라 나눠 산정한 구입단위 지수다.

지난해 신선식품지수를 보면 명파·갈치·상추·배추·무·수박등 농수산물 비중이 60%인 신선식품(전체 4백90개 조사품목 중 44개)은 평균 22.5%나 올랐다. 작년 신선식품 중에서도 명파·갈치와 같은 생선·조개류는 상승률이 36%로 두 배 이상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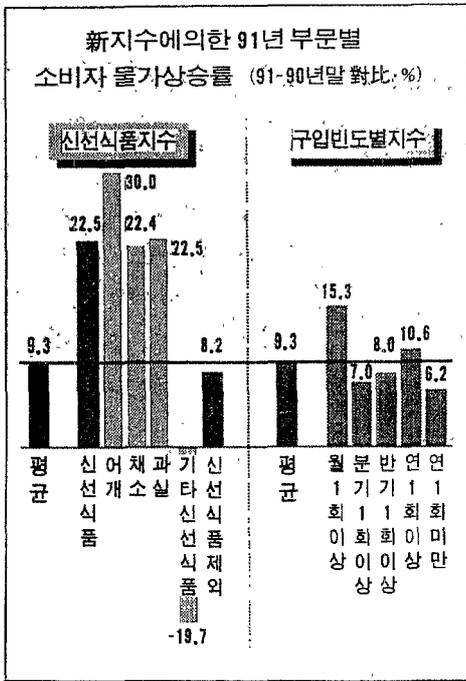
이런 상승세를 물가 상승률 지표로 보면 정부가 올해 중반 한 차례 물가표본 조사를 소비자물가지수 8.2%로 제는 우선 개인서비스업 평균상승률을 억제하는데서 중점이 된다는 이야기다. (梁在燦기자)

의 상승률을 보였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물가의 상승률은 3%로 평균치와 같다. 구입단위 지수도 총지수보다 1%포인트 낮아 보인다. 평균 1.5%인 상승률은 지난해 15.3%나 올랐다. 이 물건의 대부분은 쇠고기·우유·배추·과일등 주요부류의 주부 사들인 신선식품과 갈치·명파·자장면(다)이다. 『국민생활』은 이 물건의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지수만 사들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 작년 「體感물가」 15% 이상 뛰었다

통계청, 보조지표인 57개 생활필수품지수 첫 발표

통계청이 현행 소비자 물가지수를 90년 기준으로 개편하면서 「體感물가」를 알아보기 위해 보조지표를 새로 도입, 생활필수품지수를 지



## 舊통계지수 9.3%와 큰 차이 新鮮식품 44품목은 22% 올라

회 이상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지수」라고 볼 수 있는 57개 품목은 15.3%나 올랐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소고기, 달걀, 우유, 채소, 과일류, 설탕, 탕, 비빔밥, 다발커피, 등 이 포함돼 있는 데 품목에 따라서는 50% 이상 올랐다는 점도 있다.

지난해 무려 22.5%나 뛰었다. 이 가운데는 魚介類, 채소, 과일류 등 44개 품목이 늘어났다. 이제까지의 지수들이 가 피부물가와 큰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9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월중 식료품은 2.9% 올라 舊지수

상 2.4%보다 다소 높아진 반면 식료품 이외의 품목은 3% 상승하여 증전지수상의 3.8%보다 크게 떨어졌으며 전체 소비자물가는 舊지수상의 3.2%보다 0.2%포인트 낮은 3% 상승에 머물렀다.

△개인서비스요금 6.7% △외식비 4.1% 등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32개 도시 가운데 公州가 올들어 4월말까지 4.5%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全州(3.8%) △大川 慶州(3.7%) △仁川 安東(3.6%) △濟州(3.4%) △光州(3.3%) △釜山 群山(3.2%) △大邱 大田(3.1%) △江陵 淸州 龜尾(3%)의 순이었다. 본월은 2.2% 상승에 그쳐 전역에서 소비자물가가 가장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朱泰기 자〉

난해 평균 15.3%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9.3% 올랐지만 월 1

다. 또 장바구니 물가의 성격을 지닌 신선식품지수도 새로 개발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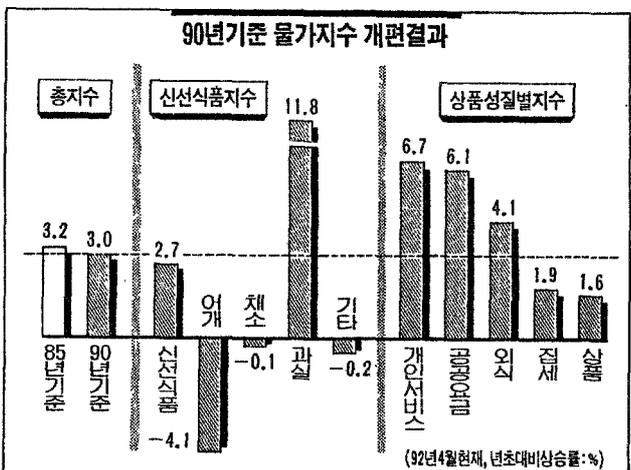
하락한 정부가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를 85년에서 90년으로 바꾸면서 조사지역을 11개 도

새로 도입된 채소과 일어개류 등 신선식품지수는 올들어 2.7%를

올해 평균 15.3%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9.3% 올랐지만 월 1

# 物價 4월까지 3%상승

## 통계청 新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통계청은 9일 소비자물가지수편제를 시행 85년 기준에서 90년 기준으로 개편한 결과 올들어 지난 4월까지의 상승률이 단조 3.2%에서 3.0%로, 지난해의 연간 상승률은 9.5%에서 9.3%로 각각 수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새 물가편제는 조사대상 품목수를 현행 4백11개에 통계청은 이번 편제 개편 과정에서 추산한 올해와

지난해 新鮮식품 22%올라 오름勢 주도  
舊指數보다 0.2%낮아

지난 70년과 75년 개편 때 는 당초 지수보다 각각 3.4%, 1.8% 포인트씩 낮아진 반면 80, 85년 개편 때의 경우 각각 1.1%, 0.3% 포인트씩 높아져 기준연도의 품목별 가중치 변화와 가중수에 따라 통계기술상 약간의 편차가 수반된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이번에 피부물가와 지수상 물가와 의과 리감을 달기 위해 신선식품 및 구입단별 지수를 보조지표로 처음 발표했다. 명태 고등어 무 배추 사과 배 마늘 등 4개 신선식품 가격을 별도 지수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무려 22.5%에 달해 피부물가 오름세를 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의 신선식품 지수는 2.7% 올라 전체 물가 3.0%보다 약간 낮은 안정세를 보였다.

이 중 과실류는 평균 11.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단별 지수는 신선식품을 포함, 전기 상승도 버스 전차 무 역류 등 전국민이 매일 한번 이상 이용 구입하는 57개 품목의 값이 지난해 연간 15.3% 올랐으며 4월까지의 연간 11.2% 구입하는 기선류, 각종학교 납입물, 고속버스, 기차료 등이 평균 4.1% 올라 전체 물가보다 오름률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柳哲基 기자】

社說

새 물價指數、민을만 한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指數를  
가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物價  
물가의 엄청난 괴리를 어떻게는  
좁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인 물가지수가 지  
나친 不償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  
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을 두고 방  
계청은 최신편제에 따른 새 물가지  
수를 내놓았다.

새 지수가 과연 체감불가와의 거  
리감을 효과적으로 줄일수 있을지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우선 소비자들로서는 새 지  
수에 의한 4월까지의 물가 상승률  
과치가 불만스럽다. 개편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한 상승률은 3%  
로 舊지수 보다 오히려 0.2%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지  
수가발에 정부의 恣意性이 작용  
된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

고 있다.

새 지수는 물론 나름대로의 합리  
성을 갖고 있다. 90년기준인 새 지  
수가 85년기준인 舊지수에 비해 훨  
씬 더 현실적인 것이다. 물가조사  
대상을 종전 4백11개 품목에서 4  
백70개로 늘리는 한편 조사지역도  
11개도에서 32개 도시로 확대했  
다. 각 조사품목의 비중인 加重值  
도 최근의 소비행태에 가깝도록 조  
정했다. 말하자면 새 지수물가는  
보다 많은 자금을 포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새지수가 과연 물  
가지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  
을 씻어줄 수가 있겠는가. 소비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지수물가對피  
부담가는 적게는 2~3배에서 5  
배까지 차이가 난다. 소비자마다 선  
택과 구매빈도가 다른 장바구니를

가와 포괄적 표본조사 결과인 지  
수물가가 딱 맞아 떨어지거란 현실  
적으론 어렵은 일이다. 그러나 양자  
의 차이가 소비자의 불만이 폭발한  
만큼 벌어진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  
닐수 없다.

새 지수에도 여전히 그런 현상이  
야기될 약점이 보인다. 우리생활과  
밀접한 집값이 계속 빠져있는 등 비  
소비적 범주의 지출이 반영되지 않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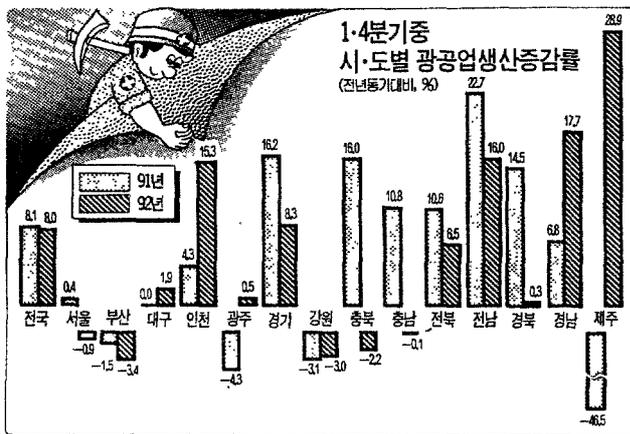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지출비중이 변화되는 것은 당  
연하다. 그럼에도 농축수산물의 현  
저한 비중축소, 高價공산품의 비  
중제고는 보다 여유있는 계층중심  
의 물가편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가 장바구니물가 수준을 과  
압하기 위한 44개 품목의 「新鮮식품  
지수」와 「구입빈도별지수」를 따로

개발, 발표한 것도 그런 신뢰저하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  
조지수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따라서 이같은  
보조지수가 주목을 받게 하려면  
정부 스스로가 물가관리의 상당한  
무게를 이들 지표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지수개편이 완결한 것일 수  
는 없다. 때문에 물가당국은 객관  
적으로 평가받을수 있는 지수 및 피  
부담가와의 간격축소에 계속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生産財부문 큰폭 신장

1·4분기 광공업 동향 작년보다 11.7% 증가



## 산업·건설자재 등 호조 가전 등 소비재는 둔화

지난 1·4분기 중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생산재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큰 신장세를 보였다. 소비재부문은 신장률이 낮았다. 또 중화학공업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1·4분기 중 전국 광공업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다. 이중 중화학공업은 10.8% 증가했고, 소비재는 1.1% 증가했다.

또 광공업의 내수부진에 따른 재고도 12%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국 광공업의 수출부진에 따른 재고도 12%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국 광공업의 수출부진에 따른 재고도 12%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국 광공업의 수출부진에 따른 재고도 12%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 1·4분기 중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생산재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큰 신장세를 보였다. 소비재부문은 신장률이 낮았다. 또 중화학공업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1·4분기 중 전국 광공업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다. 이중 중화학공업은 10.8% 증가했고, 소비재는 1.1% 증가했다.

또 광공업의 내수부진에 따른 재고도 12%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국 광공업의 수출부진에 따른 재고도 12%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국 광공업의 수출부진에 따른 재고도 12%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국 광공업의 수출부진에 따른 재고도 12%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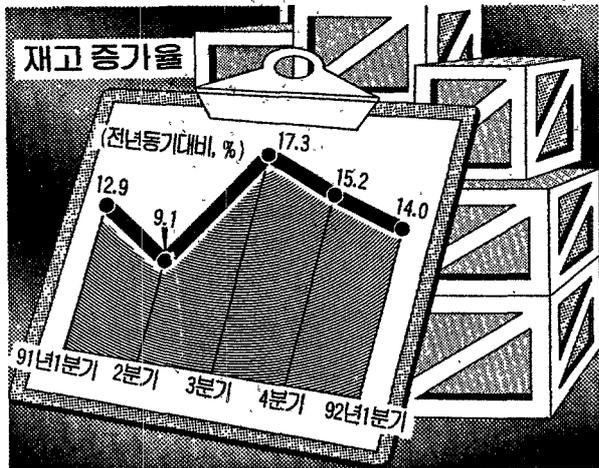
# 在庫증가율 9달째 두자리數

內需경기 둔화 수출부진 겹쳐

## 3월 운수장비업 74%나

### 통계청, 5월간 발표

과내 광업 및 제조업체들의 생산과 출하가 여전히 전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경기 둔화로 인해 운수장비업 등 3분기째 지속적인 증가세를 3분기째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은 21일 발표한 5월간 광업 및 제조업체들의 생산과 출하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15.3%) 증가, 2분기(17.3%) 증가, 3분기(15.2%) 증가, 4분기(14.0%) 증가, 5월(14.0%) 증가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3분기째 10% 이상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가, 방한제 선박 바스들의 수출 증가, 승용차 철도차량 건설차의 내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및 10.8%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재고 증가율도 14%에 달해 작년 3분기(7.9%) 이후 연속 3분기째 두자리수의 재고 증가율을 지속했다.

통계청은 5월간 재고 증가율의 이유로 승용차 바스트럭 등 운수장비의 내수 증가세 둔화, 무연탄 철강 건설 장비의 내수부진, 석유화학제품의 과잉생산, 섬유조립공구의 수출부진 등을 꼽았다.

지난 3월엔 전년 동기 대비 재고 증가율을 업종별로 보면 승용차 등 운수장비의 경우 무려 74.8%에 달했으며 석유정제(10%), 일관기(26.5%), 전기전자(20.2%), 철강(8.6%), 식료품(14.9%), 음료품(10.8%) 등도 모두 10%가 넘었다.

재고가 감소한 업종은 유리(20.9%), 기타 섬유 석탄(21.8%), 인쇄출판(19.3%), 의복(20.1%)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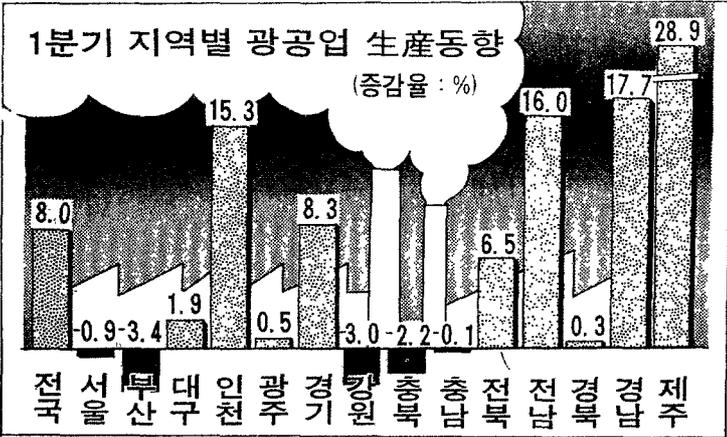
# 내需경기 둔화현상 뚜렷

예를 들어 제조업분야의 생산과 수출이 1분기에는 각각 8.0%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부진과 최근의 내수둔화로 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말 통계청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중 시·도별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은 전년도 동기보다 각각 8.2%와 11%씩 늘어 지난해와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건설·운수장비의 내수둔화와 석유화학제품의 과잉생산, 조립차 부품의 수출둔화 등에 의해 3월 말 현재 재고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9% 증가, 기어의 재고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전정형기계의 과잉생산이 계속됨에 따라 각각 46.5%와 23.2%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의 재고가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21.4%



## 소비재 生産 2.7% 소폭 증가

나름이나 최근의 소비재 부진현상 반영했다.

이같이 자본재의 재고 증가인 생산과 수출의 증가율이 前年同월 대비 각각 10.4%와 9.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율 11.3%와 15%에 비해 크게 둔화된 가운데 나타난 것은 제조업의 안정화정책의 따른 내수경기의 둔화현상이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내수경기의 둔화현상이 소비재분야에서 도출 두드러지고 있다.

소비재는 1분기 중 생산이 2.7% 증가, 지난해 증가율의 절반에 머물렀고 수출 역시 증가율이 3.5%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6.2%의 크게 못미쳤다. 특히 철기용품의 가장 민감한 반응은 역시 내수부진의 결과로 나타났다.

1분기 중 철기용품의 생산과 수출은 각각 5.5%와 5.2%로 증가한 반면 철기용품의 재고량은 8.8%

## 제조업在庫 작년보다 13.9% 늘어

## 油化생산호조...기계는 20%나 급감

1분기 중 제조업의 재고는 지난해 동기보다 13.9%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이다.

1분기 중 시·도별 광공업 생산과 수출은 전년도 동기보다 각각 8.2%와 11%씩 늘어 지난해와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건설·운수장비의 내수둔화와 석유화학제품의 과잉생산, 조립차 부품의 수출둔화 등에 의해 3월 말 현재 재고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9% 증가, 기어의 재고부담이 눈에 띈다.

특히 전정형기계의 과잉생산이 계속됨에 따라 각각 46.5%와 23.2%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의 재고가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21.4%

8%나 늘어난 반면 경기부진의 여파로 일부 재고품의 두드러진 것으로 예상된다.

5%를 석유화학제품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철유(1배12.4%), TrG(89.9%), 고무(85.5%) 등 각종 밀로 생산도 호조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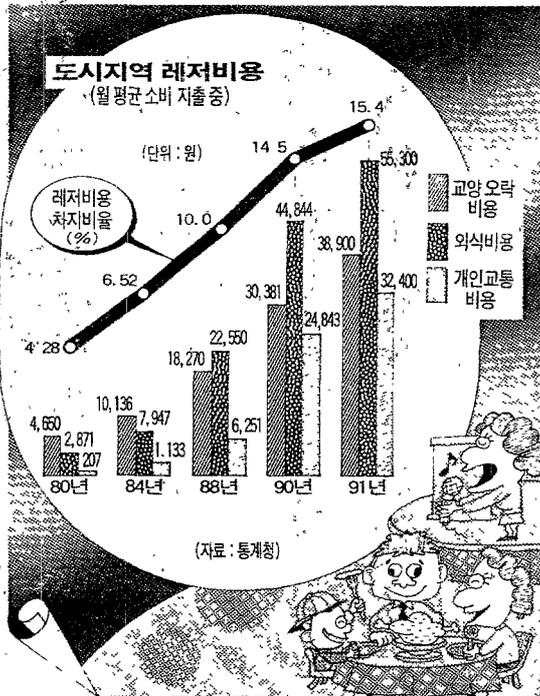
기계(5.1%), 화학제품(4.7%), 플라스틱(4.1%), 철(3.8%), 비철(3.7%), 종이(3.8%) 등 제조업 전반의 증가율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30.3%)도 두드러진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도체 분야의 활황이 지난해 1분기의 생산량의 88%와 8.1%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증가율의 상승은 예상되고 있다.

기계(5.1%), 화학제품(4.7%), 플라스틱(4.1%), 철(3.8%), 비철(3.7%), 종이(3.8%) 등 제조업 전반의 증가율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말 경제



5월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유용을 높고 로산으로 나간다. 또 가족들과 외식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레저로 접미는 그 비용이

최근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소들이 늘어나면서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따라서 비용도 증가한다. 그러나 레저비용이라 해서 따로 분류된

통계는 국내에 없다. 따라서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 의 교양·오락비·외식·외박·대중교통비·단체여행·출퇴근비용·택시·승용차나 오토바이를 타

고 다니는 데는 개인 교통비를 합친 이틀바 그 추세를 알아 보았다. 이를 보면 최근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개인교통비다. 80년에는 자가용 자동차가 많지 않았지만 87

개인교통비 11년새 무려 111배 증가  
외식비용 80년 2천원서 작년 5만원 넘어

년 이후 자가용을 차가 급격히 증가, 그에 따른 개인교통비가 11년만에 1백66배로 뛰었다. 외 식비도 80년에는 2천원 남짓하던 게 작년엔 19배 인 5만5천원으로 늘 어났다.

교양·오락·외식·개인교통비를 합친 이틀바 레저비용이 전체 월평균 도시가계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레저지수)이 80년에 4.28%였으나, 계속 크게 증가, 88년 올림피아 열린 해 두자리수가 됐고 작년엔 15.4%로 정점을 찍었다.

〈燎〉

# 物價安定가닥 잡혔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 일부 공공料金 인상의 不安 요인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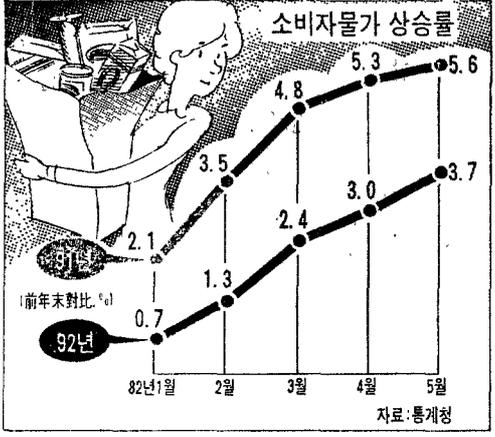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 物價 5개월째 안정세

## 5월중 「소비자」 0.6% 상승 그쳐

5월중 소비자물가는 0.6% 상승해 그쳐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 消費둔화...在庫 급증

## 승용차 철강 電子제품 “산더미”

### 서비스·건설업이 1년새 10만명 늘어

### 失業 작년보다 42萬명 증가

올들어 생산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중요세가 둔화됨에 따라 재고가 큰폭으로 늘고있으며 건설및설비부자는 부진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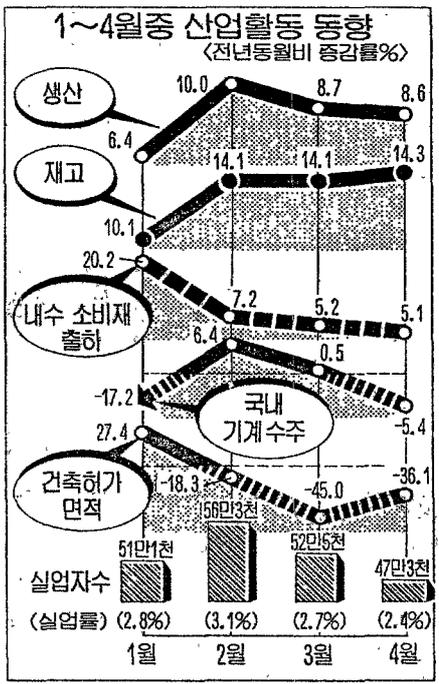
#### 통계청 「4월 産業활동 동향」

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중 産業활동 동향」에 따르면 4월중 産業생산은 운수장비 전기전자 산업용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작년 4월에 비해 8.6% 증가 가했고 수출하노의 북 특제 가구 운수장비의 호조로 9.3%의 건실한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가동률은 시멘트 운반장비가 감소했으나 전기전자 등이 증가전체적으로 81.8%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부진은 지난 1월부터

터 계속 둔화추세를 보여 도소매판매액은 1.3% 중전년동기비 7.9%에 비해 그쳤으며 4월엔 이보다 낮은 5.7%의 증가율을 보였다. 내수용 소비재하의 1.3%에서 11.0%에서 4월엔 5.1% 증가로 더욱 낮아져 소비가 진정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생산자제품재고는 4월중 전년동기비 14.3% 증가, 2.4월 3개월 연속 14%선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간 중

중대비 재고수준도 2.1.3.8%씩 계속 높아졌다. 작년 4월에 비해 재고가 크게 늘어난 업종은 △운수장비(승용차 버스 트럭) 66.0% △철강(중장철) 39.9% △기타비중공업(광물) 29.7% △전기전자(일련 TV) 29.6% △섬유 및 종이제품(인쇄용지 등) 27.9% 등이다. 투자관련지표를 보면 4



월중 국내 기계수주액이 작년동월비 5.4% 감소했고 기계류 내수출하는 0.9% 증가에 그쳤으며 기계류수입이 3.1% 증가, 수입은 42.3%의 감소로 최근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앞으로 설비투자가 계속 위축될 것임을 예고했다. 건축규제지속으로 건축투자 역시 부진했는데 4월중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비 36.1% 감소, 연속 3개월째 큰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민간아파트건설허가로 국내건설수주는 4월중 13.8% 늘었으나 1.3월중 증가율 22.4%엔 미치지 못했다.

이를 반영,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同行지수는 전년보다 1.0% 감소, 9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됐다. 동행지수에서 추세를 제거한 동행지수순환변동지수는 1.7% 감소로 2.4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경기가 뚜렷한 진정국면임을 드러냈다.

고용부문에선 4월중 경제활동인구 1천 9백 64만 5천명중 취업자는 1천 9백 17만 2천명, 실업자는 47만 3천명(실업률 2.4%)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수는 지난 3월 52만 5천명(실업률 2.7%)에 비해 5만 2천명이 줄었으나, 작년 4월 41만명(실업률 2.1%)에 비해

통계청은 향후 국내 경기는 부동산거래감 금용긴축 지속적인 건축규제및 설비투자저조등을 감안할 때 내수중심으로 성장문화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洪權>

중대비 재고수준도 2.1.3.8%씩 계속 높아졌다. 작년 4월에 비해 재고가 크게 늘어난 업종은 △운수장비(승용차 버스 트럭) 66.0% △철강(중장철) 39.9% △기타비중공업(광물) 29.7% △전기전자(일련 TV) 29.6% △섬유 및 종이제품(인쇄용지 등) 27.9% 등이다. 투자관련지표를 보면 4월중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비 36.1% 감소, 연속 3개월째 큰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민간아파트건설허가로 국내건설수주는 4월중 13.8% 늘었으나 1.3월중 증가율 22.4%엔 미치지 못했다.

이를 반영,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同行지수는 전년보다 1.0% 감소, 9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됐다. 동행지수에서 추세를 제거한 동행지수순환변동지수는 1.7% 감소로 2.4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경기 뚜렷한 진정국면임을 드러냈다.

# 실물경제 어떻게 돌아가나

경제 지표의 변동은 실물경제의 건강과 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특히 11월과 12월의 실물경제 지표는 1991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11월의 실물경제 지표는 1991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11월의 실물경제 지표는 1991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11월의 실물경제 지표는 1991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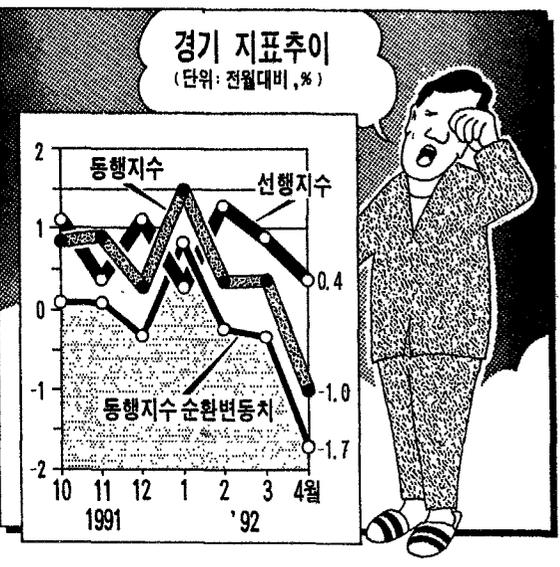
11월의 실물경제 지표는 1991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11월의 실물경제 지표는 1991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 高潮 우려... 뚜렷 후퇴 景氣

11월의 실물경제 지표는 1991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11월의 실물경제 지표는 1991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 在庫 在庫 經濟

11월의 실물경제 지표는 1991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11월의 실물경제 지표는 1991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11월의 실물경제 지표는 1991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11월의 실물경제 지표는 1991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11월의 실물경제 지표는 1991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11월의 실물경제 지표는 1991년 4분기 실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정신상태인 실내용 항목은 전이  
라고 설명했다. 수입원화노력  
속의 9월경부터 동향기향으로  
수출의 향상을 볼수고 있다고  
고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과가 설명하는  
9월경 수출회복인인 역시  
시정인 정인이 대부분인데다  
주요수출품인 전기전자 기계  
조선 섬유 신발등의 수출이 제  
차 부진하고 특히 美·日등 주  
요시장의 수출이 아직도 부진  
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판정할수  
가 있다 고한다.

이같이 수출회복 부진 정황하  
韓國의 판권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황을 보인후 총수입판권지배  
이 일관수기의 특점을 지루것  
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연정면  
내수가 수그리드니 조건이 더  
욱 뚜렷해진 것이라고 설명한  
다.

이름마 저물경제가 가관없이  
면서 국민경제가 바랄만한 방  
향이던 움직임이고 있다. 것이  
다.

崔然宗 韓銀 조사관말하사는  
『4월경 수입회복은 1.4  
분기 GDP(7.5%성장)에  
나타나지않을 국민경제가 점차  
안정되면서도 전진하고 있음을  
고민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추세가 계속되므로 현재의 지  
출구조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  
다고 말했다.崔이사는 일부  
영향에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으니 7월경에 생산수출등을  
통해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  
다.

그러나 2.4분기동안 산업  
생산과 수출회복을 살펴보면  
민간경제의 평가는 한마디로  
『정면』과 너무 낙관적인이란  
것이다.

특히 국제수지를 거시지표를  
을 보면 과열상태의 분화되고  
국제수지적자가 축적된 것이  
로 볼수 있거나 좀더 미시적인

# 적·投資부진 가속화

## 전반 재점점 새로운戰略 모색할 때

로 볼수 보면 문제가 많고 국제  
경제의 지경이다.

우선, 제조업의 설비부자가  
계속 축적되고 현안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총수출판권이  
제이므로 다산 총수출노역자  
간 설비부자가 양호되지않아  
한다고 것이다.

韓國경제연구원의 具石護 부  
연구원 『가을에 들어간다. 우리  
경제지체를 기간연오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경제회복을 위  
해 무엇보다도 현재의 고금리의  
자율기율을 해소하것이 시급하  
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적상환  
은 7월경까지 언급할것이다.

산업회복과 경기부흥을 기원  
의의미를 종합적으로 재점적  
국민경제가 나아가야할 지도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재점적해야  
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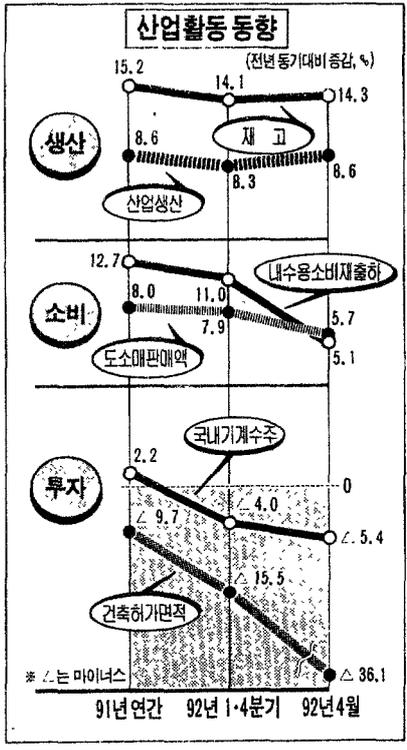
〈朴永均기자〉

# 경제 거품해소 : 內需진정세 뚜렷

민간소비 관련지표들의 증가세가 3개월째 계속 둔화되는 등 內需진정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월 이후 3개월째 계속 둔화 추세를 나타내 내수경기가 진정국면에 돌기 시작한 것

포인트 높여진 2.4%를 기록했다. 제조업 인력이 전 설비서비스분야로 유입하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중도소매판매액은 1년전보다 5.7% 내수용소비재출하는 5.1% 증가에 각각 그쳐 소비관련 지표의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졌다. 소비관련 지표는 지난 2

이로 풀이된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도소매판매액은 전년비 8% 내수용소비재출하는 12.7%씩 각각 큰 폭으로 늘었

내수진정양상은 고용지표 등에도 나타나 4월중 실업률은 1년전보다 0.3%

는 현상만 계속되고 있다 건설경기 규제와 내수진정이 겹치면서 점차 경기 위축에 따른 마찰적 실업증진을 빚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부진은 설비투자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1년전 대비해 5.4% 기계류수입허가가 42.3%씩 각각

감소했고 건축규제 조치에 따라 건축허가면적이 36.1%나 줄었다.

4월 중 생산활동은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8.6% 출하는 9.3%씩 비교적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분동산거래액』을 통해

다시 말해 민간소비 둔화와 실업률 상승 등은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진통으로, 일부 업종의 내수판매부진 현

## 소비재 줄고 산업생산·수출은 활기 되 찾아 同行지수 2년만에 하락... "건축 큰 효과"

또 재고는 내수진정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상용차, 가전 제품 출하 등 중화화업 업종은 전년 동기 14.3% 늘어났다. 제조업가동률은 81.8%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외에 현재의 경기상 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는 전월보다 1.0% 감소, 지난 9월 이후 23개월만에 첫 하락세를 나타냈고 2, 3개월 뒤 경기수준을 예상 고하는 선행지수도 0.4%

각, 금융진척, 지속적 건축 허가규제와 소비둔화 등이 겹쳐 앞으로 국내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둔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이라고 분석했다.

경제기획원은 『성장잠재력을 목표도 금융진척 등 추후 주요 관리를 강화한 정책효과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산업생산과 수출은 견고한 증가세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성장내역이 견실해 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상을 전반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한 것이란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柳栢其기자】

社說

국내경기의 明暗

통계청의 발표한 「4월중 산업활동지수」를 보면 4월중 산업활동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한 104.4%로 나타났다. 이는 4월 중 산업활동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한 104.4%로 나타났다. 이는 4월 중 산업활동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한 104.4%로 나타났다.

다. 그러나 산업활동지수 소비부분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산업활동지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월중 내수가 또 범람했는지 모를 일이다.

이 기회의 우리는 국내 건설경기와의 관련성을 면할 수 없다. 6월 부터 중래의 각종 건설제한조치가 대폭 풀려 건설활동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가스가스로 잠아 놓았던 건설경기 가 속도시 과열의 조짐을 피하게 되고, 이제 다시 연말 무렵의 대물림 선저부위기와 맞물리면 결과론적 더 악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정부도 이 편견적인 면면을 내걸어 대기업들의 부동성향과 대폭 확대

용할 움직임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새로운 제동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다시 난파를 볼 염려가 있다. 정부의 주의를 새삼 촉구해 본다.

4월중에도 설비투자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점과 기업들의 제품재고가 더 늘었다고 있는 사실, 이런 현상들은 물론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지만 단지 고면면 불가피한 측면이 더 많다. 지금 내수를 진정시키자면 정부정책의 이점과 부호를 띠고 있는 마땅한 이런 「가장」 분위기에 속해선 어찌해 볼 수 없는 현상인 지도 모른다. 그렇긴 하지만 정부마저 이에 대해 계속 뒷받침하고 있어선 안된다.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

모하면다가 자칫 성장의 잠재력을 파괴해 버리고 말 염려가 배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과 금융·서비스업의 지원을 강인함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인력의 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이 멈추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문제거리이다. 정부가 그 방지대책 마련에 한층 적극적이 되도록 말라볼 것을 염려가 있을 듯하다. 우선 서비스업의 이직도 평균의 상향으로 높여 있을 것을 진지할 필요가 있다.

# 30세 미만 「노는 사람」 많다

## 힘든일 기피...제조업취업 격감

통계청 「1분기 고용동향」 발표  
 1.4분기 중 산업별 고용동향은  
 을 본면 이기전업 시업업의 격차  
 중기본 기인력수가 많아지자  
 중기업업의 비중이 3.2%로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3.2%로  
 어 2백37만명의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4백9만4천명(0년)과  
 년동기에 비해선 10만6천명, 작  
 년 4.4분기여 비해선 5만4천  
 명이 각각 줄었다.  
 사업장별로는 1.4  
 분기 중 취업자가 6.1% 증가했  
 는데 그중 중소기업은 1.4%로  
 12.1%의 사회적 개인서비스업  
 8.7%의 공공기관을 보았을 때  
 나 중소기업(3.2%)은 감소추세에  
 다. (2.0%)에 비해 증가세가 뚜렷했

## 건설-서비스업부문 크게증가

통계청 「1분기 고용동향」 발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1.4분  
 기 지표에 따르면 「노는 사람」의 비중이  
 지난 1.4분기(1.3%)에 비해 0.1%  
 내실업자가 53만3천명(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로  
 기록됐다.  
 2월 통계청이 발표한 1.4분  
 기 지표에 따르면 「노는 사람」의 비중이  
 지난 1.4분기(1.3%)에 비해 0.1%  
 내실업자가 53만3천명(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로  
 기록됐다.

# 점진적 失業率 9.2%

## 1분기 3D기피심화... 노년층이 줄어

통계청 「1분기 고용동향」 발표  
 지난 1.4분기 중 전체 실  
 업률(9.2%)은 작년 동기와  
 2.9%포인트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0.1%포인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고용동향」에 따  
 르면 1.3월 중 경제활동  
 인구는 1천8백60만명이  
 토지단체 동기에 비해 3.6%  
 (64만명)의 경제활동참  
 가율(58.8%)로 1.2%  
 포인트 증가했다.  
 포인트 각각 증가했으나  
 실업률(9.2%)은 작년 동기  
 수치를 나타냈다.  
 15~24세 연령층의 실  
 업률은 9.2%로 전체 실  
 업률과 크게 웃돌고 있는  
 데 이른 일자리를 구하는  
 신기술업자가 많기 때문  
 일 것으로 보인다. 3D업종  
 관련 50세 이상층의 실업  
 의 실업률은 0.7%로 지  
 단 해동기의 0.4%  
 포인트 줄었다.  
 이집트 후세기 증가의  
 인력 수요가 100만명고령  
 여성 취업자가 일시적인  
 노년층이 때문이므로 해  
 산업을 취업자 수가 늘어  
 2월의 2백37만명(0년)과  
 동기에 비해 3.2%의  
 4천명(동기)에 비해 0.1%  
 포인트 줄었다.  
 공공연 4백93만4천명(0  
 토지단체의 0.2%  
 (1만2천명)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지  
 해동기에 비해 12.1%증  
 가한 1백52만4천명(0  
 1.4분기 중 취업자가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3.2%)은 감소추세에  
 다. (2.0%)에 비해 증가세가 뚜렷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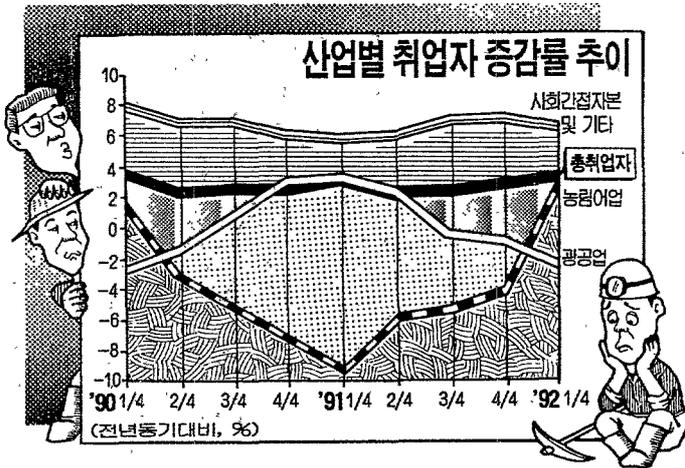
# 점진적 失業率 늘어난다

## 15~24세 9.2% 가장 많아

통계청 「1분기 고용동향」 발표  
 지난 1.4분기 중 전체 실  
 업률(9.2%)은 작년 동기  
 2.9%포인트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0.1%포인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고용동향」에 따  
 르면 1.3월 중 경제활동  
 인구는 1천8백60만명이  
 토지단체 동기에 비해 3.6%  
 (64만명)의 경제활동참  
 가율(58.8%)로 1.2%  
 포인트 증가했다.  
 포인트 각각 증가했으나  
 실업률(9.2%)은 작년 동기  
 수치를 나타냈다.  
 15~24세 연령층의 실  
 업률은 9.2%로 전체 실  
 업률과 크게 웃돌고 있는  
 데 이른 일자리를 구하는  
 신기술업자가 많기 때문  
 일 것으로 보인다. 3D업종  
 관련 50세 이상층의 실업  
 의 실업률은 0.7%로 지  
 단 해동기의 0.4%  
 포인트 줄었다.  
 이집트 후세기 증가의  
 인력 수요가 100만명고령  
 여성 취업자가 일시적인  
 노년층이 때문이므로 해  
 산업을 취업자 수가 늘어  
 2월의 2백37만명(0년)과  
 동기에 비해 3.2%의  
 4천명(동기)에 비해 0.1%  
 포인트 줄었다.  
 공공연 4백93만4천명(0  
 토지단체의 0.2%  
 (1만2천명)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지  
 해동기에 비해 12.1%증  
 가한 1백52만4천명(0  
 1.4분기 중 취업자가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3.2%)은 감소추세에  
 다. (2.0%)에 비해 증가세가 뚜렷했

# 24세이하 실업률 9.2%

## 3D현상 반영...전체론 2.9%



지난 1·4분기중우리나라 실업률은 2.9%로 90년 이후의 낮은 수준이 지속됐으나 24세이하의 저

# 건설취업자 12%증가 제조업은 2.1%감소

1분기 고용등향 大邱·大田 4.3%로 으뜸

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해야 하는 3D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시외간접직분 및 기타 부문의 취업자 증가율은 작년동기와의 비해 12% 증가, 작년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도 산매업과 운수·숙박업은 3% 안팎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통계청)은 1992년 1·4분기 지역별 고용증감률

을 분석한 결과 1·3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1천 8백 60만 명으로 작년 동기와의 비해 3.6%(64만 명)의 증가를 보였으며 58.8%로 1.2%포인트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가와 비농가, 영농준비농과 비농가 및 중고령층의 증가의 증가율은 각각 1.1%와 1.4%로 작년 동기와의 비해 2.2%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1·4분기 이후

취업자는 1천 8백 6만 8천 명으로 작년의 비해 3.7%(63만 7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림업은 2백 37만 명으로 작년동기와의 비해 3.2%(7만 4천 명) 증가했다. 이를 저를 평가하기 위하여 농·모종의 조기파종에 농업인들이 활발했고 시설 농업에 재배의 증가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 일시적으로 50세 이상의 중고령 여성 취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7년과 90년에도 1·4분기 중 농업·농림업 취업자가 일시적 현상이었으나 이번 경우는 다르다. 광공업 취업자는 4백 93만 8천 명으로 작년의 비해 2.2%(11만 2천 명) 증가했으며 작년 1·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광업을 뺀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는 4백 87만 4천 명으로 작년의 비해 2.1%(10만 6천 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6대 도시가 9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대 도시 중의 서는 대구(4.3%) 대전(4.3%)이 높았고 광주(2.9%)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9개 도 예산은 경기(2.5%) 충청(2.3%)이 높았고 경북(1.3%) 제주(1.1%)가 낮은 편이었다.

中高齡층 노동참여 增加분구

제조업인력우회력감소

젊은층 生産職 기피 失業늘어

50대 이상 인력 1천 2백 40만 명으로 1991년 1천 1백 40만 명보다 80만 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1.4백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 인력 1.4백만 명은 1991년 1.3백만 명보다 10만 명 증가했다. 50대 이상 인력 1.4백만 명 중 64%인 90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50대 이상 인력 1.4백만 명 중 64%인 90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실업자가 1천 2백 40만 명보다 5천 2백 40만 명으로 53만 2천 명 증가했다. 실업률 2.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15~24세의 실업자는 21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2천 명 증가했다. 15~24세의 실업률 1.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15~24세의 실업률 1.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젊은층은 1991년 1.4백만 명보다 1.4백만 명으로 1.4백만 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1.4백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 인력 1.4백만 명은 1991년 1.3백만 명보다 10만 명 증가했다. 50대 이상 인력 1.4백만 명 중 64%인 90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50대 이상 인력 1.4백만 명 중 64%인 90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 6월 소비자물가 0.2% 상승

올 상반기 3.8% 올라 최근 3년중 가장 安定

서비스요금진정이 主因... 하반기지속은 불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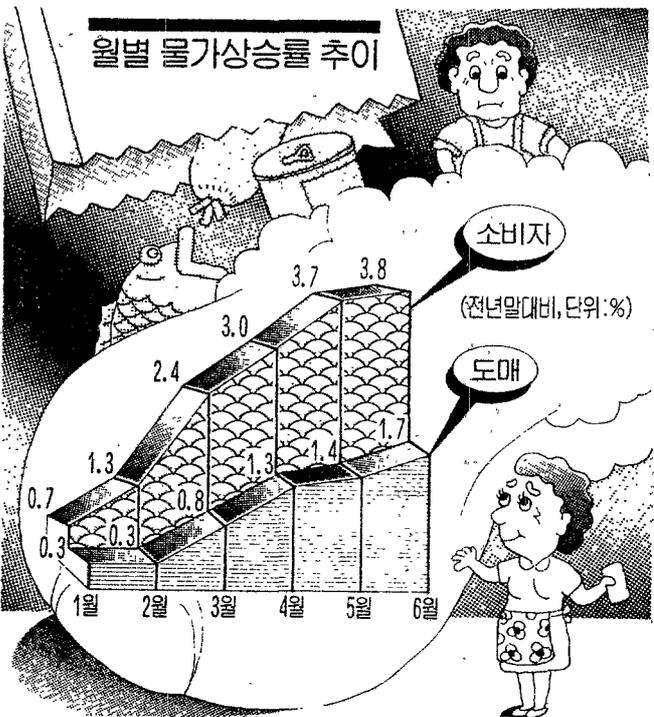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를 기록, 최근 3년중 가장 安定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25일자로 대폭 오른 油價가 7월부터 물가지수에 본격 반영되는 데다 장마철을 앞둔 농산물의 수급차질과 원자재값 및 환율상승 등 물가불안요인도 적지 않아 하반기 물가관리여건을 어렵게 하고 있다.

29일 통계청과 韓銀이 발표한 「6월 및 상반기 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6월 한달동안 0.2%가 도매물가는 0.3%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말까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말보다 3.8% 도매물가는 1.7%가 각각 올랐으며 특히 소비자물가는 90년과 91년 상반기 6.9% 6.2%와 비교해 반기물가로는 최근 3년중 가장 安定된 모습을 나타냈다.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정 부목표치(5%)를 밑돌며 이처럼 安定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2.2%나 오른 면서 물가상승률 주도했던 개인서비스요금이 올리는 6.4%로 상승률이 크게 떨어진 데다 농축수산물도 작황호조로 지난해 상반기 9.0%에서 3.7%로, 집 舊屋시 지난해 5.9%에서 3.6%로 오름세가 꺾



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중 新鮮식품 지수(2.1%)와 월1회이상 구입품목 지수(4.0%), 20개 기본생활물가 적(4.0%)이 전체 소비자물가와 비슷한 오름세를 보여 피부물가와 지수들간의 괴리도 좁혀진 것으로 분석됐다.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2%로 안정세

## 통계청 조사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조사 결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0.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0.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0.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0.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0.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0.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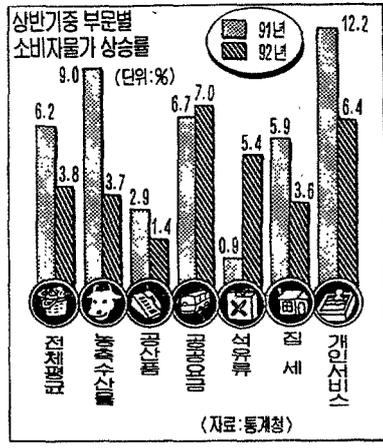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0.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92. 6.30

# 상반기 물가 0.8%로 안정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0.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0.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0.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0.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0.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0.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1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3개월 평균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 하반기 物價 불안

## 上 半 期 에 소 폭 상 승 · 비 교 적 인 정

올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작년말에 비해 3.8% 도매물가는 1.7%가 각각 상승,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집계됐다. 6월 한달은 소비자물가가 0.2% 도매물가가 0.3%가 각각 올랐다고 발표했다.

6월 중 소비자물가는 유가와 집세가 각각 0.12% 올랐으며, 평균요율과 개인서비스요율도 0.3%씩 상승했다.

반면 농축수산물과 공산물(0.3%)와 0.2%가 각각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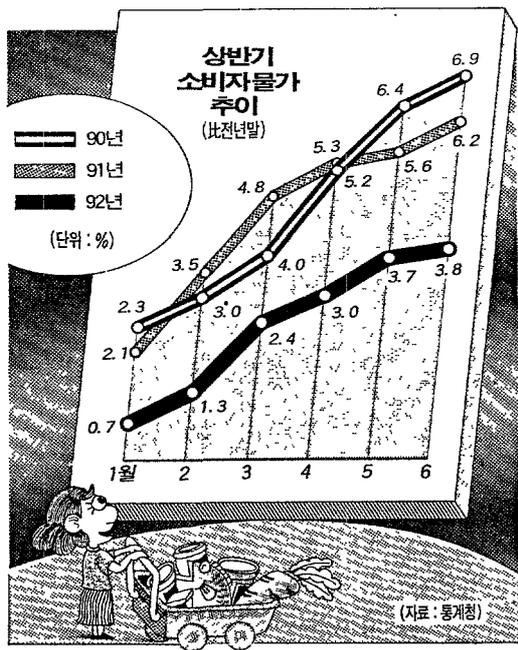
품목별로는 고추(16.7%)와 고춧가루(12.1%)가 상승(11.1%) 가장 뛰어나며(10.9%)들이 10% 이상 크게 올랐으며, 풋고추(34.9%)와 감자(29.9%)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한편 하반기 물가는 ▲유가인상의 파급효과 ▲국제원자재가격변화 ▲농산물의 다른 공산물의 증가압박 ▲장마 및 휴가철의 따른 농산물수급변동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반기 소비자 물價 3.8% 상승에 그쳐

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말에 비해 0.2%의 소폭 상승에 그침에 따라 올 상반기 전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새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말에 비해 0.2%의 소폭 상승에 그침에 따라 올 상반기 전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새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림: 金龍吉기자>

**여 백**

# 3/4분기 보도기사

(7월~9월)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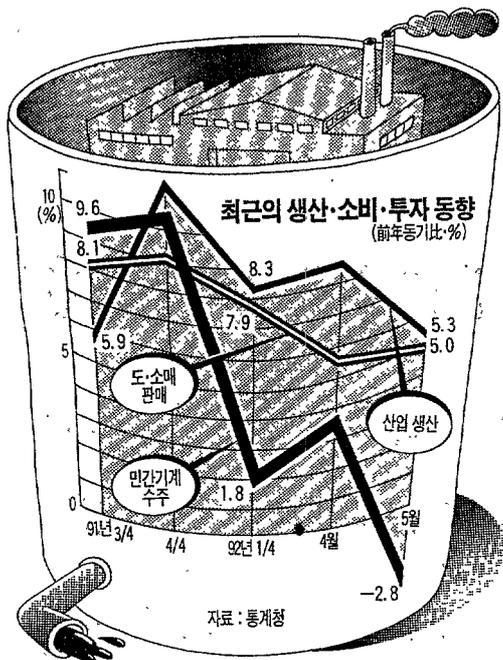
# 生産·소비·투자 부쩍 줄어

## 5월중 산업활동동 제로업稼動率 78.2%

### 在庫만 작년同月比 16.4%늘어

국내경기가 5월들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부진하고 경기지표도 현저성을 보여주는 2개월 연속으로 두 방향의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조사에 따르면 5월중 산업활동동 제로업稼動率은 78.2%로 작년 5월(78.2%)과 같았다. 5월중 산업활동동 제로업稼動率은 5.3%가운데 그중 16.4%가 늘었다. 제조업가동률은 78.2%로 작년 5월(78.2%)과 같았다. 제조업가동률은 80.2%로 작년 5월(80.2%)과 같았다. 제조업가동률은 80.2%로 작년 5월(80.2%)과 같았다.



<그림: 張甲鎭기자>

5.3%가운데 그중 16.4%가 늘었다. 제조업가동률은 78.2%로 작년 5월(78.2%)과 같았다. 제조업가동률은 80.2%로 작년 5월(80.2%)과 같았다. 제조업가동률은 80.2%로 작년 5월(80.2%)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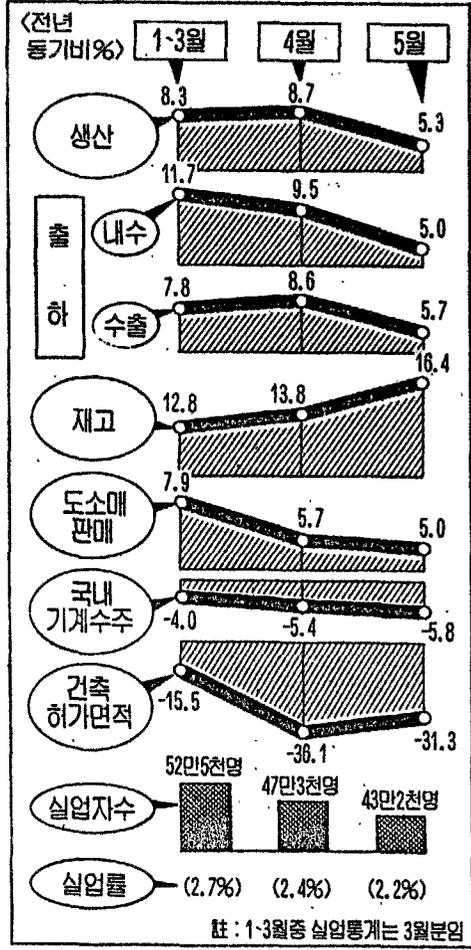
자민수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고·중·저소득층의 산업활동 동향도 조사된다. 5월중 제조업가동률은 78.2%로 작년 5월(78.2%)과 같았다. 제조업가동률은 80.2%로 작년 5월(80.2%)과 같았다.

건설경기둔화의 정도를 나타내며 비·31.3%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설경기둔화의 정도를 나타내며 비·31.3%의 증가율을 보였다.

# 산업활동 기은 「어름잡」

통계청 5월동향조사 생산 출하 투자 둔화 뚜렷

5월중 산업활동 동향



점부의 감소한 내수진정 시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생산활동이 투자 등 주요 물량지표들이 작년동기에 비해 큰폭의 둔화추세를 보며 뚜렷한 침체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

경기先行지수를 첫감소... 침체 계속될듯

5월중 산업생산은 설비

내수진정 시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생산활동이 투자 등 주요 물량지표들이 작년동기에 비해 큰폭의 둔화추세를 보며 뚜렷한 침체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

생산자제품재고는 5월 중 16.4%로 높아졌고 제조업가동률은 80%아래로 떨어졌다. 향후의 설비투자증가를 예고하는 기계투자는 5월 중 5.8% 감소, 4, 5월 연속감소세를 나타냈고 기계투수입이 각각 45.3%, 21%의 감소세를 기록

경기先行지수 올 첫감소... 침체 계속될듯

재고 16.4%로 높아지고 가동률도

7개월만의 최저증가율



# 산업심리문위주... 향토특수제품부명

## 통계청 발표 5월동향 분석

통계청이 발표한 5월 동향 분석에 따르면 5월은 제조업 동향은 호진호퇴, 서비스업 동향은 호진호퇴, 전체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제조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서비스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전체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제조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서비스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전체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제조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서비스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전체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제조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서비스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전체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제조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서비스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전체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제조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서비스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전체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 관련指數 일제히下落... 「침체론」 뒷받침 "일시적 현상일뿐"... 反轉 가능성 기대도

제조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서비스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전체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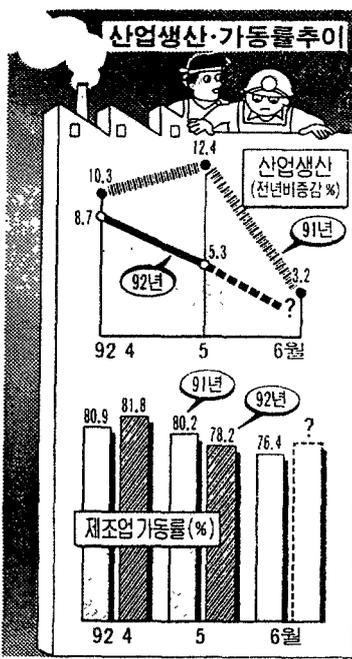
제조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서비스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전체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제조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서비스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전체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제조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서비스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전체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제조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서비스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전체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제조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서비스업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5월 전체 동향은 호진호퇴로 나타났다.



社說

景氣현상, 정확한 診斷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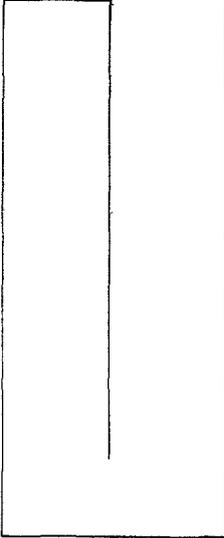
우리 의 現行 경제정책은 거품경제의 거품을 제거한 뒤 다시 재노출하자고 대부적이었다. 바편할해서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한편 경제정책을 거품을 신선경제에 도입해 부각시켰다. 미국, 일본, EC에 신선파들이 거품제거정책을 이미 실시, 미화부안 정책의 軟着—경기침체를 거쳐 지금 은 경기가 발흥,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일본의 야기가 또한 경기침체를 벗어났다. 한편 경제는 경기회성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무 제반 정책기반을 검토 경기정책의 틀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기획위원회, 정부차관 경기정책회의, 선정위원회, 정부차관 경제정책 회의 등이 있다. 경기회성의 현상은 KDI, ICI, OECD 등이 다수 중앙은행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4월과 5월 월간 경제성장률의 증가율에 따라 3.5%의 증가를 보였으며, 4월과 5월의 성장률은 각각 3.5%와 3.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경제회성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것을 갖고 경기침체라고 단정하는 것이 성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계청의 따르면 4월과 5월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3.5%와 3.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경제회성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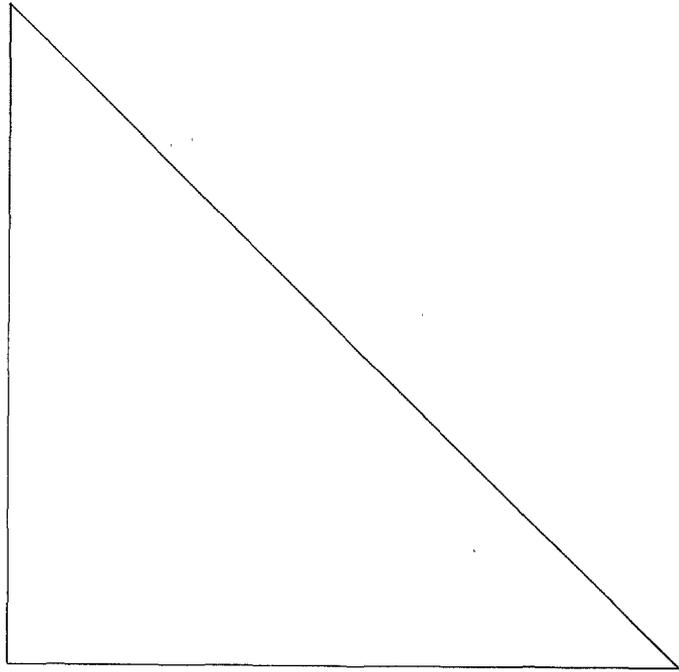
전면적인 경기회성의 단정보다는 그 밖의 특수한 사실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경기회성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회성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회성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이 78.2%인 4월과 81.8%인 5월의 3.6%포인트가 하락했다. 지난해 6월의 76.4%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또한 제분재고도 역시 2수를 중점한 경기회성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회성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행지수도 0.4%가 하락, 올해의 첫 감소세를 나타냈다. 경기회성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회성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회성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한다. 중앙은행은 우리의 심황경제가 침체나 아니냐고 것이다. 경제의 안정을 위해 긴박하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긴축으로 경제가 추락할 수도 있다. 심황경제의 현상을 정확히 진단, 정부정책을 방향이 되도록 한다.



社說

기업의 內實다지기 부추겨야

지난 몇해동안 경기과열과 둔화를 겪으면서 우리도 경기동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는데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5월중 산업동향」을 빌미로 한동안 잠잠하던 경기논쟁이 되살아날 것 같다.

5월중 동향은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함께 떨어졌고 생산 출하 가동률등의 증가세가 모두 크게 꺾인데 비해 재고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6.4%나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총수요 관리를 통해 내수진정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등을 어느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고통이 전혀 의미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수 있다.

다만 지금의 경기국면이 업계의 주장대로 경기침체로 가속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정부측 말대로 경기가 진정되는 조정국면이냐는 판단은 여전히 쉽지 않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내수경기는 당분간 어려울것 같으며 수출전망은 해외경기 와 환율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연말이나 적어도 다음해 상반기중에는 회복되리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수출이 회복된다 해도 내수둔화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회복될지는 알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정부가 선택할수 있는 정책의 폭이 매우 좁다는 사실이다. 따라

서 다음의 몇가지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는 민간자율경제를 정착시키는 과도기의 경제에 충격을 주는 예상외의 돌발사태가 없어야 한다. 정부개입은 개입시기, 개입강도, 개입방법에 따라 다르나 계획, 결정, 집행의 단계마다 時差가 있어 때맞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차라리 경제환경의 불확실성만이라도 낮추어주기 위해서도 자의적인 정부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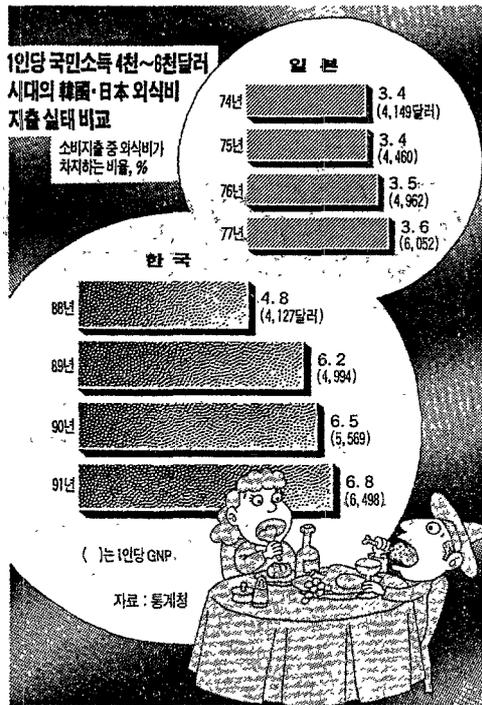
둘째로 불특정다수의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써야겠다. 특히 금융관행의 개선과 효율향상이 자율적인 경기회복노력에 매우 긴요하다.

셋째로 경기둔화속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內實을 다지는 설비개선및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해야겠다.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기업의 노력은 경기회복으로 접어드는 밑거름이며 革新(innovation)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업의眞面目이다.

이러한 노력없이 정부지원에만 기대려 할때 지금의 어려움을 피할수는 있을지 모르나 민간기업의 「홀로서기」, 나아가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 소득은 증진국 먹는건先進國

작년 가구당 外食費 총지출의 6.8% GNP 4배인 日보다 2.9%나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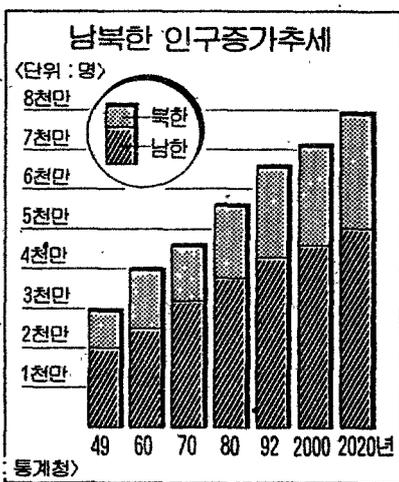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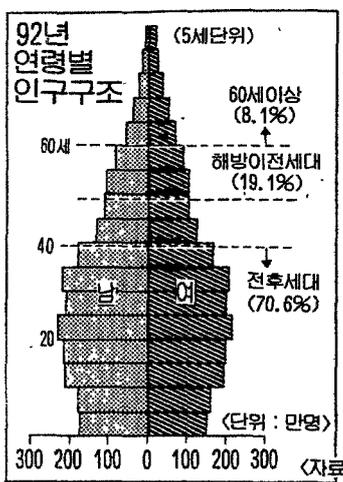
<그림=朴春奭기자>

우리민족은 소득수준에 비해 외부에서 먹는 음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자기용」 음식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특히 「자기용」 음식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특히 「자기용」 음식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우리민족은 소득수준에 비해 외부에서 먹는 음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자기용」 음식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특히 「자기용」 음식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우리민족은 소득수준에 비해 외부에서 먹는 음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자기용」 음식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특히 「자기용」 음식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 南韓인구 4,367萬명



南北韓 합치면 6,600萬...세계 14위  
戰後세대 71%...남녀 性比 101.4

## 통계청 「세계인구의 날」 현황 발표

11일 0시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 23위 수준인 4천367만4천1백17명이다. 인구증가율은 1.1%로 1991년 1.2%를 웃돌았다. 1992년 1월 1일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4천1백44달러로 1991년 1만3천9백44달러를 웃돌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천1백44달러로 1991년 1만3천9백44달러를 웃돌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천1백44달러로 1991년 1만3천9백44달러를 웃돌았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1991년 1.1%로 1992년 1.1%로 1991년 1.1%를 웃돌았다. 1992년 1월 1일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4천1백44달러로 1991년 1만3천9백44달러를 웃돌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천1백44달러로 1991년 1만3천9백44달러를 웃돌았다.

세계인구의 날은 1987년 유엔이 제정한 것으로,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한다. 1987년 7월 11일은 유엔이 제정한 것으로,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한다.

## 밀도 세계 3위... 1km<sup>2</sup> 4百40명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4천1백44달러로 1991년 1만3천9백44달러를 웃돌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천1백44달러로 1991년 1만3천9백44달러를 웃돌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천1백44달러로 1991년 1만3천9백44달러를 웃돌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천1백44달러로 1991년 1만3천9백44달러를 웃돌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천1백44달러로 1991년 1만3천9백44달러를 웃돌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천1백44달러로 1991년 1만3천9백44달러를 웃돌았다.

## 세계인구 54億 넘어

2025년엔 85億 전망

1992년 7월 11일 현재 세계 인구는 54억 3천만 명을 넘어섰다. 유엔은 2025년에는 85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992년 7월 11일 현재 세계 인구는 54억 3천만 명을 넘어섰다. 유엔은 2025년에는 85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992년 7월 11일 현재 세계 인구는 54억 3천만 명을 넘어섰다. 유엔은 2025년에는 85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人口증가를 2021년엔 "0"

## 5천60만 頂點 내리막

### 젊은층 이미 감소세... 노동력 不足 심화

####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는 앞으로 30년 후인 2021년에는 5천60만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이후로는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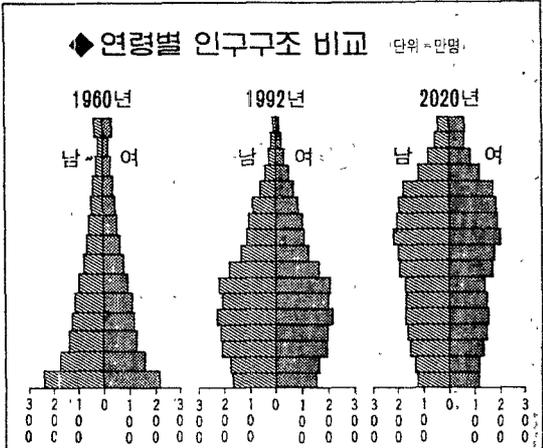
특히 15~19세의 청년층 인구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95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90년 대비 19.4%의 감소에 해당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천60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남북 분리를 기준으로 보면, 남한 인구는 4천3백67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북한 인구는 2천2백33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천9백31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여성은 2천6백75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0~14세少年儿童은 7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3천7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천1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층 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은 2021년 이후로는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 분리를 기준으로 보면, 남한 인구는 4천3백67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북한 인구는 2천2백33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천9백31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여성은 2천6백75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0~14세少年儿童은 7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3천7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천1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 戰後세대가

## 南韓 인구

「세계인구의 11%를 차지하는 후진국체인 南韓인구는 4천3백만명의 이르고 있다. 49년(2천18만9천명) 2천만명, 84년 4천만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戰後세대(53년 이후 출생) 비율이 전체의 70.6%, 解放 이후세대가 80.9%에 달하고 60세이상 및 65세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8.1%, 5.2%로 증가세에 있다. 물론 이같이 고령인구비율은 선진국의 평균치(17.1%, 12.1%)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또 남자(2천1백97만9천명)가 여자(2천1백68만5천명)보다 약간 많고 여자 1

세계인구의 11%를 차지하는 후진국체인 南韓인구는 4천3백만명의 이르고 있다. 49년(2천18만9천명) 2천만명, 84년 4천만

### 유엔 보고서

4분의 3 이상이 後進國 거주

【유엔개발계획(UNDP) 전 세계의 인구는 현재 55억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000명의 국가가 고소득의 국가로 분류됐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는 2025년에 현재의 2.5배로 증가하며 그 비율도 현재의 12%에서 1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엔의 비효율 9%에서 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아프리카 인구는 2025년의 현재의 2.5배로 증가하며 그 비율도 현재의 12%에서 1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엔의 비효율 9%에서 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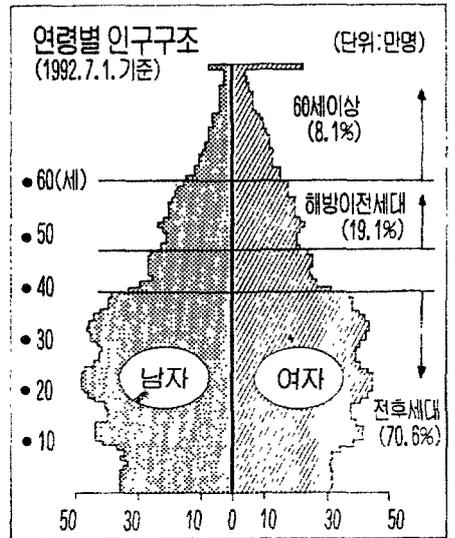
### 인구규모

(90년 기준)

순위	국명	인구수(천명)
1	중국	1,139,060
2	인도	853,094
3	미국	288,595
4	러시아	249,224
5	인도네시아	184,283
6	브라질	150,368
7	인도네시아	123,460
8	스페인	122,626
9	인도네시아	115,593
10	인도네시아	108,542
11	인도네시아	88,598
12	인도네시아	77,563
13	인도네시아	66,693
14	인도네시아	62,413
15	인도네시아	57,237
16	인도네시아	57,061
17	인도네시아	56,138
18	인도네시아	55,868
19	인도네시아	55,702
20	인도네시아	54,607
21	인도네시아	52,426
22	인도네시아	49,240
23	인도네시아	42,869
24	인도네시아	41,675
25	인도네시아	39,187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는 2025년에 현재의 2.5배로 증가하며 그 비율도 현재의 12%에서 1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엔의 비효율 9%에서 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아프리카 인구는 2025년의 현재의 2.5배로 증가하며 그 비율도 현재의 12%에서 1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엔의 비효율 9%에서 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결혼행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47초마다 1명이 태어나고 1백25초마다 1명이 사망, 75초에 한명꼴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계정으로는 연간 1억3천8백만명의 태어나고 5천만명이 사망해 8천8백만명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權赫燦기자〉

# 70.6% 차지

## 統計廳 발표본 「세계人口의 變遷」

統計廳이 발표한 「세계人口의 變遷」에 따르면, 2000년 5천만 명에 달하는 5천만 명의 인구가 2021년 5천 58만 6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70.6%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70.6%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0~14세의 인구는 15~64세의 인구에 비해 43.2%로 낮아, 60대의 인구는 82.6%와 비교할 때 출산율의 저하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인구는 60년대 후반에 10억 2천만 명(高出生率)에서 현재는 20억 2천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變遷」에 따르면, 2000년에 20억 2천만 명이었던 인구는 2021년에 25억 2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變遷」에 따르면, 2000년에 20억 2천만 명이었던 인구는 2021년에 25억 2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이 2001년에 7% 수준에 진입하고 2010년에는 9.4%, 2021년에는 13.1%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돼 老人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 증가세... 밀도 세계 3位  
남녀 성비 101.4... 扶養比 43.2%로

# 아파트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

11월 말 주민등록 인구는 50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엔 新婦가 모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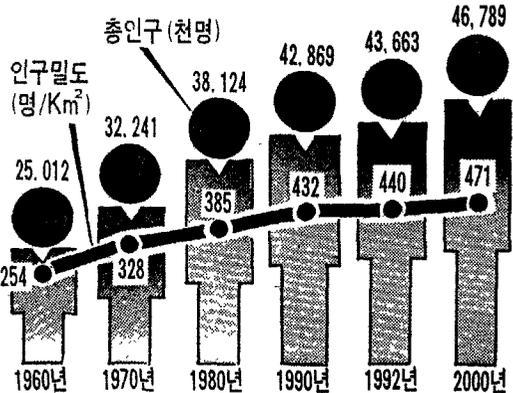
## 7~8년뒤엔 「大入籍」 하루에

세계가 현재처럼 유지되고 있다. 2010년의 인구는 6억 9천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 중 58%는 아시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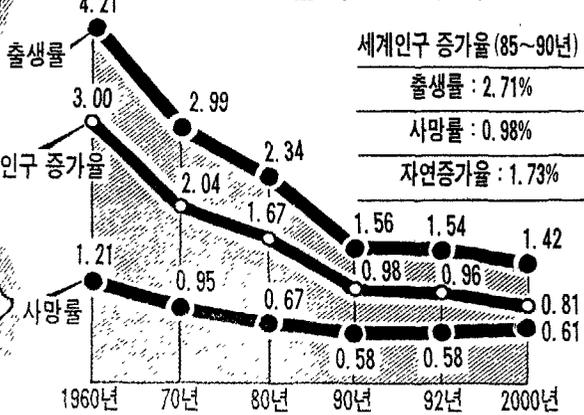
일본(3.6억 명), 미국(3.24억 명)이 뒤를 이은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엔 인구가 7억 7천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 중 58%는 아시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시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엔 인구가 7억 7천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 중 58%는 아시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구증가 추이



인구 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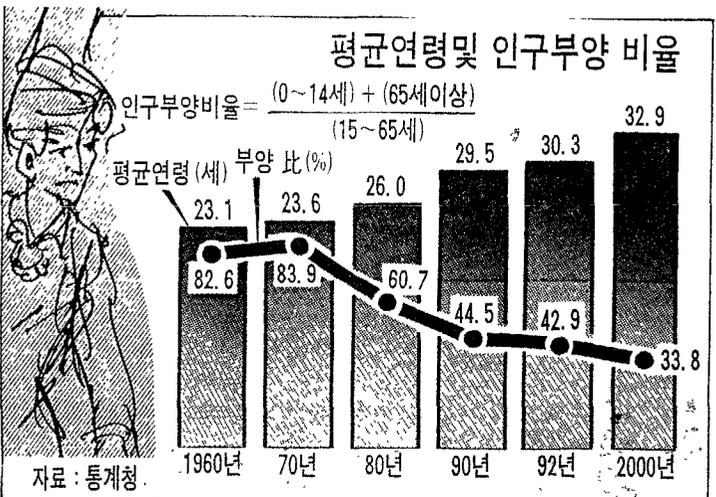


세계인구 증가율 (85~90년)  
출생률: 2.71%  
사망률: 0.98%  
자연증가율: 1.73%

평균연령 28.29세, 부양비 23.1%로 60세이후 인구는 2000년 1억 4천 700만 명으로 1990년 1억 4천 700만 명보다 1천 200만 명이 늘었다. 2000년 1억 4천 700만 명 중 60세이후 인구는 1천 200만 명으로 1990년 1천 200만 명보다 100만 명이 늘었다. 2000년 1억 4천 700만 명 중 60세이후 인구는 1천 200만 명으로 1990년 1천 200만 명보다 100만 명이 늘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00년 이후 60세이후 인구는 1억 4천 700만 명으로 1990년 1억 4천 700만 명보다 100만 명이 늘었다. 2000년 1억 4천 700만 명 중 60세이후 인구는 1천 200만 명으로 1990년 1천 200만 명보다 100만 명이 늘었다.

# 은 門 「크게 好轉」 千 145명씩 늘어



<그림=宋秀甲기자>

## 2千年엔 「60세이상」 10% 넘어 對策 서둘러야

2000년엔 60세이후 인구가 1억 200만 명으로 1990년 1천 200만 명보다 100만 명이 늘었다. 2000년 1억 4천 700만 명 중 60세이후 인구는 1천 200만 명으로 1990년 1천 200만 명보다 100만 명이 늘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00년 이후 60세이후 인구는 1억 4천 700만 명으로 1990년 1억 4천 700만 명보다 100만 명이 늘었다. 2000년 1억 4천 700만 명 중 60세이후 인구는 1천 200만 명으로 1990년 1천 200만 명보다 100만 명이 늘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00년 이후 60세이후 인구는 1억 4천 700만 명으로 1990년 1억 4천 700만 명보다 100만 명이 늘었다. 2000년 1억 4천 700만 명 중 60세이후 인구는 1천 200만 명으로 1990년 1천 200만 명보다 100만 명이 늘었다.

(金鐘秀기자)

##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인구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의 인구는 오는 2021년을 고비로 증가에서 감소로 뒤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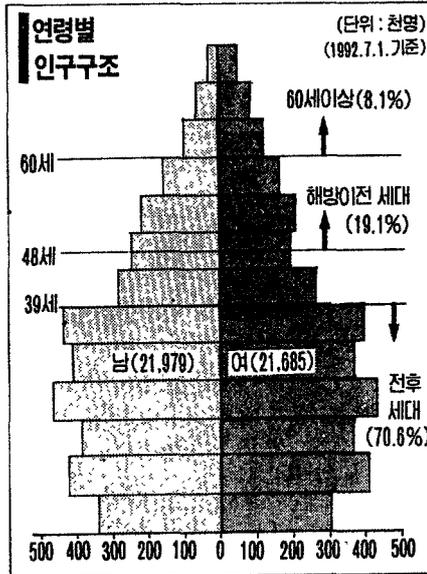
특히 15~19살의 젊은층 인구증가율은 이미 9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20~24살은 오는 95년경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3년 정도 뒤에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으로 30여년 동안은 여자보다 남자 인구가 계속 남아들 것으로 추정돼 결혼형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통계청이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이날 현재 4천3백66만3천명으로 추산됐다.

또 북한은 지난 1일 현재 2천2백33만6천명에 이르러 남북한을 모두 합한 인구는 6천5백99만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인구 규모로 볼 때 남한만으로는 세계 23위이며, 남북한을 합할 때는 14번째로 전세계 인구의 1.2%에 이른다. 남한의 인구는 92년 현재 47.6초마다 1명이 태어나고 1백25초마다 1명씩 숨져 결국 77.4초마다 1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하루 1천1백45명, 한해 41만8천명씩 증가하는 것이다.

또 남한의 인구밀도는 km<sup>2</sup>당 4백40명으로 홍콩



# 2021년 고비 감소로 돌아서

## 젊은층 증가율 줄어 3년뒤 노동력 부족 심화 2000년 결혼적령기 남자, 여자보다 19% 많아

필리핀 등 도시국가나 모나코 등 작은 섬나라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60년에 3.0%였던 평균 인구증가율은 70년에 2.0%로 낮아졌으며, 90년대는 0.93%로 1%를 밑돌았고 올해는 0.9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인구증가율이 오는 2000년에는 0.77%로 낮아져 2021년을 고비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인구구조도 크게 바뀌고 있다.

92년 현재 인구구조를 출생시기별로 보면 53년 이후에 출생한 전후세대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6%에 이르고 있으며 해방이후 세대는 80.9%나 되고 있다. 나이별로는 60살 이상, 65살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각각 8.1%, 5.2%로 60년대의 2.9%, 5.0%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선진공업국의 평균치인 17.1%, 12.1%보다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령인구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14살 이하의 나이가 적은 계층의 인구비율은 60년의 42.3%에서 올해는 24.8%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0~14살 인구나 65살 이상 인구를 15~64살의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부양비율은 43.2

%로 60년(82.6%)보다 역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처럼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도 60년에는 전형적 후진국형인 피라미드형에서 올해는 중형으로 바뀌었고 2020년경에는 선진국형인 함아리형으로 다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가 아직까지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아 경제개발에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30년 뒤에는 노인층 비율이 많아지면서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성별인구구조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여자 1백명당 남자 1백1.4명이지만 최근 들어 남아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0~4살의 경우 여자 1백명당 남자가 1백13.2명으로 남자가 훨씬 많고, 5~9살도 여자 1백명당 남자가 1백8.9명이나 돼 성별인구구조가 기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르게 될 15~20년 뒤부터는 현재와 같은 나이의 결혼상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혼 연령 등 결혼형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은 현재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자(25~29살)와 여자(20~24살)는 균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2000년에는 결혼 적령기의 남자 인구가 여자보다 19.4%나 많아지고 2010년경에는 남자가 무려 28.6%나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현만 기자>

社說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7월 1일 현재까지의 인구조사 통계이다. (수정치) 4월 1일 57,700,000명이다. 보아 3년간의 인구증가가 1,600만 명인 2.8%에 불과하다. 7월 1일 59,000,000명인 2.1%의 인구가 새로 태어났으며 1,400만 명이 사망하여 인구가 57,600,000명인 1%의 인구가 감소된 것이다. 4월 1일 57,700,000명인 인구가 7월 1일 59,000,000명인 인구가 된 것이다. 인구가 13%증가한 것이다. 인구의 83%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인구의 13%가 65세 이상이다. 인구의 49%가 여성이다. 인구의 51%가 남성이다. 인구의 7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의 3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92년의 인구가 59,000,000명으로 91년의 인구가 57,700,000명보다 1,300,000명(2.2%) 증가했다. 91년의 인구가 56,400,000명(83%)인 반면 92년의 인구는 59,000,000명(88%)으로 증가했다. 인구의 83%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인구의 13%가 65세 이상이다. 인구의 49%가 여성이다. 인구의 51%가 남성이다.

인구조사 결과 92년 7월 1일 현재까지의 인구증가율이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율은 1991년의 인구증가율인 0.9%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1990년에는 1.0%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89년의 인구증가율인 1.1%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88년에는 1.2%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87년의 인구증가율인 1.3%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86년에는 1.4%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85년의 인구증가율인 1.5%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84년에는 1.6%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83년의 인구증가율인 1.7%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82년에는 1.8%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81년의 인구증가율인 1.9%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80년에는 2.0%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79년의 인구증가율인 2.1%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78년에는 2.2%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77년의 인구증가율인 2.3%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76년에는 2.4%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75년의 인구증가율인 2.5%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74년에는 2.6%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73년의 인구증가율인 2.7%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72년에는 2.8%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71년의 인구증가율인 2.9%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70년에는 3.0%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69년의 인구증가율인 3.1%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68년에는 3.2%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67년의 인구증가율인 3.3%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66년에는 3.4%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65년의 인구증가율인 3.5%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64년에는 3.6%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63년의 인구증가율인 3.7%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62년에는 3.8%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61년의 인구증가율인 3.9%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60년에는 4.0%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59년의 인구증가율인 4.1%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58년에는 4.2%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57년의 인구증가율인 4.3%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56년에는 4.4%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55년의 인구증가율인 4.5%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54년에는 4.6%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53년의 인구증가율인 4.7%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52년에는 4.8%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1951년의 인구증가율인 4.9%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1950년에는 5.0%로 인구가 증가했다.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고용대책

이런 불황적인 추세가 계속되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증가율은 92년과 91년과 마찬가지로 0.9%에 불과하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1.0%와 1.1%보다 낮아졌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1.2%와 1.3%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1.4%와 1.5%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1.6%와 1.7%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1.8%와 1.9%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2.0%와 2.1%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2.2%와 2.3%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2.4%와 2.5%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2.6%와 2.7%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2.8%와 2.9%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3.0%와 3.1%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3.2%와 3.3%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3.4%와 3.5%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3.6%와 3.7%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3.8%와 3.9%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4.0%와 4.1%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4.2%와 4.3%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4.4%와 4.5%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4.6%와 4.7%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4.8%와 4.9%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5.0%와 5.1%보다 낮아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7월 1일 현재까지의 인구조사 통계이다. (수정치) 4월 1일 57,700,000명이다. 보아 3년간의 인구증가가 1,600만 명인 2.8%에 불과하다. 7월 1일 59,000,000명인 2.1%의 인구가 새로 태어났으며 1,400만 명이 사망하여 인구가 57,600,000명인 1%의 인구가 감소된 것이다. 4월 1일 57,700,000명인 인구가 7월 1일 59,000,000명인 인구가 된 것이다. 인구가 13%증가한 것이다. 인구의 83%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인구의 13%가 65세 이상이다. 인구의 49%가 여성이다. 인구의 51%가 남성이다.

이런 불황적인 추세가 계속되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증가율은 92년과 91년과 마찬가지로 0.9%에 불과하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1.0%와 1.1%보다 낮아졌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1.2%와 1.3%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1.4%와 1.5%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1.6%와 1.7%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1.8%와 1.9%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2.0%와 2.1%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2.2%와 2.3%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2.4%와 2.5%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2.6%와 2.7%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2.8%와 2.9%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3.0%와 3.1%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3.2%와 3.3%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3.4%와 3.5%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3.6%와 3.7%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3.8%와 3.9%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4.0%와 4.1%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4.2%와 4.3%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4.4%와 4.5%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4.6%와 4.7%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4.8%와 4.9%보다 낮아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증가율인 5.0%와 5.1%보다 낮아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7월 1일 현재까지의 인구조사 통계이다. (수정치) 4월 1일 57,700,000명이다. 보아 3년간의 인구증가가 1,600만 명인 2.8%에 불과하다. 7월 1일 59,000,000명인 2.1%의 인구가 새로 태어났으며 1,400만 명이 사망하여 인구가 57,600,000명인 1%의 인구가 감소된 것이다. 4월 1일 57,700,000명인 인구가 7월 1일 59,000,000명인 인구가 된 것이다. 인구가 13%증가한 것이다. 인구의 83%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인구의 13%가 65세 이상이다. 인구의 49%가 여성이다. 인구의 51%가 남성이다.

都市가쿠  
살림살이

月 129만 3천원 벌고

쓰고 남은건 月31만원

작년同期比 소득23.4%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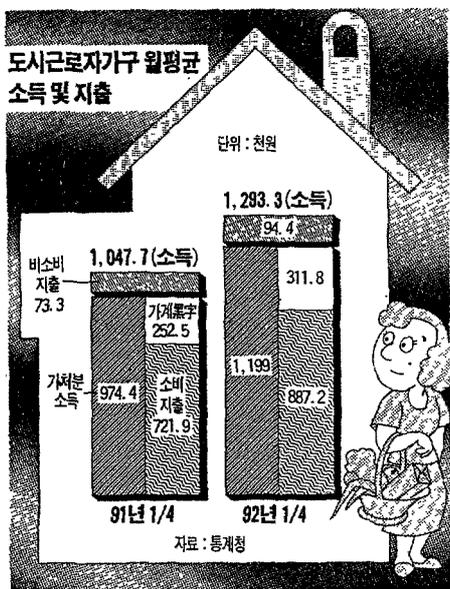
外食·교양·오락비 급증

통계청 발표 「1.4분기 家計收支동향」

통계청 발표 「1.4분기 家計收支동향」에 따르면 1.4분기 가계총소득은 1,293.3천원(소득)으로 전년 동기보다 23.1% 증가했다. 1.4분기 가계총지출은 1,047.7천원(소득)으로 전년 동기보다 7.3% 증가했다.

1.4분기 가계총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23.1%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부담 경감과 공적연금 지급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계총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7.3% 증가했는데, 이는 생활비 상승과 소비심리의 회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식(33.1%)과 교양·오락(29.6%) 분야의 지출이 크게 늘었다. 이는 소득 증가와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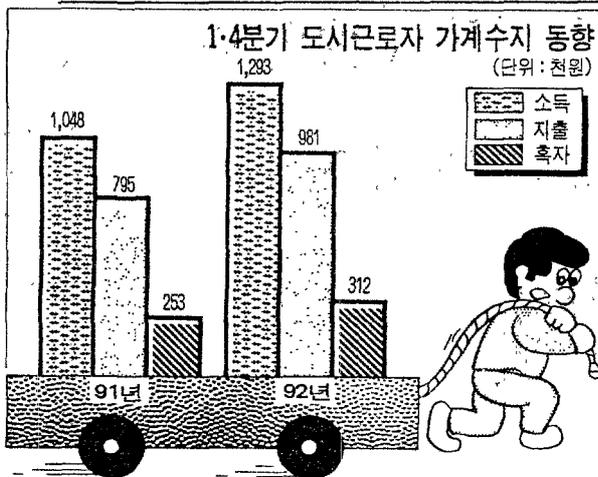


〈그림: 朴春奘기자〉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천원)

구분	91 1/4		92 1/4		증가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소비지출	721.9	100.0	887.2	100.0	22.9
식료품	214.6	29.7	252.2	28.4	17.5
주거	28.1	3.9	31.6	3.6	12.5
생활·서비스	41.4	5.7	44.7	5.0	8.0
가구·가사	38.8	5.4	45.6	5.1	17.5
휴식·문화	54.7	7.6	73.0	8.2	33.5
의료	39.8	5.5	48.3	5.5	21.4
교육	98.4	13.6	130.0	14.7	32.1
교통	60.3	8.4	72.8	8.2	20.7
기타	145.8	20.2	188.9	21.3	29.6

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5% 늘었다. 특히 교육(32.1%)과 오락(29.6%) 분야의 지출이 크게 늘었다.



1.4분기 중 우리나라에 평균 1백28만3천원 도시근로자 가구의 생활비를 벌어들인 98만1천원

# 도시들자각 赤字 23.3% 늘었다

## 통계청 1.4분기 收支동향조사

순소득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14.9%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3%로 전년보다 9천%가 늘었다.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92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증근로소득은 가구수가 84.2%(1백8만8

# 月百29萬원벌어 31萬원남겨

외식비 지출 31% 늘어  
租稅 등 「非소비」 급증세  
주거費는 증가폭 둔화

등 이전소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99만7천원, 나머지 9.6%(9만4천원)은 세입 등 비소비지출로 나타났다. 작년에 산출액에 따라 12.5%

쓰고 31만2천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소득은 24만3천원 늘어났고 지출은 18만9천원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율은 23.4%로 같았다. 불가산

천원), 나머지 15.8%(20만5천원)은 부양가족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전년 1.4분기에 비해 22.2%, 기타소득은 30.3% 각각 증가했다. 기타소득에서는 부조금

이 차지하는 비중은 71.3%로 전년보다 조금 낮아진 반면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비중은 높아졌다. 지출중 소비지출은 90

비해 소비지출은 22.9%, 비소비지출은 28.8% 각각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소득증가에 따라 조세부담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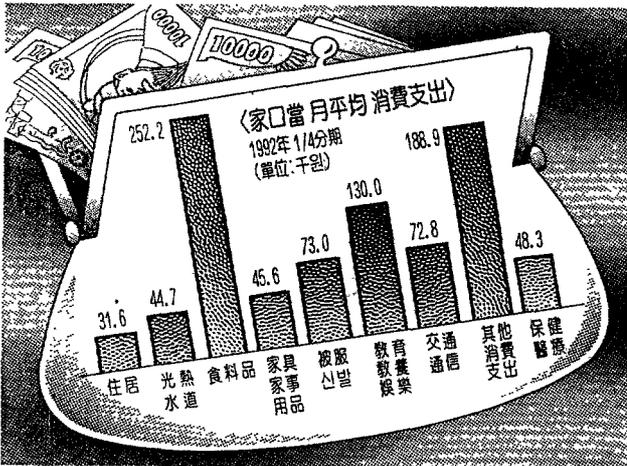
소비지출 증가추세를 분야별로 보면 피복신발이 33.5%(1만8천원)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다음으로 교육·교양(32.1%, 3만2천원), 보건 의료(21.4

% 증가한 데 그쳤다. 식료품비(17.5%, 3만8천원) 증가율은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인 영월계수는 28.4%로 작년의 비에 1.3%포인트 낮아졌다. 여가선용 및 물가 상승으로 외식비 지출은 31.4%나 증가한 반면 주식인·과류는 식생활 형태변화로 작년에 비해 9.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1백19만9천원으로 작년(97만4천원)에 비해 23.1%(22만5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74%로 작년에 비해 0.1% 낮아졌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지출 증가분의 비중인 한계소비성향은 73.6%로 작년(51.8%)보다 크게 높아졌다.

▲ 盧應根 기자 ▼

# 도시가계 한달평균소득 129만원

## 소득 23% 증가에 稅金은 37% 늘어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가계 1인당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29만3천3백4원(실질)로 작년 동기 1백4만1천3백4원(실질)에 비해 23% 증가했다.

### 통계청, 1분기 가계수지동향 발표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보다 세금이 더 부과된 소득으로 늘어나는 가계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1·4분기중 도시가계 1인당 가구의 조세부담증가율이 3년만에 처음으로 소득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가산

# 稅부담 늘어 收支 압박

## 소비고급화·의식비등 급증 黑字 31만원... 증가율 제자리

가계소득을 원천별로 보면 도시가계 소득이 평균 1백8만8천4백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2%(실질) 증가했다. 13·8% 늘었고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등 기타 소득은 20만4천9백원으로 30.3%(실질) 21.9% 증가했다. 점차 부동산 임대수입 등 재산소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은 월급, 국민연금 등 비소비지출(9만4천4백원)은 37·7%의 높은 증가율을 보

인 조세부담 증가 등으로 평균 28·8% 늘었고, 소비지출(88만7천2백원)은 22·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증대에 도 불구하고 가계수지(은)에 대해서는 비소비지출을 뺀 나머지 1백19만9천원(은)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가계수지 흑자액은 31만1천8백원으로 흑자율이 작년(25·9%)과 비슷한 2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4분기중 소비지출 가운데 신품품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영끌계수는 28·4로 작년 동기보다 1·3포인트 낮아졌으며 신품품비중의 소비지출은 작년보다 31·4% 증가, 소비의 고급화 추세를 반영했다.

# 月 129만원 벌어 98만원 썼다

올 1·4분기중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29만3천3백원으로 작년동기의 1백4만7천7백원에 비해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7.4%)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14.9%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득증대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 및 소비비교급화로 인해 가계의 씹씀이 또한 큰폭으로 늘어나 지난 1·4분기중 월평균 지출은 98만 원

**所得·支出**

도시근로자가구

**23.4% 증가**

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3.4% 증가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중 가계소득은 원천별로 보면 △근로소득이 평균 1백8만8천4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2.2%(실질 13.8%) 늘어났고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등 기타소득은 20만4천9백원으로 30.3%(실질 21.3%) 늘어났다.

統計廳, 1·4분기 가계수지 작년과 비교

와 비교하면 3.7% 늘어난 것이다. 또 이 기간중 월평균 가계 지출 가운데 소비지출은 88만7천2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2.9% 증가한 반면 서비스비지출은 9만4천

## 엔젤계수 하락·外食費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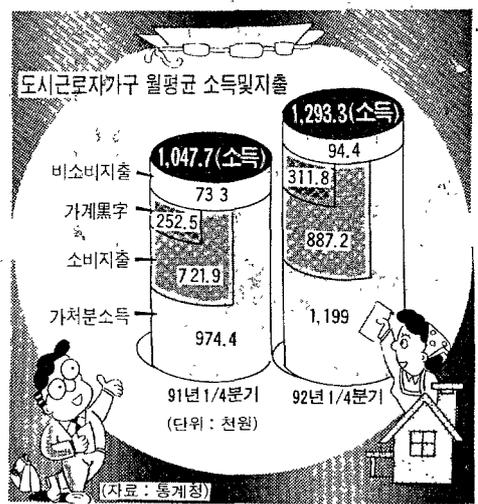
### 租稅 부담은 37.7%나 늘어

1·4분기중 도시가계소득을 전분기인 작년 4·4분기

보다 소득 가운데 가구주의 소득은 21.4%의 증가에 그친 반면 가구원의 소득은 이보다 높은 27.2% 늘어났으며 기타소득은 사업 및 부업소득이 22.3%, 재산 및 이전소득이 32.1%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소득에서 가구주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1.3%로 작년동기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한 반면 △재산 및 이전소득(13.2%) △가구원 근로소득(12.9%) △사업 및 부업소득(2.6%) 등은 모두 약간씩 비중이 높아졌다.

4백원으로 2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세부담액은 작년동기에 비해 무려 37.7% 늘어나 이 기간중 전체 소득증가율(23.4%)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4분기중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 전체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나머지 소득(은 1백19만9천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3.1% 늘어났으며 이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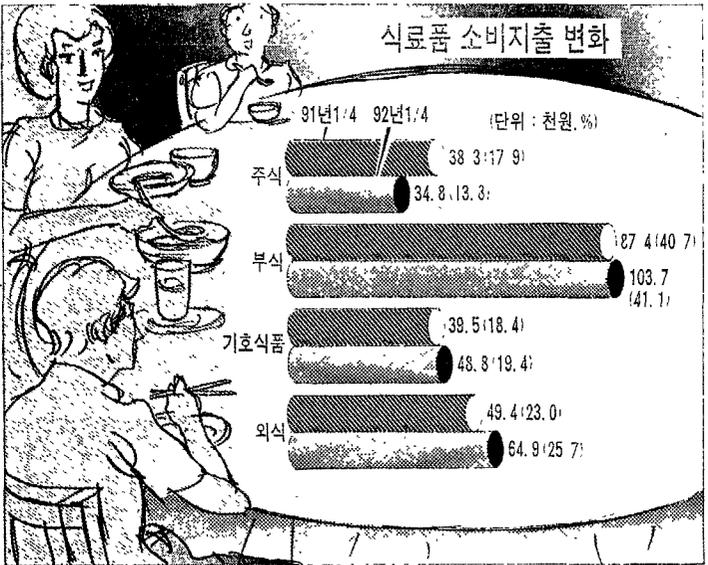


이와 따라 소비지출중 신품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면 「엔젤계수」는 기간중 28.4로 작년동기에 비해 1.3포인트 높아졌다. 신품품비가운데는 외식지출이 31.4%나 증가 소비고급화 추세를 반영하고 기호식품과 패션은 각각 23.5% 18.6%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主食인 곡류류는 신선품패션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石▼

평균 소비성향은 74%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74.1%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또 기간중 가계수지 흑자액은 31만1천8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3.3% 늘어났으며 흑자율은 26%를 기록, 작년동기보다 0.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신품품비는 25만2천2백원으로 17.5%의 증가에 그친 반면 △피복 신발(33.5%) △교양 교양 오락(32.1%) △기타 소비지출(29.6%) 등의 비교적 큰폭으로 늘어났으며 △관광 수도비(8%) △주거비(12.5%) △가구사용품(17.5%) 등도 각각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따라 소비지출중 신품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면 「엔젤계수」는 기간중 28.4로 작년동기에 비해 1.3포인트 높아졌다. 신품품비가운데는 외식지출이 31.4%나 증가 소비고급화 추세를 반영하고 기호식품과 패션은 각각 23.5% 18.6%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主食인 곡류류는 신선품패션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石▼

# 가라앉던 過消費 蓬조 다시 "꿈틀"



## 도시근로자 1分期 가계분석

▶ 1분기 중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은 규모 면에서 소득증가보다 낮은 비율로써 소비증가가 한 줄 쫓아나갔다고 나타났다.

▶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반면 소득은 9% 늘어난 데 그쳤다. 증가율만 보면 소득이 늘어난 데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떨어

# 옷·신발·外食費 稅부담 증가율

▶ 그러나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저분소득층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아직 과소비 열풍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 그러나 전체소득 가운데 세금을 非소비지출을 제외한 저분소득층이 1분기에 1백 19만 원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1%밖에 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소비증가세가 부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1분기 중 도시근로자가구가 벌어들인 평균소득은 1백 28만 3천 3백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보다 23.4% 증가했다. 이 가

특히 소비유구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가처분소득중가분종 소비지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분기중 73.6%로 작년 1분기의 51.8%에 비해 21.8%포인트나 높아진 사실인 과소비 경향이 여전의 잔폭해 있음을 보여준다. 한계소비성향이 73.6%라 그 정도가 처분소득의 1만 원에 이르면 이 가운데 7천3백60원을 소비하는데 쓴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소비지출의 용도별 내역을 들여다 보면 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비의 폭도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의 질이 더욱 빠를 수도 있다고 할만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의 7.6%, 13.6%에 각각 8.2%와 14.7%로 증가했다.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52.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등크게 늘고 고급화와 소득수신장을 앞질러

특히 이같은 수치가 지난 89년의 91.1%나 90년의 80.4%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지난해 한계소비성향이 50%대로 특 별이 저명저 과소비경향이 사라졌을 조건을 보면 이후 다시 수직상승으로 돌아선다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다.

나해 1분기중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와 5.7%에서올 1분기에 는 각각 3.6%와 5.0%로 떨어졌다. 반면에 피복·신발비용과 교육·공연·오락·스포츠 1분기에 전체 소비지출을 합친 것으로 33.5%와 32.1%씩 늘면서 비중이

한 지출은 31.4%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에 이처럼 생활화면이 바뀌면서 主食인 쌀·보리등 부를름 소비는 前年 同期 대비 9.1% 감소했다.

이밖의 식품·주방용품의 고급화 추세와 高價수입품사회의 번번해져 30.4% 높아졌고 정부 인건비의 상승이며 家事

# 건설업大好況 누렸다

## 통계청 집계 발표

작년도 국내건설공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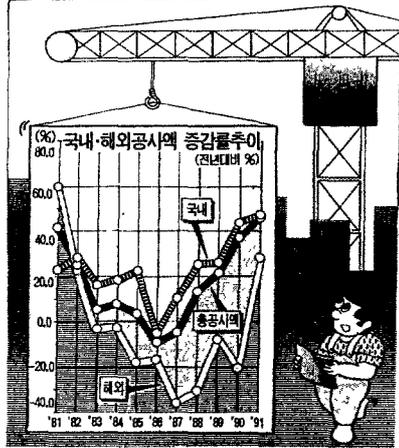
은 38조 1천 6백 91억 원으로 90년(27조 5천 9백 24억 원)에 비해 47.2%나 증가

가, 8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건설공사액은 2조

통계청 14일 발표한 「91년도 건설업동태조사 잠정집계결과」에서 이같이

회복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91년말 현재 건설업 관련업종을 갖고 건설업총액을 한 사업체는 1만 9천 4백 70개로 이를 업체에서는 월평균 1백 7만 8천명의 종사자와 6조 5천 3백 70억원의 유흥고정자산으로 작년 한해동안 모두 40조

각각 46.1%, 45.5%, 49.8%나 크게 증가했다. 국내건설부문에서 사업체 1개당 평균 공사액은 19억 6천 41만원으로 90년(14억 3천 4백 62만원)에 비해 36.7% 부가가치는 10억 62만원으로 38.5% 각각 증가했다. 한편 80년 이후 해외건설공사액의 추이를 보면 82년까지는 계속 큰 폭으로 증가, 총공사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81년(5.6%), 82년(5.4%)은 절반의 상이었다. 그러나 그후 국내건설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해외건설은 총공사액에서의 수부추진비율이 80년 3.1%, 81년 3.4%, 82년 3.7%, 83년 3.8%, 84년 4.5%, 85년 5.3%, 86년 5.5%, 87년 5.3%, 88년 5.3%로 나타났다.



## 작년공사액 38兆 : 47% 늘어

### 海外부문도 증가 : 부가가치 창출 50%나

1천 3백 87억 원으로 90년(1조 6천 6백 46억 원)에 비해 28.5% 증가하면서 83년 이후의 계속된 감소세에서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총공사액중 해외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져 작년엔 5.3%로 나타났다.

국내건설공사액은 주택, 사무실 등 건축부문과 도로, 항만 등 토목부문에서 크게 증가, 90년 44.8%의 이어 2년 연속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해외건설공사액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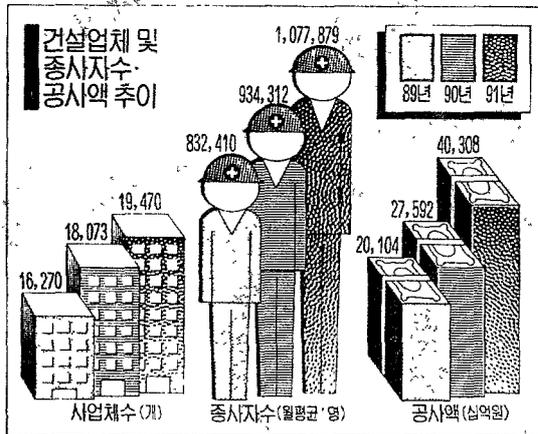
3천 80억원의 공사실적을 올린 19조 9천 8백 8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90년에 비해 사업체수 증가 7.7%, 15.3%, 27.1% 증가했으나 공사액 증가 비율 부가가치는

각각 46.1%, 45.5%, 49.8%나 크게 증가했다. 국내건설부문에서 사업체 1개당 평균 공사액은 19억 6천 41만원으로 90년(14억 3천 4백 62만원)에 비해 36.7% 부가가치는 10억 62만원으로 38.5% 각각 증가했다. 한편 80년 이후 해외건설공사액의 추이를 보면 82년까지는 계속 큰 폭으로 증가, 총공사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81년(5.6%), 82년(5.4%)은 절반의 상이었다. 그러나 그후 국내건설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해외건설은 총공사액에서의 수부추진비율이 80년 3.1%, 81년 3.4%, 82년 3.7%, 83년 3.8%, 84년 4.5%, 85년 5.3%, 86년 5.5%, 87년 5.3%, 88년 5.3%로 나타났다.

〈盧應根기자〉

# 건설업 작년 최대好況 누렸다

공사액 40조 78년 이후 증가율 최고기록



## 부가가치만 20조... 50% 증가 海外부문도 「大水路」 수주 영향 활황

이달엔 건설업체주주의  
도 불어나는 지난해보다  
건설업체가 2백만개 증가  
건설업체의 인원은 80년  
들어 최대인 1천만명  
로 뛰어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도 건설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1만9천4백여  
개로 늘었다. 이는 80년  
건설업체가 1만7천8백  
여개보다 46.1%  
나 증가했다.

이달엔 증가율도 19.3%  
에 달한다. 이는 87년  
가장 높았던 18.3%이후  
가장 낮은 16.2%로  
떨어졌던 지난해보다  
2.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편, 건설업체의  
인원은 80년 832만4  
천명에서 지난해 934만  
3천1백22명으로 12.1%  
증가했다. 이는 87년  
1천1백79만명에  
달했다.

다. 세계공판과  
감사관비 및 복리후생비  
임금 및 과세금 등  
으로 80년대보다 81년  
44%를 고비로  
작 85년 마인스 6% 87  
년 마인스 10.2%까지  
내려갔다. 89년 27.3%  
90년 44.9%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부가가치만 20조... 50% 증가  
海外부문도 「大水路」 수주 영향 활황

부가가치만 20조... 50% 증가  
海外부문도 「大水路」 수주 영향 활황

건설업체수 1만9천4백70  
개로 전년보다 1천3백97  
개가 늘었고 월평균 건설  
업종사자수도 1백7만7  
천8백70명으로 1년동안  
15.3%가 증가했다.

건설업체수 1만9천4백70  
개로 전년보다 1천3백97  
개가 늘었고 월평균 건설  
업종사자수도 1백7만7  
천8백70명으로 1년동안  
15.3%가 증가했다.

건설업체수 1만9천4백70  
개로 전년보다 1천3백97  
개가 늘었고 월평균 건설  
업종사자수도 1백7만7  
천8백70명으로 1년동안  
15.3%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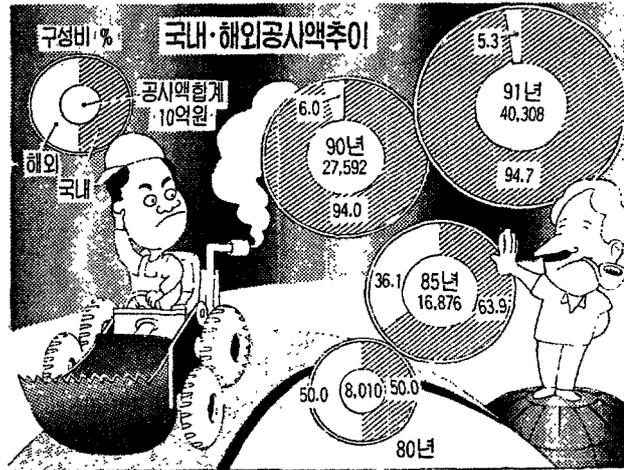
건설업체수 1만9천4백70  
개로 전년보다 1천3백97  
개가 늘었고 월평균 건설  
업종사자수도 1백7만7  
천8백70명으로 1년동안  
15.3%가 증가했다.

건설업체수 1만9천4백70  
개로 전년보다 1천3백97  
개가 늘었고 월평균 건설  
업종사자수도 1백7만7  
천8백70명으로 1년동안  
15.3%가 증가했다.

건설업체수 1만9천4백70  
개로 전년보다 1천3백97  
개가 늘었고 월평균 건설  
업종사자수도 1백7만7  
천8백70명으로 1년동안  
15.3%가 증가했다.

건설업체수 1만9천4백70  
개로 전년보다 1천3백97  
개가 늘었고 월평균 건설  
업종사자수도 1백7만7  
천8백70명으로 1년동안  
15.3%가 증가했다.

건설업체수 1만9천4백70개로 전년보다 1천3백97개가 늘었고 월평균 건설업종사자수도 1백7만7천8백70명으로 1년동안 15.3%가 증가했다. (權赫燦기자)



### 内需건설 최대 호황

작년 공사액 38兆... 47% 증가

지난해 해외건설 공사액은 지난 83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공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채, 81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해외공사 비중은 5.3%에 그쳐, 지난 81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14일)의 건설업동계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국내공사액(표고기준)은 88조1천6백91억원으로 89년에 비해 47.2%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8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정부의 주택 2백만 가구 건설계획 조기에 실현을 위한 노력에 따른 것으로, 건설-부동산업의 선진화 및 주택 보급을 위한 정책이 큰 몫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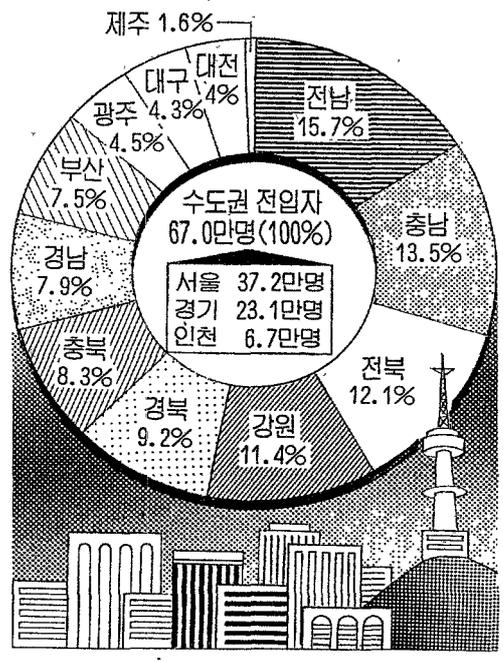
해안건설 공사액도 2조1천3백87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의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 83년 이후 처음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 서울-釜山人口 줄었다

## 작년 전국 8백98만명 이동... 衛星도시로 몰려

### 집값비싸 脫大도시 현상 뚜렷

91년 수도권 전입자의 前거주지



부동산경기의 진정성에 따라 수도권에 유입된 인구의 증가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서울-부산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의 인구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대도시가 텅텅 비는 광역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또 충청인구가 이미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도시로 인구는 사 람수가 줄어들지만 도시 집 중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인구 이동 집계 결과」를 보면 전출인구보다 대도시권(수도권)의 결 계를 넘어 주거지를 옮긴 총인구가 8백98만1천 명으로 지난해의 9백45만9천명의 비해 47만8천 명(0.1%)이 늘었다.

인구이동규모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 전체 계약기산연장, 이사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 이동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작년도 인구 1백만명 20.6명이 이동한 것으로 지난해 이후 가장 큰 인구수준에 기록됐다. 한편 전체의 32.9%인 2백95만9천명으로 인구 1백만명 6.8명들이고 도시 내에서 주소를 옮긴 사람은 6백2만9천명으로 1백만명 13.8명들이었다. 또 △광역시에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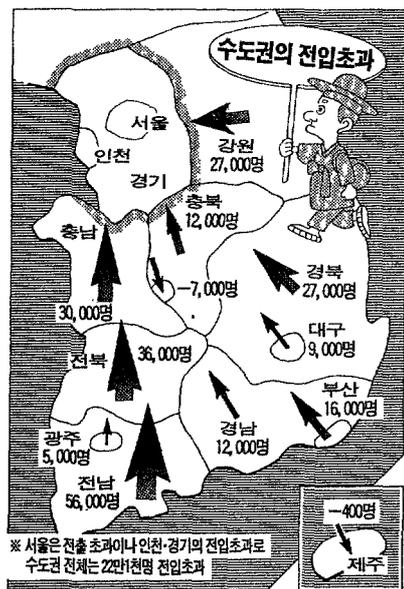
으로 이동한 사람은 1백11만4천명 △광역시에서 76만2천명을 기록, 결과적으로 도시인구가 35만2천명이 증가하고 인구의 도시집중양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90년 9만1천명이 줄었는데 이 어 작년에도 3만4천명이 줄었고 부산도 작년 3만6천명이 줄었다.

또 작년의 수도권으로 이동한 67만명의 前거주지는 全南이 10만9천명(15.7%)으로 가장 많았고 全南 北 江原도 10%이 상의 비중을 나타냈다.

# 서울로 이사 湖南이 최다

통계청 人口이동 조사 작년 轉入者중 35% 차지

## 서울·釜山「떠나」는 사람「많다



<그림—金弘권기자>

지난 한해동안 수도권에 이주한 인구는 22만1천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로 이주한 인구는 27,000명, 부산으로 16,000명, 경북으로 27,000명, 경남으로 12,000명, 충북으로 12,000명, 충남으로 30,000명, 전북으로 36,000명, 전남으로 56,000명, 광주로 5,000명, 제주로 400명이었다. 수도권 전체는 22만1천명 전입초과

사람이 떠나는 서울만을 보더라도 서울로 이주한 인구는 27,000명, 부산으로 16,000명, 경북으로 27,000명, 경남으로 12,000명, 충북으로 12,000명, 충남으로 30,000명, 전북으로 36,000명, 전남으로 56,000명, 광주로 5,000명, 제주로 400명이었다. 수도권 전체는 22만1천명 전입초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는 10만9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충청남도가 30,000명, 전북이 36,000명, 전남이 56,000명, 광주가 5,000명, 제주가 400명이었다. 수도권 전체는 22만1천명 전입초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는 10만9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충청남도가 30,000명, 전북이 36,000명, 전남이 56,000명, 광주가 5,000명, 제주가 400명이었다. 수도권 전체는 22만1천명 전입초과

있어 수도권집중 완화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계속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91년 인구이동 통계청 집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9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여전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脫서울현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주변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 시골→大都市→ 위성都市

## 인구「J」커브 현상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91년 인구이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J」커브 현상을 보였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인구가 줄어든 반면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25만 7천 4백 60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된 반면 8백 56명이 수도권 밖으로 유출되었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인구집중 현상을 보여준다.

확충과 도농개편도 脫서울 현상과 대도시 주변 지역의 인구집중을 촉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교통난과 주택난을 대도시 문제를 유발하여 이로 인한 도시의 질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 8백 23만 9천 9백 99명(91년 9만 9백 92명) 증가로 집계됐다. 부산도 90년(9만 4천 8백 60명)에 이어 지난해다 시 3만 5천 5백 48명의 유출을 기록했다.

지역별 시도간 인구이동 추이

지역	90년		91년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서울	754,071	845,063	673,187	710,066	△ 36,879
釜山	183,977	219,837	170,591	206,139	△ 35,548
大邱	139,089	140,566	136,226	133,762	2,548
仁川	249,092	132,407	214,021	133,623	80,398
光州	121,111	92,634	118,443	82,406	36,037
大田	102,219	68,756	104,827	68,212	36,615
京畿	767,411	516,900	663,011	485,949	177,062
江原	81,765	129,402	78,674	116,704	△ 38,030
忠北	84,646	102,225	85,848	96,979	△ 11,131
忠南	110,568	164,314	107,913	153,357	△ 45,444
全北	87,513	140,853	79,909	122,207	△ 42,298
全南	139,766	239,836	124,053	224,623	△ 100,570
慶北	169,187	219,140	164,861	212,169	△ 47,308
慶南	218,222	199,832	214,904	193,048	21,856
濟州	22,491	19,363	21,374	18,598	2,776

註:순이동이란 전입자수에서 전출자수를 뺀 것으로 91년 서울의 경우 3만 6천 8백 79명이 줄어 들었음을 의미한다.

확보체육시설, 문화시설, 도농개편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이들 신도시 개발에 이력차이를 줄이도록 기대된다.

## 총이동 898만명... 전국민의 20%가 이사 공해 住宅難 서울 부산 7만여명 빠져나가

전해 시·도별 인구가 이동하면 인구가 팽창하는 도양수준이 동자가 팽창한 지역이 전진지역인 타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를 총인구에서 빼고 10만 5천 700명이나 많은 지난해 87년 이래 해마다 10만명의 인구가 전출증과 이력차이를 줄이도록 기대된다. 이력차이를 줄이도록 기대된다. 이력차이를 줄이도록 기대된다.

〈林養振기자〉

## 작년 5명중 1명꼴 이사

천명으로, 총인구중 이동인구가 차지하는 인구가동률이 20.6%를 기록했다. 5명중 1명꼴로 이사를 한 셈이다. 이같은 이동률은 지난 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 이동 조사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가동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점이다. 지난해 자신이 살던 읍-면-동을 넘어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은 모두 8백98만1

우리나라의 인구가동률은 70년대 후반 이후 계속 20%를 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지난 88년 23.6%로 최고를 기록한 뒤 감소추세를 보이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지역으로 빠져나가던 「脫서울 현상」이 지난해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수그러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계약기간의 연장과 이 사비용의 증가도 이동률저 하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구가동의 또 다른 특징은 수도권지역으로 몰려오는 인구가 줄어 들었으며, 특히 서울로의 전입인구가 크게 감소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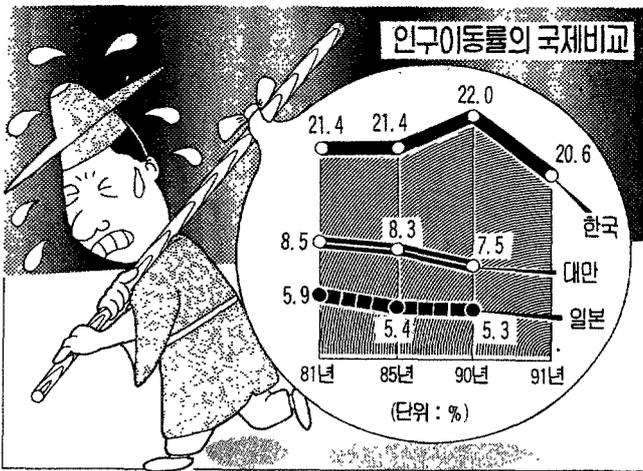
지난해 수도권으로 들어 온 사람은 총 67만3천명으로 90년보다 8만명의 감소했다. 대도시권의 집값 상승이 4년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로의 전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전체 수도권 전입자중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90년의 57.2%보다 크게 낮아진 55.5%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로 전입이었던 인구가 경기 인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부산 등 2대 도시 현상을 보였는데,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

## 인구가동 감소 추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가동률은 70년대 후반 이후 계속 20%를 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지난 88년 23.6%로 최고를 기록한 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들어 온 사람은 총 67만3천명으로 90년보다 8만명의 감소했다. 대도시권의 집값 상승이 4년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로의 전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전체 수도권 전입자중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90년의 57.2%보다 크게 낮아진 55.5%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로 전입이었던 인구가 경기 인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부산 등 2대 도시 현상을 보였는데,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로 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가동률은 70년대 후반 이후 계속 20%를 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지난 88년 23.6%로 최고를 기록한 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떠난 사람이 더 많아 인구가동률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년째 계속 들

사한 사람의 67만3천명,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은 71만명에 달해 전체적으로 3만7천명이 감소했다.

부산도 89년 이후 3년연속 전출증과목을 기록했는데

수도권 인구가동률 보면, 다른 시도로부터 전입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인천(11.2%), 경기(10.8%), 광주(10.3%), 대전(9.8%) 등으로 수도권 권지역 및 최근 직할시로 승격된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이 계속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장 많이 기록한 지역은 전남이 10명중 1명꼴인 9.4%나 됐으며, 다음으로 충남(8.1%), 경기(7.9%)가 많았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이사한 사람의 절반은 전주시별

10만5천명(15.7%)이었으며, 다음으로 충청(13.5%), 전북(12.1%) 순이었다. <承仁 기자>

# 人口 이동 줄었다

작년 100명당 20.6명꼴 이사

91년 시도별 인구이동 (단위: 천명)

전국	전입	전출	純이동
서울	2,437	2,474	▽37
충청	742	777	▽35
대邱	525	523	2
仁川	504	423	80
光州	356	320	36
大田	310	274	36
京畿	1,472	1,295	177
江原	252	290	▽38
忠南	259	270	▽11
忠北	221	267	▽46
全北	335	378	▽42
全南	320	421	▽101
慶北	449	496	▽47
慶南	723	701	22
濟州	75	72	3

※註: ▽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인구가 감소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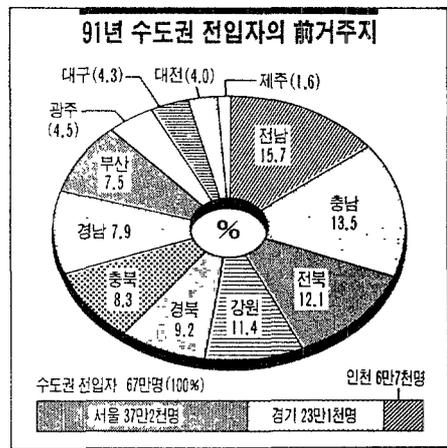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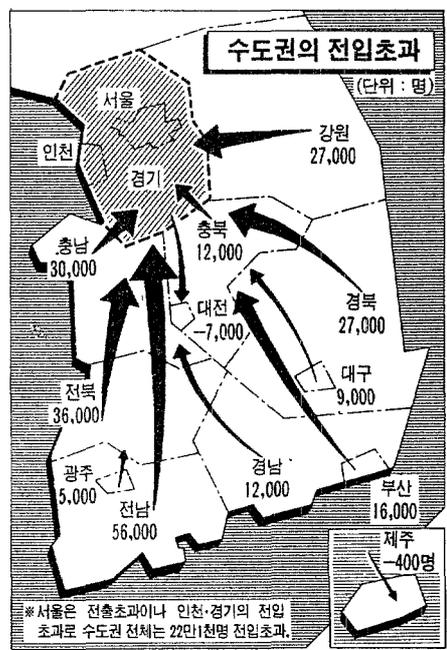
해동연호(海東連湖)면적계를 넘어 2백95만 2천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수도권은 1991년 20.6%인 8백8만 1천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 2백23만 9천 899명으로, 수도권 전체를 넘어 밀린 집으로 88만 2천 989명으로 조사됐다.

## 他鄉살이 이사 6.8%로 감소

### 수도권流入도 다소 둔화추세

#### “不動産진정·이사비용증가등원인”

인구이동이 줄었다. 부동산경기 진정, 전세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라 예년과 비해 「住居불안」 요인이 줄어들었다. 이사비용도 크게 줄었다. 가동할 만한 이사집사기를 꺼린 뒤 추세를 반영한 양면의 이동 흐름이 된다. 또 상업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양면의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또 상업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양면의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각각 22.0%에 비해 줄었다. 80년대 평균 28.4명에서 70년대 후반 21.1명으로 줄었다. 이는 수도권에 이사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으로 이사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으로 이사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전입자의 前거주지

수도권 전입자 67만명(100%)

- 서울 37만2천명
- 경기 23만1천명

수도권 전입자 67만명(100%)

- 서울 37만2천명
- 경기 23만1천명

地自體

# 統計 전문인력부족

## 경력 1년 미만 57% 90년보다 13%p 높아져

본지체적인 지방자치체 실시 시를 앞둔 91년도 지방통계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맡아 할 통계청의 전문인력 부족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의 전문인력 개개 통계작성기관을 상대부 통계청인력의 현상 조사를 한 결과, 91년 각 시·道·廳·縣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7월 31일 현재 통계청의 인력은 1,414명이며, 이 중 91년 4월 14일 통계청에서 5월 이상 경력 1년 미만이 807명(57%)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을 맡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1년 4월 14일 현재 통계청의 전문인력 1,414명 중 807명(57%)이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통계청에 담당관이나 통계청을 운영하면서 통계청의 전문인력을 담당해 인력을 배치해 기보하는 시·道·廳·縣의 보좌관이나 1년 미만의 경력 1년 미만이 807명(57%)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통계청에 담당관이나 통계청을 운영하면서 통계청의 전문인력을 담당해 인력을 배치해 기보하는 시·道·廳·縣의 보좌관이나 1년 미만의 경력 1년 미만이 807명(57%)으로 나타났다.

이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계청 담당관이나 보좌관 등 1년 미만의 경력 1년 미만이 807명(57%)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전문인력 부족에 따라 통계청의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지방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지도와 협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통계청에 담당관이나 통계청을 운영하면서 통계청의 전문인력을 담당해 인력을 배치해 기보하는 시·도·廳·縣의 보좌관이나 1년 미만의 경력 1년 미만이 807명(57%)으로 나타났다.

◇ 통계업무 경력별로 본 통계인력현황

(단위: 명, 괄호안은 구성비, %)

구분	90년			92년		
	1년 미만	1~5년	5년 이상	1년 미만	1~5년	5년 이상
계	852 (16.6)	1,854 (36.0)	2,442 (47.4)	1,067 (20.1)	1,728 (32.5)	2,518 (47.4)
정부기관	651 (14.7)	1,494 (33.6)	2,300 (51.7)	868 (19.3)	1,309 (29.1)	2,325 (51.6)
중앙행정기관	333 (9.0)	1,106 (29.7)	2,275 (61.3)	454 (12.0)	1,024 (27.2)	2,293 (60.8)
지방자치단체	318 (43.5)	388 (53.1)	25 (3.4)	414 (56.6)	285 (39.0)	32 (4.4)
민간기관	201 (28.6)	360 (51.2)	142 (20.2)	199 (24.5)	419 (51.7)	193 (23.8)

全經聯·商議·貿協등 주요단체 발표

통계조사

不實 많다

통계청, 올들어 百63건 조정조치

全經聯 大韓商議 貿易 협회 등 대표적인 국내경제 단체들이 공식 발표한 일 부 주요통계조사 결과와 조사방법상 차이나 잘못된 표현구성이므로 현실을 왜곡한 부실통계에서 부당기부 당부의 시정조치를 발의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시정조치를 발의한 내용이 경기동향, 수출산업실적, 기업인사회계조사 등의 경우, 그 단체들의 대표인원인원, 인력부족실태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주요영역에 관한 것들

이어서 이들 부실통계로 인한 여론왜곡과 조정조치 왜곡 등 후유증도 적지않은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이후 지난 6월 현재까

지 각종 통계기술통계 미비 점이나 통계법 위반사실이 적발돼 조정조치를 받은 통계는 모두 1백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건은 조사방법상 대표성이나 신뢰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통계법 위반으로 통계청이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말 국내 기업경영 자기조사 60% 이상이 고속 성장과 신성장산업의 재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판심을 모은 大韓商議의 1사 회간접자본 애로실태조사는 조사표 회수비율이 태조사 결과는 수출업 실적 집계만 대상으로 실시

인위적 표본조작등 현실왜곡 경제관련 현안 여론誤導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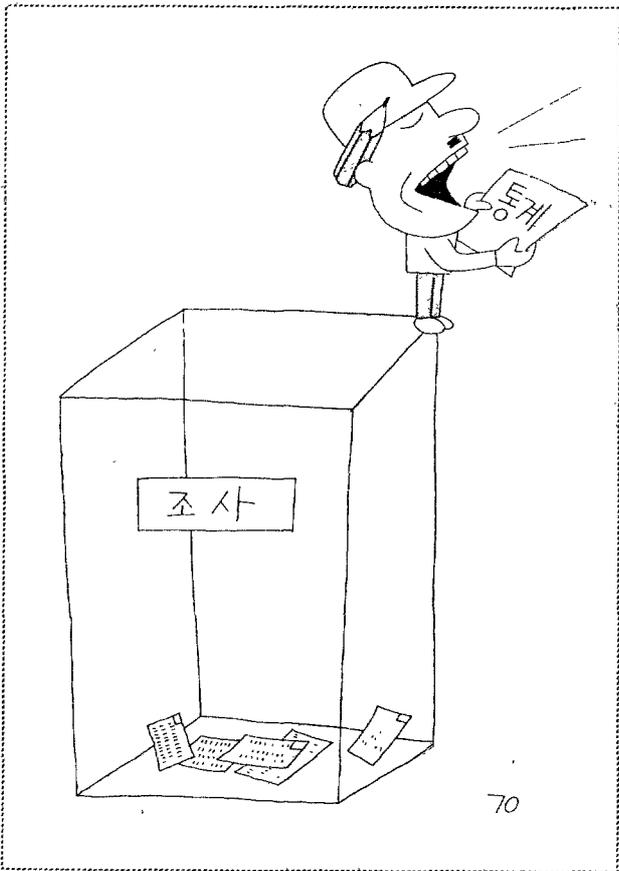
위반조사자 실질규제 法規없어 문제

한데다 조사표 회수율도 낮았으나 통계청 승인없이 발표, 시정조치를 받았다. 全經聯은 지난해 2월 통계청의 사전승인이 없었음에도 조사대상업체를 늘리고 조사기간 및 조사항목을 바꾸려다 적발됐다. 大韓商議는 올들어 ▲서울지역 임대보증금(6월) 조사에서 건물의 층별·위치별 임대료 차이를 무시했고 ▲산업내 근로행태 변화 및 노동의 질 제고방안(6월) 조사에서, 조사대상을 개별근로자가 아닌 사업체 단위로 설정하여 응답률 범행이며 ▲임대료 단수조사(1월)에서는 전국에서 불과 5백여 업체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도에 문제가 있는데도 마 치 통계법상 적법절차를 거친 공식통계인양 발표해 뒤늦게 내용을 수정하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7월 貿易 협회 발표인 수출산업 실적조사 결과에 수출업 실적 집계만 대상으로 실시

주요 경제단체들이 수출경기 노사관계 등 매우 민감한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통계기술통계문 제점에 대한 사전협의나 승인없이 결과를 마구 발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 「어떤 선인전이나 편견을 전제로 부실하게 작성된 통계는 국가 경제 정책수행이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통계법에는 통계조사에 불응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통계법상 어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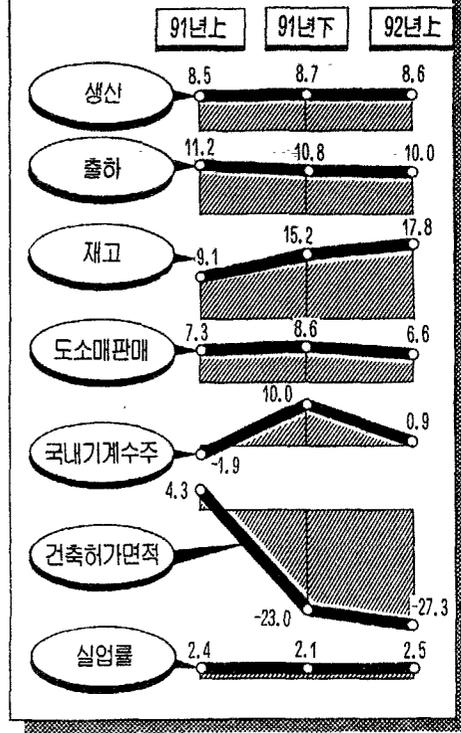
시정조치 같은 엄밀한 행정조치를 제의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金卿赫 기자】



70

###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지난 상반기중 국내 산업의 생산과 출하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각각 8.6%와 10%가 증가, 안정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소비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내수는 둔화되고 수출이 회복세를 보여 산업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비투자가 부진해 이기간중 설비투자의先行지표인 기계류 수주는 오히려 작년 상반기보다 2.9% 감소했고 기계류수입허가도 43.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발표 「상반기 산업활동 동향」

소비진정

내需둔화

수출회복

국내産業 「內實」

생산 9·출하

在庫 18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이기간중 산업생산은 前年同期對比 평균 8.6% 증가한 10%, 재고는 17.8%가 각각 증가했다. 재고가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내수소비둔화에 따른 것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계속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상반기중 생산과 출하가 각각 12.2%와 13.4%씩 늘었다. 특히 제조업은 보인 반면 정관업과 생산

이 0.7% 증가한 0.1% 증가에 머물러, 자본집약산업이 전체 산업활동의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內需둔화로 나 누어 보인 내수는 10.3%가 증가, 작년동기의 13.5%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진 반면 수출은 9.3%가 증가, 작년동기의 4.2%에 비해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석유정제, △선반, △전동기 대비 36.8%나 늘어난 것을 비롯, △선반(20.7%), △인쇄판(12.9%), △기타 비금속광물(12.1%), △기

# 다진다

## 10% 늘어

자년 同期 비교

### % 증가 企業 「 가장 큰 부담 」

다화학제품(11.1%) 등이 호조를 보인 반면 △의복(4.4% 감소) △음료제품(2.8% 감소) △고무제품(2.7% 감소) 등은 부진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가운데 올 상반기 중 평균 80.6%를 기록, 작년 상반기의 79.9% 하반기의 80.1%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올 상반기 중 설비투자도 매우 부진, 국내 기계수주는 평균 10%의 발전설비, 1%의 감소로 인해 작년 동기보다 23.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제품의 3.5%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은 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 대책 등에 따라 건축업가면적은 작년 동기에 비해 27.3%가 감소한 반면 국내 건설수주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가 증가한 가운데 건축(9.1%) 부문보다는 토목(37.8%) 부문

이 활기를 띠었다.

수리부품은 경제안정화 시책에 따라 뚜렷한 진정세를 나타내 상반기 중 노소매 판매는 6.6%가 증가하는데 그쳤고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7.1%에 머물러 작년 동기(14.4%)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경기총합지수는 지난 6월 중 선행지수가 1% 동행지수가 0.6%씩 각각 증가한 가운데 추세를 저지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수준을 나타냈다.

투자·消費 둔화

# 내需경기 진정

통계청 分析 을 상반기 産業활동 동향

수출용 생산·出荷 6월들어

건설受注額은

올 상반기 중 국외 산업용 생산·출하가 수출총액의 32.6%를 차지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가 줄어든 영향으로 내수경기가 진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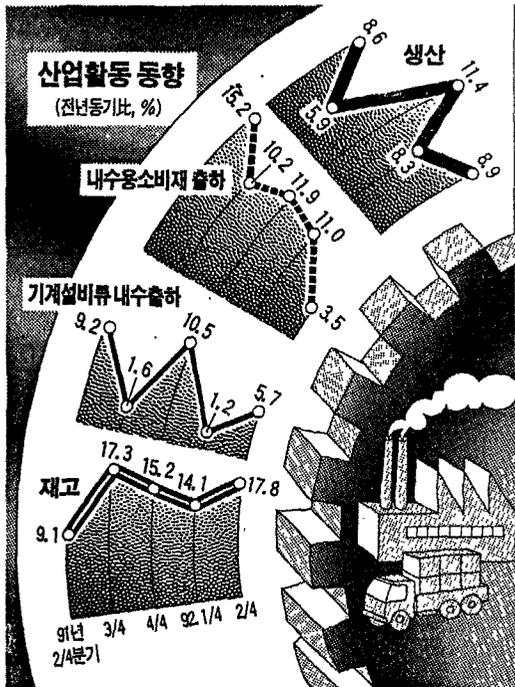
「92년 6월 및 상반기 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은 작년 같은 달보다 6.1% 증가한 반면 6월은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受注額은 내수·수출 모두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용(10.1%)은

景氣지표로 본 우리經濟

解説

올 상반기 산업활동동향은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경기침체의 영향이 「건설」이든 「제조」든 산업 전반을 타격을 주며 내수경기가 진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 박춘奭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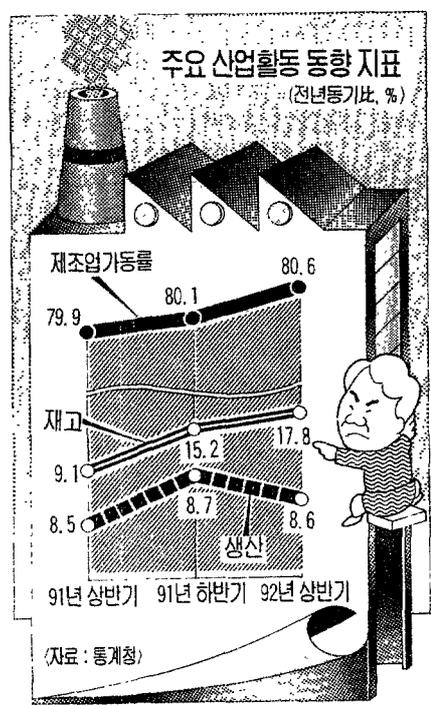


올 상반기중 각종 지표로 본 국내 산업활동 동향은 우리경제가 「거품」을 걷고 서서히 안정케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산업생산과 출하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는등 안정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과열경기를

대표하는 내수소비와 건설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부진, 국내 기계수주와 기계류 수입허가가 지난해보다 줄어 들었으며, 재고가 여전히 높고 쌓여있어 기업의 생산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품」 걷고 안정케도 진입

올상반기 산업활동 동향



생산·출하등 호조... 수출 회복세 내수소비·건설투자도 진정국면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올 상반기중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올 상반기중 산업생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8.6% 증가했고 출하는 10% 늘어나는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산업별로는 석유화학은 7% 증가가 가장 그쳐 자본기술 집약

수출비중 증대와 화공업은 생산과 출하가 각각 12.2%, 13.4% 늘어나는 호조를 보인 반면, 음식료품산업은 소비관련 경쟁기업 경쟁 심화로 0% 증가, 철강이 0.1% 증가, 기계가 0.1% 증가

업종이 산업활동 전체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또 내수용 출하는 10.3% 증가, 지난해 동기의 13.5%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수출은 9.3% 증가해 작년동기의 4.2%에 비해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제조업가동률은 상반기중 평균 80.6%를 기록, 지난해 동기의 79.9% 하반기의 80.1%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반기중 재고는 1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높은 집약적 업종의 상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책에 따라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동기 대비 27.3% 감소했으나 국내건설수주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증가했다. 소비부품도 경제안정화 시책에 따라 뚜렷한 진정세를 보여 상반기중 도산매 판매는 6.6% 증가하는데, 그쳤고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7.1%에 그쳐 작년동기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3% 감소했으나 국내건설수주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증가했다. 소비부품도 경제안정화 시책에 따라 뚜렷한 진정세를 보여 상반기중 도산매 판매는 6.6% 증가하는데, 그쳤고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7.1%에 그쳐 작년동기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지난 5월 감소세로 돌아서 경기침체의 조짐으로 해석됐던 경기선행지수도 6월에는 다시 1% 증가로 돌아섰고, 4~5월 연속 감소했던 동행지수도 6월에 0.6% 증가했다. 경제기획원의 女許錫동향 분석과장은 「상반기중 우리경제의 모습은 소비와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크게 둔화된 반면 생산과 출하가 호조를 보이고 비교적 높은 제조업가동률을 유지하는 등 점차 안정케도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불안정 요소가 많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음식, 숙박 등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가 제품 가동률이 많으며 건설투자가 역시 근린시설과 관광호텔, 다세대주택의 지난 6월말 건축규제 해제로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상반기중 국내기계수주는 지난해 동기보다 2.9% 감소했으며, 기계류수입허가는 무려 43.1%나 줄어 들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외화채권과 외화대출 한도를 확대 조정했기 때문에 기계류 수입허가는 늘어날 것이라고 경제기획원은 전망했다. <承仁培기자>

재고폭 증가-하반기 선거등이 불안요인

社說

下半年가 더 문제

물가정의를 올산반기중 산업활동...
다만 예외를 피하기 위해 행주관계 산업...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점차 가속...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미미한 것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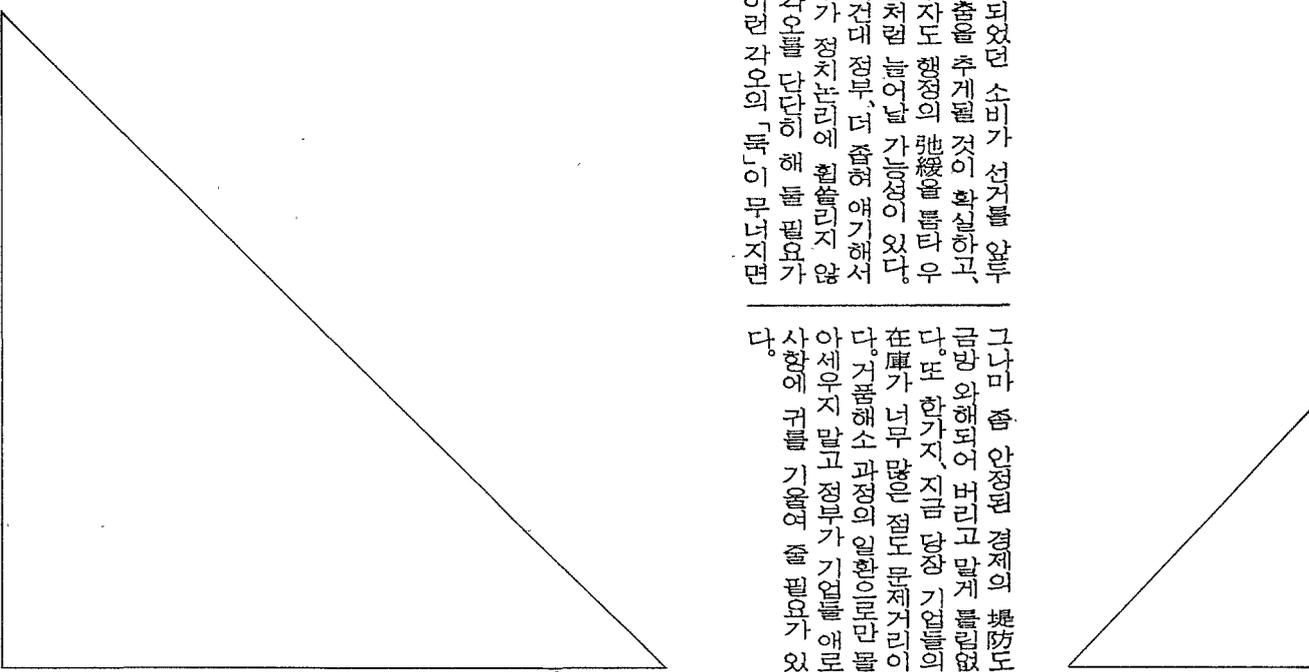
이런 원인이 국내산업의 어떤...
자 소비관련 인플레이션의 好況의 파동은...

점을 생각하면 수출의 그림이 완연...
다. 경제안정화도 그 내실화의...

이렇게 장마전이후 가뜩이나...
데도 한편이론을 하라기 경제의...

진정되었던 소비가 선거를 앞후...
고도 출몰 추계될 것이 확실하고...

그러나 좀 안정된 경제의提防도...
금방 와해되어 버리고 말게 될...



社說

경쟁력 강화안된 산업활동 好轉

통계청이 발표한 上半期산업활동동향과 상공부가 집계한 7월중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정부가 의도한대로 건설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소비 건설등 內需가 진정되면서 수출은 회복되어 무역적자가 줄어드는등 거품해소와 安定정착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적어도 指標만으로는 그렇다. 또한 6월중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비 1.0%의 증가로 반전되어 향후 경기가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보일것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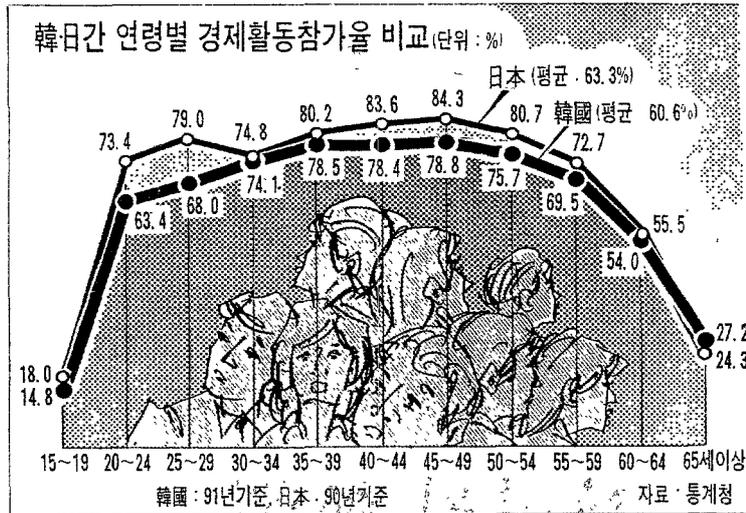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상반기중 산업생산과 出荷는 작년상반기보다 8.6%와 10.0%가 각각 늘어났으며 특히 출하는 내수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둔화된 반면 수출용 출하증가율은 4.2%에서 9.3%로 늘어나 수출부문의 회복세를 엿볼수 있게 한다. 7월중 수출이 작년동기보다 15.2%나 증가한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고무적 현상이다.

內需에서의 過熱이 진정된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이와함께 수출이 늘어난 현상도 아주 소중하다. 과연 이같은 지표상의 호전이 어느정도 眞實이냐는데 문제가 있다. 內需의 진정은 정책의지가 주요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수출이 늘어난 것이 경쟁력이 강화된 소산이라고

볼수 없는데에 안타까움이 있다. 앞으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는 잠재력이 커가고 있으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수 밖에 없다.

첫째로 수출이 늘것은 內需부진으로 허덕이고 있는 업체들이 出血수출에 나선데 따른 일시적 효과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국내 민간기계수주가 작년 하반기의 10%증가에서 올上半期에는 0.9%증가로 둔화되었고 기계류수입허가도 43.1%나 감소된것이 향후의 수출경쟁력을 제약할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아시아 4개新興工業國중 우리의 수출증가율이 아직도 가장 낮으며 미국 일본등 주력시장에서 시장占有率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이다.

더욱 경계해야 할 점은 상반기중 석유 화학 자동차 반도체등 자본 기술집약산업은 수출이 호조를 보인반면 섬유등 경공업부문은 부진을 면치못한 것을 산업구조 조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지금 한국에선 선진국의 경공업제품, 심지어 지우개에서 연필까지도 잘 팔리고 있다. 말하자면 衣類를 잘못 만들면 자동차도 잘 만들수 없다는 점을 산업고도화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표면적 지표의 호전에 현혹되어 현실경제의 고통과 경쟁력 저하 현상을 외면해선 안된다.



## 「노는 젊은이」 日보다 많다

취업 20~24세 남자는 줄고 여자는 늘어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취업률에서 여전히 日本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못미치고 있다. 경제활동연령단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현재의 취업자 수와 직업을 구하고 있는 실업자 수(구직자)를 합친 것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인구에 실제로 일할 의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統計廳 90년조사

지난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중 일할 하고 있는 사람의 모두 1천9백1만2천명으로 전체의 60.6%에 불과했다. 이는 日本의 63.3%에 90년(보다 2.7%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지난 80년 韓日 간 격차 4.3%포인트(日本 59%, 日本 63.3%)보다 늘어난 것이지만 65세

중수기엔 노년층이 된 해외인력까지 수입해서 쓰는 마땅한 환경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이미 선진국에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수기업의 채용정책을 시택의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들 사실은 4월 통계청이 분석한 경제활동참가율 韓日 비교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20~24세의 연령층은 남자를 할 경우 20년 63.1%에서 지난해에는 63.4%로 다소 늘어났지만 남자는 76.5%에서 59.5%로 10년새 17%포인트나 감소한 반면 여자는 53.5%에서 65.9%로 12.4%포인트 늘어나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통계란 묘한 마력이 있다. 무엇이든 섞여치 않은 대박이 있더라도 통계수치를 보면 이만며 공박해오면 반박을 펴기가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따가운 햇살보다 수은주의 높이를 확인해야 더위를 실감하는게 현대인들의 체질이기도 하다. 일종의 통계중독현상이다.

이때문에 통계는 정확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래야만 숫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를 기초로 한 정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 통계의 폐해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실용사만큼이나 크다고 할수 있다.

최근 정부는 민간연구소나 각종 경제단체들이 발표하는 통계가 미덥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통계작성의 기본이라고 할수있는 표본설정이나 설문조사표작성이 전문

### 統計와 統制

가들 눈에 서둘러 비치진듯 싶다. 특히 그결과가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와 차이가 생기니 정책수립에 혼선을 가져올만도 하다.



상종이라고 한다. 민간단체의 통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각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술도 전수시킬 계획인것 같다. 요컨대 통계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수 가르쳐주겠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보다 정

확한 통계를 생산해내기 위해 정부가 의당 해야 할일이기도 하다. 통계 전문인력이 부족한 민간기관으로부터 이를 끌어오려야 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민간단체를 통계지정기관에 포함시켜 통계작성에서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민간단체들의 통계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가 구미에 맞는 통계만을 골라 발표할생각이라는 의심을 사기 십상이다. 특히 지금은 大選을 앞둔 때이다.

〈經濟部〉



# 통계로 본 中國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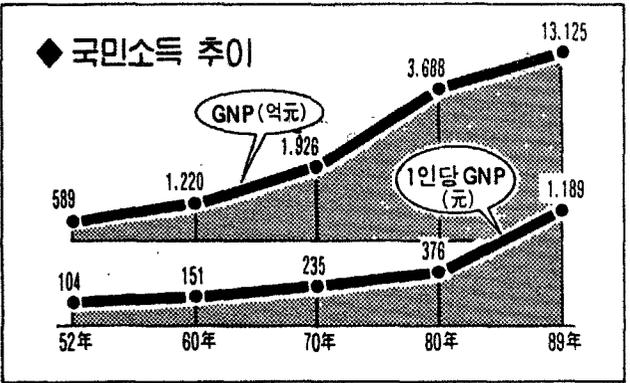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달과 성장의 원동력 원천은 무엇인가.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정책의 실시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해 왔다. 중국은 현재 경제 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국민 소득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1인GNP 韓國의 16분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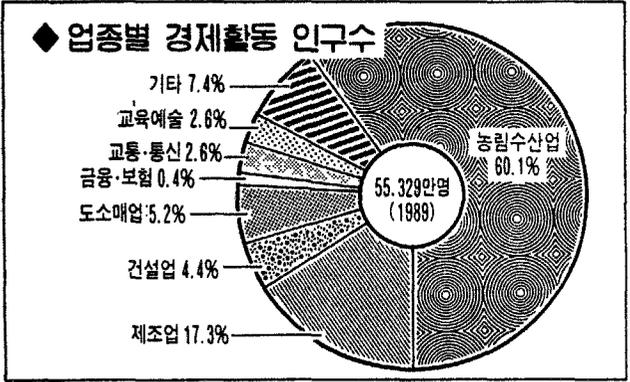
〈표 1〉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의 개혁이다.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해 왔다. 중국은 현재 경제 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국민 소득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인구가 13억이 넘는 대국인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인당 GNP가 1,189원이라는 점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는 한국인당 GNP의 16분의 1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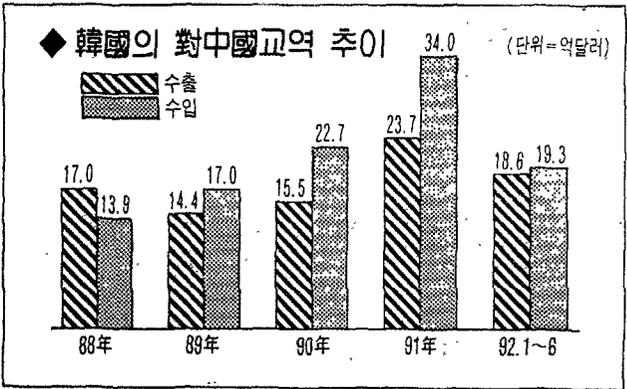


## 87년 이후 年평균 경제활동인구 産業생산 工業



◇ 주요 경제지표

지표	단위	80년	89년
△ 인	인명	98,705	111,191
△ 경제 활동 인	인명	42,361	55,329
△ 국민 총 생산	억 원	10,444	13,742
△ 재정 수입	억 원	4,470	15,789
△ 지 지 수 (전년 가격 1백)	인명	1,085.2	2,919.2
△ 물가	인명	1,212.7	3,014.6
	인명	106.0	117.8



◇ 국제수지개황

<단위 = 억달러>

항목	86년	87년	88년
△ 경상항목차액	-70.34	3.16	-38.02
-수출입액	257.56	347.34	410.54
-수입액	348.96	363.95	463.69
-비무역교역차액	17.28	17.53	10.94
-관관수입액	15.31	18.62	22.47
-투자수지차액	-0.23	-2.15	-1.61
-자금지원차액	3.79	2.24	4.19
-해외동포송금수입액	2.08	1.66	1.29
-해외동포송금지출액	0.04	0.03	0.04
△ 자본항목차액	59.43	60.02	71.32
-장기자본유입액	82.38	57.90	70.56
-자기자본유입액	113.94	97.40	111.14
-자기자본유출액	31.56	39.50	40.58
-단기자본거래차액	-22.95	2.12	0.76
-은행의자산·상환차액	-32.90	2.19	4.37
△ 비축자산증감액	12.75	-48.52	-22.36
-외국환보유액	13.99	-47.22	-23.12
-국제화폐기금비축액	-0.38	-0.59	0.22
-특별인출액	-0.86	-0.71	0.54

# 주도 : 農業의 3.4 배

# 5억5천만명 넘어

# 18%線 高速성장

△ 孫顯禧기자

부문의 3.4 배나 높았다. 인구는 30억 4천만 명으로 1985년 28억 8천만 명을 넘어섰다. 1988년 30억 4천만 명으로 1985년 28억 8천만 명을 넘어섰다. 1988년 30억 4천만 명으로 1985년 28억 8천만 명을 넘어섰다.

1988년 30억 4천만 명으로 1985년 28억 8천만 명을 넘어섰다. 1988년 30억 4천만 명으로 1985년 28억 8천만 명을 넘어섰다.

△ 금중의 양물화일기 품의 양물지탕고 V V 기기탄유량강트량도 로송프 공지량 랑액	762	1,935
△ 수출	227	700
△ 수입	1,923	6,535
△ 인산출	32,056	40,755
△ 인산입	270.7	378.8
△ 인산총	679.3	1,831.9
△ 인산총	1,205.4	2,326.2
△ 인산총	450	1,152
△ 인산총	5,154	22,017
△ 인산총	134.7	189.2
△ 인산총	535	1,333
△ 인산총	257	501
△ 인산총	4.9	670.79
△ 인산총	249.20	766.54
△ 인산총	3.2	940.02
△ 인산총	24.5	825.4
△ 인산총	74.3	2,418.1
△ 인산총	37.28	245.18
△ 인산총	6.2	10.54
△ 인산총	10,595	13,764
△ 인산총	3,006	5,848
△ 인산총	3,712	6,159
△ 인산총	7,986	21,029
△ 인산총	12,026	25,591
△ 인산총	5,717	1,039.4
△ 인산총	764	3,375
△ 인산총	5,053	11,187
△ 인산총	491	629
△ 인산총	1.4	6.9
△ 인산총	63,735	101,639
△ 인산총	60,275	96,934
△ 인산총	2,140.0	8,101.4
△ 인산총	181.2	525.4
△ 인산총	200.2	591.4

# 제조업 취업자 10萬 감소 서비스부문 6.4% 늘어

## 통계청 2·4분기 고용동향 발표

제조업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의 취업추진율이 계속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취업추진부의 고용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 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부문의 취업이 증가했으며, 취업자는 1천 9백 34만 7천 명으로 36만 1천 명(1.9%)이 늘어났다.

9백 78만 3천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만 7천 명이 증가했으며, 취업자는 1천 9백 34만 7천 명으로 36만 1천 명(1.9%)이 늘어났다.

산업별 취업부조를 보면 △중공업은 3백 39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3%가 감소했고 △광공업은 4백 88만 1천 명으로 2.2%가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1천 1백 7만 7천 명으로 6.4%가 증가

추진율은 2.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의 취업추진율이 1천 1백 7만 7천 명으로 6.4%가 증가했다.

지역별 취업추진율은 서울 7.1%, 부산 6.8%, 대구 6.5%, 광주 6.3%, 대전 6.2%, 울산 6.1%, 인천 6.0%, 경기 5.9%, 강원 5.8%, 충청 5.7%, 전북 5.6%, 전남 5.5%, 경북 5.4%, 경남 5.3%, 제주 5.2%였다.

# 20代 초반층 失業늘었다

## 통계청 조사 2分期 고용동향

취업추진율은 2.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의 취업추진율이 1천 1백 7만 7천 명으로 6.4%가 증가했다.

지역별 취업추진율은 서울 7.1%, 부산 6.8%, 대구 6.5%, 광주 6.3%, 대전 6.2%, 울산 6.1%, 인천 6.0%, 경기 5.9%, 강원 5.8%, 충청 5.7%, 전북 5.6%, 전남 5.5%, 경북 5.4%, 경남 5.3%, 제주 5.2%였다.

전년 동기 6.4%에서 6.6%, 15~19세는 8.8%에서 10.3%로 높아져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과 인력수급 불균형을 반영했다.

이해 반해 건설업은 9% 증가, 숙박업은 5.2% 증가, 개인서비스업은 7.2% 증가, 취업자 수가 늘어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취업인구는 지난해보다 6.4% 증가한 1천 1백 7만 7천 명을 기록했다.

한편 2.4분기 중 실업자 수는 43만 6천 명, 실업률은 2.2%를 기록해 9번 이후의 최저 실업률이 기록되고 있다. 20~24세의 실업률이

2.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의 취업추진율이 1천 1백 7만 7천 명으로 6.4%가 증가했다.

지역별 취업추진율은 서울 7.1%, 부산 6.8%, 대구 6.5%, 광주 6.3%, 대전 6.2%, 울산 6.1%, 인천 6.0%, 경기 5.9%, 강원 5.8%, 충청 5.7%, 전북 5.6%, 전남 5.5%, 경북 5.4%, 경남 5.3%, 제주 5.2%였다.

# 점진적 고용률 상승

## 2분기 고용률 향상 - 농업·광업·제조업 취업 증가

제조업이 앞장서고 있다. 2분기에는 제조업의 고용률이 1.9%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기계, 전자 등 3대 산업의 고용률이 크게 늘었다.

반면, 이통사업과 DTV 관련 산업은 고용률이 0.5% 감소했다. 특히 방송, 출판, 인쇄 등 문화산업의 고용률이 1.2% 감소했다.

특계기업은 27일 발표한 2분기 중 지역별 고용률 향에서 지난 4.5.6월중 경제활동인구가 모두 1천 9백78만 3천명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4백 82만명으로 2.2%(10만 6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보다 7만 7천명으로 6.4%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4백 82만명으로 2.2%(10만 6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보다 7만 7천명으로 6.4%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4백 82만명으로 2.2%(10만 6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보다 7만 7천명으로 6.4%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4백 82만명으로 2.2%(10만 6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보다 7만 7천명으로 6.4% 증가했다.

제조업이 앞장서고 있다. 2분기에는 제조업의 고용률이 1.9%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기계, 전자 등 3대 산업의 고용률이 크게 늘었다. 반면, 이통사업과 DTV 관련 산업은 고용률이 0.5% 감소했다. 특히 방송, 출판, 인쇄 등 문화산업의 고용률이 1.2% 감소했다. 특계기업은 27일 발표한 2분기 중 지역별 고용률 향에서 지난 4.5.6월중 경제활동인구가 모두 1천 9백78만 3천명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4백 82만명으로 2.2%(10만 6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보다 7만 7천명으로 6.4%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4백 82만명으로 2.2%(10만 6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보다 7만 7천명으로 6.4% 증가했다.

# 여성일터가 줄고있다

2분기 고용동향 **섬유등 勞動集約산업** 침체로

## 여성失業 증가율 12.9%

### 전체失業률 2.2% ... 3년만에 첫上昇

輕工業인력줄고 조립품수등 증가 ... 고용구조변화

섬유 등의 부용신표 가구 등 노동집약산업의 구조조정 불행이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줄어든 여성실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또 이들 산업이 불려오는 대구 대전 등지의 실업률이 다른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역별의 취업비율이 높았던 섬유업의 취업비율은 보편 2.4분기 중 섬유업의 취업비율에 비해 5.1% 감소한 것을 비롯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4.9% 감소) 유신료(3.2% 감소)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1.1% 감소) 등 6개 산업이 취업비율

반면 건설업 등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부문에선 작년 동기보다 66만 4천명(6.4%)이 증가한 1천 1백 7천 명이 취업,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대구 대전 등지의 실업률이 다른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역별의 취업비율이 높았던 섬유업의 취업비율은 보편 2.4분기 중 섬유업의 취업비율에 비해 5.1% 감소한 것을 비롯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4.9% 감소) 유신료(3.2% 감소)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1.1% 감소) 등 6개 산업이 취업비율

업부문에서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포장 기계 자동화 기계 등 조립품 수 및 기계장비제조업의 취업자수는 2.1%가 증가하고 중의 인쇄 출판업도 1.7%의 취업자 증가를 나타내고 고용구조의 변화가 진이나 나타나고 있다. 한편 2분기 전체 취업자수는 4백 88만 1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1만 2천명 늘었다. 2.4분기에는 5만 9천명이 각각 감소해 지난해 1.4분기 이후 감소추세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社說

산업구조조정과 女性失業증가

고용구조가 바뀌면서 女性들의 失業이 늘어나 주목되고 있다. 輕工業으로부터 출발한 경제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女性들의 손길이 우리의 산업에서 큰 몫을 해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구조적 不況에 휩싸이면서 女性들의 일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부 高度산업부문에선 여전히 人力難을 겪고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섬유 의복 가죽등 노동집약산업에서 女性취업자수가 크게 줄어들어 女性실업자증가율이 12.9%로 늘어났으며 남자 실업자증가율 6.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앞으로도 로봇투입 증가등 공장자동화의 진전으로 단순여성인력의 수요는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자동화투자가 활발한 대기업들의 공장에선 10% 가까운 인원을 감축했으며 여기에는 많은 女性인력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고용구조를 보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소위 3D직종과 기술직에서 人力難을 겪고 있는데 비해 人文系 大卒者는 공급과잉상태이며 단순직 노동력도 점차 남아돌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사무직 감축도 추진되고 있다. 산업구조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같은 人力難과 就業難 공존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人力면에서 산업구조조정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며 사회문제까지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인력의 수급불균형을 바로잡아 쓸수 있는 인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산업구조의 高度化는 바로 고용구조의 고도화라고 할수 있다. 그러자면 공급과잉부문의 인력을 人力難 부문에서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과제이다. 심블리 모자라는 부문의 인력을 해외인력으로 보충하려고 하면 우리는 거대한 失業群을 만들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에서의 인력양성구조를 산업구조고도화에 발맞춰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理工系출신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대학에선 과잉상태의 人文系를 계속 양산하면 인력수급 불균형은 시정될수 없을 뿐더러 국가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닐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단순직 인력의 재교육을 통해 산업계의 기술인력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산업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한 女性인력을 새로운 훈련을 통해 고도산업에서 흡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女性인력활용은 전체적 人力難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다.

# 前月比해 安定 추세 뚜렷

소비자 5년來 최저 10월 들어 처음 내려



92. 8. 31

內需지정되고 過소비 억제때문 통계청·韓銀 발표

## 매도 0.2% 하락

## 8월 物價

## 소비자 0.2% 상승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추이 (비년전·%)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추이 (비년전·%)

1 9.2 2 9.2 3 10.1 4 8.6 5 8.5 6 8.5 7 8.7 8 8.7 9 9.4 10 9.4 11 9.4 12 9.3

90년 91년 92년

(자료: 통계청)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추이 (비년전·%)

1 7.7 2 7.4 3 7.4 4 7.3 5 7.3 6 7.3 7 7.3 8 7.3 9 7.3 10 7.3 11 7.3 12 7.3

90년 91년 92년

(자료: 통계청)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추이 (비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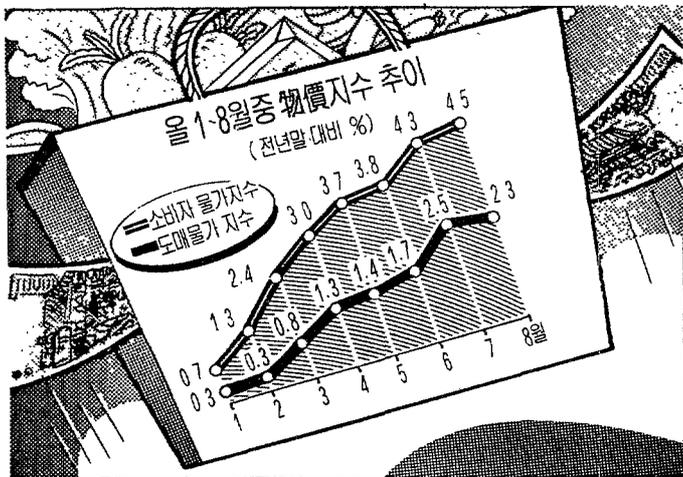
1 5.9 2 5.9 3 5.9 4 5.9 5 5.9 6 5.9 7 5.9 8 5.9 9 5.9 10 5.9 11 5.9 12 5.9

90년 91년 92년

(자료: 통계청)

# 物價 잡혀간다

## 8월 도매지수 올 첫 0.2%내려



### 올 「소비자」 4.5%로 안정

### 內需진정책 효과...大選이 변수

지난 8월중 소비자물가는 여름장마철의 수송난 등 여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달보다 0.2%가 오른는 데 그쳤으므로 나타났다. 또 8월중에는 도매물가가 0.2% 하락을 보였으며,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31일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이 발표한 「8월중 물가」 월말의 소비자물가는 5.1% 상승을 보였으며, 1년전과 비교한 8월말의 소비자물가는 5.1% 상승을 보였다.

또 장마구니 물가를 말해 주는 채소 과일 생선류 등 신선식품은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0.9%가 오른는 데 그쳤고 쌀 최고기 배추 등 20대 기본생활품의 4.7% 올 1회이상 구입품목도 4.8% 상승에 머물렀다.

이처럼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내수진정책 등 경제안정화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온 데다가 최근 업계의 판매부진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9%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지난 89년 12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의 年率상승률이 5%대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마구니 물가를 말해 주는 채소 과일 생선류 등 신선식품은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0.9%가 오른는 데 그쳤고 쌀 최고기 배추 등 20대 기본생활품의 4.7% 올 1회이상 구입품목도 4.8% 상승에 머물렀다.

금 0.2% △집세 0.5% 등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상추(62.2%)를 비롯 포도(50%) 파(11.3%) 배추(7.8%) 닭고기(8.3%) 등이 많이 오른 반면 고추(12.8%) 수박(17.2%) 고등어(10.8%) 달걀(3.1%) 토마토(10.4%) 미술품(0.4%) 등은 값이 내렸다.

이처럼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내수진정책 등 경제안정화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온 데다가 최근 업계의 판매부진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社 說

안정과 신뢰를 찾은 物價

올바른 정책선택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여기에 응당한 국민적 공헌과 협조가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밖이 없다.

그 한 예로서 최근 물가안정세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열거될 수 있다.

통계청과 한미은행의 발표한 8월 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중 물가 상승률이 0.2%로 8월과 비교해서 5년 이래 가장 낮은 도마뱀가죽이 되어 있다. 또 8월까지 1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2%로 1년 동안 최저수준이 기록되고 있다.

또한 물가의 현상의 하나는 이른바 장바구니물가와指數물가가 근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선저 물이로 올랐던 유린경제의 있어서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이 바로 물가였다.

정부는 물건의 각종 요구기관, 기업, 일반소비자에게 최근까지 해도 심상치 않은 물가 안정을 지켜왔다. 정부가 공적 물품을 물가정책선 9%가 이하로 수평적으로 유지시켜 관리하고 있다.

4월까지만 해도 삼만기까지 물가 상승률을 5% 이내로 안정시킨다면 안정적이라기엔 부족이 없다. 그러나 삼만기를 훨씬 지난 8월까지 5%의 내의 안정을 지키고 있다.

물가물가의 관한 한 해 1~2년 사이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해만 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3%였으나 과일·생선류·채소 등 생활물가 상승률이 15%에 이르러 정부의 물가통제의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그러나 올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 20개 기본생활물가를 대상으로 한 생활물가 상승률이 4.8%로 나타났다. 이같이 국민의 해소가 물가신뢰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물가가 이처럼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은 믿어지지 않으나, 해도 장기간 물가대책이 주요한 때문이다. 成長을 희생시켜서라도 물가를 잡았다. 안정정책의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추수안정정책과 임금안정정책이 물가를 이루면서 파수안정제 부동상투기규제 등의 정책수단으로 동원되었고 이를 강력히 집행하여 올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되었다.

그 결과 올랐던 부동산가격인상도 안정이 되어 안정이 이루어졌다. 이물로서대의 패행적인 거품의 수평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안정이 되고 있는 물가안정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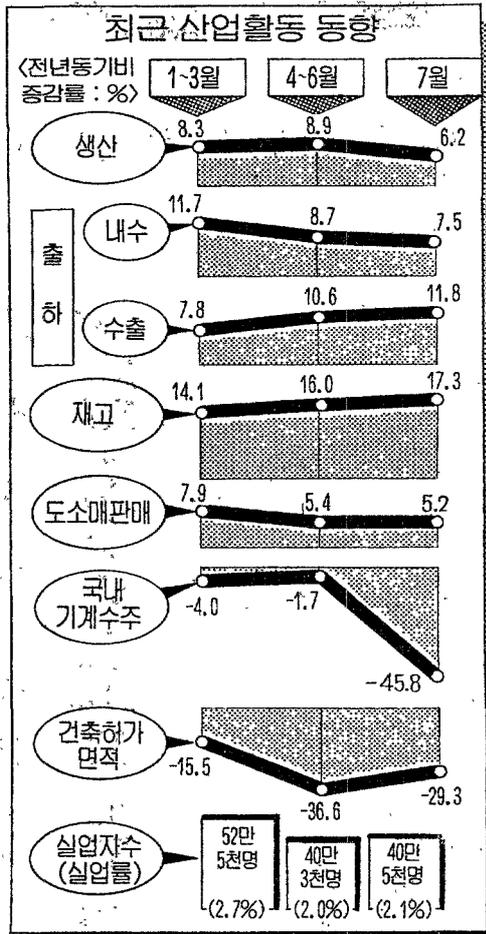
지면서 경제가 내실을 되찾고 있는 증거들이다. 이제 우리의 관건은 대물형선거와 정부안정을 앞두고 안정정책의 지속성 확보에 모아진다. 대물형선거를 전후한 사회부위기의 이완이나 경제정책의 신뢰도지는 공백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물가안정정책의 안정이 바로 우리가 최근 실현했던 거품경제다. 지금의 물가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을스럽고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 좋아졌다. 미치지 않는 물가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다. 물가는 특정시점의 단기적 안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안정되어야 진정한 안정의 의미가 있다. 모처럼 안정기만을 다지고 있는 물가가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물가정책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 産業활동이 갈수록 둔화

통계청 분석

7월 6.2% 증가 그쳐 의류 신발 등 뒷걸음... 중화학 호조



註: 분기별 실업통계는 분기말월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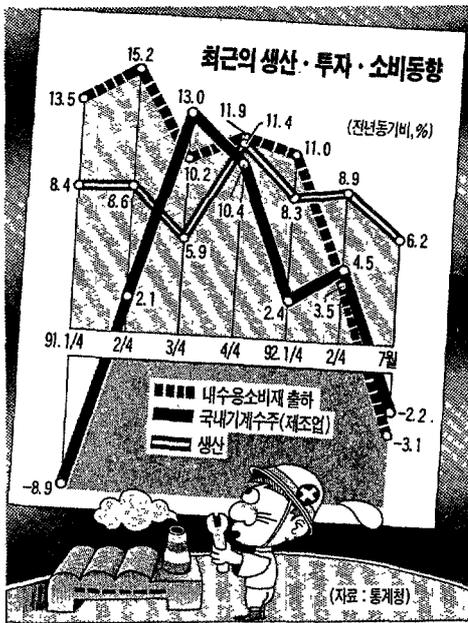
최근들어 산업생산율비  
및 소비 투자활동은 전반적  
으로 둔화되고 있다.

경제안정화시책을 추진  
해온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초기상승국면이  
나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연말의 대통령선거 등을  
의해 상당한 경기부양책  
을 펴는 안된다. 호조, 현  
재의 안정화시책을 견지할  
방향을 밝혔다.

# 생산·투자·소비 둔화

7월중산업동향 前年比 생산 6.2%증가 그쳐



<그림: 金龍吉기자>

## 정부 경기 진정策 효과 化學·석유·고무는 활기

올해 7월중 산업동향은 199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둔화했다. 7월중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지만, 투자와 소비는 각각 8.9%와 4.5%로 둔화했다. 특히 내수용 소비재 출하와 국내 기계수주(제조업)는 각각 4.5%와 3.5%로 둔화했다. 반면 화학·석유·고무는 각각 11.4%, 11.0%, 8.9%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진정策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수용 소비재 출하와 국내 기계수주(제조업)는 각각 4.5%와 3.5%로 둔화했다. 반면 화학·석유·고무는 각각 11.4%, 11.0%, 8.9%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진정策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월중 산업동향은 199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둔화했다. 7월중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지만, 투자와 소비는 각각 8.9%와 4.5%로 둔화했다. 특히 내수용 소비재 출하와 국내 기계수주(제조업)는 각각 4.5%와 3.5%로 둔화했다. 반면 화학·석유·고무는 각각 11.4%, 11.0%, 8.9%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진정策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수용 소비재 출하와 국내 기계수주(제조업)는 각각 4.5%와 3.5%로 둔화했다. 반면 화학·석유·고무는 각각 11.4%, 11.0%, 8.9%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진정策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7월중 산업동향은 199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둔화했다. 7월중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지만, 투자와 소비는 각각 8.9%와 4.5%로 둔화했다. 특히 내수용 소비재 출하와 국내 기계수주(제조업)는 각각 4.5%와 3.5%로 둔화했다. 반면 화학·석유·고무는 각각 11.4%, 11.0%, 8.9%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진정策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수용 소비재 출하와 국내 기계수주(제조업)는 각각 4.5%와 3.5%로 둔화했다. 반면 화학·석유·고무는 각각 11.4%, 11.0%, 8.9%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진정策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91년수입 통계조사」

정부가 전반기에 비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었다. 전년 대비 수출은 20.7% 증가, 수입은 12.8%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 1억 1천 9백 16만 원이 형성되었다.

윤수업 10년來 최대好況

수출입 物動量증가·요금리상등 힘입어 업종별수입比重 육상·水上·항공順 높아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수입 통계조사 결과, 전년 대비 수입은 12.8% 증가했다. 업종별 수입 비중은 육상 58.1%, 해상 33.1%, 항공 8.8%로 나타났다.

차량 대량 생산은 수출의 고수입을 이끌었다. 91년 수입 총액 중 자동차 수입은 1억 1천 9백 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또한 항공 운송료 상승도 수입 증가에 기여했다.

통계청 조사 발표

지난해 국내 운수업계는 비행기 및 차량 등 운송수단 증가와 수출입 물동량 확대에 힘입어 전년비 27% 증가했다.

運輸業 금신장 18兆7천億 벌었다

작년 20%나 늘어 10년來 최고치 기록. 고수입 품목 수입 1억 1천만 원線

운수업계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1982년 이후 최고치로, 전년 대비 18.8% 증가한 18조 7천 7백 77억 원에 달한다.

항공	2.2%
해상	33.1%
육상	58.1%
합계	12.8%

수입 품목별 비중은 육상 58.1%, 해상 33.1%, 항공 8.8%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수입이 11.7%로 가장 높았다.

# 작년運輸業 10年來 최고 急성장

작년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1,020,0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수송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해상운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톤, 육상운송은 2.6% 증가한 2,100,000톤, 항공운송은 11.7% 증가한 1,000,000톤, 우편운송은 37.4% 증가한 1,000,000톤에 달했다.

이 중 해상운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톤, 육상운송은 2.6% 증가한 2,100,000톤, 항공운송은 11.7% 증가한 1,000,000톤, 우편운송은 37.4% 증가한 1,000,000톤에 달했다.

(32.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00,000톤에 달했다.

이 중 해상운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톤, 육상운송은 2.6% 증가한 2,100,000톤, 항공운송은 11.7% 증가한 1,000,000톤, 우편운송은 37.4% 증가한 1,000,000톤에 달했다.

이 중 해상운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톤, 육상운송은 2.6% 증가한 2,100,000톤, 항공운송은 11.7% 증가한 1,000,000톤, 우편운송은 37.4% 증가한 1,000,000톤에 달했다.

이 중 해상운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톤, 육상운송은 2.6% 증가한 2,100,000톤, 항공운송은 11.7% 증가한 1,000,000톤, 우편운송은 37.4% 증가한 1,000,000톤에 달했다.

이 중 해상운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톤, 육상운송은 2.6% 증가한 2,100,000톤, 항공운송은 11.7% 증가한 1,000,000톤, 우편운송은 37.4% 증가한 1,000,000톤에 달했다.

이 중 해상운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톤, 육상운송은 2.6% 증가한 2,100,000톤, 항공운송은 11.7% 증가한 1,000,000톤, 우편운송은 37.4% 증가한 1,000,000톤에 달했다.

이 중 해상운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톤, 육상운송은 2.6% 증가한 2,100,000톤, 항공운송은 11.7% 증가한 1,000,000톤, 우편운송은 37.4% 증가한 1,000,000톤에 달했다.

이 중 해상운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톤, 육상운송은 2.6% 증가한 2,100,000톤, 항공운송은 11.7% 증가한 1,000,000톤, 우편운송은 37.4% 증가한 1,000,000톤에 달했다.

이 중 해상운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톤, 육상운송은 2.6% 증가한 2,100,000톤, 항공운송은 11.7% 증가한 1,000,000톤, 우편운송은 37.4% 증가한 1,000,000톤에 달했다.

이 중 해상운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톤, 육상운송은 2.6% 증가한 2,100,000톤, 항공운송은 11.7% 증가한 1,000,000톤, 우편운송은 37.4% 증가한 1,000,000톤에 달했다.

이 중 해상운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톤, 육상운송은 2.6% 증가한 2,100,000톤, 항공운송은 11.7% 증가한 1,000,000톤, 우편운송은 37.4% 증가한 1,000,000톤에 달했다.

이 중 해상운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톤, 육상운송은 2.6% 증가한 2,100,000톤, 항공운송은 11.7% 증가한 1,000,000톤, 우편운송은 37.4% 증가한 1,000,000톤에 달했다.

## 賣出18兆7천억...前年比 20%

### 地下鐵이 용객·輸出入물동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1,870,000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해상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억 원, 육상수출은 2.6% 증가한 2,100,000억 원, 항공수출은 11.7% 증가한 1,000,000억 원, 우편수출은 37.4% 증가한 1,000,0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해상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억 원, 육상수출은 2.6% 증가한 2,100,000억 원, 항공수출은 11.7% 증가한 1,000,000억 원, 우편수출은 37.4% 증가한 1,000,0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해상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억 원, 육상수출은 2.6% 증가한 2,100,000억 원, 항공수출은 11.7% 증가한 1,000,000억 원, 우편수출은 37.4% 증가한 1,000,0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해상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100,000억 원, 육상수출은 2.6% 증가한 2,100,000억 원, 항공수출은 11.7% 증가한 1,000,000억 원, 우편수출은 37.4% 증가한 1,000,000억 원에 달했다.



# 運輸業 81년 이래 최대 호황

작년 수입 20% 증가 지하철 29% · 市内버스 27%

지난해부터 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증가율이 29.4%와 27%로 각각 늘어났다. 택시와 시외버스의 증가율은 각각 15.5%와 15.4%로 각각 늘어났다. 시외버스의 증가율은 15.5%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시외버스의 증가율은 15.5%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시외버스의 증가율은 15.5%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차량1대당 운수수입 및 운전기사수

	운수수입 (만원)			운전기사수 (명)	
	90년	91년	증가율	90년	91년
고속버스	10,295	11,133	8.1	1.51	1.49
시외버스	5,128	5,916	15.4	1.30	1.29
시내버스	4,508	5,206	15.5	1.86	1.82
택시	1,837	1,951	6.2	1.47	1.42
(회사택시)	(2,007)	(2,028)	(1.1)	(1.94)	(1.90)
전세버스	3,601	3,667	1.8	1.04	1.01
전세화물	3,169	3,811	20.3	1.03	1.05
특수화물	6,616	7,171	8.4	1.10	1.06
구역화물	5,974	7,598	27.2	0.99	0.97
달화물	3,029	3,301	9.0	1.02	1.01
장화물	1,332	1,546	16.1	1.00	1.00
화물	1,600	1,673	4.6	0.87	0.84

<자료: 통계청>

과달전철과 정부의 과소비 예산에 따라 해외여행자 수가 증가했다. 특히 택시 수입 증가율은 크게 두 배 늘었다. 버스와 회사택시의 대당 평균 운전기사수는 1.86명에서 1.82명으로 0.04명 줄었다. 택시 수입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택시 수입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택시 수입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의원버스, 90년에 비해 20% 증가했고, 운수비용은 15조 8천 9백 65억원으로 19% 증가했다. 운수수입을 유형별로 보면, 육상운수 10조 4천 9백 24억원으로, 16.5% 증가에 그친 반면, 수상운수는 3조 8천 9백 66억원으로 27.4% 증가했다. 항공운수는 2천 4백 40억원으로 23% 증가했다. 운수관련서비스는 2조 1천 1백 47억원으로 21.6% 증가했다. 운수수입은 11조 2천 6백 83억원으로 25.6% 증가했다. 운수수입은 11조 2천 6백 83억원으로 25.6% 증가했다. 운수수입은 11조 2천 6백 83억원으로 25.6% 증가했다.

부동산투기와 고임금등 한국 경제의 거품현상이 극에 달했던 80년대 후반의 과소비를 주도한 것은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갖추고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30대후반과 50대초반의 연령층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여유있는 계층 이상의 사람들로, 주로 부동산이나 증권등 財테크를 통한 소득증가가 과소비를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高학력 사무직 과소비 주도

통계청, 근로자 소비성향 분석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지난 10년간(85~91년) 도시 근로자구의 소비성향 추이」 분석자료를 통해 도시 근로자들의 평균 소비성향은 지난 81년 이후 경제성장예 따른 국민소득 증가로 낮아지는 추세로 보여왔다면서, 그러나 지난 88~89년은 차라전반에 퍼진 과소비 풍조의 영향으로 소비성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異常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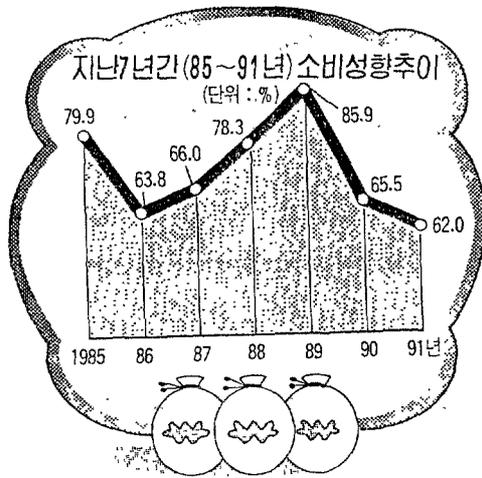
30대 후반-50대 초반 중류 이상 계층 財테크로 소득급증... 거품현상 유발

산직 이력이나 노사분규등의 영향으로 임금이 크게 올라, 지난 89년의 경우 도시근로자구의 소득증가율이 24.5%로 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과소비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면서 소비지

출 증가율이 26.7%로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가처분소득이 24%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둔화와 과소비풍조 진정으로 소비증가율이 18.0%의 낮은 수준으로 돌아서 진정세를 되찾았다. 지난 10년간 도시근로자구의 소비성향은 연평균 4.48%로 보면, 가처분소득 증률보다 높았기 때문이라

고 통계청은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연령층의 소비성향을 소비성향의 낮았던 지난 87년과 소비성향이 높았던 시기인 88년으로 비교해 보면, 88년 연령층의 비해 현저하게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35~39세 연령층에 가장 높았으며, 자녀들이 여러 생활의 여유가 생기는 시기면서 동시에 생활을 즐기려는 「신세대」에 속해 이 기간중 소비성향이 큰

소비성향이 일반층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45~49세의 연령층에서 평균 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수가 많아(평균 4.48명) 생계비가 많이 들고, 동시에 교육비 부담이 평균 12만 2천원으로 과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8~89년의 과소비를 주도한 연령층은 35~39세와 50~54세의 연령층이었다. 젊은 층은 주사대 일회적인 추세와 다른 현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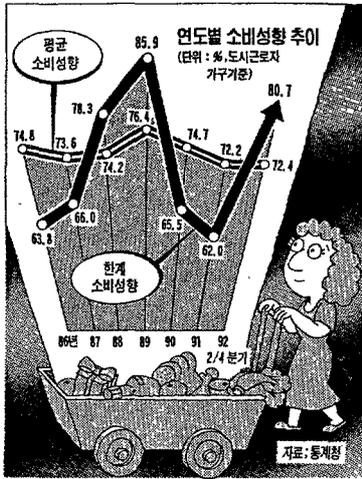
89년 최고조... 작년부터 증가율 진정추세

가처분 소득의 확장이 없을수록 평균소득도 높은 소비성향도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 일반적인 현상. 그러나 지난 88~89년은 차라전반 대출 이상 고학력자들의 한계 소비성향에 따라 증가율을 높인 두드러진 증가율을 기록, 특히 저성인으로 분류되던 이들이 과소비의 주범인 것이 이 려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 기간중 저 소득층은 전연차와 사무직의 소비성향이 성장직과 판매직, 서비스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때면 소비성향을 보면 생활의 여유가 있는 자가 수유자가 전체나 월세 입주자보다 높을 반면, 때때로 전체를 내는 월세자가 전체사냥 사람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88~89년중에도 마찬가지였다.

고 통계청은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연령층의 소비성향을 소비성향의 낮았던 지난 87년과 소비성향이 높았던 시기인 88년으로 비교해 보면, 88년 연령층의 비해 현저하게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 박춘환기자>

都市가구 소비동향 분석서 통계청

80년대말 과소비열풍을 주도한 계층은 30대 후반 이상의 전업·사무직종사자들이며 이들보다 10년정도 앞서는 20대 후반이나 1부층안주자를 해방시킬 것이고 과소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4일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생활 소비동향」에서 지난 10년간 도시근로자의 소비는 88.8%의 가중률을 보였는데 이는 주수입자와 부수입자의 생활이루자수입을 많이 올린 중산층 이상의 소비생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문·事務職 씬 씬이 헤 퍼 졌다

88-89년 證市·부동산경기 活況영향 35~39세, 50~54세 층 소비성향 "으뜸"

전문·사무직의 소비성향이 88, 89년의 높았던 것인데 통계청이 발표한 88년 1월말 기준 2분기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19만4천5백원으로 전년 동기(1백10만6천6백원)에 비해 8.2% 증가, 1분기의 23.4%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반면 이 기간 중 월평균 가계지출은 96만5천2백원으로 지난해 동기(91만8천7백원)에 비해 5.1% 증가, 19.4%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와 따라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한계 소비성향(소득증가분을 소비증가분으로 나타냄)은 80.7로 지난 90년 1분기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계층으로 보면 전업·사무직의 소비성향이 가장 높았으며, 이 중 3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소비성향이 가장 높았다. 88년 이후 도시근로자와 전업·사무직의 소비성향은 88년 1월말 기준 88.8%로 전년 동기(85.9%)에 비해 3.9% 증가, 1분기의 23.4%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鄭鐵樞기자>

내 집 가진 40代가 消費 蜂 조 주 도

大 卒 專 門 · 事 務 職 ... 教 育 費 等 부 담 元 因 87-89년 過 消 費 30대 후반 · 50대 초반 으뜸

우리나라의 소비층은 80년대 후반에 40세 이상의 인구가 직업별로 자기집 소유자가 되고 직업별로 대졸 이상의 전문·사무직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8-89년의 과소비층은 35-39세와 50-54세의 연령층이 주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지난 10년간 조사

에 85.9%를 기록했으며 그 이후에는 과소비정점과 함께 낮아져 91년 62.0%로 83년 이후 최저수치를 보였다. 91년의 소비성향은 전업·사무직이 80.7로 79.9%로 가장 높았고 40-45세가 79.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과소비를 부담가중이 높고 이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不在蓮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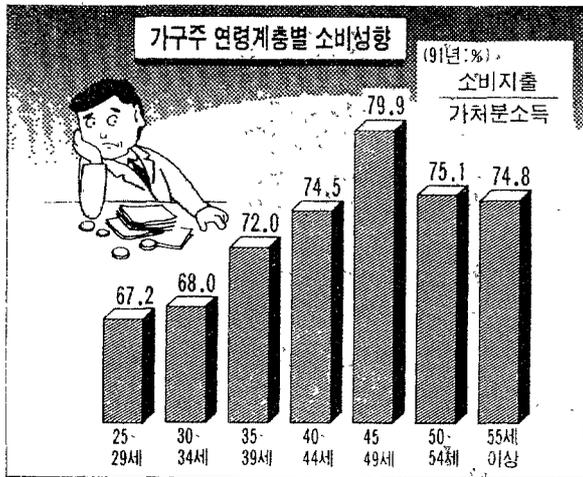
# 과소비풍조 주도

40대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 증가  
다주택 보유 가구 증가

家長의 나이가 40대 이상이고 대졸이상, 고학력자이면서 자기 집을 소유한 전문·사무직 종사자(소위 화이트칼라 계층)가정이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과소비 풍조를 주도한 것으로 23일 통계청 분석결과 밝혀졌다.

## 통계청, 도시근로자 소비성향 분석

87~89년 투기·증권으로 변동 86% 탕진  
90년 거품해소되며 다시 "전전"



특히 이들 계층은 주소득원인 일임의 높은 상충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및 주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90년 이후부터는 한계 소비성향을 발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 소비성향이 90년부터 크게 낮아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87~89년 부동산 투기와 증시 활황 등 우리 경제에 거품 현상이 만연했을 무렵 소비를 급격히 늘려 왔던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면서 뒤늦게 90년부터 소

특수층에 걸맞은 정당한 소비 패턴을 되찾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7~91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성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인 평균 소비성향(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액)은 소득향상에 따라 대체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새로 늘어난 소득을 얼마나 소비에 더 쓰느냐를 나타내는 한계 소비성향은 과소비 풍조가 만연한 지난 89년부터 85.9%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는 62%로 폭 떨어졌다. 이는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수입이 증대되었다고 해서 씀씀이를 그만큼 늘리는 식의 방만한 가계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종전보다 저축을 늘리는 등 건전한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가구주의 특성별 소비성향을 보면 91년 현재 家長나 이가 45~49세인 가정이 79.9%의 소비성향(평균 72.2%)을 기록, 자녀들이 성장한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커가게 지출이 많음을 반영했다. 소비성향이 낮았던 87년과 가장 높았던 89년을 비교할 경우 35~39세(가정 중 소비성향)이 109배 증가(와 50~54세(107배 증가)에서 과소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30대 초반의 경우 자녀가 어릴 때다. 부자정 저축을 늘리기보다 생활 자체를 즐기려는 풍조 때문으로, 50대 초반만 부동산·주식 등 자산보유가 많고 지출이기에 때문에 각각 소비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자기 집 소유층은 평균 소비성향이 77.7%로 가장 높았고 월세임대층이 72.1%로, 전세임대층이 64.8%로 각각 조사됐다. 통계청은 월세 가구가 전 세 가구보다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소득 절대액이 적은 반면 매월 주거비 부담이 크고 신분 불구입 등을 기본 지출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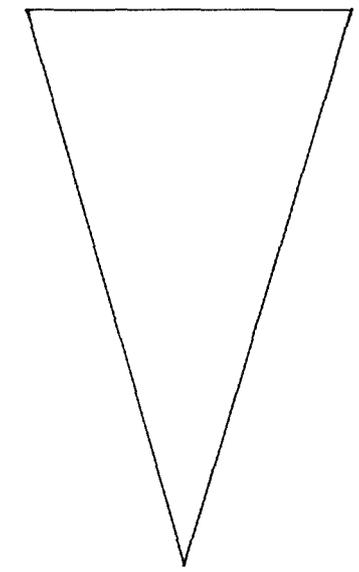
# 過소비自家소유·高學歷層 주도

## 통계청조사 88·89년 피크 : 50~54세 층 씬 씬이 헤 퍼

### 2分期근로자家計 소비진정률구 所得증가를 둔 화

자기집을 소유한 대졸이 상 고학력자일수록 소비성향이 높고, 또 과소비가 만연했던 88·89년층이 통계청의 소비성향의 상대적인 피크로 높아져, 과소비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자 가구의 가구 주 소득별 소비성향에 따른 81년 이후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88·89년에는 과소비를 조의 영향으로 한계 소비성향이 각각 78.3%, 85.9%로 87년의 66%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89년층 고졸의 인공 상승으로 소득증가율이 81년 이후 가장 높은 24.5%로 상승했고 소비지출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40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고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과소비를 조가 만연했던 89년층엔 자녀 연령이 낮아 35~39세 연령층과 교육비 부담이 적고 부동산 증권을 재산 소유 비중인 50~54세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여, 과소비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자가 소유자의 평균 소비성향이 77.7%로 전세(64.8%) 보충부월세(72.1%)보다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89년층 자가 소유자들의 소비성향은 10% 가량 높아진 반면 전세 또는 월세자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성향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보면 고학력인수록 소비성향이 높아지며

특히 88·89년층 고졸이하의 소비성향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으나 대졸 이상에서는 한계 소비성향이 1백%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대졸 이상 고학력층이 과소비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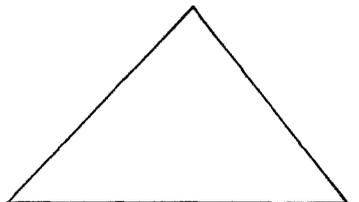
한편 지난해 2·4분기 중 도시근로자 가계는 소비진정률도 불구하고 소득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돼 생활형편이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중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을 통해 지난해 4~6월 중 도시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1백29만4천5백원의로 작년 2·4분기보다 17% 증가에 그친 반면 소비지출은 86만3천2백원으로 18%가 늘어나 소득증가세를 보였고 광물·수도 28%(교육·교양· 오락비) 24.3%(보건·의료비) 23% 등도 크게 늘었다.

식품·음료 지출은 26만9천9백원으로 11.7% 증가했으며 이중 주식비는 4.1%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천원, %)

구분	91년 2/4분기		92년 2/4분기		증가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소비지출	731.7	100.0	863.2	100.0	18.0
식료품	233.6	31.9	260.9	30.2	11.7
주거	34.7	4.7	40.4	4.7	16.4
광열·수도	24.6	3.4	31.5	3.7	28.0
가구·가사용품	47.1	6.4	51.3	5.9	8.9
피복·신발	62.5	8.6	71.7	8.3	14.7
보건·의료	39.1	5.3	48.1	5.6	23.0
교육·교양·오락	86.3	11.8	107.3	12.4	24.3
교통·통신	61.3	8.4	81.9	9.5	33.6
기타 소비지출	142.5	19.5	169.9	19.7	19.2



# 4/4분기 보도기사

(10월~12월)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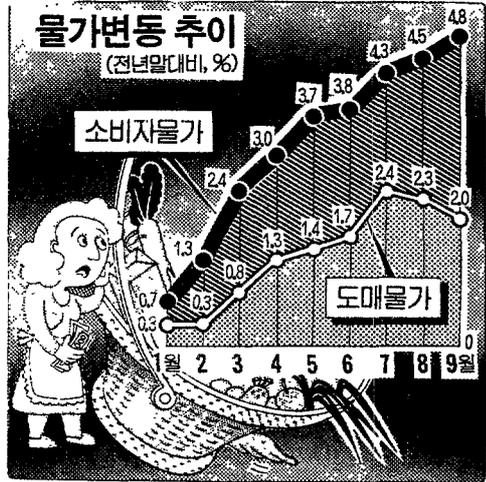
92.10. 1

## 추석·태풍영향에도 불구하고

# 9월物價 안정세 「소비자」0.3% 상승

추석·태풍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했다.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이 30일 9월 중 소비자물가는 8월의 비해 0.3% 상승한 4.8% 오른다고 발표했다. 8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4.8%로 나타났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의 4.8%와 비교하면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의 4.8%와 비교하면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 상승했다. 또 지난 4월 이후 상승세를 보인 소비자물가는 9월 들어서 9월에는 0.3% 오른다고 나타났다. 한편 작년말 대비 물가가 많이 오른 도시농산물(6.2%), 전류(6%), 균산(6%), 부산(5.9%), 대전(5.0%) 등이 눈에 띈다.

92.10. 1

## 「秋夕물가」 4年來 가장 안정

### 9월 소비자價 0.3% 상승에 그쳐

韓銀 발표

지난 9월 중 소비자물가는 추석전인 8월의 4.8% 상승률에 비해 0.3% 상승한 5.1% 상승했다. 이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의 4.8%와 비교하면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의 4.8%와 비교하면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의 4.8%와 비교하면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9월 物價도 안정

소비자 0.3% 상승  
도매는 0.3% 내려

## 정부 연내 공공요금 추가 인상 안해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30일 통계청과 韓銀이 발표한 9월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 0.3% 상승에 그치고 도매물가는 0.3% 하락했다. 이로써 물가 상승세가 9월까지 소비자물가는 4.8%, 도매물가는 2%에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의 8.4%에 비해 크게 안정된 수준이다. 도매물가의 경우 8월에 0.2% 내린 데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물가가 이처럼 안정세를 보인 것은 추석과 대동(대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증진으로 상승세가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제품은 작년말보다 4.1% 올라 작년 같은 기간의 21.5%보다 크게 안정됐다. 특히 1회 이상 자주 구입하는 품목도 같은 기간 중 15.5%에서 6.2%로 둔화했다. 9월 한달동안은 신선식품이 3.2%(작년 9월 1%)/월 1회 이상 구입 품목 1.3%(0.3%), 20개 기본생활품은 0.6%(0.3%)/월이던 다소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도 전월보다 0.9% 올랐고 집세가 0.3% 상승과 개인서비스 요금이 각각 0.2% 상승했으며 공공요금도 연달아 상승세를 나타내 8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한편 경제기획원의 바스모를 보면 9월중 물가 상승률은 연내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밝혔다.



92.10. 1

# 서비스料 큰폭인 줄라

## 소비자物價는 0.3%로 안정유지

9 월 중

통계청·韓銀조사

정부의 총수요관리정책과 과소비 지정추세, 농산물가격의 호진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과소비와 과잉생산, 화원비등 개인서비스料의 상승이 물가안정세를 유지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 30일 통계청과 韓銀이 내놓은 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중 소비자물가는 추석·대동「대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8월에 비해 0.3% 오른데 그쳐 작년말 대비 4.8%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매물가는 8월중 물가 상승세를 이어 0.2% 내린 데 이어 9월중에도 0.3% 하락, 작년말에 비해서는 2.0% 상승에 머물렀다. 그러나 물가안정세도 과소비(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들도 추세의 영향으로 다소 상승세를 보였는데 작년말 대비 ▲신

비(10.4%) ▲칼류수(12.5%)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가운데 생활물가(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들도 추세의 영향으로 다소 상승세를 보였는데 작년말 대비 ▲신

선식품은 4.1% ▲월 1회 이상 구입 품목 6.2% ▲20개 기본생활품은 5.3%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 기업 設備 투자 부진

## 國內 기계受注 30% 감소

### 작년比 內需 진정으로 産業生産者 悲

#### 통계청, 8월중 産業동향 발표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가 제의 구조조정 이 계속 진행되면서 물가와 금리가 행되는 가운데 유류, 기업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경 의 투자활동이 점차 이상 고요화돼 수출과 내수기계가

이론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는 내수 증 進 策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중 産業동향에 따르면 8월중 産業受注는 1년전 에 비해 1.9%가 늘어난데 비해 그중 기계受注는 74.4%로 지난 89년 5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처럼 産業受注가 비교적 적을수록 기계受注는 주로 내수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8월중 내수용 기계受注는 8.4%의 비 교적인 폭으로 줄어든다. 특히 수출용 기계受注는 1년전에 비해 3.2% 줄어든다.

이같은 구조조정 속의 투자가 급변해 냉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에 비해 기계受注가 둔화되어 있는 내수용 기계受注가 8월 중 1년전 동행치수인 0.5% 합달전과 비해 감소하고 동행치수 수확면 동치도 1.2% 감소했다.

2.3%를 웃도는 동행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5월 단 한차례의 마이너스를 제외하고는 매달 계속 경기 상승세를 예고해오고 있다.

#### 解説

지난 8월 8일 신로 이그나스 경제연구소의 '92년 8월 23개 産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중 産業受注는 1년전 동행치수인 0.5%로, 89년 5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8월중 産業受注가 1년전 동행치수인 0.5%로, 89년 5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제조업 가동률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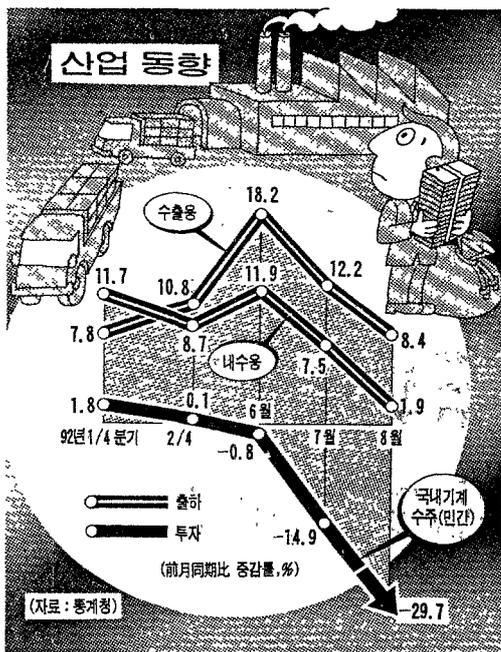
산업생산활동이 부진해 제 자는 것이 그간의 극대치 중의 가치를 지닌 89년 5월 이후 40개월만에 과거 나타나는 가운데 수 7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 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1.4분기중의 실비로서는 극미 총생산의 17.8%로 지난 89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처럼 産業受注가 비교적 적을수록 기계受注는 주로 내수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8월중 내수용 기계受注는 8.4%의 비 교적인 폭으로 줄어든다. 특히 수출용 기계受注는 1년전에 비해 3.2% 줄어든다.

이같은 구조조정 속의 투자가 급변해 냉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에 비해 기계受注가 둔화되어 있는 내수용 기계受注가 8월 중 1년전 동행치수인 0.5% 합달전과 비해 감소하고 동행치수 수확면 동치도 1.2% 감소했다.

2.3%를 웃도는 동행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5월 단 한차례의 마이너스를 제외하고는 매달 계속 경기 상승세를 예고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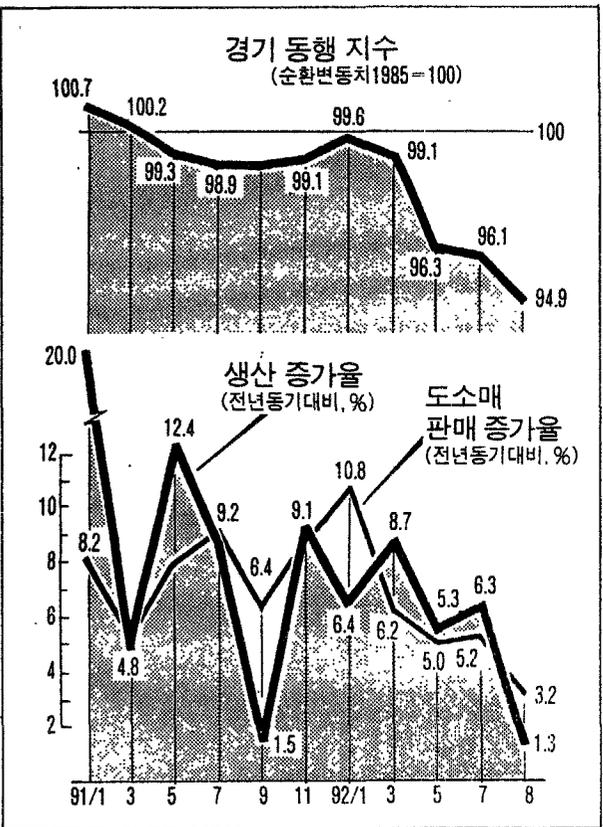
<그림: 박춘환기자>

「8월 산업활동동향」과 전문가 진단

# 生産·소비·投資 동반 침체

국내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사회가 각종 불균형을 해소할 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월의 산업활동동향은 7월과 마찬가지로 중·저위축 단계에 진입한 실정이다. 그러나 8월의 산업활동동향은 7월과 비교하여 생산·소비·투자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8월의 산업활동동향은 7월과 비교하여 생산·소비·투자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8월의 산업활동동향은 7월과 비교하여 생산·소비·투자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8월의 산업활동동향은 7월과 비교하여 생산·소비·투자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8월의 산업활동동향은 7월과 비교하여 생산·소비·투자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8월의 산업활동동향은 7월과 비교하여 생산·소비·투자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 각종指標바다 景氣논쟁앞서

후 6년 2개월만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반영 기업설비투자가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현재와 같은 실정을 알면 두 달의 경기동향지수도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은 7월과 비교하여 △생산·소비·투자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8월의 산업활동동향은 7월과 비교하여 생산·소비·투자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로 다소 완화된 실정이다. 그러나 소비·투자·생산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8월의 산업활동동향은 7월과 비교하여 생산·소비·투자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실정이 이처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투자·생산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8월의 산업활동동향은 7월과 비교하여 생산·소비·투자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실정이 이처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투자·생산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8월의 산업활동동향은 7월과 비교하여 생산·소비·투자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나고 불과 며칠이지만 유례를 갈수록 고령층을 알 수 있다.

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11월 이후엔 『경기』보다 『경기』를 더 많이 읽을 것이라고 가장 중대한 지표를 꼽아 말했다.

여론조사 업체인 그랜드 리서치리서칭 또한 지난 9월과 10월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경기』를 가장 많이 읽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경기』가 가장 중대한 지표를 꼽아 말했다.

『경기』를 가장 많이 읽는다고 밝힌 이유로는 『경기』가 가장 중대한 지표를 꼽아 말했다.

특히 8, 9월 들어 수출이 주춤 회복되고 있는 것도 향후 경기를 밝게 하는 요인이라 지목하고 있다고 경제기획위원회 부장이다.

경기 산업의 회복과 경제발전에서 발표한 경기실사지수(BSI)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산업진흥청이 발표한 4분기 BSI는 1백08점이며 전년 동기 10월의 BSI는 1백11을 기록, 향후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기업을 이끄는 여론도 밝았다.

그동안 이같이 부정적여론과

지속된다는 『아직까지 산업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만 기업을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체중을 지탱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8월의 산업진흥청 2·3분기 실적 발표는 산업이 회복되고 0.3%포인트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경제가 어렵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한림대조사에 따르면 경기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지만 산업진흥청의 5%이상 증가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그 밖에 이같이 경기

# ..향후전망도 불투명 경쟁력提高 힘쓸때

데이타를 분석한 VTR 제작기동 전자제품과 디지털음향의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경기 상황이 많은 전자제품을 처해 있다고 해서 오디오와 전기장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제품의 『8월』은 산업진흥청이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디오, TV, 컴퓨터, 전자제품 등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의 전자제품 판매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디오, TV, 컴퓨터, 전자제품 등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투명한 경기 상황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8월』은 산업진흥청이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디오, TV, 컴퓨터, 전자제품 등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의 전자제품 판매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디오, TV, 컴퓨터, 전자제품 등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의 전자제품 판매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디오, TV, 컴퓨터, 전자제품 등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을 밝고 산업구조조정 여부와 기업체력의 향상을 강요하는 긍정적인 통찰력만으로도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을 밝고 산업구조조정 여부와 기업체력의 향상을 강요하는 긍정적인 통찰력만으로도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孫顯德기자〉

# 不況심화... 관련指標 악화

## 8월 「産業활동動向」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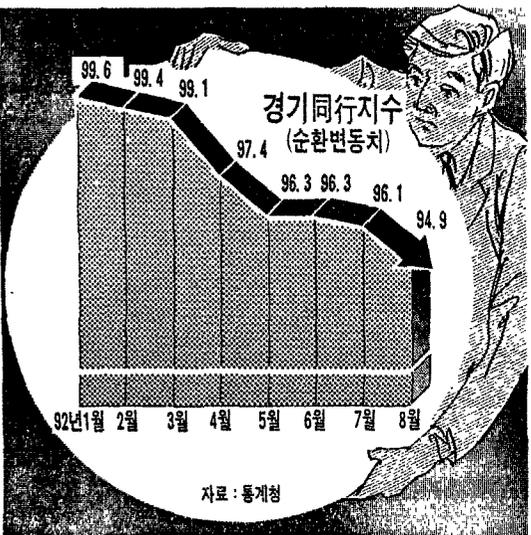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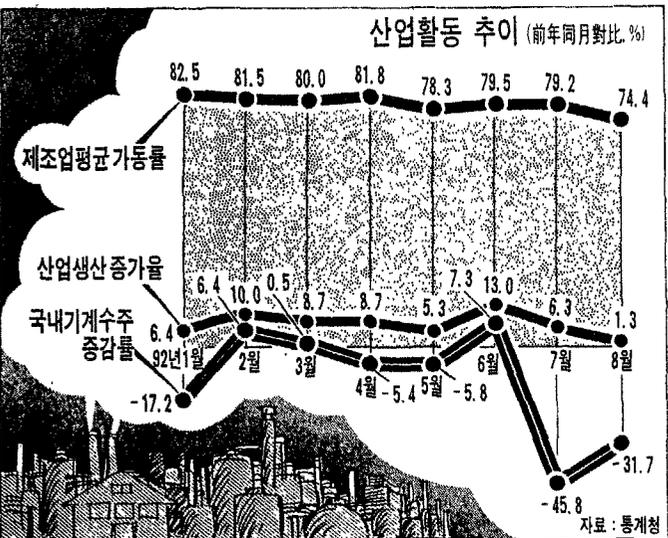
7월 8월의 産業活動動向은 前年同月對比로 77.9%로 前年 7월의 79.2%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7월의 79.2%는 前年 7월의 79.2%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7월의 79.2%는 前年 7월의 79.2%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7월 8월의 産業活動動向은 前年同月對比로 77.9%로 前年 7월의 79.2%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7월의 79.2%는 前年 7월의 79.2%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7월의 79.2%는 前年 7월의 79.2%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7월 8월의 産業活動動向은 前年同月對比로 77.9%로 前年 7월의 79.2%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7월의 79.2%는 前年 7월의 79.2%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7월의 79.2%는 前年 7월의 79.2%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7월 8월의 産業活動動向은 前年同月對比로 77.9%로 前年 7월의 79.2%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7월의 79.2%는 前年 7월의 79.2%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7월의 79.2%는 前年 7월의 79.2%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 정부선 「構造조정」 판단 대책 處方도 구구각각... 업계 무방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동행지수 하락은 7월 96.1에서 8월 94.9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92년 1월 99.6에 비해 4.7%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7월 96.1은 前年 7월의 96.1에 비해 0.0%포인트 하락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사람의 자  
신은 생각의 영향을 받는 바  
제들이 해산되던 당시의 정  
상이나 당시의 사회적 문제  
들이 또한 당시의 정서적  
영향을 받아서 그 후의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金元泰기자〉

정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무엇이 정말 좋은지 모르  
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해탈을 원한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리고  
사실은 나는 내 삶이 어떤  
것으로 끝나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

좋은 것은 물론이지만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다.

정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무엇이 정말 좋은지 모르  
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해탈을 원한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리고  
사실은 나는 내 삶이 어떤  
것으로 끝나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

〈金元泰기자〉

정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무엇이 정말 좋은지 모르  
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해탈을 원한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리고  
사실은 나는 내 삶이 어떤  
것으로 끝나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

# 無用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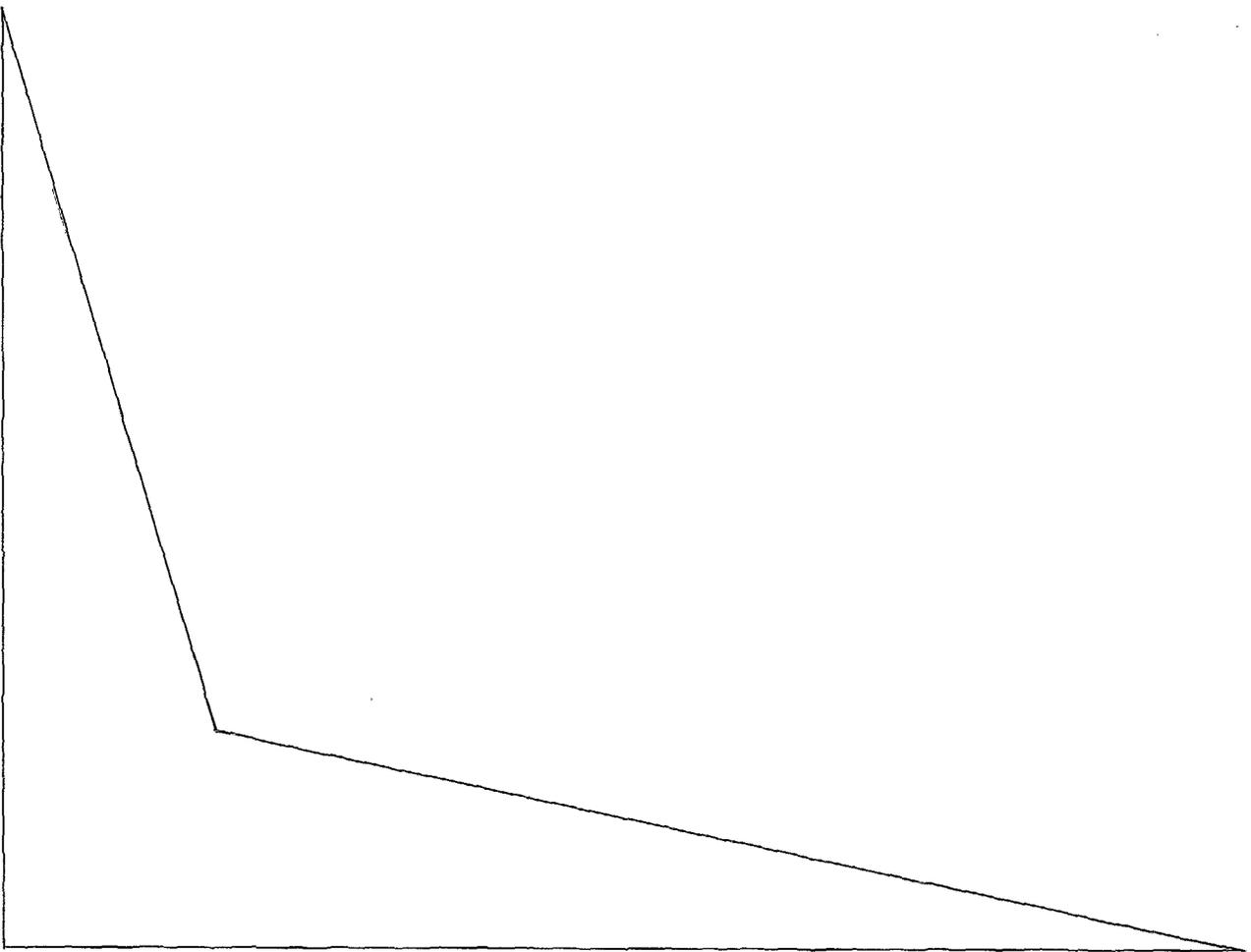
# 비상태

정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무엇이 정말 좋은지 모르  
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해탈을 원한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리고  
사실은 나는 내 삶이 어떤  
것으로 끝나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

정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무엇이 정말 좋은지 모르  
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해탈을 원한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리고  
사실은 나는 내 삶이 어떤  
것으로 끝나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

정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무엇이 정말 좋은지 모르  
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해탈을 원한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리고  
사실은 나는 내 삶이 어떤  
것으로 끝나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

정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무엇이 정말 좋은지 모르  
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해탈을 원한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리고  
사실은 나는 내 삶이 어떤  
것으로 끝나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



# 생산·소비·투자 금격이 위축

8월 産業 동향

## 가동률 (74.4%) 89년 4월 이래 最低

### 정부 내주 설비 투자 촉진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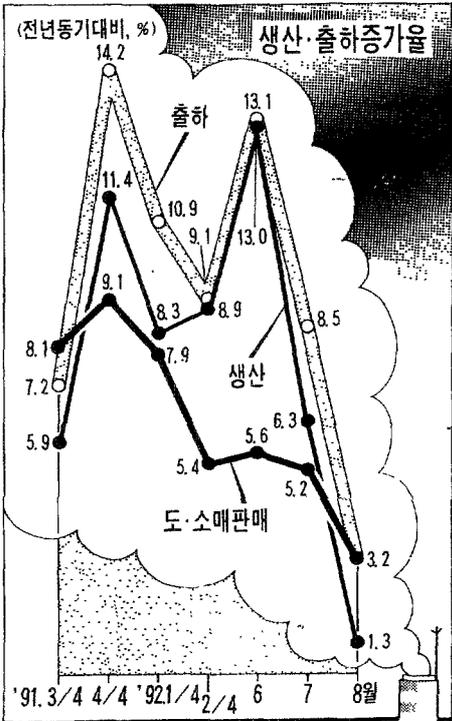
올 하반기의 산업생산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내수소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산업생산은 1년 전 대비해 1.3% 증가에 그쳤고 설비투자 부진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주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의화대출 및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융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설비투자 촉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고무제품을 신상품품종의 부진으로 전년 8월보다 1.3% 증가, 지난 9월 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제조업가동률도 7월보다 4.8%포인트 낮은 74.4%로 지난 89년 4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생산활동의 위축은 출하증가율이 지난 7월의 8.5%에서 3.2%로 급격히 떨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내수증가율은 작년 동월의 비해 1.9%늘어난데 그친 반면



수출증가율은 8.4% 증가를 보여 최근 경기하강세를 내수부진의 의해 추도가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출하부진에도 불구하고 월(17.3%)보다 다소 낮아졌다.

소비는 도소매판매가 3.2% 증가에 그쳤으며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3.4% 감소했다.

생산과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반영, 민간기계수가 작년 동월에 비해 29.7%나 감소하고 기계류 수입액도 59%나 줄어드는 등 설비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입액은 지난 7월부터 일부 산업용기계의 대한 진출규제가 해제돼 산업용기계가 면적이 3.7% 늘었다. 주자용과 공업용이 줄어 전체 진출액이 면적은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했다.

8월중 산업생산은 전반적인 산업활동의 부진으로 1년 전 대비해 0.3% 높은 2.3%를 기록했다.

한편 8월중 경기동행지수는 전월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한데 반해 동행지수 순환변동지수도 1.2% 각각 감소했으나 2~3개월후의 경기예고하는 선형지수는 0.7% 올라 4.4분기 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社 說

製造業을 더욱 부추겨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의 산업활동지수(중공업 제외)가 1년 전보다 1.3% 증가한데 그치고 제조업의 활동지수가 7월보다 4.8%포인트나 74.4%로 나타났다.

8월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9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며 제조업지수를 역시 4개월래 최저수준이다. 출하증가율도 7월의 8.5%에서 8월에는 3.2%로 둔화되고 다만 재고수준은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상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첫 번째 어렵 수밖의 없다.

정부가 아직도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 필요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 경기 대책의 불발요인을 거듭 추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업측은 국내경기가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단 단제로까지 가지 않겠다 단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경기의 대한 중합적인 판단의 어렵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명백히 해를 두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구조조정이다. 정부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구조조정이든바 저물제거의 과정이고 어느 단계부터가 불확인가 하는 점이다. 대단히 오랜 기간 조정이라든가 조정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경기수성의 계속될 것이며 잘못된 판단이론 이해 경제정책을 그 밑받침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아무런 구조조정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같은 산업

동향의 예측된 것이 아니라면 예측의 선을 넘은 것이냐의 판단이다.

상반기중 GNP 관련통계결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관련경제부처가 의의 판단을 인식을 했다기 보다는 있었다. 우리의 상황의 어떠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정책목표상의 도출이나 예측 가능했던 결과라면 현 상황은 우려했던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8월의 산업활동지수 예측면수 밖에서 나일 결과라면 문제는 전연 달라진다.

같은 통계치의 결과라고 예측의 범주에 있었다면 경제전반이 정책목표의 틀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대응책은 필요치 않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조어도 예측이 된다 간 관측의 관측이 있어야 한다 단 것이다. 이런 점에서 8월의 산업활동지수 예측과 예측의 불합치 여부를 제시한다고 보지 않는다. 재고수준의 다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을

충이므로 재고를 조절하고 있다 하 것이 많다. 또 최근 수요회색의 실제금리가 내려가고 자금시장의 완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현재의 경기나 양이론 상황을 여하하면 판단하고 있는 간에 기점으로서는 정부의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실부자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이든 전연하든 관련정책이 어느 정도는 시대의 체질 변화가 오지 못하든 것은 문제이지만 정책의 노후를 지나치게 강조하든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경기의 대한 면밀한 분석과 판단, 정확한 예측이 오히려 더 절실하다.

社說

침체景氣突破力에 없다

산업활동과 관련된 기간중 지표가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충분치 않다. ...

정리과 경제수치적자감소의 불충분은 ...

최근의 산업활동에 일부 긍정적이 ...

제조업의 실적지표를 보면 8월 ...

같은 품목가격을 올렸다고 할 수도 ...

5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

社說

「安定」에 가리어진 심각한 經濟침체

국내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아무래도 단순한 沈滯국면을 넘어 不況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것 같다. 정부는 계속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중 산업활동동향」은 그런 심증을 굳혀준다.

발표에서 드러난 내용들은 한결같이 전형적인 불황징후를 완연하게 가리키고 있다. 소비가 줄고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조업가동률과 투자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지난 8월의 전년同月대비 산업생산증가율 1.3%는 6월과 7월 증가율의 10분의1과 5분의1 수준이며 91년2월(1.2%)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음은 74.4%로 집계된 제조업가동률로서 한달전보다 4.8%포인트나 더 낮아졌을뿐 아니라 89년4월(73.2%)이후 40개월만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제조업설비의 4분의1 이상이 쉬고 있는 셈인데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는등 불황탓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내수용 출하가 전반적으로 크게 둔화된 가운데 특히 내수 소비재출하는 3.4%가 감소되고 재고증가율은 지난달(17.3%)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15.2%)을 기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8월의 景氣實狀을 가장 단적으로 전해주는 지표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4.9로 곤두박질했는데 이것은 72년3월(94.4)이후 무려 20여년만의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되는 사태는 역시 投資위축 현상이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갈수록 더 냉각되고 있음을 8월중 동향은 확인시켜준다. 지난 7월중 전년대비 각각 2.2%와 40.9% 감소했던 국산기계제작주문과 기계류 수입허가가 8월중에는 다시 각각 29.7%와 59%나 감소되어 투자위축현상이 실로 심각한 국면에 와있음을 말해준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는 높은 금리부담등 여러가지를 꼽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최근의 어려운 경제동향과 함께 장래에 대한 질은 不確實性 때문이다. 3개월이후의 경기를 예고하는 先行지수가 8월중에 0.7% 올랐다고 하나 同行지수가 크게 감소되고 大選이라는 커다란 정치경제 사회적 變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물론 안정은 중요하다. 계속 추구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안정과 불황은 다르다. 최근의 경기내용과 흐름을 좀더 분명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1년 82달러

91년 6,498달러

1인당 국민소득

단적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85.8%의 증가를 보인 반면, 61년 82.4%에서 91년 74.2%로 감소한 것을 보면, 소득분배가 고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지난해 2.1%의 증가를 보인 반면, 61년 3.4%에서 91년 2.1%로 감소한 것을 보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統計로 본 韓國의 발전」 統計廳 채퍼내

경제발전이 마땅치 않자 61년 3.4%에서 91년 2.1%로 감소한 것을 보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지난해 2.1%의 증가를 보인 반면, 61년 3.4%에서 91년 2.1%로 감소한 것을 보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지난해 2.1%의 증가를 보인 반면, 61년 3.4%에서 91년 2.1%로 감소한 것을 보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지난해 2.1%의 증가를 보인 반면, 61년 3.4%에서 91년 2.1%로 감소한 것을 보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지난해 2.1%의 증가를 보인 반면, 61년 3.4%에서 91년 2.1%로 감소한 것을 보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국민생활관련 통계

항목	단위	71	81	91년
총인구	명	32,883	38,723	43,268
도시인구	명	4,210	8,195	8,981
시간	시간	52.0	53.7	49.3
평균임금	원	289	1,734	6,498
총생산액	천원	1,868	22,054	91,023
전력생산량	천kw	29.7	439.9	2,276.7
수출액	천kw	2,628.0	9,835.4	21,110.6
수입액	천kw	270	915	2,412
수출액	천kw	655	1,245	1,597
수입액	천kw	3,199	12,121	3,091
수출액	천kw	16,207	23,742	45,496
수입액	천kw	5,990	26,961	12,240
수출액	천kw	77.8	73.7	74.2
수입액	천kw	173	264	372
수출액	천kw	17.7	29.2	60.4
수입액	천kw	1.0	5.0	58.7
수출액	천kw	77	436	1,889
수입액	천kw	3,420	5,804	13,429
수출액	천kw	52,976	115,289	331,610
수입액	천kw	5,512	2,958	8,421
수출액	천kw	56.0	45.5	34.4
수입액	천kw	61.3	49.8	40.6

外債 1인3달러서 9百달러로 3百배늘어  
物價 16배올라 萬원가치 6百22원이되폭락  
2千5百萬人구 30년새 4千3百萬명으로  
대학취학률 5.4배 농가소득은 36배증가

71년 6.6%에서 91년 6.9%로 증가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국민총생산액도 91년 146.9%로 증가했다. 한편, 71년 3.4%에서 91년 2.1%로 감소한 것을 보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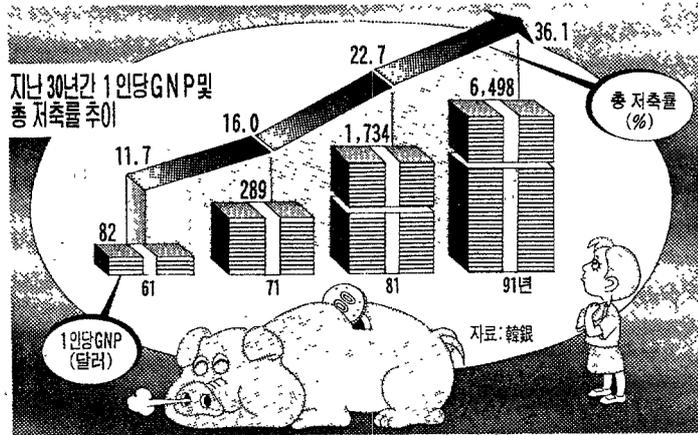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지난해 2.1%의 증가를 보인 반면, 61년 3.4%에서 91년 2.1%로 감소한 것을 보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지난해 2.1%의 증가를 보인 반면, 61년 3.4%에서 91년 2.1%로 감소한 것을 보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지난해 2.1%의 증가를 보인 반면, 61년 3.4%에서 91년 2.1%로 감소한 것을 보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지난해 2.1%의 증가를 보인 반면, 61년 3.4%에서 91년 2.1%로 감소한 것을 보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지난해 2.1%의 증가를 보인 반면, 61년 3.4%에서 91년 2.1%로 감소한 것을 보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1인당소득 79배 증가

30년새

통계로 본 국민생활 발자취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소득은 작년 현재 6천4백98달러로 61년 82달러에 비해 79배 늘어

다. 통계청은 6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변화와 정세를 들여다보고 국민들

은 4천3백26만8천명으로 30년전에 비해 67.9%나 늘어났다. 인구증가세가 이룩되어 30년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0.9%의 인구를

난 것을 비롯해 총저축률은 11.7%에서 36.1%로 증가했다. 수출증대정책과 국제화정책으로 수출의 비중이 20.3%에 불과했으나 81년에는 84.9%까지 높아졌고 이후 내수확대의 영향으로 점차 낮아져 91년 현재 63.1%를 기록하고 있다.

## 인구 68%늘어 주택보급·치안 후퇴

### 지난해 萬원은 65년의 6백원 가치

높으며 상수도·전화·자기용수송등 복지·환경상황이 과거보다 크게 나아졌다. 그러나 물가는 65년 6백원대대의 살수였던 것이 이제 1만원을 넘어야 하는 맥도날드를 찾아야 하는 뒷길에 걸린 것이라

의 통계이동을 확산시킨 다. 정치에서 총 2백4개분야에 이르는 각종 사회경제제출이 다량·중소규모로 한국의 발전권이란 자립점을 떠났다. <인구> 91년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해 1백34배 늘어

9% 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남태평양은 수 밀도 66년엔 각각 59.7세, 64.1세였으나 90년에는 67.4세, 75.4세로 높아졌다. <국민적정> 국민총생산이 30년전에 비해 1백34배 늘어

<산업> 전산업중 중화학공업 을 위주로 한 제조업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년전의 비해 철강생산은 48배, 전자공업생산은 2백40배, 자동차생산량은 2배가 각각 늘어났으며 시멘트

생산량은 30년전보다 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환경> 30년전에 비해의사 1인당 인구가 3.2배 가량 감소하고 상수도 보급률은 17.3%에서 81.2%로, 국민 1인당 전

화보급률은 0.5대에 불과하다. <鄭鐵根 기자>

◇연도별 국민생활 각부문 변천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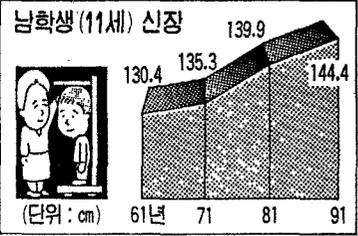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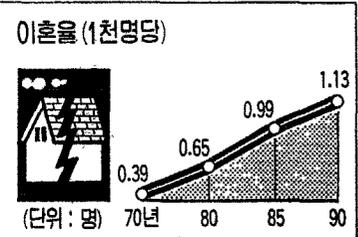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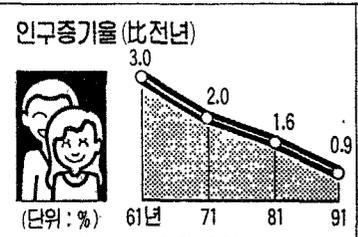
항목	단위	71년	81년	91년
총인구	명	32,883	38,723	43,268
인구	명	289	1,734	6,498
인당 GDP	달러	82	289	1,734
인당 소득	달러	29.7	439.9	2,276.7
인당 저축률	%	61	71	81
인당 생활비	달러	2,628	9,835.4	21,110.6
인당 전도	명	270	915	2,412
인당 도로	km	655	1,245	1,597
인당 주택	개	16,207	23,742	45,496
인당 수돗물	리터	5,990	6,961	12,240
인당 전기	킬로와트시	77.8	73.7	74.2
인당 자동차	대	173	264	372
인당 가구	대	17.7	29.2	60.4
인당 인구가 통	명	1.0	5.0	58.7
인당 교육	명	77	436	1,889
인당 의료	명	3,420	5,804	13,429
인당 문화	명	512	2,958	8,421
인당 여가	명	56.0	45.5	34.4

# 1인 GNP 79배 증가

## 통계로 본 한국 30年

### 승용차 보유대수 5백87배 이혼율·교통사고등 급증부

한국은 지난 30년간 (61~91년) 1인당 GNP가 80배 가까이 늘고 승용차 보유대수도 1천명당 0.1대에서 58.7대로 증가했다. 또 경제발전 전에 따라 취업자수가 늘고 취업구조도 제조업 중심으로 탈바꿈했으며,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사회 발전과 함께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가 늘고, 이혼율이 급증 추세에 있으며 제조업 이직률이 높아지고, 외채규모가 늘어나는 등 명암이 엇갈렸다.



경제발전은 5월 발간한 「통계연보」 본 해의 발전취급 제도의 제자를 통해 지난 30년간 한국의 탈바진 모습을 각종 사회지표 등 통계로 통해 다각도로 조명했다.

**인구증가율 0.9%**

인구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져서 61년 3%에서 91년 2%, 81년 1.6%, 91년에는 0.9%에 그쳤다. 단, 61년 0.9%, 66년 0.7%, 64·1세였으나, 90년에는 67·4세, 75·4세로 높아졌다. 한국의

구는 25년전의 비해 2배 가까이 늘고, 취업자수도 2.2배 증가한 반면, 실업률은 66년 7.1%(68만명)에서 2.3%(44만명)로 낮아졌다.

취업구조도 크게 변해, 66년 당시 농업·농림·수산업·제조업이 57.8%에 달했으나, 91년 현재 16.7%로 크게 낮아진 반면, 광공업·서비스업·서비스업은 26.9%,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종사자는 31.4%에서 56.4%로 각각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제조업이직률이 취업자를 앞지르거나, 특히 최근 5년간

나타내듯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91년 현재 1백37만명으로 30년전의 비해 66배 높아졌다.

**1인당 외채 9백44억**

이와 함께 국민1인당 외채규모는 61년 3달러에서 9백44달러로 불어났으며,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액도 1천1백원에서 90년에는 76만7천2백원으로 늘어났다. 국민1인당 주부소비량은 83년 550에서 91년 650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71년 75에서 1백14가 되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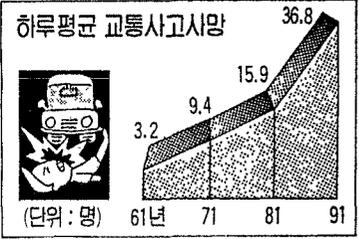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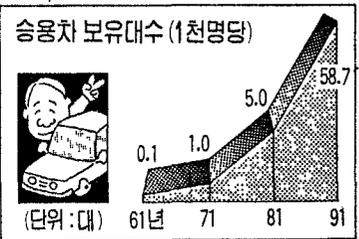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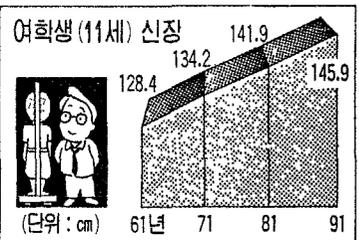
주요사망원인(90년 기준)은 노년자의 질병, 노년질환, 환·교통사고, 만성질환, 및 심장질환, 위암, 고혈압, 암질환, 간암 등이었으며, 여자간암, 만성질환, 고혈압, 암질환, 위암, 교통사고 등이 주요사망원인이다.

**소기업은 3분의 1로**

고용 정책활동은 15세 이상인

은 구직자수보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자수가 오히려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재정** 30년 전 국민재정 21조원에 불과하던 국민총생산은 91년 현재 2천8백89달러로 1백34배 늘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GNP도 82달러에서 6천4백98달러로 79배 증가했다. 저축지불금도 늘



의사1인당 인구는 1인당 인구의 1/3 정도인 3,066명에서 951명으로 줄었다. 인구는 1961년 3천66만에서 91년 현재 9백51만으로 3배가량 감소했으며, 1개 병상당 인구수도 2천5백14명에서 4백4명으로 6.2배 줄어 의료환경이 크게 좋아졌다.

30년전만 해도 흉터백일해 등 전염병의 무서움은 부렸으나, 의료 보건환경이

# 경총 작용

의 환경이므로 현재는 당시의 1/3~1/5 수준으로 평가됐고, 소아마비환자의 경우 지난 81년 이후 한 건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보건지표의 하나인 학생 신장 및 체중 증가 추이를 보면, 62년 당시 11세 국민학교 6학년) 남학생 신장은 1백30.4cm, 여학생은 1백28.4cm였으나, 91년 현재 1백44.4cm, 1백45.9cm를 기록, 남녀 각각 14.0cm~17.5cm 커졌다. 체중 역시 11세아동은 27kg에서 37.6kg, 여학생은 27.0kg에서 38.3kg으로

## 의사1인당 인구 3,066명서 951명으로 男女 국민학생 신장도 14~17cm 커져

로 늘었다.

인구 1천명당 자동차보유대수는 승차증 기준으로 62년 1.2대에서 91년 현재 98.2대승용차만으로 늘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하루평균 3.2명, 인구 10만명당 4.5명 수준이었으나, 91년 하루평균 36.8명, 인구 10만명당 31.0명으로 급증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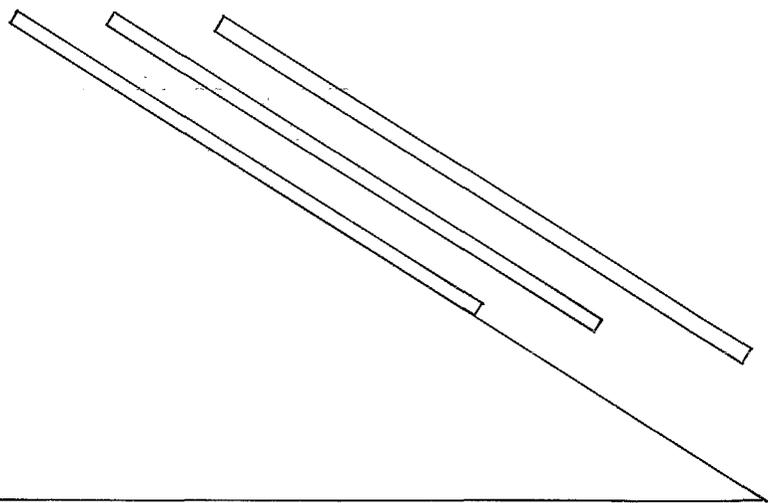
강력범죄 해마다 증가

범죄는 점차 줄어들고 추세이나, 실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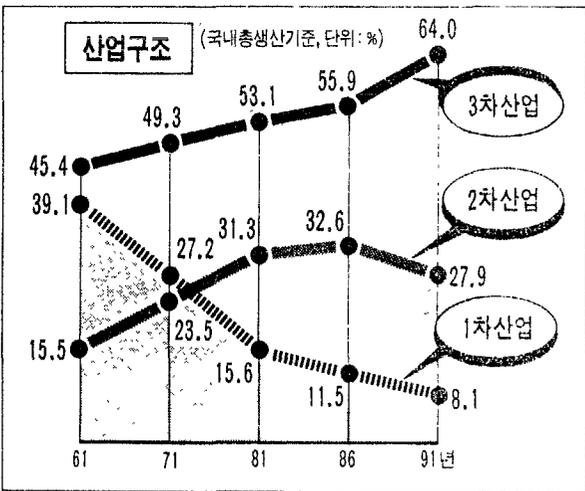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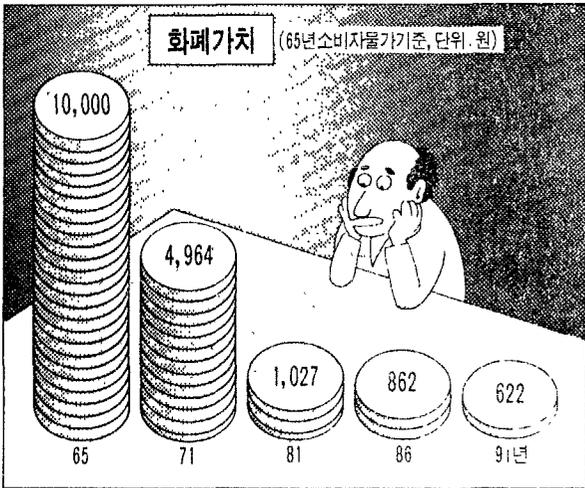
국민학교

교육문화: 학급당 학생 수는 30년전 62.9명에서 현재 40.6명으로 줄어났으며, 교사 1인당 학생수도 61.2명에서 34.4명으로 줄어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전국의 급장수는 30년전 3백2개소에서 7백62개소로 2.5배 늘어났으나 1인당 연간 관공회수는 2.3회에서 1.2회로 오히려 2배 정도 줄었다. 이밖에 인구 1천명당 유아원 수는 1970년의 0.38명에서 1.13명으로 높아졌다.

〈承仁培기자〉







# 1인純외채 2백76弗 사고발생율을 금강수세 電話모뎀들이 8배로

사회관람지표들은 현저히 개선됐다. 62년 82.4%에서 91년 74.2%로 떨어졌고 전화모뎀들이 전화기 기준이므로 국민 1백명당 0.5대에서 4.9대로 늘었다. 또한 주제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지표 (△은 적자)

구분	61년	71년	81년	86년	91년
총인구(천명)	25,766	32,883	38,723	41,184	43,268
1인당GNP(달러)	82	289	1,734	2,505	6,498
경상수지(백만달러)	0.1	△ 847.5	△ 6,446.0	4,617.0	8,727.7
총외채(백만달러)		2,245	32,433	44,510	39,135
무역의존도(%)	21.2	42.6	84.9	76.9	63.1
1인당세금(천원)	1.1	15.0	211.0	374.3	767.2
화폐가치(65년1만원기준)		4,964	1,027	862	622
동기인구비율(%)	56.3	44.7	25.8	19.9	14.0
52이상제조업체수	15,928	23,412	33,431	50,063	68,872
발전능력(kw)	367	2,628	9,835	18,060	21,111
고속도로(천km)		655	1,245	1,415	1,597
전화가입자(인구백명당)	0.4	1.7	8.4	18.3	33.7

라 내국인 출자수가 두 국민 1만명당 4.4명 수준에서 30년만에 4백36.6명으로 89배가 증가했고 외국인 출자수는 약 2백87백 명 수준에서 91년경 368명, 31.0명으로 증가했다. 또 살인죄와 강간죄 등 중형 범죄의 20%정도 비해 61%로, 10년정도는 비해 26%~5%로, 전년도 비해 약 4% 정도였다. 영남지역의 발전정도는 5%정도다. 51% 정도가 산해 공해 발생 기준치이며 하루 평균 1만1천500톤의 폐기물 발생량으로 한 해 400만톤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기술·인력개발 기관 = 71년경 12개 기관으로 늘었는데 91년 20개로 늘었고 56개는 55개이며, '신기술개발' 1천800억원에서 1천500억원이며, '신인력개발' 3천200억원에서 3천240억원으로 늘었다. **【종합기각】**

## 통계청 발간 '통계로 본 한국의 발전취'

통계청은 5일 '통계로 본 한국의 발전취'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고용, 산업, 교육, 기술 등 통계로 잡히는 경제·사회 전반을 연도별로 분석해놓고 있다. 주요 부분을 요약해 소개한다.

인구 억제정책으로 출생률이 3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낮아지면서 인구증가율도 61년의 30%에서 지난해는 0.9%로 떨어졌다. 그러나 절대인구는 같은기간 동안 67.9%나 증가해 지난해 7월1일 현재 4천3백27만명에 이르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성도 크게 달라졌다. 0~14살의 유년인구는 30년전 총인구의 42.9%에서 91년에는 25.3%로 낮아졌다. 반면 15~64살의 경제활동인구는 54.2%에서 69.6%로, 65살 이상의 노령인구는 2.9%에서 5.1%로 높아져 인구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졌다.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비중인 총부양비(0~14살 및 65살 이상 인구 비중)도 84.7%에서 43.7%로 낮아졌다.

으나 91년에는 84.9로 나타나 사무직·생산직간 임금격차는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행정 관리직 및 전문기술직과의 생산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고졸학력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자는 20년전 175에서 76~86년에는 222~230까지 확대된 뒤 91년에는 179로 좁혀졌다. 남·여간 임금격차는 76년 100 대 44에서 91년에는 100 대 54로 좁혀졌으나 아직까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계정·금융·재정·대외거래 30년전 21억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총생산은 91년 2천8백8억달러로 1백34배 늘었고 1인당 국민총생산도 82달러에서 6천4백98달러로 79배 증가했다.

30년전 11.7%에 그쳤던 총저축률은 지난해 36.1%로 높아졌고, 총투자율 역시 12.0%에서 39.3%로 늘었다.

대외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금·외환보유고는 91년 1백37억달러로 61년보다 66배 늘었고 국민 1인당 부담능력도 48달러에서 3백17달러40센트로 40배 가까이 증가했다.

만7천2백원으로 늘어났다. 산업 농가인구비율은 61년 총인구의 56.3%였으나 91년에는 14.0%로 크게 낮아졌다. 농촌인구 가운데 50살 이상 인구비율은 71년 16.3%에서 지난해는 39.1%로 높아져 농촌인구의 고령화추세가 뚜렷해졌다.

농림수산물 수출은 70년 2억1천8백만달러에서 91년 29억8천6백만달러로 13.7배 늘었다. 수입은 4억6천9백만달러에서 69억3천1백만달러로 14.8배 증가했다.

83년 주류출고량은 2백18만9천·로 국민 1인당 소비량이 55ℓ였으나 91년에는 출고량이 2백79만3천·, 1인당 소비량은 65ℓ로 각각 늘었다.

담배생산은 71년 24억8천만갑에서 지난해는 46억7천만갑으로 늘었다. 1인당 흡연량은 75갑에서 1백14갑으로 증가했는데, 18살 이상만을 기준으로 하면 1백47갑에서 1백65갑으로 늘어났다.

종이생산은 91년 4백92만t으로 60년전보다 89.8배 늘었다. 국내소비량도 57.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종이소비량은 30년전보다 33.1배 증가한 1백12.

무려 2만6천8백배 늘었다. 의료·사회복지·환경 의사 1인당 인구수는 30년전 3천66명에서 91년 9백51명으로 줄었다. 61년만 해도 홍역·백일해 등 전염병이 극성을 부렸으나 현재는 당시의 1~1.5% 수준으로 감소했고, 신규 소아마비환자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66년 영아 1천명당 사망자가 60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3명으로 줄었다. 5살 이상 인구 1백명당 결핵환자는 4.2명이었으나 90년에는 1.8명으로 감소했다.

인구 천명당 자동차보유대수는 62년 1.2대에서 지난해는 98.2대로, 자가용 승용차는 0.1대에서 58.7대로 늘었다.

30년전 해외출국자는 1만명당 4.4명이었으나 지난해는 4백36.6명으로 늘었고 외국인 입국자수도 2백87배 증가했다.

범죄는 72년에 비해 26% 늘었으나 10년전 보다는 12% 줄었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는 20년전보다 61%나 급증했다.

교육 문화 30년전에 비해 유치원과 유아원수는 각각 26배, 2

# 커진 덩치 걸맞게 문제도 복잡다단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 1명이 가입기간(15~49살) 동안 낳는 자녀수는 60년 6.0명이었으나 90년에는 1.6명으로 대폭

**30년새 GNP 79배 한사람당 저축 2백27배  
인플레 극심 25년전 6백원짜리 지금 1만원  
10년전비해 이혼재판2.5배 협의'파경' 1.6배**

9배씩 늘어 취원율도 1백명당 0.8명(4~5살 기준)에서 33.0명으로 증가했다.

국민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다. 인구 천명당 이혼율은 70년의 0.39명에서 90년에는 1.13명으로 높아졌다.

인구밀도는 30년전 1km<sup>2</sup> 당 62명에서 91년 4백36명으로 높아져 인구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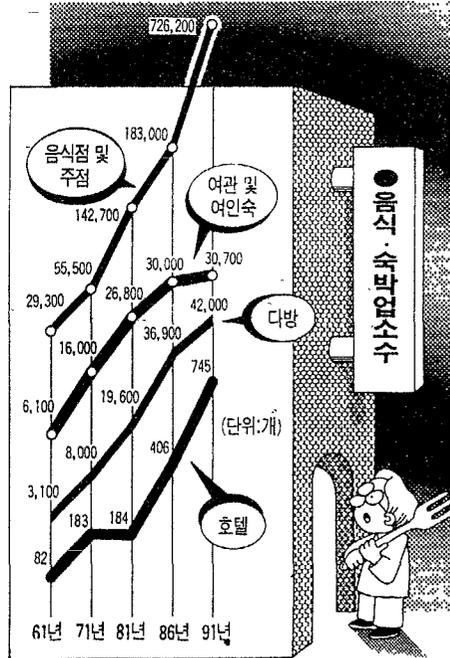
고용·임금·근로 경제활동인구는 25년전보다 2.1배 늘었고 취업자수도 2.2배 증가했다. 실업자수는 66년 63만명을 웃돌면서 실업률이 7.1%였으나 91년에는 실업자수가 44만명으로 줄고 실업률은 2.3%로 낮아졌다.

66년 농림어업 종사자수는 전체 취업자의 57.8%였으나 91년에는 16.7%로 낮아졌다. 이에 반해 광공업 취업자수는 10.8%에서 26.9%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31.4%에서 56.4%로 늘었다. 직업별로도 농림수산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8.1%에서 16.6%로 준 반면, 생산관련 종사자는 16.7%에서 34.9%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여성의 취업이 늘면서 남녀별 취업자 구성비는 66년 65.2% 대 34.8%였으나 91년에는 59.6% 대 40.4%로 바뀌었다.

전산업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71년 50.6시간에서 86년 52.5시간까지 늘어났으나 지난해는 47.9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제조업도 71년 53.7시간에서 86년에는 54.7시간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한 뒤 91년에는 49.3시간으로 낮아졌다.

사무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생산직의 임금은 20년전 51.5였



인플레이가 극심해 65년 1만원으로 살 수 있던 화폐가치는 91년 6백22원어치 물건 밖에 살 수 없게 됐다.

국민 1인당 저축성예금(예금은행 기준)은 30년전 1천원에서 91년 2백27만7천원으로 늘었다. 총채정규모는 91년 현재 25년전보다 2백56배 늘어난 59조2천5백억원이다.

조세부담률은 61년 국민총생산대비 9.6%에서 지난해 19.4%로 대폭 높아졌다. 1인당 담세액도 1천1백원에서 90년 현재 76

%로 높아졌다.

음식점 및 주점은 91년 현재 27만6천개소로 30년전보다 9.4배 늘었다. 다방은 4만2백개, 여관 및 여인숙은 3만7백개로 각각 13.6배, 5.0배씩 증가했다.

주식상장회시수는 20년전보다 13.7배, 상장종목수와 주주수는 각각 16.3배, 17.5배씩 늘었다. 상장주식수는 30.0배 증가했으며,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6백72.7배, 주식거래량은 81.0배 늘었다.

보험업의 신장세도 두드러졌는데, 수입보험료는 30년전보다

5kg에 이르고 있다. 폐지회수율은 30년 전의 8.9%에서 43.0%로 높아졌으나 아직도 폐지사용량의 43.0%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자동차생산량은 20년전보다 52배 늘어 91년 현재 1백49만8천대에 이르고 있다.

에너지 공급원의 국내생산은 30년전보다 2.6배 늘어났으나 수입에너지는 1백13배 증가해 수입의존도가 8.6%에서 지난해는 80.3

61년 62.9명에서 지난해는 40.6명으로 줄었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61.2명에서 34.4명으로 감소했다.

고등학교 학생 취학률은 30년 전의 19.8%에서 지난해는 88.4%로 높아졌고 여학생 비율도 20년전의 37.8%에서 47.3%로 올라갔다.

전국의 극장수는 소극장을 포함해 61년 3백2개에서 지난해는 7백62개로 늘었으나, 1인당 연간 관람회수는 2.3회에서 1.2회로 줄었다.

91년 현재 프로선수는 2천2백13명으로 82년보다 37.7% 늘었다. 야구(3.3배), 축구(4.8배), 골프(8.7배) 선수 등은 늘었으나 권투선수만 유일하게 55.7% 줄었다.

기타 10년전보다 협의 이혼건수는 64.1% 늘었고 재판에 의한 이혼도 2.5배 증가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처리건수는 33.0% 증가했다. <신현만 기자>

### 주당 평균근로시간

	전산업	제조업
71년	50.6	51.4
81년	51.9	53.7
86년	52.5	54.7
91년	47.9	49.3

### 직업별 취업자구성(%)

	사무직	생산직
66년	4.8	16.7
71년	6.9	19.8
81년	9.0	28.2
86년	11.6	31.6
91년	13.3	34.9

# 통계청, 標本 전면 손질

## 家口·사업체 조사 등 현실에 맞도록 조정

내년부터

통계청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현실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표본을 완전히 교체하기로 했다.

통계작성의 기초라 할 수 있는 표본의 과잉과 과소 문제가 지적되어 왔던데다, 수송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조사에 착수, 내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 △도시가계수치 △인구주택 △판공업 및 도소매업 등 각종 통계가 새로 추출된 표본에 의해 작성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그동안 통계의 신뢰성을 다스려 왔던데다, 지점이 너무 적고, 인원이 표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본을 조정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통계작성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의 과잉과 과소 문제를 지적해 왔던데다, 수송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조사에 착수, 내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 △도시가계수치 △인구주택 △판공업 및 도소매업 등 각종 통계가 새로 추출된 표본에 의해 작성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현실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표본을 완전히 교체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현실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표본을 완전히 교체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현실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표본을 완전히 교체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현실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표본을 완전히 교체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현실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표본을 완전히 교체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현실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표본을 완전히 교체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현실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표본을 완전히 교체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현실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표본을 완전히 교체하기로 했다.

감소와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증가, 농림어업취업자의 감소와 서비스부문 종사자의 확대 등 경제사회의 구조변화를 표본에 반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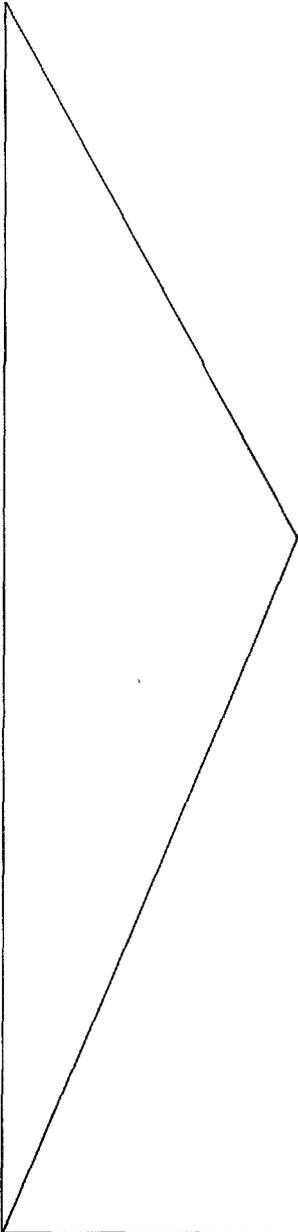
특히 도시가계조사에 있어서는 지역별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본의 크기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 서울 등 6개 도시에 국한해 조사해왔던 것을 15개 市道로 그 범위를 넓히고, 가구수도 4천 6백가구에서 5천 5백가구로 늘렸다.

서비스부문의 확대를 반영, 도소매 실태조사대상 사업체도 4천개에서 5천개로 확대됐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현재 청사를 江南구 驛三동으로 옮겨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孫顯德기자△



**經科委** 통계청감사에서  
의원들이 이구동성  
으로 소비자물가·실업률·통  
계의 신뢰성문제를 질의하자  
정부의 각종 통계기준과 방  
식을 들고들이지 않는 모습.

金珠謙·李明博의원(民自)  
이 먼저 『週1시간 일해도 취  
업자로 통계를 잡는데 사실상  
실업자가 아니다』며 현실적인  
통계조사를 촉구하자 閔泰  
후정장(한)을게는 비관할수 있  
어 야한기때문에 ILO(국제  
노동기구) 기준을 따르다보니  
그렇다』고 답변. 이에 趙世衡  
의원(民主)의 나섰통계를유  
연의 보이기 위해 만났다 『  
먼저 『과거 편인주의 시대의 국  
내 생산전액으로 통계를 왜  
곡하면 산재를 탈피한다』고 추  
구. 또 趙洪錫의원(民主)은  
『ILO기준의 따르면 30%에



안구진활등을 하지않을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잡지, 실업  
자에서 제외하는데 취업이 안  
돼 들고있는 사람을 실업자가  
아니란것 아니다』며 가세.

**통계 -**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 통계청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만들기 위하여 조사대상 가정과 사업체를 새로이 선정 하였습니다.
-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신 분은 우리나라 전체 가정과 사업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 대표로 선정되신 여러분의 답변에 따라 정확한 통계도, 부실한 통계도 만들어 집니다.
- 조사내용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 됩니다.

**통 계 청** •문의전화: 720-2573

**도시家計조사 統計포본개편**

**4천600가구서 5천500·도소매 4천500개로**  
**통계청,가구특성·산업·취업구조변화 반영키로**

통계청은 도시가계조사  
의 지역별 통계를 새로만  
들기위해 표본을 5천5백  
개로 늘리는등 주요통계의  
표본을 대폭개편해 이달부  
터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통계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중안의 가구특성과 산업및  
취업구조등이 변화됨에 따  
라 도시가계조사의 표본을  
기존의 4천6백가구에서  
5천5백가구로, 도소매업  
동태조사는 4천개 사업체  
에서 4천5백개로 각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관계자는 이와관  
련, 『도시가계조사의 지역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표  
본을 늘리고 지역별도 조  
정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도 또 그동안

도시가스와 아파트 다세대  
주택및 3차산업종사자들  
이 늘고 농가와 일반주택  
농업·업종업자들이 감소  
해은 추세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광공업동태조  
사의 경우 표본수는 9천  
개사업체로 동일하지만 생  
산비용이 줄어든 재성타이  
어 농업농수산물 발표기등  
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  
고 농수산품 캘코더 산업  
용도부드림을 새로 추가시  
켰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  
본은 기존의 3만4천가구  
에서 3만3천가구로 지역  
별로 조정해 1천가구가  
줄어들었다.  
신규표본 1개의 대표도  
를 보면 도시가계조사는  
1천3백가구, 경제활동인  
구는 3백50가구들이다.



통계청이 30여년간의 중립국정운영을 청사 대를 마감하고 28일 강판 구의살충소재「한타발」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통계청이 1961년 6월 7일(월) 직후인 61년 11월.

현명진후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새로 출발한 경제기획원 통계국의 당시 조직은 불과 4개 과에 인원수도 2백 50명을 넘지 못했다.

현재 통계청조직이 3국 1원 16과에 11개 지방

통계사무소, 5개 출장소로 확대되고 근무인원도 1천 3백 88명에 이르는 사실과 비교하면 수평之感을 갖게 한다.

도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통계종류만도 38종에 이르고 발간간행물도 54종이나

종인 IBM 3090, IBM 4380I와에 1분에 B, 용지 1백 50장을 관독, 검색할 수 있는 광학관독기 시스템과 16만

통계청「경운洞30年」막내려

오늘 청사이전... 「역삼洞시대」 열어

업무량도 61년 당시는 인구센서스 자료처리까지의 전담였고 발간간행물도 통계연감 통계월보 노동력조사결과보고서 등 한 줄 손만으로도 끝을 정

된다. 경운동 시절을 거치면 서 통계청의 장비현대화 도 큰 발전이 이루어져 61년 당시 단순 전자계산기 수준에서 지금의 주기

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매킨토시 그래픽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덕분에 60년 인구센서스 때는 3년이 소요됐던 센서스 자료처리를 이제

기획원局으로 출발 廳승격  
계산기 수준이던 장비 "첨단준비"  
30년 근속직원 惜別아쉬움

는 2년만에 증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통계청직원중에는 경운동청사 입주 당시부터 근속하고 있는 인원이 국·과장을 합쳐 4명이다. 그중 한 사람인 金景中 통계조사국장(57)은 "보다 좋은 근무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이긴 하지만 30년간 정든 곳을 떠나 자기 서운함이 앞선다"고 「舊청사와의 惜別」을 아쉬워했다. 한편 「舊청사」에는 그동안 다른 건물에 세들어 지내온 통계연수원과 서울통계사무소가 입주하게 된다. 〈林革기자〉

통계청廳舍 이전

통계청(청장 閔泰亨)이 현재의 중앙구 慶雲洞 청사를 31년만에 이전, 28일 부터 강남구 驛二洞 한타빌딩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지난 61년 건립된 慶雲洞 청사는 양면 통계연수원 과 서울통계사무소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기구인 통계청이 지난 48년 당시 공무원 처 산하 통계국으로 첫 출범, 내무부 통계국(55년 2월)을 거쳐 61년 7월 경제기획원 통계국으로 개편 발족됐고 지난해 1월부터 청사도 독립 행정청 기관으로 승격했다.

61년 기획원 통계국으로 발족할 당시 조직은 인구 통계과 등 4개課, 직원 2백50여명에 그쳤으나 현재는 3동 1院 16課 1담당관, 지방통계사무소 11개, 출장소 5개 등 총 인원 1천3백88명의 거대 기구로 성장했다.

통계청 새 청사의 위치는 덕해단로 특별행정사관인 편이며 대표전화는 222-1901-15.

物價·失業率 등 통계 信頼性 제고 노력

「통계는 사실상의 국민들의 마음인 것이다. 통계청장인 권기환의 말에 따르면 통계가 나라를 수렁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성이 중요하다. 지난 30여년간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말아온 통계청이 청사이전 통계 기구 통계제정자는 물론 이 용자들과 보다 친숙해 지겠다는 야기다. 이같은 노력이 하나로 최근 도시가계조사, 표본가구를 찾아 전화카드를 배포하기도 했다.

통계청장 閔泰亨 씨



통계청이 옮겨가면서 옛 청사는 통계연수원과 서울통계사무소를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통계청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선 인력면에선 지난 61년 건립된 통계청사에 입주하던 당시 2백50여명의

需要늘어 조직도 확대... 산파역 보람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1천3백88명00토 5백 이상 늘었다. 조직면에서도 4개課에서 3국 1원16과1담당관과 11개 지방통계사무소 5개 출장소를 거느리게 됐다. 그동안 경제기획원 산하의 「조사통계국」으로 지내다 지난 90년말 통계청으로 승격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명치가 커진 만큼 할 일도 많다. 늘어나는 통계 수요에 좌파 부응하고 눈앞이 띄워야 하는 소비자들이 실생활의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만드는 임무가 바로 그것이다. 초대 통계청장인 기도한 閔청장(80년)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있는 그대를 환영, 더욱 신뢰성을 통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孫熙植기자>

# 내需 둔화 3分期 輸出 호조

## 제조업가동률 3%p 하락

### 전년동기비 重化學부문은 6%증가

통계청, 산업활동지수 발표  
 수출 호조로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내수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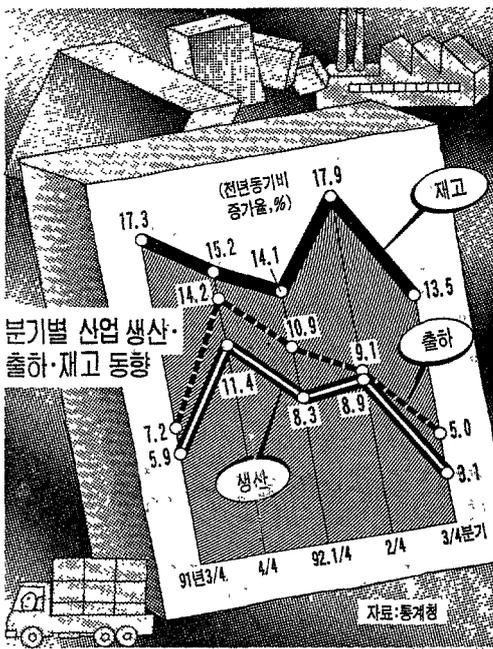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의 산업활동지수(이하 '산업지수')는 전월 대비 0.1%p 상승한 100.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p 상승한 것이다.

이 중 제조업지수는 전월 대비 0.1%p 상승한 99.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p 상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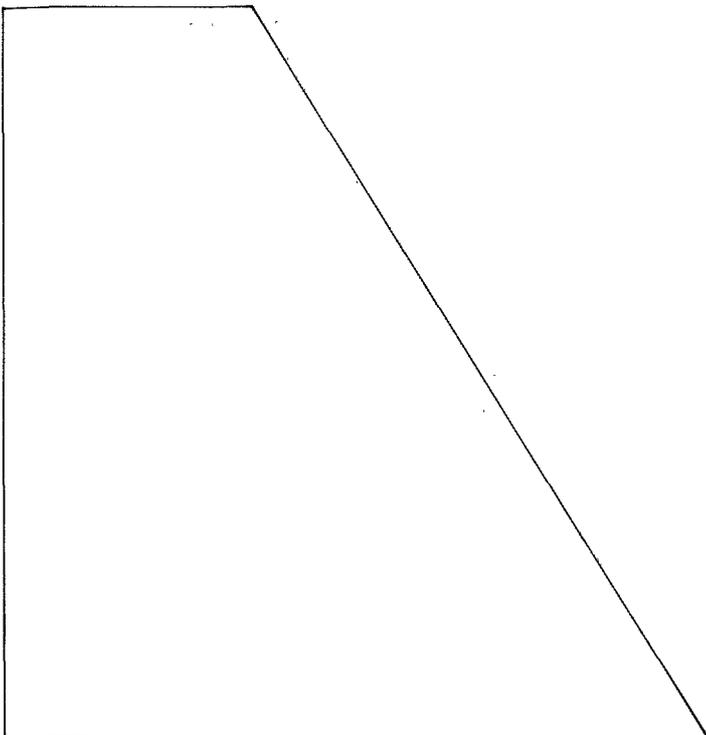
제조업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p 상승한 99.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p 상승한 것이다.

제조업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p 상승한 99.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p 상승한 것이다.

제조업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p 상승한 99.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p 상승한 것이다.



<그림 : 박춘영기자>



# 統計廳 발표 「3·4분기 산업動向」 분석

昨年秋の景況を反映して「3・4분기」の生産額は前年同期比で13.0%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

このうち、製造業は前年同期比で13.0%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

このうち、製造業は前年同期比で13.0%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

このうち、製造業は前年同期比で13.0%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

このうち、製造業は前年同期比で13.0%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

このうち、製造業は前年同期比で13.0%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

このうち、製造業は前年同期比で13.0%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

このうち、製造業は前年同期比で13.0%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

# 景氣급랭..最低點 어디냐

1971년 10월 1일 기준  
1971년 10월 1일 기준  
1971년 10월 1일 기준

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

## 정부선 "産業구조

### 輸出입업어 "4분기형

### "주거경 9%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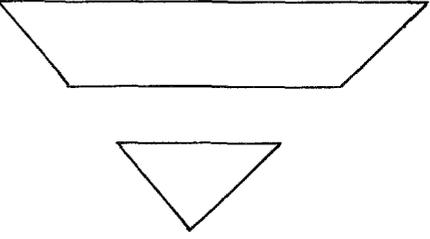
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

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

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

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

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これは前年同様に3.4%増大した。



하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연구기관별로는 내년경기를  
7.4%전망으로 보는  
기관과 8.2%전망으로 보는  
기관과 9.1%전망으로 보는  
기관이 6%대의 저성장률을 예  
측하고, 경정의 현재로서는  
양호하겠단다.  
한편, 현재의 경기상태를  
해소하는 데는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동안 韓銀(韓銀) 현재의  
경기는 노동조합의 생산성이 위  
축되고 자본주의 생산성이 여  
전히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업구조조정과정」이  
라느 실명을 수개월째 내놓  
고 있다.  
산업구조조정과정의 다소  
빠르기는 하지만 올바른 방  
향으로 가고 있다고 현재 경

연대로 수출되며,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전체적인  
모양이 좋아지지 않고 있으나  
는 낙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0.20  
실비투자대책을 마련했어도  
최근의 경기하향락면이 성장  
잠재력을 끌어 내지 않도록  
예비투사를 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생산이 증가하기는  
커녕 뒷걸음질치고 있는 음  
신금융과 그 제품인 특 신탁  
연계관계자들의 「정부가 숨  
모양만 생기고」 「부채는  
사정의 감춰지고 있다」고  
울상이다.  
이들은 특히 산업구조조정  
도 좋지만, 나라경제가 중화  
한정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는 없  
는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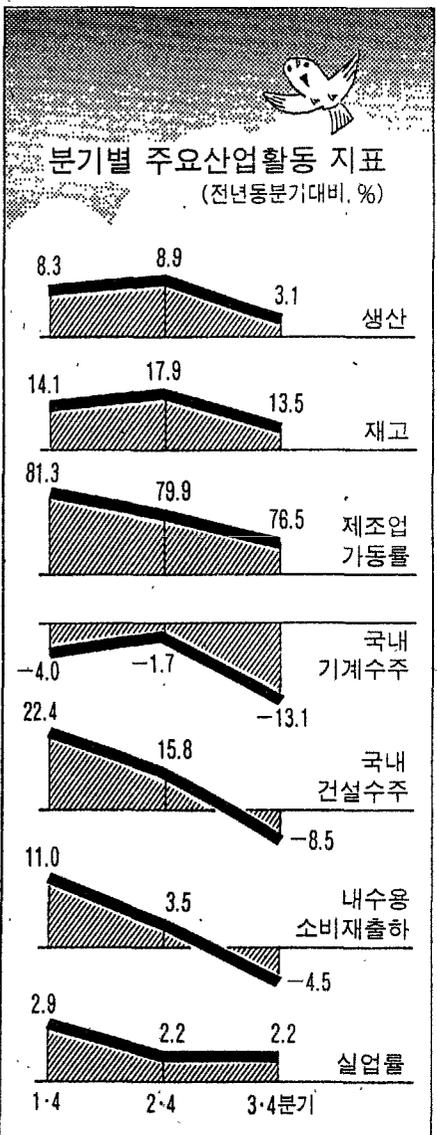
# 조성과정 "되풀이"

## 다소 나아질 것 기대도

# 低速성장 "지배적"

제외의 실명이다.  
특히 이들의 내수와 소비  
가 출현세를 5%대의  
안정세로 돌입하고 국제수  
지赤字도 작년보다 40억  
45억 달러나 개선된 35억 545

이전 호소에도 불구하고, 현  
경제팀의 안정화의지가 강해  
달라진 경기부양책이 등장  
할 분위기는 거의 영도이지  
않는 것 같다.  
〈張容誠기자〉





92.11.1

### 1~10월 물가 5%내 상조의 의미

○ 물가 상승이 둔화된다는 것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4.7%로  
 「전년비」 기준 「5%물가」의  
 7월 기준치를 근접시킨 것이다.  
 ○ 물가 상승률의 둔화된다는 것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4.7%로  
 「전년비」 기준 「5%물가」의  
 7월 기준치를 근접시킨 것이다.  
 ○ 물가 상승률의 둔화된다는 것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4.7%로  
 「전년비」 기준 「5%물가」의  
 7월 기준치를 근접시킨 것이다.

○ 물가 상승률의 둔화된다는 것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4.7%로  
 「전년비」 기준 「5%물가」의  
 7월 기준치를 근접시킨 것이다.  
 ○ 물가 상승률의 둔화된다는 것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4.7%로  
 「전년비」 기준 「5%물가」의  
 7월 기준치를 근접시킨 것이다.

○ 물가 상승률의 둔화된다는 것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4.7%로  
 「전년비」 기준 「5%물가」의  
 7월 기준치를 근접시킨 것이다.  
 ○ 물가 상승률의 둔화된다는 것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4.7%로  
 「전년비」 기준 「5%물가」의  
 7월 기준치를 근접시킨 것이다.

○ 물가 상승률의 둔화된다는 것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4.7%로  
 「전년비」 기준 「5%물가」의  
 7월 기준치를 근접시킨 것이다.  
 ○ 물가 상승률의 둔화된다는 것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4.7%로  
 「전년비」 기준 「5%물가」의  
 7월 기준치를 근접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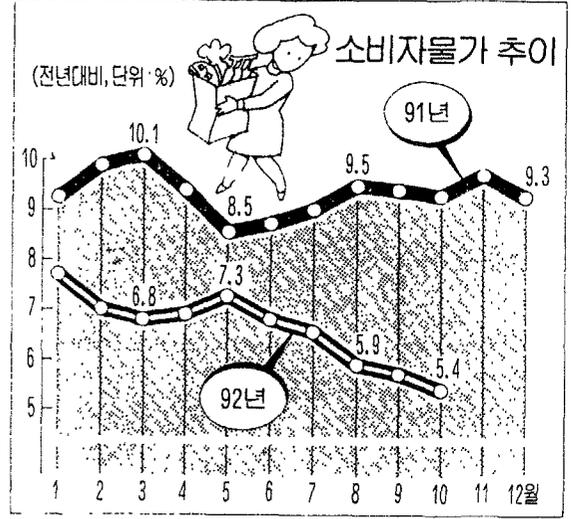
# 低物價시대 진입 청색신호

## 농수축산물 값 안정에 「총수요 관리시책」 주효 80년대末 실패 경험 살려 더욱 고삐 죄어야

○ 물가 상승률의 둔화된다는 것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4.7%로  
 「전년비」 기준 「5%물가」의  
 7월 기준치를 근접시킨 것이다.  
 ○ 물가 상승률의 둔화된다는 것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4.7%로  
 「전년비」 기준 「5%물가」의  
 7월 기준치를 근접시킨 것이다.

○ 물가 상승률의 둔화된다는 것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4.7%로  
 「전년비」 기준 「5%물가」의  
 7월 기준치를 근접시킨 것이다.  
 ○ 물가 상승률의 둔화된다는 것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4.7%로  
 「전년비」 기준 「5%물가」의  
 7월 기준치를 근접시킨 것이다.

〈權赫燦기자〉



社說

低物價기반 계속 다지라

최근의 物價안정추세는 파소비언제와 긴밀결기진전에 內需진정율 목표로 추진해온 정부의 總需관리정책이 주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입 투자 등의 증가로 수요가 급격한데 반해 민생기업이 이를 따르지 못해 물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91년부터 安定化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0월경 소비자물가가 8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0.1%가 내려갔고 도매물가는 월중 0.3%가 하락한 지난 8월 이후 연속 3개월째 내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가추세는 89~88년 기준 1.4%포인트, 파소비언제

높은 價金상승율이므로 무너졌던 安定基礎이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過熱성질을 심장잡재련 수준으로 끌어 내림으로써 수요면에서 초과수요 압력을 크게 완화시켰다. 일부에서 異氣찬채를 우려할 정도로 총수요관리를 중신으로 한 安定화시책을 강요해 추진한 것이 다. 수요가 공황을 초과하여 일어난다. 需要적인 인플레이션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요억제가 필요했다.

정부가 安定化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자 6.29선언 이후 고개들은 각 경제주체들의 자기무책기 또한 안정되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측면의 인플레이션인 價金인상폭이 줄어들어 둔화되었고 首都圈신도시 건설에 따라 집값과 전세값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선 것도 물가안정에 큰 몫을 했다.

물가안정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무리상승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부추긴다. 사회적으로는 민생물의 안정을 비롯한 民生안정의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安定기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經濟主體들의 부담이 요구된다. 기업자들은 지난 몇 해 동안 높은 價金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세값과 生必需品 서비스값이 크게 인상됨으로써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던 것을 경감해야 한다.

개인서비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같은 체험을 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를 경제주체가 價金인상요구를 자제하고 서비스업의 안정적인 집합기율여야 한다. 소비자들 또한 過消費가 수요적인 인플레이션의 主因을 짊어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모처럼 되찾고 있는 安定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安定화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특히 大選을 전후한 물가관리와 내년도 公井料金인상의 각별한 유의하기를 당부한다.

# 常住인구조사 82년만에 폐지

## 통계청 주민등록상 인구統計로 대체

그동안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常住인구조사가 폐지되고 전산화된 주민등록인구통계가 정부의 공식통계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 주민구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의 조정이나 공무원정원, 지방교부세의 산정 등이 앞으로는 모두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5년마다 실시하는 주민구조사(총조사)는 앞으로는 전산망의 갖추어 진 주민등록인구통계로 대체하여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인구통계는 매년 12월 31일 24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주민등록표 등재돼 있는 인구와 가구를 작성대상으로 하되 1개월간의 補正기간을 두어 신고미비 등의 사유로 작성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되어야 할 인구를 가감 조정하여 작성된다.

통계청은 이처럼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사용할 경우 實거주민과 주민등록인구간의 차이가나 정확한 인구 파악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향후 내부부서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실대정비를 강화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常住인구조사 안한다

## 올해부터 주민등록電算化 통계로 대체

통계청이 올해부터 인구조사가 폐지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민등록이 전산화될 때까지는 주민구조사(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구조사(총조사)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인구조사(총조사)는 5년마다 한 번 실시하는 주민구조사(총조사)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작성한 다. 전인구조사(총조사)는 포함 또는 제외시킬 인구를 가산·감산하는 작업을 거쳐 매년 3월 31일 현재 인구를 집계한다. 1990년부터 실시되는 常住인구조사가 폐지되는 것은 1990년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인구조사(총조사)가 폐지된다는 방침이다.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계청

# 常住인구조사 폐지

## 주민등록人口 공식통계 활용

그동안 각市·道·道庁하  
에 매년 실시되오던 상주  
인구조사가 폐지되고 주민  
등록 공식통계를 이용한 주  
민등록인구조사가 정부의  
공식통계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주  
인구조사를 토대로 이루어

진행중이던 조영이나 공무  
원정원, 지방교부세 산정  
등의 영입인구 및 주민  
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통계청은 11일 『행정상  
주인구조사는 매년 막대한  
인원 및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반해 각市·道가  
예산등을 많이 파기위해  
실제보다 인구를 과다하  
게 부풀려 집계하는 등 정  
부통계의 신뢰도를 저하  
시키고 있어 앞으로는 전  
산방이 갖추어진 주민등록  
인구조사로 대체해 공식통  
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  
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10  
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5  
년마다 인구추태조사(센  
서스가 실시되는 해를 제  
외하고 해마다 실시되온  
상주인구조사는 82년만에  
작성이 중단되게 됐다.

주민등록인구조사는 매  
년 12월 31일 24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주민등록표  
에 등재되어 있는 인구의 가  
구를 작성대상으로 하되  
1개월간의 보정기간을 두  
어 신고미비 등의 사유로  
작성대상에 포함 또는 제  
외되어야 할 인구를 가감  
조정하여 작성된다.

또 올해의 주민등록통계  
는 내년 3월말에 최종인  
계 및 발표될 예정이다.

# 상주人口조사 폐지

## 82년만에 주민등록인구 공식통계로

그동안 해마다 실시되온  
상주인구조사가 폐지되고  
대신에 주민등록인구조사  
가 실시돼 정부의 공식통  
계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구  
역 조정 공무원정원산정 지  
방교부세액 산정 등에 주민  
등록상 인구가 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통계청은 11일 5년마다  
인구추태조사가 실시될  
때를 제외하고는 매년 각  
市·道·道庁으로 실시해온 현  
행 상주인구조사가 8월간  
연인원 30만명의 조사인력  
이 투입되고 조사원수가 통  
경비가 8억원가량 쓰임에  
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전산  
방이 갖추어진 주민등록인  
구조사로 대체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10  
년 처음으로 실시된 상주인구  
조사는 82년만에 폐지된다.



30年代 여성

19세 이전 結婚 80%

통계청, 朝鮮총독부 기록 입수

日帝의 식민통치체제가 중화강을 넘긴 사람이 2공이저가던 30년대 우리 평양도밖에 안됐던 것으로 나타난 여성의 80%이상이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19세 이전(19세 이전)에 부 통계청이 18일 고서송장가 婚했어퍼죽(사) 10명 루부터 최근 입수한 당시

총독부 산하 朝鮮통계협회의 협회지 「朝鮮통계시보」 11월을 토대로 30년대의 경제·사회적 시대상을 조명한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 다음은 주요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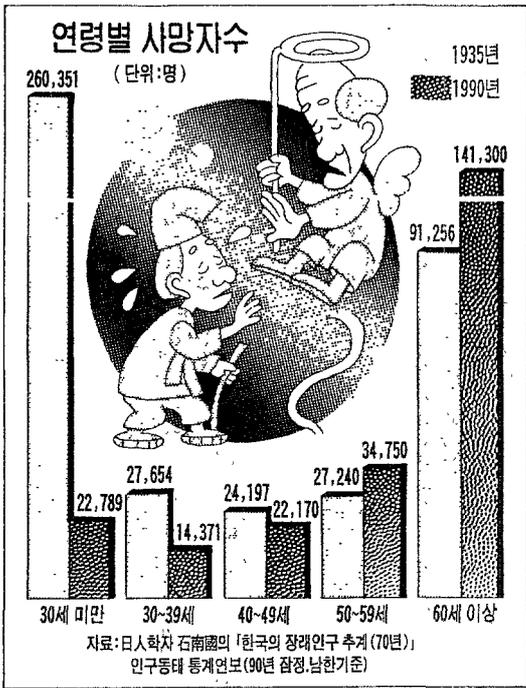
높아졌다. 특히 출도가 비육한 전북·경기·충남지방은 소자녀의 비율이 90%에 육박했다.

◇출가·입학  
이때 조선인근자들을 남자의 경우 하루 평균 9.5시간 일하고 월 22원정도를 벌였는데 이는 일본인들에 비해 하루 1시간 이상 더 일하면서 일본인 임금의 45%정도를 벌어들였다.

구는 현재의 4%에 불과한 44만명이었으며 그중 30%는 국내 거주 일본인들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2백5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제주포함) 100만, 전북(제주포함) 80만, 충남 60만, 강원 50만, 경북 40만, 경남 30만, 호남 20만, 제주 10만이었다.

이때 조선인근자들을 남자의 경우 하루 평균 9.5시간 일하고 월 22원정도를 벌였는데 이는 일본인들에 비해 하루 1시간 이상 더 일하면서 일본인 임금의 45%정도를 벌어들였다.

◇출가·입학  
이때 조선인근자들을 남자의 경우 하루 평균 9.5시간 일하고 월 22원정도를 벌였는데 이는 일본인들에 비해 하루 1시간 이상 더 일하면서 일본인 임금의 45%정도를 벌어들였다.



<그림: 金弘烈기자>

평균수명 男 36·3 女 38·5세  
75%가 농사·3분의2는 소작  
근로자賃金 日人の 45% 불과

들이 많이 살았다. 이 당시 평균수명(1935년) 남자가 36·3, 여자 38·5세로 지금보다 30년 이상 수명이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후진성과 양면이 특징인 사람 10명 중 4명은 5세도 안 된 영·유아였다.

◇산업  
이때 우리나라의 공업생 산업은 5·6천8백만 원(당시 살아가마 17·6원) 정도로 주산업인 농업(정도로 주산업인 농업) 수산업, 생산업의 40%의 불과했다.

또 총독부 실업조사에 의하면 당시 일본의 실업률(1·0%)에 비해 조선인 실업률은 5·4%로 조선인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음을 보여준다.

◇교육  
35년 6천8백34개의 서당에 15만3천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했는데 서당수는 12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반면 보통학교 학생수는 72만명을 넘어 12년보다 16배나 증가했다.

<鄭鐵根기자>

# 서울인구 44萬... 전국 2%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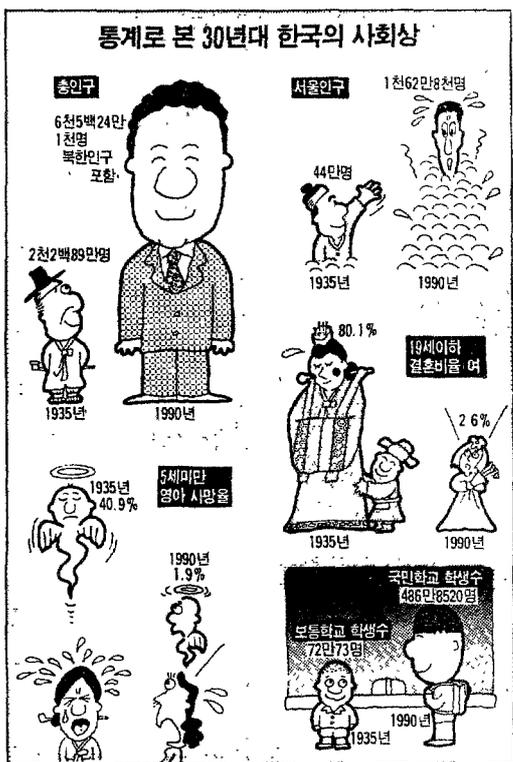
## 35년발간 統計誌가 밝힌 資料

日帝강점하인 지난 1935년에 서울(當時京城府)인구는 현재의 44만4천명에 불과했고 당시 총인구는 6백53萬에 비해 17%의 2%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京城府의 면적은 36.2㎢로 90년 서울의 6백53㎢에 비해 17

분의 1에 불과했다. 특히 당시 서울인구의 30%는 일본인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식민지조부의 19일 통계청이 최근 실시한 수도권 서울의 위상을 보여준다.

19일 통계청이 최근 실시한 수도권 서울의 위상을 보여준다.

## 평균수명男 36女 38세... 현재의 절반



통계잡지인 조선통계시보 36년 3월 창간호 37년 5월 13호)에 따르면 당시 국제조사에 의한 35년도 총인구는 일본인 61만9천명 을 포함, 2천2백89만명이던 지역별로는 경상도가 2백56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제주도의 4만4천명이었다. 평균수명은 36세로 당시 전국가구가 4백1만가구의 75%수

제의 중국침략이 본격화한 31년부터 19세이하(여성)결혼비율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영유아 사망률은 영양부족과 의술의 미발달로 인해 총사망자중 5세미만의 40.9%를 차지할만큼 높았으며, 평균수명도 남자 36.3세, 여자 38.5세로 90년의 66.9세, 75.0세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 農家 3백만호... 전체가구 75% 차지

준이었고 영농생산액은 소작농이 75.9%를 차지, 순수자작농이 10%에 불과했다. 35년도 공산품생산액은 556천8백만원으로 1935년 2백만원의 12.7배에 그쳤으며, 일출물로는 식량품종중에서 29.8%로 가장 높은 산업의 유치단체를 나타냈다. 당시 사회상상 특장적인 점은 일제의 조선인 차별정책으로 고사립의 비율이 50% 수준이었고 조선인영양(단)조차도 일본인에 비해 1인당 1.5배에 불과했다. 고인삼은 절반이하였다. 이밖에 35년의 보물화교(지급)의 국민학교 학생수는 72만9천명으로 전 불교유기관인 서탑의 학생수 15만5천명에 달하고 있었다.

〈林善振기자〉

## 통계청, 30년대발간 「조선통계시보」 분석 발표

서울(당시 京城府) 인구는 불과 44만 4천명. 처녀 10명 가운데 8명이상이 19세가 못돼 결혼했다. 아가들이 숨지는 일이 잦아 연간 총사망자중 40%가 4세 이하 영아였다. 농가 4가구중 3가구는 소작농의 면서도 쌀이 총수출액의 44%·對日수출의 절반을

단체의 기관지인 조선통계시보에는 3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실상은 통계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이중 일부를 통계청이 분석·정리한 것이다.

◇인구 35년 국세조사 때 우리나라 총인구는 2

35년 혼인연령조사에 따르면 여자는 81%가 19세 이하에 결혼했고 15세 미만 비율도 8.8%나 돼 무혼 비율이 일반적. 남자도 19세 이하가 44%·17세 미만은 11.6%에 달했다.

영양부족과 의술 미발달로 영아 사망이 많아 35년 당시 연간 전체 사망자 48만여명 가운데 4세 이하가 41%인 17만 6천여명에 달했다. 인구 1천명당 조사

35년 혼인연령조사에 따르면 여자는 81%가 19세 이하에 결혼했고 15세 미만 비율도 8.8%나 돼 무혼 비율이 일반적. 남자도 19세 이하가 44%·17세 미만은 11.6%에 달했다.

영양부족과 의술 미발달로 영아 사망이 많아 35년 당시 연간 전체 사망자 48만여명 가운데 4세 이하가 41%인 17만 6천여명에 달했다. 인구 1천명당 조사

가구중 3가구할인 75.9%가 소작농이었다.

공산품 생산액은 5억 6천 8백만 원으로 농업·공업의 40%에 그칠 정도로, 농업발달은 두부 등 식료품 공업이 29.8%·화학 26%

생보다 3배 이상 많았으나 25년엔 절반을 약간 웃도는 선으로 축소. 35년엔 전국 6천 8백여개 서당에 15만 3천여명이 공부한 반면 보통학교생 수는 72만 명에 달했다.

◇농가·고용부여 38년 일제의 만주침략이 개시되자 전시체제 아래 물자부족 현상이 생기기 시작, 38년의 전국 9개 도시 소매물가는 전년비 18.2%나 뛰었다. 특히 선유암의 기준은 전년인 36년에 비해 무려 1백 50%나 상승했고 목면이 89%·소금 66%씩 가격이 올랐다.

37년 총독부 내무국이 실시한 실업조사에 따르면 총실업자는 5만 7천 6백 73명으로 이중 97%가 조선인. 실업률(총인구의 5.4%·일본인의 1%로 발표돼) 조선인 취업이 어려워졌음을 반영했다.

35년 연간 대외교역액의 12억 1천만 원이 수출·對日교역이 86%를 웃돌았다. 주요 수출품은 쌀·비료·구리·염화수소·철·총수출액 44%·대인수출의 50%를 차지했다. 수입품목은 일본에서 직물·철강기계를, 기타지역에서 쌀·유제품이 늘었다.

# 사망자중 40% : 평균수명 37세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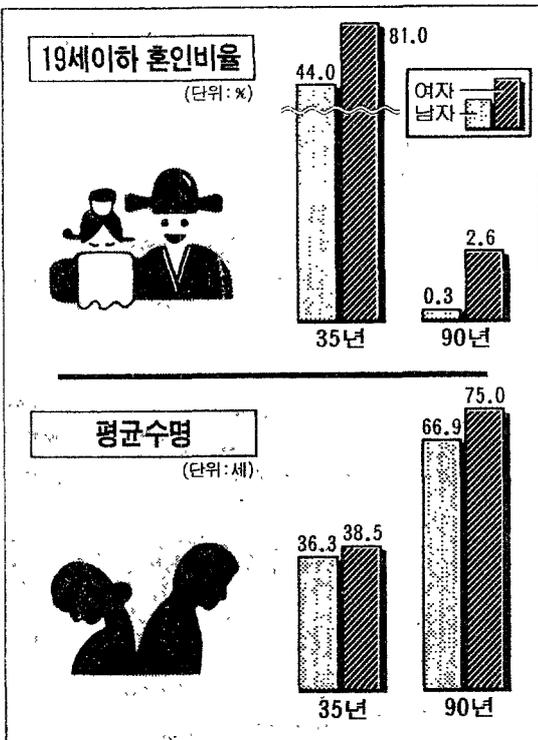
통계청에 따르면 1935년 당시 일제하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통계청은 지난 30년대 조선통계협회가 발간한 「조선통계시보」 11권을 입수, 인구·산업·교육·고용 및 물가·무역 등 5개 분야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조선통계협회는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지난 35년 국세조사(현행 인구주택총조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근대적 통계의 대중화를 위해 총독부 관공서에서 과산하에 설치한 단체. 이

## 1935년 당시 우리나라 모습

전 2백 89만 8천명(일본인 61만 9천명 포함)으로 90년 3백 60만 6천 5백 24명에 비해 3분의 1



혼인연령 19세이하 女81·男44%  
 農家 4가구당 3家口가 소작농  
 실업률 조선인 5.4... 日人은 1%

◇교역 35년 14.5%의 수. 인 30년대 들어서 신식교역에 급속히 밀리기 시작했다. 한일합방 초기인 12년 서당학생수는 14만 1천명으로 보통학교와

【柳菴基자】

지금으로부터 약 60년전, 日帝치하였던 1930년대의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동안 口伝이나 단편적인 기록에만 의존해왔던 1930년대 한국사회의 모습이 각종 사회-경제통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재현됐다. 통계청은 일제하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통계시보」 창간호(1936년 3월刊)부터 제13호(1939년 5월刊)중 11권을 입수, 이를 토대로 당시의 한국사회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통계자료를 18일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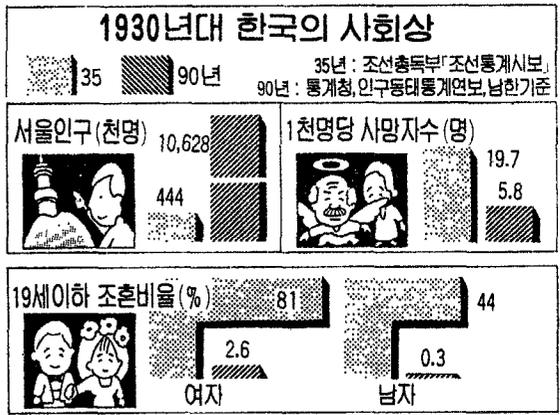
**조선총독부 자료**

1935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국세조사(현재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당시의 서울京城(인구를 44만4천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90년 현재 남북한 총인구의 2% 남짓한 인구의 2.9%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인구의

**1930년대 한국사회**

30%는 한일합방과 함께 이주한 국내거주일본인들이었다. 35년 당시인구는 총 2천2백88만8천명(일본인 61만9천명 포함)으로, 지난 90년 조사된 남북한 총인구의 3분의 1 수준. 지역별로는 경남(전남)제주 포항(경남)경기도 지역에 2백만명 이상이 거주했고, 합북(충북)등연인구가 1백만명에도 미치지

**총인구 2,200만...서울 44만명**



지 못했다. 또 당시 한일여자 10명중 8명(81%)은 19세 이하에 결혼했으며, 15세미만의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여자도 8.8%나 됐다. 이같은 현상은 부부의 풍습이 일부 남아 있었으며, 일본의 중부지방부터 전라도의 시가지에 이르기까지 사후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와 자녀의 결혼을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여성 81% 19**  
**평균수명 男**

35년 당시 한국 농가는 총 3백1만가구로 전국 총가구의 75%에 달했으며 이중 소작농이 75.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순수자작농은 18%에 불과했다. 사망 40% 5세미만 사망률... 조선총독부 사민을 인구통계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사망자 10명중 4명(40.9%)이 5세미만의 자란이와 어린이들이었다는 점이다. 조사당시 총사망자는 연간 43만6백98명으로, 인구 1천명당 19.7명의 사망률로, 이는 1990년 평균 수명의 미발달된 인과 의술의 미발달된 인망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또 1981~1983 5년간 평균수명(남자) 36.3세, 여자가 38.5세였다. 총사망자중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1.2%에 불과했다.

공산품생산액의 산업은 55.6천8백만원이라, 주산업인 농업·임업·축산업의 40%수준이었으며, 임업·축산업은 1980년과 81년 2년 연속으로 부채조정신분조정공약의 주류를 이뤄 전체의 8.8%, 제조업·서비스업은 35.3%나 차지했으며, 35.3%나 돼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

1985년 당시 교역액 12억1천만원. 이중 86.3%가 일본과의 교역이었다. 무역적자는 150원의 탈락인데 일본과의 교역에서 전체의 61.1%가 발생,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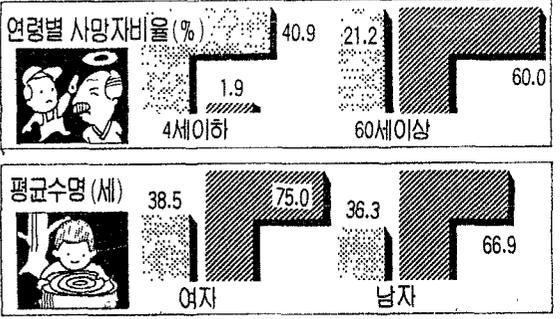
국민경제의 불수성을 감당하던 차기 무역역조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정인임을 보여준다. 당시 주요 수출품목은 쌀·비료·銅·大豆 등이었는데, 특히 쌀의 총수출액의 44.3%를 차지했으며, 차기수출액의 50%에 달했다. 주요수입품목은 면직물·전선·철강 등을 주로 일본에서 들여왔으며,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특히 쌀(1천9백62만원)을 많이 수입했다.

35년 서망 6천여곳

우리의 고유의 전통교육기관인 교육은 로 볼수 있는 서망의 1920년대 초 반까지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일본의 조선교육령선포로 보통학

# 세이전 결혼

36.3-女 38.5세



교가 공식 초등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출기 시작, 1922년 2만 4천1백93개이던 서망 수가 1935년의 이트러서는 6천8백34개로 크게 감소했다.

1936년 당시 공립 학교교직원외의 구성원보면, 보통학교(현재의 국민학교)는 한국인 교사가 64.6%로 비교적 많았으나, 보통보통학교(현재의 중학교)에는 8.1%에 불과해 학년 이 높아질수록 일제의 식민지교육이 진동했음

## 35년 교역액 12억여원... 무역적자 1억원

을 보여준다. 한국인 교사의 월급은 일본인교사의 50~60% 수준인 51원인데, 당시 쌀 3가마를 살수 있는 수준이었다.

### 물가 및 소득

일제의 식민지통치력이 본격화되던 1938년 당시 조사한 소비자물가를 보면, 전시하의 물자부족으로 공산품가격이 큰폭 상승을 보이 고 있다. 당시 정전·대전무후행양·신의주 등 9내도시를 대상으로 94개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8.2%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는데, 주로 의류·장식품·연료 등의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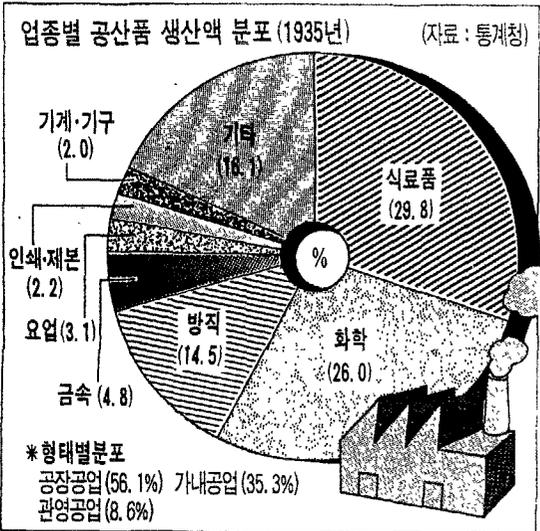
당시 근로조건을 보면, 한국인의 일본인에 비해 임금이 더 많이 하던 서도, 임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1937년 2분기의 공장일급주사(50인이상) 46개업종 대상)는 한국인 숙련노동자의 경우, 남자는 하루평균근로시간이 일본인보다 1시간 많았, 9.55시간이었으나, 하루평균 임금은 절반수준인 0.87원에 불과했다.

통계청관계자는 '조선 통계시보가 총독부관리들에 의해 전횡돼 일제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도 없지 않지만 당시 경제·사회 각 분야의 통계를 해설자료와 함께 수록하고 있어史料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承仁培기자〉

# 1935년 평균수명 男 36 女 38세

## 30年代「朝鮮통계시보」발견 화제



193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상을 재현해 볼 수 있는 통계자료가 공개돼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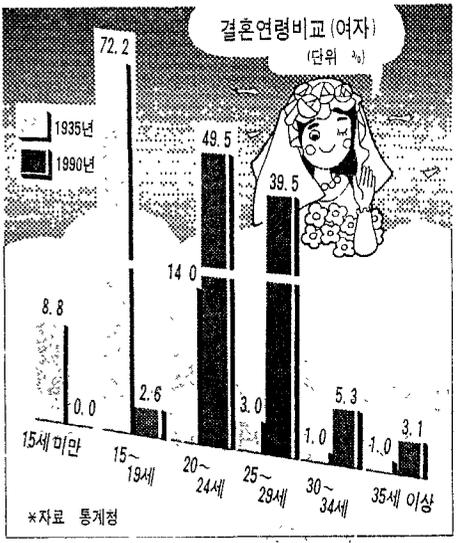
# 南北 인구 2천 289万

심을 끌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한 고서소장가로부터 인수한 「朝鮮통계시보」 1935년 3월 15일 현재 각 지방의 1935년 3월 15일 13시의 인구를 2만 289만 2천 289명으로 집계했다. 18일 「1935년도인구조사」의 발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통계시보의 1935년

년 국세조사(현재의 인구조사)를 계기로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산하에 설치된 조선통계협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통계자료라고 평가된다. 조선통계시보에 나타난 1

백 56만 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함흥부도가 85만 3천명이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지역은 평안북도였다. 여자의 81%가 19세 이전의 결혼한

93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1935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2만 289만 2천 289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5일 13시의 인구가 2만 289만 2천 289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1935년도인구조사」의 발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통계시보의 1935년



연과 순수자녀율이 18%로 떨어진 것이 큰 이유다. 1990년 기준 순수자녀율은 1935년 50.8%에 비해 38.5%로 떨어졌다. 그리고 사망률도 29.8%에서 19.9%로 낮아졌다. 1935년 사망률이 29.8%였지만 1990년 19.9%로 낮아졌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결혼연령을 늦추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혼률 증가 현상은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 아니라 경제상황의 호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935년 대비 10.4배 증가했다.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의 향상도 결혼연령을 늦추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賃金은 日人の 절반

1977년 80원의 5.8%에 비해 1990년 140원의 2.6%로 떨어졌다. 이는 임금의 실질구매력을 낮추고 있다. 1990년 140원의 임금은 1977년 80원의 임금과 비교하면 1.75배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 75.9%를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1977년 80원의 75.9%에 불과하다.

자 66.9세(여자 75세)과 비교하면 평균수명이 늘어났다. 1990년 기준 남자의 평균수명이 66.9세, 여자의 평균수명이 75.9세로 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 140달러로 1977년 80달러에 비해 1.75배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 75.9%를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오히려 1977년 80달러의 75.9%에 불과하다.

# 인구 2천2백만 90년의 30% 수준



1935년 11월 19일 촬영된 서울의 모습이다. 당시 서울 인구는 2백만 9천 명이었다.

## 1935년 한국사회·경제상

통계청, 總督府자료 입수 책자발간

1935년 11월 19일 촬영된 서울의 모습이다. 당시 서울 인구는 2백만 9천 명이었다.

2천2백89만8천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시 서울(京城府) 인구는 90년 현재 서울인구의 4% 수준에 불과한 44만4천355명의 전체 사회상을

로 크게 벗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5년 당시 1백60만명이었던 강원도 인구는 90년엔 1백59만명이로 21.2%에 불과했다.

**서울 44만... 경북지역 2백56만最多**  
**전체 교역액 年12억... 對日 비중 86%**

**평균수명 男36·女38세... 영유아死亡率 40%**

전면인구	2,289,800명	35년 대비	1.5배 증가
서울(京城府)	443,555명	35년 대비	1.5배 증가
경북지역	2,560,000명	35년 대비	1.5배 증가
전체 교역액	12억 원	35년 대비	1.5배 증가
對日 비중	86%	35년 대비	1.5배 증가
평균수명	男36·女38세	35년 대비	1.5배 증가
영유아死亡率	40%	35년 대비	1.5배 증가

【補正】 서울 인구는 2백만 9천 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事業體 전국 2백11만 8천여개**

統計廳 91년 産業센서스 발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개, 명, %)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86년	1991년	구성비	증감률	1986년	1991년	구성비	증감률
전 산업	1,676,609	2,118,247	100.0	26.3	8,856,648	11,356,078	100.0	28.2
농림업·수렵업·임업	702	1,120	0.1	59.5	19,694	25,891	0.2	31.5
공업	2,655	2,650	0.1	-0.2	92,777	62,933	0.6	-32.2
제조업	218,952	298,493	14.1	36.3	3,290,035	4,231,080	37.2	28.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971	929	0.0	-4.3	36,738	41,209	0.4	12.2
건설업	23,384	49,820	2.3	113.1	598,630	780,297	6.9	30.3
도·산·해 및 음식·숙박업	1,005,331	1,210,114	57.1	20.4	2,452,759	3,074,863	27.1	25.4
운수·창고 및 통신업	22,401	24,850	1.2	10.9	456,250	548,611	4.8	20.2
금융·보험·부동산업	80,670	102,920	4.9	27.6	614,881	918,614	8.1	49.4
사회서비스업	321,543	427,351	20.2	32.9	1,294,884	1,672,580	14.7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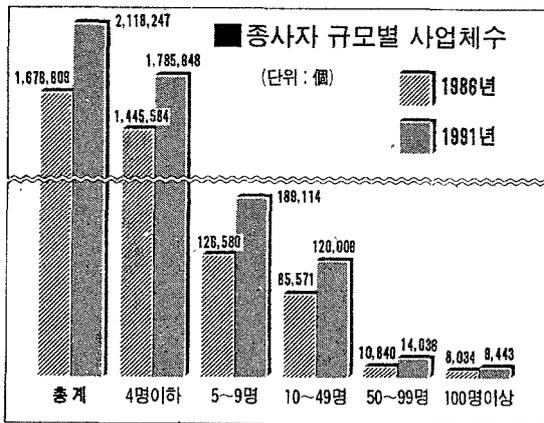
전국에 있는 사업체수는 지난 9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백11만 8천 2백 47개로 나타났다. 86년 이후 5년간 44만 1천 6백 38개(26.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기간중 사업체종사자수는 8백 85만 6천 6백 48명에서 1천 1백 35만 6천 78명으로 2백 49만 9천 4백 30명이 늘었다. 91년 통계청은 지난 91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사업체에 대한 산업별 지역별 부문별 고용상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91년 총사업체총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1년 이후 5년주기로 실시된 제3회 91년 총사업체총계 조사는 국내 사업체관련 통계조사의 근거자료가 되고 있으며, 법인사업체가 아닌 農家 및 漁家, 국가직영의 사업체, 국제 및 외국기관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따르면 국내사업체들은 지난 5년간 2.3% 증가한 49,820개로 나타났다. 한편 91년 5월 말 기준 2백 49만 9천 4백 30명에 달하는 91년 총사업체종사자수는 86년 말 기준 2백 452,759명에서 3백 074,863명으로 222,104명(57.1%) 증가했다. 91년 1~3월 말 기준 총사업체종사자수는 2백 452,759명에서 2백 452,759명으로 0% 증가했다. 91년 1~3월 말 기준 총사업체종사자수는 2백 452,759명에서 2백 452,759명으로 0% 증가했다.

**5년새 26% 증가 : 建設業 가장 많이 늘어**

종사자수는 1천 1백 35만 명 제조업 37% 으뜸

91년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사업체에 대한 산업별 지역별 부문별 고용상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91년 총사업체총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1년 이후 5년주기로 실시된 제3회 91년 총사업체총계 조사는 국내 사업체관련 통계조사의 근거자료가 되고 있으며, 법인사업체가 아닌 農家 및 漁家, 국가직영의 사업체, 국제 및 외국기관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따르면 국내사업체들은 지난 5년간 2.3% 증가한 49,820개로 나타났다. 한편 91년 5월 말 기준 2백 49만 9천 4백 30명에 달하는 91년 총사업체종사자수는 86년 말 기준 2백 452,759명에서 3백 074,863명으로 222,104명(57.1%) 증가했다. 91년 1~3월 말 기준 총사업체종사자수는 2백 452,759명에서 2백 452,759명으로 0% 증가했다. 91년 1~3월 말 기준 총사업체종사자수는 2백 452,759명에서 2백 452,759명으로 0% 증가했다.



있고 있다. 사업체수의 전국평균증가율을 26.3%보다 높은 지역은 광주(33.4%), 울산(32.3%), 慶南(30.3%), 忠清南도(30.1%), 全南(11.9%), 江原(14.3%), 慶北(16.6%), 釜山(1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91년 5월 말 기준 2백 49만 9천 4백 30명에 달하는 91년 총사업체종사자수는 86년 말 기준 2백 452,759명에서 3백 074,863명으로 222,104명(57.1%) 증가했다. 91년 1~3월 말 기준 총사업체종사자수는 2백 452,759명에서 2백 452,759명으로 0% 증가했다. 91년 1~3월 말 기준 총사업체종사자수는 2백 452,759명에서 2백 452,759명으로 0% 증가했다.

# 91년 5명 미만 사업체

산업별 사업체수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86	91	구성비(%)	증감률(%)	86	91	구성비(%)	증감률(%)
전 산업	1,676,609	2,118,247	100.0	26.3	8,856,648	11,356,078	100.0	28.2
제조업	702	1,120	0.1	59.5	19,694	25,891	0.2	31.5
건설업	2,655	2,650	0.1	-0.2	92,777	62,933	0.6	-32.2
도매업	218,952	298,493	14.1	36.3	3,290,035	4,231,080	37.2	28.6
소매업	971	929	0.0	-4.3	36,738	41,209	0.4	12.2
서비스업	23,384	49,820	2.3	113.1	598,630	780,297	6.9	30.3
금융업	1,005,331	1,210,114	57.1	20.4	2,452,759	3,074,863	27.1	25.4
숙박업	22,401	24,850	1.2	10.9	456,250	548,611	4.8	20.2
정보통신업	80,670	102,920	4.9	27.6	614,881	918,614	8.1	49.4
서비스업	321,543	427,351	20.2	32.9	1,294,884	1,672,580	14.7	29.2

91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는 2백11만8천2백47개며 이들사업체의 종사자는 총 1천1백35만6천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91년 총사업체 통계調査」

이 중 57%인 86만1천677개는 5명 이하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0.9%가 수도권의 사업체였다.

「91년 총사업체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 사업체 수(종업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개인택시·개인용달차량·제외)는前回조사시점

57%가  
사업체

인 86만(1백67만6천6백9개)에 비해 26.3%가 증가한 1,120만(2,118만2천493개)으로 증가율은 5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년 5명 이하의 종사자를 보유한 사업체는 86만1천677개(40.7%)로 90년 86만1천677개(40.7%)와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산업별 사업체 수에 따르면 2월 단위로 보면 전체인원이 1백13.1%인 반면 16.1%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90년 대비 9.3%의 증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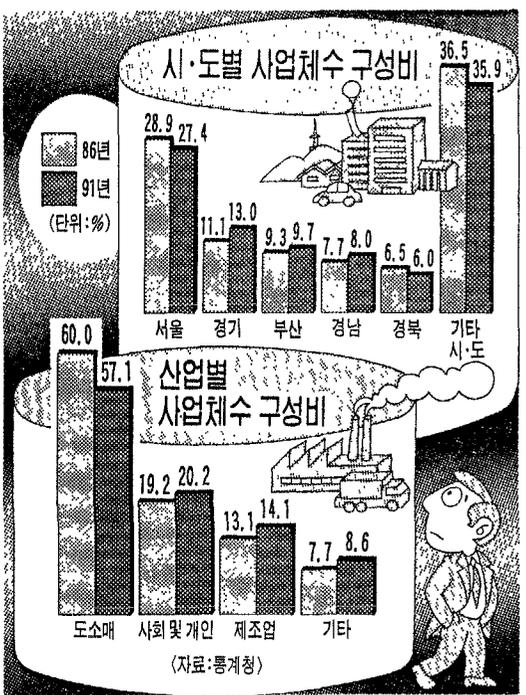
體 84%

4%의 비제조업 부문 중  
가운데 나타났다.  
중·소기업·부동산·사  
업서비스업종의 5년간  
49.4%의 증가(8.4%)  
평균 5.36명(1986년 기준)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증가했다.

평균 5.36명(1986년 기준)의  
간 불어나는 추세이다.  
15.7명(86년) 25.6명  
(제조업) 14.2명  
(15.0명)으로 증가  
력 업체규모가 더 영세  
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은 업체당 2.5명(86년  
2.4명)으로 여전히  
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사업수용체와 비  
교하면 중소기업의 비  
2.9백인분의 증가  
업체수는 우린의 약 3  
배, 중소기업은 종사자가  
1배로 업체당 종사자가  
8.7명이므로 나타  
나 우린의 업체규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영세하

평균 사업체당 전체의  
84.8%(86년 82.2%),  
5.9명이 8.9% 86  
년 7.6%로 10명 미  
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93.2%(86년 93.8%)  
에 이른다. 이를 업체의  
종사자수는 38.3% 86  
년 38.5%에 불과한  
반면 1백명 이상 사업체  
는 전국에 9천4백43개  
(86년 8천34개)로 전  
체 사업체의 0.4% 86  
년 0.5%에 불과하  
지만 종사자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31.5%에  
이른다.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 증가율은 건설·제조업 보다 높아



<그림: 朴春奘기자>

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중사업체의 27.4%,  
중종사자의 32%가 몰려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부  
산의 순이다.  
5년전에 비해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준 반면 경기·인천의 높  
아져 수도권 전체로 보면  
중사업체중 차지하는 비  
중이 86년 43.5%에서  
91년 44.6%로 중종  
사자중 비중은 각각 49.4%에서 50.9%  
로 1.5%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과 주변 도량도

조직원 대비 부가  
사업체가 전체의 6.  
7%에 그쳐 대부분이  
비법인 형태며 지역별로  
는 상용종사자가 69.  
5%, 자영업·무給  
가용종사자가 23.2%  
임시 및 일일고용자가  
5.8%이다.  
전체 사업체 종사자중  
남자가 61.5%, 여자  
가 38.5%를 각각 차  
지하고 있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남  
자보다 여자의 비중(51.  
2%)이 더 높다.  
<朴春奘기자>



社說

經濟활동의 수도권集中

경제청이 발표한「전국의 총내  
 연재」調査결과를 보면 수도권면적  
 도 한국의 산업구조가 영남지방의  
 서 심각한 불균형상태의 특징을  
 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지방한  
 국의先進國인 일본과의 비교에서  
 나 오직 수도권에 국한된 것이  
 영남에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불  
 균 구조가 영남 지방 면적의 1/3  
 정도인 당시 경제활동의 수도권면  
 적은 1/4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이 영남 지방의  
 면적과 경제활동의 불균형을 44  
 % 또는 영남 지방의 고령면적의  
 50%가 각각 서울과 1/3  
 정도인 수도권에 자립하고 있는 것  
 이를 보여준다.

대수를 집계해 보면 영남 지방은  
 무정면적의 1/3 정도인 수도권의  
 流入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 어렵지  
 않게 나타날 것이 때문이다. 지난 90  
 년 영남의 수도권에 들어오는 인  
 구는 전국의 총인구의 42.7%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그리고 영남 지방의  
 수도권 면적이 영남의 인구의 1/3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보아 영남 지방  
 과 수도권은 인구의 1/3 정도에 불  
 균을 이루고 있다. 이 점을 보면 영  
 남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을  
 보면 영남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  
 과 수도권은 인구의 1/3 정도에 불  
 균을 이루고 있다. 이 점을 보면 영  
 남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을  
 보면 영남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

한정된 것이 이런 영남 지방의 특  
 징이다.  
 경제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7월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체  
 가 모두 94만 5천여 개로 지난해  
 동안 무려 38%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런 증가속도의 증가가 영  
 남 지방의 비면적 불균형이다. 이를  
 증명하게 해주는 것이다. 영남 지방  
 으로 영남 지방의 무인종의 불균형  
 에 대한 것이다. 한편 수도권의 인  
 구는 전국의 인구의 42.7%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을 보면  
 수도권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을  
 보면 영남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  
 과 수도권은 인구의 1/3 정도에 불  
 균을 이루고 있다. 이 점을 보면 영  
 남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을  
 보면 영남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  
 과 수도권은 인구의 1/3 정도에 불  
 균을 이루고 있다. 이 점을 보면 영  
 남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을  
 보면 영남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

社說

91년 총사업체統計와 수도권集中

정부가 막대한 비용과 인력,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컴퓨터등 각종 최신의 장비와 기재까지 동원해서 사회현상에 관한 여러가지 統計를 조사·분석해서 공개하는 목적은 그로부터 뭔가 배우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노력하자는데 있다. 통계가 단지 통계를 위한 통계에 불과하여 별 쓸모없이 발표와 동시에 그냥 파일속에 묻혀버리곤 한다면 그런 통계는 차라리 조사할 가치가 없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1년 총사업체 통계조사」결과는 역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중요한 몇가지 점을 示唆한다. 입장과 시각에 따라 여러 갈래의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주목해야할 내용은 사업체의 과도한 수도권 集中현상과 규모의 零細性 등 두가지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수도권집중문제로서 당국은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

每5년마다 실시되는 이 조사는 지난 81년에 처음 한 이래 86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가 되는데 최근 5년사이 전국의 사업체수는 26.3%, 종사자수는 28.2%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총211만개가 넘는 사업체의 44.6%와 1,135만 종사자의 50.9%가 서울 인천 경기

에 몰려 있다. 게다가 5년전과 비교해서 더욱 심해졌다. 86년7월1일 현재 조사때는 그 비율이 각각 43.4%와 49.4%였다.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권집중억제, 지방분산이다, 혹은 지방화시대니 하며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정책도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것 처럼 말해왔으나 정책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말과 행동이 달랐다. 최근에만 해도 서울에 超고층빌딩건축을 무더기로 허가한걸 보면 정책과 言行 두가지에 다 문제가 있다.

종사자수로 파악된 사업체규모의 영세성은 정책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통계는 종사자가 단 1명뿐인 사업체만도 전체의 36.2%나 되고 5명미만까지가 84.3%, 10명미만 93.2%, 100명미만까지 치면 99.6%라고 밝히고 있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가 5.4명인데 8.7명인 이웃 일본과 비교해볼직 하다.

정부는 먼저 그동안의 수도권인구및 경제활동 집중억제 내지 분산정책이 완전 실패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야 한다. 집중을 막을 재간이 없다면 그런 속에서 사람이 살고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 궁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통계조사가 쓸모가 있게 된다.

# 오락·문화서비스業 급증세

## 91년 도산매·서비스 통계조사

유다나만의 도산매업 및 음식·숙박업체 등 도산매업 및 식음료의 사업체수 구성비 수를 이끈다. 반면 산매업과 숙박업의 구성비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비스업종에서는 영화·전자오락·실비디오·테이프·대요연등 오락 및 문화 서비스업체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민중영화·문화영화

도산매업 및 음식점과 숙박업의 사업체수 구성비도 86년 대비 91년 7월 1일 현재 전국의 도산매업은 음식점·숙박업 전체 사업체수는 1백19만7천여개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체수 증가전 조사 당시(86년)의 99만5천

과에서 발행했다.

통계청이 전국의 도산매업 및 음식점과 숙박업과 각종 서비스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 1일 현재 전국의 도산매업은

식·숙박업 전체 사업체수는 1백19만7천여개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체수 증가전 조사 당시(86년)의 99만5천

# 5년새 72.6% 늘었다

## 도매·식당 비중늘고 산매·숙박업소 줄어

개업서비스업은 사업체수의 증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청의 23일 발표한 '91년 도산매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결과

전역개보다 20.3% 증가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의 서비스업 사업체수만 34.5% 늘어난 41만4천여업체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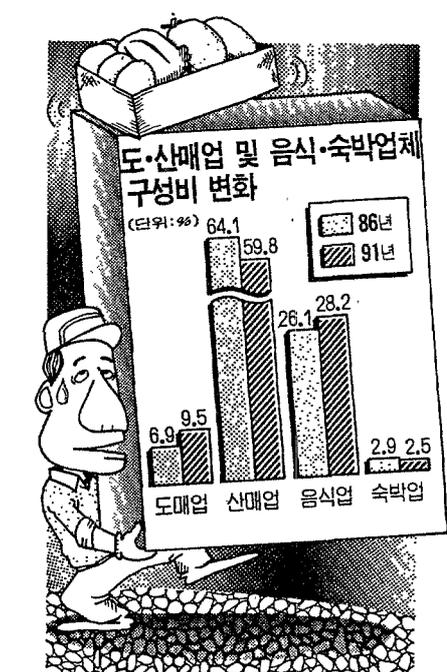
후원업에서의 높은 판매의 증가율(1백88.3%) 때문

도산매업 및 음식점·숙박업 소에 그나마는 전체 총업 원수는 86년의 2백37만3천여명에서 91년의 250만여명으로 91년도의 25.0% 줄었다. 2백96만7천여명이었다.

이 부문의 총판매액은 91년 1백19조6천6백여 원으로 조사돼 86년도보다 1백4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판매액은 도매업 52조7천여원(44.1%), 산매업 52조3천여원(46.6%), 음식점 12조3천여원(10.6%)을 보였다.

도산매업 및 음식점·숙박업 소에 그나마는 전체 총업 원수는 86년의 2백37만3천여명에서 91년의 250만여명으로 91년도의 25.0% 줄었다. 2백96만7천여명이었다.



이같은 추이는 지난 86년에 비해 사업체수는 34.5% 증가한 41만4천여개, 종사원수는 1백79만6천여명, 수입액은 32조1천3백여원의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 산매업체 대형화...백화점·슈퍼 88%증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의 증가는 비디오테이프 대여업체의 대표적인 증가로 서비스업과 판매업의 증가로 시설투자가 늘어났으며 서비스업종은 각종 화원·교습소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사회서비스업은 사업체수 구성비가 높아졌으나 종사자수의 구성비도 낮아졌다.

이같은 추이는 지난 86년에 비해 사업체수는 34.5% 증가한 41만4천여개, 종사원수는 1백79만6천여명, 수입액은 32조1천3백여원의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산매업의 사업체수 증가율은 12.4%로 도산매 및 음식점의 사업체수 증가율은 20.3%를 보였다.

산매업의 사업체수 증가는 1백19만7천여명에서 91년도의 250만여명으로 91년도의 25.0% 줄었다. 2백96만7천여명이었다.

이 부문의 총판매액은 91년 1백19조6천6백여 원으로 조사돼 86년도보다 1백4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판매액은 도매업 52조7천여원(44.1%), 산매업 52조3천여원(46.6%), 음식점 12조3천여원(10.6%)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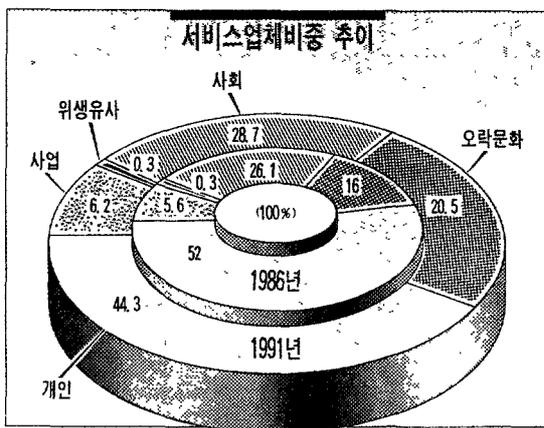
산매업의 사업체수 증가는 1백19만7천여명에서 91년도의 250만여명으로 91년도의 25.0% 줄었다. 2백96만7천여명이었다.

이 부문의 총판매액은 91년 1백19조6천6백여 원으로 조사돼 86년도보다 1백4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판매액은 도매업 52조7천여원(44.1%), 산매업 52조3천여원(46.6%), 음식점 12조3천여원(10.6%)을 보였다.

# 서비스업종사자 180만명

統計廳, 작년조사 업체 34% 증가 41만개



## 「오락·文化」伸張率 최고

### 정보산업 등 事業서비스종사자 83% 급증

국민들의 소비패턴이 다양화되면서 비디오게임, 대안업종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체가 크게 늘고 정보산업 등 사업서비스종사자가 급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종근 대학과 함께 백화점 슈퍼마켓들이 늘어나 소매업체들이 점차 대량으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도 소매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작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체수는 41만 4천 6백 19개로 지난 86년 조사 때보다 34.5% 10만 6천 3백 33개(늘었다).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수는 86년의 1백 33만 8천 1백 26명에서 1백 79만 6천 7백 84명으로 3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업체가 벌어들인 수입은 32조 1천 3백 18억 1천 9백 40만원으로 18조 5천 5백 90만원(1백 36%) 증가했다.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치면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는 6.1%씩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매년 21%가 늘어난 셈이다.

업종별로는 보건, 교육, 숙박, 도서관 등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체가 83.1%를 차지했다.

문화서비스업체가 비디오 게임, 대안업종 등이 크게 늘었다. 86년보다 72.6%나 증가, 가장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다.

또 종사자수는 변호사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인력이 20% 이상 증가했다.

이와 반해 세탁 미용 목욕업종은 개인서비스업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14.5%와 14.7%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보산업 분야는 소매업은 86년보다 12.4% 늘었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 합소매점이 88.1%나 증가해 소매업체들이 갈수록 대량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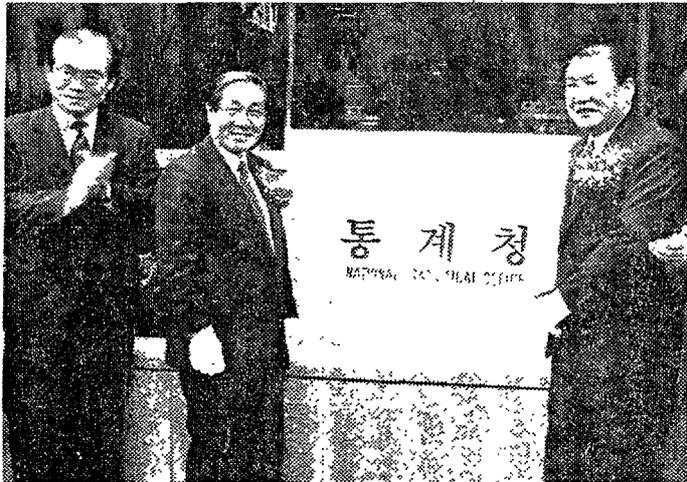
〈孫熙植기자〉

92.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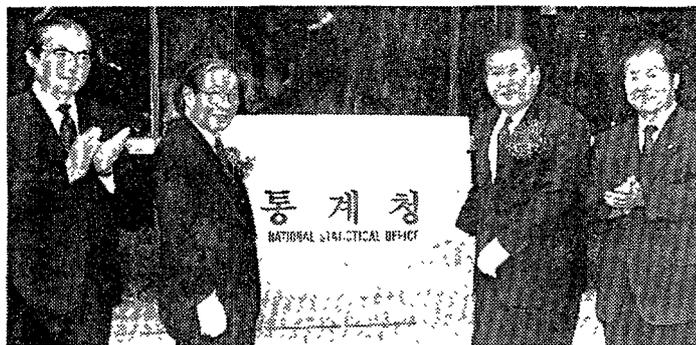
새廳舍 입주 통계청은 24일 서울역삼동 한타빌딩으로 이전한 새청사에서 崔珥圭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왼쪽 두번째)과 閔泰亨통계청장(오른쪽 두번째)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가졌다. <吳承桓기자>

92.11.25



통계청 역삼동 이전 30년동안 있었던 서사에서 강남구 역삼동 한타빌딩으로 이사한 통계청이 24일 하오 崔珥圭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왼쪽 서두번째)·閔泰亨통계청장(오른쪽 세번째)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청사 현판식을 가졌다. <李皓禎기자>

92.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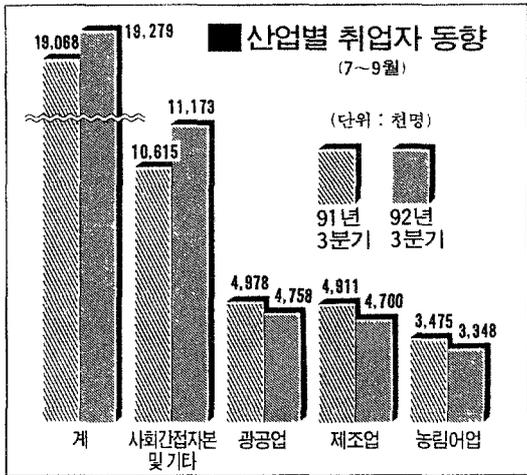


통계청, 새청사 入住 통계청은 24일오후 새로 입주한 강남구 역삼동소재 「한타빌딩」청사에서 崔珥圭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왼쪽두번째)과 閔泰亨통계청장(왼쪽세번째)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辛景勳기자>

經濟활동인구

4년만에減少

3분기 0.1%  
不況심화 失業8.5% 늘어



지난 3분기중 15세 이상 인구가운데 경제활동의 참여한 인구(경제활동참여자)의 비율이 88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의 실질경제성장률 3.1%와 함께 韓國經濟가 어려운 국면에도 접어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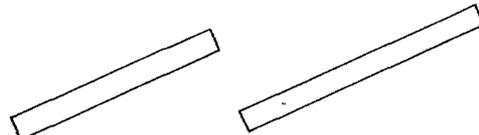
3분기중 경제활동인구가운데 취업자수는 1천 9백27만9천명으로 지난 해 동기대비 1.1%(21만 1천명)증가에 그친 반면, 실업자수는 43만5천명으로

로 8.5%(3만4천명)나 증가, 우리경제가 산업활동의 부진에도 고용흡수력을 상실해가지 않나하는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도 3.4분기(7~9월)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중 경제활동인구는 1천9백71만4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3%(24만5천명)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인구참가율은 61.8%로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했다. 이같은 경제활동인구참가율의 하락은 섬유및 신

발업계의 불황으로 여성노동인력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출된데다, 15세이하 인구의 감소도 신규경제활동인구의 참여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농림어업취업자의 경우 3분기중 3백34만8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7%(12만7천명)감소하고 광공업도 4백75만8천명으로 4.4%(22만)나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는 1천1백17만3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3%(55만8천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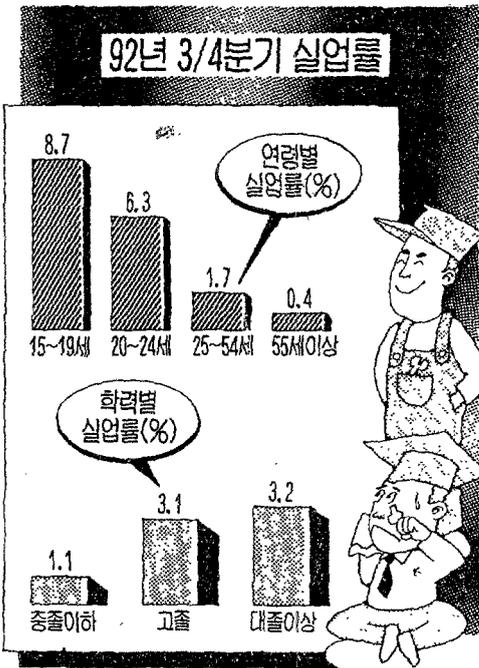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반영, 3분기중 실업률이 늘어난 가운데 연령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의 경우 전체실업률 2.2%보다 훨씬 높은 8.7%를 보였다. 반면에 25~54세의 실업률은 1.7%, 55세이상은 0.4%를 보여 연령별 실업률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을 반영, 대추 이상의 실업률이 3.2%인 반면 中추이하인 1.1%에 불과해 고학력일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고용동향을 살펴 보면 서울 釜山 등 6대도시의 실업률이 江原 등 9개도보다 높았다. 경제활동참가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돼 대도시지역일수록 취업이 어렵다는 조사가 나왔다.



# 젊은층失業 여전히 높다

## 20세미만 실업률 8.7%... 평균의 4배



산업활동부진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고학력 자제층과 저연령층에서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다. 또 광주 부산 대구 지역의 업체가 심한 불황을 맞고 있어 실업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27일 발표한 「3.4분기 광역경제협력지역의 실업률」에 따르면 27일 현재 전국 1천9백27만여 명이 취업하고 1천6백71만 2천1백19명이 실업하고 있어 실업률은 8.7%로 집계됐다. 이는 3.4분기 평균 실업률인 7.9%를 웃도는 수치로, 1991년 4.6%에 비해 4.1%포인트 높았다.

연령별 실업률에 따르면 15~19세 8.7%, 20~24세 6.3%, 25~54세 1.7%, 55세 이상 0.4%로 나타났다. 학력별 실업률에 따르면 중졸이하 1.1%, 고졸 3.1%, 대졸이상 3.2%로 조사됐다.

지역별 실업률에 따르면 서울 8.1%, 부산 8.3%, 대구 8.5%, 광주 8.7%, 대전 8.9%, 울산 9.1%, 강원 9.3%, 충북 9.5%, 경북 9.7%, 경남 9.9%, 전북 10.1%, 전남 10.3%, 제주 10.5%로 나타났다.

# 제조업종사자 21만명 감소

## 3분기 고용동향 서비스업취업자 5% 늘어

3분기 고용동향 서비스업취업자 5% 늘어

산업활동부진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고학력 자제층과 저연령층에서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다. 또 광주 부산 대구 지역의 업체가 심한 불황을 맞고 있어 실업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27일 발표한 「3.4분기 광역경제협력지역의 실업률」에 따르면 27일 현재 전국 1천9백27만여 명이 취업하고 1천6백71만 2천1백19명이 실업하고 있어 실업률은 8.7%로 집계됐다. 이는 3.4분기 평균 실업률인 7.9%를 웃도는 수치로, 1991년 4.6%에 비해 4.1%포인트 높았다.

연령별 실업률에 따르면 15~19세 8.7%, 20~24세 6.3%, 25~54세 1.7%, 55세 이상 0.4%로 나타났다. 학력별 실업률에 따르면 중졸이하 1.1%, 고졸 3.1%, 대졸이상 3.2%로 조사됐다.

지역별 실업률에 따르면 서울 8.1%, 부산 8.3%, 대구 8.5%, 광주 8.7%, 대전 8.9%, 울산 9.1%, 강원 9.3%, 충북 9.5%, 경북 9.7%, 경남 9.9%, 전북 10.1%, 전남 10.3%, 제주 10.5%로 나타났다.

3분기 고용동향 서비스업취업자 5%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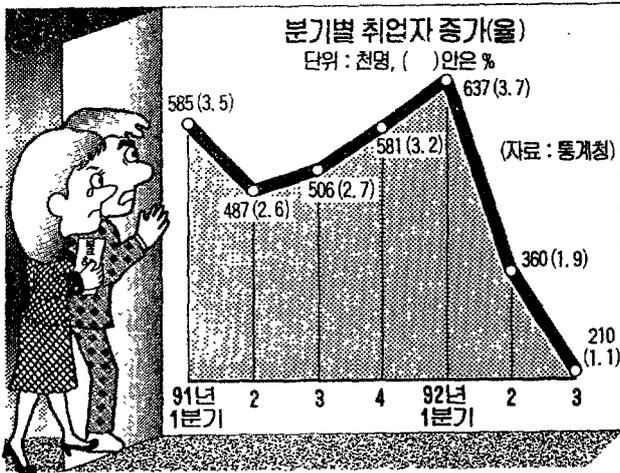
3분기 취업자 수는 1,92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1,21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71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연령별 취업자 수에 따르면 15~19세 2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20~24세 11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25~54세 68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55세 이상 1,11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학력별 취업자 수에 따르면 중졸이하 15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고졸 46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대졸이상 30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지역별 취업자 수에 따르면 서울 31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부산 20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대구 23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광주 21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대전 21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울산 17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강원 13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충북 12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경북 14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경남 15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전북 1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전남 16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제주 1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 성장 둔화... 실업자 8% 증가



3분기 고용둔화  
올들어 실업률 둔화와 함께, 취업자 증가율이 낮아지고 실업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 들고 서비스업 부분이

비대해지는 고용구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15~24세의 자연령증과 대졸이상 고학력자 계층이 높은 실업률을 기록, 산업인력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은 27일 발표한

## 자연령·고학력 더 심각

### 경제활동 참가율 61.8%... 4년만에 감소

「3분기 지역별 고용둔화」  
을 통해 「지난 759천명 경제활동인구는 1천9백71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5천명(1.3%)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15세이상 전체 인구(3천1백91만6천명)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인 61.8%가 4년만에 감소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0.1% 포인트가 낮아진 61.8%를 기록, 지난 88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인구가운데 취업자는 1천9백27만9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 21만1천명(1.1%)

(%) 증가한 반면, 실업자는 43만5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만4천명(8.5%) 줄었다. 경제실업률 둔화에 따라 고용률추진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 社說

## 고용정책의 주목해야 한다

고용정책이 심상치 않다. 취업자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및 농업의 취업자 수가 줄고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늘고 취업구조가 불안정하고 젊은층 특히 대학생이 고용시장의 실탈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3.4분기 중 취업자가 작년 동기 대비 21만명 1.1%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실업자가 43만 5천명 0.9% 증가한 데 비해 3.4분기 중 8.5%나 늘었다. 특히 실업자수의 증가속도가 훨씬 빨랐다. 그 부분이다. 이 외에도 실업률의 구조적 변화가 0.1% 포인트 높아진 2.2%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 고용시장에서 보면 3.4분기 중 청년 실업률이 2.7%로 상승했다. 이는 89년 2.4%에서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업별 지역별 또는 연령별 고용정책이 또한 심상치 않다.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의 실업률이 3.5%인 것을 비롯해서 서울과 울산이 2.9%,仁川이 2.8%,光州가 2.7%, 대전이 2.5% 등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아 대도시의 노인 인구가 모두 27만명에 이르렀다.

산업별로는 농업의 취업자수가 작년보다 3.7%나 줄고 광공업은 0.9% 증가한 데 4.4%나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17세 이하의 청년 20~24세의 실업률이 6.3%로 화력발전과 대중이상의 실업률이 3.2%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용정책의 불균형 및 심각한 현상일 수도 있다. 경기변동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구조적 실업률 증가를 막고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3.1%로 떨어진 특수한 기간이다. 4.4분기 들어 성장수치가 다소 개선되고 경기회복되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3.4분기의 고용정책의 불균형은 다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성장전략 하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정책과 실업률상승이 농업과 광공업의 취업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제조업부분의 성장률은 지난 89년 이후 한자리수로 떨어져 있으며 3.4분기 제조업의 생산가동률은 74.4%로 89년의 73.2%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가 제조업의 경쟁력과 관계있는 것이라면 제조업부분의 취업감소는 구조적인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고용인근로자의 입장에서는 所得의 원천이자 생산참여의 방편이며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는 수단이자 안정의 기반이다. 고용의 불확실성과 고용구조의 불균형은 생산참여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고용안정성 확보하고 고용에서 불안정하다면 국민의 삶과 국민경제의 활력과 사회의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 기업근로자 모두가 고용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社說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3.1%로 크게 떨어져 적지않은 충격을 준데 이어 失業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3·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이상의 인구중에서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진 61.8%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 것은 88년 3·4분기이후 4년만의 일로서 경기침체가 일정한 時差를 두고 고용사정에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진 2.2%로 여전히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과연 고용사정이 나빠졌는지 의심할수도 있다. 그러나 실업률통계의 작성기준을 살펴보면 사태파악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주일에 한시간 이상만 일하면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기준자체에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일용직근로자, 自營業의 가족근로자, 시간제근로자(part-timer) 등이 직장을 잃으면 실업자대신 경제활동의 뜻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록 지금은 비경제활동 인구일지라도 경기회복이 되거나 고용조건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경제활동인구로 돌아설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부근로자들이 대표적인 예이며 경제활동인구에는 포함되나 노동인구에서 제외되는 노인들도 많은 경우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실업률에 관계없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교해서 올해 3·4분기중에 취업자증가율이 1.1%에 그쳐 84년 3·4분기이후 8년만에 가장 낮았으며 실업자수가 8.5% 늘어난 43만5,000명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할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용사정이 좋지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으나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은 역시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시·도별 광공업 활동동향」을 봐도 알수 있다. 이기간의 제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9% 늘어난데 그쳐 지난해 3·4분기의 9.7%는 물론 올해 상반기의 8.6%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이 31.1% 성장한데

이어 석유정제, 산업용화합물, 승용차등의 호조로 중화학공업은 6%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섬유, 의복, 신발등 경공업생산액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4%나 줄었다.

재화용도별로 보면 자본재와 원자재의 생산은 각각 3.9%, 8%씩 늘었으나 소비재생산은 3.9%가 줄었다. 특히 같은 자본재라도 건설경기외의 위축에 따라 건설장비생산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9%나 줄어들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부문의 마이너스성장은 제조업부문의 고용감소로 이어져 제조업취업자수는 2·4분기보다 4.3%가 줄어든 470만 명에 그쳤다.

고용사정이 나빠진데는 경기침체에다 설비자동화및 고용형태의 변화등에 따른 영향이 겹쳐진 탓도 있다. 지난 87년이후 급증하는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에 대비하여 기업의 설비자동화 투자는 꾸준히 이어졌으며 상당수의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바꾸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경기침체가 악화되면 일용직근로자부터 일자리를 잃기 쉽다는 분석은 3·4분기중 제조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약 4%정도 준데 비해 일용직 근로자는 16.8%나 준데서도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이,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이,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제조업과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이 줄었다는 것은 생산성향상 때문이라기 보다는 생산기반의 해외이전과 경기침체의 탓이 큰것으로 보이며 자칫 「산업의 空洞化」 현상까지 걱정된다.

또한 제품의 품질향상과 관계없는 자동화투자는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감소의 측면만 커진다는 점도 주목해야겠다.

이밖에 정규직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것은 다행이지만 전체 취업자수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상당하며 앞으로도 계속 커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크게 확장하고 재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실업보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특히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기초가 되는 통계작성기준및 정확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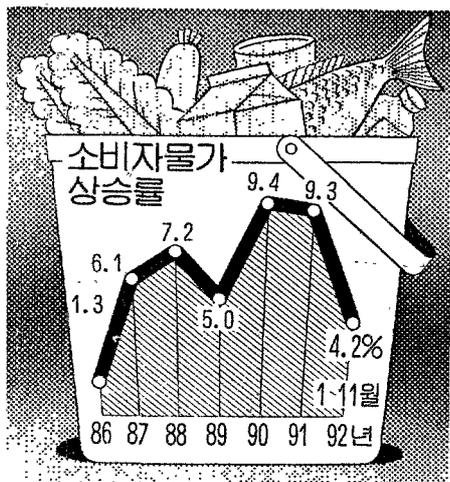
경기가 좋을때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며 값싼 해외노동력을 불법으로 마구 들여온 뒤편에는 엄청난 수의 불완전 취업자, 잠재실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바로 알아야겠다.

鑛工業생산둔화와 失業증가현상

# 소비자物價 두달째下落

11月 0.5% 내려 올 4.5% 상승... 6年만의 最低 전망

도매물가도 2%線서 安定될듯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6년 이후 가장 낮은 4%선에 그칠 전망이다. 2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 10월중을 처음으로 0.1% 내린 데 이어 11월 중에도 0.5%가 내렸고 도매물가는 11월중 0.3%가 하락, 지난 8월 이후 연속 4개월째 내림세가 계속됐다.

이로써 소비자물가는 올 들어 4.2%, 1년전에 비해 선 4.4%의 올랐세를 각각 기록한 이래 올해 인

간은 4.5%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 최근 6년사이에 최저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90년의 9.4%, 91년 9.3% 상승에 비해 절반수준에 해당한다.

또 도매물가는 올 들어 11월까지 1.5%, 1년전에 비해 2.1% 오른 상태에 비해 2%내외에서 가장 낮은 2%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11월중 소비자물가가 이처럼 큰폭 내린 것은 농축수산물(3.5%)나 하락한데다 工産品(0.2%)은

공요금(0.2%) 집세(0.4%) 개인서비스요금(0.5%) 등의 상승률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장바구니물가를 말해주는 채소과일 생선류 등 新鮮식품물가는 11월중 8.4%가 내려 작년말에 비해 8.1%의 하락세를 나타내었고 쌀 식고기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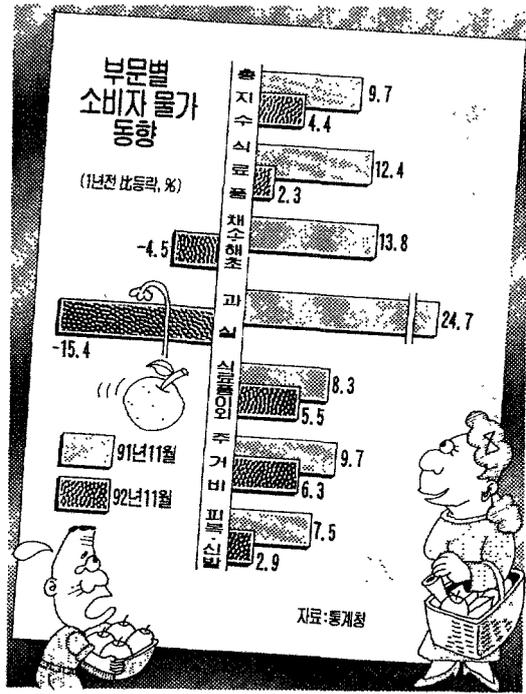
추등 20개 기본생활물품값은 올 들어 11월말까지 5.5% 상승에 머물렀다. 품목별로는 사과 밀감 상추 등이 30% 이상, 시금치 당근 감 등이 20% 이상의 내림세를 나타냈고 반면에 수입쇠고기는 가격인상으로 인해 12.4%가 올랐

소비자 물價  
두달째 하락

싸진 농산물값 덕분

都賣는 6년來 최저 4%線 가능할 듯

통계청·韓銀 발표 1월 합산세를 보이면서 1월 처음으로 4%선에 진입했다. 소비자물가가 연속 2개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년전과 비교한 상승률이 4%에 불과하다.



<그림=金龍吉기자>

1년전과 비교하면 4.2% 하락했다. 11월까지 4.2% 하락했다. 11월까지 4.2% 하락했다.

이제 따라올해 소비자물가는 4%선, 도매물가는 2%선 내외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물가하락은 올해 대폭을 거둔 과일류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하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어서 4~5%의 구조적인 물가인정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는 어렵다.

4% 상승하는데 그쳤다. 11월중 소비자물가 하락률은 35.9% (사과(부사) 34.7%, 감 23%, 배는 13.7%가 떨어진 등 과일류 가격이 전월비 평균 19.7% (1년전비 15.4%) 떨어진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같은 과일류의 가격하

락으로 농산물 가격은 전월비 5.7%가 떨어졌고 이는 소비자물가를 0.6%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11월의 소비자물가 하락폭이 0.5%였으므로 농산물 가격하락이 없었다면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으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11월중 다른 부문의 소비자물가는 연달아 전월비 1.3%, 개인서비스 0.4%, 집을 0.4%, 공산품(0.2%), 공공요금(0.2%), 농도소품의 오름세를 보였다. 한편 11월중 도매물가도 농산물값이 전월비 6.4%(기여도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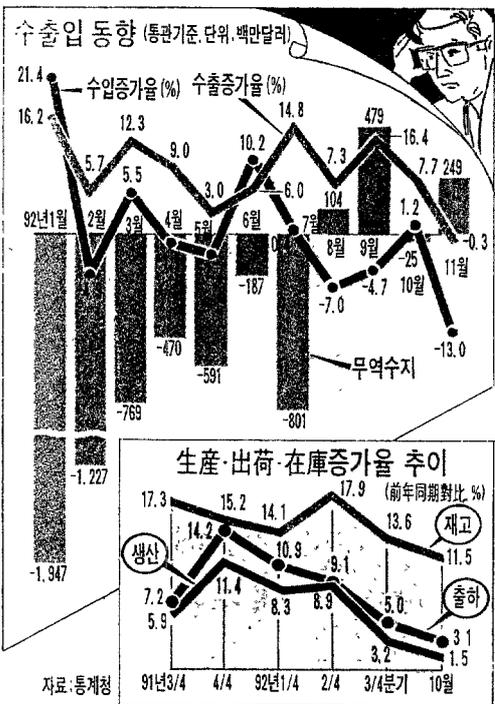
떨어진데 결정적으로 합인어 수산물값등의 오름세에 도 불구하고 전월비 0.3% 하락, 지난 8월 이후 4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며 작년부터 비해 1.5%, 1년전에 비해서는 2.1% 오른데 머물렀다.

# 景氣 회복 기미 안 보인다

## 11월 輸出 0.3% 감소 : 生産·出荷 둔화

**최근 産業 동향**  
 11월 수출이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10월 생산과 出荷, 설비투자 등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 하는 등 4분기에도 경기가 후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수출이 내수경기의 급속한 둔화 속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수출마저 가라앉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1일 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66

억 5천 4백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 감소했고 10월 생산과 輸出 역시 前年同期 對比 1.5%와 3.1%에 그쳐 산업활동의 둔화가 오수출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부진은 家電과 情報機器 등 미국의 주력수출품이 美國·EC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기 때문으로 이같은 추세가 12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설비투자계수(총생산·선발제)가 20.6% 감소한 것을 비롯, 기계류



내수출하(선발제)와 기계류 수입입하가 각각 8.4%와 41.9%씩 줄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투자가 부진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산업동행지)가 93.0을 기록, 연초(99.6) 이래 내리 10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 4분기 중에도 경기가 쉽사리 살아나기는 어렵울 전망이다.  
 다만 10월 중 在庫가 前月에 비해 0.7% 줄어 기업들이 경기 부진에 따른 재고조정을 끝내고 있는 데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6.7%로 지난 8월의 74.4%를 마이너스 상승 추세를 보이는 점이 경기 회복에 대한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한다.

또 2~3개월후의 경기 상황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는 前月보다 1.4% 높아진 1백 84.5를 기록, 내년 초부터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한편 11월 중 수출이 감소세로 반전한 것과 함께 수입 역시 10월 중 1.2% 증가에서 11월에는 13%의 감소로 크게 줄어 무역수지(수출입분)는 2억 4천 9백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

# 구조적 「추소均衡」우려

우리경제가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인 「추소均衡」이며 안정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려했던 것이 되고 있다.

유제수준의 확산을 내외 통근과 안정적일 경우 전체적인 균형의 안정적이지 않으나 생산과 투자 수출을 신장할 경우 구조가 불균형을 면서 구조개선을 진행되고 있는 것임이다.

최근의 불황에 따른 11월 중 수출은 전연보다 감소하였으나 외환보유액이 11월 말에 12억 달러에 달하는 등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중 수출은 전연보다 감소하였으나 외환보유액이 11월 말에 12억 달러에 달하는 등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 輸出入·산업활동 동향 분석

11월 중 수출은 11월 말에 12억 달러에 달하는 등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1월 중 수출은 11월 말에 12억 달러에 달하는 등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1월 중 수출은 11월 말에 12억 달러에 달하는 등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2월에도 수출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을 하는 하지만 장래 전망은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 物價안정·收支개安定化시책이經

필요제(반도체)등의 다른 차질보다 中國과 대한 조출수출부진(4천만달러) 확대(C)가 전체를 수출감소(5천만) 4천만달러)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

거의 모든 것이어서 구조적인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11월 중 수출은 11월 말에 12억 달러에 달하는 등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도제를 첨단제품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수출규제의 추격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용이 13%로 6분기에 가장 큰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 연간이론도 수출증가율이 당초 전망(10.6%)의 크게 못미쳐 2%이내로 「결정」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개선도 예상외로 미흡하다. 그러나 수출촉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중론이다.

망인 일단 빛나길 공산이 커진 셈이다. 경제기획원은 10월 산업생산이 1.5%증가에 그친데 대해 「정기가 향상 추세에 있는 것임」 사설이나 전월의 비해 부분적으론 회복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10월중 산업생산과 수출이 8·9월의 비해 약간 회복되는 기미를 나타내는데는 긍정적 분점되고 있다. 산업생산과 수출이 전월보다

# 선불구 外形 위축 濟전체 「발육」 저지

5%에 그친 것은 국내경기가 여전히 전체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내수 위축이 반영된 것이다. 3·4분기 실업률(NP)은 전월의 3.1%로 부쩍이진 데 이어 4·4분기에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전망되고 있다. 4분기부터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의 전

각각 3.2%, 4.8% 증가했으며 작년 동기 대비해 1.5%증가의 그친 것이 지난해 10월의 18.4%만 회복할 수 있다. 또 제조재고가 지난 2월 이후 전월이전 전월을 밑해 감소, 산업생산의 향후 전망적으론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기업활동의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가동률이 9월의 76%에서 10월중 76.7%로 높아진 점도 「재고조정이 끝나면서 가동률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 92년 산업활동 동향 추이 >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1분기	2분기	3분기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8.3	8.9	3.2	1.4	1.8	1.5
제조업	10.9	9.1	5.0	3.3	3.2	3.1
서비스	14.1	17.9	13.6	15.3	13.6	11.5
수출	7.9	5.4	3.9	3.2	3.4	4.2
수입	11.0	3.5	-4.6	-3.4	-7.2	-3.9
수출액	-4.0	-1.7	-13.1	-31.7	62.8	-5.4
수입액	-15.5	-36.6	-25.4	-19.0	-25.1	45.8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제조업의 생산부진으로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5%만 증가했다. 이는 10월의 1.5%에 그친 데 비해 9월의 1.8%를 밑돈 것이다. 또 제조재고가 지난 2월 이후 전월이전 전월을 밑해 감소, 산업생산의 향후 전망적으론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기업활동의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침체 계속...4분기回復전망 빛나

8월의 3.7%증가로 반전한 데 이어 9월과 10월도 3.3%대의 회복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건설이 증가한 데 4분기중 증가폭이 추가 배정돼 전년 동기보다 85.6%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민간부분의 설비투자 감소세도 다소 완화됐고 소비감소폭도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활동의 분점이 감소한 데 힘입어 현재 경기사이클 상저점에 있거나 조만간 상승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회복국면의 언제부터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기획원측도 자신있게 단정하지 못하는 처지다.

더욱이 일부 전통규제를 해제한 조치와 같은 정부측에서 전망까지 별다른 정책변화를 내놓지 않음 등으로 반경기가 개선될지 불확실한 것이 경기에 대한 전망이다. 大體로 경기가 전망정책의 무뎠음때가 지속되고 한 경기회복을 점치기 어렵다. <朴永均기자>

# 生産・輸出 큰일이다

## 社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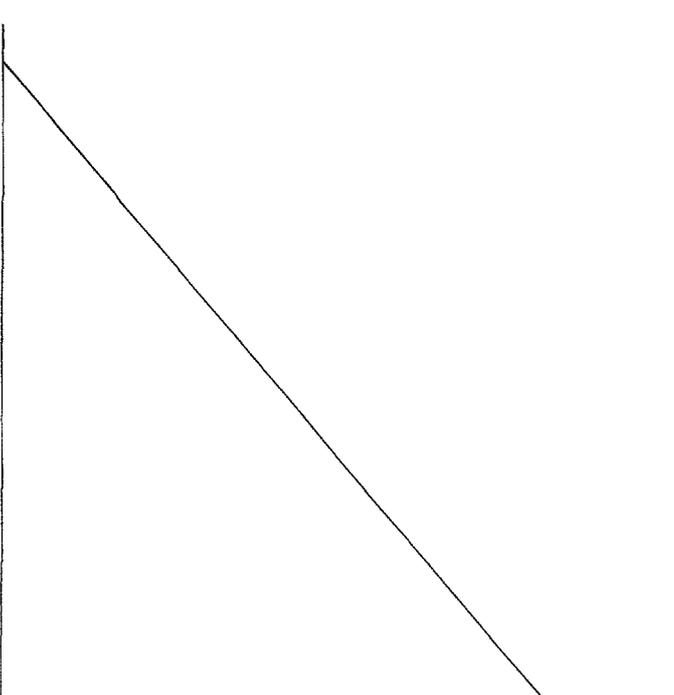
우리경제의 현상  
 화를 볼수록 정부와  
 업체가 커다란 시차  
 차이를 보이고 있다  
 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장률의  
 급격한 저하가 빠지  
 는 기쁨의 환호나  
 타대는 것이라 하지  
 만 과감한 추세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  
 의 기조를 바꾸지 않  
 겠다는 것이 정  
 부의 입장이다. 단  
 면 경제가 현재의  
 성장률에 비해 어떤  
 정도인지를 알 수 없  
 는데도 불구하고 정  
 부의 회색의 눈으로  
 엿다려 강박한다.

물론 그렇고 아닌  
 경제의 변화가 많  
 이 줄어든다면 어떤  
 수치를 의미할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  
 이고 있는 것은 분명  
 하다. 정부는 경제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는데 기업은 성장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는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경제의 안정  
 을 위협할 수 있다.

태환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정부는 경제정책의 토대로 삼은  
 7%의 성장률을 지키는 데  
 의 힘과 노력이 아깝다.  
 3·4분기까지 평균 5·5%의  
 성장을 기록한 데다 하  
 반년도가 넘도록 4·4  
 분기의 전  
 정부수립부터 발표  
 한 10월 중  
 10월은 1·5%  
 에 그친 3개월 연속  
 1%대의 저  
 성장에 기록하고 제  
 2분기에 7·7%로 2·4  
 분기 이후 8%를  
 지속시키며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정  
 부의 정책이 경제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는데 기업은 성장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는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경제의 안정  
 을 위협할 수 있다.

것이다.  
 선진국과의 무역부족의  
 원인이  
 제정된, 단  
 의 성장률도  
 이한 자세를  
 때문이다.  
 정부가 뒷걸음  
 는 사이에  
 갈 수밖에  
 리를 들이  
 시정인 것  
 이다. 후  
 사

라도 大選을  
 쳐 보더라도  
 경제개혁  
 기업의 투자  
 노력을 추구  
 업계와 정부  
 는 시정인  
 것이다.



30년만에 廳숨아전  
통계청장 閔泰亨씨

인터뷰



통계청이 지난 30년간 국가 통계 산실이었던 서울 종로구 경운동청사를 떠나 강남구 역삼동 한타빌딩으로 이사했다. 비록 남의건물에 전세든 것이

말했다. 경운동청사는 61년에 지어졌고 입주당시의 직원도 2백50여명. 직원수가 지금은 1천3백여명으로 늘어났다. 통계청은 한타빌딩으로 옮기면서

의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고 인구주택총조사 총사업체통계조사등 3~5년주기로 하는 통계가 있다. 통계청이 없으면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세울수 없을 정도다.

『통계는 국가정책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인데도 국민들에게 잘알려지지않아 통계조사과정에서 협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통계가 부정확하면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마련이고 그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閔청장은 현재의 국가통계업무는 좀더 전문화되고 조사기관이 통일되어야한다고 말했다. <金榮晚기자>

## 새분위기서 더정확한 통계 기대

### 조사때 국민 적극협조 절실

긴하지만 통계청직원들은 새분위기에서더 정확한 통계업무를 약속하고 있다.

閔泰亨청장(54)은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진만큼 더 정확한 통계를 대해도 좋습니다』라고

경운동청사는 전산실과 연수원으로만 쓰도록했다.

통계청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중요하다. 통계종류만 38종에 이르고 있다. 월별로 10종, 연간별로 8종

# 100세 1백명 돌파 4명 95명

여자가 90%로 4백14명 최고령 1백13세 박할머니 (서울)



**성경 벗삼아 113세** 여릴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나라 최고령자 박할머니(113)는 지금도 머리맡에 성경과 찬송가책을 두고 음송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노환으로 눕기전까지만 해도 수색감리교회 명예권사로 전도활동을 해왔다. 손자 2명과 증손자 8명, 현손자 11명을 두고 있으며 현재 큰 손자 황문주씨(62·서울상암동419)와 함께 살고 있다. <尹汝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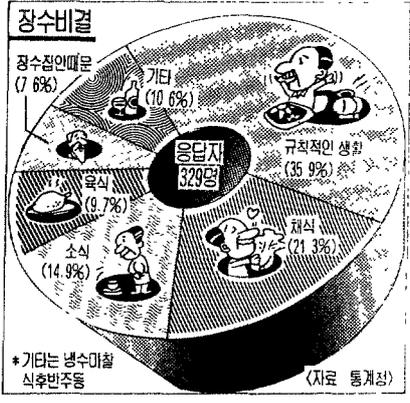
**85년보다 62% 1백77명 늘어**  
우리나라에서 1백세의 타였다. 상봉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만 4백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령자는 서울마

**90년 11월 통계**  
포구상암동에 살고 있는 박씨 할머니도 올해만 1백13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통계청이 지난 9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제 나이를 조사한 '1백세 이상 고령인구 현황'에 따르면 1백세 이상 고령인구는 4백59명으로 5년 전인 지난 85년보다 62.8% (1백77명) 증가했다. 특히 고령인구는 국민보건의향상과 의료기술 발달과

합계 1백세 이상 고령자 10만 7천 9백 45명, 85년보다 62.8% 증가했다. 이 중 90년 조사에서는 10만 7천 9백 45명, 85년 조사에서는 6만 6천 6백 88명이었다.

**거주지 서울 80·전남 67·경기 62명 순**  
**전남 무안·북제주 각 9명 長壽村**  
**禁酒 61% 禁煙 70% 菜食 위주 21%**



또 1백세 이상 고령인구의 54.7%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홀로 생활하며 혼자 양육하고 14.8%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는 상태였으며 36.5%는 아직도 홀로 살고 있었다.

또 1백세 이상 고령인구의 54.7%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홀로 생활하며 혼자 양육하고 14.8%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는 상태였으며 36.5%는 아직도 홀로 살고 있었다.

1백세 이상 고령자를 남녀별로 보면 여자가 4백14명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고 남자는 45명(1.4%)에 불과했다. 이들 중 90%는 불교를 믿고 있으며 전체의 88.3%는 1백5~1백9세가 46명(15.5%), 1백10세가 10명(3.0%), 1백10세 이상의 80명이 1.7%였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이 80명(24.3%), 경기도가 62명(18.8%), 전남이 67명(20.4%), 전북이 9명(2.7%), 충청이 9명(2.7%), 강원이 9명(2.7%), 경상이 9명(2.7%), 제주이 9명(2.7%)이었다.

1백세 이상 고령자의 80%는 홀로 살고 있으며 14.8%는 자녀가 없는 상태였으며 36.5%는 아직도 홀로 살고 있었다. 또 1백세 이상 고령인구의 54.7%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홀로 생활하며 혼자 양육하고 14.8%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는 상태였으며 36.5%는 아직도 홀로 살고 있었다.

# 5년새 62% 증가... 90%가 여자

## 통계청, 「고령인구 현황」 발표

통계청은 3일, 지난 90년의 인구추계 센서스를 기준으로 조사한 「1백세 이상 고령인구 현황」을 발표, 90년 11월 현재 1백세 이상 고령인구는 25,9%보다 훨씬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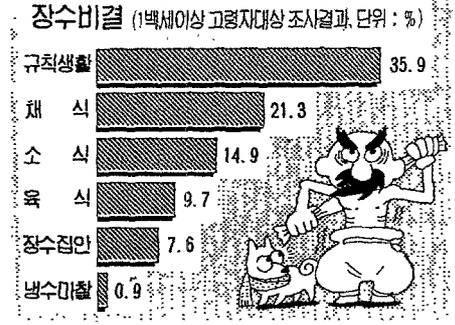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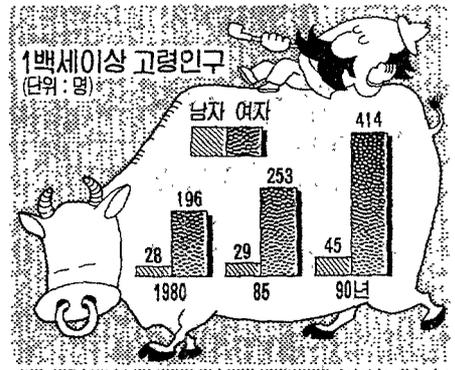
지난 90년말시 1백세 이상 인구가 3천2백2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비율은 2.61명에 달해 한국(1.06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는 1백~1백4세가 최근 수년사이 급

증가했다. 1백세 이상 인구는 3월 1일 현재 1백세 이상 인구가 3천2백2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비율은 2.61명에 달해 한국(1.06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인구의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1백세 이상 장수를 누리는 고령인구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 고령자중의 90%는 여자이며, 1백세 이상 노인이 많이 사는 「장수마을」은 제주 북제주군과 전남 무안군. 이들의 장수비결은 규칙적인 생활과 菜食-小食등의 식생활 습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百세 이상 고령 인구

### 북제주-무안郡 9명씩 "장수마을" 비결은 규칙생활-채식-小食 꼽아



졌는데, 국민 생활수준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1백세 이상 고령인구도 80년 0.60명, 85년 0.70명, 90년 1.06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1백세 이상 고령자중에는 여자가 4백14명(90%)로 대부분(92%)을 차지, 평균수명이 높고, 장수확률도 여자가 훨씬 높았다. 1백세 이상 고령인구가

중, 4백5명(88.3%)이 있었으며 1백51~1백9세 46명(10.0%), 1백10세 이상이 8명(1.7%)으로 조사됐다. 인구 10만명당 1백세 이상 고령인구를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4.09명(2.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2.67명), 전북(1.5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0.36명으로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90년 11월 센서스 당시 1백세 이상 고령자 4백59명중 지난 9월 1일 현재 생존자는 모두 2백23명이며 1년 7개월 사이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90년 조사 당시 최고령자였던 조옥이씨(사망당시 1백14세)는 지난해 7월 사망했다.

### 최고령자 女 113-男 10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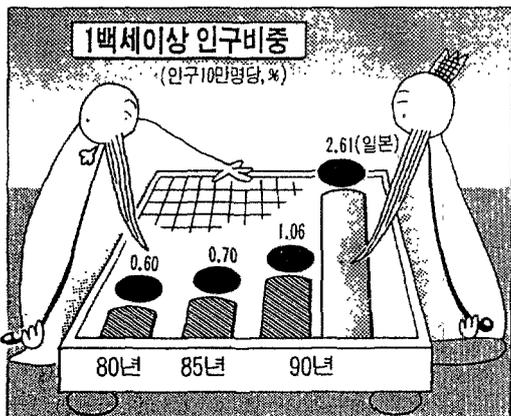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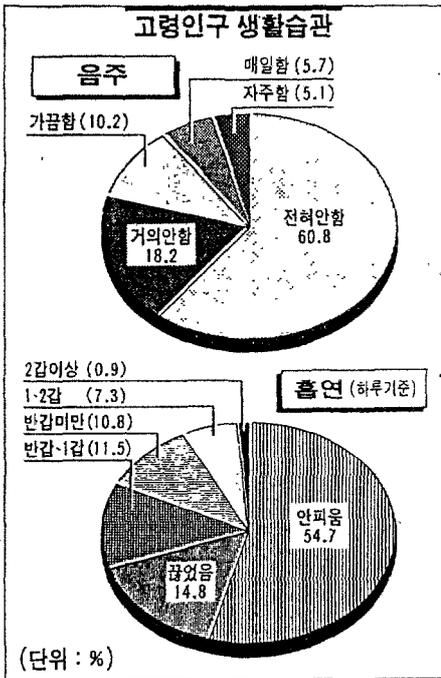
생존자중 최고령자는 1879년생으로 올해 만나이가 1백13세인 차씨 할머니(서울 마포구 상암동)로 조사됐다. 고향이 경기도 이천인 차씨 할머니는 66세 때 남편과 사별한 뒤 의아를 마저 잃고, 현재 62세인 장손(長孫)과 함께 살고 있다. 슬하에 손자 2명(62세, 57세), 증손자 8명, 현자 11명이 있다.

# 百세이상 노인 전국에 459명

90년 11월 1일 기준

## 5년전보다 63%가 증가

女子가 4백14명... 1백10세이상도 8명



지난 90년 11월 1일 현재 전국 10만명당 2.61명의 노인 1백세 이상자가 살고 있다. 이는 85년 10만명당 1.06명, 80년 0.60명보다 각각 2.1배, 4.3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여성은 1백세 이상자가 4백14명, 남성 13명, 합계 459명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9명은 여성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8명은 여성이다. 이는 85년 10만명당 1.06명, 80년 0.60명보다 각각 2.1배, 4.3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여성은 1백세 이상자가 4백14명, 남성 13명, 합계 459명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9명은 여성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8명은 여성이다. 이는 85년 10만명당 1.06명, 80년 0.60명보다 각각 2.1배, 4.3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여성은 1백세 이상자가 4백14명, 남성 13명, 합계 459명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9명은 여성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8명은 여성이다. 이는 85년 10만명당 1.06명, 80년 0.60명보다 각각 2.1배, 4.3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여성은 1백세 이상자가 4백14명, 남성 13명, 합계 459명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9명은 여성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8명은 여성이다. 이는 85년 10만명당 1.06명, 80년 0.60명보다 각각 2.1배, 4.3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여성은 1백세 이상자가 4백14명, 남성 13명, 합계 459명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9명은 여성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8명은 여성이다. 이는 85년 10만명당 1.06명, 80년 0.60명보다 각각 2.1배, 4.3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여성은 1백세 이상자가 4백14명, 남성 13명, 합계 459명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9명은 여성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8명은 여성이다. 이는 85년 10만명당 1.06명, 80년 0.60명보다 각각 2.1배, 4.3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여성은 1백세 이상자가 4백14명, 남성 13명, 합계 459명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9명은 여성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8명은 여성이다. 이는 85년 10만명당 1.06명, 80년 0.60명보다 각각 2.1배, 4.3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여성은 1백세 이상자가 4백14명, 남성 13명, 합계 459명이다. 1백세 이상 노인 10명당 9명은 여성이다.

# 1백歲이상 長壽인구 늘어

## 10만명당 1명 꼴...全國에 459명

### 最高齡 1백13세 할머니...서울에

**통계청조사**  
**90년11월末**

지난 90년11월현재 우리나라의 1백세이상 장수자는 4백59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06명이 1백세이상의 壽星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장수비결은 규칙적인 생활과 菜食·小食 등으로 밝혀졌다.

3일 통계청이 실제연령을 기준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해 파악한 「1백세이상 고령인구 현황」에 따르면 90년 11월1일 현재 1백세이상 고령인구는 4백59명(남자 207명, 여자 252명)이었는데, 지난 9월1일까지 2백36명이 사망하고 2백23명의 생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백세이상 고령자를 성별별로 보면 여자가 4백14명(90.2%), 남자가 45명(9.8%)인데, 여성 10명의 여자는 1명씩, 남자 10명의 남자는 1명씩만 나타났다. 또 장수비결은 1백세이상 고령인구의 90%가 규칙적인 생활과 菜食·小食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1백세이상 고령인구는 80년 0.6명(2백24명), 85년 0.7명(2백82명), 90년에 1.06명(4백59명)로 집계 증가해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기술발전과 壽星을 누리는 노인인구의 증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9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10만명당 1

## 규칙적생활·菜食·小食이 “비결”

### 여성이 90%...남성短命 드러내

백4세가 4백5명(100%)로 전체의 88.3%에 달했고 ▲1백5~1백9세가 46명(10%) ▲1백10세이상 인구는 1.7%인 8명의

백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90년 현재 2.61명(전체 3천1백23명)인 점에 비추어 더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들은 ▲1백~1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장수비결로는 ▲규칙적인 생활(35.9%) ▲菜食(21.3%) ▲小食(14.9%) ▲肉食(9.7%) 등 먹는 습관을 꼽았고 장수비결은 ▲7.6%, 병수마찰(0.9%), 심후반부(0.8%) 등도 한 요인의 부가 조사된 3백32명중 60.8%가 전례술을 마시지 않고 39.2%는 술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된 3백31명중 30.5%가 계속 담배를 피웠으며, 피다가 끊은 사람이 14.8%로, 전연연에 도안대본 경우는 54.7%로 나타났다.

1백세이상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을 보면 ▲전라북도 9명 ▲서울서대門區·전남高興郡 각 8명 ▲서울江南區·光州西區·전남光陽郡 각 7명 ▲서울城東區·中浪區·충남論山郡·전남麗川郡·제주도濟州市 각 6명의 순이다.

한편 지금까지 생선지중 최고령자는 서울麻浦區上岩洞에 살고 있는 차씨 할머니(1백13세)로 1879년 10월 31일생.

경기도 利川에서 출생한 차 할머니는 66세 때 남편과 死別하고 외아들마저 사망, 현재는 손자 黃斗우씨(62)내외와 증손자 1명과 함께 살고 있다.

유 회를 즐겨하는 차 할머니는 현재 나이가 62세, 57세인 손자 2명과 증손자 8명, 현종자 11명, 21명의 후손을 두고 있는데, 작년 여름부터 가족을 못해 가족들이 수발을 들고 있다.

# 百歲이상 高齡者 국내 223명

## 지역별 현황과 長壽비결

우리나라에서 현재 내외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麻浦區 上洞洞의 거주하는朴씨 할머니는 올해 만 1백13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1백세이상 고령인구의 長壽비결은 9차적인 食生活의 改善인 가장 重要한 因素인 것으로 밝혀졌다.

90세 이상 노인 3천 90만 명에 비해 1백세 이상 고령 인구는 223명에 불과하다. 이는 1백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0.006%에 불과하다.

1백세이상 인구의 비율도 지난 80년 0.6명에서 85년 0.7명, 90년에는 1.06명으로 크게 올랐다.

1백세이상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90.2%를 차지, 남자에 비해 長壽한 長壽인구가 4:1의 비율로 많았다.

# 여자가 90%... 최고령 113세 할머니

## 서울이 最多... 술·담배 피하고 菜食

지역별로는 서울이 80명(17.4%)으로 가장 많고 전남 67명(14.6%), 경기 62명(13.5%) 등의 順으로 長壽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백세이상 고령인구 10만 명당 1백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제주도가 4:1로 가장 높았다.

주요 5대 도시를 제외한 지역 가운데 전남 무안군(9명), 제주 북제주군(9명), 전북 남원군(8명), 전남 영광군(7명) 등 1백세이상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 전남·제주도 지역의 장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백세이상 고령인구 1명당 34명이나 돼 술의 장수한데 對照적인 禁酒者가 1인당 3명 정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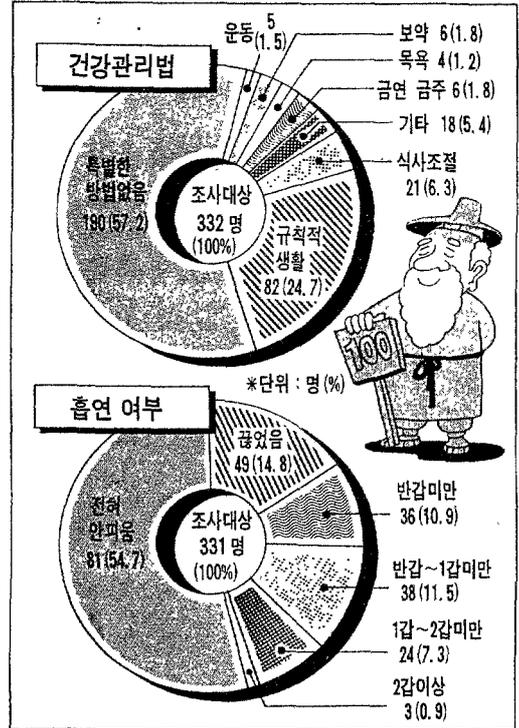
또 담배를 피우지 않는 1백세이상 고령인구는 69.5%인 반면 30.5%인 1백1명 중 1백세가 된 후 흡연 하던 비율을 피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1백세이상 고령인구의 88%가 술을 피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7%의 1백세이상 고령인구가 14.8%의 과다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1백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오래 사는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때문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고 菜食이 21.3%, 小食이 14.9%로 나타났다.

이밖의 장수비결은 육식을 피하는 사람이 9.7%, 원래 장수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사람이 7.6%, 그리고 과다한 술(5명)과 과식(4명)을 피하는 사람이 5.2%로 조사됐다.

건강상태는 전체의 88%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백세 이상 고령인구의 88%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가운데 전남 무안군(9명), 제주 북제주군(9명), 전북 남원군(8명), 전남 영광군(7명) 등 1백세이상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 전남·제주도 지역의 장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백세이상 고령인구 1명당 34명이나 돼 술의 장수한데 對照적인 禁酒者가 1인당 3명 정도 나타났다.

또 담배를 피우지 않는 1백세이상 고령인구는 69.5%인 반면 30.5%인 1백1명 중 1백세가 된 후 흡연 하던 비율을 피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1백세이상 고령인구의 88%가 술을 피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7%의 1백세이상 고령인구가 14.8%의 과다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1백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오래 사는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때문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고 菜食이 21.3%, 小食이 14.9%로 나타났다.

이밖의 장수비결은 육식을 피하는 사람이 9.7%, 원래 장수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사람이 7.6%, 그리고 과다한 술(5명)과 과식(4명)을 피하는 사람이 5.2%로 조사됐다.

건강상태는 전체의 88%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백세 이상 고령인구의 88%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金鍾秀기자>

社 說

대체없이 찾아온 「百壽시대」

백세장어의 수가 두백조각을 넘어서는 등 11월 현재 1백세를 넘는 장수 노인인 수는 45만·9천·4백·1명으로 전년 동기 4백·8천·9백·1명으로 8천·5백·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1970년 1백·5천·8백·1명으로 1백·5천·9백·1명으로 1천·1백·5십·1명으로 증가한 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1971년 1백·5천·9백·1명으로 1천·1백·5십·1명으로 1천·1백·5십·1명으로 증가한 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다.

백세장어의 수가 두백조각을 넘어서는 등 11월 현재 1백세를 넘는 장수 노인인 수는 45만·9천·4백·1명으로 전년 동기 4백·8천·9백·1명으로 8천·5백·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1970년 1백·5천·8백·1명으로 1백·5천·9백·1명으로 1천·1백·5십·1명으로 증가한 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1970년 1백·5천·8백·1명으로 1백·5천·9백·1명으로 1천·1백·5십·1명으로 증가한 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1971년 1백·5천·9백·1명으로 1천·1백·5십·1명으로 1천·1백·5십·1명으로 증가한 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1970년 1백·5천·8백·1명으로 1백·5천·9백·1명으로 1천·1백·5십·1명으로 증가한 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1971년 1백·5천·9백·1명으로 1천·1백·5십·1명으로 1천·1백·5십·1명으로 증가한 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다.

1971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3.1%로 떨어졌으며 이 하인 3.0%로 떨어진 것이 양면 4분기 이후 4연달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1분기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천9백71만 4천 명이며 전반기 대비 24만 5천명(1.3%)의 증가하였으나 2.4분기 대비 9만 9천명(0.3%)의 감소하였으나 전반기 대비 19.8%의 증가였으며 0.1%의 감소하였다.

간접생산액에 보면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전반기에 비해 전반기 대비 24만 5천명(1.3%)의 증가하였으나 2.4분기 대비 9만 9천명(0.3%)의 감소하였으나 전반기 대비 19.8%의 증가였으며 0.1%의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인구의 15%인 1천 2백 2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로 참가하고 있다. 이 중 1천 1백 2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로 참가하고 있다. 이 중 1천 1백 2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로 참가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15%인 1천 2백 2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로 참가하고 있다.

## 經濟活動人口 증가율 감소

1971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3.1%로 떨어졌으며 이 하인 3.0%로 떨어진 것이 양면 4분기 이후 4연달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15%인 1천 2백 2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로 참가하고 있다. 이 중 1천 1백 2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로 참가하고 있다. 이 중 1천 1백 2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로 참가하고 있다.



張 秉 澆  
경제기획원  
(인력개발계획과장)

# 국가生産力 雇用力제고

에 비해 9월의 2.5%로 더욱 높아졌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이월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4월 전반기 대비 11만 7천 명이 증가한 반면 7월

이 기점으로 복구했기 때문  
이런 점이다.

이런 점에서는 정부의 경  
제활동 참가율이 서로 다르다  
는데 90년 47.0%에서 91년  
에 47.6%로 높아졌고 작년  
10월 49.8%까지 올라갔던  
정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부  
정부의 지니코프의 49.3%  
를 대비해 계속 낮아져 9월  
의 48.4%로 전년도에 비해  
49.1%의 차이를 0.7%포인트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으나  
일련성 지표가 1월 3-  
5월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  
속 떨어지지 않았으며 이런 추  
세가 6월 이후 더욱 심화되  
고 있다.

이처럼 일련성 지표가 9월  
전반에 걸쳐서 일정한 수준의  
모자가 실업률의 증가로 연  
결되지 않고 비경제활동 인구의  
의 증가로 나타났다고 지적  
한 경제활동 인구를 체계화하

인구로 집계되고 있는가 많  
아며 이 비율은 경제활동 인적  
질량 수치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인구 현실 실  
업률이 과소 추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사  
행한다.

경제활동 인구가 정부의 부  
화 현상의 단기적이며 단편  
적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91년 전  
체적인 인구가 증가세가 0.9

# 주요요소 縮小의 미 위한 積正成長 필요

다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정부  
내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이  
중에서 갈수록 증가된 것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추이  
가 정부의 기조와 같은 것인지  
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다. 아민가 말하며 정부 1-1  
0월 기간에 이르러서 추세가  
확히 좋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

%로 나타내며 부화하며 거대한  
장황하며 9%수준을 일회적으로  
의 의미로 나타내지 않는다. 부화  
할 것이며 전망하며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적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타내

인정해와 생산활동 생산활동  
활동에 참가 하였다. 여기서  
것을 감안할 때 정기간 동안  
모든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의 추이도 90년 47.0%  
인점이며 91년 47.6%로  
이 정도는 90년과 같은 활동  
의 의미로 이해하고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서 정기간 인  
구에서 수월 해감을 위한 것  
처럼 경제활동의 증가가 부  
정기간 동안에 비해  
부화 현상도 경제활동에  
참가한 인구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의 이러한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적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타내





통계청 「92년 社會조사」

우리나라 20세 이상 남자의 84.7%, 여자의 33%가 술을 마시고 있으며 20세 이상의 남자의 73.2%, 여자의 6.1% 정도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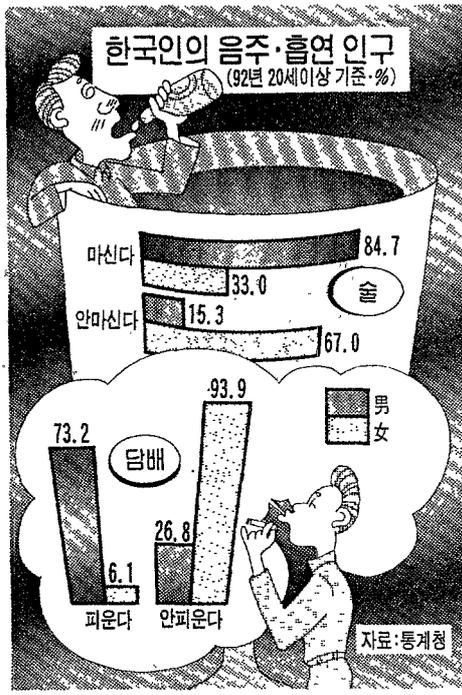
또 전국 가구의 76.5%가 풍여서 마트, 정수기에 갈라 마트, 아진도수 등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16.5%는 약수를 마시며 2.3%는 생수를 마

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8월 통계청이 전국 3만 4천 가구의 만 15세 이상 전가구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건강'이라고 한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건강관리= 자신의 건강을 받은 사람 중 86%는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건강'이라고 한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환경= 농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해서는 46.2%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약을 직접 쓰는 농민보다 도시지역 이 더 높아 도시사람들이 이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오염을 평가했을 때 63.9%가 심하게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람의 과반수를 높였다.



<그림=張甲鎭기자>

대상으로 조사한 「92 사회 통계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다만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음주·흡연>=아파트와 오피스빌딩이 86.6%, 48.3%에서 술을 57.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 2~4잔」과 「주 5잔 이상」의 비율은 각각 2.4%와 0.7%로

고정된 인구의 비율은 3년 전 29.7%에서 올랐던 44.9%로 늘었다. 건강관리=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건강'이라고 한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건강관리= 자신의 건강을 받은 사람 중 86%는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건강'이라고 한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환경= 농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해서는 46.2%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약을 직접 쓰는 농민보다 도시지역 이 더 높아 도시사람들이 이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오염을 평가했을 때 63.9%가 심하게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람의 과반수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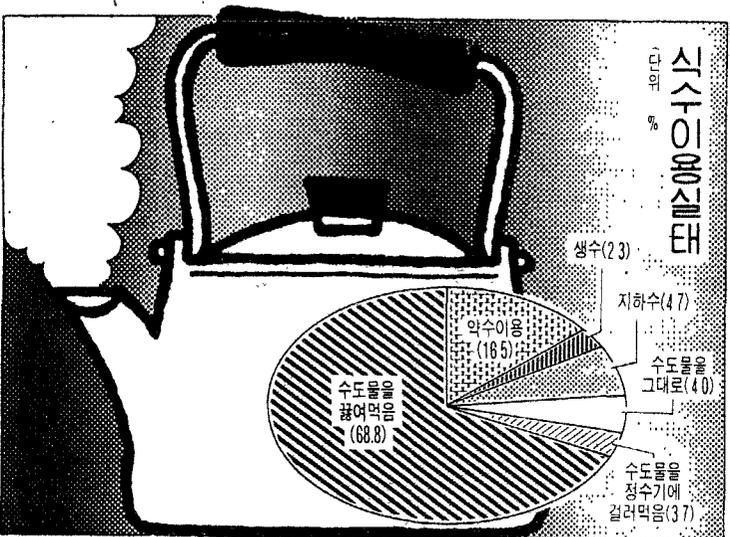
<鄭鐵根기자>

건강관리는 운동·食事조절·補藥으로

農藥오염불안 46%, 쓰레기분리 49%

먹는물 水道77%, 藥水17%, 生水2%

# 「吸煙」 「즐고」 「飲酒」 「늘었다」



92년 保健·환경부문 통계

우리나라의 흡연인구 비율은 20대 초반을 빼고 50대 이상을 두 인구반에 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흡연의 발달을 한

의 15세 이상 소아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밝혀졌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92년도 조사결과

## 禁煙확산속 「하루

## 저의 매일 마시는

자판의산포마구물종비율에 있어선 95년과 92년 반면의 차이를 거의 매일 마시는 주정포음의 비중이 늘었다. 그러나 수돗물 음용률의 증가는 92년 68.8%로 95년 88.3%에 비해 19.5%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92년 42.1%로 95년 57.0%에 비해 14.9%포인트 늘었다.

제조사결과(보건·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흡연인구는 86년 48.3%, 88년 57.0%에서 92년 67.9%로 9%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92년 29.1%에서 95년 38.1%로 9%포인트 증가한 것이 매일 마시는 약수의 10.1%



국민 53.5%가 "건강의식"

統計廳, 국민 保健·환경분야 인식조사

우리국민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분야에 대한 인식은 과연 어떨까. 통계청은 지난 5월 전국 의 3만 4천개 표본가구의 15세이상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환경분야의 실태를 조사했다. 우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46.5%가 건강하다(매우 건강 5.8%, 건강하면 40.7%)고 응답, 지난 89년의 54.8%에 비해 11.2%포인트, 건강하면 43.6%에 비해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람은 지난 89년 29.7%에 불과했으나 92년에는 그 비율이 44.2%로 늘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건강관리법으로는 운동이 1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사조절(11.8%) ▲보약(7.8%) ▲목욕(6.9%) ▲담배·술 절제(2.8%) 등의 順이었다.

20세이상 성인가운데 흡연인구는 38.5%로 지난 89년의 39.3%에 비해 떨어졌고 특히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다는 사람이 89년의 5.9%에서 92년에는 6.5%로 늘어나 금연운동에 호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89년보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각각 89년 75.4%와 7.6%에서 92년에는 73.2%와 6.1%로 감소했다.

흡연비율을 주요선진국과 비교하면 남자는 美國(31.5%), 英國(36%), 日本(61.2%)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여자는 美國(27%), 英國(32%), 日本(14.2%)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음주인구는 지난 86년 48.3%에서 89년 57%, 92년 57.

수도물不信  
남자 흡

9%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술을 마시는 횟수는 줄어들고 있어 술마시는 풍토가 바뀌고 있음을 반영했다.

남자의 84.7%와 여자의 33%가 평소 술을 마신다고 응답했으나 여성음주인구의 대부분(62.3%)이 한 달에 한 번 이하인 반면 남자들은 절대다수(83.4%)가 월 2회이상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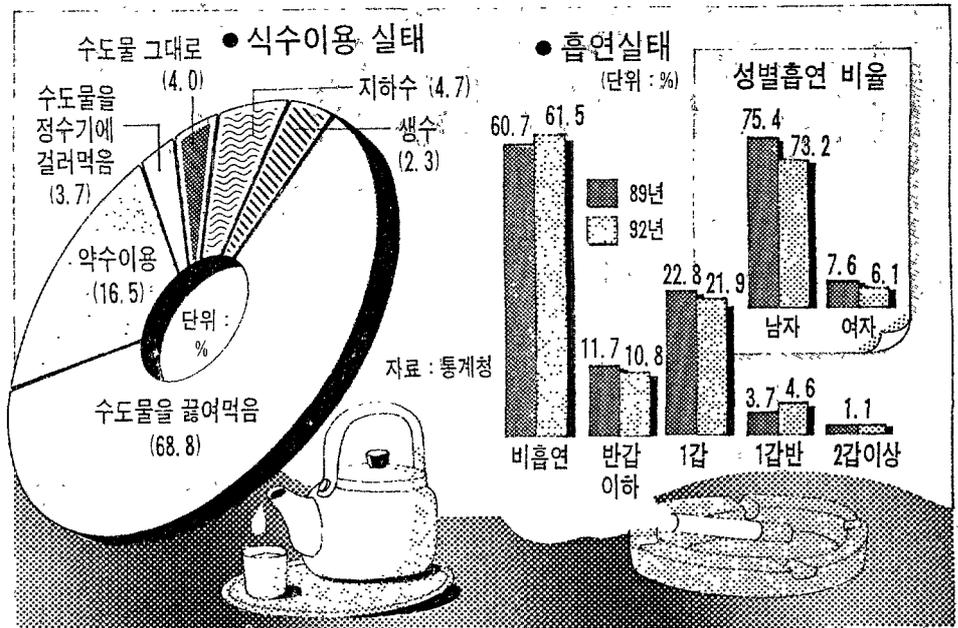
시고 있으며 이가운데 28.1%는 주 2~4회, 11.7%는 거의 매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서비스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지난 89년 15.3%에서 92년에는 9.1%로 줄어들어 의

한다고 응답했고 약수이용이 16.5%, 지하수 4.7%, 생수 2.3%등으로 나타났다.

수도물을 먹는 경우는 끓여 먹는 가구가 68.8%로 대부분이었고 3.7%는 정수기에 걸러 먹는다고 응답했으나 그냥 마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오염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63.9%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역시 도시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59.1%로 농어촌(87.8%)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으며 주요 불만이유로는 ▲불친절(32.1%) ▲비용과다(23.5%) ▲치료미흡(20.8%) ▲시설미비(11%) ▲지역편재(10.8%)

신다는 응답도 4%였다. 도시지역에서 약수나 생수를 먹는 비율(19.7%)이 높은 반면 농어촌에서는 수도물을 그대로 마시는 경우(11.1%)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람은 54.6%인 반면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16.5%에 불과, 다수의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합성세제 줄이기(68.8%) ▲아외 쓰레기 안버리기(55.2%) ▲하천·바다 오물 안버리기(49.2%) ▲쓰레기 분리수거(48.6%) ▲소음 억제(35.1%) ▲비닐봉지 사용자제(19.9%)등을 꼽았다. <金鍾秀기자>

## ... 68%가 "끓여먹는다" 연율은 73.2%로 줄어

등이 꼽혔다. 지난 89년 조사 당시에는 비용과다(32.2%)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었는데 비해 불친절과 치료미흡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비용보다는 서비스의 질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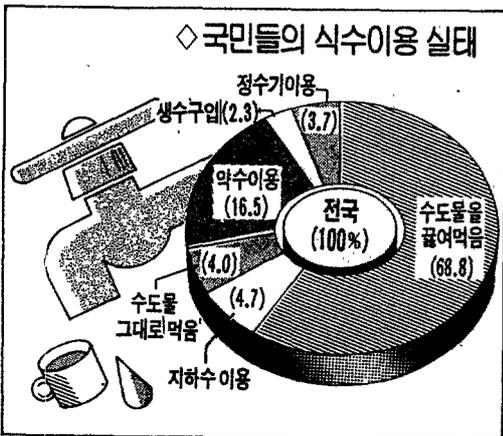
집에서 마시는 물은 전체가구의 76.5%가 수도물을 이용

지하수이용비율(10.4%)이 높았다.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전체의 과반수인 53.8%가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나 농어촌지역이 불안도가 31.2%인데 비해 도시지역에서는 51.3%가 불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도시지역의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반영했다.

# 成人남자73%·여자6% "흡연"

92년 사회통계 과반수이상 하루 한갑정도



8월 8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하루 한갑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 흡연율은 57%로서 92년은 57%로 전년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흡연인구 중 89%의 담배는 노후 담배로서 흡연율은 30.1%로 흡연자인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여성 흡연율은 6%로 전년 대비 0.1%가 늘었다.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73.2%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흡연율은 57%로 전년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흡연인구 중 89%의 담배는 노후 담배로서 흡연율은 30.1%로 흡연자인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여성 흡연율은 6%로 전년 대비 0.1%가 늘었다.

# "매일 술 마신다" 8.9%

수돗물食水이용 全家口 76% 의료서비스 不滿 점차 높아져

5.8%로, 「건강보험료」의 비율이 89년의 43.6%에서 40.7%로 떨어졌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 스스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이상은 인구의 80% 이상이 자신의 건강을 보충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매일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9년의 11%에서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89년의 15.3%에서 92년엔 9.1%로 낮아졌고 불만족은 88.3%에서 44.1%로 높아졌다. 89년의 92%가 장래 불만이 「비차」였으나 92년엔 「불차」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각구의 76%가 수돗물 이용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다. 4%의 불만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8.8%가 수돗물을 끓여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藥水를 떠먹는 경우도 16.5%나 됐다. 「정수기이용」과 「생수구입」의 각각 3.7%·2.5%를 차지했다. 야간근로 근로자들의 46.2%가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건강보험」 소지하는 도시근로자선과 반수가 51.5%가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부담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내는 비율이 63.9%가 수돗물 이용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다. 「건강보험」 부담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내는 비율이 63.9%가 수돗물 이용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다.

【資料來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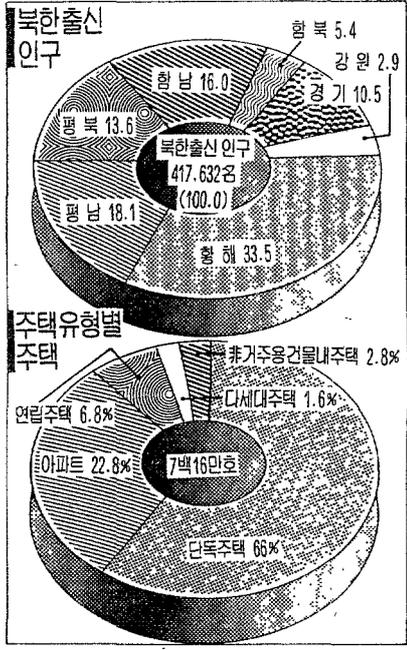
85년 이후 우리나라 이렇게 변했다

지난 9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4천 341만 632명으로, 85년의 3천 889만 9천 996명의 11.1%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또 전국 가구수가 1천 1백 37만 7천 777가구로, 85년의 988만 7천 161가구의 17.3%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총인구 4,341만명... 42.8% 수도권 집중

296만명 7.3% 증가... 인구밀도 세계 3위



수도권 인구는 29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수도권 인구는 29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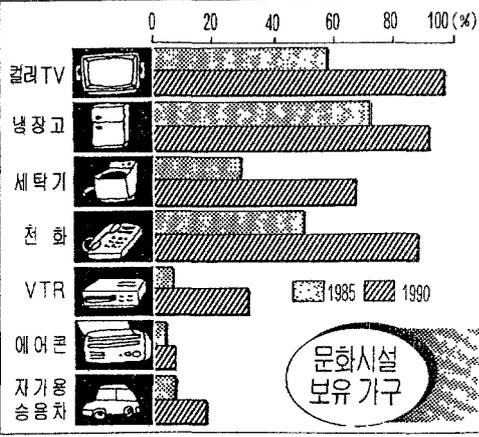
아파트 2배 증가... 12세 이상 절반이 통근·통학

남녀 선호 뚜렷 4세 이하 11.2% 많아

<시·도별 인구추이>

시·도	1985		1990		증감률(%)
	인구수	인구수	인구수	인구수	
전국	40,448	43,411	2,963	7.3	
서울	9,639	10,613	974	10.1	
부산	3,515	3,793	278	8.1	
대구	2,030	2,229	199	9.8	
인천	1,387	1,818	431	31.1	
광주	906	1,139	233	25.7	
대전	866	1,050	184	21.2	
경남	4,794	6,156	1,362	28.4	
충남	1,725	1,580	-145	-8.4	
충북	1,391	1,390	-1	-0.1	
충청	2,135	2,014	-121	-5.7	
전남	2,202	2,070	-132	-6.0	
전북	2,843	2,507	-336	-11.8	
경북	3,011	2,861	-150	-5.0	
경서	3,517	3,672	155	4.4	
제주	489	515	26	5.3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1천 1백 37만 7천 777가구의 9.9%가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전국 가구로 2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85년에 비해 1인 가구(단독가구)가 가장 높은 54.6%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6인 이상의 가구는 40.5% 감소했다. 이는 시차의 미혼 단독가구 증가와 동거가족의 노인단독가구 증가의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독주택은 5년간 8천 2백 50호(8.3%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각각 80만 6천 981호와 13만 1천 394호가 증가했다. 주택단위별 거주 가구수는 시차의 1.8배가 증가한 1,137만 7천 777가구로, 85년의 988만 7천 161가구의 1.15배가 증가했다.

수도권의 인구는 29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수도권의 인구는 29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수도권의 인구는 29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1.2%를 훨씬 웃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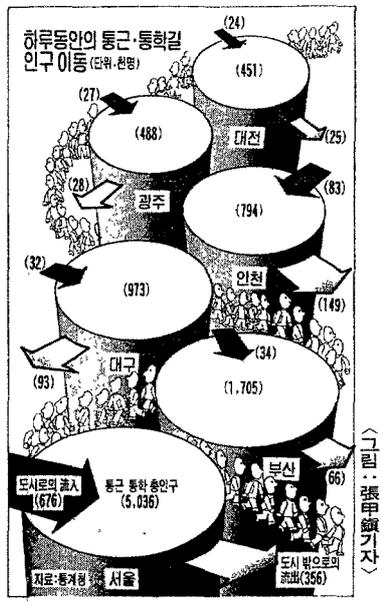
인구의 증가로 인해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男 100명에 女

## 혼자사는 家口 54.6% 늘어

### 인구밀도 세계 3位, 常駐외국인은 줄어

### 아파트 98% 증가, 신용차보급률 13.5%



서울의 인구가 1,705만 명으로, 부산은 66만 명, 대구는 973만 명, 대전은 794만 명, 광주는 488만 명, 인천은 149만 명, 경기도는 451만 명, 강원도는 24만 명, 충청도는 27만 명, 경상도는 28만 명, 전라도는 32만 명, 제주도는 93만 명이다.

1980년 13만 8천 명(38.4%)가 더 늘었다.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자영업률도 1979년 19.1%에서 1980년 20.1%로 증가했다.

1980년 19.1%로 증가했다. 1979년 19.1%에서 1980년 20.1%로 증가했다.

1980년 19.1%로 증가했다. 1979년 19.1%에서 1980년 20.1%로 증가했다.

1980년 19.1%로 증가했다. 1979년 19.1%에서 1980년 20.1%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의 보급도 활발하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에서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다.

가구밀도 3.7명  
인구밀도 100명당 3.7명

인구밀도 100명당 3.7명이다. 이는 세계 평균인구밀도인 100명당 2.5명보다 높고, 일본(100명당 3.5명)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서울의 인구가 1,705만 명으로, 부산은 66만 명, 대구는 973만 명, 대전은 794만 명, 광주는 488만 명, 인천은 149만 명, 경기도는 451만 명, 강원도는 24만 명, 충청도는 27만 명, 경상도는 28만 명, 전라도는 32만 명, 제주도는 93만 명이다.

1980년 19.1%로 증가했다. 1979년 19.1%에서 1980년 20.1%로 증가했다.

5年前과 비교한 90人口·주택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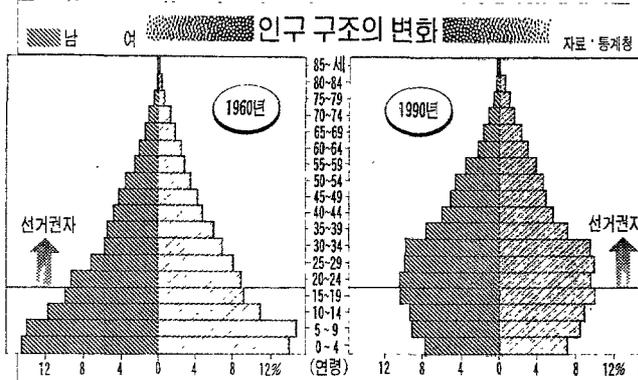
▲주택센서스 인원이 1.1배 증가  
 ▲5년 전보다 인구가 1.1배 증가  
 ▲주택센서스 인원이 1.1배 증가  
 ▲주택센서스 인원이 1.1배 증가

▲주택센서스 인원이 1.1배 증가  
 ▲5년 전보다 인구가 1.1배 증가  
 ▲주택센서스 인원이 1.1배 증가  
 ▲주택센서스 인원이 1.1배 증가

111.2명꼴 0~4세

◇나이에 따른 남녀비 (여자=100)

나이	남	여
0~4	108.2	100.0
5~9	107.1	100.0
10~14	106.6	100.0
15~19	106.6	100.0
20~24	106.6	100.0
25~29	99.2	100.0
30~34	104.2	100.0
35~39	106.6	100.0
40~44	102.8	100.0
45~49	99.2	100.0
50~54	99.2	100.0
55~59	99.2	100.0
60~64	99.2	100.0
65~69	99.2	100.0
70~74	99.2	100.0
75~79	99.2	100.0
80~84	99.2	100.0
85 이상	99.2	100.0



인구센서스 때 처음 조사했기 때문에 추이를 비교할 수 없었지만 90년의 인구센서스 결과는 1990년 12세 이하의 인구가 12.2%로 89년 12.2%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12세 이상 인구는 87.8%로 89년 87.8%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0~4세 인구는 111.2명꼴로 89년 108.2명꼴보다 3명꼴 증가했다. 이는 1990년 0~4세 인구가 111.2명꼴로 89년 108.2명꼴보다 3명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0~4세 인구는 111.2명꼴로 89년 108.2명꼴보다 3명꼴 증가했다. 이는 1990년 0~4세 인구가 111.2명꼴로 89년 108.2명꼴보다 3명꼴 증가했기 때문이다.

# 85년 주택 수요 「유리주택 90년」 연령계 변화다

85년 주택수요는 주택 수요가 1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1만 9천 9백 90세대(119,990세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1만 9천 9백 90세대(119,990세대)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4세 연령대의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만 9천 9백 90세대(19,990세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만 9천 9백 90세대(19,990세대)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4만 2천 9백 90세대(42,990세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4만 2천 9백 90세대(42,990세대)로 나타났다.

주택당 평균연면적은 85년 26.6㎡, 90년 25.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25.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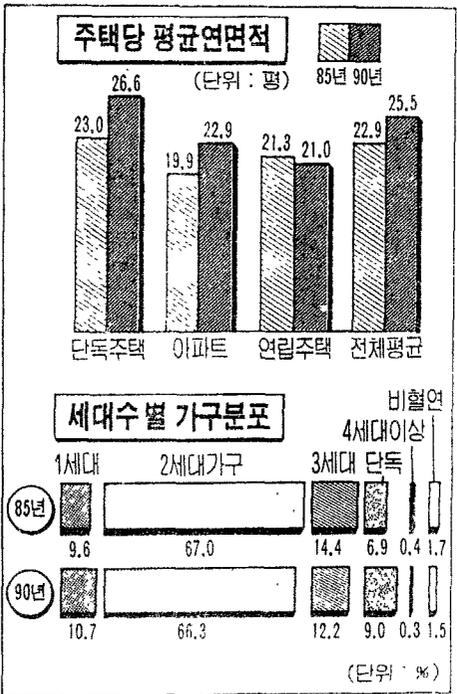
연령별로는 20~24세 연령대의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만 9천 9백 90세대(19,990세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만 9천 9백 90세대(19,990세대)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4만 2천 9백 90세대(42,990세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4만 2천 9백 90세대(42,990세대)로 나타났다.

## 4세이하 남녀성비 111.2對100



## 인구 74%가 市집중 老人가구 42만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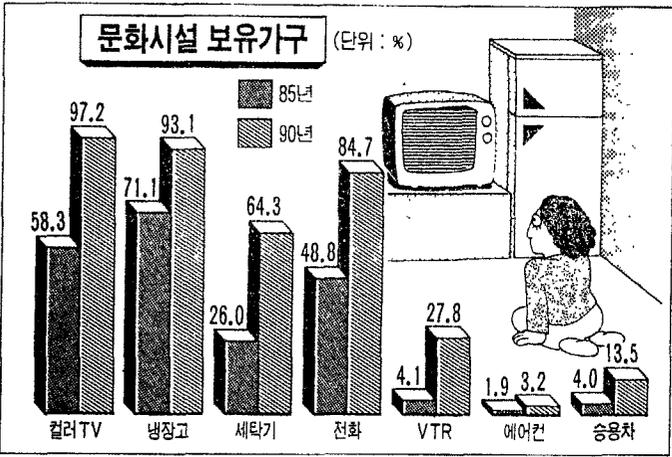
1월 68.2%로 낮아졌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68.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68.2%로 나타났다.

한편, 90년 11월 1일 현재 전국 85년 2만 5천 255명(남자 1만 2천 355명, 여자 9천 2백 90명)으로 85년보다 8천 3백 9명(8.8%)이 늘었다. 이 중 5천 5백 69명(64.3%)이 19세 이하로, 2천 828명(26.0%)이 20~29세, 1천 917명(22.7%)이 3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세종특별자치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만 3천 300명으로, 85년 9만 4천 200명보다 9천 100명(9.7%) 증가했다. 이 중 남자는 4만 7천 500명, 여자는 4만 350명이다. 19세 이하 인구는 19만 3천 500명으로, 85년 18만 5천 500명보다 7천 900명(4.3%) 증가했다.

90년 10.3%인 1백 16만 8천 300명이 19세 이하로, 85년 9만 4천 200명보다 2만 7천 100명(28.8%) 증가했다. 이 중 남자는 1만 3천 500명, 여자는 1만 360명이다. 19세 이하 인구는 19만 3천 500명으로, 85년 18만 5천 500명보다 7천 900명(4.3%) 증가했다.

한편, 90년 11월 1일 현재 전국 85년 2만 5천 255명(남자 1만 2천 355명, 여자 9천 2백 90명)으로 85년보다 8천 3백 9명(8.8%)이 늘었다. 이 중 5천 5백 69명(64.3%)이 19세 이하로, 2천 828명(26.0%)이 20~29세, 1천 917명(22.7%)이 3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 주요생활지표 변화

취사연료 82% 가스사용... 2.7배 늘어  
344만명이 통근·통학 1시간이상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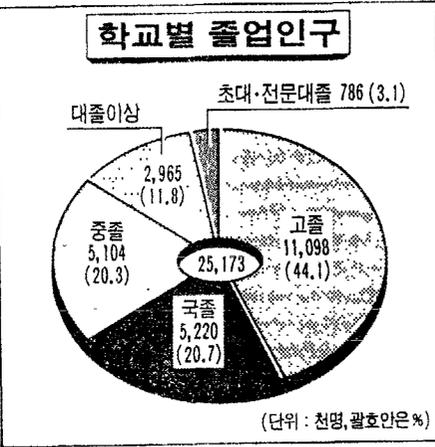
# 6%가 늘어 민간기업이 추세

다. 90년 11월 1일 현재 전국 85년 2만 5천 255명(남자 1만 2천 355명, 여자 9천 2백 90명)으로 85년보다 8천 3백 9명(8.8%)이 늘었다. 이 중 5천 5백 69명(64.3%)이 19세 이하로, 2천 828명(26.0%)이 20~29세, 1천 917명(22.7%)이 3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가구의 90년 11월 1일 현재 전국 85년 2만 5천 255명(남자 1만 2천 355명, 여자 9천 2백 90명)으로 85년보다 8천 3백 9명(8.8%)이 늘었다. 이 중 5천 5백 69명(64.3%)이 19세 이하로, 2천 828명(26.0%)이 20~29세, 1천 917명(22.7%)이 3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사태에 있다.

【柳善基기자】



지역은 역시 서울로 1만7천5백32명이고 江原이 94명으로 가장 낮았다.

도시지역의 인구비중은 74.4%로 지난 85년의 65.4%에 비해 9%포인트 높여졌고 수도권인구비중 역시 42.8%로 5년 전에 비해 3.7% 높아져 인구의 도시집중과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성비(여자 1백명당에 대한 남자수)는 1백·7로 85년보다 0·5가 증가했다.

특히 0~4세의 성비가 85년 1백8에서 90년에는 1백11·2로 31%포인트 높여졌고 5~14세의 성비도 200명 이후에는 신부각 구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 큰 원인이 된다.

6백32명이던 전체인구의 1%수준이던 1만7천5백32명이다.

# 서울 "포화상태"

구(18·8%) ▲2인가구(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사는 단독가구가 1백2만2천가구로 85년에 비해 54·6%나 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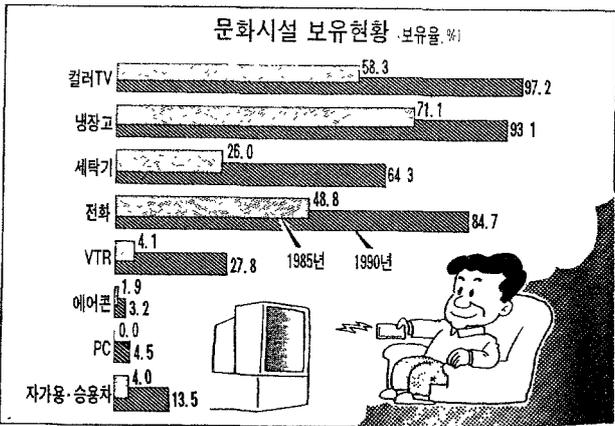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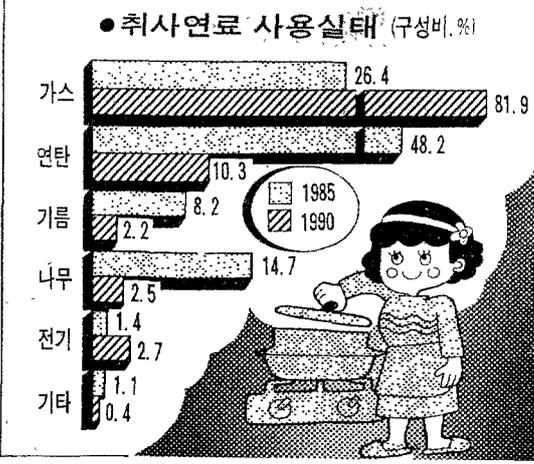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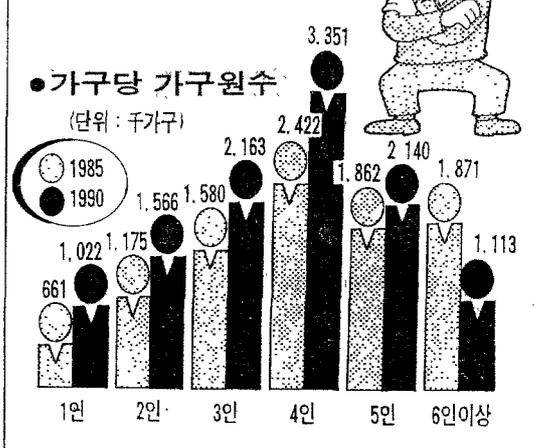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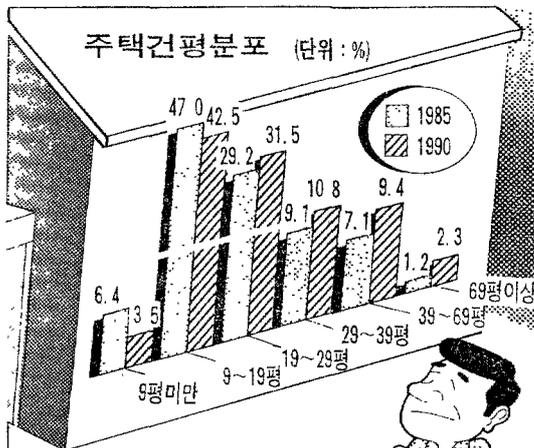
이같이 핵가족화와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도 3·7명으로 85년의 4·1명에 비해 0·4명이 줄었다.

10·7%였으며 4대이상 함께사는 경우는 0·3%(3만5천가구)에 불과했다.

65세이상 노인만 사는 가구도 42만2천가구(3·0%)였는데 85년에 비해 2칸

에서 90년에는 81·9%로 크게 늘어난 반면 연탄과 기름·나무를 때는 가구는 모두 감소해 취사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해주

24만1천채가 늘었고 월리는 줄었다. 서울의 주택이 19만7천채로 늘었다. 도시지역의 주택난과 대증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시설 보유현황 (보유율, %)은 1985년 대비 1990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특히 컬러TV는 58.3%에서 97.2%로, 전화는 48.8%에서 84.7%로, VTR은 4.1%에서 27.8%로, 에어컨은 1.9%에서 3.2%로, PC는 0.0%에서 4.5%로, 자가용·승용차는 4.0%에서 13.5%로 증가했다. 반면 냉장고는 71.1%에서 93.1%로, 세탁기는 26.0%에서 64.3%로, 에어콘은 1.9%에서 3.2%로, PC는 0.0%에서 4.5%로, 자가용·승용차는 4.0%에서 13.5%로 증가했다.

<金鐘秀기자>

90년 인구·주택센서스 주요내용

통계청이 지난 90년 1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한 인구·주택센서스 결과가 2년간의 자연변에 발표됐다.

이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및주택에 관한 통계조사로 인구는 지난 1985년 이후 14만 7천 9백 9십 9명(0.5%) 증가, 주택은 33개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인구** 90년 11월 1일 현재 총인구는 4천 3백 41만 1천 9백 85명으로 5년간 2백 96만 3천 명(7.3%)이 늘었다.

이와 비교하면 1985년의 인구는 4천 1백 45만 9천 명으로 4백 95만 9천 명이 증가했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1km<sup>2</sup>에 17,532명

독신가구 102만 : 85년비 54% 급증

農村지역 빈집 19萬 7千 채로 늘어

0~4세 男女兒 111대 100으로 "男超"

이들은 서울에 43.8%가 살고 京畿에 20.1%, 仁川에 11.3%가 사는 등 대부분이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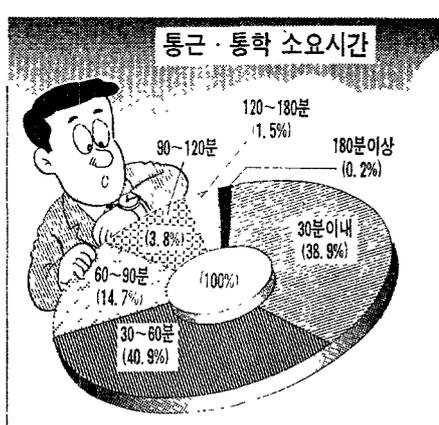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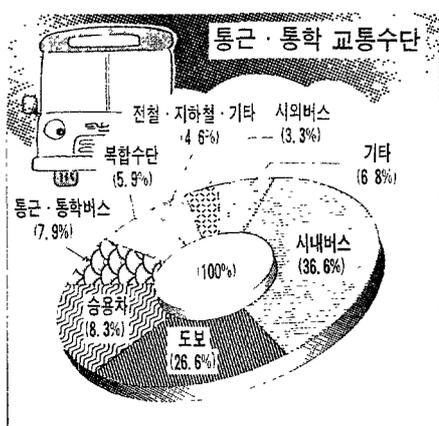
총가구수는 1천 1백 37만 7천 9백 9십 9명(9백 59만 9천 9백 9십 9명)에 비해 1백 77만 9천 9백 9십 9명(18.5%)가 늘었다.

이들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가구가 늘어나고 농촌지역의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족의 세대 구성은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전체의 66.3%로 가장 많고 3대가 한집에 사는 경우가 12.2%로 부부 또는 단독가구가

7%나 됐는데 이는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취사연락은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85년 26.4%



주택 개선했던 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90년 11월 1일 현재 전국 주택수는 모두 7백 16만 채로 5년째 1백 5만 6천 채가 늘었다.

이와 비교하면 1985년에는 72.4%로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감소에 따라 농촌지역의 주택은

# 社說

## 老齡사회면 훗날일 아니다

평탄수명의 연장등 많은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인층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특히 경제개발의 진전으로 노인층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인층의 건강상태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층의 증가가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층의 소득을 늘리고, 노인층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인층의 고용을 늘리고, 노인층의 소득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층의 증가가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층의 소득을 늘리고, 노인층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인층의 고용을 늘리고, 노인층의 소득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층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층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노인층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 되면 한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인층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인층의 고용을 늘리고, 노인층의 소득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층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층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노인층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 되면 한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인층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인층의 고용을 늘리고, 노인층의 소득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층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층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노인층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社說

先進國型 인구 구조에의 對應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90년 인구 주택총조사」의 최종결과를 보면 몇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눈에 띈다.

첫째는 인구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가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14세이하의 어린이 수가 85년보다 96만명이나 줄어든 1,113만5,000명인데 비해 65세이상의 노인수는 41만명이 늘어난 216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 구성비에서 어린이와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5.7%와 5.0%로 변화했다.

둘째는 수도권인구수가 1,582만명에서 1,858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 비중도 39.1%에서 42.8%로 커지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 심화됐다.

셋째는 전체주택에서 단독주택의 비중이 66%로 여전히 가장 높으나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비중이 19.2%에서 31.2%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지난 몇해동안 급격하게 추진된 200만호 주택건설에 따른 영향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단독가구수가 66만가구에서 54.6%나 늘어난 102만가구로 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이 큰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계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의 사회경제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는 우리사회도 이제 노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족이나 사회복지제도가 갖춰져 있지 못한 현실에서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자칫하면 이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인들이 정년퇴직뒤에도 각자의 경력과 능력에 맞춰 새로운 직업을 갖고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급격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조정으로 산업별 부문별 인력수급이 불균형을 일으키기 쉬운 지금 풍부한 경험을 갖춘 노인들은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안정에도 긴요한 일이다.

다음으로 그동안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수도권집중현상이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교통 환경 주택 교육등에서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임에도 마땅한 억제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지금 수도권에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집중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장래에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제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독가구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핵가족의 영향도 있지만 주택청약을 위해 눈가림으로 단독가구를 구성한 탓도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택·토지보유 가구합산제를 서둘러야 하며 부동산투기 방지책을 보완해야 한다.

인구구성과 분포, 주택 및 가구조사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으므로 정책입안자의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社 說

都市集中化현상의 심각성

지난 주말 발표된 「90년 인구주택센서스」의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力動的 변화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주택사정의 호전, 문화시설들의 倍加는 희망적인 발전을 뜻하고 있고 晩婚이나 獨身化현상의 현저한 증가는 우리의 삶의 양식도 世界의 흐름에 크게 다가가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火急한 懸案들도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都市化현상의 심각성은 얼마쯤 두려움까지 준다. 서울 24.4%를 비롯, 부산·대구·인천·광주등 5개도시에만 47.5%의 인구가 살고 있다. 한국인의 절반이 이 5개도시에만 살려고 하는 경향은 우리 국토의 전반적 균형발전에 실은 대단한 장애일 수 있다.

都市의 巨大化는 세계 어디서나 피할수 없이 도로·교통·하수체계의 부족과 공공서비스의 악화를 가져온다. 주택공급에서도 부족사태만이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을 만들고, 해결 불가능한 밀집에 의해 환경황폐지구까지 만들어 낸다. 이렇게 되므로 도시주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미 「중병 앓는 수도권」을 체감하고 있는 중이긴 하나 이 문제가 얼마나 심화돼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巨大都市가 제기하는 문제들의 어려움은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특정한 모델이 없다는 것에도 있다. 한 국가안에서도 도시마다 그 극복책은 각기 다를수 밖에 없는것이 그동안 경험의 결론이다. 간단한 예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홍콩의 경우 세계의 1백대도시중 살인사건 사망률은 가장 낮다. 이 때문에 인구밀도와 도시의 사회적 질병은 본질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독일에서는 베를린과 뮌헨은 대중교통수단을 지지하지만 뒤셀도르프나 토로이스도르프는 이를 반대하고 승용차교통을 지지한다. 결국 각자가 자신의 전통과 문화인류학적 양식까지를 포괄하여 도시경영방안을 창출해 낼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측면에서 정책적대응의 미숙함을 갖고 있다. 위성도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으면서도 연계수송의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울의 범죄발생률은 전국 평균의 2배이고 年 14%씩 증가하고 있으나 치안력은 담보이다. 물과 공기의 오염이나 녹지의 보호등은 정책원칙마저 분명치 않다. 한국적 도시집중화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접근이 이제는 잔정으로 시작돼야 한다.

통계청 有權者 나이별 推計

이번 대선행선거는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20, 24세 「신세대」 유권자들이 전체 유권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 30대 유권자만으로도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고있기 때문이다. 또 평당수명이 늘어오면서 노년 유권자층도 그만큼 두터워 이들의 향방이 무시 못할 변수가

특히 이번 대선에서 처음 대선행을 뽑아보게 되는 72년 12월 19일 이전에는 20, 24세 유권자는 4백 60여만명(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도 시지역에서 자랐고 중·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어 본 경험이 많은 자를 화세 대라는 점에서 선거의 참여율, 투표성향 등이 판권을 모으고 있다.

大統領 투표 첫 참가 24세 이하가 15.7%

이번 대선행선거는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판정되므로 대선행을 뽑아보게 되는

校服 자용화 시대 性向 관심 65세 이상도 8%로 비증커져

대부분가 학생 발품한 14대 대선행선거의 총 유권자수(2천 9백 42만 9천 명)에다 통계청의 작성한 유권자 추계인구를 근거로 유권자를 연령별로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 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이 전체의 57.4%인 1천 5백 23만 9천 명에 이르러 집계됐다.

87년 대선 때 이 연령층을 포함한 20대 유권자 투표는 물론 선거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가 하면 유권자 자신들의 생활 양식에 있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에 대한 관심이 선거판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연령별 유권자수

	87년		92년	
	유권자수	유권비율(%)	유권자수	유권비율(%)
20~24	4,326,070	16.7	4,604,646	15.7
25~29	4,318,308	16.7	4,230,980	14.5
30~34	3,604,196	13.9	4,407,515	15.0
35~39	2,763,303	10.7	3,571,910	12.2
40~44	2,341,562	9.1	2,677,461	9.0
45~49	2,256,180	8.7	2,259,660	7.7
50~54	1,893,949	7.3	2,197,872	7.5
55~59	1,402,350	5.4	1,812,435	6.2
60~64	1,081,517	4.2	1,306,366	4.1
65세 이상	1,883,600	7.3	2,342,043	8.0
계	25,873,624	100	29,422,658	100

※92년도 유권자수는 통계청 인구통계에 의한 추계치

34만여명(8.0%)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90년 인구센서스를 보더라도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5%전반이다. 23.3%정도 높아졌다. <鄭鐵根기자>

大學街의 탈정치화 경향 등을 고려해볼 때 아직 미지수다. 한편 인구의 노령화 현상을 반영, 65세 이상 유권자들이 5년전보다 46만명 정도가 늘어난 2백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仁川·京畿를 포함한 수도



1991년 주요死因의 계절별 분포 (단위:명, %)

	계 (비율)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사망	199,673 (100.0)	50,551 (25.3)	47,820 (23.9)	48,129 (24.1)	53,173 (26.6)
결핵	4,002 (100.0)	1,078 (26.9)	906 (22.6)	937 (23.4)	1,081 (27.0)
각종암	38,351 (100.0)	9,250 (24.1)	9,744 (25.4)	9,704 (25.3)	9,653 (25.2)
고혈압성질환및 뇌혈관질환	37,376 (100.0)	9,765 (26.1)	8,004 (21.4)	9,049 (24.2)	10,558 (28.2)
심장병	18,052 (100.0)	4,962 (27.5)	4,230 (23.4)	3,999 (22.2)	4,861 (26.9)
당뇨병	4,526 (100.0)	1,244 (27.5)	1,087 (24.0)	1,028 (22.7)	1,167 (25.8)
폐렴·기관지염· 천식	5,080 (100.0)	1,299 (25.6)	1,079 (21.2)	1,105 (21.8)	1,597 (31.4)
교통사고	13,936 (100.0)	3,558 (25.5)	3,413 (24.5)	3,791 (27.2)	3,174 (22.8)
자살	3,069 (100.0)	903 (29.4)	892 (29.1)	703 (22.9)	571 (18.6)
연탄가스 <sup>2)</sup>	696 (100.0)	213 (30.6)	63 (9.1)	145 (20.8)	275 (39.5)
농약중독사 <sup>2)</sup>	1,118 (100.0)	290 (25.9)	385 (34.4)	267 (23.9)	176 (15.7)
의사 <sup>2)</sup>	2,490 (100.0)	443 (17.8)	1,306 (52.4)	461 (18.5)	280 (11.2)

註:1)봄(3,4,5月), 여름(6,7,8月), 가을(9,10,11月), 겨울(12,1,2月)  
2)연탄가스, 농약중독사, 의사에는 순수한 불의의 중독 및 불의의 의사 외에 자살·타살 등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

통계청 91년死亡원인分析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사망원인 분석 결과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交通사고 肝癌 사망 세계 1위

세계질병과 각종 암 사망률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통사고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통계청이 호적법에 의한 사망신고서와 실지조사서를 토대로 발표한 「91년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신고된 사망자는 총 23만7천1백38명으로 총인구수와 비교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백48.1명을 나타냈다. 이중 死因분류가 가능

(명) ▲각종 불의의 사고(72,2명) ▲심장병(49,5명) ▲고혈압성 질환(29,9명) ▲간암·간질환 및 심장병(28,8명) 등의 순이었다. 사망원인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통계에 수록된 32개 주요가들과 비교해보면 교통사고와 간암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

순환기질환-당뇨병도 늘어나



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

한 19만9천6백73명을 대상으로 사인구조(死因)를 분석한 결과 순환기 질환이 28.7%, 각종 암이 19.2%, 사고사로 인한 사망이 15.7%로 이들 3대死因群에 의한 사망이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명당 5백5.3명으로 가장 높고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명당 1백5.3명으로 3%의 순이로 질병사망자

23만7천여명 숨져... 10만명당 548명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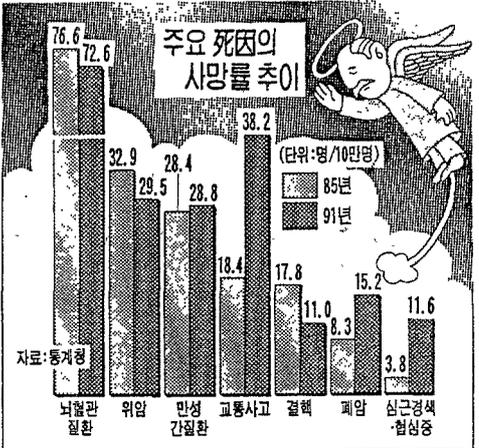
의 절반이 사인을 알지 못해 1년내에 사망했으며 5년미만 투병기간 비율이 전체의 86.9%를 차지했다. 특히 암의 경우 투병기간 1년내 사망이 54.9%, 1~4년인 37.9%로 5년내 사망하는 비율이 92.8%를 나타냈다. 간암은 투병기간이 가장 짧아 1년미만 사망이 65.8%를 차지했고 폐암도 5년내에 거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치명률(매장)이 84.3%, 화장이 15.5%로 매장이 월등히 높음 가운데 시지역(매장 79.4%, 화장 20.4%)보다 군지역(매장 90.4%, 화장 9.6%)의 매장이 높았으며 시도별로는 광주(95.3%)의 매장이 가장 높았다.

# 肝癌·교통사고死亡率 "세계 1위"

## 지난해 死因조사 公害영향 肺癌환자 계속늘어

우리나라 사망률의 3대 사망원인인 각종 암·교통사고·심장질환을 수반·심한·불의의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통사고·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91년도 사망원인 통계조사」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인 암은 72.6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암의 1위 사망원인인 폐암은 49.5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28.4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심장질환은 23.7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간암은 15.7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뇌혈관질환은 15.3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자살은 7.3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기타 사망원인은 1.3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수업연령의 위급·자살·중가용이 주목해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폐암은 전년 사망률의 1.1% 증가했다. 수반·심한·불의의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통사고·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91년도 사망원인 통계조사」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인 암은 72.6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암의 1위 사망원인인 폐암은 49.5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28.4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심장질환은 23.7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간암은 15.7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뇌혈관질환은 15.3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자살은 7.3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기타 사망원인은 1.3명(10만명당)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원에서 사망했는데 병원에  
서 사망하는 비율이 꾸준  
히 높아지고 있다.  
합계 사망자 전년 대비  
84.0% 증가한 15.7  
5%로 만성질환의 확산  
앞서며 만성질환의 악화  
자살·간암·심장질환으로  
보가 심한 사회문제  
대응을 지니고 있다.

전체 사망자 74.0%가  
암으로 92.0% 증가  
54.0%의 1만명 사  
200여 부류의 1만명 사

# 교통사고·유암사망률 세계최고

## 統計廳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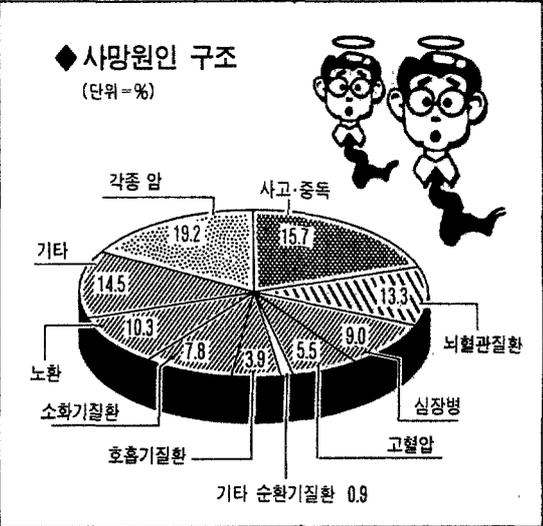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사망률과 수확기제를 보면, 고령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률도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사고와 유암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률도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사고와 유암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률도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死因암·腦질환·사고順

## 합심증·심근경색·당뇨병도 늘어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사망자수는 총 23만 7천 388명으로 이 중 유암이 13.3%, 심장병이 9.0%, 뇌질환이 8.6%를 차지했다. 교통사고는 7.7%, 당뇨병은 5.5%, 심근경색은 5.5%, 합심증은 3.9%를 차지했다. 유암 사망률은 10만명당 548명, 교통사고는 15.7%, 뇌질환은 3.7%로 나타났다. 유암 사망률은 10만명당 548명, 교통사고는 15.7%, 뇌질환은 3.7%로 나타났다.

◆ 사망원인 구조 (단위=%)



합심증·심근경색·당뇨병도 늘어  
합심증·심근경색·당뇨병도 늘어

# 10만명당 548명 숨져...男子가 훨씬많아

〈採擷德기자〉

# 교육비 지출이 소득 증가 앞질러

## 통계청 최근 10년간 변화조사

도시근로자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소득 증가를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교육비 지출은 가구주 나이가 45~49세일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4일) 최근 10년간 교육비 지출 추이의 변화에서 '91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5만7천8백원으로 전체 소비지출(77만9천6백원)의 7.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88년 1만3천7백원(5.8%)에 비해 4.2배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득은 3.7배, 소비지출은 3.3배 각각 늘어났다.

또 교육비 중 대학의 비율은 낮아지는데 반해 보충교육비 비중이 추세를 보였다. 보충교육비의 비중은 88년부터 급속히 높아져 90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가구원수별로 보면 가구원이 3인 이하인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8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1인 가구의 경우 유아원입학이나 피아노대

다. 그러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학령기에 있는 자녀 수도 많아 교육비 지출 규모는 컸다.

가구주 연령층별로 보면 교육비 중 보충교육비 지출은 35~39세와 40~44세에서, 일반입학은 45~49세와 50~54세에서 각각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충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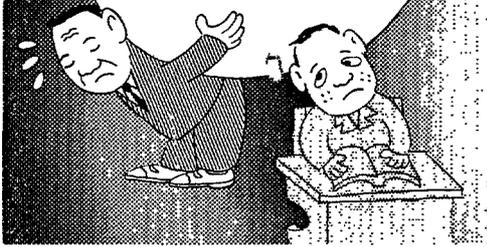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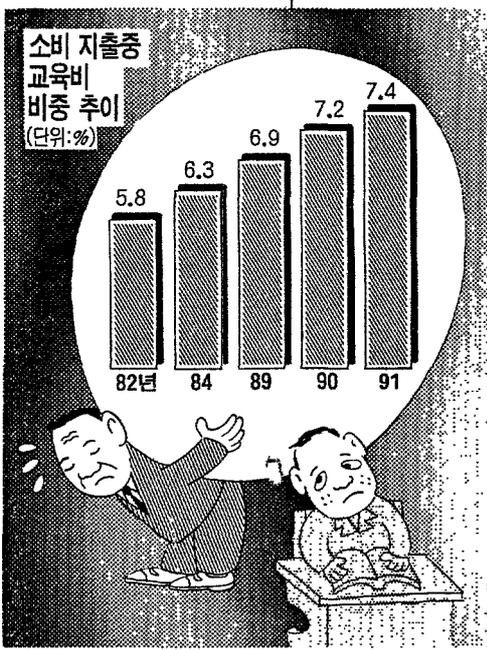
한편 작년도 전 도시가구 중 5.5%가 입학원비를 지출했으며 액수는 월평균 8만6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2만6천5백원인데도 전도시가구의 1.5배였다.

의정부시 교육비 지출은 5만5천3백원(서울 6만6백원), 춘천시 교육비 지출은 4만2천3백원(서울 5만7천5백원), 전주시 교육비 지출은 5만1천1백원(서울 5만7천8백원), 부기추진위원회를 사무처 회원비는 3만9천5백원(서울 4만8천8백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盧應植기자〉

## 10년새 4.2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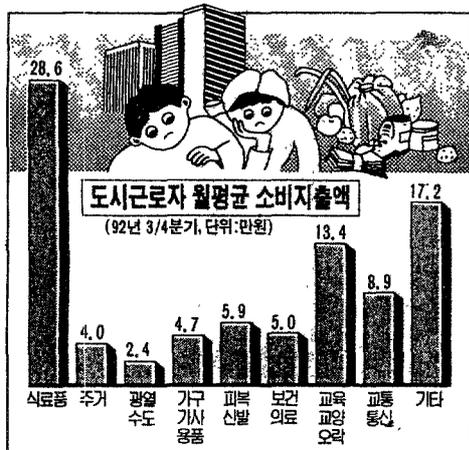
家長 45~49세 때 최다... 소득수준과 비례



# 고용 부진... 3分期들어 "둔화"

## 도시근로자 所得증가세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 3·4분기(7~9월) 중 가구별 월평균소득은 1백40만6천2백원으로 1년전보다 14.1%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2·4분기 증가율 17%에 비해서는 2.9% 포인트가 낮아져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통계청 발표 家計수지동향

경기침체의 여파로 도시근로자의 소득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가계의 실질소득을 나타내는 흑자비율도 소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 3·4분기(7~9월) 중 가구별 월평균소득은 1백40만6천2백원으로 1년전보다 14.1%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2·4분기 증가율 17%에 비해서는 2.9% 포인트가 낮아져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분기 증가율보다 2.9% P 낮아져

## 黑字 비율도 소폭감소

도시근로자의 소득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가구원 1인 이상 가구(1인 가구 제외)의 실질소득이 1년전에 비해 7.3% 늘어났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같이 소득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가구원 1인 이상 가구(1인 가구 제외)의 실질소득이 1년전에 비해 7.3% 늘어났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같이 소득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가구원 1인 이상 가구(1인 가구 제외)의 실질소득이 1년전에 비해 7.3% 늘어났다고 밝혔다.

가로 교육·교양 오락비가 25.1%로 가장 많이 늘어 소비지출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최근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가구·가사용품과 피복 신발에 대한 지출은 각각 3.3%와 4.2%씩 낮게 증가, 대부분이 가계가 「건축살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金卿赫기자】**

# 稅金等 非消費性 支出 작년보다 33.6% 증가

통계청 3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발표

## 월소득 140만 6천 2백원 한달지출 첫 100만원대 진입

한달지출 첫 100만원대 진입

지난 3분기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40만6천2백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23만2천7백원에 비해 14.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지출은 한달 평균 1백만8천6백원으로 前年同期の 87만7천8백원으로 14.9% 늘어 소득에 비해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따라 소득과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세금과 이자 부담 등 비소비지출은 크게 늘었다. 3분기 월평균 소득 증가율 14.1%는 지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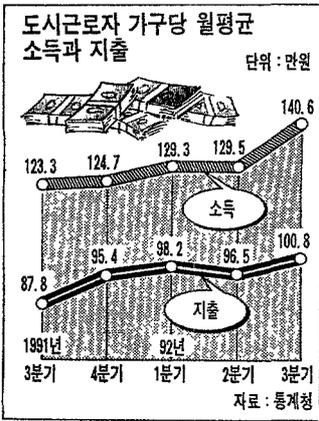
분기의 23.4%와 2분기의 17.0%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특히 가구당 취업자수의 감소에 따라 家口主의의 근로소득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지출은 한달 평균 1백만8천6백원으로 前年同期の 87만7천8백원으로 14.9% 늘어 소득에 비해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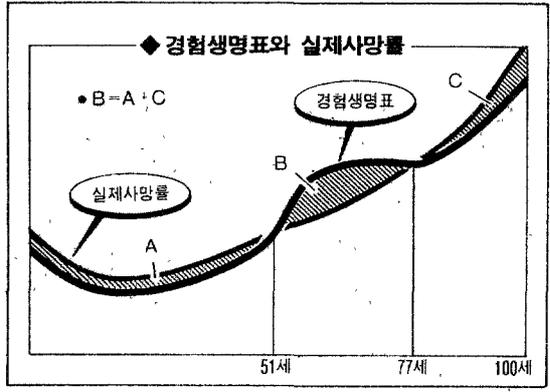
이는 경기부진에 따라 기업체의 고용이 감소, 가정의 2차 취업자인 주부·자녀들의 취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1백만8천6백원)은 처

음으로 1백만원대를 넘어섰으나, 이 가운데 소비지출은 90만1천4백원으로 13% 증가에 그치고 세금 등 비소비지출은 10만7천2백원으로 前年同期 대비 33.6%나 늘었다.



# 生命보험 統計 보다 비싼 편



## 우리나라 保險料 수준은...

보험료는 보험사에게서 받는 보험금의 총액(보험료총액)에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을 더한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보험금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보험금의 지급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보험사에게서 받는 보험금의 총액(보험료총액)에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을 더한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보험금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보험금의 지급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보험사에게서 받는 보험금의 총액(보험료총액)에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을 더한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보험금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보험금의 지급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보험사에게서 받는 보험금의 총액(보험료총액)에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을 더한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보험금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보험금의 지급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보험사에게서 받는 보험금의 총액(보험료총액)에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을 더한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보험금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보험금의 지급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보험사에게서 받는 보험금의 총액(보험료총액)에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을 더한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보험금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보험금의 지급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 경험생명표·실제死亡率 큰차이 51세 이후 특히 심해... 再검증 시급

보험료는 보험사에게서 받는 보험금의 총액(보험료총액)에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을 더한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보험금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보험금의 지급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보험사에게서 받는 보험금의 총액(보험료총액)에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을 더한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보험금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보험금의 지급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보험사들의 운영비용과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 1인 전력사용량仁川 1위

지난해 인구 1만명당 병원의 병상수는 大田이 42.5개, 인구 1천명당 공공도서관 장서수는 濟州가 2백95권, 인구 1만명당 대중음식점수는 관광지가 많은 江原이 74.6개로 각각 해당 분야에서 전국 최고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 우리고장 생활수준 얼마나 되나

# 서울·釜山 인구流出현상 농촌 노령인구 7% 넘어

통계청이 28일 발표한「지역별연도별인구추계」에 따르면 90년 기준 인구는 서울이 1만 7천 5백 32명으로 가장 많고 釜山 7천 1백 75명, 仁川 6천 7백 31명, 大邱 4천 8백 92명 등으로 대도시지역이 단연 높았으며 강원(44만), 충청(1백 87만)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市道간 인구의 불균형을 보며 6대도시의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釜山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3%인 14만 3천여 명이 집중되어 있다. 서울(10만 3천여 명), 釜山(4만 7천여 명)의 인구가 7천여 명을 넘어섰다. 仁川의 인구는 1천 5백 40만 명에 달하며 1인당 전력사용량도 전국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 지표**

설문부진 大邱 실업률 3.5%...전부 최고

서울 부산 給水量, 총합 전년의 2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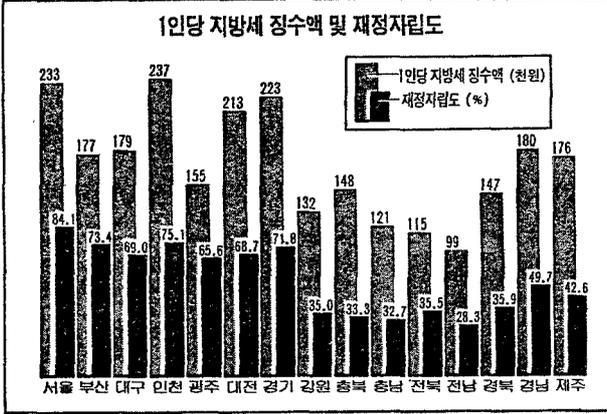
17세 날 학생 체중 서울 64. 제주 59.5kg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은 서울(3.4%), 釜山(3.3%), 大邱(3.7%), 仁川(4%), 濟州(4.4%) 순으로 높고, 1인당 전력사용량은 서울(11.7%), 釜山(11.1%), 仁川(10.8%), 大邱(10.1%), 濟州(9.8%) 순으로 높았다. 서울의 1인당 전력사용량은 1989년 대비 1.1배 증가했다. 서울의 1인당 전력사용량은 1989년 대비 1.1배 증가했다. 서울의 1인당 전력사용량은 1989년 대비 1.1배 증가했다.

1인당 전력사용량(원)은 서울(11.7), 釜山(11.1), 仁川(10.8), 大邱(10.1), 濟州(9.8) 순으로 높고, 1인당 전력사용량은 서울(11.7%), 釜山(11.1%), 仁川(10.8%), 大邱(10.1%), 濟州(9.8%) 순으로 높았다. 서울의 1인당 전력사용량은 1989년 대비 1.1배 증가했다.

1인당 전력사용량(원)은 서울(11.7), 釜山(11.1), 仁川(10.8), 大邱(10.1), 濟州(9.8) 순으로 높고, 1인당 전력사용량은 서울(11.7%), 釜山(11.1%), 仁川(10.8%), 大邱(10.1%), 濟州(9.8%) 순으로 높았다. 서울의 1인당 전력사용량은 1989년 대비 1.1배 증가했다.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大田이 42.5개, 인구 1천명당 공공도서관 장서수는 濟州가 2백95권, 인구 1만명당 대중음식점수는 관광지가 많은 江原이 74.6개로 각각 해당 분야에서 전국 최고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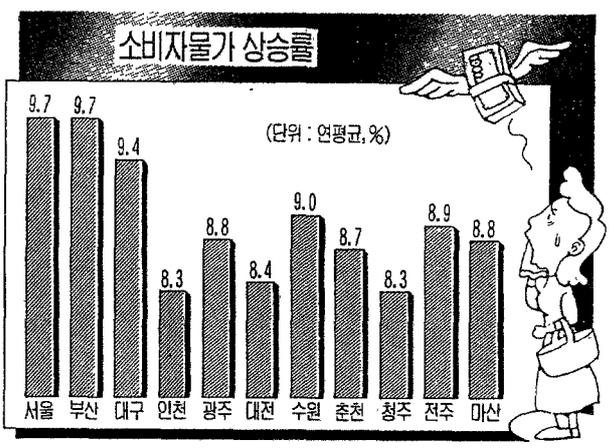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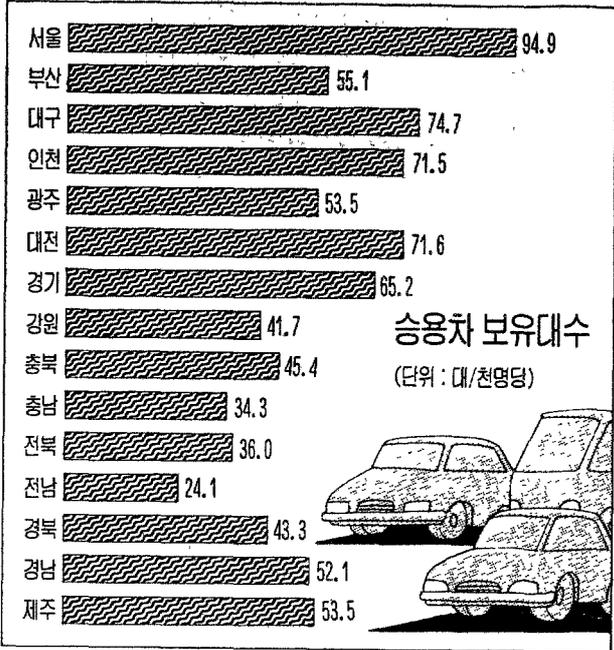
# 소비자물가 서울·충남

## 실업률 大邱·지방세 부담 仁川가장높아

### 전세값 상승 京畿·인구 대비 도서관장서 濟州이름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12월 물가동향」에 따르면 서울(94.9)을 비롯하여 부산(55.1), 대구(74.7), 인천(71.5), 광주(53.5), 대전(71.6), 경기(65.2), 강원(41.7), 충북(45.4), 충남(34.3), 전북(36.0), 전남(24.1), 경북(43.3), 경남(52.1), 제주(53.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2월 물가 상승률이 1.5%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2월 물가 상승률이 1.5%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2월 물가 상승률이 1.5%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2월 물가 상승률이 1.5%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물가 상승률은 34.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충남이 12월 물가 상승률이 1.5%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12월 물가 상승률이 1.5%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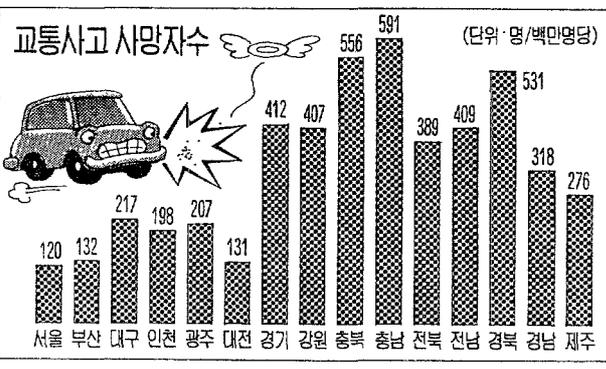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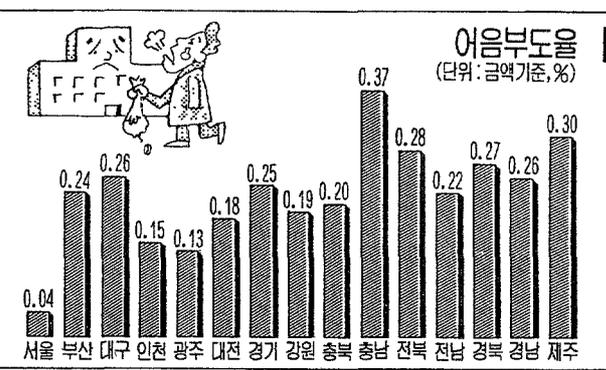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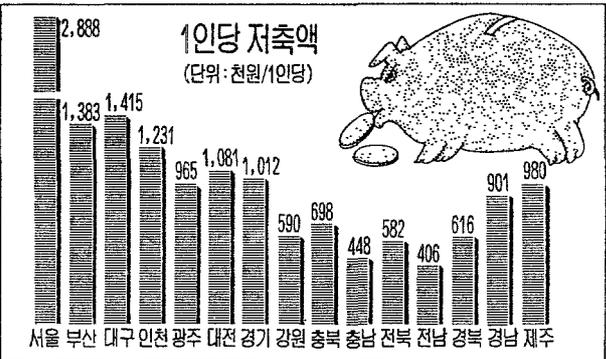
전국의 물가 상승률은 9.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이 12월 물가 상승률이 1.5%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12월 물가 상승률이 1.5%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水原최악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의 수원이 0.041로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은 0.041로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환 기자〉

# 9.7%로 공동1위

百만명당 輪禍사망 忠南 5백91명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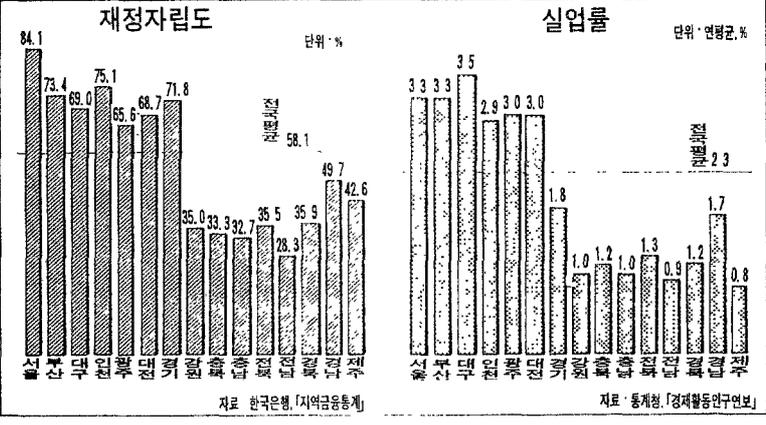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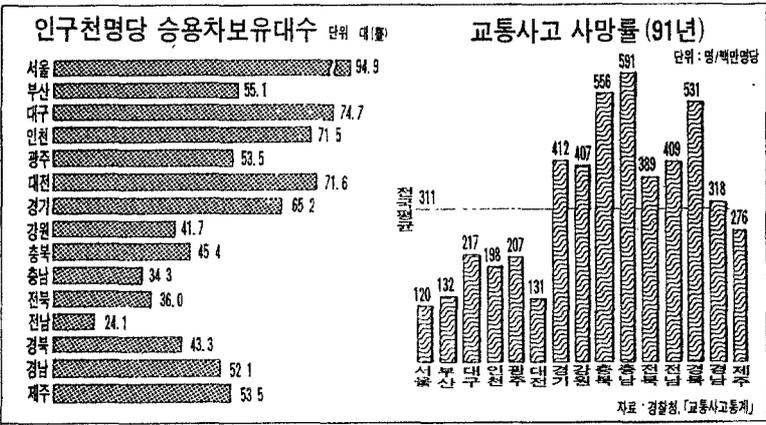


## 통계청 발표 '91년 지역통계연보

서울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생활 수준 높다는. 반면 경기도는 인구를 늘리는데 역사가 가장 짧다. 반면 경기도는 인구를 늘리는데 역사가 가장 짧다. 반면 경기도는 인구를 늘리는데 역사가 가장 짧다.

지방세 부담이 가장 많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수도권 대도시의 전세임대주택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은 전세임대주택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은 전세임대주택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가장 높았다. 서울이 가장 높았다. 서울이 가장 높았다. 서울이 가장 높았다. 서울이 가장 높았다.



천원씩을 내 지방세부담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88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별 세입(인구 1인당 기준)의 내용을 보면 대다수 지역은 1인당 세입이 100만 원 이하로, 서울이 1인당 14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세입의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항목별 최고·최저지역**

항 목	최 고	최 저
인구(千명)	서울(10,613)	제주(515)
인구밀도(명/km <sup>2</sup> )	서울(17,532)	제주(94)
노동인구비율(%)	경북(8.1)	제주(3.3)
실업률(%)	대구(3.5)	제주(0.9)
소비자물가(%)	서울(9.7)	부산(8.3)
전세임대주택가격상승률(%)	경기(8.7)	대전(-4.4)
전세임대주택가격하락률(%)	경기(143)	제주(7)
중소기업등록증명서발급률(%)	인천(7.5)	경기(4.8)
1인당전력사용량(kwh)	인천(554)	전남(344)
1인당승용차보유대수(대/천명)	서울(94.9)	충남(268)
1인당대중교통이용률(%)	서울(94.9)	전남(24.1)
1인당저축액(천원)	강원(74.6)	전북(44.6)
1인당생명보험금(백만원)	서울(2,888)	전남(406)
1인당생계급여(백만원)	서울(15.4)	충남(5.8)
1인당부도율(%)	충남(0.37)	서울(0.04)
재정자립도(%)	서울(84.1)	전남(28.3)
1인당지방세부담(천원)	서울(237)	전남(99)
고사1인당학생수(국민학교, 명)	인천(42.0)	전남(22.7)
17세남학생체중(kg)	서울(64.2)	제주(59.5)
1인당영양섭취량(kg)	서울(2.41)	충남(0.16)
1인당영양섭취량(회)	서울(2.41)	충남(0.16)
공공도서관장서(권/천명)	제주(295)	경기(83)
국민연금가입비율(%)	서울(17.4)	전남(2.7)
1인당생수(개/만명)	대전(42.5)	경북(26.6)
1인당생수(개/만명)	수원(0.046)	경남(0.017)
1인당생수(개/만명)	서울(2.9)	충남(1.1)
1인당생수(개/만명)	대구(2.9)	충남(1.1)
1인당생수(개/만명)	충남(591)	충남(120)

전체로 이 가운데 6대 도시가 25만 4천채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수도권시외곽 건설에 따라 경기지역이 전체를 23%인 14만 3천채가 건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1인당 저축액은 서울이 2백88만 8천원으로 전국평균(1백40만 7천원)의 두배가 넘고, 서울의 서울 집중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서울의 저축액이 대도시보다 50% 이상 전기를 많이

**대구-失業, 仁**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총 91명으로 가장 많고, 총 5백91명으로 가장 많고, 총 31명(등승용차 보유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사망률이 높고, 반면 서울이 1백21명으로 가장 적은 것을 비롯, 6대 도시가 2백명 안팎의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金鐘秀기자〉

# 物價 상승률 서울-釜山 으뜸

### 통계청 발표 「작년 지역통계연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과 부산으로 각각 9.7%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섬유산업의 부진이 계속된 대구가 3.5%로 가장 높았다. 또 서울과 부산은 총내역이 0.37%(금액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이 1인당 연간 23만 7

도시와 도지역, 또 대도시 및 도지역간에 경제력과 생활환경·복지수준 등에 여전히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은 1인당 저축액·재산자립도·1인당 일일수령·1

서울보다도 면모를 보였으나 일부면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게 높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등 환경·주택 등의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권을 끼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다른 도지역과 달리 대도시에 버금하거나

〈주민생활〉 도시지역의 주택전세값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인구유입이 많았던京畿가 8.7%로 가장 크게 올랐고 서울(6.1%), 인천(5.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신중주택수는 모두 61만 3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급수량 역시 서울 4백 52ℓ 등 대도시 지역이 대부분 4백ℓ를 넘는 반면道 지역은 3백ℓ 안팎으로 대도시보다 4분의 1가량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보유대수는 서울이 인구 1천명당 94.9대로 10명당 1대를 보유하는 수준을 보이고 대구·인천·광주·대전 등이 1천명당 70대 이상 의 승용차를 보유한 반면道 지역은 대부분 35~45대 수준 인 가운데 전남이 24.2대로 가장 적었다.

## 교통事故 사망-어음不渡 忠南 1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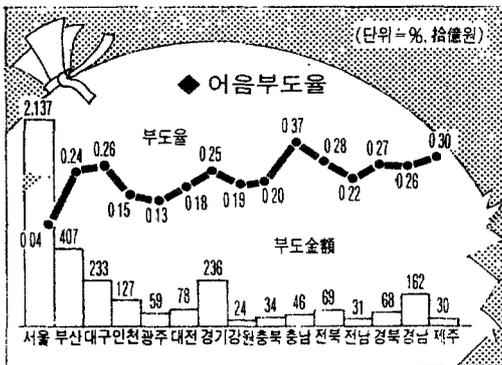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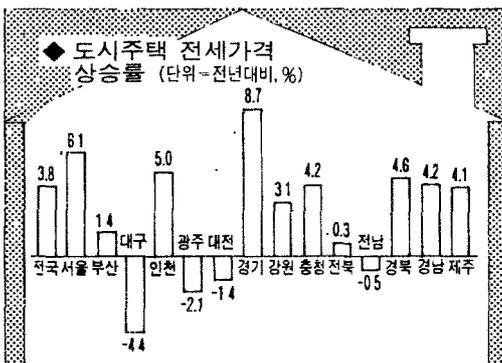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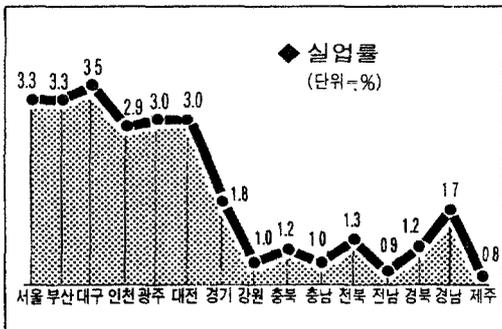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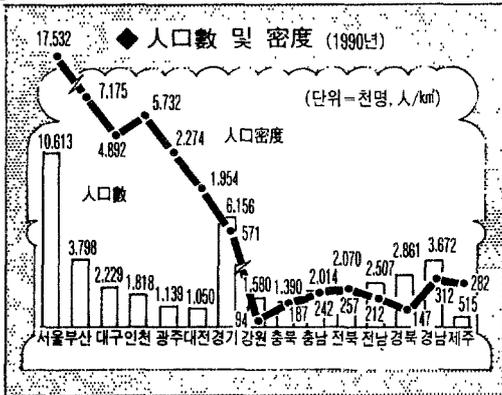
### 川-지방세 부담 가장 높아

평균 0.37%로 가장 높았으나 나머지 지역은 0.25~0.3%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만이 0.04%로 유일하게 전국평균(0.06%)보다 낮게 나타났다. 〈문화·환경〉 주민 한 사람당 영유아관람횟수는 서울이 연간 2.4회로 가장 많고 도지역에서는 모두 1번에 1편미만의 영화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주요도시의 대기오염도(아황산가스 기준)는 모두 허용기준치(0.05PPM)보다는 낮지만 수원(0.046PPM), 서울(0.043PPM), 대구(0.041PPM), 인천(0.041PPM)은 허용치에 육박하고 있어 대기

통계청 「지역統計연보」 발표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지역統計연보」에 따르면, 1990년 전국 인구는 4천 377만 9천 3백 82명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1천 5백 33원이었다. 서울의 인구는 1,753만 2천 2백 22명으로, 인구는 5개 도시의 집계가 전국 인구의 41.3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인구는 서울이 1,753만 2,222명, 부산 3,798, 대구 2,229, 인천 1,818, 광주 1,139, 대전 1,050, 경기 1,580, 강원 1,390, 충북 2,014, 충남 2,070, 전북 2,507, 전남 2,861, 경북 3,672, 경남 282, 제주 515명이다.



도시 전세값 안정... 수도권만 크게 올라 주택 61만채 건설... 京畿道가 23%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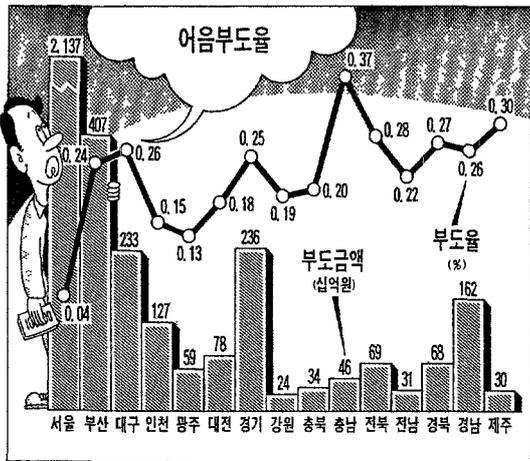
주택건설은 지난해 실적 추이만 8천여 가구로 대폭 감소했다. 수도권은 40만여 채로 7분의 1 정도 못미쳤다. 전국 평균 58.1%를 나타내며, 서울은 84.1%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5개 도시의 집계가 전국 주택 건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건설은 지난해 실적 추이만 8천여 가구로 대폭 감소했다. 수도권은 40만여 채로 7분의 1 정도 못미쳤다. 전국 평균 58.1%를 나타내며, 서울은 84.1%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5개 도시의 집계가 전국 주택 건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건설은 1만 1천 5백 33만 채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수도권은 4,377만 9,382 채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수도권은 4,377만 9,382 채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 不渡1위충남 失業1위대구

지역별 전국에서 불가차 부문대수나 1인당 저축액, 생계보장, 가업, 문화, 평생수, 재정자립도, 주민연속가입자수 1인당 수당, 주요 생활지표들의 서울이 단연 수위를 차지했으나, 반대로 인구밀도가 높고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91년 지역統計연보' 발표

또 1인당 지방세는 인천이 23만7천원으로 서울보다 가장 높았고 인구수와 비교하면 충청남도 천안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수입이 가장 많은 서울(3.3%), 대구(3.7%), 광주(4.4%)에 비해 대전(3.4%)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7.7% 증가한 서울(7.2%), 충북(7.1%), 전북(7.7%)이 인상률 기록을 갱신했다.

가상승률(서울부산이 9.7%)로 가장 높았고 대구(9.4%)는 전년도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반면 충청도와 인천이 8.3%로 가장 높게 올랐다고 나타났다. 전세기별 도시주택 전세가율은 지난해 경기(8.1%), 서울(6.1%), 인천(5%) 등 수도권 지역의 높은 오름세를 보인 반면 대구(4.4%), 광주(4.4%), 대전(4.4%), 울산(4.4%), 대전(4.4%)이 1.4%포인트 오름세를 나타냈다.

54위로 가장 높고 단군이 서(5)로 가장 낮고 경기(4)는 99(1)로 수도권 내 도시지역이 높았으며 전년도 대비 3백44명 증가했다. ▲공무원인사수도 1인당 1인당 수당(서울 4백52원, 부산 4백15원) 등 대도시지역이 많았고 충청(2백68원), 전남(2백87원), 제주(2백90원)의 순이었다. ▲승용차 보유수인 1천명당 승용차 보유대수는 서울이 94.9대로 가장 높고

것이라고 나타났다. ▲인구밀도 90명/기주인 구미(1만7천)가 가장 높고 7천5백32명/기주인 가장 낮고 다동(1만7천)이 부산(7천1백75명), 인천(5천7백31명), 대구(4천8백89명) 등으로 대도시지역이 단연 높았으며 대전(4천4백87명), 광주(4천4백87명), 울산(4천4백87명) 등이 4천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인당 인구의 비율(서울 3.4%, 부산 3.3%, 대구 3.7%, 광주 4.4%)은 대도시가 3~4%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년도 대비 7.7% 증가한 서울(7.2%), 충북(7.1%), 전북(7.7%)이 인상률 기록을 갱신했다.

▲주택건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합친 주택건설이 지난해 총 61만3천기주에 달해 이중 40%수준인 25만4천기주가 서울을 6대도시와 건설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경기(33%)가 전체의 23%인 14만3천기주 이상 건설했고 대구(17%)의 10만7천기주, 부산(15%)의 9만5천기주, 인천(14%)의 7만7천기주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건은 1인당 전세 사용은 지난해 인천이 5백 서울이 1백73.7명(0.07)로 가장 높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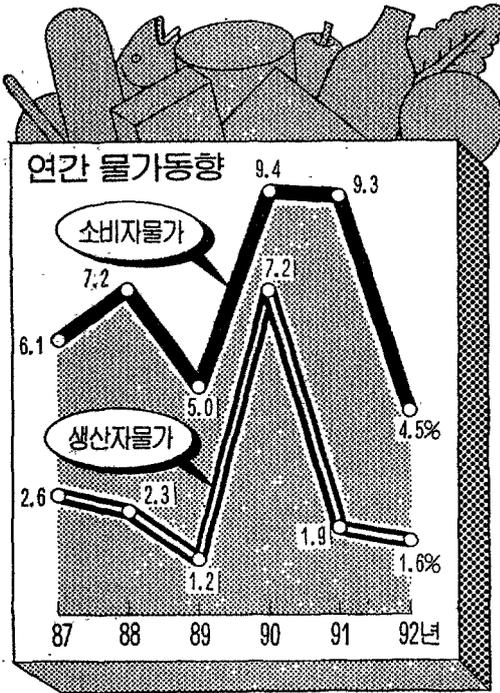
▲자동차사고 사망자 1백만명당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충남이 5백91명(0.0059)로 가장 높고 충북(5백56명), 경북(5백31명) 등의 순이며 서울이 1백20명(0.0012)로 가장 낮았다. 이가 대도시 지역의 경우 절충을 겸미한 출생의 영향을 받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孫熙植기자

# 올 소비자물가 4.5% 상승

## 6년만에 최저...水原 全州 가장 많이 올라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전체인 9.3%의 상승을 보였으며 생산자물가 역시 1.6% 상승을 기록했다.



또 내년에는 소비자물가가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각각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떨어졌으며, 이는 1987년 이후 5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경제안정화시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추경예산 기안과 함께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물가 상승률이 1.6%로 떨어졌으며, 이는 1987년 이후 5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잠바꾸니를 가도 안정세를 나타내자 22.5%나 올랐던 채소파일 생산품(新鮮식품)은 올해 8.3%가 하락했다.

고기와 20개 기본생활품은 5.7% 상승에 머물렀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중공업수산물 1.0%가 내렸고 △공업품 2.6% △공공요금 7.8% △개인서비스요금 8.6% △석유류 16.1% △집세 6.6%가 각각 올랐으며 △주택임대료 10.5% △고추 17.9% △무 14.8% 시내버스료 23.5% 사립대학입학료 17.6% 택시료 10.7% 파출부임 28.9% 푸유료 14.3% 주산화원비 10.6% 생산품 20.3% 등의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내림세를 보인 품목은 사과 34.5% 밀감 31.7% 돼지고기 12.3% 수박 33.3% 시멘트 16.7% 퍼스널컴퓨터 2.3% 인자 21.3% 잡부림 0.2% 등이며 일반미 같은 3.8%의 상승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水原 全州가 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大田 公州가 5.4% 大邱 5.0% 등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 0.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水原 全州가 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大田 公州가 5.4% 大邱 5.0% 등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 0.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水原 全州가 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大田 公州가 5.4% 大邱 5.0% 등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 0.3%에 그쳤다.

# 제조업 가동률

## 63개월만에 최저

### 산업생산 90년 1월 이후 첫 감소

#### 11월 산업활동 동향

최근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항목	7~9월	10월	11월
생산지내(실)	3.2	1.5	-1.4
제조업(제조업)	76.6	76.4	72.3
건설업(건설업)	13.9	14.0	15.9
서비스업(서비스업)	11.9	11.2	12.2

註 : 가동률과 실업률을 제외한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다.

월간 산업생산이 2년 10개월만에 첫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가동률은 5년 전인 72.3%로 전방위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3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한 제조업가동률은 72.3%로 전방위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3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한 제조업가동률은 72.3%로 전방위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11월 제조업가동률은 72.3%로 전년 동기 대비 4.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88년 11월 이후 10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1988년 11월 이후 10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11월 산업활동 동향  
7% 증가한데 그쳤으며, 그중 내수용 소비재출하는 내수위축의 여파로 4.5%가 감소했다.

실비투자관련지출을 포함하여 수출의 내림세를 보였으며, 규제가 완화된 건설부문만이 활기를 띠어 건축 허가면적이 59.7% 증가했다.

의용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고용부문의 선결제활동 참가율이 61.1%로 전년 11월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진 가운데 실업률은 2.3%를 기록해 작년 11월에 비해 0.1%포인트가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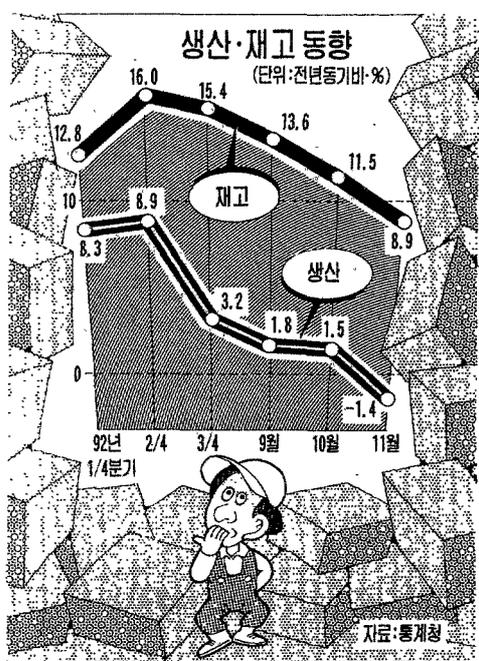
경기총합지수는 향후 2~3개월후의 경기동향을 말해주는先行지수가 전월에 비해 1.8% 증가했고,同行지수도 0.7% 증가했다.

블레칭은 11월 산업활동 동향과 관련 11월 중 산업활동은 생산 소비 투자부문의 위축양상이 계속되고 있어 재고감소 건축활기침연도 불투, 당분간 강한 경기회복세를 기대하는 어렵다.

11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작년 11월에 비해 1.4%가 감소, 지난 90년 1월 이후 2년 10개월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1988년 11월 이후 10개월만에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3.1%포인트 하락한 72.3%를 기록한 제조업가동률은 10월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88년 11월 이후 10개월만에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3.1%포인트 하락한 72.3%를 기록한 제조업가동률은 10월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 제조업稼動率 5년만에最低

## 11월産業동향 生産 前年比 1.4% 감소



<그림 : 金弘燦기자>

# 在庫증가율은 한자리수 景氣지수 회복국면으로

11월 중 산업생산이 2년10개월만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가동률도 5년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재고증가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진 등 재고가 크게 줄고 있어 앞으로 생산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고, 건설투자관련지표들도 금리인상,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중 산업생산이 1.8%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어 기대를 보이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중 산업생산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이 1.8% 증가한 반면, 1.4%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90년 1월 마이너스 0.1%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4분기 경제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4분기(3.1%)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고증가율은 지난 6월의 17.9%를 고비로 계속 줄어들어 11월에는 전년동월비 8.9% 증가하는데 그쳐 재고조정이 마무리되고 생산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고증가율은 지난 6월의 17.9%를 고비로 계속 줄어들어 11월에는 전년동월비 8.9% 증가하는데 그쳐 재고조정이 마무리되고 생산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로 여겨진다.

설비투자도 계속 위축된 모습인 반면 건설투자는 건설투자액안정주의에 힘입어 국내건설수주가 지난해에 비해 56.6% 건설투자액이 59.7%나 증가한 등 활기를 띠고 있다.

고용부문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약간 높아진 2.3%를 기록한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26만5천명 늘어나 고용상황이 경기침체를 반영,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産業活動動向 분석

# 「不況터널」 예상외로 두텁다

## 거의 모든 指標 적색경보 年間성장률 4% 臺 예고

### 소매제의 소비재 출하 큰폭 감소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1월 중 산업활동동향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가 불황의 긴 터널 한가운데와 있음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산업활동이 가늘어지는 여러 지표 가운데 재고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설비투자의 후진을 재해악의 계를 도입 증가율이 다소 상향되긴 했지만 그런 것 이외에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1월 중 산업활동동향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가 불황의 긴 터널 한가운데와 있음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산업활동은 전년 동기 대비로 1.4% 감소, 전월 대비로는 4.4% 감소라는 이례적인 상향까지 얻어내고 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

가성장이 4%대에 머물렀던 것을 보면 분명한 예고해주고 있다.

또 제조업 출하와 소비재 산업생산과 유사하게 극히 저조한 모습을 나타냈다.

대통령 선거준비에 따른 방치효과 기대도 불구하고 출하는 0.7%가 늘었으나 데그렸고 소비부문에선 도 소매 판매를 제외하면 내수 소비재 및 비내수 소비재의 출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수준이 크게 늘어나는 등 건설활동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지난 10월에 내 놓은 설비투자추진책의 효과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 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경기침체지수에서 향후 5~6개월의 경기동향을 말해주는 선형지수가 전월에 비해 1.8% 증가했고 동행지수도 0.7% 증가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외부세로 바뀐 하더라도 그 후를 자체 매우 저조할 것이라는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의 솔직한 진단이다.

주요 지표가 적색경보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 중 경제기획원이나 통계청의 외산과는 달리 우리가 막고 있던 수출이만 터널의 끝까지 전망이 두텁다고 것을 인정해준다.

우선 산업생산에서는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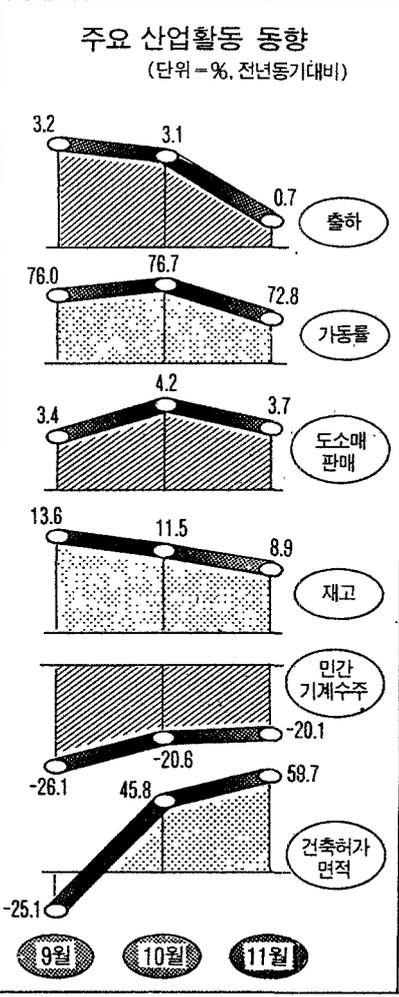
5~6%의 상승률을 유지해왔으나 그 이후 8월 4%, 9월 1.8%, 10월 1.5% 등으로 계속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다가 11월에는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써 4.4분기 경제성장이 저조할 것임은 물론 올해 연

경제기획원은 大 度도 끝난 만큼 우리 경제가 11월을 고비로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 것 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틀만 재고수준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내 려면 더는 건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분위기로 미루어볼 때 양방향으로 전개되는 경기의 最低점이 어디냐는 문제가 서서히 주요한 안건에 유지를 위한 적절한 성장책이 무엇 이냐는 쪽으로 기울어갈 것 이라는 전망이다.

〈徐廷禧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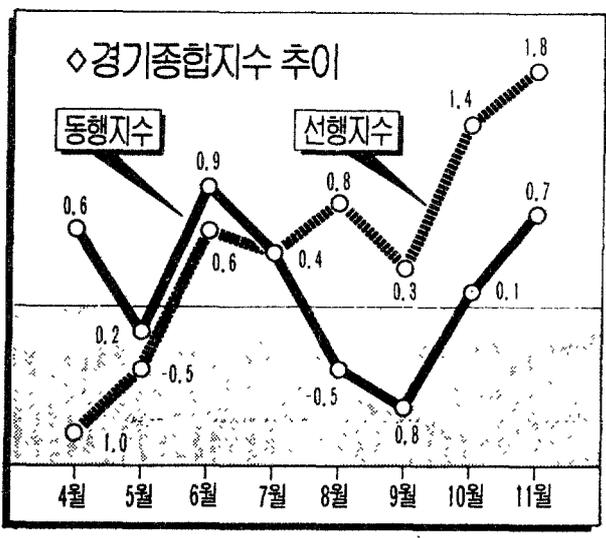


은달에 비해선 1.4% 감소했다. 3·4분기중 2·4분기에 비해 2.6% 줄어든 10월의 산업생산이 10월 중엔 0.9% 증가했다. 3.3% 늘어난 11월의 산업생산이 10월보다 1.4% 증가했다. 11월의 산업생산이 10월보다 1.4% 증가했다. 11월의 산업생산이 10월보다 1.4%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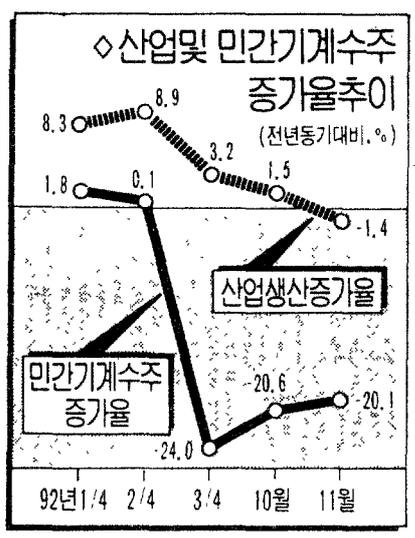
특히 4·4분기중 GN P는 3·4분기 못지않게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므로 보인다. 이같은 생산활동부진은 제조업가동률에서 잘 나타난다. 제조업가동률은 72.8%에 그쳐 80년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기업들이 공장가동률을 가급적 줄이면서 제품생산을 감축하고 있는 것이다. 11월 중엔 0.9% 증가했다. 3.3% 늘어난 11월의 산업생산이 10월보다 1.4% 증가했다. 11월의 산업생산이 10월보다 1.4% 증가했다.

# 경기전망 '赤色'서

민간기계受注도 7월 고비로 증가세로



않았다. 기업의 출하가 감소하거나 재자리를 이라 는 것은 기업들이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11월 중엔 3.3% 감소했다. 11월 중엔 3.3% 감소했다. 11월 중엔 3.3% 감소했다.



진정세를 편 이후 계속 줄어들지만 하던 건축비가 45.8% 높아졌다. 11월 중엔 5.9%나 늘었다. 특히 산업용건물의 경우 지난 7월 중엔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된 이후 건축비가 96.9%나 증가했으며, 주택 건축비가 4.4분기

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으로의 경기를 말해주는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10월에 1.4% 증가한 이후 11월 중엔 1.8%로 높아졌다. 다시말해서 경기가 내려가는 추세는 일단 멈추었고 앞으로의 경기전망이 '赤신호'에서 '黃色신호'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기침체현상이 워낙 심각해져서 지속돼 왔기 때문에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11월이 경기순환곡선의 轉換點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회복의 속도는 차기 정부가 내놓을 국정공약과 경제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崔性範기자】

11월 산업활동동향이 뜻하는 것

「산업경기는 최악의 상 태이지만 회복기미가 서 서 경기의 침체를 반영, 일반 히 보인다.」

11월중 우리경제의 상황 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 당초 3·4분기로서 예 상했던 경기의 저점이 10 월 11월까지 길게 늘어져 있지만 水南위로 부상할 준비는 돼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워낙 심플경제가 나빠져 있는 상태라 경기 가 상승국면에 진입하더라도 그 회복의 속도는 매우 더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업경기는 침체 의 차원에서 벗어난 최악 의 상태다. 11월중 산업생 산은 前月에 비해 4.4% 나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

黄色 신호로

타지 않은 신품품 출하량 의 업종도 전년도에 비해 생산을 줄여 불황이 기업 체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 자들에게까지 불고후 확산 돼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생산을 하지 않았으니 내놓을 제품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11월중 출하는 前月에 비해 3.3% 줄어 들었으며, 지난해 11월에 비해선 0.7%밖에 늘지

않았다. 11월중 도소매판 매액에서도 잘 드러난다. 11월중 도매판매액은 음료 농업용기계 건축재료 등을 중심으로 前月에 비해 3 %나 줄어들었고, 소매판 매액도 백화점을 중심으로 前月에 비해 0.4% 줄어 들었다. 소위 연말경기가 완전히 실종돼 기업은 물 론, 일반국민들의 주머니사 지가 매우 나빠졌음을 반

영하며 나섰다는 얘기도. 기업활동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최악의 상태를 보이 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방영 측면도 만 우선 앞으로의 건설경기 를 예고하는 건축허가면적 이 크게 늘어났다. 건축규 제를 골자로 한 건설경기

중 주택건축허가물량을 추 가배정할 때 현안이 무려 1백24%나 늘어나는 폭증 세를 보였다. 특히 내년부 터는 상업용건물에 대한 건축규제가 사실상 철폐되 기 때문에 그동안 늘려있 던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의 실비투자 동향을 예고하는 기계수주 및 기계류수입허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를 어서의 심각한 설비투자부 진현상을 반영, 지난해 같 은 기간에 비해선 감소세

보인다. 현 경기 상황은 극도로 나쁘지만 회복의 조짐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종합지수에서도 이 점은 잘 나타난다. 현재의 경기를 말해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 이후 6월을 제외 하곤 계속 前月比 「마이너 스」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데 이어 11월중엔 0%를 나타냈다. 이는 그동안의 경기침체현상이 11월중에도 계속됐으나 더 이상 하

不況터널底點： 지표回復기미

전축허가면적늘어 건설景氣호전예고

## 통계보도기사모음집

---

발행일 : 1994년 11월  
발행인 : 이 강 우  
발행처 : 통 계 청(T. 222-1829~30)

☎ 135-08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

인쇄처 : 강문인쇄사(294-6651~3)